

加減葛根葱白湯(가감갈근총백탕)

經劑의 項 參照

加減復脈湯(가감복맥탕)

陽病治陰의 項 參照.

加減葳蕤湯(가감위유탕)

<養陰解表>의 項 參照.

髌骨(가골)

髌骨의 項 參照.

假熱(가열)

病因과 病理는 모두 寒에 屬하는데, 도리어 熱의 假象을 나타내는 것을 말함. 眞寒假熱의 項參照.

茄子疔(가자질)

「陰挺」의 項 參照.

髌疔(가척)

眇의 項 參照.

假寒(가한)

病因과 病理는 모두 熱에 屬하는 데, 도리어 寒의 假象을 나타내는 것을 말함. 眞熱假寒의 參照.

角(각)

<五不女>의 項 參照.

角弓反張(각궁반장)

病人의 頭項이 強直하고, 腰背가 攣혀져서, 마치 角弓처럼 後向으로 彎曲된 것을 말함. 이는 風病 或은 熱邪가 熾盛하여 動風하는 一種의 症狀이다. 驚風, 破傷風 및 多種病因에 依해 惹起되는 腦炎, 腦膜炎 등에서 볼 수 있다.

脚濕氣(각습기)

足指에 생기며, 濕熱의 下注 或은 濕毒邪氣에 接觸되므로 發한다. 처음에는 足指사이에 小水疱가 생겨서 몹시 가렵고, 擦破되면 汁이 나온다. 局部에 脫屑 或은 結痂가 생긴다. 反復해서 足指間에 濕爛이 發하므로, 水潰瘡이라고도 함. 濕脚氣는 항상 續發性으로 感染되기 쉽고, 重症이면 滲出液이 현저하게 많아지며, 特受寒 냄새가 나고, 局部의

皮膚(足指의 屈側, 指根에 가까운 部位에 많음)가 擦破되어 紅色糜爛面을 露出하기 쉽고, 局部가 漸腫하여, 甚하면 발등까지 붓는 것을 臭田螺라 한다. 또한 香港脚이라고도 함. 이밖에 또 다른 一種의 濕脚氣가 있는데, 足指間이 乾痒하고, 局部의 皮膚가 粗糙하며 脫屑이 되고, 氣候가 寒冷하면 쉽게 뜬다(皸裂이 생김).

肝(간)

五臟의 하나, 肝은 血液을 貯藏하는 臟器이며, 全身의 血液分布에 대한 調節作用을 한다. 肝은 性質이 木과 같으며 疏泄 條達(條達이란, 本來 樹木이 무럭무럭 生長하고, 枝條가 暢達함을 形容하는 것이다. 人體에 關聯시키면, 肝氣의 條達로써 氣血이 比較的 舒暢해진다. 條達의 前提는 肝氣의 疏泄作用에 依存한다. 肝의 疏泄은, 또한 脾胃의 消化를 돕고, 脾氣의 散精 등의 作用을 돕는다.)을 主宰하고, 抑鬱을 忌한다. 그렇지 않으면 쉽게 肝氣鬱結의 病症을 惹起한다. “肝主謀慮”란, 肝이 또한 中樞神經系統의 活動과 有關함을 뜻하는 것이다. 肝이 情志에 關해서는 「怒」를 主管하는바, 精神刺戟을 받으면 懊怒, 頭脹 等症을 일으키기 쉽다. 肝은 또한 筋의 活動을 主管하여(所謂“肝主筋”), “罷極之本”(사람이 疲勞에 견딜 수 있게 함)이 된다. “肝開竅於目”으로 眼病은 肝에서 論治해야 할 경우가 적지 않다.

齦(간)

齒根을 싸고 있는 肉을 말함. 즉 齒齦이다. 足陽明胃經이 齒根으로 入한다. 齒와 齦의 어떤 病症은 相互 影響을 미친다.

齦(은)

牙肉이라 俗稱함. 齒根部를 싸고 있는 口腔粘膜 등의 組織. 잇몸.

肝,其華在爪(肝,기화재조)

「素問·六節臟象論」에서, “肝者, … 其華在爪”라 하였다. 「華」는 榮華가 外部에 나타난다는 뜻이고, 爪는 指(趾)甲을 말함. 「爪爲筋之餘」(筋은 肝臟의 精氣의 所生이며, 爪의 營養의 來源은 筋과 같다. 「爪爲筋之餘」라는 것은 爪도 肝藏의 精氣의 所生임을 뜻한다)라고 하는데, 筋은 肝이 主管하는 것이며, 肝과 筋의 虛實情況이 爪甲의 變化에서 反映된다. 무릇 筋力이 健壯하면 爪甲이 대개 堅韌하고, 筋衰無力하면 爪甲이 대개 薄軟하다. 肝의 藏血機能이 正常으로 供血이 充分하면 爪甲이 透紅하고 光澤이 있으며, 肝血이 不足하면 指甲의 色澤이 枯槁한다. 故로 指(趾)甲의 望診은 肝과 筋의 生理·病理를 判斷함에 一定한 參考價値가 있다.

肝,體陰而用陽(간,체음이용양)

「體」는 일반적으로 實體 或은 實質을 뜻하며, 「用」은 作用과 機能을 말함, 肝은 藏血之臟이며, 血은 陰이므로 肝體는 陰이다. 肝은 疏泄을 主管하며 相火가 內寄하여 「風木之臟」으로서 風動火化하기 쉽다. 肝은 또 筋(筋腱)의 活動을 主管하며, 이러한 機能 作用 및 病理의 情況을 陰陽의 觀點에서 分析하면, 動에 치우치고 熱에 치우쳐 陽에 屬하므

로, 肝에는 「體陰而用陽」(實體는 陰이고, 機能은 陽이다)의 說이 있다.

肝疳(간감)

五疳의 하나이다. 乳食의 失調로 因해, 肝經이 受熱한 所致이다. 主要症狀은, 消瘦하고, 腹脹하며, 面色이 靑黃하고, 多汗하며, 下痢回數가 많고, 糞便中에 鮮血이나 粘液이 섞이며, 搖頭하고, 눈을 비비며(揉目), 夜盲하고, 甚하면 眼睛을 뜨려고 하지 않는 等이다.

肝開竅於目(간개규어목)

「素問·金匱眞言論」에서 “肝竅於目藏精於肝”이라 하였고, 「靈樞·脈度篇」에서 또 “肝氣通於目, 肝和則目能辨五色矣”라 하여, 肝臟의 精氣가 目竅로 通하여, 視力의 強弱이 肝과 直接 關係가 있음을 說하였다. 또한 「素問·五藏生成篇」에서 “肝受血而能視”라 하여, 視力이 肝血의 調節機能과 有關한 것으로 보았다. 만약 肝血이 不足하면 目이 養分을 잃어, 兩眼의 乾澁, 視力減退 혹은 夜盲症을 발한다. 肝火가 上炎하면 目赤 多眵를 常見한다. 적지않은 眼病이 대개 肝과 有關한 것으로 認識되어, 肝의 治療에 着手하므로 「肝開竅於目」의 說이 있다.

肝經實火(간경실화)

「肝火上炎」의 項 參照.

肝厥(간결)

肝氣가 厥逆하여 上衝하는 病證이다. 主要症狀은 手足이 厥冷하고 嘔吐眩暈하며 癰瘤과 같은 狀態로 人事不省이 되는 等이다. 患者가 平素에 陰虛肝旺하여 通常 精神的 刺戟을 받음으로서 誘發된다.

肝厥頭痛(간결두통)

厥頭痛이라 略稱한다. 肝氣의 失調로 因해 惹起되는 內傷性인 頭痛중의 한 種類이다, 그 중 怒氣傷肝이나 肝氣가 上逆하여 腦로 上衝해서 發作하는 頭痛을 肝厥頭痛이라하며 疼痛이 언제나 左則에 甚하고 脇痛을 隨伴한다. 平素 胃氣가 虛寒하여 肝胃의 不和를 招來하고 肝氣에 胃中の 寒濁한 氣가 挾在하여 厥陰經脈으로 上衝해서 頭巔頂痛, 四肢厥冷, 涎沫嘔吐等症을 나타내는 것을 厥陰頭痛이라 한다.

肝氣(간기)

①肝臟의 精氣를 말함. ②病症의 名稱. 常見症狀은, 兩脇이 氣脹疼痛하고 胸悶不舒한 것으로, 比較적 많이 볼 수 있는 兼症은, 一部 消化機能紊亂의 症狀이다.

肝氣犯脾(간기범비)

「肝氣犯胃」의 項 參照.

肝氣犯胃(간기범위)

肝氣가 偏亢하므로 疏泄이 지나쳐서 脾胃에 影響을 미치어 消化機能을 紊亂케 하는 것을 말함. 「肝氣犯脾」라고도 함. 臨床表現은, 한편으로 肝氣症狀로서, 頭眩 脇痛 易怒 胸悶 小腹脹 脈弦 등을 發하고, 또 한편으로는 脾胃症狀로서, 胃脘痛 吐酸 厭食 腹脹 大便泄瀉 등을 發한다. 만약 病情이 遷延되어 비교적 長期에 걸쳐 協調가 안되는 것을 「肝脾不和」라고 하며, 慢性胃炎, 胃十二指腸潰瘍病, 胃腸神經症, 肝炎, 肝硬化 등의 疾病에서 볼 수 있다.

肝氣不足(간기부족)

「肝氣虛」의 項 參照.

肝氣不和(간기불화)

肝臟의 氣機가 不和하여 疏泄이 太過해서 惹起되는 病變을 말함. 主要症狀은 躁急易怒, 胸脇脹滿하고, 甚하면 作痛하며, 少腸脹痛하고, 婦女이면 乳房脹痛 月經不調 등이 있다. 만약 肝氣가 太過하면 脾胃에 影響을 미치어 嘔惡 泄瀉 등의 消化不良症狀을 나타낸다.

肝氣逆(간기역)

肝氣가 지나치게 鬱結하여 上逆 或은 橫逆함을 말함. 上逆하면 眩暈頭痛 胸脇苦悶 面赤耳聾하고, 甚하면 嘔血한다. 橫逆하면 腹脹 腹痛 噯氣吞酸을 發한다. 「肝鬱」의 項 參照.

肝氣鬱(간기울)

「肝鬱」의 項 參照.

肝氣鬱結(간기울결)

「肝鬱」의 項 參照.

肝氣通於目(간기통어목)

「肝開竅於目」의 項 參照.

肝氣虛(간기허)

「肝氣不足」이라고도 함. 肝臟自體의 精氣가 虛損하면 언제나 肝血不足이 兼發한다. 主要症狀은, 安眠에 華色이 적고, 唇淡乏力하며, 耳鳴難聽하고, 恐懼하기 쉬운 등이다.

肝膽濕熱(간담습열)

濕熱의 邪가 肝膽에 蘊蒸된 病變을 말함. 主要症狀은, 寒熱口苦, 脇痛, 腹痛, 惡心嘔吐, 腹脹厭食, 皮膚・鞏膜의 發黃, 小便黃赤, 舌苔黃膩, 脈弦數 등이다. 急性黃疸型肝炎, 膽囊과 膽管炎症, 膽結石 등의 疾患에서 多見된다.

肝勞(간로)

五勞의 하나이다. 精神的 刺戟으로 인해 肝氣가 損傷된 所致이다. 主要 症狀은 視物이 不明하고 兩脇이 胸部로 당기며 아프고 筋肉이 弛緩하며 活動이 困難하다.

肝痺(간비)

五臟痺症의 하나이다. 主要症狀은 頭痛하고 睡眠중에 驚夢이 많으며 渴飲하고 多尿하며 腹脹하고 腰痛 脇痛하며 足冷하는 等이다. 古人은 藏象學說의 觀點에서 本病이 筋痺가 日久不愈한데 다시 邪氣를 感受하여 邪氣가 內積된 所致로 認識하였다. 예컨데 素問·痺論에서 “筋痺不已 復感於邪 內舍於肝”이라 하였다.

肝脾不和(간비불화)

「肝氣犯胃」의 項 參照.

肝生於左(간생어좌)

「素問·刺禁論」에서 「肝生於左」라 하였다. 여기서 「左」는 主로 肝의 行氣部位를 말한다. 肝氣는 上昇을 主管하며, 行氣는 左에 있다. 元의 滑伯仁은 「十四發揮」에서 “肝之爲臟……其治在左, 其臟在右脇, 右腎之前 併胃着脊之第九椎”라 하였다. 故로 「肝生於左」란 肝臟自體의 所左部位를 말하는 것이 아니다.

肝水(간수)

「五水」의 하나. 脇下와 腹部가 脹滿疼痛하고, 轉側할 수 없으며, 尿量이 時多時少하다.

肝受血而能視(간수혈이능시)

「肝開竅於目」의 項 參照.

肝腎同源(간신동원)

①肝과 腎은 相互 滋養하는 關係가 있다(所謂「肝腎相生」). 肝의 疏泄 條達과 血量의 調節機能은 腎陰의 滋養에 依存한다. 腎陰의 再生은 또 肝의 疏泄을 通해야 하며, 그리하여 腎에 貯藏된다. ②肝은 藏血하고, 腎은 藏精한다. 肝腎이 同源이므로 精血도 同源이다. ③肝과 腎에는 함께 相火가 있다. 相火는 命門에서 來源하므로 이렇게 말한다. 肝腎同源을 「乙癸同源」이라고도 한다. 이는 古人이 臟腑를 天干과 相配시켜 말한 것으로, 乙은 屬木·屬肝이며, 癸는 屬木·屬腎하므로 이름이다.

肝腎相生(간신상생)

「肝腎同源」의 項 參照.

肝腎虧損(간신휴손)

「肝腎陰虛」라고도 함. 肝과 腎은 生理上 相互 資生하는 密接한 關係이 있다. 腎陰不足은 必然的으로 肝陰不足을 誘發하며, 肝陰不足도 腎陰虧損을 招來한다. 故로 臨床上, 肝腎陰虛의 症狀은 언제나 同時에 出現한다. 例컨대, 眩暈 頭脹 視物不明 耳鳴 五心煩熱 遺精 失眠 腰膝酸痛 舌紅少津 脈弦細數或細而無力 等이다. 貧血 神經官能症(노이로제), 耳源性眩暈, 月經不調 等の 內傷雜病 或은 急性熱病의 末期에 볼 수 있다.

肝實(간실)

일반적으로 肝의 實證을 말하며, 肝寒·肝熱·肝火·肝氣 等이 實證을 包括함. 主要特徵은, 性情이 躁急易怒하고, 兩脇下가 疼痛하면서 少腹이 땅긴다. 「肝寒」, 「肝熱」, 「肝火」, 「肝氣」 等の 項 參照.

肝陽(간양)

主로 肝의 몇가지 機能活動面에서의 變化情況을 말함. 正常狀況下에서는 肝陽과 肝陰이 相對的平衡을 維持한다. 만약 肝陰이 虛하여 陽을 制할 수 없으면 「肝陽上亢」이 되어, 頭痛·眩暈·易怒·耳鳴·失眠 등의 症狀을 일으킨다.

肝陽上亢(간양상항)

「肝陽偏旺」이라고도 함. 腎陰이 肝을 滋養하지 못하거나 或은 肝陰이 不足하여 陰이 陽을 抑制하지 못하면 肝陽이 偏旺하여 上亢하게 된다. 主要症狀은 頭眩 頭痛 面赤 眼花 耳鳴 口苦 舌紅 脈弦滑或弦細 等이다. 高血壓病에서 多見된다.

肝陽偏旺(간양편왕)

「肝陽上亢」의 項 參照.

肝陽化火(간양화화)

「木鬱化火」의 臨床表現과 基本的으로 같다. 이는 「肝陽上亢」이 더 進行發展한 것이다. 陽이 亢盛하면 熱이 되고, 熱極하면 生火한다. 「肝陽上亢」, 「木鬱化火」, 「肝火」 等の 項 參照.

肝與膽相表裏(간여담상표리)

「肝合膽」의 項 參照.

肝逆頭痛(간역두통)

肝厥頭痛의 項 參照.

肝熱(간열)

肝에 熱邪가 있거나 或은 氣鬱 化熱하여 惹起되는 病變을 말함. 主要症狀은, 煩悶 口苦 口乾 手足發熱 小便黃赤 等이며, 重症이면 狂躁 不得安臥 等の 症狀을 나타낸다.

肝惡風(간오풍)

「素問·宣明五氣篇」에서 “五臟所惡…肝惡風”이라 하였다. 肝은 「風木之臟」이므로 몇가지病症, 例컨대 老人中風, 小兒驚風, 一切風濕, 麻木, 搔痒, 瘰, 癰 등의 病因病理가 往往 風邪 및 五臟中の 肝과 密接한 關係가 있다. 肝은 또 筋의 活動을 主管하는데, 風이 勝하면 筋攣 抽掇한다. 또한 肝風은 化熱 化火하기 쉬우므로 「肝惡風」의 說이 있다.

肝癰(간옹)

肝臟에 생기는 癰을 「肝癰」이라 함. 本病은, 대개 肝鬱化火, 肝膽不化, 或은 膏粱厚味, 濕熱蟲積이 肝에 蘊結되기 때문에 생기며, 또한 挫閃 跌仆 等の 外傷으로 血絡이 瘀阻 鬱結되어 생기기도 한다. 처음에는 右側脇肋部가 隱痛하다가, 漸次 疼痛이 劇烈해져서, 甚하면 右向으로 側臥할 수 없고, 呼吸에 影響을 미친다. 發病의 急慢은 一定하지 않으며, 항상 惡寒發熱 등의 全身症狀이 있다. 痰火로 因해 생긴 경우는, 發病이 비교적 緩慢하며, 대개 全身症狀이 없고, 脈象이 弦滑하다. 瘀血로 因해 생긴 경우는, 疼痛이 비교적 甚하고, 寒熱이 없으며, 脈象이 대개 弦澁하다. 그후, 肝臟이 漸次 腫大하여 腹滿 攣急하고, 患者가 몹시 消瘦하며, 最後에는 肝臟의 局部이 化膿하여 柔軟해진다. 제때에 治療하지 않으면, 膿腫이 潰破되어 膿이 코오피色을 띠고, 臭穢하며, 或은 膿血의 咳吐를 併發하고, 或은 劇烈한 腹痛과 膿血의 下痢 및 虛脫 等證을 併發한다. 모두 重病의 表現이다. 本病은 現代醫學의 肝膿瘍의 類이다.

肝鬱(간울)

「肝氣鬱」, 「肝氣鬱結」의 略稱. 肝에는 疏泄의 機能이 있고, 昇發 舒暢을 좋아하는데, 情志不舒나 惱怒로 因해 傷肝하거나 或은 其他 原因으로 氣機의 昇發과 疏泄에 影響을 미치어 肝鬱의 病症을 惹起하게 된다. 그 臨床表現은 主로, 兩脇이 脹滿하거나 或은 隱隱히 疼痛하여, 胸悶不舒하고, 또한 脇痛이 情緒의 變化에 따라 增減된다. 肝氣가 咽喉로 上逆하면 咽中이 異物로 막힌 듯한 感覺이 생긴다. 肝氣가 橫逆하여 脾胃를 侵犯하면, 胃氣가 下降하지 못하여, 脘痛 嘔逆하고, 酸水を 吐하며, 飲食不振이 되며, 脾氣가 失調되어 腹痛 腹瀉를 發한다. 肝氣가 鬱結하여 氣滯 血瘀하면 脇部에 刺痛이 固定되며, 或은 漸次 癥瘕 積聚가 생긴다. 이밖에 月經不調, 神經官能症(노이로제), 慢性肝膽疾患, 肝脾腫大, 消化不良 等の 病症도 언제나 肝氣鬱結과 有關하다.

肝鬱脾虛(간울비허)

肝氣의 鬱結으로 因해, 疏泄機能이 障礙되어, 脾胃의 消化機能이 紊亂해져서, 脇痛 厭食 腹脹 大便溏泄 四肢倦怠 等の 脾虛症狀을 나타내는 것. 「肝鬱」의 項 參照.

肝爲剛臟(간위강장)

肝은 條達 舒暢을 좋아하고, 抑鬱을 싫어하며, 過亢을 忌한다. 肝은 「剛臟」의 性質은 主로 「肝氣」面에서 體現된다. 精神刺戟을 받으면 躁急 發怒하기 쉽게 되는데, 이를 「肝氣太過」라 한다. 反對로 肝氣가 不足하면 驚恐하는 症狀을 일으킨다. 肝과 膽은 表裏가 되어, 肝의 剛臟作用은 언제나 膽과의 配合이 있어야만 體現된다.

肝爲淚(汨)(간위루)

『五臟化液』의 項 參照.

肝陰(간음)

主로 肝臟의 陰血과 肝臟自體의 陰液을 말함. 正常狀況下에서 肝陰·肝陽은 相對的平衡을 維持해야 한다. 만약 肝氣가 太過하면 肝陽이 偏亢하여 肝陰을 耗傷하게 된다. 그리고 「肝陰不足」은 「肝陽上亢」을 일으키게 된다.

肝陰不足(간음부족)

「肝陰虛」의 項 參照.

肝陰虛(간음허)

「肝陰不足」이라고도 함. 대개 血이 肝을 養하지 않는 所致이다. 主要症狀은, 眩暈 頭痛 視物不清 眼乾 夜盲 經閉 經少 等이다. 往往 肝陽上亢을 惹起하여, 血壓偏高 耳聾 耳鳴 面熱 四肢麻木 振顫 煩燥失眠 等症을 發한다. 高血壓症 神經官能症(노이로제) 眼病 月經病에서 多見된다. 「肝陽上亢」의 項 參照.

間日瘧(간일학)

「瘧疾」의 項 參照.

間者並行,甚者獨行(간자병행,심자독행)

<素問·標本病傳論>에 있음. [間]은 病勢가 緩하고, 比較的 輕하면서, 證狀이 比較的 많음을 뜻하며, [並行]은 主藥과 佐藥의 方劑를 並用한다는 뜻이다. 例컨대 咳嗽가 日久하며, 痰이 白色이면서 많고, 咳出하기 쉬우며, 胸悶惡心하고, 大便이 不實하며, 舌苔가 白滑하고 膩한 경우는 主藥과 佐藥을 具備한 [燥濕化痰]法을 써야 한다. [심]은 病勢가 危急하고 重하며, 證狀이 較少함을 뜻하며, [獨行]은 專一 有力한 方劑를 써서 挽回救濟하는 것을 뜻함. 例컨대 突然 出血이 不止하여 面色이 皎白하고, 氣短脈微하며, 陽氣가 欲絶하는 경우는, 專一 有力한 獨蔘湯을 써야 한다.

肝藏血(간장혈)

肝은 藏血之臟으로서, 血液을 貯藏하고 血量을 調節하여, 사람이 休息 혹은 睡眠狀態에 處해있을 때는, 血液의 一部가 肝에 回流되어 貯藏되고, 活動時에는 肝血이 또 全身에 運送되어, 各組織의 需要를 供給한다. 만약 激怒함으로써 傷肝하면 藏血의 機能에 影響을 미치어, 甚한 경우 出血 혹은 出血性病症의 發作을 誘發하게 된다.

肝藏魂(간장혼)

「素問·宣明五氣篇」에서 「肝藏魂」이라 하였다. 「魂」은 精神活動에 屬하며, 肝氣가 疏泄條達하여 情志가 正常임을 「藏魂」이라 한다. 肝病으로 因해 惡夢이 많고, 神志가 不安

한 것을 「魂不藏」이라 한다. 「肝藏魂」은 精神活動과 內在臟器와의 連繫의 體現이다. 「五臟所藏」의 項 參照.

幹疽(간저)

肩의 前面部位에 생기는 局疽를 幹疽라 하며 일설에는 <疔疽>라 한다.

間接灸(간접구)

灸法을 應用할 때 艾柱를 강편을 격해해놓고(격강구) 혹은 산편(격산구) 식염구(격염구) 혹은 藥品으로 만든 박병(부병구, 시병구, 축병구등)의 施灸하여 艾柱를 直接 皮膚상에 놓지 않는 方法을 間接구라 한다.

肝主驚(간주경)

「驚」이란, 무엇에 感觸되어(例:갑자기 큰 音響을 듣거나 무서운 光景을 보거나 突然한 刺戟을 받는等)心이 動하는 것이다. 「素問·金匱眞言論」에서 일찌기 肝은 「其病發驚駭」라 하였다. 「驚駭」란, 크게 놀라는 뜻이다. 肝은 「風木之臟」이며, 風木은 잘 震動하므로 肝病은 易驚한다. 그런데 驚의 產生은 心氣의 狀況과 큰 關係가 있다. 心氣가 虛한 사람은 놀라기 쉽다. 心氣가 強固하면 일반적으로 驚의 病症이 잘 생기지 않는다. 「五志」의 項 參照.

肝主筋(간주근)

「靈樞·九針論」에서 “肝主筋”이라 하였고, 「素問·六節臟象論」에서 “肝者……其充在筋”이라 하여, 筋(筋腱)의 營養來源이 肝에서 얻어짐을 說明하였다. 筋은 骨節에 附着되었으며, 筋의 弛張收縮에 依해 全身의 筋肉關節運動을 自在케 하므로 「肝主運動」이란 說이 있다. 그런데 筋은 充分한 營養供給을 얻는 狀況下에서만 運動하고 有力하게 된다. 「素問·上古天真論」에서 “七八, 肝氣衰, 筋不能動, …”이라 한 것은, 男子가 일반적으로 56歲 前後가 되면 運動이 그다지 靈敏하지 않게 됨을 느끼게 되는데, 이는 “肝氣衰 筋不能動”에 起因한 것으로 본다. 肝과 筋, 筋과 運動 사이에는 密接한 關係가 있음을 말해준다.

肝主謀慮(간주모려)

「素問·靈蘭秘典論」에서 “肝者 將軍之官 謀慮出焉”이라 하였다. 古人은 將軍이 征戰時에 深謀遠慮함을 肝의 作用에 比喩하였다. 즉, 肝은 一部 高級神經의 機能과도 有關함을 說하였다. 肝氣는 舒暢 條達을 좋아하는데, 肝氣가 鬱結하거나 或은 肝氣가 太過하여 肝陽이 偏亢하면 性躁 易怒하기 쉽게 된다. 反對로 肝氣가 不足하면 驚恐症狀이 나타나기 쉬운데, 모두 「肝主謀慮」의 作用에 影響을 미친 것이다.

肝主疏泄(간주소설)

肝이 疏散 宣泄의 機能을 具有함을 뜻함. 아래의 面에서 體現된다. ①肝은 情緒저와 有關하다. 肝氣는 舒暢 條達해야 한다. 만약 情緒가 나쁘면 肝氣鬱結을 일으킬 수 있다.

이는 肝病이 疏泄機能에 影響을 받아서 나타나는 가장 常見되는 一種의 病症이다. ② 肝은 消化機能과 有關하다. 脾의 運化, 脾氣의 散精作用에 依存한다. ③肝은 一部 疼痛症과 有關하다. 「通則不痛」으로서, 肝氣가 鬱滯하면 氣血의 流通에 影響을 미치어 疼痛을 發한다. 例컨대 肝病脇痛 肝胃氣痛等이다. ④肝은 婦女의 月經과 有關하다. 「肝藏血」하며, 「胞宮」과 經脈의 連繫가 있으므로, 肝의 疏泄機能이 失調되면 月經不調 等の 證候를 일으키게 된다.

肝主昇發(간주승발)

이는 主로 肝氣의 어떤 作用에서 말한 것이다. 肝에는 血量調節機能이 있고, 肝의 經脈은 위로 腦와 連絡된다. 肝機能이 正常이면 春季의 樹木이 條達 舒暢하는 것처럼, 生機가 充滿한다. 이것이 「昇發」現象의 體現이다. 但 昇發이 太過하면 도리어 頭痛眩暈 等の 證候를 일으킨다.

肝主運動(간주운동)

「肝主筋」의 項 參照.

肝主血海(간주혈해)

血海란, 通常 衝脈을 뜻한다. 「衝爲血海」라고 하는데, 肝에 血液의 貯藏과 調節機能이 있으므로 또한 「血海」라는 名稱이 있다.

癇證(간증)

癲癇이라고도 하며 俗名 羊癇風이다. 이는 一種의 發作性 神志異常의 疾患이다. 그 特徵은 發作時에 突然昏倒하여 涎沫을 吐出하고 兩目이 上視하며 四肢이 抽搐되고 或은 猪羊의 울음소리를 發하는데 覺醒된 後에는 疲乏을 感覺하는 外에 正常人과 다를 바 없으며 往往 不定期的으로 發作을 反復한다.. 病因은 大驚大恐하여 肝腎을 損傷해서 腎虛肝旺이 되거나 或은 其他 疾病에 續發해서 痰이 經絡에 모여 肝氣가 調和를 喪失하게 되어 氣逆痰涌하고 清竅를 阻塞하므로 突然發作한다. 先天的 素因에 의해 생기는 境遇도 있으며 兒童時期에 發作한다. 臨床上 癇症을 陰癇과 陽癇의 二種類로 나눈다. 病因에 따라 驚癇, 風癇, 食癇, 肺癇等로 나누기도 한다. 詳細한 것은 該當 各項을 參照.

肝志(간지)

『五志』의 項 參照.

肝着(간착)

古病名이다. 金匱要略에 있음. 着은 邪氣가 癰着한다는 뜻. 肝臟의 氣血이 鬱滯하므로 胸脇이 痞悶하고 不快感이 있으며 甚하면 脘痛하기도 한다. 손으로 만져주면 시원해지고 熱飲을 좋아하는 病證이다.

肝風(간풍)

「肝風內動」의 項 參照.

肝風內動(간풍내동)

病變過程中에 動搖 眩暈 抽搐 等の 症狀이 出現하는 것을 「肝風」이라 하며, 이는 病理變化의 表現에 屬하므로, 外感風邪와 區別하기 위해 肝風內動이라 稱하며, 實際로는 「風氣內動」과 同義이다. 그 病機는, 肝이 血을 主하고, 筋을 主管하며, 目으로 開竅되고, 그 經脈이 頭頂으로 上行하여 腦로 連絡되는 等の 機能失調와 有關하므로 “諸風掉眩皆屬於肝”의 說이 있다. 虛證·實證의 區別이 있는데, 虛證인 경우는, 陰液의 虧損에 依한 것으로, 「虛風內動」이라 하며, 實證인 경우는, 陽熱의 亢盛에 依한 것으로, 「熱盛風動」 혹은 「熱極生風」이라 한다. 該當 各項을 參照.

肝寒(간한)

①肝臟의 陽氣不足, 機能衰退으로 因해 나타나는 寒性症狀을 말함. 臨床表現은, 憂鬱膽怯하고 倦怠하며, 四肢不溫하고, 脈沈細遲 等이다. ②寒邪가 肝의 經脈에 凝滯됨을 말함. 「寒滯肝脈」의 項 參照.

肝合膽(간합담)

肝과 膽間의 相互關係와 影響을 말함. 이러한 相合은 臟腑가 相互 表裏(臟은 陰이며 裏에 屬하고, 腑는 陽이며 表에 屬함)의 關係이기 때문이다. 「肝與膽相表裏」는 주로 肝과 膽經絡間의 連關 및 一部 生理機能의 相互配合을 通해 體現된다. 肝이나 膽의 病症을 治療할 경우, 때로 이러한 「相合」, 「相表裏」의 關係를 通해, 相互影響을 미치게 한다. 예컨대, 膽火가 旺盛하거나 肝陽이 偏亢하면 모두 躁急 善怒의 症狀을 일으키기 쉬운데, 平肝하는 藥物을 써서 膽火를 瀉할 수 있고, 膽火를 瀉하는 藥物을 써서 平肝시킬 수도 있다.

肝咳(간해)

기침할 때, 兩脇이 땅기고 아프며, 甚한 경우, 身體를 轉側할 수 없고, 轉側하면 兩脇部가 脹滿하는 證候를 말함.

肝虛(간허)

일반적으로 肝의 氣血不足을 말함. 臨床表現은 視物不明 聽覺減退 易驚 等이다(『素問·臟氣法時論』). 「肝氣虛」, 「肝陰虛」, 「肝血虛」의 項 參照.

間歇脈(간혈맥)

初持, 久持의 項 參照.

肝血(간혈)

肝臟이 所藏하는 血液을 말하며, 通常 肝陰과 뚜렷이 區別할 수 없다. 그런데 臨床의

觀點에서 보면, 「肝血」의 一部病症은 언제나 失血의 情況이 關連되어, 陰虛陽亢의 表現으로만 되는 것은 아니다.

肝血不足(간혈부족)

「肝血虛」의 項 參照.

肝血虛 「肝血不足」이라고도 함. 主要症狀은, 面色萎黃, 視力減退, 虛煩失眠, 婦女이면 月經不調, 脈弦細 等이다. 貧血 神經官能症(노이로제) 月經病 및 一部 內眼病症에서 多見된다.

肝火(간화)

肝의 機能亢進에 依해 나타나는 熱象 或은 衝逆症狀을 「肝火」라고 統稱한다. 肝火를 誘發하는 原因으로는, 肝經蘊熱이 있고, 肝陽化火가 있으며, 情志刺戟의 過度와도 一定한 關係이 있다. 臨床表現은,

肝火上炎(간화상염)

「肝經實火」를 말함. 主要症狀은, 頭痛眩暈, 耳聾耳鳴, 眼紅痛, 煩燥易怒, 睡不安, 嘔吐, 吐血, 衄血, 苔黃 脈弦數이다. 高血壓病, 上消化道出血, 更年期證候群, 急性結膜炎 等の疾患에서 多見된다.

渴(갈)

①中暑를 말함. 詳細한 것은 中暑의 項 參照. ②갈갈은 熱性病의 熱氣가 極盛함을 形容하는 말이다.

葛根黃芩黃連湯(갈근황금황련탕)

<開提>의 項 參照.

膈肝(膈胝)(갈우)

①鳩尾, 膈心骨이라고도 함. 胸骨體의 下方, 즉 解剖學上的 胸骨劍狀突起部分. ②前胸部의 骨格의 總稱.

疳(감)

「疳積」이라고도 함. 幼弱한 小兒에게 好發함. 面黃하고, 몸이 앓위며, 肚腹이 膨脹하고, 營養障礙가 되며, 慢性消化不良을 隨伴함이 特徵이다. 일반적 臨床表現은, 毛髮이 焦稀하고, 脾氣를 發하기 쉬우며, 손가락을 빨고, 아무것이나 막 주워 먹으며, 大便 泄瀉를 하고, 酸臭가 나는 等이다. 發病原因은, 대개 離乳가 너무 빨랐거나, 飲食失節, 病後失調, 虫積 등의 要因과 有關하며, 脾胃을 損傷해서 營養吸收가 障礙되어 得病하게 되는 것이며, 오래 되면 其他 臟腑에 損傷을 미친다.

甘爛水(감란수)

勞水라고도 함 물을 容器에 넣고 국자로 물을 떠서 붓기를 여러 차례 반복하면 水面에 무수한 물방울이 생기게 되는데 이를 甘爛水라 한다

甘露消毒丹(감로소독단)

<化濕>의 項 參照./

感暑(감서)

傷暑의 項 參照

甘守津還(감수진환)

清代 葉桂의 溫熱論에 있음. 溫病에서 濁邪가 氣分으로 轉入하므로 身熱하고 舌苔가 白厚乾燥한 경우 舌苔白厚는 原來의 濁邪가 없어지지 않는 脈狀이며 舌苔의 乾燥는 胃中の 津液이 損傷되고 濁邪가 掃除되지 않음을 말해 준다. 그러므로 먼저 津液을 滋養한 후에 濁邪를 掃除해야 한다. 津液을 滋養하는 데는 麥門冬 玄蓼,*제汁,鮮위根汁등의 滋潤藥을 쓰면 좋고 다시 甘草를 가하여 中氣를 守護해서 胃中の 津液을 回復시킨다.

甘溫除大熱(감온제대열)

氣虛로 인한 發熱을 治療하는 方法이다.身熱有寒하고 渴喜熱飲하며 少氣하고 中氣의 不足으로 말하기 싫어하며 舌수色淡하여 脈이 虛大한 경우 補中益氣湯(黃기,黨參,白朮,炙甘草,當歸,陳皮,升麻,柴胡)을 써서 脾胃를 助하고 性味가 甘溫한 藥物로써 除熱한다.

甘入脾(감입비)

『五味所入의 項 參照.

疳疽(감저)

疽가, 胸部 兩側의 比較的 發達된 곳(婦女는 乳房의 隆起處), 中府穴의 下에 생기는 것. 대개는 思慮氣鬱, 或은 毒氣의 外感에 의해 생긴다. 처음에는 形狀이 米粒大이고, 青色이며, 漸漸 커져서 紫色로 變하여, 堅硬疼痛하며, 惡寒壯熱한다. 쉽게 潰破되고, 膿이 粘稠하면 順證이고, 病程이 오래 끌고, 寒熱이 不退하며, 쉽게 化膿하지 않고 脈象이 浮數하면 逆證이다.

疳積上目(감적상목)

小兒疳積에 續發되는 一種의 眼病이다. 病因은, 脾胃가 損傷되고, 肝熱이 눈으로 上攻하기 때문이다. 主要症狀은, 角膜이 混濁하고, 視物이 不明瞭하며, 乾澁 羞明한다. 제때에 療하지 않으면, 重한 경우, 黑睛이 破損되어 失明하게 된다. 本病은 비타민A缺乏症으로 惹起되는 角膜潰瘍病에 해당한다.

甘草綠豆湯(감초녹두탕)

單方の 項 參照

甘草湯(감초탕)

1) 奇方の 項 參照 2) 單行의 項 參照

甘寒生津(감한생진)

性味가 甘寒한 藥物을 써서 胃熱을 淸解해서 胃의 津液損傷을 治療하는 方法이다. 熱性病으로 裏熱이 盛하여 胃의 津液을 損耗해서 口中煩渴하고 粘滯한 白沫을 吐出하는 경우에 麥門冬汁, 만汁, 鮮葦根汁, 자제汁, 梨汁 或은 甘연汁 等藥을 選用하여 適量을 溫服한다. 或은 石硃, 天花粉, 蘆根 等を 煎服한다.

甘寒滋潤(감한자윤)

肺腎의 津液이 不足한 症候를 治療하는 方法이다. 例컨대 肺腎이 陰虧하여 虛火가 上炎하므로, 咽喉燥痛, 咳嗽氣喘, 痰中帶血, 手足心煩熱, 舌紅少苔, 脈細數한 경우, 生地黃, 熟地黃, 麥門冬, 川貝母, 百合, 當歸, 白芍藥, 生甘草, 玄蔘, 桔梗 等藥을 쓴다.

胛(갑)

肩部の 後下方. 現代는 肩胛部라 함.

甲疽(갑저)

발톱部位에 생기는 疽를 <甲疽>라 함. 대개는 발톱을 깎다가 胛의 皮肉을 損傷했거나 或은 협착한 新을 신고 오래 壓迫되므로 생긴다. 처음에는 발톱곁이 腫脹하고 微痛하며 黃色汁이 유출되다가 漸次 紅腫 化膿하여 環부의 발톱이 속으로 함입되며 유과후에 菌살이 突起하고 疼痛 유농한다. 膿液이 爪甲下全體에 스며들어 병든 발톱이 脫落된 후에야 낫는다.

剛瘕(강경)

「瘕病」의 項 參照.

薑灸(강구)

灸의 項 參照

降氣(강기)

<夏期>라고도 함. 氣가 上逆되는 것을 治療하는 方法이다. 絳氣, 下氣의 藥物로서, 蘇子, 旋覆花, 半夏, 丁香, 代자石 等を 사용하여, 喘咳, 嘔逆 等症에 適用한다. <降逆下氣>는 <降氣>法에 속한다.

降丹(강단)

靈藥의 項 參照

僵仆(강부)

突然昏倒하는 症狀이다.

降逆下氣(강역하기)

<順氣>라고도 함, 廢位의 氣가 上逆하는 症候를 治療하는 方法이다. 例컨대 肺氣가 上逆하여, 咳嗽哮喘하고, 痰多氣急한 경우, 定喘湯(百果, 麻黃, 蘇子, 甘草, 款冬花, 杏仁, 桑白皮, 黃芩, 法半夏)을 쓴다. 또한 胃가 虛寒하여, 胸中이 不舒하며, 脈遲한 경우, 丁香柿蒂湯(丁香, 柿蒂, 黨蔘, 生薑)을 쓴다.

降陰(강음)

陰精을 強化하는 效能이 있는 藥物을 말함. 例컨대 熟地黃, 生地黃, 枸杞子, 女貞子, 沙苑蒺藜等이다. 이들 藥物은 腎陰虛증인 尿瘦, 遺精, 小便多 等症에 適用된다.

降劑(강제)

「降可去昇」로, 蘇子, 旋覆花의 類이다. 降은 抑降을 뜻하며, 昇은 病勢가 上逆하는 것으로, 마땅히 抑降作用이 있는 藥物을 써야 한다. 例컨대, 咳嗽하여 氣가 上逆하고, 痰多而稠, 苔微黃, 脈滑한 경우, 蘇子竹茹湯(蘇子, 竹茹, 橘皮, 桔梗, 甘草)을 써서 降氣 化痰하면 좋다.

強中(강중)

陰莖이 까닭없이 堅硬 勃起하여 오래도록 不痿하고, 精液이 自泄되는 證候를 말함. 通常, 小便이 口唇이 乾燥한 等症을 隨伴한다. 이는 一種의 陰虛陽亢, 命門火妄動의 徵象이다. 대개는 性欲過度로 인한 腎氣受傷의 所致이다.

降濁(강탁)

胃主降濁의 項 參照.

開·合·樞(개·합·추)

이는 經脈의 生理作用의 세가지 特徵을 말한 것이다. 陽經方面에서는, 太陽經이 「開」을 主하고, 陽明經이 「合」을 主하며, 少陽經이 「樞」을 主한다. 陰經方面에서는, 太陰經이 主「開」하고, 厥陰經이 主「合」하며, 少陰經이 主「樞」한다. 그중 「開」은 太陽經이 陽經中에서 (혹은 太陰經이 陰經中에서) 相對적으로 淺表部位에 있어서 外界와의 連繫에 더욱 接近하여 開放의 作用을 한다. 「合」은 經脈이 相對적으로 身體內部的 深層에 있어서 閉合 收斂의 作用을 具有함을 뜻한다. 「樞」은 相對적으로 表·裏 사이에 있어서 戶樞作用을 具有한다는 뜻이다(素問·陰陽離合論).

蓋骨(개골)

橫骨의 項 參照.

開鬼門(개귀문)

<素問.湯液요체론>에 있음.鬼(魄과 같음)門은 汗孔을 뜻함.開鬼門은 發汗法을 말함.

開竅(개규)

<開閉>, <開竅通神>, <宣竅>, <醒腦>, <醒神>이라고도 한다. 神昏을 治療하는 方法이다. 患者가 神昏하여, 人事不省함은, 心竅가 病邪로 인해 閉塞된 것이다. 藥物을 써서 神志를 清醒케 한다. <清熱開竅>, <化痰開竅>, <逐寒開竅> 등으로 나뉜다.

開竅通神(개규통신)

<開竅>의 項 參照.

開嚙通關(개금통관)

昏倒후 牙關緊閉한 症候를 治療하는 方法이다. 開通開竅藥(冰片, 天南星을 等량으로 細末하며, 或은 白梅나 烏梅를 쓴다)으로 臼齒은상을 塗撮하여 口嚙이 自開케 한다. 或은 通關散(皂角 去黑皮, 細辛을 等兩으로 細末和均함)을 每番 少量씩 鼻內에 吹入하여 病人이 재치기를 하게 한다.

開達膜原(개달막원)

穢濁을 消除하는 藥物을 써서 <膜原>사이를 閉塞한 病邪를 攻逐하는 것이다.溫疫病의 初期에 病邪가 膜原에 있어서 寒熱의 交叉가 或은 1日1回,或은 1日 3回 불규칙적으로 생기며 胸悶發嘔,頭痛煩躁,舌苔성리,脈弦數 等症을 나타내는 경우에 達原飲(檳榔,厚朴,草果,知母,芍藥,黃芩,甘草)을 써서 治療한다.

개비(개비)

辛香한 行氣의 藥物인 藿香梗,佩蘭,廣木香,厚朴,佛手등을 써서 胸脇脘腹等處의 脹悶症狀을 散開하는 것이다.本法은 理氣法의 範疇에 屬한다.

開泄(개설)

<辛開苦泄>의 項 參照.

開鬱(개울)

<疏鬱理氣>의 項 參照.

開胃(개위)

食慾이 不振한 경우 산사 麥芽 穀芽 鷄內金등을 써서 食慾을 增進시키는 것을 開胃라고 한다.

開提(개제)

<開>는 表裏의 熱을 除去하는 것이고 <提>는 清氣를 昇提하는 것이다.病人이 본래 表症이 있는데 瀉下藥을 誤服함으로써 病邪가 下陷하여 熱邪를 發하고 동시에 身熱,胸脘煩熱,口渴,喘而汗出 等症이 있는 경우, 葛根黃芩黃連湯을 쓴다.葛根은 解肌하여 表熱을 除去하고 清氣를 乘除시키며 甘草는 和胃하여 葛根의 昇清氣를 協助하고 黃芩,黃連은 裏熱을 清除한다.

開通開竅藥(개통관규약)

<開嚙通關>의 項 參照.

開閉(개폐)

<開竅>의 項 參照.

開闔補瀉(개합보사)

古代 針刺手法의 一種이다 주로 발針한 후 손으로 針공을 유안하여 針고을 폐쇄하는 것을 합이라 하며 보법이다. 발針시에 針공을 요대케한데 유안을 가하지 않는 것을 개라하며 사법이다.

客邪(객사)

일반적으로 人體를 侵害하는 邪氣를 말함. 邪氣가 外部에서 오므로 이름이다.

客忤(객오)

小兒이 突然 外界의 異物이나 큰 音響에 或은 낯선 사람에 놀라서, 顏色이 蒼白해지고, 涎沫을 吐하며, 喘息腹痛하고, 肢體에 癰癢을 일으켜 驚癇과 같은 狀態를 일으키는 것을 「客忤」라 한다.

客者除之(객자제지)

<素問. 至眞要大論>에 있음. 外來의 邪氣가 있는 경우에는 藥物等으로 이를 除去한다는 뜻이다. [客]은 外來의 邪氣를 말함. 外邪에는 風. 寒. 暑. 濕. 燥. 火. 飲食積滯 및 疫癘의 邪등의 있으며, 治法에는 祛風, 祛寒, 清暑, 祛濕, 潤燥, 清火, 消導 等法이 있다. 疫癘의 邪가 侵襲하여 發病하면 病情이 比較的 複雜하므로, 具體의 情況에 따라 處理해야 하는데, 病邪를 驅逐하는 目的은 마찬가지이다.

咯血(객혈)

咳嗽를 하지 않고, 喉中에서 血塊 或은 血點을 咯出하며, 或은 瘀血을 함께 객출하는 것을 말하며, 객하면서 吐出하므로 이렇게 이름한다. 偶然히 객출하거나 或은 약간 咳嗽하는 것은, 肺에 燥熱이 있는 것이다. 만약 객혈을 자주 하고, 面赤, 心煩하며, 咽喉

가 乾燥하고, 舌質이 紅色이며, 脈象이 細數한 것은 陰虛 火亢이며, 대개는 肺腎陰虧, 心肝火旺의 所致이다. 객혈은 肺結核, 氣管支擴張, 氣管支癌 等病에서 多見된다.

肘(거)

腋下, 脇下の 空軟部位.

舉,按,尋(거,안,심)

脈診시에 各異한 指力과 手法을 써서 脈象을 測候하는 方法을 말함. 莖指力로 가볍게 浮取하는 것을 거라 하고, 中指力로 눌러 沈取하는 것을 按이라 하며, 指力을 필요에 따라 變化시키거나 或은 手指를 移動시켜 脈을 찾음으로써 비로소 比較的 뚜렷한 感覺을 얻게 되는 것을 甚이라 한다.

居經(거경)

「經閉」의 項 參照.

巨骨(거골)

柱骨의 項 參照.

祛痰(거담)

痰液의 排出을 돕고, 或은 肺이 생기는 病人을 除去하는 方法이다. <化痰>, <消痰>, <滌痰>의 三種類로 나뉜다. 그중 化痰法이 常用된다.

巨分(거분)

鼻翼의 外緣에서 口角外側으로 伸延된 皮膚皺紋溝(주름진 곳). 所謂『口傍大紋處』로서 鼻翼溝를 말함. 古人은 이곳의 望診으로 股部內側疾病의 診察에 參考가 된다고 보았음.

祛濕(거습)

藥物을 써서 濕邪를 除去하는 治法이다.<濕>은 重濁 粘리한 邪氣이며 風,寒,暑,熱 等の 邪氣와 함께 결합되기도 하며 火熱,火寒 하기도 한다.濕이 上焦에 있으면 化해야 하고 中焦에 있으면 燥해야 하며 ,下焦에 있으면 利해야 한다.脾는 水濕의 運化를 主管하는데 濕邪로 인해 곤란을 겪게 될수도 있으므로 治濕에는 治脾하는 데도 주의 하여야 한다.

舉按,推尋(거안,추심)

脈診시에 各異한 指力과 手法을 써서 脈象을 測候하는 方法을 말함. 輕重이 不同한 指力을 써서, 脈을 上下으로 測候하는 것을 거按이라 하고, 指位를 左右로 移動시켜 脈을 찾는 것을 推尋이라 한다. 兩者를 配合함으로써 脈象의 廣狹 厚薄 曲直 等の 情況을 뚜렷이 알 수 있다.

祛瘀生新(거어생신)

<祛瘀活血>의 項 參照.

祛瘀消腫(거어소종)

外傷에 의한 瘀血을 治療하는 方法이다. 例컨대, 打撲傷으로 傷處가 靑腫疼痛하며, 或은 腹部의 內傷으로 氣血이 阻滯되어 疼痛하는 경우, 칠리산(血竭 1兩, 麝香, 冰片 各 1分2厘, 乳香, 沒藥, 紅花 各 1錢 5分, 硃砂 1錢2分, 兒茶 2錢4分을 갈아서 極細末하여 瓶에 넣고 黃蠟으로 封口한다. 每服 7厘씩 술에 타서 服用한다. 傷處에는 燒酒로 調敷한다)을 써서 治療한다. 外傷에 의한 靑腫疼痛, 內傷에 의한 氣血阻滯의 疼痛에, 이 方法을 써서 祛瘀活血하여 氣滯를 宣通시키면, 瘀血이 除去되고, 氣가 運行되어 除痛 消腫된다.

祛瘀止血(거어지혈)

瘀血을 除去함으로써 止血시키는 方法이다. 1) 婦女의 機能性子宮出血로서 下腹部가 脹痛하고 拒按하며, 出血量이 많고, 색깔이 紫黑하며 絡塊하고, 血塊가 없어지면 痛減하며, 舌苔가 暗灰色이고, 脈이 澁한 경우, 當歸, 川芎, 白芍藥, 蒲黃, 山楂炭, 桃仁, 三七末(따로이 藥液에 타서 服用)等藥을 쓴다. 2) 産後에 惡露의 淋瀝이 오래도록 不絶하며, 색깔이 紫黑하고, 有塊하며, 腹痛拒按하고, 腹脹하며, 舌邊이 暗紫色이고, 脈이 澁한 경우, 當歸, 川芎, 益母草, 赤芍藥, 桃仁, 蒲黃 等藥을 쓴다. 惡露의 量이 많으면 失笑散(蒲黃, 五靈脂 各等量)을 加하되 包煎한다.

祛瘀活血(거어활혈)

<祛瘀生新>, <活血生新>, <化固行血>이라고도 함. 瘀血을 除去하여 血脈을 流通시키는 方法이다. 血液이 阻滯되면 瘀血로 變하므로 除去해야 한다. 그래야만 血脈을 流通시켜 病態를 除去하게 된다. 本法은 <溫和祛瘀>, <破瘀消癥>, <祛瘀消腫>等으로 나뉜다.

去宛陳莖(거완진좌)

<素問.湯液교체론>에 있음.<宛>(완)은 鬱과 同義로서 鬱結을 뜻하고 <陳莖>는 오래된 썩은 여물이다.<去宛陳莖>는 유 積한 陳草를 除去하는 것으로 人體에서 오래 鬱結된 水液廢物을 驅除하는 것이며 甘遂, 牽牛等을 쓰는 逐水法을 말함.

去油(거유)

그 목적은 藥物의 극열성 혹은 毒性을 저감시키는데 있다 어떤 藥物은 化외법을 써서 去油한다 예컨대 육두구는 외하여 去油하면 좋다 어떤 藥物은 化외법으로 去油해서는 안된다 예컨대 파두 속수자등은 흡수하는 종이에 싸서 압착하여 去油한다 혹은 연마하여 세말로 해서 물을 붓고 유질이 뜨면 물과 기름을 제거 한다 휴향 物藥은 대개 초법을 써서 去油한다.

巨刺(거자)

古代刺法의 명칭 신체의 한쪽(좌 혹은 우측)에 유병할 때 반대측의 穴位에 針刺하는 一種의 方法이다. 주로 다음의 경우에 應用된다. 1)신체의 한쪽이 동통하고 반뎃, 2)의 맥상에 이상이 나타나는 경우 (素問 調經論에 있음) 2)경맥에 유병한 경우 (素問 繆刺論에 있음)

祛風(거풍)

風邪를 疏散하는 效能이 있는 藥物을 이용하여 經絡 肌肉 關節間에 滯留한 風邪를 疏散시키는 方法이다. 風에 外風·內風의 區別이 있는데, 內風은 平熄해야 하고, 外風은 祛散시켜야 한다. 去風法은 外風에 適宜하다. <去風除濕>, <消風泄熱>, <去風養血>, <搜風逐寒> 等法으로 나뉜다.

去風養血(거풍양혈)

血脈이 不和하여, 風濕이 經絡에 流注하는 症候를 治療하는 方法이다. 그 症狀은, 肌部와 手足이 麻木되고, 口眼歪斜하며, 言語가 困難하고, 甚하면 半身不遂가 되며, 或은 怕冷身熱을 兼發하고, 肢體拘急, 舌苔白이, 脈象淨滑 等症을 나타낸다. 治法은 去風通絡하고, 行血 養血해야 한다. 大秦교湯(秦교, 羌活, 獨活, 防風, 白芷, 川芎, 當歸, 芍藥, 生地黃, 熟地黃, 白朮, 茯苓, 細辛, 石膏, 黃芩, 甘草)을 쓴다. 그 중의 川芎, 當歸, 芍藥, 地黃은 行血 養血하여, 血脈의 不和를 治療해서, 血脈을 流通시켜, 滯留된 風邪도 이에 따라 消除시킨다. 그러므로, <治風先治血, 行血風自滅>이라 한다.

祛風除濕(거풍제습)

風濕의 邪氣가 經絡·肌肉·關節 等の 部位에 滯留하여 遊走性疼痛症狀를 나타낼 경우의 治法이다. 羌活, 防風, 秦교, 威靈仙, 桑枝, 五加皮, 甘草 等藥을 쓰면 좋다.

祛汗法(거한법)

<溫法>의 項 參照.

祛寒化痰(거한화담)

<化痰>의 項 參照.

去火毒(거화독)

膏藥중의 火毒을 제거하는 것 膏藥을 오성한 후 곧 펴서 皮膚에 도첩하면 皮膚를 刺戟하여 경한 경우는 발양하고 중한 경우는 기포하며 심하면 궤란하는데 이를 火毒이라 한다 그러므로 먼저 火毒을 제거해서 침포하도록해야 한다 火毒을 제거하는 方法에는 二種류가 있다 1)갓 오성한 고藥을 일광이 直接조사하지 않는 곳에 比較的 오랜 기간 羌治한다 2)냉수에 수일간 침포한다 2)의 方法이 比較的 실용에 適合하다

健(건)

「五不男」의 項 參照.

蹇(견)

轉動이 困難하다는 뜻. 예컨대 舌蹇하면 言語가 不便하고 蹇膝하면 步行不能하다.

槌骨(건골)

坐板骨, 髌이라고도 함. 女性의 槌骨을 交骨이라고도 함. 現代의 坐骨(髌骨臼를 包括)을 말함.

乾霍亂(건곽란)

「霍亂」의 項 參照.

乾嘔(건구)

嘔吐時에 소리만 나고 吐物이 없는 것을 말함. 대개 胃虛하고 邪氣가 逆上하기 때문이다.

乾斂瘡(건렴창)

奶癰의 項 參照.

健脾(건비)

<補裨>, <益脾>라고도 한다. 脾가 虛하여 運化機能이 減弱된 것을 治療하는 方法이다. 患者의 面色이 萎黃하고 疲倦無力, 飮食減少, 胃痛喜按, 食事後痛減, 大便稀薄, 舌淡苔白, 脈濡弱等症을 나타내는데 黨蔘, 白朮, 茯苓, 山藥, 薏苡仁 等藥을 쓴다.

健脾疏肝(건비소간)

<培土抑木>이라고도 함. 肝氣가 鬱結하여 脾의 運化機能에 影響을 미친 症候(肝旺項脾虛로소 木克土의 症候)를 治療하는 方法이다. 肝旺脾虛의 症狀은 兩脇脹痛, 不思飮食, 腹脹腸鳴, 大便稀溏, 舌苔白리, 脈弦 等症이다. 培土에는 白朮, 茯苓, 薏苡仁, 山藥 等を 쓴다. 抑木에는 柴胡, 靑皮, 木香, 佛手等を 쓴다.

健脾丸(건비환)

消導의 項 參照

乾陷(건함)

<三陷證>의 項 參照.

乾咳(건해)

無痰의 咳聲을 말함.輕한 症狀은, 十數回 소리나게 연거푸 기침하고서야 少量의 粘痰을 咯出하고, 重한 경우는, 기침을 많이 해도 痰이 없고, 咳聲이 높으며, 목안이 간지럽고 乾燥하며, 胸脇部가 아프고, 舌의 邊尖이 紅色이 되며, 舌苔는 黃乾하고, 脈象이 細澀 或은 弦數하다. 대개는 燥火가 肺를 傷하여, 肺津이 受灼한 所致이다.

乾血勞(건혈로)

虛勞證候의 하나이다. 婦女에게 多見된다. 主要症狀은 面目이 暗黑하고 肌膚가 乾枯하고 粗조하며 肌肉이 消瘦되고 骨蒸潮熱하며 盜汗하고 口乾觀紅하며 易驚하고 頭暈痛하며 月經이 澁少하거나 或은 閉經이 된다. 이는 血枯, 血熱이 쌓여서 오래 不愈하여 肝腎이 虧損되고 新血이 難生한 所致이다.

乾噫食臭(건희식취)

噯腐의 項 參照.

瞼(검)

胞瞼의 項 參照.

瞼緣炎(검연염)

[眼弦赤爛]의 項 參照

劍針(검침)

鉞鍼의 項 參照

瞼板腺囊腫(검판선낭종)

‘眼胞痰核’의 項 參照.

瞼廢(검폐)

[上胞下垂]의 項 參照.

怯(겁)

「五不男」의 項 參照.

膈(격)

橫膈膜을 말함. 여기서 胸腔과 腹腔이 나누어 진다. 心肺와 胃腸의 境界이다. 東醫學에서는 膈의 作用이, 胃腸에서 飲食物을 消化하여 생긴 濁氣를 遮隔하여, 濁氣가 心肺를 上熏하지 못하게 하는 것으로 認識한다. 通常 膈은 呼吸에 따라 昇降運動을 한다. 十二經脈中の 많은 經脈이 橫膈膜을 上下로 貫通한다.

隔薑灸(격강구)

灸法의 一種이다. 그 方法은 생강을 1분두께의 편으로 잘라서 施灸할 穴位상에 놓고 艾柱를 그 산편위에 놓아 點燃한다.

激經(격경)

「盛胎」 혹은 「胎垢」라고도 함. 妊娠後에도 月經이 每月 來潮하여, 妊婦나 胎兒에게 뚜렷한 損害가 없는 것은 生理現象에 屬하는 것이며, 胎兒가 커지면 自然히 落한다.

隔餅灸(격병구)

間接灸의 一種이다 신온성 혹은 方向성 藥物을 병상으로 만들어 施灸부위상에 놓고 그 병상에서 艾柱를 點燃한다. 常用되는 것으로 부병구, 축병구, 시병구등의 종류가 있다.

鬲消(격소)

「上消」의 項 參照.

格陽(격양)

「陰盛格陽」의 項 參照.

格陽(격양)

格陽關陰의 項 參照.

格陽關陰(격양관음)

①陰陽失調로 因해 일어나는 一種의 極度로 充盈된 脈象을 말함. 人迎脈(兩측의 頸動脈)의 搏動이 正常에 比해 4배 異常 盛大한 것을 格陽이라 하며, 이는 氣血이 三陽經에 充盈하여, 三陰經을 拒格해서, 彼此의 協助가 喪失된 結果이다. 寸口脈(兩측의 橈骨動脈)의 搏動이 正常에 比해 4배 異常 盛大한 것을 關陰이라 하며, 이는 氣血이 三陰經에 充盈하여, 三陽經을 隔絶해서, 彼此의 協助가 喪失된 結果이다. 上述한 兩種의 脈이 동시에 出現하는 것을 格陽關陰이라 하며, 病變이 嚴重함에 屬한다. [素問,六節臟象論]에서 “人迎...四盛以上爲格陽. 寸口...四盛以上爲關陰. 人迎與寸口俱盛邪倍異常爲關格”이라 하였다. ②上下不通의 病症을 말함. 關格의 項 參照.

隔鹽灸(격염구)

灸法의 一種이다. 그 方法은 식염으로 제와(배꼽)를 메우고 그 식염위에 比較的 큰 艾柱를 놓고 點燃하되 患者가 작통을 느끼게 되면 애구를 갱환한다. 복통 토사 허탈등증을 治療할 수 있다.

膈下逐瘀湯(격하축어탕)

<破瘀消癥>의 項 參照.

繭脣(견순)

脣部に發하는 一種의 病症이다. 突起한 白色皮膚의 破裂의 形狀이 蚕繭과 같으므로 이렇게 이름한다. 처음에는 紅脣綠의 外側に 豆粒狀의 硬結이 생겨서, 漸次 增大하여, 堅硬 疼痛하며, 쉽게 潰破 流血되고, 惑은 버섯 모양(菌狀)을 나타내는데, 模樣이 같지 않으며, 潰瘍의 表面에 항상 痂皮가 덮이고, 表面은 울퉁불퉁하다. 때로는, 頸. 頤部에 腫壞가 생기는 水道 있다. 後期에는 口乾, 咽燥, 몸의 消瘦를 나타낸다. 본병은, 대개 思慮傷脾, 心火內熾, 脾胃積火, 惑은 腎虧火旺으로 因해, 火毒이 脣部に 蘊結되기 때문에 생긴다.

肩息(견식)

呼吸이 困難하여 어깨를 들어 呼吸을 돕는 狀態를 말함. 哮喘病因 或은 其他 原因로 酸素 缺乏이 일어날 때는 모두 이런 狀態가 일어난다.

牽牛串(견우곶)

串의 項參照

堅陰(견음)

新正을 固密케 하여 相火를 平정케 하는 方法이다. 例컨데 夢中에 遺精하는 것은 相火가 妄動하고 腎氣가 不固한 것이다. 封髓丹(黃柏, 砂仁, 炙甘草를 研末 蜜丸한다)을 써서 治療한다. 黃柏은 相火의 妄動을 平정케 하고 腎精을 固密케 하니 堅陰이 된다.

堅者削之(견자삭지)

<素問. 至眞要大論>에 있음. [堅]은 堅實한 癥積을 말하며, 藥으로 이를 攻削해야 한다는 뜻이다. 例컨대, 瘀血이 阻滯되어 腹中에 積塊가 생겨서, 밀어도 移動하지 않을 경우는 破瘀消癥藥으로 점차 攻削해서 이를 消失케해야 한다.

肩解(견해)

肩關節部를 말함.

決瀆之官(결독지관)

『三焦主決瀆』의 項 參照.

結脈(결맥)

脈象의 一種. 脈象이 遲, 緩하고, 不規則한 間歇性이 있다. 寒凝氣滯 및 疝氣 癥瘕 積聚 或은 心血關係痛의 疾病 등에서 常見된다.

缺盆(결분)

①兩側 前胸壁의 上方에 있음. 鎖骨上緣의 陷凹部位. ②穴位名. 缺盆部位의 正중앙이며,

足陽明胃經에 屬함.

缺盆骨(결분골)

柱骨의 項 參照.

結陽(결양)

「居問·陰陽別論」에 있음. 四肢浮腫의 病理의 하나이다. 四肢는 諸陽의 本인데, 四肢의 陽氣가 凝結하면 宣通하지 못하여 水液이 停滯되므로 浮腫이 出現한다.

缺乳(결유)

産後에 乳汁이 缺乏된 것으로, 「乳汁不行」이라고도 함. 虛證과 實證의 二種類가 있다. 虛證은, 대개 體質虛弱, 氣血不足, 或은 出産時의 失血過多, 氣血兩虛로 因해 惹起된다. 主要表現은, 乳房이 不暢 不通하고, 或은 드물게 少量의 乳汁이 流出되며, 面色이 淡白하고, 頭暈 耳鳴하며, 心悸氣短하고, 惡露의 量이 적다. 實證은, 대개 肝鬱氣滯, 經脈壅塞, 氣血不通으로 因해 惹起된다. 主要表現은, 乳房이 脹痛하고 胸脇이 脹滿하며, 脘悶 不舒하고, 大便秘結이 되며, 甚하면 發熱 등을 나타낸다.

結陰(결음)

「素問·陰陽別論」에 있음. 邪氣가 陰經에 結함을 뜻함. 肝은 厥陰에 屬하여 藏血을 主管하며, 脾는 太陰에 屬하여 統血을 主管하는데, 邪가 陰經에 結하면, 陽氣의 運行을 統攝하지 못하여, 오래 되면 반드시 陰絡에 損及하여 血이 內에서 溢하므로, 結陰에는 便血이 나타나게 된다.

結者散之(결자산지)

<素問. 至眞要大論>에 있음. 結聚의 證候는 消散시켜야 한다는 뜻이다. 例컨대, 濁痰이 癰癰을 結成하여 오래도록 消散되지 않으면, [軟堅散結]法을 써야 한다.

潔淨腑(결정부)

<素問. 湯液交替論>에 있음. <淨腑>는 膀胱을 말한다. 潔淨腑는 곧 利少便이다.

結紮法(결찰법)

선(약선 혹은 보통의 사선)장력을 이용하여 환부의 기혈을 불통케해서 제거해야 할 조직을 괴사 탈락시킴으로서 치유목적에 도달하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오우 痔核 등증에 적용된다. 예컨대 頭大體小한 오우는 근부를 선으로 두겹 동여매면 좋다. 血瘤와 癌腫에는 사용을 금기한다.

結喉(결후)

頸部前方의 正中線上에서 外向으로 突起된 部分, 喉頭의 甲狀軟骨部에 該當함. 男性의 結喉는 突出하는데, 女性의 結喉는 뚜렷하지 않음.

結喉癰(결후옹)

<猛疽>의 項 參照.

結胸(결흉)

「傷寒論」에 있음. 邪氣가 胸中에 結聚된 病症을 말함. 主要症狀에 2種類가 있다. 하나는 胸脇部에 觸痛이 있고, 頸項이 強硬하며, 發熱有汗하고, 脈象이 寸脈은 浮하며 關脈은 沈한 등이다. 또 하나는 心窩部에서 少腹部에 걸쳐 硬滿疼痛하고, 拒按하며, 大便이 秘結하고, 口舌이 乾燥하며 渴하고, 午後에 약간의 潮熱이 있으며, 脈象이 沈結한 등이다. 發病原因은, 太陽病의 攻下가 너무 빨라서, 表熱이 內陷하게 되어, 胸中에 본래 있던 水飲과 結聚하기 때문이며, 或은 攻下法이 誤用에 起因한 것이 아니고, 太陽經에서 陽明經으로 內傳하여, 陽明 實熱이 腹中에 본래 있던 水飲과 結合하여 이루어지기도 한다. 胸脇部에 觸痛이 있고, 頸項이 9強硬하며, 微汗 或은 頭部에만 汗出하는 것은, 熱과 水가 相結하기 때문이며 이를 「水結胸」이라 한다. 또는 「水氣結胸」, 「水熱結胸」이라고도 한다. 心窩部에서 少腹部에 걸쳐 硬痛 拒按하고, 便秘하며, 午後에 약간의 潮熱이 있는 것을 「實熱結胸」이라 한다. 이밖에도 「小結胸」, 「大結胸」, 「血結胸」, 「寒結胸」등의 名稱이 있다. 各 該當項을 參照.

兼方(겸방)

作用이 다른 藥物을 하나의 方中에 配合하여 同用하는 것을 兼方이라 한다. 일반적으로는 寒藥으로 熱證을 治하고 熱藥으로 寒證을 治하는 것으로 본다. 그런데 病情이 複雜하거나 혹은 危險할 때는 반드시 兼顧하는 方法으로 하나의 方劑中에 作用이 다른 藥物을 써서 各其一面에 作用하여 療效를 얻도록 해야 한다. 例컨대 大靑龍湯은 麻黃을 써서 表寒을 除去하고(惡寒, 發熱, 無汗을 治함)石膏을 써서 胃熱을 清解한다.(煩躁를 治함)麻黃附子細辛湯은 發熱하면서 惡寒이 劇甚하고(厚衣 厚被해도 惡寒이 不減함), 精神衰疲, 欲睡, 舌苔白滑或黑潤, 脈沈한 證候를 治한다. 이는 外에 表證이 있고 內에서는 陽氣가 衰한 것이므로 麻黃을 써서 解表 發汗하고 附子를 써서 陽氣를 도우며, 細辛으로 表裏를 通하게 한다. 또한 吐瀉가 이미 멎었는데 汗出하고 手足이 寒冷하며 脈微欲絶한 경우, 通脈瀉逆加猪膽汁湯을 쓴다 여기서의 吐瀉의 停止는 陰液이 已竭한 것이고 汗出, 手足寒冷, 脈微欲絶은 陽氣가 衰亡한 것이다. 고로 乾薑, 附子, 甘草를 써서 陽氣를 돕고 猪膽汁을 써서 胃陰을 補益한다.

脛(경)

①小腿部(膝部以下에서 足部以上)의 別名. ②脛骨의 略稱.

莖(경)

음경을 말함. 「內經」의 「經中痛」은 음경내의 동통을 말함.

驚癇(경간)

① 놀람으로써 발하는 癇病을 말함. ② 唐宗代の 醫書에 記載된 驚癇은 小兒驚風을 말함.

驚悸(경계)

心悸의 項 參照.

京骨(경골)

①足外側의 第 5跖骨(第5中足骨)의 骨底部分에 해당함. ②穴位名. 第 5跖骨粗隆(第5中足骨粗面)의 前下方의 陷凹處에 있으며 足太陽經에 속함.

頸骨(경골)

天柱骨이라고도 함. 解剖學上的 頸椎. 모두 七節이며, 後頸部에 있음. 上으로 顱骨(頭蓋骨)과 緣하고, 下로 胸椎와 接함.

驚厥(경궐)

①突然 甚한 精神刺戟을 받아서, 氣血이 逆亂되어, 地上에 昏倒하여 人事不省이 되는 現象을 말함. ②小兒의 驚風證候를 말함.

經筋(경근)

「十二經筋」의 項 參照.

經氣(경기)

①일반적으로 經脈中을 運行하는 「氣」를 말하며, 또한 經脈의 主要機能을 뜻한다.(例: 素問·陰陽別論 “淖則剛柔不和 經氣乃絶”). ②人體內的 「眞氣」或은 「正氣」를 代表하며, 人體의 正常生活能力과 疾病防禦能力을 뜻하고, 또 致病病原인 「邪氣」와 서로 對立되는 名稱이기도 하다(例: 素問·離合眞邪論 “眞氣者 經氣也”).

經斷(경단)

「經絶」이라고도 함. 婦女가 49歲前後에 月經이 終止되는 것을 말함(어떤 사람은 病理的인 月經閉止을 「經閉」라 하고, 生理的인 月經終止를 「閉經」이라 한다고 말하기도 함). 月經이 終止되기 前에, 만약 經期의 先後로 不定하고, 月經量이 過多 或은 過少하더라도 다른 臨床症狀이 없으면, 正常生理現象에 屬한다. 만약, 頭暈하고, 耳鳴心悸하며, 心煩易怒하고, 情緒의 異常, 手心發熱, 月經量이 過多하거나, 或은 漏下淋瀝이 持續되는 것은, 腎氣가 衰弱하고, 衝·任脈이 虛損된 所致이다. 만약 潮熱汗出, 顴紅口乾, 脈弦細數을 隨伴하는 것은 陰虛陽亢에 屬한다. 만약 腰痛陰墜를 隨伴하면 腎陽偏虛와 衝·任二脈의 虛衰이다.

經絡(경락)

人體內的 經脈과 絡脈의 總稱, 무릇 直行하는 幹線을 모두 經脈이라 하며, 經脈에서 分出되어, 身體各部分을 網絡한 支脈을 絡脈이라 한다. 經絡은 全身의 氣血을 運行하고, 臟腑肢節을 連繫하며, 上下內外를 疏通시키고, 體內各部分을 調節하는 通路이다. 經絡系統의 連繫를 通하여 人體는 하나의 有機的 全體가 된다. 現代醫學의 觀點에서 經絡을 보면, 神經, 血管, 內分泌 등의 構造와 그 一部機能을 包括한다. 그러나 神經 血管 등의 構造와 機能만으로는 經絡學說의 內容全部를 완전히 解釋할 수 없으며, 더 探索 研究되어야 한다.

經亂(경란)

「經行先後無定期」의 項 參照.

頸癰(경력)

癰癰의 項 參照.

經漏(경루)

「赤帶」의 項 參照.

經脈(경맥)

人體內的 氣血을 運行하고, 體內各部分을 連繫하는 主要幹線이다. 正經과 奇經의 兩大類로 나눌 수 있으며, 兩者는 共同으로 經脈系統을 組成한다.

經脈之海(경맥지해)

「十二經之海」의 項 參照.

經方(경방)

1) 後漢 斑固의 漢書, 藝文誌의 醫家類에 記載된 經方十一家를 말함 이는 漢代以前的 臨床著作이다. 2) 素問, 靈樞에 記載된 方劑와 張仲景의 傷寒論, 金匱要略의 方劑를 合稱해서 經方이라 함 3) 張仲景의 傷寒論, 金匱要略에 記載된 方劑를 經方이라 함. 一般적으로 말하는 經方은 제 3項을 指稱한다.(清代陳修園의 時方歌括 小引에 余向者滙集經方而음주지 名爲眞方歌括이라 하였다. 眞方歌括은 傷寒眞方歌括을 말하며, 傷寒論의 方劑만 있는데 陳修園은 張仲景의 著作中の 方劑를 經方이라 칭한것이 분명하다

輕方(경방)

重方에 相對되는 말로서, 奇方이나 偶方을 單用하는 것을 말함

經方派(경방파)

①「漢書藝文志·支技略」에 經方 十一家が 실려있는데, 內容은 痺·疝·癰·風寒熱·狂

癰・金瘡・食禁 등, 內科, 外科, 婦人科, 小兒科 各科의 疾病의 治療方法을 包括한 것이다. 이는 漢代 以前의 臨床醫學의 著作이다. ②後世醫家들은, 「傷寒論」, 「金匱要略」 등 古典著作중의 方劑를 經方이라 했는데, 그 立方 用藥의 法則이 比較的 嚴格하다. 醫家들 중에서 이를 尊重하여 學術的인 觀點에서 一派를 形成한 것이 經方派이다.

經別(경별)

「十二經別」의 項 參照.

瘧病(경병)

熱性病의 進行過程에서 나타나는 背强反張, 口噤不開의 病症을 말함. 主要表現은, 身熱足寒(惡寒時에 頭熱을 느끼고, 面赤 目赤함)하며, 頸項이 强急하고, 背部가 反張하며, 갑자기 口噤하고, 頭部만 搖動하며, 脈이 沈細하거나 或은 勁急을 나타낸다. 本病은 六淫이 侵襲하므로 化燥, 化風한 所致이다. 例컨대 陽明熱이 盛하여 肝風을 일으키고, 或은 心營의 熱이 盛하여 肝風을 일으키는 등이다. 무릇 熱이 盛하여 陰을 傷하고, 誤吐, 誤汗, 誤下한 重證에서도 瘧病을 發한다. 「金匱要略」에서, 發熱하면서 無汗하고, 도리어 惡寒하는 것을 「剛瘧」이라 하며, 發熱하면서 汗出하고, 惡寒하지 않는 것을 「柔瘧」이라 한다. 이밖에 小兒의 「臍風」, 「產後發瘧」, 「破傷風」, 및 「暑瘧」등이 모두 瘧病의 範圍에 屬한다. 該當項 參照.

經崩(경붕)

「崩漏」의 項 參照.

輕宣潤燥(경선윤조)

外感의 燥熱이 肺를 傷한 症候를 治療하는 方法이다. 病人이, 發熱, 頭痛, 乾咳少痰 或 氣逆喘急, 舌乾無苔或薄白而燥, 舌邊舌尖俱紅한 경우, 桑杏湯(桑葉, 杏仁, 沙蔘, 象貝母, 豆豉, 梔皮, 梨皮)을 쓴다.

輕宣肺氣(경선폐기)

輕劑를 써서 宣通시켜 氣分의 熱邪를 淸解하는 것을 <輕宣肺氣>라 한다. 例컨대 秋季의 溫燥之氣를 感受하여 身微發熱, 口乾而渴, 乾咳無痰한 경우 桑杏湯(桑葉, 豆豉, 杏仁, 沙蔘, 象貝, 梔子皮, 이皮)을 쓴다.

經水(경수)

①月經을 말함. ②經脈을 말함. 「靈樞・經水篇」에 “五臟六腑十二經水”라는 記載가 있다.

經隧(경수)

經脈이 流通하는 通路이며, 經脈의 一種別名이다 「隧」字에는 두가지 解釋이 있다. 하나는 身體의 深部에 있는 隧道の 뜻이다. 例컨대 「素問・調經論」에서 “五臟之道 皆出于經

隧以行氣血”이라 하였다. 또 하나는 五臟六腑와 서로 連繫되는 「大絡」이란 뜻이다. 예컨대 「靈樞·玉版篇」에서 “胃之所出氣血者 經隧也 經隧者 五臟六腑之大絡也”라 하였다.

莖垂(경수)

음경과 고환의 합칭이다.

涇洩不利(경수불리)

小便不利를 말하며, 또한 大小便의 不通利를 形容하는 데도 쓰인다.

頸癰(경옹)

頸의 兩側, 頤下, 耳下, 頰下 등을 包括한 部位에 發하는 癰證을 말함. 대개 風熱, 濕毒 또는 風濕挾痰 등이 小腸·陽明經絡에 壅結되기 때문이며, 또는 乳蛾(扁桃腺炎), 口疳, 齲齒(蟲齒), 頭面瘡癤로 因해 誘發되기도 하며, 小兒에게 多見된다. 그 症狀은, 처음에 發熱惡寒하고, 頸項이 强痛하며, 漸次 紅腫隆起해서, 4~5日後면 皮膚色이 漸紅하고, 腫痛이 激化되는데, 이는 化膿의 징조이며, 潰破後에 膿盡하면 癒한다.

經外奇穴(경외기혈)

明代以後의 醫家들이 傳統的觀念에 依據하여 初期醫書인 「內經」, 「甲乙經」, 「銅人腧穴鍼灸圖經」, 等書에 나타나지 않은 穴位를 統稱하여 經外奇穴이라 하였는데, 實際上 이들 穴位는 모두 歷代 鍼灸家들이 不斷히 發見한 새로운 穴位이나, 近年, 鍼灸療法 普及의 基礎 위에 臨床經驗을 通하여, 續續 臨床에 有效한 많은 新穴位를 發見하고 있는데, 이를 新穴이라 稱한다.

更衣(경의)

衣服을 바꾸어 입는 것. 古代의 上層人物들은 休息時에 옷을 갈아 입은後 便所에 갔으므로, 便所에 가는 것을 更衣라 하였다. 張仲景의 『傷寒論』에서 「不更衣」라 한 것은 不大便의 뜻이다.

經刺(경자)

①어떤 經脈에 유병할 때 그 경맥상에 刺針하는 方法 ②구刺法의 一種 丸局部와 동일한 經脈의 絡踰不通하는 部位를 針刺하는 것(靈樞 官針篇)

驚者平之(경자평지)

<素問·至眞要大論>에 있음. [驚]은 心神이 恍惚하여 不安한 것이며, [平]은 鎮靜藥을 쓰는 것을 말함. 두가지 情況에 適用된다. 하나는 氣血이 上逆하여 有餘한 證狀이 出現하는 경우이다. 예컨대, 癲狂病患者는 躁優不寧하므로 鎮靜劑中에서 [重鎮安神]法을 써야 한다. 또 하나는 心血이 虧損하여 不足한 病後가 出現하는 경우이다. 예컨대 患者가 心悸 易驚하면, 鎮靜劑中의 [養血安神]法을 써야 한다.

脛疽(경저)

<股脛疽>의 項 參照.

經絶(경절)

「經斷」의 項 參照.

輕劑(경제)

輕可去實로서 麻黃, 葛根의 類이다, 風邪가 外表에 있어서 實證을 形成한 경우, 肌表를 輕開하여 風邪를 除去하는 方藥을 써야 한다. 例컨대 發熱惡寒, 頭痛身疼, 骨節痛, 口不渴, 無汗而喘, 脈浮緊한 경우 麻黃湯(麻黃, 桂枝, 杏仁, 甘草)을 쓴다. 또 身熱이 있고 不惡寒, 但惡熱, 微汗, 頭痛, 口渴, 脈浮數한 경우 加減葛根葱白湯(葛根, 葱白, 連翹, 金銀花, 川芎)을 쓴다.

莖中痛(경중통)

「경」의 項 參照

經證(경증)

經證과 腑證은, 六經辨證中 어느 一經의 證候를 다시 分類한 것이다. 經脈은 모두 臟腑와 內連되었는데, 病邪가 經脈의 氣를 侵擾하였지만, 아직 腑에는 結集되지 않는 症狀을 經證이라 하며, 만약 腑에 結하면 腑證이라 한다. 臨床上, 經證과 腑證은 一般的으로 三陽經의 疾病을 말한다. 經證과 腑證의 區分은, 後世의 <傷寒論>註釋家들이 定한 名稱이다. 例컨대 太陽病의 惡寒, 頭痛, 發熱과 陽明病의 身壯熱, 煩渴, 自汗症, 그리고 少陽病의 寒熱往來, 心胸煩悶 등을 經證이라 한다.

經遲(경지)

「經行後期」의 項 參照.

經盡(경진)

傷寒病이 어느 一經에 있었었는데, 一定期間의 治療를 거쳐 病情이 점차 好轉되어, 一部餘邪도 그 本經의 段階內에서 消除되고, 다른 一經으로 傳變하지 않는 것을 經盡이라 한다.

輕清疏解(경청소해)

略歷이 비교적 輕한 解表藥과 治咳化痰藥으로 組成하여 傷風으로 인한 頭微痛, 鼻塞, 咳嗽 等症에 적용하는것. 常用藥物로는 薄荷, 牛蒡子, 桔梗, 苦杏仁, 橘皮 등이 있다.

驚則氣亂(경칙기란)

『素問·舉痛論』에 있음. 「氣亂」은 氣機의 紊亂을 뜻함. 大驚하면 氣機가 紊亂하여, 氣血의 調和가 失調되어, 心神不安하며 甚하면 精神錯亂 等症을 나타낸다.

炁則氣泄(경칙기설)

「熱則氣泄」의 項 參照. 「素問·舉痛論」에 있음. 炁은 熱을 말함. 뜻은, 熱이 있으면 腠理毛孔이 弛緩되어 皮膚의 散熱을 增加시켜, 陽氣가 外泄해서 多汗이 됨을 말함.

經閉(경폐)

發育이 正常인 女子는, 平均 14歲前後에 來經하는데, 만약 年齡이 많이 지나도록(일반적으로 18歲를 지나도록) 月經이 없거나, 或은 이미 月經은 왔는데, 妊娠·哺乳에 의하지 않고, 三個月以上 月經이 中斷되며, 同時에 病狀이 出現하는 것을 「經閉」 或은 「不月」이라 한다. 그런데 어떤 婦女는 身體에 無病하면서, 月經이 每月 來潮하지 않는 예도 있다. 例컨대 月經이 二個月에 一回씩 오는 것을 「併月」이라 하며, 三個月에 一回 오는 것을 「居經」 或은 「季經」이라 하며, 一年에 겨우 一回 오는 것을 「避年」이라 한다. 심지어 平生토록 行經이 안되거나 或은 每月 定期的으로 腰痠의 感覺이 있을 뿐이면서, 受胎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를 「暗經」이라 한다. 但 이러한 狀況은 極히 드문 것이다. 以上은 모두 病態에 屬하지 않으며, 經閉와는 實質的로 다른 것이다. 經閉은 일반적으로, 血虛와 血滯의 二大類型으로 나뉜다. (1) 血虛: 脾虛에 起因한 경우는, 面色萎黃, 疲倦, 頭目眩暈, 消化不良, 腹脹不舒 等症이 常見된다. 心腎의 虧損에 起因한 경우는, 面色蒼白, 腰膝痠軟, 心悸氣促, 目眩耳鳴, 手足心熱 等症을 나타낸다. (2) 血滯: 氣滯血瘀에 起因한 경우는, 面色暗紫, 下腹疼痛拒按, 或은 疼痛이 脇部에 미치는 等症을 나타낸다. 寒濕의 凝滯에 起因한 경우는, 面色靑白, 下腹冷痛, 怕冷, 脘悶作嘔하고, 白帶下을 兼發하는 等症을 나타낸다. 「經閉」는 「閉經」이다. 古醫書에서는 習慣的으로 閉經을 經閉라 하였다.

驚風(경풍)

이는 小兒科에서 常見되는 病症의 하나이다. 驚은 驚厥이며, 風은 抽風이다. 兒童疾患中에서 風으로 因해 나타나는 驚厥 抽搐症狀를 驚風이라 統稱한다. 「急驚風」, 「慢驚風」의 二種類로 나뉜다. 詳細한 것은 各項을 參照.

驚風八候(경풍팔후)

驚風의 八種類의 症狀表現을 말함. ①搐: 肘臂를 伸縮하며 떠는 것. ②掣: 兩肩이 위아래로 떨리는 것. ③顫: 手足이 떨리는 것. ④搦: 兩手를 握拳하거나 或은 十指의 開合이 마음대로 안되는 것. ⑤反: 角弓反張. ⑥引: 팔이 활을 벌리는 것처럼 되고 손이 화살을 당기는 것처럼 되는 것. ⑦竄: 眼睛이 上視되는 것. ⑧視: 眼睛이 斜視가 되고, 흰자위가 드러나며 멍한 것.

經行便血(경행변혈)

每月 行經周期에 大便下血이 생기며, 經血量이 減少되는 病症을 말하며, 「錯經」이라고도 함. 대개는 腸中에 積熱하여 迫血 妄行하기 때문이다. 子宮內膜轉位の 病症과 類似하다.

經行腹痛(경행복통)

「痛經」의 項 參照.

經行不爽(경행불상)

「月經過少」의 項 參照.

經行先期(경행전기)

「月經先期」라고도 함. 月經의 來潮이 正常周期보다 一週日以上 앞당겨지고, 甚한 경우는 一個月에 二回 來潮하는 것을 말함. 일반적으로 볼 때, 本病은 熱에 屬하는 경우가 비교적 많다. 經血量이 많고, 深紅色이며, 質이 濃稠하고, 煩躁 口乾 脈數을 兼發하는 것은 血熱에 屬한다. 만약 經血量이 적고, 鮮紅色이며, 質이 淸稀하고, 手掌足底가 熱하면 虛熱에 屬한다. 氣虛한 경우의 症狀은, 經血量이 많고, 質이 稀薄하며, 淡色이고, 顏色이 蒼白하며, 心身이 疲倦하고, 氣短懶言하며, 頭重 眩暈하고, 舌淡 脈遲하다. 이밖에 肝鬱 或은 血瘀에 屬하는 경우도 비교적 많이 볼 수 있다.

經行先後無定期(경행선후무정기)

「經亂」, 「月經愆期」라고도 함. 月經이 正常周期대로 來潮하지 않고, 或은 앞당겨지며, 或은 늦어지고, 或은 不定期가 됨을 말함. 本病을 일으키는 原因이 매우 많다. 腎虛에 依한 경우가 있고, 肝氣鬱結에 起因하는 경우가 있으며, 脾虛에 起因하는 경우가 있고, 瘀血積滯에 起因하는 경우도 있다. 臨床辨證에 있어서, 腎虛에 屬한 경우는, 經血이 暗淡色이고, 質이 稀薄하며, 眼眶이 暗黑色을 띠고, 腰脊이 痠痛乏力한 等症을 나타낸다. 肝氣鬱滯에 屬한 경우는, 經血이 暗紅色이고, 腹脇이 脹痛 不舒하며, 易怒 等症을 나타낸다. 脾虛에 屬한 경우는, 肢倦하고, 消化不良하며, 便溏하고, 經血이 淡色이며 粘液이 섞이는 症狀을 나타낸다. 瘀血積滯에 起因한 경우는, 月經에 언제나 血塊가 있고, 下腹部이 疼痛하여 拒按한다.

經行泄瀉(경행설사)

月經前 或은 來潮時에 大便을 泄瀉하는데, 經行하면 泄瀉하고, 月經이 그치면 泄瀉도 止함을 말함. 脾虛 或은 腎陽虛가 서로 影響을 미치어 水濕을 運行하지 못하기 때문이

며, 대개 面黃, 四肢乏力, 口淡食減을 隨伴하며, 甚하면 浮腫 腹脹 等症을 發하기도 한다.

經行吐衄(경행토늑)

「倒經」의 項 參照.

經行後期(경행후기)

「經遲」라고도 함. 月經의 來潮이 平時의 周期보다 一週日以上 遲延되는 것. 血虛, 血寒, 痰阻, 氣鬱血瘀 등 多種이 있는데, 虛症 寒症이 많다. 虛症은 대개 腹痛이 계속되어 按擦을 좋아한다. 만약 經血이 淡色이고, 量少하며, 質이 稀薄하고, 身體가 瘦弱하며, 面色이 蒼白하면 血虛症에 屬한다. 經血色이 깨끗하지 않고, 黑色을 띠기도 하며, 量이 적고, 惡寒倦怠하며, 肢冷한 것은 血寒證에 屬한다. 經血이 淡色하고, 粘稠하며, 帶下이 계속되고, 心悸 頭眩하는 것은 痰阻證에 屬한다. 經行이 不暢하고, 少腹이 隱痛하며, 腰部이 당기고 아프며, 或은 乳房가 脹痛하는 것은 氣鬱證에 屬한다. 經血이 暗紫色이고, 血塊가 많으며, 下腹部이 疼痛하여 손을 대지 못하게 하고, 만져보면 包塊가 있는 것은 血瘀證에 屬한다.

經穴(경혈)

①經脈의 體表循行路線上에 分布된 穴位의 總稱이며, 그중에는 十二正經의 經穴과 奇經中の 任·督 二經脈의 經穴(즉 十四經經穴)이 包括된다. 奇經中の 其他六脈에는 모두 專穴이 없다. ②五腧穴의 一種이며, 모두 腕關節 혹은 踝關節附近에 있다. 「靈樞·九鍼十二原篇」에서 “所行爲經”이라 하였다. 이는 經脈의 流注方面이 마치 큰 河水가 迅速히 流行하는 것과 같다는 것이다. 全身의 十二經에 각각 하나의 經穴이 있다. 그 名稱은 아래와 같다. 肺－經渠 大腸－陽谿 心包－間使 三焦－支溝 心－靈道 小腸－陽谷 脾－商丘 胃－解溪 肝－中封 膽－陽輔 腎－復溜 膀胱－崑崙

溪(계)

「溪谷」의 項 參照.

季經(계경)

「經閉」의 項 參照.

溪谷(계곡)

「谷」과 「溪」는 모두 肢體 筋肉間의 相互 接觸되는 間隙 혹은 陷凹部를 말함. 그중 큰 間隙部를 「谷」 혹은 「大谷」이라 하며, 十二經脈의 循行部位에 該當한다. 작은 陷凹部를 「溪」 혹은 「小溪」라 하며, 全身의 365個 經穴의 部位에 該當한다. 例컨대 「素問·氣穴論」에서 “肉之大會爲谷 肉之小會爲溪”라 하였고, 또 “溪谷三百六十五穴會”라 하였으며, 「

素問·五臟生成論』에서 “人有大谷十二分 小谿三百五十四名 少十二俞”라 하였다.

季肋(계륵)

季脇, 軟肋이라고도 함. 側胸의 제 11-12肋軟骨部位.

鷄盲(계맹)

‘夜盲’의 項 參照.

鷄鳴(계명)

「十二時」의 項 參照

鷄鳴瀉(계명사)

<溫補命門>의 項 參照.

鷄眼(계안)

肉刺라고도 함. 足脂나 足底前端에 잘 생기는 티눈이다. 본명은, 꼭끼는 구두를 신거나
惑은 足骨이 본래 畸形이므로, 足部の 皮膚가 長期的으로 刺戟을 받아서 생기는 수가
 많다. 鷄眼은 圓錐型的 角質이 增生 硬結된 것이며, 數는 一定하지 않고, 뿌리가 깊으
며, 皮膚가 增厚하여 頂點部가 突出해서, 언제나 疼痛하므로 步行에 支障이 있다.

瘰癧(계종)

俗稱 「抽風」이라 함. 이는 小兒驚風의 하나의 症狀이다. 瘰는 筋肉이 당기며 攣縮되는
것이고, 癧은 筋肉이 弛緩되어 늘어지는 것임. 瘰癧은, 手足이 때때로 伸縮하며 痙攣이
그치지 않는 狀態를 形容한 것이며, 熱極生風, 肝風內動의 證候이다.

桂枝湯(계지탕)

<解肌>의 項 參照.

桂枝湯(계지탕)

奇方의 項 參照

齟齬(계치)

睡眠時에 上下의 齒牙를 摩擦하여 소리를 내는 症狀. 대개 胃熱 或은 蟲積의 所致이다.

鷄咳(계해)

「百日咳」의 項 參照.

季脇(계협)

季肋의 項 參照.

鷄胸(계흉)

小兒의 生長發育障礙가 畸形으로 變한 一種의 疾患이다. 대개는, 先天的인 體質虛弱, 後天的인 營養失調, 脾腎虧損, 胸骨의 柔弱에 依해 생긴다. 그 症狀은, 胸廓이 前向으로 畸形突出하여 마치 鷄胸과 같으므로 이렇게 이름한다. 이는 佝僂病의 症狀의 하나이다.

鼓(고)

<五不女>의 項 參照.

鞞(고)

고환을 말함. 「란」 혹은 「음란」이라고도 함.

膏(고)

內服用과 外用의 二種으로 나뉜다. 內服用의 膏劑는 藥物에 물으 ㄴ붓고 재삼 煎熬하 오 하여 여과해서 거예를 버리고 빙사당 봉밀등을 가하여 조후한 고로 졸여서 장기服用하게 된다. 膏劑에는 保養治療作用이 있어서 慢性疾病 혹은 身體虛弱자에서 사용된다. 外用의 유고를 藥고라고도 하면 봉밀은 면실유나 낙화생유에 넣고 加熱 溶化하여 뜨거울 때 藥物의 세분을 加入해서 잘 각반하여 식어서 凝固되면 完成된다. 음편(전藥의 절편)이면 먼저 기름을 끓여서 음편을 넣고 堅固하게 되겨서 去渣하고 藥物의 세분을 加入한다 冰片(龍腦香) 樟腦등의 揮發하기 쉬운 藥은 유고가 식은 後에 加入 각癥痕것이 좋다 外用의 藥膏는 一般的으로 皮膚의 瘡瘍 疥癬등에 塗布한다.

股(고)

大腿部.

尻(고)

骶骨(仙骨)에서 尾骶骨에 이르는 部分의 總稱.

蟲(고)

虫鼓의 項 參照.

股脛疽(고경저)

疽가 股部(大腿) 或은 (小腿)에 생기는 것의 總稱이다. [靈樞. 癰疽篇]에서, “發於股脛 名曰股脛疽, 其狀不甚變 而癰膿搏骨”이라 하였다. 本病은 대개 風寒濕의 凝結에 의해 생기며, 或은 情志鬱結, 肝脾兩虧, 氣滯痰凝에 의해서도 생긴다. 처음에는 堅硬하게 塊狀을 이루어, 크기가 指頭만하며, 皮膚色은 不變하고, 緩慢하게 腫起가 擴散되어 化膿하여 膿이 깊이 骨에 이르고, 잘 潰破되지도 않고, 잘 收縮되지도 않는다. 發生部位의

差異에 따라 多種의 名稱이 있다. 股部에 發하는 것을 股疽 或은 大腿疽라하고, 股의 外側에 發하는 것을 股陽疽라 하며, 股內側의 陰部에 가까운 곳에 發하는 것을 股陰疽라 하고, 脛部에 發하는 것을 脛疽 或은 小腿疽라 한다.

高骨(고골)

手腕部(손목)의 拇指에 가까운 쪽의 顯著히 隆起된 部分. 解剖學上的 腰骨莖狀突起部位.

尻骨(고골)

解剖學上的 骶骨(仙骨), 上面은 腰椎와 連接되고, 下面은 尾樞와 連接되며, 左右兩側은 腸骨(古稱은 髌骨)과 連接됨.

蠱毒(고독)

①人體의 腹內的 寄生虫. 感染되면 사람에게 蠱脹病을 일으키게 한다. 住血吸虫의 幼虫의 類이다. ②古代에 사람의 知覺을 잃게 하던 一種의 毒藥.

痼冷(고랭)

「內有久寒」이라고도 함. 「痼」는 久病의 뜻. 寒氣가 身體의 어느 한 經絡이나 臟腑에 久伏하여, 局部的인 寒證을 形成해서, 오래도록 不癒함을 말함. 例컨대 臍腹冷痛, 清涎의 嘔吐, 骨節의 拘急疼痛, 四肢不溫 等이다. 대개 脾胃이 虛弱하고, 內部에 寒飲이나 寒濕이 있는 久痺患者에게 나타난다.

膏粱厚味(고량후미)

肥膩濃厚한 食物. 長期的으로 多食하면 胃腸機能에 影響을 미칠 뿐만 아니라. 內熱과 瘡瘍의 病症이 생기게 된다. 故로 「素問·生氣通天論」에서 “膏粱之變 足生大疔……”이라 하였다.

膏淋(고림)

主要症狀은, 小便이 混濁하여 쌀뜨물(米泔)과 같고, 或은 기름진 液體 같으며, 排尿가 不暢하다. 尿道가 熱澁하면서 疼痛하는 것은 實證에 屬하며, 不熱 不痛한 것은 虛證에 屬한다. 實證은 대개 濕熱이 下注하여, 膀胱에 蘊結되어, 氣化作用이 안 되므로, 脂液을 制御하지 못한 所致이다. 虛證은 대개 腎虛로 인해 脂液을 蒸化하지 못하고, 制約하지 못한 所致이다.

膏摩(고마)

膏藥으로 국부를 마찰하는 것이다. 예컨대 거풍약 혹은 항균성약물에 酒를 가하여 달여서 稠厚한 고약을 만들어 천에 이 고약을 묻혀 국부를 마찰하면 관절통 혹은 피부선병을 치료할 수 있다.

枯痞(고배)

「白痞」의 項 參照.

孤腑(고부)

三焦를 말함. 六腑中에서 三焦만은 五臟과 서로 配合되지 않으므로 孤腑라 함.

固崩止帶(고붕지대)

부녀의 血崩, 月經日久不止, 帶下淋瀝等증을 치료하는 방법이다. 예컨대 부녀의 崩中, 漏下(崩은 突然 흘러내리듯이 하혈하는 것이고, 漏는 지속적으로 부단히 淋瀝하는 것임)가 日久 하여 血滑不禁하고 기허증에 치우치며 면색창백하고 때로 미열이 있으며 心煩氣短, 飲食減少, 舌質淡紅, 脈虛數한 경우 歸脾湯(白朮, 황기, 茯神, 黨參, 酸棗仁, 遠志, 木香, 甘草, 龍眼肉, 當歸)을 쓰며 여기에 炭劑(棉花實을 赤色이 되게 炒한 것과 陳棕炭, 貫衆炭 各3錢씩을 共研細沫하여 每服三錢씩, 每日二回)를 가용하여 치료한다. 부녀대하의 腎虛증으로 白帶下가 清稀하며 面色蒼白, 頭目眩暈, 腰痠如折, 舌質淡, 脈虛한 경우 首烏枸杞湯(何首烏, 枸杞子, 托絲子, 桑朮, 赤石脂, 狗脊, 杜仲, 熟地黃, 藿香, 砂仁)을 써서 치료하면 좋다.

固澁(고삽)

固攝, 收澁이라고도함. 滑脫不收(自汗, 盜汗, 久瀉, 脫肛, 遺精, 早泄, 失血, 崩漏, 帶下等을 말함)를 치료하는 방법이다. 滑脫不收의 증후는 모두 體虛로 인해 惹起되며 허가 본증이고 滑脫은 표증이다. 그러므로 신체허약의 구체적 正황에 따라 각이한 약물을 배오하여 치료를 진행해야 한다. 氣虛 혹은 陽虛의 증후가 있으면 補氣약 혹은 補陽약을 동용하고 血虛 혹은 陰虛의 증후가 있으면 補血약 혹은 補陰약을 동용하여 표증과 본증을 겸치(標本兼治)해야만 좋은 효과를 거둘 수 있다. 固澁약은 수가 많지 않다. 어떤 처방약은 一味의 고삽약을 쓰지 않고서 병의 본질에 적합하여 고삽의 효과를 얻게 되는데 이것도 역시 고삽법의 범주에 속한다. 본법은 일반적으로 초기에는 쓰지 않는다. 表邪가 微解하거나 혹은 表邪가 남아 있는 경우에도 쓰지 않는다. 병사를 체류시킬 유려가 있기 때문이다. 본법은 斂汗固表, 斂肺止咳, 澁腸止瀉, 固腎澁精, 固崩止帶등으로 나뉜다.

固泄(고설)

「固」은 大小便의 不通이고, 「泄」은 大小便의 不固이다. 「素問·至眞要大論」에서, “諸厥固泄 皆屬於下”라 하였다.

固攝(고섭)

固澁의 項參照

固腎澁精(고신삽정)

腎氣가 不固하여 遺精하고 배뇨횟수가 빈삭함을 치료하는 방법이다. 유정하거나 혹은 무의식중에 精出하며 夜間盜汗 腰痛耳鳴 四肢無力한 경우 金鎖固精丸(사원질려, 次實, 蓮

鬚,龍骨,牡蠣)을 쓴다. 혹은 소변의 횡수가 많고 소변색이 맑으면서 양이 적은 경우 桑
표초散(桑표초,遠志,龍骨,菖蒲,黨參,茯神,當歸,龜板)을 쓴다.

箍藥(고약)

고위약의 項 參照

膏藥(고약)

薄貼의 項 參照

孤陽上越(고양상월)

「虛陽上浮」의 項 參照.

股陽疽(고양저)

<股脛疽>의 項 參照.

苦溫燥濕(고온조습)

<燥濕>의 項 參照.

苦溫平燥(고온평조)

外感의 涼燥로 因한 表症을 治療하는 方法이다. 患者가 頭微痛하고, 怕冷, 無汗, 鼻塞, 流清涕, 咳嗽, 痰多精稀, 脣燥咽乾, 苔薄白而乾, 脈弦 等症을 나타내는 경우, 杏蘇散(杏仁, 陳皮, 蘇葉, 半夏, 前胡, 桔梗, 茯苓, 地殼, 甘草, 生薑, 大棗)을 쓴다.

箍圍藥(고위약)

圍藥,고藥이라고도 함 初期의 腫瘍의 周圍를 濕潤한 藥泥로 둥글게 발라서 瘡形을 縮小高突케하여, 化膿과 潰破를 容易하게 하는 것이다. 初期에 쓰는 것이 좋으며, 潰膿後에 餘腫이 未消한 境遇에도 고 圍藥으로 消腫시킬 수 있다. 但 藥性에 寒熱의 差異가 있다. 例컨대 金黃散 (大黃,黃柏,薑黃,白芷,南星,陳皮,蒼朮,厚朴,甘草,天花粉을 散劑로 만든다)은 藥成이 偏涼하여 清熱靑腫하므로 腫瘍의 陽證에 適宜한다. 葱汁,酒,麻油,菊葉 或은 絲瓜葉의 搗汁을 選用하여 調藥해서 外敷한다. 回陽玉龍膏(草烏,乾薑,赤芍藥,白芷,南星,肉桂)는 藥性이 溫熱하여 陰證에 사용되며 熱酒로 調敷한다.

鼓慄(고율)

寒慄鼓舍의 項 參照

股陰疽(고음저)

<股脛疽>의 項 參照.

苦入心(고입심)

『五味所入의 項 參照.

高者抑之(고자억지)

<素問. 至眞要大論>에 있음. [高]는 上向 衝逆하는 證候를 말하며, 抑은 抑强하는 作用을 말함, 例컨대, 肺氣가 上逆하여, 咳嗽哮喘하고, 痰多氣急한 경우는 [降逆下氣]法을 쓴다.

孤臟(고장)

①脾臟을 말함『素問·玉機眞藏論』에서, “脾脈者 土也 孤藏以灌四傍者也”라 했는데, 이는 脾土가 中央에 位置하여 四季(春夏秋冬에 肝·心·脾·腎이 各其 그 脈을 나타냄)를 旺盛케 한다는 뜻임. ②腎臟을 말함. 例컨대 『素問·逆調論』에서, 肝 一陽也, 心二陽也, 腎 孤臟也. 一水不能勝二火“라 했는데, 여기서 「一水」는 腎水를 말하며, 一個 腎水가 肝·心二陽의 火를 制勝不能하여, 孤軍奮鬪의 뜻이 있으므로 孤臟이라 함.

股疽(고저)

<股脛疽>의 項 參照.

固精(고정)

澁精을 말함

痼疾(고질)

長期間 治療해도 낫지 않는 비교적 頑固한 慢性疾病을 말함.

鼓脹(고창)

腹部가 북처럼 脹大해지고 皮膚色이 萎黃하여 脈絡이 表面에 露呈됨을 特徵으로 하는 病證이다. 發病原因에 여러가지가 있다. 情志가 鬱結하므로 氣가 調達되지 못하여 肝氣가 損傷되는데 起因하는 수가 있고 飲食의 不節制 過度한 嗜酒로 인해 脾胃가 損傷되어 運化機能을 喪失하는데 起因하는 수가 있으며 蟲積 或은 其他의 傳染病으로 肝氣가 損傷되어 氣血이 阻碍되는데 起因하는 수가 있다. 病變은 대개 肝脾腎의 三臟에 있으며 相互 影響을 미치어 氣血 水濁이 腹內에 瘀積되므로 腹部가 날로 脹大해져서 鼓脹이 된다 만약 患者의 頭面 四肢는 消瘦하고 腹部만 膨脹되는 것은 單腹鼓라 하며 그 形象이 蜘蛛와 비슷하므로 蜘蛛鼓라고도 함.

蠱脹(고창)

虫鼓의 項 參照.

枯痔法(고치법)

먼저 고치약을 痔核상에 바른 다음 고치주사제를 치핵 내에 주사하여 치핵을 乾枯 壞死 脫落케 하여 치유하는 방법이다. 二三期の 탈출된 內痔 絞窄性內痔 內痔兼 輕한 貧

血 노년환자 혹은 혈압이 약간 높은 환자에게 적용한다. 外痔와 항문외로 탈출되지 않는 초기의내치 및 직장종류로 야기된 內痔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嚴重한 肺 肝 腎痰患 高血壓병 및 血液병 임신임부 등에게도 적용하지 않는다. 枯痔법은 현재 적지않게 개선되어 각지방의 방법이 완전히 일치되지는 않았지만,각기 장단점이 있다.

高風雀目(고풍작목)

‘夜盲’의 一種이며, 先天的으로 不足한 遺傳性疾病이다. 患者가 晝間에는 視覺이 正常인데, 夜間 或은 暗黑處에서는 兩眼의 視野가 管狀으로 좁아져서, 겨우 直視를 할 뿐이다. 本病은 視網膜色素變性(網膜色素變性)에 該當한다.

固瘕(고가)

「傷寒論·辨陽明病脈證并治法」에 있음. 이는 胃腸病의 一種이다. 主要症狀은, 大便이 先硬後溏하고, 或은 硬糞과 稀糞이 섞여 나온다. 이는 腸間에 寒氣가 結聚된 所致이다.

苦寒泄熱(고한설열)

<苦寒清熱>의 項 參照.

苦寒燥濕(고한조습)

<燥濕>의 項 參照.

苦寒清氣(고한청기)

性味가 苦寒한 藥物을 써서 氣分의 熱은 清解하는 것이다. 例컨데 春溫病의 초기에 發熱, 不惡寒(或은 微惡寒), 骨節疼痛, 口渴寒少, 小便黃, 舌質紅, 苔黃, 脈數한 경우, 黃芩湯(黃芩, 芍藥, 甘草, 大棗)을 쓴다.

苦寒清熱(고한청열)

<苦寒泄熱>이라고도 함. 性味가 苦寒한 藥物을 써서 裏熱을 清解하는 方法이다. 例컨데 病人이 裏熱이 嚴重하므로 煩躁하고 甚하면 發狂하며 乾嘔, 小便紅, 橫說긴設, 夜間睡眠不安, 或吐血, 鼻出血, 發斑, 舌苔黃或乾黑 起芒刺, 脈沈數한 경우는 黃連解毒湯(黃連, 黃芩, 黃柏, 梔子)을 쓴다.

鼓花(고화)

<五不女>의 項 參照.

膏肓(고황)

①膏는 心下部이고, 肓은 心下, 膈上의 部位이다. 膏肓이란, 主로 病位의 深隱을 뜻한다. 古人은 病位가 深隱하면, 藥物·針灸를 써도 그다지 큰 作用을 일으킬 수 없다고 생각했다. 所謂「病入膏肓」에는 不治症 혹은 難治症이란 뜻이 있다. ②足太陽膀胱經의 穴名. 第4椎下, 第5椎에 가까운 上方의 脊에서 兩傍 各 3寸部位이다.

谷(곡)

「溪谷」의 項 參照.

曲(곡)

麴국 이라고도 함. 藥의 粉末과 밀가루를 混合해서 반죽하여 塊狀을 만들어 醱酵시킨 것을 곡제하 한다. 一般的을 水煎服하면 대개 비의로 입하여 消化를 돕는데 六神曲 半夏曲 沈香曲등이 있다.

曲骨(곡골)

①橫骨의 중앙부, 恥骨結合部에 該當함. ②穴位名, 恥骨結合의 上緣의 正中點이며, 任脈에 屬함.

穀氣(곡기)

「水穀之氣」라고도 함. 飲食物의 精氣를 말함. 사람의 飲食物은 五穀을 爲主로 하기 때문에 이렇게 이른다.

穀疸(곡달)

「金匱要略」에 있음. 黃疸의 類型의 하나이다. 飽食失節, 飢飽不均, 濕熱, 食滯의 中焦阻遏로 因해 惹起된다. 主要症狀은, 食卽頭眩하고, 煩悶하며, 胃中에 不爽하고, 腹滿하며, 大便溏泄, 小便不利, 身面發黃 등이다.

曲隅(곡우)

『曲周』의 項 參照.

曲周(곡주)

『曲隅』라고도 함. 額角의 外下方, 耳前上方의 髮際가 아래로 彎曲된 部分.

曲鰵(곡추)

委中癰의 項 參照

骨(골)

골은 인체에 중요한 지가작용을 한다. 골내에 수를 장하며 수는 신에 소장된 정기가 변화해서 생긴 것으로 골격을 자양하므로 골격의 생장과 기능상태는 신기의 성쇠에 따라 결정된다. 또한 치아는 골의 여기(소위 “치위골지여”로서 실은 신기의 일부분이다)의 소생이므로 치아의 생장과 기능여하는 모두 신과 유관하다.

骨極(골극)

六極의 項 參照.

骨度(골도)

骨格의 長短과 大小의 度數를 말함. 古人이 人體의 全身部位와 骨格의 길이, 크기를 測定한 標準數值였으며, 人體의 部位(主로 穴位)를 測定하는데 重要的 參考데이터(data)가 될 수 있다.

骨癆(골로)

流痰의 項 參照.

骨瘤(골류)

瘤의 一種이다. 腎氣의 虧損, 寒邪와 瘀血이 骨에 凝滯함으로써 생긴다. 紫黑色이며, 돌처럼 堅硬하고, 腫瘡隆起하여 밀어도 移動하지 않고, 骨에 단단히 附着되었다.

骨痺(골비)

素問·痺論에 있음. 氣血이 不足하여 寒濕의 邪가 骨髓를 損傷하는 病證을 말함. 主要症狀은 骨痛 沈重하고 麻痺感이 있으며 四肢이 沈重하여 들기 어렵다.

骨傷科(골상과)

正骨의 項 參照.

骨痿(골위)

素問·痿論에 있음. 痿證의 하나이다. 症狀은 腰背가 痿軟하여 直立하기 어렵고 下肢가 痿弱無力하며 面色이 暗黑하고 牙齒가 乾枯하는 등이다. 大熱로 인해 陰核을 灼傷하거나 或은 長期的인 過勞 腎精의 虧損 腎火의 亢盛等에 의해 骨이 枯槁해지고 水液이 減少된 所致이다.

骨疽(골저)

<附骨疽>의 項 參照.

骨折(골절)

骨의 斷裂이다. 대개는, 外來의 暴力 惑은 肌肉의 強力한 牽引에 의해, 骨의 完全性이나 惑은 連續性이 破壞되므로 생긴다. 閉合性과 開放性的의 二種類가 있다. 前者는, 皮肉이 破損되지 않고, 骨斷部位가 體外로 相通되지 않는 것이며, 後者는 骨斷部位로 通하는 傷口가 있어서, 感染의 可能性이 있으므로, 病情이 比較的 重하다. 臨床表現은, 局部의 瘀血, 腫瘡, 疼痛, 畸形, 壓痛, 骨의 摩擦音이나, 縱軸의 軋轢에 의한 擊痛 等이며, 患者는 突然한 負傷으로, 疼痛이나 出血로 因해 쇼크를 일으키기도 한다. 이 밖에, 骨質自體에 本來 腫瘤, 結核 惑은 骨髓炎 等の 病變이 있으므로, 輕傷에 의해 骨이 斷裂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病理性骨折이라 한다.

骨蒸(골증)

骨은 深層이라는 뜻이고 蒸은 薰蒸이라는 뜻이다. 陰虛潮熱의 熱氣가 裏部에서 誘發해 나오므로 이렇게 이름한다. 이러한 熱型은 언제나 盜汗을 兼發하며 肺癆病의 主證의 하나이다. 骨蒸癆熱이라고도 함.

骨蒸癆熱(골증로열)

骨蒸의 項 參照.

骨會(골회)

「八會穴」의 項 參照.

攻潰(공궤)

透膿약인 穿山甲片 조각자 등을 重用하여 瘡양을 농출독설시켜 종통을 소퇴케 하는 것이다.

空竅(공규)

인체의 외계와 연연되는 공규를 말하며, 구규를 포괄함.

攻裏不遠寒(공리불원한)

<素問. 六元正紀大論>에 있음. [遠]은 여기서 忌避의 뜻이다. 裏部에 熱積한 경우, 寒下藥이 아니고서는 消除시킬 수 없으므로, 攻裏에 寒藥을 忌避하지 않는다. 단, 腹中이 寒하여 大便寒秘인 경우에도, 寒下藥을 쓰는데, 藥物의 配合이 다르다. 例컨대 大便寒秘에 大黃附子湯을 쓴다. 大黃은 苦寒하고, 附子는 大辛大熱하며, 細辛은 辛溫하여, 이를 合用하면 溫下劑가 된다.

攻補兼施(공보겸시)

邪氣가 實하고 正氣가 虛한 病에 攻邪가 必要한데 攻下法을 單用하면 正氣가 지탱하지 못하고 補益法을 單用하면 邪氣가 더욱 壅滯되므로 攻中에 補가 있고 補中에 攻이 있는 攻補兼施法을 써서 邪氣를 제거함과 아울러 正氣를 傷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이 方法에 두가지가 있다. 1) 補氣瀉下: 瀉下藥과 補氣藥을 同用하여 熱結腸胃, 正氣衰竭, 大便秘結或下痢清水, 腹部脹痛拒按, 高熱口渴, 神昏譫語, 舌苔焦黃起芒刺, 脈滑數無力 等症을 發하는 症狀을 治療한다. 이런 境遇는 黃龍湯(大黃, 芒硝, 枳實, 厚朴, 黨蔘, 當歸, 甘草, 生薑, 大棗)을 쓴다. 2) 滋陰瀉下: 瀉下藥과 滋陰藥을 同用하여 脣燥口熱, 咽乾, 口渴要飲水, 身熱不退, 腹硬滿而痛, 大便不通 等症이 있는 경우에는 承氣養營湯(知母, 當歸, 芍藥, 生地黃, 大黃, 枳實, 厚朴)을 쓴다. 前述한 <增液瀉下>法도 滋陰瀉下에 屬한다.

空腹服(공복복)

平旦服이라고도 함. 초기 식전에 服藥하는 것을 公복복이라 한다. 사지혈맥병을 治하는 藥이나 驅蟲藥은 모두 空腹服한다(神農本草經에서 “病在四肢血脈者 先空腹而在旦”이라

하였다)

恐則氣下(공척기하)

『素問·舉痛論』에 있음. 「氣下」는 精氣의 下陷을 뜻함. 恐懼가 過度하면, 腎氣가 耗傷되어 精氣를 下陷시켜 上昇不能이 된다. 大小便失禁 遺精 滑泄 等症을 發한다.

攻下(공하)

<下法>의 項 參照.

攻下派(공하파)

「金元四大家」의 項 參照.

串(곶)

趙學敏의 串雅內編에 있음. 떠돌이의원(走方醫)은 약성이 하행하는 것을串이라고 하였다.串약은 대개 瀉劑이다. 예컨대 牽牛串은 積氣가 成聚한 것을 치하는데 黑牽牛말을 환약으로 만들어 陳皮 生薑의 煎湯으로 送下한다.

髌(과)

髌關節의 內外側의 圓形의 骨隆起. 內側의 것을 內髌라 하며, 이는 脛骨의 下端이다. 外側의 것을 外髌라 하며, 이는 腓骨의 下端이다. 복사뼈.

過經(과경)

① 傷寒病의 病情에서, 一經의 證候로부터 다른 一經의 證候로 傳入하는 것을 말함. 例컨대 太陽病이 過經하여 少陽病의 證候를 出現하는 것인데, 이때 患者의 太陽表證은 이미 解除됨을 表明한다. ②傳經의 日數가 經過함을 말함. 例컨대 太陽病이 7일 以上 經過한 것을 過經이라 한다.

髌骨(髌骨)(과골)

現在의 掌骨(髌骨)을 말함.

窠囊之痰(과낭지담)

痰火의 項 參照

裹簾(과림)

古代에 傷科에서, 正骨時에 傷處를 싸매기 위해 쓴 細胞를 말함. 用度는 現在 쓰이는 繃帶와 같다.

瓜蒌薤白白酒湯(과루해백백주탕)

通陽의 項參照

瓜蒂散(과채산)

宣劑의 項 參照

霍亂(곽란)

古代에는 上吐 下瀉가 同時에 일어나는 病을 모두 霍亂의 範圍에 包括 시켰다. 이는 9 胃腸이 揮霍撩亂하는 一種의 現象으로 보아 붙인 이름이다. 그래서 霍亂에는 猛烈的 傳染病人 콜레라도 包括되며, 일반적으로 夏秋季에 常見되는 急性胃腸炎도 包括된다. 二種類로 나뉜다. 하나는 胃腸中の 病理性內容物을 吐瀉해서 排出하는 것으로, 「濕霍亂」이라 한다. 또 하나는 腹脹絞痛하며, 煩躁悶亂하고, 吐할 것 같으면서 吐하지 못하고, 瀉할 것 같으면서 瀉하지 못하는 것으로, 「乾霍亂」或은「絞腸痧」라 한다.

霍亂轉筋(곽란전근)

上吐 下瀉하여 水分의 喪失이 過多해서, 兩쪽 小腿배腸筋(장딴지)이 痙攣하며 伸直할 수 없음을 霍亂轉筋이라 한다.

臈(관)

槌骨의 項 參照.

關格(관격)

① 病名이다. 格은 拒格하는 것이며 關은 關閉하는 것임. 위로 吐逆하는 것을 格이라 하며 아래로 大小便이 不通하는 것을 關이라 한다. 위에서는 三焦의 氣가 流通하지 않고 寒이 胸中을 막으며 飲食이 不下하므로 拒格이 된다. 아래서는 熱이 下焦에 結하여 津液이 乾枯되어 氣化에 障礙가 생기므로 關閉가 된다. ② “關格者 大小便不通也 大便不通謂之內關 小便不通謂之外格 二便俱不通 爲關格也……(諸病源候論·卷十四)” ③ 脈診의 述語이다. 素問·六節藏象論에서 “人迎與寸口俱盛四倍以上爲關格”이라 하였다. 이는 陰陽의 氣가 모두 極히 盛하여 陰陽離決의 趨勢를 形成하므로 이렇게 이름한다.

關內(관내)

「喉關」의 項 參照.

關脈(관맥)

寸, 關, 尺의 項 參照.

觀神色(관신색)

望診內容의 하나이다. [神]은 生命活動의 總括的 表現이며, 精神, 神識, 表情, 面部顔澤, 眼光神采 등에서 反映된다. [色]은 色澤이며, 主로 面部의 色澤을 말한다. 이는 臟腑氣血의 外榮이며, 神의 表現이다. 그러므로 察色은 神의 觀察에 不可分의 한 部分이 된다. 神과 色은 함께 臟腑氣血의 盛衰이 外部에 나타나는 徵象이다. 氣血이 旺盛하면 色

에 神采와 明潤光澤이 있다. 氣血이 衰弱하면 神失色敗하고 枯萎不榮하다. 故로 觀神色은 精氣의 盛衰을 아는 方法의 하나이다. [色診], [得神], [失神]의 各項 參照.

關外(관외)

「喉關」의 項 參照.

關陰(격음)

格陽關陰의 項 參照.

關刺(관자)

淵刺 豈刺라고도함 五刺法의 一種. 근비를 治療하는데 쓰인다. 그 자법은 사지의 關節 부위의 筋肉附着部를 直接 針刺하되 出血을 방지해야한다. 이는 肝病의 治療에 應用된 一種의 古代針法이다.(靈樞 官針篇)

寬中(관중)

<疏鬱理氣>의 項 參照.

寬胸(관흉)

<疏鬱理氣>의 項 參照.

腧(관)

①肩部の 內側, 鎖骨의 外端部分. ②.胸骨上方의 鎖骨의 內端部分.

刮(관)

治削의 項 參照

廣明(광명)

素問 陰陽理合論에서 “中身而上名曰廣明”이라 하였다. 즉 一般的으로 人體의 前面과 上面部位를 말함.

光剝舌(광박설)

舌에 본래는 苔가 있었는데, 剝脫한 것처럼 突然 消失됨을 말함. 대개 胃陰이 枯渴하여 胃氣가 大傷한 證候에 屬한다. 舌의 後半部가 剝苔되는 것은, 病邪가 入裏했지만 아직 깊지 않고 胃氣는 이미 傷한 所致이다. 舌의 前半部가 剝苔되는 것은, 表邪가 減少되었지만, 胃腸에 積滯가 있거나 或은 痰陰이 있기 때문이다. 舌의 中心이 剝苔되는 것은 陰虛, 血虛 或은 胃氣受傷의 所致이다.

狂言(광언)

病態하에서 言語가 粗暴 狂妄하여 理智의 制御를 喪失한 症狀이다. 대개 心火가 熾盛

한 所致이며, 實證에 屬한다. 癲狂病 等에서 나타난다.

廣腸(광장)

直腸을 말함.

喎僻不遂(괘벽불수)

口眼喎斜 肢體의 隨意運動이 不能한 症狀. 입이 비뚤어지고 눈을 완전히 감을 수 없는 것을 口眼喎斜라 하며 口腔만 비뚤어진 것을 口僻 或은 口喎라 한다. 대개 風痰이 經絡을 沮害한 所致이다. 受邪한 쪽은 絡脈의 氣가 不通阻塞되므로 弛緩狀態를 나타내고 健側의 氣血의 運行은 如常하여 筋肌의 張力이 比較的 높다. 弛緩部가 張力이 강한 쪽으로 당기게 되므로 健側을 향해 비뚤어진다. 顔面神經麻痺 中風後遺症類의 疾患과 類似하다. 不遂는 主로 半身不隨를 말함. 대개 腦血管傷害의 所致이며 通常 喎僻症狀과 同時에 나타나므로 이렇게 이름한다.

罽線法(괘선법)

藥線(혹은 보통의 사선)혹은 고무줄 등을 써서 항문의 漏管을 掛斷하는 방법이다. 그 원리는 선의 장력을 이용하여 국부의 기혈이 阻絶되어 기육을 壞死시킴으로서 漏管을 절개하는 목적에 도달하는 것이다. 창양이 潰破된 후 누관을 형성한 경우에도 괘선법을 쓸 수 있다.

壞病(괴병)

傷寒病의 治療錯誤로 因해 病情이 變壞된 것을 말함. 身體의 強弱, 發病의 新舊 및 誤治程度의 病證等의 차이에 따라서, 各異한 辨證으로 表現된다. 例컨대 汗法을 誤用하면 汗出이 不止하고, 心下部와 臍下가 動悸하는 等證을 나타낸다. 吐法을 亂用하면 飢하면서 먹지 못하고, 或은 朝食暮吐하며, 或은 惡寒해야 하는데 不惡寒하고, 心中이 煩熱하여 옷을 입으려 하지 않는 等の 現象이 나타난다. 下法을 濫用하면 心下部가 脹悶作痛하고, 泄瀉하며, 腹部가 脹滿하고, 먹어도 消化되지 않는 等の 症狀을 나타낸다. 火熏等法을 誤用하면 身體發黃, 大便下血, 或은 四肢寒冷, 大汗淋漓하며, 虛脫狀態에 빠지고, 或은 氣가 少腹에서 心下部로 上冲하는 等の 症狀을 나타낸다.

膕(괵)

膝部の 後方, 屈膝時의 陷凹部. 俗稱 腿凹, 膝彎. 오금이다.

肱(괭)

臑의 項 參照.

膠(교)

動物의 皮骨 甲角 角등에 물을 붓고 反復 煎炙하여 濃縮해서 乾燥한 固體塊狀物質로 만든 것이다 保養藥으로 많이 쓰인다 예컨대 牛皮膠 虎骨膠 鱉甲膠 龜板膠 鹿角膠 등이

있다.

交骨(교골)

仙骨과 尾骨의 關節部를 말함. 婦女의 分娩時에 關節이 움직여 一定한 活動을 하여 骨盤出口을 張大케 한다. 萬若 이 關節에 障礙가 있으면 分娩에 影響을 미치어 産科에서 말하는 交骨不開가 된다. 一說로는 婦女의 坐骨을 말한다.

交腸(교장)

大小便이 位置를 바꾸어 나오는 것으로 大便時에 小便이 流出되고 或은 小便時에 糞水가 流出되므로 이렇게 이른다. 膀胱, 陰道가 損傷된 後 直腸과 함께 直腸膀胱瘻를 形成한 疾患等에서 볼 수 있다.

嬌臟(교장)

肺爲嬌臟의 項 參照.

絞腸痧(교장사)

「霍亂」의 項 參照.

校正醫書局(교정의서국)

宋代 1057년에 設立된 醫學書籍을 校正, 整理, 刊行하는 機構이다. 宋代이전에 中國의 醫學書籍은 이미 豊富하였지만 活字版印刷術이 아직 發明되지 않았고, 廣範하게 應用되지 못하였지만 醫書는 대개 필사하거나 或은 刻판에 의존하여 遺傳되어 錯誤가 적지 않게 생겼다. 校正醫書局은 일찌기 素問, 傷寒論, 金匱要略, 金匱玉函經, 脈經, 針灸甲乙經, 千金要方, 千金翼方, 外臺秘要등의 古代醫書에 대하여 校正印行을 進行하여 이것이 醫學의 發展에 一定한 役割을 하게 되었다.

交通心腎(교통심신)

心腎不安(심신의 連繫의 과정)를 치료하는 방법이다. 心腎不交의 임상표현은 心悸 心煩 失眠 遺精 頭暈 健忘 耳鳴耳聾 요산되언 小便短赤하고 혹은 灼熱감을 느끼며 舌質紅 脈細削 등이다. 生地黃 麥門冬 百合 枸杞子 女貞實 旱蓮草 何首烏 등약을 쓰면 좋다.

口(구)

飲食物이 口에서 入하고, 言語는 口에서 出함. “脾氣通于口”로서 脾의 機能이 調和되면 食事의 맛을 알 수 있다.

嘔家(구가)

平素 언제나 惡心・嘔吐症이 있는 사람을 말함.

口疳(구감)

小兒의 疳積 泄瀉가 未癒하거나 或은 낫기 시작할 때, 口腔에 潰瘍이 發生하는 것을 「口疳」이라 한다. 이는 濕熱이 津液을 蒸灼한 所致이다.

口喎(구괘)

口眼喎斜의 項 參照.

九竅(구규)

① 안이 이이 비공이 구 전음요도와 후음항문을 말함. ② 안이 이이 비공이 구 설 후를 말함(難經 삼십칠난에 있음)

口噤(구금)

이를 악물고 입을 다물어 벌리지 못하는 症狀.

拘急(구급)

四肢가 구련하여 屈伸하기 어려운 症狀을 말함. 대개 風邪로 因한 所致이며, 神經系統의 疾病에 常見되는 症狀의 하나이다.

久痢(구리)

痢疾이 오래도록 낫지 않는 것을 말하며, 「遷延痢」라고도 함. 대개 脾腎이 虛弱하고 中氣가 不足한 所致이다. 臨床表現은, 大便에 언제나 粘液血液이 섞이고, 排便時에 腹部가 隱痛하며, 排出하는데 無力하고, 甚하면 脫肛하기도 하며, 食慾이 減退되고, 形體가 消瘦하는 等이다.

鳩尾(구미)

腧俞의 項 參照.

口糜(구미)

本證은 대개 脾經에 積熱하여 口腔을 上熏하기 때문에 생기며 口腔內에 白色의 苔蘚狀의 潰爛點이 생겨서 疼痛하며 甚하면 食사에 障礙가 된다.

灸法(구법)

애엽등의 藥物로 제조한 海성 혹은 海권을 태워서 人體상의 一定한 체표부위를 刺戟함으로써 治療목적에 도달하는 方法이다.

口僻(구벽)

口眼喎斜의 項 參照.

九變刺(구변자)

九刺의 項 參照

久病(구병)

「宿疾」의 項 參照.

口不仁(구불인)

口舌이 麻痺되어 味覺이 減退되는 症狀, 中風 或은 脾胃積滯 等 病에서 볼 수 있다. 或은 烏頭 等の 藥物을 過量으로 久服해도 一時的인 口舌麻痺가 나타날 수 있다.

口ㄱ瘡(구아창)

本病은 대개 脾胃에 積熱이 된 所致이다. 兒童에게 常見되며 한쪽 或은 양쪽의 口角部가 破裂, 糜爛되어 말을 하거나 或은 식사를 하기 위해 입을 벌리면 疼痛을 느낀다.

口眼喎斜(구안괘사)

喎僻不遂의 項 參照.

救陽(구양)

① <回陽救逆>의 項 參照. ② <救脫>의 項 參照.

口軟(구연)

「五軟」의 項 參照.

俱熱傷陰(구열상음)

邪熱이 滯留不退하여 津液을 灼燬해서 陰津을 耗損하는 病理을 말함. 만약 肺·胃의 津液이 受傷하면, 咽乾口燥 煩悶口渴 乾咳無痰 舌紅乾 脈細數 等症을 나타낸다. 만약 肝·腎의 陰에 損傷이 미치면 「水不涵木」하며, 「虛風內動」해서, 症狀으로는 口乾舌燥 手足顫動 心悸身疲 耳聾 舌顫 舌絳無苔 脈細數無力 등을 나타낸다. 熱性病的 後期 혹은 恢復期에 常見된다.

久瘡(구음)

「金破不鳴」의 項 參照.

救陰(구음)

救脫의 項 參照

九刺(구자)

九變刺라고도 함 古代에 應用한 9종의 針法 즉 1)輸刺 2)遠道刺 3)經刺 4)絡刺 5)分刺 6)大瀉刺 7)毛刺 8)巨刺 9)뒵刺(靈樞 官針篇에 있음) 각該當項 參照

九臟(구장)

心·肝·脾·肺·腎·胃·大腸·小腸·膀胱의 合稱(素問·三部九候論에 있음).

九種心痛(구종심통)

이 名稱은 元來 金匱要略·胸痺心痛短氣病脈證并治에서 나왔음. 九種心痛은 一般的으로 上腹脘部와 前胸部의 疼痛을 말하며 主要하게 二種의 分類法이 있다. ① 蟲心痛 注心痛 風心痛 悸心痛 食心痛 飲心痛 冷心痛 熱心痛 去來心痛(千金要方卷十三) ② 飲心痛 食心痛 氣心痛 血心痛 冷心痛 熱心痛 悸心痛 虫心痛 注心痛. 眞心痛은 心絞痛과 類似하다. 眞心痛의 項 參照.

口中和(구불화)

口中이 不燥 不渴하고, 飲食의 맛을 아는 것, 胃氣正常 或은 津液充足을 表示하는 것이다.

久持索然(구지색연)

脈診中の 比較的 特殊한 一種의 現象을 말함. 脈診시 오래 按壓해도 脈을 찾기 어려운 것으로 或者는 初按시에 脈이 指下에서 浮大하다가, 久按하면 脈을 잡기 어렵다. 이런 情況은 病의 新舊나, 熱의 有無을 莫論하고 모두 精氣의 大虛에 屬한다.

口瘡(구창)

本病은 대개 脾胃의 積熱에 起因하며 또한 體質이 본래 虛弱하여 虛火가 上炎하는데 起因하기도 한다. 症狀은 口腔內的 粘膜에 黃白色을 띤 豆粒大의 潰爛點이 생긴다. 小兒의 口瘡은 疳積에 起因하며 [口疳]이라 한다.

口瘡(아구창)

[雪口]라고도 함. 本病은 心·脾의 二經에 積熱한 所致이다. 新生兒에게 發生하는 것은 胎熱이 上攻하기 때문이다. 그 症狀은 口中이 糜爛하여 舌의 全面에 白層이 덮이고 口舌이 疼痛하며 甚한 경우는 身熱, 煩躁등 症을 發한다.

驅蟲(구충)

殺蟲이라고도 함. 기생충을 驅除하는 작용이 있는 藥물을 써서 人체기생충병을 치료하는 방법이다. 예컨대 회충에는 四君子 枳實 高良薑(사용시에 枳實의 粗皮를 제거한다. 이 약은 독성이 있어 다복해서는 안 된다), **채 石榴皮 雷丸(이 약은 환제로 만든다) 梔子등을 選用한다. 효충에는 梔子 雷丸 蕪荑 四君子 大蒜 高良薑 百部 枳實등을 選用한다. 條蟲는 枳實 南瓜子(枳實과 南瓜자는 통상 合用한다. 南瓜자는 산제로 만든다) 仙鶴草根 雷丸 梔子 鴉膽子 蛇胎등을 選用한다. 鉤蟲에는 雷丸 梔子 高良薑 枳實 土荊芥등을 選用한다. 어떤 藥물은 살충작용이 없지만 어떤 기생충병에 대하여는 치료작용이 있다. 예컨대 膽道蛔蟲病이 발작할 때 烏梅10개를 水煎하여 濃汁을 내복하거나

혹은 醋 반잔내지 한잔을 溫服하면 安蛔작용이 있다.

九針(구침)

古代의 의원이 應用한 9종의 형상과 용법이 각이한 針을 말함 그 각칭은 1)참針 2)員針 3)시針 4)鋒針 5)괴針 6)圓利針 7)毫針 8)長針 9)大針이다 靈樞 九針십이편에 있음 구針은 주로 針刺治療에 쓰이며 도 外科와 안마의 용술에도 사용된다 詳細한 것은 各該當 項을 參照

救脫(구탈)

救陽과 救陰의 二種으로 나뉜다. 1)救陽:즉 回陽救逆이다. 2)救陰:亡陰을 治療하는 方法이다. 亡陰의 臨床表現은 汗出이 많고 과熱하며 手足溫,肌熱,舌乾,口渴喜涼飲,吸乎短促,煩燥,脈虛而數 등증이다. 生脈散(人蔘,麥門冬,五味子)을 써서 益氣斂汗하고 養陰生津한다.또한 龍骨,牡蠣등의 收澁藥을 佐藥으로 써도 좋다.

嘔吐(구토)

邪氣가 胃에 있어서 胃가 和降하지 못하고 氣가 逆上함으로써 出現하는 症狀이며 先人은 有聲無物을 嘔라하였고 無聲有物을 吐라 하였는데 實際上 確然한 區分이 어려워져 一般的으로 모두 嘔吐라고 總稱한다. 臨床에서 常見되는 것은 胃寒, 胃熱, 傷食, 痰濁등의 四腫이다. 胃寒의 境遇는 清水를 嘔吐하고 口中多涎하며 喜熱惡冷하고 小便이 清利하며 舌苔가 白위하다. 胃熱의 境遇는 食入則吐하고 吐出物에 酸苦味가 섞이며 口안에 臭氣가 있고 喜冷惡熱하며 舌苔가 黃위하다. 傷食의 境遇는 胃脘이 脹悶하고 噯氣吞酸하며 嘔吐物이 대개 酸腐宿食이고 吐한 後에는 약간 시원하며 舌苔가 厚위하다. 痰濁의 境遇는 平素에 頭眩, 胸悶, 心悸等症이 있고 粘痰 或은 清涎을 嘔吐하며 舌苔가 滑위하다.

嘔血(구혈)

血의 嘔吐를 따라 나오는 것이며, 暗紫色을 띠고, 量이 비교적 많으며, 通常 食物의 殘渣가 섞인다. 대개는 胃中の 積熱, 或은 肝鬱化火하여, 胃로 逆乘해서, 脈絡이 瘀滯되고, 陽絡이 損傷된 所致이다. 門靜脈性肝硬化, 胃十二指腸潰瘍, 胃癌 等病에서 常見된다.

麴,麴(국,국)

曲의 項 參照

脘(군)

筋肉의 突起部, 例 : 上腕二頭筋, 下肢의 腓腹筋 等.

君臣佐使(군신좌사)

主, 輔, 佐, 引이라고도 함, 方劑의 組成은 반드시 一定한 規則에 따라야 한다. 즉 君, 臣, 佐, 使의 配合이다. 君臣佐使는 封建的인 名詞로서 批判할 餘地가 있지만, 그것이 含有한 뜻을 說明함으로써 古人的 處方에 對한 意圖를 理解할 수 있다. 「君」藥은 方劑中에서 主證을 治療하며, 主된 作用을 하는 藥物로서 必要에 따라 一種 혹은 數種을 쓸 수 있다. 臣藥은 主藥을 協助하여 治療作用을 일으키는 藥物이다. 佐藥은 主藥을 協助하여 兼證을 治療하거나 혹은 主藥의 毒性이나 峻烈한 性味를 抑制하며, 或은 反佐(主治藥의 藥性과 相反되는 藥物을 써서 誘導輔佐하는 것)하는 藥物이다. 使藥은 各種藥이 疾病所在部位에 直達되도록 引導하거나 名藥의 作用을 調和시킨다. 例컨대 麻黃湯은 惡寒, 發熱, 頭痛, 骨節疼痛, 脈浮緊, 無汗而喘을 治療하는데, 그중 麻黃은 君藥으로서 發汗解表하고 桂枝는 臣藥으로서 麻黃의 解表를 도우며, 杏仁은 佐藥으로서 麻黃의 平喘作用을 돕고, 甘草는 使藥으로서 諸藥을 調和시킨다. 現在는 君臣佐使를 主藥, 輔藥, 佐藥, 引藥으로 改稱하기도 하며, 또 佐藥을 次輔藥이라고 改稱하기도 한다.

君主之官(군주지관)

「心主神明」의 項 參照.

君火(군화)

心火를 말함. 心은 『君主之官』이므로 이렇게 말한다.

窮骨(궁골)

尾閭의 項 參照.

顴骨(권골)

眼의 外下方, 顔面部的 隆起部分. 解剖學上的 顴骨(협골)과 같음. 광대뼈.

拳毛倒睫(권모도침)

[睫毛倒入]이라고도 함. 이는 [眼弦赤爛](眼緣炎) 或은 椒瘡(트라코마)의 治療를 그르쳐 오래 不癒하므로 睫毛拳曲이 되는 病症의 一種이다. 睫毛가 倒立되어 眼球를 찌르므로 患者는 澁痛을 느끼며 流淚하고 羞明 等症을 나타낸다. 甚하면 淺層角膜潰瘍을 일으키고 最後에는 雲翳를 形成하게 된다.

闕(궐)

『闕中』, 『印堂』이라고도 함. 鼻根部的 上方, 兩眉毛間の 部位, 古人은 이 部位의 望診으로 肺部疾病의 診察에 參考가 된다고 보았다.

厥(궐)

① 氣가 下에서 上으로 逆行하는 것이다. 通常 腹部에서 心脇部로 올라가는 것을 말하며 대개 寒邪의 病에 屬한다. ② 突然 昏暈하여 人事不省이 되는 것이며 多種 原因에 의해 惹起된다. ③ 肢體 或은 手足이 逆冷해지며 또한 同時에 昏厥의 狀態를 兼發하는

것을 말함.

厥氣(귓기)

一般的으로 一部の 繼發性病因을 말함. 예컨대 機能失調, 氣血逆亂, 痰濁閉阻, 食積停滯 或은 暴痛等은 이런 病理變化로 인해 病變過程에서 다시 發病作用을 일으킨다. 素問·陰陽應象大論에서 “厥氣上行 滿脈去形”이라하였다. 이는 血이 氣를 따라 逆上하여 脈道가 壅盛해져서 突然 昏仆하게되는 病理을 말한 것이다.

厥頭痛(귓두통)

肝厥頭痛的 項 參照.

厥疝(厥疝)

①厥氣가 上逆하는 病症을 말함. 症狀은, 臍周圍가 絞痛하고, 脇痛하며, 惡心하여 冷涎을 吐出하고, 手足이 厥冷하며, 脈象이 大하고 虛한 等이다. 대개 寒氣가 腹中에 쌓여 上逆하기 때문이다. ②「濟生方」에서 “厥疝則心痛(胃脘部の 疼痛), 足冷 食已則吐”라 하였다.

闕上(귓상)

闕의 若干 윗쪽 部位로서 天庭部の 下方에 該當함. 古人은 闕上의 望診으로 咽喉病症의 診察에 參考가 된다고 보았다.

厥陰(귓음)

經脈名稱의 하나. 陰氣發展의 最後段階이며, 다시 陽의 方面으로 向하는 轉化過程의 開始이다. 「兩陰交盡」(素問·至真要大論)의 뜻에서 取한 名稱이다. 그 位置가 太陰과 少陰의 裏面に 있으므로 「厥陰爲合」(素問·陰陽離合論, 「開·合·樞」의 項 參照)이라고도 한다

厥陰頭痛(귓음두통)

肝厥頭痛的 項 參照.

厥陰病(귓음병)

六經病의 하나이다. 厥陰病의 臨床症狀의 表現은 比較的 複雜하며, 同時에 또 比較的 重한 陰經病으로, 그 特徵은, 寒熱이 錯雜하고, 厥熱이 勝復한 것이다. 主要症狀은, 四肢厥冷, 厥多熱少 或은 厥少熱多하고, 神志昏亂, 口渴, 咽乾, 氣上衝心, 心窩部に 疼痛感과 熱感이 있고, 飢하면서 不慾食하고, 甚하면 蛔蟲을 吐出하는 等이다.

厥陰爲合(귓음위합)

「厥陰」의 項 參照.

闕中(꺽중)

『闕』의 項 參照.

厥證(꺽증)

一般的으로 突然 昏倒하여 人事不省이 되고 四肢厥冷하는데 오래되지 않아서 점차 蘇醒하는 한 種類의 病證을 말함. 病因은 대체로 二種類이 있다. 하나는 平素 肝陽이 偏旺하고 飲食을 不節制하여 精神의 過度한 刺戟 或은 劇痛等로 인해 氣機를 逆亂시키고 血이 氣를 따라 逆上하며 或은 痰이 氣를 따라 上升하는데 모두 心神을 蒙蔽해서 發하는 것이다. 또 하나의 原因은 元氣가 本來 弱하고 或은 病後에 氣津이 受傷하며 或은 失血等로 인해 氣血이 上升할수 없게 되므로서 發하는 것이다. 內徑에서 厥證으로서 或厥, 寒厥, 熱厥, 煎厥, 薄厥, 尸厥等을 論하였고 後世에 이르러서는 痰厥, 食厥, 氣厥, 血厥, 蛔厥, 暑厥로 나누고 있다. 詳細한 것은 各項을 參照.

歸經(꺽경)

藥物의 作用이 臟腑經脈의 關係와 結合해서 어떤藥이 어떤 臟腑經脈의 病變에 대하여 一定한 治療作用을 일으키는 것을 말함. 예컨대 羌活 獨活는 海수나 氣천의 肺經에 歸入한다 黃芩 知母 天麻 天竺黃은 水족이 主는 肝經의 治療하므로 肝經에 歸入한다. 그러므로 歸經은 治療效果를 관찰한 후에 推定된 것이다. 一種의 藥物이 이경혹은 수경에 歸入하는 것은 그 治療 범위가 比較的 넓은 것이다. 예컨대 杏仁은 肺大腸에 入하여 肺經의 〇해수 大腸의 大便秘結의 治療한다 澤瀉는 脾胃 腎 膀胱에 入하며 이 사경에 수습의 병이 있으면 澤瀉 常用하여 治療한다.

鬼門(꺽문)

「玄府」의 項 參照.

龜背(꺽배)

小兒의 生長發育障礙가 畸形을 일으킨 一種의 疾患이다. 대개는 先天的인 不足, 後天的인 失調에 依하여 腎氣가 虛해져서, 骨髓, 督脈을 充分히 營養하지 못하므로, 脊骨이 痿弱하게 되어 漸次 畸形으로 變하게 된다. 그 症狀은, 脊骨이 彎曲 隆起되어 形狀이 龜背와 같으므로 이렇게 이름한다. 이는 佝僂病의 症狀의 하나이다.

龜背痰(꺽배담)

流痰症이 脊椎關節에 發하여, 背部가 높게 突出되므로 이렇게 이름한다.

歸脾湯(꺽비탕)

固崩止帶의 項參照.

揆度奇恒(꺽도기항)

[素問,玉機眞臟論] 等篇에 있음. [揆度]는 推測 或은 斟酌의 뜻이고, [奇]는 特殊한 것, [恒]은 通常적인 것을 뜻함. 이는 診斷중, 一般的 規律과 特殊한 變化를 잘 觀察해야만 비로소 病情을 正確히 判斷할 수 있음을 말한 것이다. 一說에는 揆度和 奇恒은, [內經]에서 引用한 二部の 古醫書名이라고도 함.

芤脈(규맥)

脈象의 一種. 芤는 刮(刮)이다. 脈象이 浮大하고 軟하여, 按指하면 속이 空虛하여 비틀어진 血管과 같다. 大失血後에 多見된다.

叫脈縱橫(규맥중횡)

白睛(흰자위, 眼球結膜)의 血管이 充血되어, 굵고 가는 脈絡이 縱橫으로 통해 있는 것을 말함.

叫蟠卷曲(규반권곡)

白睛(흰자위, 眼球結膜)의 血管이 充血되어, 굵고 가는 脈絡이 드문드문 旋曲을 이룬 것을 말함.

葵子散(규자산)

「滑劑」의 項 參照

郄穴(郄穴)(극혈)

「郄」은 孔竅 혹은 間隙이란 뜻이다. 郄穴은, 體內的 氣穴이 어떤 空隙處에 聚會하는 重要穴位이다. 十二正經외에 奇經中の 陰蹻 陽蹻脈과 陰維 陽維脈에도 모두 郄穴이 있다. 一般적으로 內臟의 急性痛症에 多用한다. 그 名稱은 다음과 같다. 肝-中都 小腸-養老 心-陰郄 大腸-溫溜 脾-地機 膀胱-金門 肺-孔最 三焦-會宗 腎-水泉 陽蹻-跗陽 心包-郄門 陰蹻-交信 膽-外丘 陽維-陽交 胃-梁丘 陰維-築賓

根(근)

胃, 神, 根의 項 參照.

跟骨(근골)

발뒤꿈치의 小骨.

筋骨懈惰(근골해타)

筋骨이 弛緩無力하여 肢體를 支撐하기 어려운 症狀이다.

筋極(근극)

六極의 項 參照.

筋癰(근력)

癰癰의 一種이다. 項側의 筋間에 생기고, 크기가 같지 않으며, 質이 堅硬하고, 惡寒, 發熱, 身體羸瘦 等症을 隨伴함.

筋瘤(근류)

邪氣가 筋에 結聚되어 생기는 瘤狀物이다. 靈樞 刺節眞邪篇에서는 筋瘤라 하였다. 그形狀은 蠅蟻하고 紫色이며, 靑筋이 隆起되어 蚯蚓(지렁이)狀으로 꾸불꾸불 結集되었다. 대개 頸部, 腕關節등의 部位에 생긴다. 靜脈曲張의 部類에 屬하는 病症이다.

筋膜(근막)

筋肉의 表面을 싸고 있는 結締織性的 膜, 骨關節에 붙은 것은 「筋」이고, 筋腱의 外部를 싸는 것을 筋膜이라 함. 筋과 筋膜의 生理機能은 肝이 主管하며, 肝血에 依해 養分이 供給되므로 「肝主筋」이 說이 있다.

筋痺(근비)

素問·痺論에 있음. 筋의 症狀을 爲主로 하는 痺症이다. 臨床表現은 筋脈이 拘急하고 關節이 疼痛하여 伸張하기 어렵다. 筋이 關節에 모였는데 風寒濕의 邪氣가 筋에 侵入한 所致이다.

筋疝(근산)

古病名이다. 陰莖이 疼痛 急縮하여 或痒或腫하고, 或은 潰破되어 流膿하며, 或은 陽痿를 兼發하고, 白色의 粘液이 小便을 따라 排出되는 病症을 말함. 대개는 肝經의 濕熱, 房事勞傷의 所致이다.

筋癭(근영)

癭의 一種이다. 結喉部の 癭塊에 筋脈이 지렁이(蚯蚓)처럼 사린 형태로 뚜렷이 露呈된다. 대개 怒氣로 因해 肝을 傷하고, 肝火가 亢盛하여, 陰血을 灼燬하기 때문에 생긴다.

筋痿(근위)

素問·痿論에 있는 痿證의 하나이다. 症狀은 口苦하고 筋이 당기며 痙攣하고 陰莖이 弛緩하여 收縮되지 않으며 滑精이 되는 等이다. 本病은 肝氣熱로 인해 肝陰이 虧損되거나 或은 過度하게 腎精을 耗損하여 筋과 筋膜에 滋養이 안되기 때문에 發生한다.

跟疔(근정)

「足疔」의 項 參照.

筋之府(근지부)

膝部를 말함. 筋이 關節의 屈伸을 主管하며, 膝은 大關節의 하나이고 膝部周圍에는 積

지 않은 強固한 筋腱이 附着되고 있으며, 膝外側下의 「陽陵泉」(穴名)에 「筋會」라는 名稱이 있으므로 膝部를 筋之府라 함(素問·脈要精微論에 있음).

筋惕肉瞤(근척육순)

肌肉이 痙攣 跳動하는 것. 그 病理는 「身瞤動」과 基本的으로 같은데, 津液의 損傷程度가 더 甚하다.

近血(근혈)

出血部位가 直腸 或은 肛門에 接近되어, 血色이 鮮紅色이며, 大便時에 먼저 血液이 流出되고, 排便하는 것을 말함. 大腸의 熱毒에 의해 惹起된다. 차창 或은 直腸의 病變으로 惹起되는 出血에서 多見된다.

筋會(근회)

「筋之府」의 項 參照.

筋會(근회)

「八會穴」의 項 參照.

禁(금)

趙學敏의 串雅外論에서 떠돌이의원(走方醫)의 禁法을 기술하였다. 禁은 질병에 금제하는 것으로 즉 祝由과의 한가지 방법이다. 孫思邈의 千金翼方에 禁經이 있고 송대의 聖濟總錄에 符禁門이 있다. 단 그 기원은 더 빨라서 巫醫의 종류에 속한다. 이는 미신의 산물이므로 주의해야 할 것이다.

金疳(금감)

本病은 肺火가 亢盛하기 때문에 생긴다. 그 主要症狀은 白睛(흰자위)에 米粒狀으로 주위에 血管이 둘러싼 小疱가 생기며 同時에 眼部에서 澀痛을 느끼고 羞明 流淚한다.

禁經(금경)

禁의 項參照

噤口痢(금구리)

痢疾로서, 飲食不進하거나 或은 嘔吐하여 먹지 못하는 것을 噤口痢라 한다. 대개 疫痢나 濕熱痢에서 進展變化한 것이며, 疫痢, 濕熱痢의 進行過程의 어느 段階에서 나타나는 경우도 있는데, 이는 痢疾의 비교적 重한 證候이다. 대개 濕熱의 毒邪가 腸中에 鬱結하여, 毒이 盛해서 胃氣를 損傷하고, 胃陰이 損傷되기 때문이며, 或은 久病으로 因해 脾胃가 兩傷되어, 胃의 和降作用이 失調되고, 輸化機能이 無力해져서, 氣機가 阻塞된 所致이다. 臨床特徵은, 飲食不思, 嘔惡不納, 飲入卽嘔하는 外에, 胸脘이 痞悶하고, 舌絳紅,

苔黃膩 等症을 兼發하게 된다.

金匱腎氣丸(금궤신기환)

偶方의 項 參照

金氣肅降(금기숙강)

肺의 生理的特徵을 설명하는데 쓰임. 「金」은 肺를 대표하며 肺는 氣의 활동을 主宰하는바 肺氣가 淸淨하고 下降하면 氣化活動이 순조롭고 三焦의 水道도 순조롭게 流通된다.이에 반해 肺氣가 淸淨하지 않고 下降하지 못하면 氣를 逆上시켜 咳嗽 氣喘 혹은 小便不利 등증을 發한다.

禁方(금방)

秘方을 말함. 秘方을 保存하여 傳하지 않는 것은 封建保守思想의 表現이다

金鎖固精丸(금쇄고정환)

「澁劑」의 項 參照.

金鎖固精丸(금쇄고정환)

固腎澁精의 項參照.

金水相生(금수상생)

肺腎相生的 項 參照.

金實不鳴(금실불명)

「金實」은 肺氣實을 말하며, 「不鳴」은 音啞이다. 「金實不鳴」은, 肺氣가 實하여 聲音이 嘶啞되는 病理을 말한다. 대개 外邪를 感受하기 때문이며, 寒熱의 區分이 있다. ①外感의 風寒이 肺에 內遏하여 寒氣가 凝滯해서, 肺氣가 宣暢하지 않고, 開合이 不利하여, 突然 聲音이 嘶啞된다. ②風熱燥邪가 肺陰을 灼傷하거나, 或은 寒이 鬱하여 熱로 化해서 津液을 煎熬해서, 痰熱이 交阻하여 肺의 淸肅機能이 失調됨으로써 역시 聲音이 嘶啞된다. 이밖에, 肺에 積熱이 있는데, 다시 外寒을 感受하여, 熱이 寒에 束縛되어, 肺氣가 宣暢되지 못함으로써 音啞가 된다. 모두 實證에 屬한다. 「金實不鳴」은 病機上의 述語이며, 病名은「暴瘖」이다. 즉, 突然失音하는 것으로, 喉部 或은 聲帶의 急性炎症, 水腫等에 該當한다.

金瘍(금양)

金創을 말함. 金屬性인 利器에 創傷되어, 化膿 潰爛되는 瘡瘍을 말함.

金鬱泄之(금울설지)

<素問:六元正紀大論>에 있음.<金鬱>은 肺氣가 잘 通하지 않음(不利)을 뜻하고 <泄>

은 이를 宣通케 한다는 뜻이다.例컨데 肺氣가 不利하므로 水道가 通調하지 못하여 咳嗽氣喘하고 水腫을 발하면 <宣通水道>法을 써야한다.또한 風寒의 邪氣가 肺를 侵襲하므로 肺氣가 不利하여 鼻塞,喉痒,咳嗽,痰多,苔薄白 等症을 발하면<宣肺化痰>法을 써야한다.

金元四大家

金・元時代(西曆1115年~1368年)의 醫學上の 四大學派를 말함. 東洋醫學의 發展에서 金・元時代에 이르러, 醫學爭鳴의 風潮가 생겼다. 그 代表的인 學派로서 다음의 四派가 있다. 劉完素(守眞)는 西曆 1110~1200年の 사람이며, 그는 疾病이 대개 火熱에 起因한다고 主張하여, 「六氣皆從火化」(六氣는 모두 火에서 化한다.)의 說을 提唱하였으며, 治療에는 대개 寒涼藥을 썼으므로, 「寒涼派」라 世稱한다. 張從正(子和)은 西曆 1156~1228年の 사람이며, 그는 「治病應着重在驅邪, 邪去則正安, 不可畏攻而養病」(治病에는 邪를 驅逐하는데 重點을 두어야 하며, 邪를 除去하면 正常이 되므로, 攻하여 治療하는 것을 두려워해서는 안된다)이라 認識하여, 治病에 汗・吐・下의 三法을 잘 應用하여, 「攻下派」라 世稱한다. 李杲(東垣)는 西曆 1180~1251年の 사람이며, 그는 「人以胃氣爲本」(사람은 胃氣를 本으로 삼는다)이라 認識하여, 脾胃溫補法을 잘 썼으므로, 「補土派」라 世稱한다. 朱震亨(丹溪)은 西曆 1281~1358年の 사람이며, 그는 人體가, 「陽常有餘, 陰常不足」(陽이 항상 많고, 陰이 항상 不足하다)이라 認識하였으므로, 治病에 「滋陰降火」의 方法을 多用하여, 「養陰派」라 世稱한다. 이들의 學術主張은 當時와 後世에 모두 一定한 影響을 주었다. 清代의 「四庫全書總目卷 103・醫家類」에서, 「儒之門戶分于宋, 醫之門戶分于金元」(儒의 門戶는 宋代에서 갈라졌고, 醫의 門戶는 金元代에서 갈라졌다)이라 하였다.

禁刺(금자)

刺禁이라고도 함 針刺의 禁忌事項이다 그중에는 金針부위(예 內臟部位의 심자 孕婦의 腹部, 幼兒의 寸門部, 禁針穴位등) 주취, 과기, 피권과도, 정서의 激烈한 變化(대노. 대경, 대공) 방사후등이 포괄된다. 모두 昏針 기타 異常反應이 出現할 우려가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金錢癰(금전선)

圓癰이라고도 함.

金鏃(금촉)

中國古代의 醫學分科의 一種으로 刀 槍 矢傷等の 戰傷을 專門으로 治療한 일문의 學科이다.

金創(金瘡)(금창)

金屬製의 銳利한 刀劍類에 의한 創傷을 말하며, 創傷이 化膿되어 문드러진(潰爛) 瘡도 包含함. 그중 刀斧와 같은 것에 의한 創傷을 「刀斧傷」이라 함.

金瘡瘻(금창경)

破傷風の項 參照.

擒針(금침)

押針의項 參照

金破不鳴(금과불명)

肺氣가 損傷되어 聲音이 嘶啞되는 病理을 말함. 肺는 氣를 主管하며, 腎은 納氣하는 것으로, 二臟이 모두 發聲과 有關하다. 肺腎이 陰虧하면 肺燥하고 熱鬱하여, 陰液이 上承되지 못해서 咽喉가 濡潤을 失하므로 聲音이 嘶啞된다. 晩期結核病, 慢性喉頭炎 등에서 多見된다. 本病은 대개 虛證에 屬하며, 失音이 慢性으로 進行되므로 「久瘖」이라고도 稱한다. 失音이 間歇적으로 出現하거나 或은 持續되는데, 말을 비교적 많이 하면 加重되며, 完全失音은 적다. 일반적으로 外感症狀은 없다.

噤風(금풍)

「臍風」의項 參照.

金寒水冷(금한수냉)

肺腎의 虛寒을 뜻함. 肺는 金에 속하고 腎은 水에 속한다. 肺金과 腎水는 生理上 相互 支援하며 病理上으로도 相互 影響을 미친다. 肺氣가 虛하여 累가 腎에 미치거나 腎陽이 虛하여 肺에 影響을 미치면 肺腎虛寒의 綜合病症이 發하게 된다. 臨床上으로는 咳嗽 吐痰稀白 氣喘 畏寒 腰膝冷 水腫等증을 發한다.

噉化(금화)

噉은 口안에 머금는 것 금화는 口腔내에 丸劑 혹은 錠劑를 머금고 口中에서 溶解하는 것이다 藥력이 溶解도니후 용액을 토거해야하는 경우가 있고(예:急性扁桃腺炎에 山豆根 玄蔘으로 만든 丸劑를 쓰는 경우 는 금화후 토거해야 한다) 용액을 삼켜야 하는 경우가 있다(예:肺陰虛症을 治하는데 자음 청폐지해하는 丸劑를 쓰는 경우는 금화후 탄 하해야 한다.)

金黃散(금황산)

高위약의項 參照

急驚風(급경풍)

發病이 迅速하고, 高熱이 나며, 眼紅하고, 昏迷 抽搐하며, 角弓反張하고, 兩眼을 上視하며, 牙關緊閉하고, 口吐白沫하며, 痰聲이 나는 것 등이 主證이므로 이렇게 이름한다. 發病原因은, 六淫의 外感에 起因하는 경우가 있고, 或은 갑자기 驚恐하게 되거나, 或은

痰積 食滯로 惹起되기도 한다. 六淫의 外感으로 惹起된 경우는, 처음에 發熱 등을 隨伴하며, 驚恐으로 因해 誘發된 경우는, 대개 發熱이 없거나 혹 發熱해도 높지 않으며, 睡眠中에 놀라면서 울게 된다. 痰積 食滯으로 因해 惹起된 경우는, 腹脹痛, 便秘 或은 大便腥臭하고, 嘔吐 噯酸 등을 發한다. 무릇 急性熱病에 上述한 主證이 있는 것은 모두 急驚風에 屬하며, 그중에는 中樞神經의 急性感染, 例컨대 流行性腦膜炎 및 腦炎 등을 包括한다.

急方(급방)

急病이나 重病을 治療하는 方劑이다. 急方에는 四種의 意義가 있다. 1) 病勢가 危急하여 迅速히 治療해야 하는 것이다. 2) 湯劑를 써서 湯滌作用이 비교적 빠르다. 3) 藥性이 劇熱하며, 氣味가 모두 濃厚하다. 4) 急한 경우에 標證을 治하는 方이다. 急方の 例로서 溫法에 쓰이는 回陽救逆의 四逆湯(附紫, 乾薑, 甘草)이 있다. 熱劑의 項 參照

急者緩之(급자완지)

<素問. 至眞要大論>에 있음. [急]은 拘急의 證候이고, 緩은 拘急의 證候를 緩解시키는 것이다. 例컨대 寒邪의 侵襲으로 因해 筋脈이 拘急한 경우는 溫經散寒法을 써야 하며, 熱邪의 侵襲으로 熱極生風하여 手足이 抽擣하는 경우는 瀉火熄風法을 써야 한다.

急則治標,緩則治本(급즉치표,완즉치본)

疾病의 過程은 複雜하여, 往往 矛盾이 하나에 그치지 않고, 主要矛盾과 副次的 矛盾이 있어서, 治療에는 반드시 主要矛盾을 補足하여, 그 根本을 治해야 한다. 단, 矛盾은 언제나 變化하여, 때로는 副次的矛盾이 一定한 條件下에서 上升하여 主要矛盾이 되기도 한다. 例컨대 陰虛發熱의 病人이 喉咽 喉頭가 腫痛하여 水漿을 삼키기 어렵게 되는데, 이때 慢性인 陰虛發熱은 [本]이고, 喉頭腫痛은 [表]이다. 만약 喉頭腫痛이 嚴重하여 窒息的 危險이 있으면, 主要矛盾이 되어, 喉病을 先治해야 되는데, 이를 急卽治標라 한다. 만약 喉頭腫痛이 이미 解除되고 陰虛發熱이 未癒하면 계속 陰虛를 治療하게 되는데, 이를 緩卽治本이라 한다.

急下存陰(급하존음)

<急下存津>이라고도 함. 熱性病의 過程에서 高熱이 持續되고 口乾而渴, 大便秘結, 舌苔黃燥, 或乾黑起刺, 脈沈實有力한 경우 津液이 날로 耗損되므로 급히 瀉下藥을 써서 大便을 通利시키고 實熱을 除去하여 津液을 保存하도록 해야 한다. 本法은 장티푸스에는 쓰지 않는다. 腸出血 或은 腸穿孔을 惹起할 憂慮가 있기 때문이다.

急下存津(급하존진)

<急下存陰>의 項 參照.

急黃(급황)

本病은 脾胃에 本來 積熱이 있는데다가, 濕熱의 毒이 熾盛하여, 津液을 灼傷해서, 營分 血分으로 內陷하고, 邪가 心包로 傳入된 所致이다. 이는 陽黃의 重證이다. 그 特徵은 發黃이 急速히 進行되고, 身目에 紅黃色을 나타내며, 高熱煩渴하고, 胸滿腹脹하며, 神昏 譫語하고, 衄血便血하며, 或은 斑疹이 생기고, 舌絳, 苔黃燥, 脈弦滑數을 나타내는 것이다.

肌(기)

①肉과 同義. ②體表의 皮膚(皮下組織을 包含)로 連하는 筋肉.

氣(기)

①體內에 流動하고 있는 營養이 많은 精微物質로서, 水穀之氣等を 말함.
②臟腑組織의 活動能力을 말함. 例컨대 五臟之氣, 六腑之氣, 經脈之氣 等.
③臨床上으로 말하는 氣는 대개 臟腑機能의 失調로 惹起되는 病狀을 말함. 例컨대 胃氣不降, 肝氣犯胃 等이다.

機(기)

비추의 項 參照.

跕(기)

足大趾 下面의 根元部分

氣街(기가)

①氣衝이라고도 함. 小腹部的 下方과 股部の 上方의 境界인 鼠蹊部(腹股溝部). ②人體內的 氣의 運行經路. 靈樞 衛氣篇에서 六府라 하여(甲乙經에서는 六經이라 하였음), 頭部 胸部 腹部와 下肢 等處에 모두 氣街가 있다고 하였음.

氣怯(기겁)

「怯」은 虛弱 혹은 驚慌을 뜻함. 膽氣가 不足하여 心慌易驚하거나 혹은 中氣가 虛弱하여 短氣 倦怠 言語無力 等症을 나타내는 것을 말함.

奇經(기경)

人體經脈의 一類이다. 그중 任脈·督脈·衝脈·帶脈·陽維脈·陰維脈·陽蹻脈·陰蹻脈 等 8條의 經脈을 包括하며, 「奇經八脈」이라고도 한다. 奇經의 特徵은, 臟腑와 直接的인 連繫가 없고, 그들 사이에 表裏配合도 없으며, 奇經八脈은 氣血의 運行을 調節하는 特殊한 通路이고, 機能上 十二經脈의 不足을 補充하는 作用을 한다.

奇經八脈(기경팔맥)

「奇經」의 項 參照.

氣鼓(기고)

鼓脹의 類型의 하나이다. ① 脾虛氣滯에 起因한 境遇 : 症狀은 胸腹이 脹滿하여 不快하고 누르면 柔軟하게 느껴지고 氣逆, 噯氣等症을 隨伴한다. ② 七情이 鬱結하여 氣機가 壅塞된 境遇. 症狀은 腹大하고 青筋이 表面에 드러나며 皮膚色이 蒼黃하고 四肢이 消瘦해지는 等이다.

其高者因而越之(기고자인이월지)

<素問.陰陽應象大論>에 있음. 이는 [高]는, 咽喉胸膈, 胃脘等의 部位를 말함. 무릇 이들 部位에 痰涎 食積等의 有害異物이 停留되면, [吐法]으로 이를 消除한다는 뜻이다.

岐骨(기골)

兩骨의 末端이 相互 較差되는 部分, 例: 手部の 第 1,2掌骨(中手骨)의 關節部の 前方 分岐部(岐骨間), 虎口라고도 稱하며 合谷穴의 位置. 또한 胸骨體의 下端으로 左右肋軟骨의 分岐(岐骨間)部로서 이는 鳩尾의 部位이다.

氣功(기공)

深呼吸(古代에는 吐納 즉 吐故納新의 略稱)을 利用하고, 意念을 制御함으로써 精神을 安定시켜, 保健(소위 養生이다)과 治病을 하는 一種의 方法이다. 그중 治療目的에 쓰이는 것을 「氣功療法」이라 한다. 단, 氣功은 古代의 發展過程에서 道家들의 思想이 적지 않게 混入되었음을 參考로 對處해야 할 것이다.

氣功療法(기공료법)

氣功의 項 參照

氣關(기관)

透關射甲의 項 參照.

忌口(기구)

병에 걸려 服藥할 경우 왕왕 治療상의 필요에 의해 病人에게 어떤 食物이 忌口를 요구한다 靈樞 五味篇에서 “肝病禁辛 心病禁鹹 脾病禁酸....”이라 했고 金匱要略 禽獸蟲魚 禁忌并治등에도 強調되었다 實踐으로 證明된 바와 같이 수중에는 食鹽을 忌하고 黃疸泄瀉에는 유니植物을 忌하는 등은 확실히 科學的根據가 있는 것이다. 이밖에 忌口에는 음植物의 배합상 기해야 하는 경우도 포괄된다 一般的으로 유니植物을 먹을 때는 생냉植物을 다식하지 말아야 한다고 말한다 그런데 일부 忌口에는 너무 機械的이거나 혹은 더 實證을 요하는 것도 있다 예컨대 小兒의 마진에 일률적으로 생냉유니물 피비린나는 植物 등을 기하는 것은 왕왕 健康恢復에 影響을 미치게되면 혹은 어떤 종류의 營養缺乏症을 일으키게 된다 또 鱉甲을 服用할 경우에는 ??채를 기하고 형객을 服用할 경우엔 魚海의 류를 기하는데 이것이 과연 나쁜 결과를 招來하는지 어떤지는 더 研究할 餘地가 있다

氣口(기구)

寸口の 項 參照.

杞菊地黃丸(기국지황환)

<滋養肝腎>의 項 參照.

杞菊地黃丸(기국지황환)

補陰의 項 參照

氣厥(기궐)

氣病으로 인해 惹起되는 厥證을 말함. 氣虛, 氣實의 差異가 있다. 氣虛로 인한 厥證은 眩暈昏倒, 面色淡白, 汗出肢冷, 氣息微弱, 脈沈微等症을 나타내며 低血壓 或은 低血糖의 昏厥의 類이다. 氣實로 인한 厥證은 언제나 暴怒氣逆의 所致로서 薄厥과 同義이다.

氣極(기극)

六極의 項 參照.

氣機(기기)

通常은 氣의 機能活動을 뜻함. 때로는 臟腑之氣의 運行通路를 뜻하기도 한다. 예컨대 臨床上 痰熱壅肺로 因해 肺의 氣機가 不暢하여 喘逆症狀을 일으키게 된다.

氣機不利(기기불리)

廣義로는, 臟腑機能活動의 障礙를 뜻하며, 狹義로는, 三焦의 昇降機能이 障礙되어, 胸膈의 痞塞不通症狀을 나타냄을 말한다.

氣癰(기라)

癰癤의 一種이다. 項의 左右兩側에 생기는 것. 肝氣의 鬱結에 의해 생기며, 怒하면 腫瘡한다.

氣瘤(기류)

皮膚에 隆起되는 一種의 腫塊이다. 크기가 一定하지 않고, 質이 軟하며, 皮膚色은 不變하고, 가벼운 脹痛感이 있으며, 全身에 寒熱證이 나타나는 일도 없다. 薛立齋는, “若勞傷肺氣 腠理不密 外邪所搏而癰腫者 其自皮膚腫起 按之浮軟 名曰氣瘤”(肺氣가 勞傷되고, 腠理가 不密하여, 皮膚에서 腫起되며, 눌러서 浮軟한 것을 氣瘤라 한다.)고 하였다.

氣輪(기륜)

『白晴』의 項 參照.

氣輪(기륜)

五輪의 項 參照

氣痢(기리)

實證과 虛證의 區別이 있다. 實證은 糞便이 蟹沫처럼 粘稠하고, 裏急後重하며, 腹脹하고, 大便時에 臭穢한 排氣가 많으며, 或은 腸鳴을 兼發하고, 小便不利 等症을 나타낸다. 이는 濕熱이 鬱滯하여 氣機가 宣暢하지 못한 所致이다. 虛證은, 腹脹하며 排氣(방귀)할 때, 大便이 따라 나오게 된다. 이는 中氣가 下陷하며, 腸이 虛하고 不固한 所致이다.

氣淋(기림)

主要症狀은, 下腹部에서 陰囊에 걸쳐 腫痛하며, 小便이 澀滯하고 或은 尿後에 疼痛한다. 대개는 膀胱의 氣가 鬱滯된 所致이다 만약 久病으로 不癒하면, 少腹部가 墜脹 急痛하며, 排尿困難이 되고, 排尿時에 餘瀝이 된다. 이는 脾腎이 氣虛한 所致이다.

氣門(기문)

「玄府」의 項 參照.

氣味(기미)

性味라고도 함 藥氣와 藥味를 包括해서 하는 말이다. 藥物의 氣味는 淸々바하고 각이 하므로 그 作用도 다르다 어느 藥物이든 모두 藥기와 藥미가 있으므로 綜合적으로 運用해야 하며 같은 寒性藥이라도 藥味가 다르면 作用도 다르다. 예컨대 黃連은 氣味가 苦寒하여 淸熱燥濕의 作用이 있으면 芩芩은 氣味가 辛寒하여 淸熱을 助하는 作用이 있다 또 같은 甘味藥이라도 藥氣가 다르면 作用도 다르다 예컨대 熟地黃은 氣味가 甘溫하여 溫腎 補氣하는 作用이 있으며 瓜蒌는 氣味가 甘寒하여 淸熱 化痰하는 作用이 있다.

氣味陰陽(기미음양)

四氣五味와 升降浮沈의 음양속성을 말함 四氣중의 熱 溫(去寒 助陽)은 陽에 속하고 寒과 冷(淸熱 瀉火 養陰)은 陰에 속한다 五味(實際는 六味)중의 辛(散) 甘(緩) 淡(滲)은 陽에속하고 酸(收) 苦(堅 燥 泄)은 陰에 속한다. 昇浮는 陽에 속하고 沈降은 陰에 속한다

奇方(기방)

方劑의 藥味의 種類가 奇數인 것을 奇方이라 한다. 奇方에는 두가지 意義가 있다. 1) 方劑에 단1種의 藥物을 쓴 것 2) 方劑의 藥物이 1以上을 超過하는 奇數이다. 일반적으로 病因이 單純하여, 一種의 注藥을 써서 治療하는 것을 奇方으로 認識하고 있다. 例로서 甘草湯(生甘草 1味, 少陰病의 咽通을 治함)이 있다. 素問 至眞要大論에서, “君一臣二 奇之制也, …君二臣三 奇之制也…近者奇之…汗者不以奇……”라고 說하였다. 여기서 奇方

의 組成例를 두가지로 列舉하였다. 近者奇之는 病位가 가까운 경우에는 奇方을 쓴다는 뜻이고 汗者不以奇는 發汗에는 奇方을 쓰지 않고 偶方을 써야 한다는 뜻이다. 그러나 後世에 이르러서는 이 說에 拘碍되지 않는다. 病位가 가까운 경우에도 偶方을 쓴다. 例로서 桑菊飲은 上焦病을 治하는데 杏仁, 連翹, 薄荷, 桑葉, 菊花, 苦桔梗, 甘草, 葦根의 8味를 쓴다. 汗者不以奇이지만 桂枝湯은 桂枝, 芍藥, 甘草, 生薑, 大棗의 5味로서 奇方이다

岐伯(기백)

岐黃의 項 參照

肌膚甲錯(기부갑착)

「肌若魚鱗」이라고도 함. 外膚가 거칠거칠하고, 乾燥하며, 過度하게 角化되므로, 外觀上 皮膚에 褐色을 띠고, 魚鱗狀과 같음을 形容한 것이며, 通常 이는 體內에 瘀血이 있는 一種의 外候이다. 臨床上, 언제나 身體가 야위고, 眼鞏膜에 靑暗色을 나타내는 등의 病狀을 隋伴한다. 니코틴酸缺乏病의 皮膚炎 等에서도 볼 수 있다.

氣分(기분)

氣分證의 項 參照.

氣分證(기분증)

溫熱病의 化熱하는 段階로서, 大概 衛分證에서 發展해온다. 臨床表現은, 發熱이 甚하고, 不惡寒하며, 汗出, 口乾渴, 面紅, 呼吸氣粗 或은 氣喘하고, 小便黃赤而少, 大便秘結 舌苔黃, 脈洪大或滑數 等이다. 不惡寒하고 惡熱하며, 舌苔黃色이 特徵이다. 臨床上, 濕熱이 相兼하고, 或은 熱毒이 壅盛하는 등의 情況이 있다. 氣分の 熱이 盛하면 津液을 가장 傷하기 쉬우므로, 隨時로 津液保存에 注意 해야 한다. 氣分은 中焦의 陽明經이 爲主가 되며, 肺. 膽. 脾. 胃. 大腸등의 臟腑를 包括하여, 그 範圍가 比較的 廣範하며 病情도 比較的 길다. 病邪가 衛分에서 氣分으로 傳入하거나, 或은 伏熱이 內發하여 病勢가 깊어 짐을 標示하며, 邪氣와 正氣의 相爭이 激烈한 段階에 이르러, 邪正이 俱盛하다. 氣分證이 發展하여, 營分 或은 血分으로 傳入하게 된다.

肌痺(기비)

肉痺의 項 參照.

奇邪(기사)

①邪氣의 性質이 特異하여, 發病規律이 一般과 다른 것. 「素問·三部九候論」에서 “其病者在奇邪 奇邪之脈 則繆刺之”라 하였다. ②一般病邪의 뜻과 같으며, 모든 不正之氣를 말함.

氣疝(기산)

古病名이다. 主要症狀은, 發作時에 陰囊이 偏墜 腫痛하여, 위로 腰部(腎俞)에 連及하며, 憤怒가 過度하거나 過勞時에 發作하며, 氣가 平靜해지면 漸次 緩解된다.

氣上衝心(기상충심)

한가닥의 氣가 下腹部에서 心胸部로 上衝함을 病因이 自覺하는 症狀을 말함. 대개는 寒邪가 下焦 및 胃腸을 侵犯했거나 或은 肝胃의 氣가 上逆한 所致이다.

氣少(기소)

「氣虛」의 項 參照.

氣隧血脫(기수혈탈)

「血脫氣脫」의 項 參照.

肌若魚鱗(기약어린)

「肌膚甲錯」의 項 參照.

氣逆(기역)

氣가 逆上하여 不順한 病理을 말함. 氣가 順調로우면 平常이 되고, 氣逆하면 病이다. 肺・胃의 氣는 降하는 것이 順인데, 肺氣가 逆하면 喘促 咳嗽을 發하고, 胃氣가 逆하면 嘔吐 呃逆을 發한다. 肝氣가 昇發을 主管하지만, 鬱怒하여 肝을 傷해서 昇發이 太過하면 氣火가 逆上하게 되어 頭痛 眩暈 昏倒 吐血 等症을 發한다.

氣癭(기영)

癭의 一種이다. 頸部の 한쪽 或은 양쪽에 彌滿性으로 腫大해져서, 邊緣이 不明瞭하고, 柔軟하며, 皮膚色은 如常하고, 一般的으로 不痛하며, 때로 喜怒에 따라 消長한다. 發病은 靑年婦女에게 比較적 많다. 山嵐水氣나 或은 氣鬱로 因해 생긴다. 本病은 單純性甲狀腺腫과 類似하다.

氣營兩燔(기영양번)

氣分과 營分の 邪熱이 熾盛한 病機를 말함. 主要病狀은 壯熱, 煩渴, 神志昏迷, 斑疹이 희미하게 보이고, 舌絳 苔黃燥 等이다. 만약 斑疹이 比較的 많고, 吐血 衄血 便血 抽搐 등의 血分 症狀이 있으면 「氣血兩燔」이라 한다.

氣營兩清(기영양청)

<清氣涼營>이라고도 함. 이는 氣分과 營分을 清하게 하는 藥物을 동시에 사용하여 熱性病의 熱邪가 氣分과 營分에 侵入한 것을 治療하는 方法이다. 그 症狀은 高熱, 心煩을 위주로 하고, 아울러 口渴, 汗出, 睡眠不能, 舌質絳, 苔黃乾, 脈洪數 等症을 나타내는데 生石膏,

知母,生地黃,麥門冬,元蓼,連翹 等藥을 쓴다.

氣鬱(기울)

氣機의 鬱結로서, 대개 情志의 刺戟 氣血失調와 有關하며, 臨床上, 대개 肝氣鬱結을 指稱한다. 主要症狀은, 胸悶脇痛 躁急易怒 食欲不振 月經不調 脈沈澁 等이다. 「肝氣鬱結」의 項 參照.

氣爲血帥(기위혈수)

氣血의 運行은, 相互對立 相互依存의 關係를 維持하고 있다. 氣는 陽이고 動力이며, 血은 陰이고 物質的 基礎이다. 營血이 經脈中에서 끊임없이 全身을 運行周流할 수 있음은 「氣」가 그 動力이 되는 데 依存하고 있다. 氣가 行하면 血도 行하고, 氣가 滯하면 血도 滯하므로 「氣爲血帥」라 한다. 그런데, 「氣」는 必須的으로 營血에 依賴해야만 作用을 發揮할 수 있으므로 「血爲氣母」라는 말도 있다. 이들의 關係는, 血液이 組織機關을 營養하여 機能活動을 產生하며, 機能의 正常活動은 또 血液의 運行을 推動한다. 氣血의 運行은 陰陽互根의 道理도 體現하고 있다.

氣有餘便是火(기유여편시화)

朱丹溪의 『格致餘論』에 있음. 「氣」는 陽氣를 말함. 「有餘」는 偏盛을 뜻함. 이 뜻은, 陽氣가 偏盛하면 곧 各種 「火證」을 誘發한다는 것이다. 陽氣의 偏盛은, 陰液의 不足로 因해 陽氣가 偏亢하여 虛火가 上炎하게 된다. 例컨대, 腎陰不足은 心火의 偏旺을 誘發하고, 또한 어느 한 臟腑의 機能失調로 因해 陽氣를 鬱結化火케 한다. 例컨대, 肝火 膽火 胃火 等이다. 故로 「氣有餘便是火」라 하였다.

氣由臟發(기유장발)

氣는 機能活動의 總稱이다. 五臟은 精氣의 貯藏을 主管하여 生命活動의 中心이 된다. 故로 發露되는 各種機能活動로서의 氣는 모두 五臟에서 發生하는 것이다.

肌肉軟(기육연)

「五軟」의 項 參照.

氣陰兩傷(기음량상)

「氣陰陽虛」의 項 參照.

氣陰不足(기음부족)

「氣陰陽虛」의 項 參照.

氣陰陽虛(기음양허)

「氣陰兩傷」이라고도 함. 熱性病 혹은 어떤 慢性・消耗性疾患의 過程中에 나타나는, 陰

液과 陽氣가 모두 耗傷되는 現象을 말함. 程度가 비교적 輕한 것을 「氣陰不足」이라 하고, 비교적 重한 것을 「氣陰陽虛」라 한다. 臨床上 三種類의 情況이 있다. ①熱性病的 極盛期에, 熱이 退하거나 혹은 未退할 때, 大汗氣促하며, 舌嫩紅 혹은 乾絳하고, 口渴하며, 脈이 散大 혹은 細數한 症狀을 나타내며, 虛脫傾向이 있는 患者에서 볼 수 있다. ②熱病的 後期에 나타나는 것으로, 肝腎의 眞陰이 虧損되고, 元氣大傷, 低熱, 手足心灼熱, 自汗, 盜汗, 神倦, 食少, 口乾舌燥, 舌絳苔少, 脈虛大 等症을 나타낸다. ③內傷雜病人 肺結核 糖尿病의 類에서 나타나는 것으로, 神疲形倦 少氣懶言, 口乾咽燥, 自汗, 盜汗, 潮熱 口渴, 舌紅無苔, 脈虛數 等症이 出現한다.

豈刺(기자)

關刺의 別명(靈樞 官針篇) 혹은 合곡자의 別명(잡을경 권오) 각해당項 參照

肌腠(기주)

①筋肉의 紋理로서 筋肉組織의 間隙에 해당함. 「肉腠」 혹은 「分理」라고도 함. ②일반적으로 肌表의 腠理를 말함.

氣至(기지)

得氣의 項 參照

氣脹(기창)

腹部가 脹滿한 症狀을 脹이라 하며 氣體로 인해 惹起되는 腹部의 脹滿을 氣脹이라 한다. 病因은 대개 肝의 疏泄機能이 失調되고 氣의 運化機能이 失調되어 氣機가 阻滯되는 것과 關係가 있다. 氣鼓의 項 2를 參照.

氣滯(기체)

體內的 氣의 運行이 不暢하여, 어느 한 部位에서 阻滯가 생기는 病理을 말함. 臨床의 主된 表現은, 局部的로 脹滿 혹은 疼痛의 症狀이 出現하는 것이다. 氣滯가 오래 되면 血瘀를 惹起하여 「氣滯血瘀」를 形成해서 局部的 疼痛을 加重시키며(刺痛拒按)甚하면 腫塊를 形成하고 혹은 肌肉을 腐損한다.

氣滯血瘀(기체혈어)

「氣滯」의 項 參照.

氣衝(기충)

氣街의 項 參照. 經穴名.

起泡(기포)

發泡의 項參照

其下者引而竭之(기하자인이갈지)

<素問·陰陽應象大論>에 있음. [下]는 下部에 있는 病邪를 말하며, [引]은 大小便을 通利하는 方法을 써서 病邪를 下部에서 排出함을 뜻함. [下法], [利濕]의 項 參照.

奇恒(기항)

[揆度奇恒]의 項 參照.

奇恒之腑(기항지부)

腦·髓·骨·脈·膽·女子胞(子宮)를 包括함. 奇恒이란, 尋常과 다르다는 뜻임. 奇恒之府는 形體가 腑와 類似하고, 作用은 臟과 類似(精氣를 貯藏하는 作用이 있으므로)한데, 臟과 類似하면서 臟이 아니고(似臟非臟), 似腑非腑하여 人體에서 一般臟腑의 作用과는 다른 점이 있다. 奇恒之腑는 一般的으로 人體의 比較的 深部に 있으며 人體의 중요한 組成 부분이 된다. 그 特徵은 基本的으로 其他 臟腑와 서로 配偶되지 않고 또 오탁물을 저장하지 않는다. 그중에서 담만은 간과 서로 배합되는데 담즙은 청정불탁하므로 기항지부에 든다. 그런데 기항지부도 고립된 것은 아니다. 예컨대 뇌와 신·심·간의 작용은 서로 협조관계가 있으며 수와 골의 생장은 신이 저장하는 정기의 충양에 의존한다. 맥과 심은 직접 유관하며 (심주혈맥), 자궁은 신기에 의해 성장발육한다. 여자의 월경이나 양태 등에도 혈의 공급을 요하므로 자궁은 심·신 등의 장기와도 유관하다.

氣海(기해)

①部位의 名稱이며, 上下의 區別이 있다. 膻中을 「上氣海」라 하며, 「宗氣」가 모이는 곳이다. 臍下의 「丹田」을 「下氣海」라 하며, 男女의 精氣가 모이는 곳이다. ②經穴名으로, 臍下 1寸 5分部位이며, 任脈에 屬함.

氣虛(기허)

①「氣少」, 「元氣虛弱」을 말한다. 대개 臟腑의 虛損 重病 久病으로 인한 元氣損耗의 所致이다. 一般症狀은, 面色蒼白 頭眩耳鳴 心悸短氣 動則汗出 語聲低微 倦怠乏力 等이다. 例컨대, 氣虛하여 血液을 固攝하지 못하면, 血이 經脈을 循行하지 않고, 崩漏 便血 衄血 等 慢性出血病症의 發한다. 이를 「氣虛不攝」이라 한다. ②肺虛를 指稱함. 『素問·通評虛實論』에서 “氣虛者 肺虛也”라 하였다.

氣虛不攝(기허불섭)

「氣虛」의 項 參照.

氣虛崩漏(기허붕루)

氣가 虛하여 血을 統攝하지 못하므로 惹起되는 陰道의 大量出血 或은 淋瀝不止함을 말함. 이 病變은, 脾腎의 兩虛와 有關하다. 症狀은, 出血量이 많으며, 或은 持續不止하고, 淡紅色을 띠며, 面色이 蒼白하고, 神疲 肢倦하며, 頭暈 氣促하고, 心悸하는 等이다.

氣虛中滿(기허중만)

脾는 中焦의 運化를 主管하는데, 脾胃氣가 虛弱하면, 健全한 運化를 하지 못하여, 腹部 脹滿을 일으키기 쉽다. 主要症狀은, 食欲不振하며, 腹脹滿이 때로는 輕하고 때로는 重하며, 按壓해도 不痛하고, 加溫하거나 按壓해주면 좋아하며, 面白唇淡하고, 舌苔白滑, 脈象弦弱 等症이다.

氣虛則寒(기허칙한)

陽氣의 不足로 臟腑을 溫養하지 못하고, 臟腑의 活動機能도 相應하게 減弱되며, 代謝機能이 低下되므로, 陰寒의 證候가 出現함을 말함. 例컨대 惡寒, 肢冷, 神倦, 口淡無味, 舌質淡白, 脈沈遲細弱 等이다.

氣虛下陷(기허하함)

「中氣下陷」의 項 參照.

氣穴(기혈)

「穴」의 項 參照.

氣血辨證(기혈변증)

內傷雜病의 辨證方法의 하나이다. 즉, 氣血의 病證을 綱으로 삼고, 辨證施治를 進行하는 方法이다. 그중 氣의 病證은 大概 機能性活動의 紊亂, 不足 或은 障礙로서 例컨대 氣虛, 氣滯, 氣逆, 氣厥 等を 말한다. 血의 病症은 血의 生成不足과 血의 運行失調의 所致로서, 例컨대 血虛, 血瘀, 出血, 血厥 等を 말함. 各項 參照.

氣血失調(기혈실조)

氣와 血의 兩者의 關係이 協調를 喪失하게 되는 病理을 말함. 生理的狀況下에서는, 氣血이 相互 依存하여, 氣는 血을 生하고, 血은 氣를 養하며, 氣는 血의 帥가 되고, 血은 氣의 母가 된다. 病變時에는, 氣病이 血病에 影響을 미치게 되고, 血病도 氣病에 影響을 미치게 된다. 例컨대 氣滯는 血滯를 招來하고, 血滯도 氣滯를 招來하여, 疼痛 瘀血 等症이 出現한다. 氣逆은 血을 逆上溢出케하여 吐血 咯血 衄血 等症을 나타낸다. 氣虛하여 血을 統攝하지 못하면, 血이 經脈을 循行하지 않고, 便血 崩漏 皮下出血 等症을 야기한다. 臨床上, 久痛 厥逆 月經不調 慢性出血 等の 病症은 대개 氣血失調와 有關하다.

氣化(기화)

①廣義로는, 人體內 氣機의 運行變化를 뜻함. 例컨대 臟腑의 機能作用, 氣血의 輸布流注, 臟腑의 氣의 昇降 開閉 등은 모두 「氣化」의 뜻을 含有한다. ②狹義로는, 三焦 氣의 流通宣化를 뜻함. 例컨대 三焦의 水液을 輸布하는 機能이 곧 氣化의 作用이다.

氣化(기화)

膀胱의 項 參照

氣化不利(기화불리)

水腫, 排尿障礙가 되는 病理의 하나이다. 小便의 排泄은 腎과 膀胱의 氣化作用에 依存하는데, 만약 濕熱이 下注하거나 혹은 命門火가 衰하면 腎과 膀胱에 影響을 미치어, 氣化機能을 障礙하거나 혹은 減弱시켜 排尿困難이 되어, 點滴尿出하며, 심지어 閉塞不通해서 水腫을 形成한다. 「水不化氣」의 項 參照.

岐黃(기황)

岐伯과 黃帝의 二人을 合稱한 것이다. 古代에 黃帝는 岐伯에게 醫藥을 研究케 하여 經方을 創立했다고 전해진다. 中國에 現存하는 最古의 醫書인 內經 등은 대개 黃帝가 묻고 岐伯이 답하는 體制로 쓰이었다. 그러므로 歷代以來 醫家は 대개 岐伯과 黃帝를 醫의 鼻祖로 삼는다.

氣會(기회)

「八會穴」의 項 參照.

緊脈(긴맥)

脈象의 一種. 脈象이 緊張有力하여, 指下에 끈 줄을 당기는 듯한 팽팽한 感이 있다. 寒邪이 外表를 拘束하거나 或은 裏寒이 獨盛한 境遇, 寒邪에 宿食을 兼挾한 境遇에 常見되며, 腹痛, 關節疼痛 等 證에도 出現한다.

緊火(긴화)

武火의 項 參照

螺(나)

<五不女>의 項 參照.

癰(나)

癰癰의 項 參照.

癰大風(나대풍)

癰風의 項 參照.

癰癰(癰癰)

靈樞 寒熱編에 있음. 主로 結核性頸部淋巴腺炎을 말함. 癰子頸, 頸癰, 或은 鼠瘡이라고도 함. 작은 것은 癰이고, 큰 것은 癰이다. 대개는 頸項部 및 耳의 前後에 發生하며, 病變이 一側에 限하는데, 兩側에 동시에 發生하는 水道 있으며, 頷下, 胸鎖乳突筋前後와

腋下 等處에 미치는 水道 있다. 그 形狀이 念珠처럼 줄지어, 歷歷히 셀 수 있으므로 이렇게 이름한다. 病因은, 肺腎이 陰虛하여, 虛火가 內灼해서 成痰하고, 痰火가 頸項에 結滯된 所致이다. 體弱한 兒童에게 多見된다. 臨床表現은, 처음에 한개 或은 몇개의 豆粒大의 結塊가 생겨서 以後 漸大한다. 그 수가 增多하여, 3-5개, 甚하면 十餘個가 連接된다. 皮膚色은 不變하고, 누르면 堅硬하며, 밀면 움직이고, 惡寒發熱을 일으키지 않으며, 痛覺도 없는데, 오래되면 약간 疼痛을 느낀다. 結塊가 相互 粘連되어 片을 이루며, 그塊는 눌러도 움직이지 않는다. 潰破되려고 할때는, 皮膚色이 漸紅하고, 塊質이 비교적 柔軟해지며, 潰破後에는 膿이 痰같이 稀薄하고, 或은 豆汁 같으며, 오래도록 아물지 않고, 구멍이나 或은 瘻管을 형성하므로 鼠瘻라고도 한다. 病因, 部位의 차이에 따라 痰癰, 濕癰, 氣癰, 筋癰등의 名稱이 있다.

낙(낙)

대소각양의 철기를 燒紅하여 환부를 지지는 것을 낙법이라 한다. 예컨대 농양이 이미 성농한 경우 고인은 刀針 대신에 소홍한 낙철로 농양을 낙파해서 농액이 유출케 하였다.

絡(락)

「絡脈」의 項 參照.

絡脈(낙맥)

「絡」이라고도 함. 絡脈은 經脈에서 分出된 網狀의 大小分支이다. 廣義의 絡脈은, 또 十五絡 絡脈 및 孫絡의 三類로 나누어진다. 그중 全身에서 最大의 絡脈은 모두 15條이며 「十五絡」이라 한다. 十五絡보다 작은 絡脈은 全身各處에 散布되어 數量이 매우 많으며, 이것이 狹義의 絡脈이다. 絡脈보다 더 작은 極히 많은 分支를 「孫脈」 또는 「孫絡」이라 한다(靈樞·脈度篇). 絡脈의 主要作用은 經脈과 配合되어 全身의 組織을 網狀으로 連絡하여 營衛氣血을 運行하는 것이다. 이밖에 絡脈의 또 하나의 意義는 身體淺表의 靜脈血管을 말한다(素問·調經論, “視其血絡 刺出其血”).

烙法(낙법)

針烙 낙이라고도 함 화침의 一種이다 그용법에 두가지가 있다 1)古代에 이 方法을 利用하여 화농한 창양을 治療함에 있어서 절개도에 대신하였고 出血을 피할수 있었다 현대의 전기도作用과 비슷하다 2)一定한 穴位상에서 화침의 方法으로 施術하는 것이다 흑낙이라고도 함

絡刺(낙자)

九針法의 一種 三稜針으로 皮下小血管을 자파하여 放血하는 것(靈樞 官針篇)

絡穴(낙혈)

「別絡」, 「別」이라고도 함. 全身의 十五絡脈에는 各各 經脈과 서로 連絡되는 하나의 穴

位가 있다. 그중에는 十四經脈에서 發出되는 14條의 絡脈의 穴位와 脾臟에서 分出되는 1條의 絡脈의 穴位를 합쳐 모두 15個의 絡穴이 包括된다. 즉 手太陰絡(手太陰之別)－列缺穴, 手少陰絡(手少陰之別)－通里穴, 手厥陰絡(手心主之別)－內關穴, 手太陽絡(手太陽之別)－支正穴, 手陽明絡(手陽明之別)－公孫穴, 足少陰絡(足少陰之別)－大鐘穴, 足厥陰絡(足厥陰之別)－蠡溝穴, 足太陽絡(足太陽之別)－飛揚穴, 足陽明絡(足陽明之別)－豐隆穴, 足少陽絡(足少陽之別)－光明穴, 任脈絡(任脈之別)－尾翳穴(즉 鳩尾穴), 督脈絡(督脈之別)－長強穴, 脾之大絡－大包穴이다.

卵(난)

「辜」의 項 參照

闌門(난문)

「七衝門」의 項 參照.

難産(난산)

妊娠하여 달이 차서, 胎位가 이미 下向 移動했는데, 胎兒가 잘 娩出되지 않는 것을 말함. 症狀은, 腹部가 陣痛하고, 腰腹이 痠脹하며, 小腹이 重墜하고, 胞水가 血과 함께 下하는데, 胎兒는 娩出되지 않는다. 産婦의 生理異狀, 産道狹窄, 胎位不正, 胎兒過大, 羊水早破, 或은 産婦의 氣血運行不暢 等の 原因에 의해 일어난다. 그 중 出産時에 胎兒의 손이 先下하는 것을 「橫産」이라 하고, 발이 先下하는 것을 「倒産」或은 「逆産」이라 하며, 出産時에 用力이 過早하여, 兒頭가 偏歪되고 어깨가 먼저 나타나는 것을 「偏産」이라 한다. 産婦의 用力이 過早하여 疲乏해서, 오래 이불에 기대고 있어도 産出되지 않는 것을 「坐産」이라 한다. 産婦가 突然 用力하여, 胎兒를 逼迫해서 娩出되므로 損傷을 입힌 것을 「傷産」이라 한다. 이밖에 妊娠하여 달이 차지 않았는데 分娩할 듯이 疼痛하면서 出産하지 못하는 것을 「試月」이라 한다.

煖水臟(난수장)

溫腎의 項參照

煖胃(난위)

<溫中祛寒>의 項 參照.

爛疔(난정)

疔瘡疾患의 하나이다. 手足, 臂臑(팔마디)等の 部位에 잘 생기며, 쉽게 부연하고 病勢가 急激하므로 이렇게 이른다. 發病前에 通常 局部의 創傷이 泥土等の 汚物에 接觸 感染되고, 거기에 濕熱 火毒이 內蘊해서, 毒이 肌膚에 모이므로 생긴다. 처음에는 患部가 脹痛하고, 周圍의 皮膚가 暗紅色을 띠며, 迅速히 蔓延되어 片을 이루고, 大水疱가 생겨, 腐臭膿液이나 滲出液이 流出되고, 정독의 周圍가 紫黑色을 띠며, 全身症狀으로, 惡寒戰

慄, 高熱, 神昏聒語 等を 나타낸다. 身熱이 退하고, 稠膿이 流出되며, 정독의 限界가 뚜렷해지면, 腐肉이 蘇生하여 收口되어 漸次 나을 可望이 있다. 만약 發熱이 不退하고 腫勢가 散漫하며, 意識이 昏迷해지면 「정창주황」에 屬한다.

爛喉丹痧(난후단사)

「爛喉痧」의 項 參照.

爛喉丹痧(란후단사)

[喉痧]의 項 參照

爛喉痧(난후사)

이는 一種의 急性傳染病이며, 冬·春 兩季에 多發한다. 口鼻에서 疫毒의 氣를 吸收하여, 肺胃의 蘊熱과 相蒸해서 發한다. 咽喉가 疼痛 腐爛하고, 肌膚에 紅色發疹(丹痧)이 發하는 것이 主證이므로, 「爛喉丹痧」라고도 한다. 傳染性이 있어서 流行을 일으키므로 「疫喉」의 하나이며, 「疫喉痧」라고도 한다. 本病은 猩紅熱이다.

捏積(날적)

捏脊의 項 參照

捏脊(날척)

捏積이라고도 함. 小兒의 消化不良 等症을 治療하는 데 多用된다. 方法은 小兒를 俯臥 固定시키고, 醫師는 兩手의 食指를 약간 굽혀 兩食指의 前半部가 兩拇指와 맞보도록 하여, 脊柱의 下端(尾骶部) 正中線의 兩側皮膚를 잡고, 脊柱正中線을 沿하여 위로 移動하면서 당기고 꼬집는다. 이렇게 脊柱의 上端(頸部)까지 곧게 推進하는 것을 一遍으로 하여, 每回 3-7遍씩 操作하면 좋다.

納氣(납기)

補腎納氣라고도 함. 腎이 納氣하지 않는 증후를 치료하는 방법이다. 腎不納氣의 증상은 呼吸氣短하고, 氣喘하며 행동후에 喘이 더욱 심하고 吸氣가 곤란하며 面部가 虛浮하고 苔淡白 脈細無力등을 나타낸다. 黨參, 胡桃肉, 補骨脂, 산수유, 五味子, 熟地黃등 약을 쓴다. 이 처방은 肺氣腫과 久病으로 體虛하면서 상기증상이 있는 경우 적용된다. 補腎納氣법은 만성기관지염의 신허형에도 쓰이는데, 그 표현이 咳嗽有痰, 喘促氣短하며 활동시에 더욱 심하고 요산되연하며 苔淡白 脈細 등증이다. 熟地黃 산수유 茯苓 五味子 杏仁 遠志 補骨脂 胡桃肉 등약을 쓴다

納氣(납기)

腎主納氣의 項 參照.

納呆(납태)

胃의 受納機能이 障礙되므로 이렇게 이름하며 胃呆라고도 함. 즉 消化不良, 食慾不振의 症狀이다. 만약 食欲이 없고 항상 飽滯한 感이 있는 것은 胃納呆滯라 한다.

囊癰(낭옹)

陰囊에 생기는 癰을 말하며, 腎囊癰이라고도 함. 대개는 肝腎二經의 濕熱이 下注하며 外濕이 內侵해서 蘊結 成毒하기 때문에 생긴다. 症狀은 惡寒 發熱하고, 口乾하여 涼陰을 좋아하며 小便이 赤澀하고, 陰囊의 한쪽 或은 兩쪽이 紅腫熱痛하는데, 睪丸은 腫大하지 않는다. 이런점을 보아 子癰과 鑑別된다. 熱이 退하고 痛이 止하면 消散된다. 만약 消退하지 않으면 化膿한다.

郎中(낭중)

中國 封建時代의 官名이다. 古代 中國의 南方에서는 醫員을 郎中이라 부르는 습관이 있었다(宋代 홍만의 이견지에 있음).이러한 호칭이 南方의 어떤 地方에서는 近代까지 쓰이고 있었다.

內關(내관)

關格의 項 參照.

內廉(내렴)

廉의 項 參照

內廉瘡(내렴창)

<廉瘡>의 項 參照.

內煩(내번)

內熱(實熱 或은 虛熱)로 因해 惹起되는 心胸의 煩悶症狀을 말함. 心煩으로 因해 惹起되는 意識錯亂을「煩亂」이라 함. 煩亂과 同時에 悶悶不樂한 感覺이 있는 것을「煩冤」이라 함.

內傷(내상)

①病因과 病症의 分類. 七情不節 飲食飢飽 勞倦 性交過度 等으로 臟氣를 內損한 病證을 말함. ②被擊 跌撲 等으로 體內的 臟氣가 受傷되거나 或은 強力負重하여 氣血을 損傷한 것을 말함.

內傷發熱(내상발열)

「發熱」의 項 參照.

奶癰(내선)

胎斂瘡 이라고도 함. 대개는 體質이 過敏한데 風濕에 侵襲되어 氣血이 搏하므로 생긴다. 嬰兒의 顔面部에 잘 생기며, 乾濕의 二形으로 나뉜다. 처음에는 粟粒狀으로 散在하거나 或은 密集되며, 疹色이 붉고, 긁으면 白屑이 나온다. 그 형태가 疥癬과 같고, 津液이 흐르지 않는 것은 乾斂瘡이며, 風熱이 偏盛한 것이다. 만약 皮膚에 粟粒같은 것이 돋고, 몹시 가려우며, 搔破하면 汁이 나와 넓게 퍼져서 片을 이루고,甚한 경우는 身體의 其他部位에 까지 蔓延되는 것은 濕斂瘡이며, 濕熱이 偏重한 것이다. 本證은 항상 患兒를 煩躁케 하고, 睡臥不安케 하며, 病이 오래 되면 皮膚에 苔癬 같은 變化가 생긴다. 만약 皮損部位의 滲出液이 減少되고, 皮膚의 紅色이 減退되면 好轉되는 徵候이다. 本病은 嬰兒濕疹이다.

內消(내소)

外科消法이라고도 함. 외과의 瘡瘍을 내복약으로 치하는 삼대치법의 하나이다. 이는 消散의 효능이 있는 약물을 운용하여 未化膿의 초기 종양을 소산시키는 방법이다. 구체적인 정황에 따라 명명한 방법을 써야 한다. 예컨대 표증이 있으면 해표하고 리실하면 통리시켜야 하며 熱毒이 온결되었으면 청열해독해야 되고 한사가 응결되었으면 온통시키야 하며 痰結이 있으면 거담해야 하고 濕邪가 阻滯되어 있으면 거습해야 되며 氣滯가 있으면 행기시켜야 되고 血瘀가 있으면 行瘀和營해야 하는 등이다. 이들 방법을 운용하여 화농하지 않은 것은 소산시키고 내소가 불능한 경우라도 중한 것을 경하게 할 수 있다. 만약 창형이 이루어졌으면 일률적으로 내소의 치법을 쓸 수 없다. 毒散不收하고 기혈이 손상되어 腫瘍이 潰破된 후 收口되기 어렵고 빨리 낫지 않는 폐단을 막기 위해서이다.

內濕(내습)

體內에 水濕이 停滯함을 말함. 이는 脾腎陽虛로 인해 水濕을 運化할 수 없어서 생기는病症이다. 臨床表現은 食欲不振 腹瀉 腹脹 小便少 面黃 下肢浮腫 舌質淡 苔潤 脈濡緩 등이다.

內實(내실)

表實의 項 參照.

內癰(내옹)

癰이 臟腑에 생겨, 外觀으로는 보이지 않는 것으로 例컨데, <腸癰>, <肺癰>, <肝癰> 등이다.

內外痔(내외치)

內痔와 外痔를 兼한 混合痔이다. 內痔의 生長部位와 外痔가 함께 連하여 發生된 것이며, 肛門의 左中, 右前, 右後의 部位에 多發하며, 右前部位에서 보다 많이 볼 수 있다.

內有久寒(내유구한)

「痼冷」의 項 參照.

內因(내인)

「三因」의 項 參照.

內眥(내자)

『大眥』라고도 함. 內眼角. 上下眼瞼의 鼻側과의 連結部位.

內障(내장)

眼球內部(瞳孔 및 水晶體, 眼底등의 部位와 眼內組織을 包括)의 疾患을 總稱해서 ‘內障’이라 함. 元代 危亦林的 <世醫得效方>에서는 內障의 病症을 23種으로 列舉하였다.

內釣(내조)

小兒의 胎寒 或은 脾胃의 虛寒으로 惹起되는 一種의 病症을 말함. 主要症狀은, 腰背가 屈曲하고, 腹痛多啼하여, 脣黑하고, 陰囊이 腫脹한다(陳治의 幼幼近編).

內燥(내조)

體內的 陰液이 耗傷되어 나타나는 乾燥한 證候를 말함. 대개 熱病의 後期에 吐瀉·汗出·出血過多 或은 用藥不當등으로 因해 惹起된다. 臨床表現은 骨蒸潮熱 心煩 唇燥 舌乾無津 皮膚乾燥 爪甲乾枯 등의 內熱傷陰症狀이다.

內吹(내취)

「乳吹」의 項 參照.

內吹乳癰(내취유옹)

「乳癰」의 項 參照.

內痔(내치)

肛門의 齒線보다 윗部位에 생기며, 紫紅色의 塊物이 突出된다. 初期에는 痔核이 비교적 작고, 排便時에 鮮血이 滴出되며, 疼痛을 느끼지 않고, 痔核이 肛門밖으로 脫出되지 않는다. 中期에는 痔核이 비교적 크고, 大便後에 痔核이 肛門外로 脫出되며, 排便後에는 肛門內로 還入된다. 一般的으로 便血은 비교적 적다. 後期에는 大便後에 痔核이 脫出되며, 甚한 경우는, 咳嗽, 遠行, 久立 等の 狀況에서도 脫出이 되며, 자연히 還納되지 않으므로, 손으로 밀어넣거나 或은 平臥해야만 復立된다. 最後段階에는, 恒상 脫出하며 쉽게 還納되지 않는다. 만약 痔核이 回縮안되면, 腫痛이 發生하며, 甚한 경우는 絞窄으로 因해 腫痛 潰爛되어, 塊死하게 되며, 或은 化膿으로 因해 肛瘻를 續發하게 된다.

內針(내침)

進針의 項을 參照

內托(내탁)

托法이라고도 함. 외과의 창양을 내복약으로 치하는 삼대치법의 하나이다. 이는 기혈을 보익하는 약물을 운용하여 정기를 부조해서 병독을 밖으로 밀어 내어 독사의 內陷을 막는 방법이다. 外科瘡瘍의 중기에 독사가 성하고 정기가 미허하며 아직 潰破되지 않은 경우에 托毒透膿법을 쓰면 좋다. 황기 當歸 川芎 穿山甲片 白芷 조각자를 쓴다. 혹은 정기가 허하므로 탁독배출이 불능하여 창형이 평담해지고 根脚이 산만해져서 腐潰되기 어렵고 혹은 궤과후 농즙이 稀少하며 堅腫이 不消하고 신열이 나며 精神不振 面色萎黃 脈數無力 등증을 발하면 補托법을 써야 한다. 황기 白朮 茯苓 黨參 炙甘草 當歸 白芍 藥 조각자 白芷 金銀花 連翹 桔梗 陳皮등 약을 쓴다.

內閉(내폐)

閉의 項 參照.

內風(내풍)

病變中에 出現하는 動搖 眩暈하는 類의 病證으로서, 外感風邪에 屬하지 않은 것. 「素問·至眞要大論」에서 “諸暴強直 皆屬於風”이라 하였다. 火熱이 熾盛하므로 內風이 생기거나, 혹은 血虛陰虧하고 氣血이 逆亂해서 생긴다. 대개는 病理變化의 過程에서 出現하는 中樞神經系統의 症狀에 屬한다. 例:眩暈·昏厥·抽搐·震顫·麻木·口眼喎斜등. 「風氣內動」의 項 參照.

內寒(내한)

陽虛氣弱하여, 臟腑의 機能이 衰退해서, 水液運化의 障礙, 濁陰貯留의 病症을 惹起함을 뜻함. 「素問·調經論」에서 “陰盛則內寒”이라 하였는데, 脾는 水濕의 運化를 主管하고, 腎은 水液의 調節을 주관하여, 腎陽은 人體陽氣의 本이 되므로, 內寒은 대개 脾腎의 陽虛에 起因한다. 臨床表現은 吐瀉·腹痛·手足厥冷·冷汗自出(內寒患者의 分泌物이나 排泄物은 대개 清稀하고 冷하다)·脈沈遲 등이다. 「素問·至眞要大論」에서 “諸病水液澄徹清冷 皆屬於寒”이라 하였다.

內陷(내함)

邪氣의 內陷을 뜻함. 邪氣가 亢盛한데, 正氣가 虛弱하여 拒邪不能하면, 邪氣가 內陷하여 病情이 加重된다. 例컨대, 麻疹의 出疹期에, 麻毒이 過盛한데, 다시 風寒을 感受하면, 正氣가 不足하여 疹點이 突然 隱沒되고 顏色이 變白하며, 呼吸이 急促하여, 病情이 迅速히 惡化된다. 이를 麻毒內陷이라 한다.

冷灸(냉구)

天灸의 項 參照.

冷勞(냉로)

陰寒證에 屬하는 婦女의 虛勞病이다. 대개는 氣血이 不及하고 臟腑가 虛寒한 所致이다. 主要症狀은 臍下가 冷痛하고 手足이 때때로 寒冷하며 月經이 不調하고 飲食物이 消化가 되지 않으며 간혹 嘔吐하고 때로 惡寒하며, 때로 發熱하고 骨節이 痠痛하며 形體가 黃瘦하는 等이다.

冷痢(랭리)

「寒痢」의 項 參照.

冷服(냉복)

한제를 냉복하는 것은 대열증에 적용되고 열제를 냉복하는 것은 가열진한증에 적용된다 (송암존생서에 있음)

冷秘(냉비)

「寒結」의 項 參照

냉엄법(냉엄법)

엄의 項參照

冷汗(냉한)

畏寒肢冷하면서 汗出함을 말함. 發汗前에 發熱하지 않고 口渴하지 않으며 언제나 精神萎靡, 面色蒼白, 大便溏, 小便清長, 脈沈遲, 舌質淡白, 舌苔白潤 등의 寒性症候를 隨伴한다. 대개 평소 陽虛하고 衛氣가 不足하며 腠理가 弛緩되어 일어나며 놀람으로써 惹起되기도 한다.

冷哮(냉효)

哮證의 項 參照.

臑(노)

肱, 上膊이라고도 함. 肩部以下, 肘部以上의 部分.

露(노)

藥物에 물을 붓고 증유해서 收集한 澄明한 液體를 로라고 한다. 露劑는 長期保存할수 없으므로 必要시에 만들어서 服用한다.

顱蓋(노개)

『頭顱骨』의 項 參照.

勞怯(노겁)

虛勞의 項 參照.

臑骨(노골)

解剖學上的 肱骨(上腕骨)이며, 肱部(上膊部)에 位置하고, 下는 正骨(尺骨)과 輔骨(橈骨)에 連함.

勞倦(노권)

「勞」는 勞損을, 「倦」은 倦怠를 뜻함. 一般的로 일부 虛損症의 發病要因을 말한다. 通常 다음 二種類를 指稱하는 경우가 많다. (1)「五勞所傷」, (2)「房勞」, 腎精의 虧損

勞淋(노림)

淋證이 오래도록 不癒한데, 疲勞하면 곧 發病하는 것이므로 이렇게 이름한다. 主要表現은, 小便이 淋瀝하고, 尿後에 下陰部가 隱痛하며, 四肢가 나른하고, 腰部가 痠痛하며, 좀처럼 낫지 않는다. 本證은 대개 淋證을 오해 되도록 治療하지 않았거나 혹은 調治를 잘못 하여, 脾腎兩虛가 되므로 일어난다. 만약 顏色이 晄(白+光)白하고, 少氣하며 懶言하는 것은 脾氣가 虛한 것이고, 몸과 四肢가 寒冷하며, 脈이 虛弱한 것은 腎陽虛이며, 手掌 足底가 熱하며 舌紅하고, 脈象이 細數한 것은, 腎陰虛이다.

노脈(노맥)

脈象의 一種. 脈象이 實,大하고, 弦長하며, 浮取나 中取으로는 反應이 없고, 세게 눌러야만(沈取) 느껴지며, 堅노不移하다. 陰寒積聚의 病症으로, 例컨대 癥瘕, 痞塊, 疝氣 등에서 多見된다.

勞復(노복)

「差後勞復」이라고도 함. 「差」는 病이 治愈된 것임. 病이 初癒되자마자 疲勞로 인해 다시 再發함을 뜻함. 病後 氣血이 아직 恢復되지 않았거나 혹은 餘熱이 아직 남아있으면, 過盜汗 疲勞, 飲食의 不節制, 七情의 過度, 혹은 房勞 飲酒 등이 모두 再發의 誘인이 될 수 있다.

勞水(노수)

甘瀾水の 項 參照

勞熱(노열)

①各種의 慢性 消耗性 疾病中에 出現하는 發熱現象으로, 例컨대 五勞七傷으로 생기는 虛熱을 말함. ②中氣의 不足, 肺氣의 虛弱으로 인해, 약간 일을 하여 疲勞하면 低熱이 出現하는 症狀이다.

努肉攀睛(노육만정)

즉 [翼狀努肉](翼狀贅片)이다. 本證은 心.肺.二經의 風熱이 壅盛하고 또한 脾胃에 積熱이 있기 때문에 誘發된다. 그 主要症狀은 努肉(굳은살)이 眼角에서 隆起하여 灰白色을 띠고 漸次 黑睛(검은자위) 角膜을 侵犯해서 視力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勞者溫之(노자온지)

< 素問. 至眞要大論>에 있음. 虛勞病으로 氣虛한 경우는 溫補藥을 써서 助陽한다는 뜻이다. 例컨대 中氣가 不足하므로 身熱有汗하고, 渴喜熱飲하며, 少氣하고, 말하기 싫어하며, 舌嫩色淡하고, 脈虛大 等證이 發하는 경우는 甘溫除大熱法을 써야 한다.

驚자咳(노자해)

「百日咳」의 項 參照.

癆瘵(노주)

癆瘵의 別稱이다. 瘵에는 注入, 久住의 뜻이 있다. 癆瘵患者의 病程이 길고 또 他人에게 잘 傳瘵(感染)되므로 이렇게 이름한다.

癆瘡(노창)

癆는 結核病의 通稱이다. 癆瘡은 結核性的 瘡瘍을 말하며, 그 중에서 癰癤이 가장 常見되는 것이다.

癆瘵(노채)

傳染性이 있는 慢性消耗性疾病을 말하며 肺癆라고도 함. 肺結核病의 類이다. 그 發病原因은 어떤 要因에 의해 機體의 抵抗能力을 低下시켜 呼吸道에서 癆蟲(結核菌)에 感染된 所致이다. 故로 傳尸癆라고도 하는데 이 病이 相互 傳染하는 一種의 病임을 形容한 것이다. 主要 臨床 表現은 咳嗽, 咳血, 潮熱, 盜汗, 身體의 逐漸消瘦等이며 陰虛에서 多見된다. 疾病이 變遷하는 全過程中에서 初期에는 陰精의 虧耗로 시작하여 이어서 陰虛火旺이 되고 後期에는 陰損及陽, 陰陽兩虧

勞則氣耗(노칙기모)

『素問·舉痛論』에 있음. 疲勞가 過度하면, 氣喘 出汗過多하여, 氣를 耗散케 해서 倦怠無力해짐을 말함.

怒則氣上(노칙기상)

『素問·舉痛論』에 있음. 「氣」는 여기서 主로 肝氣를 指稱함. 肝氣는 暢達을 좋아하고, 抑鬱을 싫어한다. 正常狀況下에서는, 肝氣를 抑鬱할 수 없으며, 過亢해서는 안된다. 肝은 또 藏血하는 器官이며, 만약 精神이 過度한 刺戟을 받으면, 肝氣를 지나치게 昇發上逆시켜, 胸脇脹痛 目赤 頭痛 脈弦 等を 出現한다. 만약 肝의 藏血이 失調되면, 血이 氣를 따라 上昇해서 吐血症狀을 나타낸다. 「五志」의 項 參照.

勞瘡(노학)

瘡疾이日久하여身體가虛弱해져서,虛勞가된 것이며,「瘡勞」하고도 한다.或은久病으로因한勞損으로,氣血이陽虛한데,瘡疾을 앓는 것도 역시勞瘡이라 한다. 그特徵은微寒微熱하고,或은晝夜에發하기도 하고,或은夜間에發하기도 하며,氣虛多汗하고,飮食少進하며,或은發作이停止된後,疲勞하면即發한다.

老黃苔(노항태)

舌苔가甚黃色이고 거친것이다.胃腸의熱結이나,津液이受傷한 경우에多見된다.

綠風(녹풍)

‘五風內障’의項參照.

綠風內障(녹풍내장)

本病은 곧青光眼(綠內障)이다. 대개는,眞陰이虧損되어,陰虛陽亢하고,氣血이不和하므로惹起된다.主要症狀은,瞳孔이散大되고,淡綠色을 띠며,視物이不明瞭하고,燈火를 볼 때,언제나赤綠色의圓暈이 보인다.急性發作時에는恒常劇烈한疼痛을隨伴하며,惡心,嘔吐,眼瞼腫瘡,眼球充血 등을 나타낸다.急性期가緩解된後에도視力이크게減退된다.本病은再發하기 쉬우며,漸次加重되고,治療를失期하면失明되기 쉽다.

膿窠瘡(농과창)

<膿窠瘡>의項參照.

弄舌(농설)

[吐弄舌]의項參照.

膿窩疥(농와개)

疥瘡의項參照.

膿窩瘡(농와창)

<膿窠瘡>이라고도 함.接觸으로傳染되기 쉬운一種의化膿性皮膚病이다. 이는肺熱,脾濕의蒸鬱에 의해 생기며,또濕疹,땀띠(汗疹) 등을 손톱으로 긁어破皮되어毒素에感染되므로 일어나기도 한다.兒童에게 많이 생긴다.頭面,팔,下肢等處에多發된다.大豆大의膿疱가 되어周圍가發紅하며,焮熱疼痛하고,疱壁이 두꺼워 잘 터지지 않으며,潰破後에陷凹가 생기고,表面에膿液이 있으며,乾燥後에黃痂가 생긴다.일반적으로全身症狀은 없다.

膿耳(농이)

耳內가紅腫焮熱하며,鼓膜이潰破되어,耳道에서膿이 나오는 것을<膿耳>라 하며, 대개는肝經의火熱로因해惹起된다.患者는耳孔에疼痛이突發하여,聽力이減退되

고, 全身에 寒熱이 隨伴되며, 脈象이 弦滑數한 等證을 나타낸다. 本病은 대개 小兒에게 發生한다. 急性中耳炎과 類似하다.

腦(뇌)

「영추·경맥편」에서 “인시생 선성정 정성이뇌수생...”이라하여 뇌의 산생이 신과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설하였다. 신은 정을 저장하는 장이며 정(선천적인 신정과 후천적으로 수곡에서 화생되는 정기를 포괄함)은 수를 생하고 수가 두강내에 모여서 뇌를 형성하므로 뇌를 「수해」라고도 한다. 뇌는 사람의 고급중추신경의 主는 활동을 주관한다. 뇌는 신정에서 산생되는 것이므로 신정이 충실하면 지체가 경경유력할 뿐만 아니라 보다 중요한 것은 뇌의 기능도 충분히 발휘된다는 것이다. 뇌의 일부기능은 심·간·신 등의 臟腑와 연계되어 그들 사이에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말해주며 동시에 뇌의 질환을 치료하는데 어째서 신·심 등의 장에서 착수해야 하는지를 말해준다.

雷廓(뇌곽)

廓 외 項 參照

腦頭風(뇌두풍)

頭痛時에 雷鳴하는 소리를 自覺하고 頭面에 核이 생기며 或은 腫痛紅赤하기도 하는데 濕毒이 上部에 鬱結된 所致이다.

腦漏(뇌루)

<鼻淵>의 項 參照.

腦疽(뇌저)

對口의 項 參照

腦風(뇌풍)

風邪가 腦에 上入하여 惹起되는 病證이다. 頭風에 屬하는 하나의 疾患이며 主要症狀은 項背가 惡寒하고 腦戶穴(風府穴의 上, 督脈과 足太陽經의 會穴)의 局部에 冷感이 있으며 惡風하고 頭部가 劇痛하여 疼痛이 齒頰에 미친다.

雷火神針(뇌화신침)

藥物艾卷의 項 參照

漏(누)

「五不男」의 項 參照.

螻蛄癭(누고루)

<螻蛄癰>의 項 參照

螻蛄癰(누고질)

癰病의 一種이며, 小兒의 頭部에 多發된다. 患部가 처음에는 小癰이 되고, 根이 堅硬하며, 外形이 지렁이(蟻)의 치켜든 머리와 같으므로 <蟻拱頭>라고도 함. 이러한 癰腫은 通常 多發性이며, 頭皮下의 膿腔이 相連되어 潰破後에 모양이 螻蛄(땅강아지)의 구멍과 같으므로 <螻蛄癰>또는 <螻蛄瘻>라 함. 대개 心火熱毒 或은 胎毒內發의 所致이다.

淚竅(누규)

淚堂이라고도 함. 內眥部에 位置하며, 上下眼瞼의 內側에 각각 一小孔이 있음. 眼淚를 排泄하는 通路이다.

汨囊炎(누낭염)

[漏睛]의 項 參照.

淚堂(누당)

淚竅의 項 參照.

僂附(누부)

僂는 背가 屈하는 것이며 附는 俯와 같음 僂附는 步行할 때 背와 腰가 彎曲하여 頭部가 下向하는 구부린 體徵이다. 이는 腎氣가 衰하고 筋脈이 虛疲한 表現이다.

漏睛(누정)

[眥漏]라고도 함. 이는 一種의 眼眥部(眼角部)의 疾病이며 肝經의 風熱 或은 心火가 熾盛한 所致이다. 그 症狀은 眼內眥가 紅腫 脹大해지고 계속 發展하면 潰破되어 流膿하며 오래도록 아물지 않고 긴 세월에 걸쳐 內眥의 漏孔에서 膿液이 나온다. 本病은 汨囊炎과 類似하다.

漏下(누하)

「崩漏」의 項 參照.

漏下(누하)

固崩止帶의 項參照

漏汗(누한)

表症에 發汗이 過多하여 陽氣가 受傷되어 衛虛不固해져서 汗液이 淚出不止하는 現象을 말함. 汗出過多로 인해 陽氣가 不足해질 뿐만 아니라 津液도 耗損되므로 通常 小便短少, 排尿困難, 四肢의 微拘急, 關節의 屈伸不利等症을 隨伴한다.

茶(다)

藥物을 찌어서 조말로 하여 塊狀으로 만들어서 이를 끓는 물에 포하여 藥成分이 우려나게 하거나 혹은 전즙을 茶代用으로 服用하는 것 午前茶(廣東城製의 煎藥製劑)가 그 예이다.

丹(단)

內服用과 外用의 二種으로 나뉜다. 外用이 丹제에는 ??(수은) 유황등의 광물藥이 含有되어 加熱 승화하거나 용와 流出하는 方法으로 製劑 ㅎ되면 용말상이다 예컨대 白降丹 紅昇丹(영藥의 項 參照)등이다. 內服用의 丹제에는 紫雪丹과 같은 散劑도 있고 至寶丹 五粒回春丹과 같은 丸劑도 있고 辟瘟丹과 같은 錠劑도 있다 丹劑에는 玉樞丹(일면 자금선)처럼 內服과 外用に 다같이 쓰이는 것도 있다 이는 丸劑 혹은 선정에로 되었다 古代에 煉丹術이 있어서 丹의 원래 뜻은 승화 精鍊한 丹을 말한다 예컨대 白降丹 홍강丹의 製法이 그 유법이다 그후 丹이란 名稱이 있지만 實際로는 승화 정련한 것이 아니다. 後世인들은 丸劑나 散劑중 藥性이 준열하고 용량이 적은 것을 丹이라 한다고 함한다. 예컨대 紫雪丹 至寶丹이 그러하다 그런데 상한론의 白散은 藥성이 준열하고 용량은 심소하지만 丹이라 칭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後世인의 이설도 丹지 참고 가 될 뿐이다.

煅(단)

藥物을 화중에 넣고 소홍하거나 혹은 내인용기에 넣고 間接적으로 화단하여 그 질이 바삭하고 유연하게 하는 것 예컨대 牡蠣 瓦礫子 血餘 明礬등이 이 方法을 쓴다

短氣(단기)

呼吸이 短促하고 接續이 잘 안된다는 뜻. 많은 疾病의 過程에서 볼수 있다. 虛證과 實證이 있다. 實證은 대개 갑자기 發作하며 胸腹脹滿과 거친 呼吸聲을 隋伴한다. 대개는 痰,食의 內疝로 氣機의 升降에 影響을 미친 所致이다. 虛證은 대개 久病에 屬하며 音聲이 낮고 숨이 微弱하며 心身이 疲勞하다. 대개 元氣가 大虛한 所致이다.

但代無胃(단대무위)

脈無胃氣의 項 參照.

丹毒(단독)

①一種의 急性인 皮膚熱毒病症이며, 患部の 皮膚가 朱丹을 칠한 것처럼 붉으므로 이렇게 이름한다.流火 或은 火丹이라고도 함. 小腿 或은 面部에 多發하며 患處의 皮膚가 大片으로 紅腫하여 皮面보다 약간 높게 腫起하며 邊緣限界가 뚜렷하고 表面이 光滑하며 만져보면 堅實하고 患處附近의 림과節이 腫大하며 惡寒, 戰慄, 高熱, 頭痛, 骨節疼痛 등의 全身症狀이 隨伴된다.대개는 血分에 熱이 있어서 肌部로 透發하거나, 或은 皮膚粘膜이 破損되어 疫毒이 外侵한 所致이다. ② 一般的으로 體表의 皮膚가 大片으로 紅變하

는 一部 病症을 말함. 例컨대 赤游丹, 纏腰火丹 等이다.

單方(단방)

간단한 方劑를 말함. 用藥이 1-2味에 不過하며 適應도 1-2證에 不過하여 藥力이 專一해서 效果가 迅速하다. 救急 혹은 一病의 專門攻遂에 쓰인다. 例컨대 甘草綠豆湯은 毒菌中毒을 治療하며 或은 半邊蓮一兩煎湯을 連服해거 腹水를 驅除하는 등이다

斷法(단법)

傷科에서의 正骨의 方法이다. 端正 或은 端을 原位置로 回復시킨다는 뜻을 包含함. 주로 骨傷이나 關節異位, 脫臼에 쓰인다. 醫師가 한손 或은 兩手로 負傷부의 下端의 骨을 단단히 잡고, 確實하며 바르게 復位시키는 方法이다.

單腹鼓(단복고)

鼓脹의 項 參照.

燉淬(단취)

淬의 項 參照

單按,總按(단안,총안)

脈診시에 手指를 各異하게 써서 脈象을 測候하는 方法을 말함. 하나의 手指를 써서 어느 一部의 脈象을 按하는 것을 單按이라 한다. 例컨대 寸部脈을 診하는데 食指으로 寸部를 按하고, 다른 二指는 약간 든다. 食指, 中指, 藥指의 三指으로 동시에 寸, 關, 尺의 三部脈을 按하는 것을 總按이라 한다. 兩者는 通常 配合해서 쓴다.

旦欲寐(단욕매)

少陰經病의 主證의 하나이다. 이는 一種의 意識朦朧으로, 似睡非睡이고, 似醒非醒한 狀態이다. 少陰病으로 心腎이 兩衰하고, 氣血이 虛弱한 경우에 볼 수 있다.

單日瘡(단일학)

「瘡疾」의 項 參照.

短刺(단자)

十二刺法의 一種 골비를 治療하는데 쓰인다. 그 자법은 약간 요동하면서 針을 刺入하여 골부에 심달케 해서 제?? 針법을 쓴다 (靈樞 官針篇)

丹田(단전)

①道家에서는 人身의 臍下 3寸을 丹田이라 함. 이 部位는 男子의 精室, 女子의 胞宮이 있는 곳이다. ②氣功療法에서의 「意守」部位의 名詞이다. 그 部位가 三個所인데, 臍下の 것을 「下丹田」, 心窩部の 것을 「中丹田」, 兩眉間の 것을 「上丹田」이라 함.

痺瘡(단학)

「痺」은 熱氣가 盛함은 뜻함. 瘡疾이 邪를 感受한 後, 裏熱이 熾盛하므로 發하는 것이다. 그 臨床表現은, 發作時에 發熱할 뿐이고 惡寒하지 않으며, 煩躁氣粗하고, 胸悶 欲嘔等症을 나타낸다.

單行(단행)

七情의 하나이다. 한가지 藥을 單用하여 效能을 發揮하는 것으로, 甘草湯, 獨參湯등이다.(七情의 項② 參照).

但弦無胃(단현무위)

脈無胃氣의 項 參照.

達邪(달사)

<透邪>의 項 參照.

達原飲(달원음)

<開達膜原>의 項 參照.

膽(담)六府의

하나. 膽은 주로 膽汁을 貯藏하여 이를 輸出함으로써 消化를 도우며, 外界와 直接 相通하지 않고, 水穀의 轉化에도 直接 參與하지 않으며, 胃腸의 機能과 다른 것이므로 「奇恒之腑」에 屬한다. 肝에서 分泌되어 膽內에 貯藏되는 膽汁(王叔和의 「脈經」에서 “肝之餘氣 泄於膽 聚而成精”이라 함)은 比較的 淸淨하고 精氣를 함유하므로 「精汁」이라고도 稱하며, 腸道와 膀胱中の 糟粕,排泄物과는 다르다. 故로 膽을 「中精之府」, 「中淸之府」라고도 稱한다. 膽은 肝과 서로 表裏가 되어, 「肝主謀慮」, 「膽主決斷」하며, 肝과 膽의 이 두가지 면의 作用이 서로 配合됨은, 膽과 肝이 部分的으로 中樞神經의 機能과 有關함을 말해 준다. 이밖에 膽과 肝은 內部에 「相火」(封建名詞로서 心の 君火와 상대되는 말)가 寄하여, 病理上 「火」의 證狀을 일으키기 쉽다.

痰(담)

呼吸道에서 分泌되는 病理性產物을 말하며, 어떤 病變이 된 氣管組織內에 괴인 粘液物質을 包括한다. 이들은 津液에서 變化되어 生成된다. 病으로 因해 생기는 痰에는, 風痰·熱痰·寒痰·燥痰·濕痰 등이 있다. 痰으로 因한 致病에는, 痰飲·痰火·痰包·痰核·痰瘡·頑痰·宿痰·伏痰 등의 病症이 있다. 病으로 因한 生痰이든, 痰으로 因한 致病이든간에, 모두 肺·脾와 比較的 密接한 病理關係가 있다. 六淫病邪가 肺를 犯하면 대개 痰이 생기며, 脾陽이 虛弱하여 水濕이 停聚되어도 痰이 生成된다. 故로 「脾爲生痰之源, 肺爲貯痰之器」라는 說이 있다. 痰濁은 氣를 따라 昇降하여 이르지 않는 곳이 없다. 例컨대, 痰이 心竅에 迷入하면 神昏 癲狂이 되고, 風痰이 遊隙하면 驚風 癇證을 發하며, 痰濁이 上冒하

면心悸·眩暈이 나타나고, 痰濕이 上犯하면 惡心嘔吐하며, 痰이 脇肋에 停滯되면 胸悶 脇痛 喘咳痞悶하고, 膽과 火가 結合되면 瘰癧 癭瘤가 生기고, 痰이 經絡을 阻害하면 半身不遂가 되며, 痰이 肌膚에 흐르면 陰疽가 생기고, 痰이 關節에 注入되면 「鶴膝」이 된다. 이밖에 여러가지 難病 怪證이 辨證論治上 흔히 痰과 有關하다.

膽氣不足(담기부족)

「膽虛」의 項 參照.

痰癰(담라)

項의 前方, 足陽明胃經이 通過하는 部位에 생기는 瘰癧를 말함.

淡味滲泄爲陽(담미삼설위양)

素問 至眞要大論에 있음 참설은 수습을 담리배설한다는 뜻이다 淡味藥은 수습을 하향 참리시켜서 배설해 나가게 하녀 그 藥성은 양에 속한다. 예컨대 통초와 의의인은 淡味이며 소변의 통리로 수습을 제거한다.

痰迷心竅(담미심규)

「痰阻心竅」라고도 함. 主要症狀은, 意識模糊, 喉有痰聲, 胸悶, 昏迷不醒, 苔白膩 脈滑 等이다. 流行性 B型腦炎, 流行性腦炎, 中風昏迷, 癲癇 등에서 多見된다. 「痰蒙心包」라고도 함.

淡滲利濕(담삼이습)

주로 淡味の 利濕藥을 使用하여 濕邪를 下焦에서 排出하는 것이다. 例컨데 泄瀉清稀, 小便不利, 舌苔白, 脈濡한 경우에 茯苓, 猪苓, 澤瀉, 冬瓜子, 薏苡仁 等藥을 쓴다.

痰濕(담습)

「濕痰」의 項 參照.

痰濕阻肺(담습조폐)

痰濕이 肺를 壅阻하여 喘咳이 發하는 病理을 말함. 肺는 貯痰의 器이고, 脾는 生痰의 源이다. 만약 脾陽이 虛하여 運化機能이 失調되면, 精氣를 肺로 上輸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도리어 濕이 모여 痰이 되어, 肺에 影響을 준다. 主要症狀은, 咳嗽, 痰涎壅盛, 痰이 희고 묽어 咯出이 容易하고, 胸膈滿悶하며, 약간 活動해도 咳嗽가 加重되고, 氣喘, 舌苔白膩 或 白滑, 脈濡緩 等이다. 慢性氣管支炎, 氣管支喘息 等の 疾患에서 多見된다.

痰濕咳嗽(담습해수)

「痰咳」의 項 參照.

膽實(담실)

膽氣가 不暢하여 나타나는 實證을 말함. 主要症狀은, 胸脘滿悶, 脇上脹痛, 口苦乾, 頭額兩側 및 目銳眥疼痛 等이다.

膽熱(담열)

膽의 熱證을 말함. 膽은 少陽經脈에 屬하고, 肝과 相互 表裏가 되므로, 膽의 熱證 實證은 항상 肝과 連繫가 있다. 臨床表現은, 胸脇煩悶 口苦 咽乾 苦水嘔吐 頭暈眼花 耳聾 寒熱往來 黃疸 或 鼻流濁涕 等이다.

痰熱結胸(담열결흉)

「小結胸」의 項 參照.

痰熱阻肺(담열조폐)

痰熱이 肺를 壅阻하여, 喘咳이 發하는 病理을 말함. 主要症狀은, 發熱, 咳嗽, 痰鳴, 胸膈滿悶, 黃稠痰을 咯出하고, 或은 痰中帶血하며, 甚하면 呼吸促迫하고, 胸脇作痛하고, 舌紅苔黃膩, 脈滑數 等이다. 대개 外邪가 肺를 侵犯한 후, 鬱하여 熱로 化해서 肺津을 熱傷하여, 液을 熱燻해서 成痰하며, 痰과 熱이 結合해서 肺絡을 壅阻한 所致이다. 急性氣管支炎, 肺炎, 肺氣腫合併感染, 氣管支喘息合併感染 等の 疾患에서 多見된다.

痰飲(담음)

病因과 症狀에 의해 命名된 것이며 廣義와 狹義의 二 種類가 있다. ① 廣義의 痰飲은 多種類의 水飲病的 總稱이다. 이는 一般的으로 體內的 水液이 잘 轉輸되지 못하여 體腔, 四肢等處에 停滯되는 類의 疾病을 말한다. 그 病因은 대개 脾, 肺, 腎, 三臟의 機能失調와 有關하며 相互 影響을 미치게 되는바 특히 脾陽이 運化 機能을 잃고 三焦의 氣化가 障礙되는 것이 水飲停留의 主要 原因이 된다. ② 狹義의 痰飲은 水飲病的 一種이며 虛證과 實證으로 나뉜다. 虛證의 主要 表現은 胸脇支滿하고 脘部에 振水音이 있으며 清涎을 嘔吐하고 頭暈하며 心悸하고 氣短하며 形體가 消瘦하는 等이다. 이는 脾腎이 兩虛하여 水穀을 運化할 수 없어서 水飲이 胃腸에 散在한 所致이다. 幽門이 梗阻됨으로써 惹起되는 胃停留과 類似하다. 實證의 主要 表現은 胃脘部가 堅滿하고 泄瀉하며 泄瀉後에는 약간 便安한데 胃脘部가 곧 堅滿해지며 水飲이 腸間에서 流動하여 꾸룩룩 소리가 난다. 이는 水飲이 胃腸에서 伏留한 所致이다.

痰積(담적)

主要症狀은 橫膈이 痞滿隱痛하고 痰涎이 咯出되지 않으며 鼻汁과 唾液이 粘稠하고 삼키면 걸리며 頭暈目眩하고 腹中에 硬塊가 있다. 이는 痰저 氣滯로 인해 濕濁이 胸膈間에 凝集된 所致이다.

痰阻心竅(담조심규)

「痰迷心竅」의 項 參照.

痰阻肺絡(담조폐락)

肺臟이 受邪한 後, 津液을 輸布하는 機能을 잃고, 液이 모여 痰이 되어, 肺를 壅阻해서, 痰盛氣逆 喘咳 等症이 出現함을 말함. 臨床上 「痰熱阻肺」와 「痰濕阻肺」로 나뉜다. 該當 項 參照.

膽主決斷(담주결단)

「素問·靈蘭秘典論」에서, “膽者 中正之官, 決斷出焉”이라 하였다. 「中正」이란, 不偏不倚의 뜻을 含有한다. 여기서는 主로 膽의 作用中の 하나가 中樞神經의 一部機能活動과 有關함을 말하였다. 이밖에 「膽主決斷」은 어떤 精神刺戟(例:突然한 驚恐)의 不良影響을 防禦하고 除去함으로써 人體氣血의 正常運行을 維持 制御하여 臟腑機能의 相互 協助를 促進시키는 데 重要的 作用을 한다. 膽氣가 怯弱하면 驚恐으로 因해 致病하고, 膽氣가 强壯하면 顯著的 影響을 받지 않는다.

痰喘(담천)

喘息의 項 參照.

痰濁(담탁)

「濕痰」의 項 參照.

痰包(담포)

舌下에 생기는 一種의 病理性 包塊이며, 表面은 光滑하고, 質이 軟하며, 外表는 黃色이고, 속에 卵白 같은 粘液이 들어있으며, 局部的으로 麻木 疼痛을 느끼게 되고 腫大하면 言語와 飲食에 妨碍가 된다. 痰火의 流走에 의해 생긴다.

痰瘧(담학)

비교적 重型의 瘧疾이다. 臨床表現은, 發作時에 寒熱이 交代로 發하고, 熱多寒少하며, 頭痛眩暈하고, 痰多嘔逆하며, 脈象이 弦滑하다. 重症인 경우는 昏迷抽搐을 나타낸다. 腦型瘧疾의 類이다.

痰咳(담해)

「痰濕咳嗽」라고도 함. 咳聲이 重濁하고, 痰이 많으면서 咯出하기 쉽고, 痰出하면 기침이 멎는 것이 特徵이다. 胸悶食少하고, 舌苔가 白膩하며, 脈象이 浮滑한 等症을 隨伴한다. 대개 痰濕이 內部에 쌓여, 위로 肺를 侵犯한 所致이다. 慢性氣管支炎, 肺氣腫, 氣管支擴張症 等病에서 볼 수 있다.

膽咳(담해)

咳嗽할 때, 膽汁 或은 青色 苦汁을 吐出하는 證候를 말함.

痰核(담핵)

皮下가 腫起되어 核처럼 結塊가 되는 것을 말하며, 대개는 濕痰이 流聚됨으로써 생긴다. 結塊의 數는 一定하지 않고, 不紅 不腫하며, 不硬 不痛하고, 손으로 만지면 果核狀으로 軟滑하고 移動한다. 一般的으로 化膿潰破되지 않는다. 痰核은 대개가 頸, 項, 下頷部에 생기는데, 四肢나 肩背에도 생기는 수가 있다. 身體의 上部에 생기는 것은, 대개 風熱을 兼하고, 身體의 下部에 생기는 것은 대개 濕熱을 兼한다.

膽虛(담허)

「膽氣不足」, 「膽虛氣怯」이라고도 함. 主要症狀은, 虛煩不眠, 心慌心跳, 易驚, 多疑慮, 常歎息이다. 一部 癔病(히스테리), 神經衰弱病因에서 볼 수 있다.

膽虛氣怯(담허기겁)

「膽虛」의 項 參照.

痰血(담혈)

「咳血」의 項 參照.

痰火(담화)

① 無形의 火와 有形의 痰이 煎熬 膠結되어 肺에 貯積되 病證을 말하며 所謂 窠囊之痰이다. 平時에는 뚜렷한 症狀이 없다가, 外邪 혹은 飲食內傷等の 要因에 의해 發作이 惹起된다. 그 症狀이 哮喘과 매우 類似하여 煩熱胸痛하고 口乾 唇燥하며 痰塊를 咯出하기가 매우 어려운 重症을 나타낸다. ② 頸部와 耳後에 念珠狀의 痰核이 있으며 或은 腋下에 結塊가 생긴다. 그 痰核을 누르면 단단하고 밀어도 移動하지 않으며 舌紅苔黃하고 脈弦滑數 等症을 兼發한다. 肝火 痰鬱에 의해 생기므로 이렇게 이른다.

痰火擾心(담화요심)

痰火가 上昇해서 心神을 어지럽게 하여, 精神錯亂의 病變을 惹起함을 말함. 例컨대 精神異狀, 言語錯亂, 甚한 경우 狂躁妄動, 舌尖紅苔黃이, 脈滑數 等症이다. 精神分裂症, 癔病(히스테리) 등에서 多見된다.

當歸補血湯(당귀보혈탕)

補血의 項參照

唐代四科(당대사과)

唐代的 太醫書는 醫學을 四科로 나누었다. 즉 醫科 針科 按摩科 呪禁科이다. 醫科는 다시 體療(內科) 少小(小兒科) 瘡腫(外科) 耳目口齒(五官口腔) 角法(拔火**項療法, 부항療法)등의 四個部分으로 나누었다.

螳螂子(당랑자)

新生兒가 數日 或은 一個月 지나서, 兩頰內에 腫脹된 硬塊가 생겨서 哺乳가 不便하고, 甚하면 울음소리를 내지 못하는 것을 「螳螂子」라 하며, 「土脯子」, 「頰指墊」라고도 함.

溏泄(당설)

「驚溏」의 項 參照.

大가泄(대가설)

「難經·五十七難」에, “大가泄者 裏急後重 數至圊而不能便 莖中痛”이라 하였다. 陳瑞孫의 「難經辨疑」에서는 “大가泄 卽腸澼也”라 하였으니, 後世에서 말하는 痢疾을 말한다.

大結胸(대결흉)

「傷寒論」중의 大陷胸湯證이다. 이는 太陽表證이 아직 끝나지 않았는데, 下法을 誤用하여, 心下部에서 少腹部에 걸쳐, 硬滿疼痛하여 손을 가까이 댈 수 없는 證候가 出現하는 것이다.

大經(대경)

①큰 經脈을 말함(素問·調經論), “無中其大經”. ②本經의 經脈을 말함(靈樞·官鍼篇, “經刺者 刺大經之結絡經分也”).

大谷(대곡)

「溪谷」의 項 參照.

大骨枯槁(대골고고)

大骨은 軀幹과 四肢를 支持하는 主要-骨格을 말함. 枯槁는 枯萎 或은 乾竭의 뜻임. 이는 一部 慢性消耗性 疾病의 末期에 極도로 消瘦하여 肌肉이 瘦削되므로, 全身의 骨格關節이 露顯됨을 描述한 것이다. 또는 氣血이 虧損되므로 骨髓이 불充分해지고, 骨格이 枯萎된 것처럼 되어, 軀體를 지탱할 수 없는 것은 惡病質의 情況에 屬한다.

對口(대구)

喉頭의 項部 頂中에 생기는 疔으로서 督脈經에 屬하여, 部位가 口와 相對되므로 이렇게 이름한다. 腦疔라고도 함. 左 或은 右에 치우쳐, 足太陽膀胱經에 屬하는 것은 偏口, 偏口疔, 腦偏疔라고도 함. 대개는 濕熱이 交蒸된는 氣를 感受하거나, 或은 積熱 濕毒이 上壅된 所致이다. 順證은, 瘡瘍이 頂尖하고, 根盤이 紅腫하며 灼熱 疼痛한다. 逆證은, 대개는 情志鬱結, 肝腎虧損, 陰虛化痰과 有關하며, 瘡瘍이 平平하고 散漫하며, 根盤이 收縮되지 않고, 難潰 難斂하다.

大厥(대궐)

中風의 病證에 屬함. 中風으로 卒倒하여 昏微不省하는 證候를 말함. 오래되지 않아서

回復하는 厥症 昏倒症狀과는 區別된다. 中風の 項 參照.

大氣(대기)

宇宙間の 空氣 或은 胸中 呼吸의 氣를 말함.

大衄(대늑)

口.鼻에서 一齊히 出血하며, 甚한 경우 眼.耳.口.鼻.二陰에서 同時に 出血하는 病症이다. 血熱이 妄行하기 때문이며, 또한 氣가 虛하여 血을 統攝하지 못한 所致이기도 하다.

對待(대대)

種類가 많은 脈象을, 相對的인 性徵에 따라 簡略하게 歸類하는 方法이다. 例컨대 浮沈, 遲數, 滑澁, 虛實 等の 八脈을 辨脈의 綱領으로 삼아 이로써 疾病의 表裏, 寒熱, 虛實, 順逆을 辨別한다. 其中 浮과 沈, 遲와 數, 大와 小, 滑과 澁 虛와 實 等は 모두 서로 相對的(마주보는 것)인 關係가 있다.

大都穴(대도혈)

「八邪穴」의 項 參照.

大毒,常毒,小毒,無毒(대독,상독,소독,무독)

素問 五常政大論에 있음 大毒은 藥物의 毒性이 극열한 거이다 常毒은 藥物이 毒性이 大毒에 버금가는 것이다 小毒은 藥의 毒性이 적은 것이다 無毒은 곧 平性藥이다.

大頭傷寒(대두상한)

「大頭瘟」의 項 參照.

大頭瘟(대두온)

溫毒의 一種이다. 「大頭風」或은 「大頭傷寒」이라고도 함. 이는 風溫 時毒을 感受하여 肺胃로 侵入해서 發病하는 것이다. 頭面이 紅腫하고 或은 咽喉가 腫痛하는 것이 特徵이다. 重症인 경우에는 耳聾·口噤·神昏譫妄등의 危候가 出現한다. 또 다른 一種이 있는데, 頸項의 腫大가 主證이며, 頭面으로 波及되어 狀態가 蝦蟆과 같다. 이를 「蝦蟆瘟」이라 한다.

大頭風(대두풍)

「大頭瘟」의 項 參照.

大絡(대락)

全身에서 最大인 絡脈으로서 一名 「經隧」라고도 함. 其中 十四經에 各各 1條의 大絡이 있고, 다시 脾臟에 1條의 大絡(以上을 합쳐 十五絡이라 함)이 있고, 胃腑에 1條의 大絡

(胃之大絡)이 있다. 「十五絡」, 「胃之大絡」의 項 參照.

大麻風(대마풍)

癘風의 項 參照.

帶脈(대맥)

奇經八脈의 하나. 季脇部에서 起始하여 橫行해서 腰部를 一周 環繞한다. 本經에 有病하면, 主로 腹部脹滿, 腰部無力, 下肢軟弱步行困難, 怕冷, 月經不調, 赤白帶下 等の 症狀과 病症이 나타난다.

代脈(대맥)

脈象의 一種. 脈象이 緩,弱하고, 規則的인 間歇性이 있으며, 間歇시간이 比較的 길다. 臟氣의 衰微와 關聯되며, 心臟病(例 : 風濕性心臟病 冠不全 等)에서 多見된다. 이밖에 驚恐, 跌仆의 重證, 一部 妊婦에게도 代脈이 나타나는 수가 있다.

大脈(대맥)

脈象의 一種. 脈象이 커서 滿指로 느껴지며, 破動의 幅이 平常의 倍이다. 大脈이고 有力한 것은 邪熱의 實證이며, 大脈이고 無力한 것은 大개 虛損로, 氣가 內收하지 못하는 證候이다.

大方(대방)

邪氣가 强盛하고 病에 兼證이 있는 경우에는 大方을 使用한다. 大方에는 五種의 意義가 있다. 1) 藥力이 매우 强하다 2)藥味가 많다. 3)藥量이 많다 4)量이 많고 1회에 完服하는 것 5) 下焦의 重病을 治療하는 것 大方의 一例로서 下法에 쓰이는 大承氣湯(大黃, 厚朴, 枳實, 芒硝)이 있다.

大方脈(대방맥)

中國古代의 醫學分科의 一種으로 이는 成人의 疾病을 專門으로 治療한 것이며 現在의 內科에 該當함

大補元煎(대보원전)

補氣의 項參照

大腹(대복)

腹의 項 參照.

大夫(대부)

中國 封建時代의 官名이다. 靑代以前の 太醫員長官의 職位가 大夫에 該當하였다. 그러므로 太醫員의 五品以上の 의관을 모두 大夫라 칭하였다. 中國의 北方人은 醫員을 大

夫라고 부르는 習慣이 지금까지도 存續한다. 이는 洪**의 容肅三筆에 記錄되었음.

大分(대분)

「肉分」의 項 參照.

大寫(대사)

針刺 수법중의 사법의 一種이다. 針을 혈의에 刺入한후 한손으로 針刺부 주위의 皮膚를 긴안해서 고정하고 다른 손으로 針병을 잡고 전후좌우로 대폭으로 요동하여 針공을 깨대게하는 一種의 方法이다.

大瀉刺(대사자)

九刺法의 一種 皮針을 써서 毫針으로 皮膚를 천자하는 것(靈樞 官針편)

大承氣湯(대승기탕)

1) 方의 項 參照 2) 大方의 項 參照

大承氣湯(대승기탕)

<寒下>의 項 參照.

大實如羸狀(대실여이상)

眞實假虛의 項 參照.

對心發(대심발)

「發背」의 項 參照.

戴眼(대안)

瞳孔이 上視하며 轉動할 수 없음을 말함. 太陽經의 經氣가 衰竭하기 때문이며, 이는 病이 危重한 段階에 있을 때 出現하는 一種의 腦神經症狀이다.

戴陽(대양)

陽氣가 下焦의 虛寒으로 因해, 위로 浮越하여, 下部는 眞寒이고, 上部는 假熱을 나타내는 證候를 戴陽이라 함. 患者가 氣短하여 呼吸이 促迫하고, 倦怠懶言하며, 無理하게 말을 하면 숨이 차고, 頭暈心悸하며, 足冷하고, 小便이 맑으며, 大便이 묽고, 舌이 肥嫩하며, 苔가 黑潤하다. 이들은 모두 眞寒의 表現이다. 但, 面色이 浮紅하고, 口鼻에서 때로 出血하며, 口燥 齒浮하고, 脈象이 浮大한데 누르면 空虛無力하다. 이들은 假熱의 症狀이다. 「戴陽」과 「格陽」은 모두 眞寒假熱의 病理變化에 屬한다. 格陽證은 內部가 眞寒하고, 外部가 假熱한 것이며, 戴陽證은 下部가 虛寒하고 上部가 假熱한 것이다. 實際上으로는, 病情이 發展하여 이런 危重한 段階에 이르면, 兩者가 언제나 交代로 나타나서,

確然하게 區分할 수 없는 것이다. 「陰盛格陽」의 項 參照.

大肉(대육)

臂·腿의 筋肉을 말함.

大肉陷下(대육함하)

[素問,玉機眞臟論]에 있음. 大肉은, 一般的으로 身體의 比較的 크게 露顯된 肌肉 或은 肌肉群을 말함. 陷下는 消瘦로 인한 低陷을 말함. 이는 一部 慢性消耗性疾病의 消瘦情況으로 惡病質의 情況에 屬하는 것이다.

大醫(대의)

封建時代의 人品 德性和 醫療技術이 모두 優秀한 醫員에 대한 존칭이다.

大眚(대자)

『內眚』의 項 參照.

大腸(대장)

六府의 하나. 廻腸(一說에는 廻腸에 直腸 肛門을 包括한다고 함)이라고도 稱함, 그 主要機能은 小腸에서 消化吸收된 후, 送下된 分解物을 接受하여, 그 中の 殘餘水分과 養分을 吸收하고, 糞便을 形成케 하여, 肛門을 통해 體外로 排出하는 것이다. 그래서 大腸을 『傳道之官』이라고도 한다. 주로 糟粕을 傳瀉하며 消化의 最後段階를 마무리 한다. 大腸의 病變은 大便의 回收나 性狀에 影響을 미친다.

大腸濕熱(대장습열)

濕熱이 大腸에 蘊釀되는 病變을 말함. 主要症狀은, 膿血이 섞인 下痢, 腹痛, 裏急後重, 尿短赤, 苔黃膩, 脈滑數 等이다. 痢疾(細菌性痢疾 或은 아메바赤痢), 急性腸炎에서 多見된다.

大腸液虧(대장액휴)

大腸의 津液이 不足하므로 나타나는 病變이며, 대개 陰血不足 或은 熱病傷津과 有關하다. 主要症狀은, 便秘 或은 排便困難이며, 消瘦, 皮膚乾燥, 咽乾, 舌紅苔少, 脈細 等を 兼發한다. 老年性便秘 或은 習慣性便秘에 多見된다.

大腸熱結(대장열결)

邪熱이 大腸에 結하므로 惹起되는 病變을 말함. 臨床表現은 便秘, 腹痛拒按, 舌黃苔燥, 脈沈實有力 等이다. 各種外感熱病의 氣分段階에서 多見된다.

大腸癰(대장옹)

「腸癰」의 項 參照.

大腸主傳導(대장주전도)

素問 靈蘭秘典論에서 “大腸者，傳導之官，變化出焉”이라 하였다. 大腸의 주된 機能은, 小腸에서 消化吸收된 後 傳送되어 내려온 消化物에서 剩餘水分과 養分을 吸收하여 糞便으로 變化시켜, 肛門에서 體外로 排出하는 것이다. 大腸은 粗粕을 傳送하는 通路이므로 主傳導 라든지 傳導之官이라 한다. 各種原因으로 大腸의 傳導機能이 失調되면 泄瀉或은 便秘等症을 일으키게 된다.

大腸寒結(대장한결)

寒氣가 大腸에 結하여 便秘가 되는 病變을 말함. 主要症狀은, 腹部隱痛, 大便秘結, 口淡, 舌白少苔, 脈沈弦이다. 寒性便秘에 多見된다.

大腸咳(대장해)

咳嗽할 때, 大便失禁이 되는 現象을 말함.

大腸虛(대장허)

大腸의 氣虛로서, 通常 脾虛證候를 兼發한다. 主要症狀은, 脫肛, 久瀉不止, 完穀不化, 糞便色淡不臭, 腸鳴 等이다. 만약 久瀉不止하면, 臨床上 대개 虛寒이 兼發하며, 이를 「大腸虛寒」이라 한다. 該當 項 參照.

大腸虛寒(대장허한)

大腸이 虛寒로 因해 傳導機能이 失調되는 病理을 말하며, 대개 脾腎虛寒과 有關하다. 主要症狀은, 下痢稀薄, 食少, 四肢冷, 腰痠, 怕冷, 苔薄, 脈沈細 等이다. 慢性腸炎, 慢性痢疾 등에서 多見된다.

大節(대절)

①人體의 大關節. ②手指와 足趾의 第一節.

對臍發(대제발)

「發背」의 項 參照.

大秦芎湯(대진교탕)

<去風養血>의 項 參照.

大靑龍湯(대청룡탕)

兼方의 項 參照

大針(대침)

古代 九針의 一種이다 針체가 藥간 굵고 針점은 藥간 둥글다 전신수종 및 복중징가 등

병의 治療에 多用된다.

大腿疽(대퇴저)

<股脛疽>의 項 參照.

大風苛毒(대풍가독)

「素問·生氣通天論」에 있음. 「大風」은 風邪가 猛烈함을 뜻하고, 「苛毒」은 毒氣가 嚴重함을 뜻함. 모두 어떤 劇烈한 病邪를 形容한 것이다.

帶下(대하)

①廣義의 帶下은 一切의 婦人科病을 包括해서 말함. 帶脈은 人體의 腰部을 一周 環繞하는데, 帶脈以下の 部位를 「帶下」라 하였다. 故로 古代에는 婦人科病을 모두 「帶下病」이라하였다. ②狹義 帶下는, 婦女의 陰道에서 流出되는 一種의 粘膩한 物質로서, 帶와 같이 계속됨을 말함. 婦女의 多種類의 生殖器炎症으로서, 例컨대 陰道炎, 子宮頸糜爛, 子宮頸炎, 子宮腔炎 등을 包括한다. 이밖에 子宮頸癌, 子宮體癌이 合併感染된 경우에도 帶下量이 많고, 惡臭가 난다. 歷代 醫家들은 帶下의 색깔의 差異에 따라서, 「白帶」, 「赤帶」, 「赤白帶」, 「黃帶」, 「靑帶」, 「黑帶」, 「五色帶」 등으로 나누었다. 各項을 參照.

帶下醫(대하의)

史記 扁鵲烈傳에서 最初로 말하였다. 帶下는 腰帶以下 或은 帶脈以下の 部位를 말함. 婦女에게 帶下病이 많으므로 古代에는 產婦人科疾病을 專門으로 治療한 醫員을 帶下醫라 하였다.

大汗(대한)

汗出이 過多한 現狀을 말함. 熱이 盛하여 怕寒하고 發表의 治法이 지나쳤거나 病後의 氣虛 元氣의 欲脫等の 原因에 의해 出現한다. 汗은 津液에서 化한 것으로 汗多하면 傷津하고 甚하면 亡陰이 된다. 汗은 心液이며 汗多하면 또 亡陽이 된다. 亡陰, 亡陽, 漏汗, 熱汗, 冷汗等項을 參照.

大黃附子湯(대황부자탕)

<溫下>의 項 參照.

大黃附子湯(대황부자탕)

攻裏不遠寒의 項 參照.

搗(도)

治削의 項 參照

挑揀(도간)

治削의 項 參照

倒經(도경)

「逆經」 또는 「經行吐衄」이라고도 함. 月經周期中에 (或은 行經의 前後에) 周期的로 吐血 或은 衄血하는 病症을 말함. 發病과 月經周期가 有關하며, 또 항상 月經量이 적거나 或은 閉經을 惹起하므로 「倒經」 或은 「逆經」이라 한다. 本病은, 대개 肝氣逆上, 肝經鬱火, 或은 陰虛肺燥로 因해 일어난다.

導氣(도기)

針法의 述語이다.(靈樞 邪客篇에 있음) 이는 針刺의 득기를 촉진시키는 一種의 수단이 다. 득기에 나타나는 감각의 유무(기지의여부)는 一般的으로는 대개 각종 針刺의 수법 조작(一定한 刺戟 강도를 제어하는 등의 요인)을 통하여 발생한다. 靈樞 久針十二原篇에서 “刺之而氣不至 無間其數 刺之而氣至 乃去之 勿復針”이라 하였다.

導法(도법)

導便이라고도 함. 액체약물을 장중에 관입하거나 혹은 윤활성인 정제를 항문내에 삽입하여 대변을 통하시키는 것. 고대에는 蜜煎導法과 猪膽汁導法이 상용되었다. 지금은 비누를 小指大로 깎아서 항문에 삽입하는 방법도 쓰이고 있다.

導便(도변)

導法의 項參照

刀斧傷(도부상)

「金創」의 項 參照.

倒產(도산)

「難產」의 項 參照.

導引(도인)

古代에 쓰인 保健과 治病方法의 一種이다. 具體的內容에는 後世에 말하는 氣功과 體育療法の 2種類의 形式을 包括한다. 注: 導引에는 몇가지 種類의 解釋이 있다. 1)肢體의 運動이다. 唐代의 王冰은 「素問·異法方宜論」의 注釋에서 말하기를, “導引, 謂搖筋骨, 動支節”이라 하였다. 支節은 四肢關節를 뜻함. 2)自己按摩이다. 「一切經音義」에서 “凡人自摩自捏伸縮手足, 除勞去煩, 名爲導引”이라 하였다. 3)深呼吸의 類이다. 古人은 「吐納」이라 하였다. 清代 張志聰은 「素問·理法方宜論」의 注釋에서 說하기를, “導引者, 擎手而引欠也”라 하였다. 引은 吸氣이고, 欠는 입을 벌리는 呼氣이다. 「擎手而引欠」은 兩手を 높이 들고 深長한 呼吸을 하는 것이다. 4)氣功과 體育療法을 包括함, 「莊子·刻意」의

“此導引之士”의 注에서 “導氣令和, 引體令柔”라 하였다. 「柔」은 “木曲者可直, 直者可曲”이라하여, 肢體動作의 敏捷함을 象徵한 것이다. 이것은, 濁氣를 呼出하고, 淸氣로 吸入해서, 體內的 氣를 和順케하며, 肢體를 運動하여 肢體의 動作을 敏捷케 한다는 것이다. 隋代 巢元方의 「諸病源候論」에는 「養生方」의 導引法 260餘項目이 실려있는데, 그중에는 氣功과 體育療法이 包括되었다. 以上 네가지는 說明中 第 4의 說明이 대체로 全面的이다.

導赤散(도적산)

<火鬱發之>의 項 參照.

導滯通腑(도체통부)

積滯된 것을 疏道시킴을 目的으로 하는 瀉下法을 말함.<寒下>法の (2)를 參照.

搗針(도침)

針刺手法의 하나이다. 그 方法은 針을 皮下에 刺入한 후 고정된 심도에서 針을 上下로 反復해서 도동하는데 皮膚외면으로 拔出하지 않는다

盜汗(도한)

夜間에 잠든 후 自覺하지 않고 汗出하며 잠이 깨면 止汗되는 一種의 症狀을 말함. 대개 陰虛內熱로 인해 怕寒外泄하는 所致이다.

桃花癰(도화선)

吹花癰의 項 參照.

刀量(도훈)

創傷으로 因한, 出血 疼痛 惑은 精神緊張에 의해 생기는 暈厥이다

毒氣(독기)

「戾氣」의 項 參照.

督脈(독맥)

奇經八脈의 하나. 會陰部에서 起始하여 背部의 脊柱正中線을 따라 上向해서 後頸部를 거쳐 頭頂部를 넘어 顔面部의 上齒齦의 正中(以上 모두 正中線을 沿해 分布됨)에 循行過程에서 脊髓 腦 및 諸陽經과 서로 連繫된다. 督脈은 陽經經脈의 總綱이다. 本經에 有病하면, 主로 神志不清, 癲, 狂, 癰病, 項背强直, 角弓反張, 咽喉乾燥, 癰(排尿困難), 痔, 遺尿, 脫肛, 疝氣, 不妊症, 體力衰退 等の 症狀과 病症이 나타난다.

獨蓼湯(독삼탕)

「單行」의 項 參照.

毒藥攻邪(독약공사)

素問 臟氣法時論에 있음 有毒한 藥物을 써서 치병하는 것이다 도괴 의의가 몇가지 있다 1)藥物의 특성을 할망다 예컨대 乾薑은 偏熱하고 黃芩은 扁寒하며 升麻는 승제하고 소자는 강기하는데 그 特性을 利用하여 四氣를 제거하고 精氣를 扶助한다 2)藥物에 副作用이 있음을 말함 예컨대 상산은 재학하는데 嘔吐를 일으키는 副作用이 있다 3)藥物 중에 一部 極毒이 확실히있는 藥으로서 예컨대 경분 등황등이며 그 使用은 嚴格히 하여 中毒을 防止하여야 한다.

獨語(독어)

患者가 精神이 맑은 狀況에서 低聲으로 혼잣말을 소곤거리며, 말하는 相對가 없고, 사람을 보면 도리어 말을 그치는 症狀이다. 虛證에 屬함. 대개 心氣가 虛하고 精이 腎을 養하지 못하는 所致이다. 癡病(히스테리), 老年性精神病 등에서 볼 수 있다.

禿瘡(독창)

白禿瘡 이라고도 함. 頭部에 생기며, 처음에는 白癬가 생겨, 몹시 가렵고, 蔓延되어 片을 이루며, 오래 되면, 髮枯 脫落하여 禿斑이 생기는데, 治癒된 후에는 毛髮이 通常 再生한다. 대개는 不潔한 理髮器具나 或은 빗, 모자 등에서 傳染되어 생긴다. 本病은 白癬의 類이다.

獨取寸口(독취촌구)

三部九候의 項 參照.

燉(돈)

藥材와 補助재를 함께 금속관내에 넣고 밀봉하여 물이 끓는 냄비에 넣고 가열한다 예컨대 주돈한 지황大黃등이다

頓咳(돈해)

「百日咳」의 項 參照.

動脈(동맥)

①脈象의 一種. 脈象이 滑,數하고 有力하여, 指下에 콩알이 튀는 듯한 느낌이 있는데, 搏動部位는 比較的 狹小하고,리듬이 不均等하다. 驚恐이나 疼痛의 病症에서 볼 수 있고, 妊婦에게도 나타난다. ②全身의 經脈의 搏動이 應手되는 곳을 말함.

童便灸(동변구)

灸의 項 參照

同病異治(동병이치)

一般的인 情況下에서는 同病 同證에는 同一한 治法을 쓴다. 그러나 같은 種類의 疾病이라도 病人의 身體的 反應이 다르므로 表現되는 證이 다르면 治法도 달라진다. 例컨대 感冒에 風寒感冒과 風熱感冒 등의 差異가 있어서, 治法에도 辛溫解表와 辛涼解表 등의 區別이 있다.

冬石(동석)

正常脈象의 冬季에 있어서의 變化를 말함. 石은 沈重의 뜻. 冬寒시에는 陽氣가 潛藏되고 皮膚도 緊張되므로, 脈象도 이에 相應하게 약간 沈緊되어, 指力을 세게 按指함으로써 脈이 잡히며, 比較的 有力하다.

瞳神(동신)

『瞳子』, 『水輪』, 『瞳仁』이라고도 함. 解剖學上의 瞳孔部位에 該當하며, 房水(眼房水), 晶狀體(水晶體), 玻璃體(硝子體)등을 包括하는 組織의 合稱.

瞳神乾缺(동신건결)

瞳孔의 正圓狀態가 破損되어, 邊緣이 鋸齒(톱니)狀 或은 梅花狀을 이루는 것을 말함. 通常 ‘凝脂翳’등의 重證의 後遺症이며, 最終的으로 失明하게 되는 水道 있다.

同身寸(동신촌)

鍼灸取穴의 一種의 길이의 標準이며, 모두 患者各自의 體表에 어떤 標識을 써서 測量의 單位로 삼는다. 主로 4種類의 方法이 있다. (1)「中指同身寸」: 患者를 屈指케 하여, 그 中指의 中節 兩側의 橫紋頭의 距離를 1寸으로 삼아 測量을 한다. 이는 臨床에서 가장 많이 應用되는 하나의 方法이다. (2)「拇指同身寸」: 患者의 拇指 末節의 橫紋의 幅을 1寸으로 삼는다. (3)「目橫寸」: 患者의 目內眦角에서 外眦各까지를 1寸으로 삼는다. (4)「夫」: 第2指에서 第5指까지를 合쳐서(즉 4橫指) 그 橫經의 最大幅을 1夫로 한다(夫는 古名이며, 現代의 取穴에 쓰이는 指橫徑單位에 該當함).

瞳神縮小(동신축소)

瞳孔이 伸縮能力을 喪失하여, 날로 縮小되는 것을 말함. 대개는 肝腎이 勞損하여, 虛火가 上炎하거나, 或은 肝經의 風熱이 上攻하기 때문에 일어난다. 重證인 경우는, ‘瞳神乾缺’이되어 視力을 완전히 잃게 된다.

冬溫(동온)

冬季에 異常氣候(冬季는 寒해야 하는데 도리어 溫함)를 感受하여 發生하는 熱性病을 말함. 主要症狀은 처음에 頭痛하고 無汗, 發熱, 微惡寒, 口渴, 鼻乾 혹은 鼻塞流涕하며 咳嗽氣逆하고 혹은 咽乾痰結하며 脈數하고 舌苔가 白色에서 점차 變黃한다. 더 계속되면 汗出하지만 熱不解하고 口渴, 惡熱, 咳脹, 脇脹, 脈滑數, 舌赤苔黃하며 乾燥한 等症을 나타낸다. 그 以後의 傳變은 風溫과 대체로 같다.

冬應中權(동응중권)

[素問,脈要精微論]에 있음. 權은 古代의 重量을 計測하던 器具이다. 冬應中權은 冬季의 脈象이 權具가 下垂되는 것처럼, 약간 沈伏함을 表現한 것임.

東醫(동의)

韓國 越南등에서 漢醫를 東醫라 한다. 17世紀初에 韓國에서 出版된 대저 東醫寶鑑이 있다.

瞳仁(동인)

『瞳神』의 項 參照.

瞳子(동자)

『瞳神』의 項 參照.

瞳子高(동자고)

瞳子是 瞳孔을 말함. 瞳孔이 上視함을 말하며, 太陽經의 經氣가 不足하기 때문이다. 더 進行되면 「戴眼」이 出現한다. 이는 一種의 腦神經症狀이다.

凍瘡(동창)

冷凍을 當하므로, 局部의 血脈이 凝滯되어 생기는 皮膚의 損傷이다. 手足이나 耳角 等の 露出部圍에 多發된다. 患部가 처음에는 蒼白해지고, 漸次 紫紅色의 斑片을 이루어, 灼痛, 瘙痒, 麻木(저림)을 自覺하며, 輕症은 10여일 지나면 消散되고, 重證은 潰爛 成瘡하여 좀처럼 癒合되지 않는다.

頭角(두각)

『額角』의 項 參照.

頭顱(두로)

『頭顱骨』의 項 參照.

頭顱骨(두로골)

顱蓋라고도 함. ①解剖學上的 頂骨. ②頭部の 腦髓를 覆蓋包圍한 骨格部分이며 頭顱라고 略稱함. 주로 左右의 頂骨과 額骨(前頭骨)의 일부분, 枕骨(後頭部)의 一部分으로 構成됨. 頭蓋骨을 말함.

抖法(두법)

按摩나 傷科에서 筋肉을 調整하는 手法의 一種이다. 손(兩手 或은 한손)으로, 負傷된 關節의 遠端을 단단히 잡고, 外向으로 펼 때, 突然 上下前後로 振動시키는 方法이다. 活動의 幅은, 生理的으로 許容되는 範圍내에서 進行해야 한다. 腰部와 肩部에 常用한

다.

頭軟(두연)

「五軟」의 項 參照.

頭搖(두요)

頭部를 搖動 顫動하는 一種의 症狀이다. 病因로는 各異한 것이 있다. 膽火의 內鬱로 惹起되는 肝風에 起因한 境遇는 突然頭搖하고 目眩耳聾하며 頸項強痛等症을 나타낸다. 揚名實熱로 惹起되는 肝風에 起因한 境遇는 高熱面赤, 腹痛便秘, 胸悶煩躁等症을 나타낸다. 老人의 肝腎不足이나 病後의 氣血虛弱, 虛風의 內動에 起因한 境遇는 頭部가 通常 不時에 搖動하며 대개 其他 虛弱症狀을 隨伴한다. 이 밖에 小兒가 急驚風을 發作하기 前에도 頭搖가 出現하는데 이는 肝風內動의 前兆이다.

痘衣法(두의법)

人痘接種法의 項 參照

痘漿法(두장법)

人痘接種法의 項 參照

頭重(두중)

頭部에 重墜함을 自覺하는 症狀이며 頭部를 包帶로 싸매는 듯한 感を 느낀다. 대개 濕邪를 外感하거나 或은 濕痰이 內阻한 所致이다. 素問·生氣通天論에서 “因于濕 首如裹…”라 하였다. 濕邪를 外感한 境遇는 表證이 있으며 頭重하고 頸項이 痠痛한다. 濕痰이 內阻한 境遇는 表證이 없고 頭重하며 眩暈하고 惡心하며 胸脘이 痞悶하고 胃納呆滯(胃弱不消化)하며 四肢이 困倦하다. 이밖에 氣血이 虛弱하거나 或은 陽明經의 實熱證인 境遇에도 頭重이 나타나는데 前者는 虛弱症狀이 主가되고 後者는 火熱症狀이 主가 된다.

痘瘡(두창)

古病名이다. 皮疹의 形態에서 命名한 것임. 現在病名の 天然痘이다.

頭針療法(두침료법)

頭部の 大腦皮질 機能정위의 皮膚투사구를 利用하여 針즈를 하는 治療方法이면 運動자 격구 감각刺戟구등 10개의 刺戟구를 채용하여 針刺를 한다 神經○계통의 일부 疾病을 治療하는데 利用된다.

頭痛(두통)

常見되는 症狀의 하나이다. 病因의 주된 것으로는 風, 熱, 濕, 痰, 氣虛, 血虛等의 數種

類가 있다. 風에 屬하는 境遇는 頭目眩暈, 惡風, 汗出한다. 熱에 屬한 境遇는 頭重如裹, 身熱不揚, 四肢痠倦하다. 痰에 屬한 境遇는 頭目眩暈, 惡心, 欲吐한다. 氣虛에 屬한 境遇는 綿綿作痛하고 疲勞하면 加重되며 倦怠氣短 한다. 血虛에 屬한 境遇는 額上이 疼痛하고 午後에 痛甚하며 언제나 心悸, 怔忡, 眩暈을 併發한다. 頭痛一證은 “大抵風則抽掣 寒則拘急(抽掣拘急은 頭痛의 性質을 形容한 것임) 熱則煩心 濕則頭重 痰則欲吐”(秋田散人 醫學說約) 이는 一般的으로 常見되는 頭痛의 病因辨證이다. 이밖에도 肝厥頭痛, 瘀血頭痛, 偏頭痛, 腦頭風等이 있다. 詳細한 것은 各項을 參照.

頭痛眩暈 面紅痛面赤 口苦 躁急易怒 舌邊尖紅 苔黃 脈弦數有力 等이며, 重症이면 發狂或 嘔血 咯血 等を 나타내게 된다.

頭風(두풍)

頭痛이 日久不愈하여 時發時止하고 甚한 境遇는 一觸即發하는 病證을 말함. 風寒이 頭部經絡에 侵入하거나 或은 痰涎이 風化해서 經絡을 鬱遏하므로 頭部가 眼睛에까지 미치고 甚하면 目昏하여 눈을 뜰수 없게 되며 머리를 쳐들수 없고 頭皮가 麻木되며 어떤 患者는 眼症狀을 兼發하기도 한다.

臀(둔)

腰部(腫)의 下方, 骶骨部(尻)의 兩側에 있으며, 大臀筋의 部位에 該當함.

得氣(득기)

針法의 述語이다(素問 이합진사론에 있음 靈樞 九針십이원편에 있는 기자와 동의이다.) 즉 針감(혹은 沈香)이다 穴位에 針刺한 후 수법의 조작을 통하여 혹은 比較的 장시간 유針함으로써 病인이 산 마 창 중등의 감각을 느끼게 되고 施術자가 針하에 심긴함을 느끼게 되는 것을 득기라 칭한다. 이러한 針감이 생기는 정도와 그 지속시간의 장단은 왕왕治療效果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 특별히 진통效果의 양부와 유관하다. 득기의 여부는 針刺마취성공의 하나의 관건적문제이기도 하다.

得神(득신)

心氣가 있음을 말함. 神은 生命活動 現象의 總稱이다. 腎의 存亡을 審察함은 精氣盛衰, 疾病의 輕重과 豫後의 吉凶을 判斷하는 重要內容이 된다. 例컨대 精神이 充滿하고 眼光이 빛나며 言語가 明瞭하고 面色이 潤澤하며 氣息이 平順한 等を 得神이라 할 수 있다. 得神이면 비록 疾病이 있더라도 比較的 쉽게 治病되고 豫後도 比較的 良好하다. 故로 得神者昌(素問移精變氣論)의 設이 있다. 그러므로 得神의 意義를 精神正常으로 局限해서 理解해서는 안된다.

得神者昌(득신자창)

得神의 項 參照.

等分(등분)

등은 같다는 뜻이고 분은 분량을 말함 등분은 방제중의 매개藥物의 용량이 같은 것이다

루(泪)爲肝液(누위간액) 『五臟化液』의 項 參照.

馬刀(마도)

馬刀俠癭의 項 參照.

馬刀瘡(마도창)

馬刀俠癭의 項 參照.

馬刀俠癭(마도협영)

靈樞經脈編에 있음. 本症은 곧 瘰癧이다. 그것이, 腋下에 생겨서, 形狀이 馬刀와 같으므로 馬刀라 命名하였으며, 馬刀瘡이라고도 함. 頸傍에 생겨, 貫珠(念珠)와 같은 것을 俠癭이라 이름한다. 兩處의 病變이 항상 서로 關連되며, 頸部 腋部の 結核性淋巴腺炎이다.

馬牙(마아)

대개는 胎內에서 熱毒에 感受된 所致이다. 그 症狀은, 初生兒의 齒齦에 白色小泡가 생겨서, 軟骨과 같은 狀態가 되어, 젓을 빠는 데 障礙가 된다.

麻仁丸(마인환)

<清腸潤燥>의 項 參照.

麻疹(마진)

俗稱「痧子」라 함. 小兒에게 常見되는 一種의 傳染病이며, 이는 時邪 癘毒을 感受함으로써 惹起되며, 病毒이 주로 肺胃를 侵犯한다. 처음에 먼저 肺衛의 風熱症狀이 나타나며, 咳嗽, 眼結膜紅赤, 畏光(羞明), 눈물이 넘치는 것이 特徵이다. 皮疹이 出現할 때, 疹點이 먼저 耳後의 髮際와 頸部에서 出現하여, 漸次 顔面과 全身으로 퍼지는데, 疹點과 疹點사이에 정상적인 皮膚가 보이는 것이 特徵이다.

麻促脈(마촉맥)

十怪脈의 一種. 脈搏이 急促하고 混亂하다.

麻風(마풍)

以毒攻毒의 項參照

麻杏石甘湯(마행석감탕)

[發表不遠熱]의 項 參照.

麻黃附子細辛湯(마황부자세신탕)

兼方の 項 參照

麻黃湯(마황탕)

經劑의 項 參照

膜原(막원)

「募原」의 項 參照.

慢驚風(만경풍)

慢性으로 發作하며, 面色이 淡白 或은 青色이고, 神倦嗜睡하며, 緩慢한 抽搐(痙攣)을 되풀이하고, 腹部가 陷凹되며, 呼吸이 微緩한 것 등을 主證으로 하므로 이렇게 이른다. 發病原因은, 或 嘔吐나 泄瀉後에 惹起되기도 하고, 或은 急驚風에서 轉變되기도 한다. 吐瀉로 因해 惹起된 경우는, 大개 凶門(숫구멍)과 目眶(눈두덩)이 低陷되고, 肌肉이 弛緩되며, 便秘 尿少하고, 口鼻의 氣가 冷하며, 甚하면 睡眠中에도 눈을 뜨고, 肢冷하며, 脈細無力하다. 急驚風에서 轉變된 경우는, 便秘하고, 小便失禁하며, 或은 尿閉가 되고, 汗出이 淋漓하며, 舌紅苔少하고, 邪氣가 盛하며, 兩眼이 빛을 두려워하고(畏光), 強直痙攣하며, 甚하면 言語錯亂하고, 舌紅, 苔濁膩 등을 發한다. 慢驚風에는 重病의 後期에 나타나는 多種의 驚厥을 包括하며, 例컨대 結核性腦膜炎 등이다.

晚發(만발)

伏氣溫病의 別稱이다. 春季, 秋季의 末期에 發生하는 裏熱症候가 比較的 重한 溫熱病을 말함. 단 晚發이란 用語를 지금은 그다지 쓰지 않는다.

彎針(만침)

針法操作시의 異常情況이다,. 즉 針을 體내에 刺入한 후 針체에 만곡현상이 생기는 것이다 大개는 外계의 刺戟으로 인해 病인의 근육이 攣攣 수축하거나 體位를 이동하기 때문이면 혹은 手법조작의 失當등으로 인해 야기되기도 한다. 處理方法은 먼저 가볍게 움직여서 본래의 體位로 회복시켜 針의 만곡각도와 方向에 따라 順리로 서서히 拔出하되 絶대로 힘을 주어 억지로 拔出하거나 捻轉해서는 안된다, 針이 부러질 憂慮가 있기 때문이다.

慢火(만화)

文火의 項 參照

亡陽(망진)

大汗不止, 或은 吐瀉過極, 或은 其他原因으로 陽氣를 耗傷함으로 因해 陽氣가 突然 衰竭하여, 大汗이 淋漓하며, 汗出이 구슬같고 微粘하며, 外寒하고, 手足冷, 呼吸微弱, 面色蒼白, 口不渴, 或渴喜熱飲, 脣舌淡潤하며, 甚하면 口脣이 青紫色을 띠고 脈微欲絶 或은 浮數而空 等이 나타나는데, 쇼크現象과 類似하다. 亡陽은 대개 亡陰이 더 進展한 것이며, 陰液이 過度하게 虧損되면, 그에 따라 陽氣도 亡脫된다. 이러한 同一疾病의 두개 段階에서는 特別히 辨證에 注意해야 한다.

網油(망유) 「三焦」의

項 參照

亡陰(망음)

高熱, 出汗過多, 大量吐瀉 等으로, 陰液을 耗傷함으로 因해 나타나는 一種의 病理反應이다. 主要表現은, 身熱, 汗多, 煩躁不安, 口渴而喜冷飲, 呼吸氣粗, 四肢溫暖, 脣舌乾紅, 脈虛數 等이다.

望診(망진)

四診의 一種이다. 이는 視覺을 運用하여, 病者의 神色, 形態, 舌象, 大小便과 其他배설물 等を 觀察하는 方法이며, 小兒에 대해서는 指紋을 診하는 것도 包括된다.

亡津液(망진액)

[傷津]의 項 參照.

望齒(망치)

望診內容의 하나. 齒牙와 齒痕의 兩部分을 包括한다. 前者는 主로 齒牙의 萌出, 乳齒의 更換 및 脫落의 狀況, 露出部分(齒冠, 齒頸)의 色澤 潤濕도 및 弛緩이나 動搖與否, 齲齒乳無, 齒槽膿漏 및 異常臭의 有無 等を 觀察한다. 後者는 主로 齒痕의 形象, 色澤 및 充盈度의 變化, 出血 血瘀의 有無等を [腎主骨]하고, 髓를 生하며, [齒爲骨之餘]이고, 胃의 經脈이 齒齦로 연락된다. 그러므로 望齒는 主로 腎과 胃의 病變을 살피는 것이다.

亡血(망혈)

吐血, 衄血, 便血, 尿血 等の 出血證의 總稱이다.

亡血家(망혈가)

平素, 嘔血・衄血・尿血・便血・崩漏 및 金瘡 等 失血性疾患을 앓은 病因을 말함. 張仲景은 『傷寒論』에서, 이러한 類의 病因은 體內的 陰津이 본래 虧損되었으므로, 發汗시킬 수 없으며, 만약 發汗시키면 病人이 怕冷寒戰의 病象을 惹起한다고 하였다.

望形態(망형태)

望診內容의 하나이다. [形]은 體形을 말하며, 肌肉,骨格,皮膚 등을 包括한다. [態]는 動態이며, 體位,姿態,活動能力 등을 包括한다. 望形態에서 病者의 體質,發育 및 營養狀況을 알 수 있으며, 아울러 氣血의 盛衰, 邪正을 消長, 傷痛의 部位등을 아는데 도움이 된다.

梅核氣(매핵기)

本證은 情志가 鬱結하고, 肝氣에 痰이 섞이기 때문이다. 本證은 咽喉가 不紅不腫한데 咽中에 梅核大의 異物이 걸린듯한 自覺症이 있어서 吐出할 水道 없고 삼켜도 내려가지 않는다. 本病은 [瘰癧](히스테리球)에 該當한다.

梅花針(매화침)

皮膚針의 項 參照

脈(맥)

<五不女>의 項 參照.

脈(맥)

맥관을 뜻함. 맥관은 .심과 상연하며 혈액운행의 통로이다. 맥관과 심장 그리고 기타장기와의 관계는 주로 영양의 수송과 기혈순환의 연계로 표현된다.

脈口(맥구)

寸口의 項 參照.

脈度(맥도)

經脈의 長短의 度數를 말함. 古人이 人體의 經脈의 길이를 測定한 一種의 데이터(data)이다.

脈無胃氣(맥무위기)

脈象에 從容 和緩과 正常的 리듬이 喪失되어, 弦勁하고 팽팽하여 手指에 堅強하게 느껴지거나 虛浮無力하며, 混亂 不均 등을 나타내면, 胃氣가 곧 끊어지려 하고, 五臟의 眞氣가 露顯되어 生命이 危?함을 表示한다. 例컨대 肝臟의 眞氣가 露顯되면, 脈象이 弦勁하여 칼날을 만지는 것 같은데, 이를 但弦無胃라 한다. 또한 脾臟의 眞氣가 露顯되면, 脈象의 間歇이 玉漏수가 방울져 滴下하듯이 사이가 뜨게 되는데, 이를 但代無胃라 한다. 이들은 모두 眞臟脈에 屬한다. 眞臟脈의 項 參照.

脈痺(맥비)

素問·痺論에 있음. 이는 血脈의 症狀을 爲主로 하는 痺症이다. 臨床表現은 不規則한 發熱이 있고 肌膚에 灼熱感이 있으며 疼痛하고 皮膚에 紅斑이 나타나기도 한다. 대개는 血虛하고 風寒濕의 邪氣가 血脈에 留滯한 所致이다.

脈象(맥상)

指端에 느껴지는 脈動의 形象을 말함. 脈搏數, 脈搏의 리듬, 充盈度, 搏動의 情況, 脈勢의 和緩, 破動의 幅 등을 包括한다. 이들 徵象에 의해 脈象을 數十種으로 나눌 수 있는데, 常用되는 것으로 二十八脈이 있다. 臨床上 往往 二種以上の 綜合된 脈象, 例컨대 浮數, 沈細지 등이 있다. 脈象이 辨證에 있어서 主要한 根據의 하나가 되지만, 반드시 其他의 診法과 結合시켜 全面分析을 해야 한다.

脈象主病(맥상주병)

어떤 脈象이 主로 나타내는 病症을 말함. 例컨대, 浮液은 主로 表證과 關聯이 있고, 數脈은 主로 熱病과 關聯이 있으며, 滑脈은 主로 痰飲, 食滯, 實熱 或은 妊娠 등과 關聯이 있다.

脈逆四時(맥역사시)

人體가 四時氣候의 變化에 適應하지 못함으로써 脈象이 四時氣候의 改變에 相應하게 變化하지 못하는 病理現象을 말함. 그 表現에는 通常 두가지 면이 있다. ①四時의 脈象의 太過, 不及, 或은 相反으로서, 例컨대, 春夏脈에 浮洪이 그다지 나타나지 않고, 도리어 沈00000하며, 秋冬脈에 沈實이 그다지 나타나지 않고, 도리어 浮洪한 等이다. ②身體의 各部의 脈搏의 變化가 正常이 아닌 것으로, 例컨대, 春夏의 人迎脈은 有餘해야 하는데 도리어 不足하고, 寸口脈은 不足해야 하는데 도리어 有餘하며, 秋冬의 人迎脈은 不足해야 하는데 도리어 有餘하고, 寸口脈은 有餘해야 하는데 도리어 不足한 現象을 나타내는 等이다. 그러나 이 變化는 診斷上 현재 그다지 고려 應用되지 않고 있다.

脈痿(맥위)

素問·痿論에 있음. 痿證의 하나이다. 症狀은 下肢의 肌肉이 萎縮無力하여 頸部가 軟弱해서 서있을수 없고 膝踝의 關節을 屈伸할수 없는 等이다. 心氣熱에 의해 氣血이 上走해서 下部의 血脈을 空虛케하며 或은 失血過多로 인해 經脈이 空虛해져서 肌肉을 麻痺케 하며 더 進行되면 本病이 發生한다.

脈陰陽俱緊(음양구부긴)

傷寒論에서 나온 말. 寸部와 尺部の 脈이 함께 緊傷을 나타내는 것을 말함. 寸脈은 臟에 屬하고, 尺脈은 陰에 屬하며, 陽部の 脈이 俱緊함은 部緊의 脈이다. 外感의 寒邪에서 나타나며, 腠理가 密하여 無汗하고, 表氣가 닫혀서 宣通하지 못하는 것은 表實의 見證이다.

脈陰兩俱浮(매음양구부)

傷寒論에서 나온말. 寸部와 尺部の 脈이 함께 浮象을 나타내는 것을 말함. 寸脈은 臟에 屬하고, 尺脈은 陰에 屬하며, 兩部の 脈이 俱浮함은 浮洪의 脈이다. 風溫病의 外熱이 이미 盛한데, 辛溫發汗劑를 誤用해서 津液이 受傷하여, 熱邪이 內外에 充滿한 境遇에

나타난다.

脈應四時(맥응사시)

脈合四時の 項 參照.

脈靜(맥정)

脈搏이 和緩 平靜함을 말하며, 脈躁와 相對되는 말이다. 痰病이 好轉되거나 或은 惡化하지 않음을 表示한다. 例컨대, 患者에게 비록 太陽病의 發熱 惡寒 身痛 等 證이 있더라도 脈搏이 여전히 和緩 平靜하고, 弦數하지 않으면, 病邪이 輕하여 深入發展하지 않음을 말해준다.

脈躁(맥조)

疾病의 過程에서 脈象이 原來에 比하여 急數 躁動해지는 것을 말함. 一般的으로 邪氣가 內轉하여 病情이 壞의 方向으로 發展함을 表示함.

脈證合參(맥증합참)

辨證의 過程에서, 脈象과 證候를 相互 參照하여 分析綜合함으로써 病情을 推斷하는 方法이다. 一般的으로 脈象과 證候가 一致되는 것이 順證이고, 脈과 證이 相反되는 것이 逆證이다. 例컨대 外感證(陽證)에 浮脈(陽脈)이 나타나고, 脾虛證(陰證)에 緩弱한 脈(陰脈)이 나타나는 等은 脈과 證이 一致한 것으로 이들 境遇는 辨證論치도 比較的 간단하며, 豫後도 比較的 좋다. 그런데 外感證에 細脈(陰脈)이 나타나는 것은 脈과 證이 相逆되는 것으로, 表實裏虛를 말해주며, 이는 邪氣가 盛하고 正氣가 不足한 것으로, 病理上 錯綜複雜한 것이고, 豫後도 相對적으로 좋지 않다. 脈象과 證候가 相逆되고, 病理變化가 錯雜한 情況하에서는, 辨證에 있어서 반드시 現象을 看破하여 本質을 看破함으로써 治療上의 表本 緩急을 確定해야 한다. 故로 臨床上 언제나 捨證從脈과 捨脈 從證의 境遇가 있다.

脈診(맥진)

脈象을 診察하는 方法이다. [切脈], [按脈], [持脈]이라고도 함. 檢査者는 食,中,無名의 三指 指端으로 被檢者의 橈動脈의 寸口部를 按壓하여 脈象의 變化를 探查한다.

脈暴出(맥폭출)

微細하여 끊어지려던 脈이, 突然히 暴으로되는 것으로, 이는 陰陽離決의 現象이며, 病情이 危重할때 나타난다.

脈合四時(맥합사시)

脈象이 四時의 氣候에 따라 相應하게 變化하는 生理現象이며, 脈應四時라고도 한다. 人體는 春溫, 夏熱, 秋涼, 冬寒 四時의 氣候變化의 影響을 받아, 脈象에도 春弦, 夏洪, 秋毛 冬石의 相應하는 變化가 있다. 즉, 春夏에는 經動脈의 人迎脈이 약간 強하고, 寸口

脈이 약간 弱하다. 秋冬에는 人迎脈이 약간 弱하고, 寸口脈이 약간 强하다. 그러므로, 脈診시에는 人迎脈과 寸口脈의 正常範圍內的 變化와 四時氣候를 結合시켜 고려해야 한다. 단, 後者는 현재 診斷上 그다지 應用되지 않고 있다.

脈懸絶(맥현절)

正常脈에 比하여 差異가 현저한 脈象을 말함. 例컨대 正常脈에 比하여 3-4倍 빠르거나 或은 正常脈의 半이나 그 以下로 되는 것을 모두 脈懸絶이라 한다. 病重과 關聯이 있다.

脈會(맥회)

「八會穴」의 項 參照.

猛疽(맹저)

<結喉癰>이라고도 함. 대개, 肺, 肝에 熱邪가 滯留하여, 邪毒, 痰火가 咽喉部로 上衝하기 때문에 생긴다. 癰疽가 咽喉部에 생겨, 腫脹하며, 激痛하고, 뜨거운 음식물을 삼키기 어려우며, 呼吸이 困難하고, 寒熱이 甚해진다. 이 疾病에는 急性會厭炎, 咽喉壁膿腫, 喉頭水腫이 含有된다. 治療는, 解毒하고, 痰火를 瀉하며, 消腫시켜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黃連解毒湯을 加減法으로 쓰든지, 칼이나 鍼으로 腫處를 刺破하여, 排膿後, 永礬散을 바른다.

面垢(면구)

一見해서 顔面에 污垢가 있는 것 같은데, 洗淨할 수 없는 것을 말하며, 外感의 暑邪 或은 體內에 積滯가 있는 등의 病症에서 나타난다.

面色緣緣正赤(면색연연정적)

[傷寒論]에 있는 말. 顔面全體가 紅色이며, 有別나게 兩0000顴이 麗艷한 軟紅色을 띤 것을 形容한 것이며, 急性熱病이나 熱邪가 熾盛한 境遇에 볼 수 있다.

面王(면왕)

鼻準의 項 參照.

面疔(면정)

疔瘡疾患의 하나이다. 面部에 생기므로 이렇게 이름한다. 대개 關, 額, 頰 등처에 생긴다. 熱毒이 축결된 所致이다. 손으로 세게 짜서는 안된다. 그러면 陰證으로 변하기 쉽기 때문이다. <疔瘡>의 項 參照.

面塵(면진)

[素問, 至眞要大論], [六元正大論] 등에 있음. 面色이 灰塵을 입힌 것처럼 暗灰色을 나타내는 것을 말함. 實證과 虛證이 있다. 實證은, 대개 燥邪에 所傷되거나 或은 伏邪가 內

鬱하기 때문이며, 通常 口苦 咽乾 等の 症狀을 隨伴한다. 虛證은, 대개 久病으로, 肝腎이 陰虛하기 때문이며, 通常 頭暈耳鳴, 五心煩熱, 腰痠,遺精 等の 症狀을 隨伴한다.

名,字,甫(명,자,보)

「名」은 正名을 말함. 例컨대 張機의 機는 正名이며 仲景의 「字」이다.後世의 「甫」字는 實際로는 역시 「字」이다. 例컨대 「周學海·澂之甫」는 「周學海」. 字는 「澂之」라는 뜻이다.

命關(명관)

透關射甲의 項 參照.

明堂(명당)

①鼻의 別名. ②古代의 人體經穴圖를 明堂圖 혹은 明堂孔穴圖라 하였음.

明堂孔穴圖(명당공혈도)

明堂의 項 參照.

明堂圖(명당도)

明堂의 項 參照.

命門(명문)

生命의 門이란 뜻을 含有함. 命門은 人體生命의 根本으로서 生命을 維持하는 要素이다. 命門學說은 臟腑學說의 組成부분이다. 五臟중의 거의가 單一臟腑인데 腎만은 두 개가 있으며 古代學說은 흔히 「難經」의 “左者爲腎右者爲命門”이란 說을 推獎하였다. 그런데 실제로는 兩腎이 外形에서 組織構造에 이르기까지 差異가 없다. 故로 虞搏의 「醫學正傳」은 이 說에 反對하여 右腎만을 命門이라 할 수 없다하여, 兩腎을 命門으로 總稱할 것을 主張하였다. 一說은 命門穴이 第14椎下の 陷凹中에 位置함을 根據로하여 命門이 兩腎 사이에 있으며, 具體的으로 「腎間動氣」(兩腎間에서 생기는 人體의 動力의 來源을 말함)로 體觀되는 것으로 認識하는데, 이것도 命門의 火이다. 腎은 「水臟」이므로, 이는 水中의 火이며, 先天的인 眞元이다. 이 氣는 下에서 上으로 올라가서 後天的인 胃氣와 相接함으로써 生命을 持續하게 된다. 命門의 作用을 概括해서 말하면 ① 命門은 元氣의 根本이며 人體의 熱에너지를 生産하는 發源地이다. ② 三焦의 氣化를 돕는다. ③ 命門의 火에는 脾胃를 煖하게하여 食物의 消化를 돕는 作用이 있다. ④ 人體의 性機能 및 生殖系統과 密接한 聯關이 있어서 命門火(相火에 屬함)가 不足하거나 偏亢하면 病態를 惹起한다. ⑤ 納氣作用이 있어서 呼吸系統의 機能과 密接한 關係가 있다.

命門之火(명문지화)

「腎」의 項 參照

命門火衰(명문 화쇠)

「腎陽虛」의 項 參照.

命門火旺(명문 화왕)

腎은 元陰과 元陽을 藏하는데, 元陰은 腎精을 指稱하고, 元陽은 命門火를 指稱한다. 腎陰이 虧損하여 命門火가 偏旺하면, 性機能亢進, 陰莖易舉, 多夢失眠 등이 나타난다. 「相火妄動」의 項 參照.

暝眩(명현)

本來는 頭昏目眩하여 눈을 뜨지 못하는 症狀을 말하는 것인데 古書에서 往往 暝眩과 藥物反應을 連繫시키고 있다.(尙書·設命篇上에서 “若不暝眩 厥疾弗廖”), 즉 服藥後에 惡心 頭眩 胸悶等の 反應이 出現하는 것을 暝眩이라 한다.

冒家(모가)

平素 頭目眩暈症이 있는 사람을 말함.

母氣(모기)

五行의 相生關係중 「生我」하는 것이 母氣이다. 例:木은 火를 生하므로, 木이 火의 「母氣」이다.

牡蠣散(모려산)

「澀劑」의 項 參照.

牡蠣散(모려산)

斂汗固表의 項參照.

摸法(모법)

傷科에서의 觸診方法의 하나이다. 이는 損傷疾病을 診斷하는 一種의 主要手法이다. 손으로, 肢體의 負傷部位와 그 周圍의 狀態를 자세히 促進(觸摸)檢査하여, 促進을 通해, 骨折 或은 脫臼의 有無를 發見하고, 骨折의 類型을 辨別함으로써 治療를 進行하는 根據로 삼는다.

母病及子(모병급자)

五行論으로 五臟間의 相生의 母子關係를 說明하는 가운데, 母病이 子에 미치는 것을 말함. 例:木生火로서, 肝木은 母이고 心火는 子인데 肝陽上亢이 一定한 程度까지 發展하면 心火를 亢盛케 하여 發病하게 된다.

冒暑(모서)

①一般的인 傷暑症을 말함. ②暑邪를 感受한 후 邪氣가 腸胃를 阻碍하여 惡寒發熱, 心煩, 口渴, 腹痛水瀉, 小便短赤, 惡心嘔吐, 頭重眩暈等症을 나타낸다.

募原〔膜原〕(모원〔막원〕)

①「素問·舉痛論」에서 “寒氣客于腸胃之間, 膜原之下,……”라 했는데, 王冰注에는 “膜 謂膈間之膜, 原 謂鬲肱之原”이라 했다. 이는 胸膜과 膈筋의 사이 部位를 말함. ②吳又可의 「溫疫論」에서 “邪自口鼻而入 則其所客 內不在臟腑 外不在經絡 舍于伏膺之內 去表不遠 附近于胃 乃表裏之分界 是爲半表半裏. ……凡邪在經爲表 在胃爲裏今邪在募原者 正當經 胃交關之所 故爲半表裏”라 하였다. 景日//의 「嵩崖尊生書」에서는 “原者 廣野之意, 在臟腑之外 與胃相近……”이라 하였다.

牡臟(모장)

五臟中 陽에 屬하는 것을 牡臟이라 함. 心에는 君火가 있고, 肝에는 相火가 있어서 모두 陽에 屬하므로 心·肝二臟을 牡臟이라 함(靈樞·順氣一日分爲四時篇에 있음).

毛折(모절)

毛髮이 枯槁하여 稀疏해지고 切斷되는 情況을 말함. 대개 久病으로 精氣가 枯渴되는 狀態에서 皮毛를 濡潤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毛際(모제)

男性 或은 女性의 外生殖器上方의 陰毛가 있는 部位.

募穴(모혈)

胸腹部의 體表에 있는, 臟腑의 生理 病理의 反應과 密接한 關係가 있는 反應點(穴位)을 말함. 이들은 모두 臟腑의 經氣가 모이는 곳이다. 肺募—中府穴 膽募—日月穴 心募—巨闕穴 胃募—中脘穴 肝募—期門穴 大腸募—天樞穴 脾募—章門穴 小腸募—關元穴 腎募—京門穴 三焦募—石門穴 心包募—臈中穴(一說 天池穴) 膀胱募—中極穴

母癍(모후)

疣의 項 參照.

目(목)

五臟의 정기가 목으로 상주해야만 일광이 유신하고, 정상시각기능을 충분히 발휘한다. 「소문·五臟생성편」에서 “간수혈이능시”라 하였고 「소문·금궤진언론」에서는 “개규우목, 장정우간”이라하여 안의 생리기능이 五臟의 정기, 간혈의 조절과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설하였다.

目系(목계)

안구내의 뇌에 연하는 맥락을 말하며 수소음심경이 여기 연계되어 있다.

目裹(目窠)(목과)

胞臉의 項 參照.

目眶骨(목광골)

目眶이라고도 함. 眼窩周圍의 骨骼. 그중 眼窩上方의 것을 眉稜骨이라 하고, 眼窩下方의 것을 顴骨이라고도 함.

木克土(목극토)

① 五行中 5種類의 相克關係의 하나. ② 五行學說의 觀點에 依하면 相克은 本來 正常 範圍內의 制約에 屬하는데, 近來는 「木克土」와 「木乘土」를 混同하며, 그 處를 「肝氣犯脾」, 「肝氣犯胃」와 같은 것으로 보는 習慣이 있다.

鶩瀉(목당)

寒瀉를 말함. 「鴨瀉」혹은「鶩泄」이라고도 함. 瀉下하는 大便에 水와 糞이 相雜되고, 色이 靑黑色으로 鴨糞과 같음을 形容한 것이며, 小便이 淸하고, 脈이 沈遲하다. 이는 寒濕의 證에 屬하며, 脾氣가 虛하고, 大腸이 寒한 所致이다. 만약 瀉下한 大便이 다만 淸稀 垢穢한 糞便이라면 「瀉泄」혹은「泄痢」라 한다.

目網(목망)

目眩의 項 參照.

目瞑(목명)

「瞑」은 合目 혹은 寐의 뜻. 「目瞑」은 눈을 감고 뜨려고 하지 않는것을 말함. 대개 發熱하며 心煩하고, 眩暈할 때, 患者가 눈을 감고 一時 安靜을 求하고자 하는 狀態에서 볼 수있다.

目上網(목상망)

目眩의 項 參照.

目上胞(목상포)

胞臉의 項 參照.

目上眩(목상현)

目眩의 項 參照.

鶩泄(목설)

「鶩瀉」의 項 參照.

木舌(목설)

舌이 滿口로 腫脹하여 堅硬해서 轉動不能한 것. 대개 心火의 過盛, 或은 心脾의 積熱, 火熱의 上衝에 起因한다.

目銳眦(목예자)

「銳眦」의 項 參照.

目疣(목우)

[眼胞痰核]의 項 參照.

木鬱達之(목울달지)

<素問. 六元正紀大論>에 있음. [木鬱]은 肝氣가 鬱結하여 治病함을 말하고, [達]은, 暢達케 함을 뜻함, 例컨데, 肝氣가 鬱結하여, 兩脇이 脹痛 或은 竅痛하고, 胸悶不舒하며, 酸水を 嘔吐하고, 食慾不振하며, 腹痛腹瀉할 경우에는 <疏肝>法을 써서 治療해야한다.

木鬱化風(목울화풍)

五行의 歸類에서 肝은 風을 주관하고 木에 속하며 木鬱은 곧 肝鬱이다. 肝鬱로인해 肝血의 虧損을 일으키고 혹은 평소 血虧해서 肝風증상이 출현하므로 이렇게 말한다. 臨床上으로는 眩暈 舌麻 振顫 痙厥등증을發한다.

木鬱化火(목울화화)

五行의 歸類에서 肝은 木에 속하며 木鬱은 곧 肝鬱이다. 肝鬱로 인해 肝陰虧損을 야기하며 혹은 평소 內熱이 있어서 肝火증상이 출현하므로 이렇게 稱한다. 臨床上으로는 頭痛 眩暈 面赤 嘔血 咳血등이 있고 심하면 發狂등증을發한다.

目中不了了(목중불요료)

「傷寒論」에 있음. 「了了」은 뚜렷하고 分明하다는 뜻. 「目中不了了」은 物體를 볼 때, 模糊하고 不分明함을 形容한 것이며, 이는 陽明腑의 熱이 過盛하므로 津液이 損傷되어, 邪熱이 上蒸해서 일어나는 症狀이다.

目胞(목포)

胞瞼의 項 參照.

目下網(목하망)

目眩의 項 參照.

目下有臥蠅(목하유와잠)

[金匱要略, 水氣病脈證并治]에 있음. 眼瞼浮腫을 形容한 것으로, 下眼瞼이 臥蠅의 形態와 같다는 것이다. 腎炎病因에서 多見된다.

目下胞(목하포)
胞臉의 項 參照.

目下眇(목하현)
目眇의 項 參照.

目眇(목현)
眼眇, 目網이라고도 함. 上下眼臉의 邊緣部이며, 여기에 睫毛가 着生함. 目上網, 目下網, 目上眇, 目下眇이라고도 함.

目眇(목현)
眇暈의 項 參照.

木火刑金(목화형금)
木火는 肝火를 金은 肺를 뜻함. 肝火가 過亢하면 肺金을 耗傷하여 肺病이 가중되고 乾咳 胸脇疼痛 心煩 口苦 目赤하고 심하면 咯血등증을 發한다.

目橫寸(목횡촌)
「同身寸」의 項 參照.

木喜條達(목희조달)
「木」은 肝의 代名詞이고, 「條達」은 調和 暢達을 뜻함. 肝의 生理特徵을 樹木의 生長發育現象에 比喻한 것이다. 肝은 疏泄을 主管하여, 한편으로 膽汁을 疏泄해서 脾胃의 消化를 돕고, 다른 한편으로 肝膽에는 吐 升發 透泄의 作用이 있어서 全身의 氣機를 舒暢케 한다. 그래서 肝氣의 特徵은 調和 暢達을 좋아하니, 過亢이나 抑鬱해서는 안된다.

礞石滾痰丸(몽석곤담환)
<滌痰>의 項 參照.

夢遺(몽유)
「遺精」의 項 參照.

眇(묘)
側腹部에 있으며, 第 12肋軟骨의 下方, 髂嵴(腸骨의 上緣, 腸骨稜)의 上方에 있는 軟組織部分, 허구리(脇下兩旁의 虛軟處).

苗竅(묘규)

비는 폐규이고, 목은 간규이며, 구순은 비규익도, 설은 심규이며, 이는 신규임을 말함.

瞽瘻(무계)

「瞽」은 視物이 模糊하고 잘 보이지 않음을 뜻하며,「瘻」은 手足의 筋脈이 拘急抽搐함을 뜻함. 대개 火熱이 心身을 上擾하여 肝風을 引動한 所致이다.

無名腫毒(무명중독)

갑자기 體表의 局部가 紅腫하는 一種의 症候인데, 적당한 名稱이 없으므로 이렇게 이름한다. 症狀은 或痛或痒하고, 重한 경우는 焮熱 腫硬하며, 患部附近의 淋巴節이 腫大한다. 內部에 鬱熱이 있거나 或은 外邪風毒을 感受하므로 發生한다.

無癍痕灸(무반흔구)

灸法의 一種이다. 艾柱를 直接 혹은 間接으로(강편, 산편등) 穴位의 皮膚상에 놓고 연소하여 매회 一定한 정도의 刺戟을 주는데 그 국부에 수포 화농 癍痕이 생기지 않게 한다.

無犯胃氣(무범위기)

衛氣는 胃機能의 體現이다. 胃가 飲食을 接受하고, 水穀을 받아들여 腐熟함은 모두 胃氣의 作用이다. 기타 臟腑는 水穀의 精氣를 얻어야만 그 機能을 維持하게 된다. 그러므로 先人은 일찌기 “有胃氣卽生 無胃氣卽死”라고 하였다. 이는 處方用藥時에 반드시 胃氣를 損傷하지 않도록 注意해야 한다는 것이다. 예컨대 苦寒藥이나, 瀉下藥을 過度하게 쓰면 胃氣를 損傷하므로, 使用時에는 반드시 適量을 把握해야 한다. 단, 이는 一般的 原則이며, 病邪가 胃氣를 損傷하는 것이라면, 苦寒藥 或은 瀉下藥의 使用이 必須的이며, 이런 경우는 대담하게 使用해야 한다. 이것이 바로 胃氣를 保護하는 것이 된다.

巫醫(무의)

符籙을 써주고 呪文을 외는 등의 迷信的方法(약간의 藥物을 兼用하는 水道 있다)으로 鬼神의 빌미를 구제하는 것을 治病의 手段으로 삼는 職業人을 말함. 巫의 發生은 꽤 오래되어 距今 3千여년전의 中國 商 周時代에 生産의 發展에 의해 技術知識을 修得한 人物의 하나로써 巫가 出現하였다. 巫는 疾病을 治療할 수 있고 歌舞에도 能하며 鬼神을 대신하여 말하는 手法을 썼으며 당시는 權力층만이 巫法을 治病手段으로 쓸 수 있었다. 甲骨文中에 이에 관한 記載가 있어서 당시의 醫療活動의 狀況을 說明하고 있다. 戰國時代에 이르러 民間 醫員이 이미 꽤 普遍化되어 扁鵲이 먼저, 信巫不信醫者 不治(무를 믿고 醫員을 믿지 않으면 불치이다)라고 주장했는데 醫藥發展의 制限과 大衆의 無知로 인해 사람을 속이는 巫醫가 오랜 期間에 걸쳐 存續되었다.

繆刺(무자)

古代刺法의 명칭 신체의 한쪽 (좌 혹은 우측)에 유병할 때 반대측의 穴位에 針刺하는 方法의 一種이다. 주로 다음의 경우에 應用된다. 1)신체의 외형에 동통의 증상이 있지

만 맥상은 정상인 경우 (素問 調經論에 있음) 2)락맥에 유병한 경우(素問 繆刺論에 있음)

拇指同身寸(무지동신촌)

「同身寸」의 項 參照.

武火(무화)

火力이 크고 맹열한 것 緊火는 武火에 속한다 煎藥할 때는 必要에 따라 화력을 분간해서 써야 한다

無灰酒(무회주)

石灰를 넣지 않은 酒이다 古人은 주에 石灰를 넣어 술의 酸味를 防止했는데 이는 聚痰하게 되므로 藥用에는 無灰酒를 써야 한다

吻(문)

上脣과 下脣이 左右의 口角에서 會合하는 部位. 또한 脣의 四周部分을 總稱해서 吻이라고도 함.

紋陰(문음)

<五不女>의 項 參照.

聞診(문진)

四診의 하나. 病者가 主所하는 病情을 듣는 同時에, 病者 或은 保護者로부터 患者의 病痛部位, 發病時間, 原因, 經過, 既往의 治療, 既往證, 生活習慣, 飲食嗜好, 病因의 생각, 家庭, 生活經歷 等 疾病과 有關한 事項을 質問하는 것이며, 이는 病情과 病力을 全面的으로 알 수 있는 重要的 方法이다. 病情을 質問할때 十問에 中點을 둔다.

聞診(문진)

聲音을 聽取하는 것과 냄새를 맡는 兩面을 包括함. 前者는 聽覺에 의해, 病因의 言語, 呼吸, 咳嗽等の 聲音을 아는 것이고, 後者는 嗅覺에 의해, 病因의 病體에서 發散되는 냄새와 排泄物의 氣味를 分別하는 것이다. 四診中の 한 種類이다.

門齒(문치)

齒燥의 項 參照.

文火(문화)

火力이 작고 緩慢한 것 微火 慢樺는 문화에 속한다 藥物을 전자할때는 必要에따라 화력을 분간해서 써야 한다

米甘水(미감수)

쌀을 씻은 쌀뜨물로서 제藥용으로 쓰는 것 예컨대 白朮을 米甘水에 침연하여 절편하거나 혹은 포초하고 혹은 生用한다 米甘水에 침하면 조성이 제거되어 화중하게 된다.

米甘水灸(미감수구)

灸의 項 參照

尾閭(미려)

尾骶, 骶, 骶端, 宮骨이라고도 함. 脊椎骨의 最下緣에 있으며, 위로 骶骨(先骨)과 連하고, 下端은 遊離되어 肛門의 後方에 있음.

眉棱骨(미릉골)

眼眶의 上緣의 骨을 말함. 解剖學上의 額骨(前頭骨)의 眼眶을 構成한 部分에 該當함.

微脈(미맥)

脈象의 一種. 脈象이 細小하고 軟하여, 있는 듯 없는 듯한 느낌이다. 氣血虛衰의 所致이다. 쇼크, 虛脫, 慢性虛弱證 등에서 多見된다.

微發病前服(미발병전복)

예컨대 疝疾은 症狀이 發作하기 전의 適當한 時間에 복藥해야 한다

微邪(미사)

①邪氣가 輕微하여 發病도 輕淺한 것을 말함. ②「五邪」의 하나. 어떤 臟을 發病케 한 邪氣가 「所勝」하는 데서 傳來된 것.

微邪脈(미사맥)

五邪脈의 項 參照.

微甚(미심)

[微]는 微薄 或은 僅少를, [甚]은 顯著를 뜻함. 性質이 같은 脈象인데, 微과 甚의 差異가 있음을 說明하는데 쓴다. 例컨대, 浮脈에 微浮과 甚浮의 差異가 있고, 또 正常人의 春季의 脈象은 微弦의 程度를 超過하면 病脈에 屬할 可能性이 있다.

微者逆之(미자역지)

<素問. 至眞要大論>에 있음. [微]는 病證이 뚜렷하면서 比較的 輕한 것을 말함. 例컨대 熱證, 寒證이 微에 該當한다. 病情이 [微]에 該當하기만 하면 [逆治]인 正治法을 쓴다.

米疽(미저)

「腋癰」의 項 參照.

尾骶(미저)

尾閭의 項 參照.

微炒(미초)

炒의 項 參照

微風(미풍)

「素問·調經論」에 있음. 風邪를 感受하여 發病이 輕微한 것. 臨床表現은 筋肉의 蠕動이며, 臟腑氣血의 症狀은 나타나지 않는다.

微火(미화)

文火의 項 參照

悶瞢(민무)

眼目이 昏花하고 視物이 不明하며, 同時에 煩亂하고 不安을 느끼는 一種의 證候이다. 대개 炎熱 濕濁이 內部에 交阻하거나 或은 熱毒이 熾盛한 所致이다.

蜜灸(밀구)

灸의 項 參照

蜜煎導法(밀전도법)

도변법의 하나이다. 적량의 蜂蜜를 暖水에 넣고 煮여서 濃縮하여 뜨거울 때 꺼내어 소지 정도로 2촌길이의 봉상을 만들어 肛門내에 삽입한다.

膊(박)

臂膊이라고도 함. 上肢部の 肱部(上膊)와 臂部(下膊)를 包括한 總稱.

薄厥(박궐)

素問·生氣通天論에서 “陽氣者 大怒別形氣絕 而血菀於上 使人薄厥”이라 하였다. 이는 精神刺戟으로 인해 陽氣를 急亢시켜 血이 氣를 따라 逆上해서 血液을 頭部에 鬱積케하여 突然 昏厥을 發하는 病證을 말함.

撲粉(박분)

약물을 갈아서 세말하여 皮膚上을 두드리며 바르는 것. 예컨대 열성병의 발한후에 한출이 부지할 경우 下龍骨 下牡蠣 生薑기 경미를 갈아서 세말 燂干하여 皮膚上에 박분하는 것을 溫粉이라 한다. 하절에 땀띠가 나면 滑石粉을 몸에 박분한다.

薄貼(박첩)

膏藥이라고도 함. 薄貼이란 말은 唐代 孫思邈의 千金요방에 있으며, 清代 徐靈胎가 말한 膏藥의 古名이다. 膏藥은 皮膚上에 貼付하여, 그것이 含有하는 各種藥物의 作用을 利用하여 疾病을 治療하는 것이다. 그 製法은 다음과 같다. 一定한 處方에 의한 藥物을 참기름에 一定時期 담갔다가 남비에 넣고 달여서 藥物이 枯黑色이 되면 去渣하고, 다시 아주 稠厚하게 졸여서, 黃丹(鉛, 硝石, 硫黃으로 만든다. 黃赤色의 粉末이다)을 加하여 各반해서 南비를 불에서 내린다. 藥液이 漸次 凝固되면 꺼내어 適當하게 잘라서 冷水에 담가 火毒을 除去한다. 使用時에 加熱 溶化하여 布나 厚紙 혹은 薄油殘에 펴서 局部에 貼付한다. 內科의 膏藥에는 祛風, 化濕, 行氣, 活血등의 작용이 있다. 外科의 膏藥은 腫瘍에 대하여 消腫 止痛하는 效能이 있으며 潰瘍에 對하여 去腐, 生肌收口, 護肉등의 作用이 있다. 다른 一種의 膏藥은 生藥을 찢어서 泥狀으로 하여 竹片으로 떠서 紙上에 펴서 만들며, 또 박병과 같이 만들어서 국부에 첩부하기도 한다.

薄苔(박태)

舌苔의 剝落을 말함. 舌苔가 長期에 걸쳐 地圖狀으로 剝離되는 것은, 대개 蟲積에 屬한다. 熱性病의 過程에서 舌苔가 1~2日內에 剝去한 것처럼 全部 消失되어, 無苔의 光絳舌이나 或은 鏡面처럼 되는 것은 대개 正氣가 邪氣를 不勝하여, 肝腎의 眞陰이 虧損되어, 邪氣가 內含한 重證이다.

斑(반)

「斑疹」의 項 參照.

反關脈(척관맥)

生理上 特異한 一種의 脈位이다. 生理上의 位置의 特異性으로 因해, 橈骨動脈이 腕關節의 背側을 通行하고 있으므로, 切脈위치도 寸口의 背面이 된다. 이러한 特異한 脈位를 反關脈이라 한다. 이는 兩手에 나타나는 경우도 있고, 한쪽손에만 나타나는 경우도 있다.

礬灸(반구)

灸의 項 參照

斑禿(반독)

油風의 項 參照.

半硫丸(반류환)

<緩下>의 項 參照.

半邊蓮一兩煎湯(반변련일량전탕)

單方의 項 參照

攀索(반삭)

<攀索疊磚>의 項 參照.

攀索疊磚(반삭첩전)

古代의 正骨의 一種 方法이다. 腰部의 捻傷, 挫傷 및 椎間板脫出(椎間板ヘルニア)의 治療에 썼다. 病人의 兩足を 各各 三層으로 쌓은 벽돌 위에 놓고 서게 하며 (疊磚), 同時에 兩手를 높이 들어, 높게 걸려있는 줄을 잡게 한다(攀索). 이때 醫師는 病人의 妖婦를 받쳐주고, 助手에게 3회에 걸쳐 上,中,下 三層의 벽돌을 빼내게 한다. 脊骨을 牽引하여, 復位를 促進하는데 쓰인다.

半産(반산)

「墮胎」의 項 參照.

盤疝(반산)

古病名이다. 臍周圍가 絞痛하는 病症을 말함.

反脣疔(반순정)

疔瘡疾患의 하나이다. 疔이 脣上에 생겨서 脣이 重脹하여 밖으로 뒤집히므로 이렇게 이름한다. 脾經의 熱毒이 鬱發하거나 或은 胃火가 熾盛한 所致이다. <疔瘡>의 項 參照.

半身不隨(반신불수)

偏癱 或은 偏風이라고도 함. 한쪽 肢體가 半身不隨가 되거나 或은 隨意運動이 不能한 것을 말함. 久病人 境遇는 患者가 健側에 比하여 枯瘦하고 麻木不仁이 되므로 偏枯 或은 偏廢不仁이라고도 함. 대개 中風後遺症等の 疾患에 屬한다.

飯蕊(반예)

疣의 項 參照.

反胃(반위)

食後에 脘腹이 脹滿하며 朝食暮吐하고 或은 暮食朝吐하며 不消化物을 吐出하고 精神이 疲勞하여 힘이 없으며 舌이 淡白하고 脈細無力하며 飲食物이 들어가면 吐하므로 이렇게 이름한다. 金匱要略에서는 胃反이라 하였고 宋代 朱端章의 衛生家寶産科備要에서는 翻胃라 하였다. 主로 脾胃가 虛寒한 所致이다.

半刺(반자)

五刺법의 一種 刺入을 아주 얇게하고 빨리 拔針하되 氣血을 상하지 않는다 마치 발포상과 같이 한다. 이는 古代에 肺病 治療에 應用된 一種의 針법이다.(靈樞 官針篇)

盤腸氣(반장기)

「疝」의 項 參照.

盤腸癰(반장옹)

腸癰의 項 參照

飯前服(반전복)

病이 下焦에 있으면 식전에 복藥한다 一般的으로 保養藥 특히 보신藥은 飯前服한다(神農本草經에서 “病在心腹以下者 先腹藥而後食”이라 하였다)

反佐(반좌)

反治의 項 參照.

斑疹(반진)

點이 커져서 片을 이루고, 紅色 或은 紫色을 띠며, 손으로 문질러도 걸리지 않는 것을「斑」이라 하며, 대개 熱이 陽明經에 鬱結하여, 營血에 까지 迫하므로 肌膚에 發하는 것이다. 形態가 粟米狀이고, 紅色 或은 紫色을 띠며, 皮膚面에서 突出하여, 손으로 문지르면 걸리는 것을「疹」이라 하며(但, 皮膚上에 突出하지 않고 손으로 문질러도 걸리지 않는 것도 있다). 대개 風熱이 鬱滯하여, 營分을 內閉하므로, 血絡에서 肌膚로 透發하는 것이다.

反治(반치)

<素問. 至眞要大論>에 있음. 이는 疾病에 假象이 出現하거나 或은 大寒證, 大熱證에 正治法을 써서 拒格現象이 發生할 경우에 使用하는 治法이다. 例컨대, 病이 眞寒假熱에 屬하는 경우 正治法에 따라 溫熱藥을 投與하여 그 眞寒을 治하면 往往 拒格現象이 出現하게 되어, 服藥後 곧 吐出하여, 藥物이 治療作用을 일으키지 못한다. 이러한 情況下에서는 反治法을 採用해야 한다. 그 한가지 種類는, 본래의 溫熱藥을 그대로 쓰되 煎成後 식혀서 冷服하고, 或은 본래의 寒涼藥을 煎成後 뜨거울 때 熱服하는 것이다. 다른 한가지 種類로는, 본래의 溫熱藥中에 약간의 寒涼藥을 加하고, 或은 寒涼藥中에 약간의 溫熱藥을 加하여 [反佐](즉 主治藥의 藥性和 相反되는 藥物을 써서 誘導輔佐케 한다.)한다. 이렇게 하면, 病人이 藥物을 受納하게 되어 治療目的을 이루게 된다. 反治法을 從治라고도 한다. 즉 疾病의 假象에 順從하는 治法을 쓴다는 것이다. 實質上, 反治法은 곧 正治法이 되는 것이다.

半表半裏(반표반리)

病辨部位가 表部에 있는 것도 아니고, 裏部에 있는 것도 아니며, 表裏의 사이에 介在한 것을 말함. 例컨대, 少陽病은, 三陽으로 말한다면 이미 太陽의 表部를 떠났는데, 아직 陽明의 裏部로는 傳入되지 않고, 寒熱往來, 胸脇苦滿, 心煩作嘔, 不欲飲食, 口苦, 咽乾,

目眩, 脈弦 等を 나타내는 것을 半表半裏證이라 稱한다.

半夏曲(반하곡)

曲의 項 參照

飯後服(반후복)

病이 上焦에 있으면 식후에 服藥해야 한다. 一般的으로 保養藥 구충제원에 대개 食後에 服用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神農本草經에 “病在胸膈以上者 先食後服藥”이라 하였다.

癥痕灸(반흔구)

化膿灸라고도 함 艾柱구의 一種이다. 소艾柱를 間接穴位 (혹은 一定한 체표부위)상에 놓고 燃燒하여 구후 국부에 고약을 붙여 국부의 화농을 촉진해서 水泡가 생기게 하여 最後에 결가해서 癥痕을 형성한다. 이러한 灸法の 결점은 병인의 통고가 比較的 커서 현재 臨床에서는 應用이 比較的 적다.

拔罐療法(발관료법)

拔火罐의 項 參照

發背(발배)

癰疽가 脊背部에 생기는 것을 通稱하여 發背라 하며, 督脈과 足太陽膀胱經에 屬하고, 火毒이 內蘊한 所致이다. 陰證과 陽證의 二種類로 나뉜다. 陽證을 또 「發背癰」或은 「背癰」이라고도 하며, 陰證을 「發背疽」라고도 함. 陽證은, 대개 六淫을 感受하므로 發하며, 처음에 1~2個의 瘡頭가 생겨, 數日後에 迅速히 腫高하여 크기가 手掌 같고, 甚하면 碗口 같으며, 紅腫劇痛하고, 高熱, 煩渴, 脈洪數 等症을 隨伴한다. 陽證은 대개 七情 內傷, 膏粱厚味, 醇酒 炙燂, 火毒 鬱積에 依해 생긴다. 처음에는 瘡頭가 栗粒같고, 根盤이 散漫하며, 그다지 높게 腫起하지 않고, 색깔이 紅活하지 않으며, 疼痛이 輕하다. 煩悶, 口渴, 便秘, 尿赤, 脈細無力 등을 隨伴한다. 數日後에는 瘡頭가 甚多해져서, 上部에 膿點이 생겨, 形態가 蓮蓬과 같으므로 「蓮蓬發」이라고도 하며, 或은 「蜂窩疽」라고도 함. 瘡頭의 膿이 粘稠하여 難潰하며, 누르면 流血하여, 8~12日만에 潰頭に 薄片이 생겨서, 膿이 腐敗되어 漸出하며, 오래 지나야 收口된다. 本病은 發生部位의 差異에 따라서 많은 名稱이 있다. 背의 上部에 생기는 것을 「上發背」或은, 「脾肚發」이라 하며, 中部에 생기는 것을 「中發背」或은 「對心發」이라 하고, 下部에 생기는 것을 「下發背」或은 「對臍發」이라 한다.

發背癰(발배옹)

「發背」의 項 參照.

發背疽(발배저)

「發背」의 項 參照.

腠腧(발양)

「肓之原」의 項 參照.

發熱(발열)

臨床상 가장 많이 볼수 있는 症狀의 하나이다. 發熱의 類型과 兼症이 比較的 複雜한데 概括하여 外感과 內傷의 二大類型으로 나뉜다. ①外感 發熱:大概 實證에 屬함. 六淫 或은 疫戾等의 外邪가 人體에 侵入한 後 精氣와 서로 싸움으로써 惹起된다. 表熱 裏熱 半表半裏熱로 나뉜다. 表熱은 대개 惡風寒, 舌苔薄白, 脈浮 或은 咳嗽, 鼻塞등 肺經의 衛分症狀을 兼發한다. 半表半裏熱의 主要特徵은 寒熱往來, 胸脇脹滿不舒, 或은 嘔吐 嘔苦咽乾, 脈弦數等이다. 裏熱은 不惡寒하고 도리어 惡熱하며 口渴, 舌苔黃乾하고 或은 大便燥結 或은 泄瀉臭穢稀糞하며 脈은 대개 沈數하고 有力하다. 邪가 盛하여 營分, 「血分」로 深入하면, 昏迷, 抽搐, 斑疹등의 危重症狀이 出現한다. ②內傷發熱:대개 虛證에 屬함. 主로 臟腑의 陰陽失調에 의해 생긴다. 陽虛(氣虛)와 陰虛의 二類로 나뉜다. 詳細한 것은 「陽虛發熱」, 「陰虛發熱」의 項 參照.

髮爲血之餘(발위혈지여)

主로 頭髮과 肝血사이에 密接한 關係가 있음을 뜻함. 先人은 頭髮의 營養이 血에서 來源하는 것으로 보았다. 故로 年少하여 血氣가 充盛할 때는 頭髮이 茂盛하고 色이 검고 光澤이 있는데, 年老하여 肝血이 不足하고 腎氣가 虛하면 頭髮이 蒼白해지고, 脫落되기 쉬워지므로 「髮爲血之餘」의 說이 있다.

發頤(발이)

頤頤部에 發生하는 一種의 化膿性 感染症을 말하며, 차시와 비슷한데, 本病은 대개 傷寒, 溫病, 麻疹의 後期에 續發된다. 汗出이 不暢하여, 餘邪 熱毒이 온전히 透泄되지 못하고, 少陽·陽明의 絡에 鬱結되어, 氣血이 凝滯됨으로써 發病하므로 「汗毒」이라고도 한다. 처음에 身熱惡寒하며, 망울처럼 붓고, 약간 熱痛이 있으며, 以後, 膿腫이 漸次 增大하고, 熱痛도 加劇된다. 제때에 切開하지 않으면, 膿腫이 頤頤部 或은 口腔粘膜 或은 外耳등의 部位에서 潰破된다. 化膿性耳下腺炎의 類이다.

髮際(발제)

頭皮上的 頭髮이 生長하는 邊錄部. 그중, 額部上方의 頭髮邊錄을 『前髮際』라 하고, 項(後頸)部上方의 頭髮邊錄을 『後髮際』라 함.

髮際瘡(발제창)

頭皮의 髮際部에 가까운 곳에 생기는 小瘡를 말함. 頭項의 後髮際에 多發한다. 平素 濕熱이 內鬱한데다가 다시 風邪의 外襲을 받기 때문에 생긴다. 처음에는 한두개 생길 뿐인데, 제때에 治療하지 않으면, 破口에서 膿水가 나와 周圍에 蔓延되기 쉽다.

拔針(발침)

出針의 項 參照

發泡(발포)

起泡 提泡라고도 함. 피부를 자극하는 약물을 찢거나 연말하여 피부를 발라서 수포를 일으키는 것이다. 예컨대 急性扁桃腺炎을 치료하는데 반* 한마리분을 취하여 研末해서 小膏藥의 중심에 놓고 項部의 양측에 붙인다(환부가 좌측이면 우측에 첩부하고 환부가 우측이면 좌측에 첩부한다) 3~4시간이 지나면 起泡하는데 소독한 침으로 *과하여 黃水를 짜내고 消毒藥을 바른다. 急性黃疸性肝炎의 치료에는 반*고를 右脇下에 첩부하면 좋다. 毛茛, 天南星 威靈仙 回回蒜등의 鮮根을 찢어 大豆大로 하여 外敷해도 발포가 된다. 단 발포약이 눈에 오입하지 않도록 해야한다. 눈을 상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發表不遠熱(발표불원열)

<素問. 六元正紀大論>에 있음. [遠]은 여기서 忌避의 뜻이다. 風寒의 邪氣가 外表에 있는 경우, 辛溫藥이 아니고서는 發散시킬 수 없으므로, 發表藥이 아니고서는 發散시킬 수 없으므로, 發表藥으로서 溫熱藥을 忌避하지 않는다(辛溫解表의 項 參照.). 단, 風熱이 外表에 있는 경우에도 辛溫藥을 쓰는데, 藥物의 配合가 다르다. 例컨대 外感風熱로서 肺氣가 壅塞하고, 咳嗽氣急하면 麻杏石甘湯을 쓴다. 麻黃은 辛溫하고, 石膏는 甘辛寒하여, 이를 合用하면 辛涼解表劑가 된다. [辛涼解表]의 項 參照.

發汗禁例(발한금례)

아래의 情況에서는 發汗法을 쓸 수 없다. 1)頭痛 發熱이 外感和 類似한데, 患者가 鼻不塞, 聲音不重, 疲倦無力, 脈虛弱한 證候는 內傷證의 元氣不足이다. 2)陰虛로 因한 內熱로서, 夜間에 低熱이 顯著하고, 脈이 細數 無力한 경우. 3)傷食病으로, 胸脘이 脹悶하고, 吞酸水하며, 腐臭한 氣味를 噯出하고, 身熱하며, 寸脈이 緊한 경우. 4)內部에 寒痰이 있고, 手足이 寒冷하며, 脈이 沈滑한 경우. 5)脚氣病이 腫脹한 경우. 6)臟腑의 內癰이 생긴 경우. 7)身體에 發斑한 경우. 8)風溫病의 初期에, 不惡寒하고, 但惡熱하면 辛溫藥物로 發汗해서는 안된다. 9)濕溫으로 身熱한 경우는 化濕 清熱만 해야 한다. 10)暑證으로, 身熱 自汗하는 경우. 11)外感病으로 發汗시켜야 하는데, 病人의 臍部附近의 한 部位에 動氣(躁動의 感覺)가 있는 경우. 12)身熱하고 脈沈하며, 咽中이 乾燥하여, 病이 이미 裏部로 轉入된 경우. 13)少陰病으로, 手足이 寒冷하고, 無汗한 경우. 14)身熱하고 脈이 弱한 경우. 15)少陽病으로, 寒熱이 往來하고, 胸脇痞脹, 口苦咽乾 目眩 等症이 있는 경우. 16)失血患者. 17)甚하게 吐한 後. 18)甚하게 瀉下한 後. 19)淋症患者 20)婦女의 月經이 갓 시작되었을 경우. 以上으로, 發汗시켜서는 안될 경우를 例舉하였다. 汗法이 不宜한 데도 汗法을 써야 할 경우가 있으니. 「養陰解表」, 「助陽解表」, 「益氣解表」, 「養血解表」의 各項을 參照.

발汗法(발한법)

<汗法>의 項 參照.

拔火罐(발화관)

拔罐療法이라고도 함. 竹筒, 陶製 혹은 유리製의 小罐, 혹은 廣口의 瓶을 火罐으로 쓴다. 拔罐할 때는 點火한 알콜綿球 혹은 종이를 火罐內에서 잠시 晃動시킨 후, 뜨거울 때 罐을 一定한 體表部位上에 얹어쥘 罐口와 皮膚를 密接하게 接觸시킨다. 冷却되면 火罐內의 공기가 減少되어 減壓이 생겨서 皮膚表面에 吸着되어, 局部에 充血 혹은 瘀血을 일으킴으로써 治療目的을 達할 수 있다. 一般的으로 腰痛, 胸脇痛, 頭痛, 關節炎, 哮喘等 各種 疾病에 應用된다.

發黃(발황)

各種의 相異한 原因으로 惹起되는, 全身皮膚 혹은 眼鞏膜이 黃染되는 症狀을 말함. 「黃疸」의 項 參照.

方(방)

方劑를 말함. 이는 治療原則에 依據하여, 여러가지 藥物을 配合組織해서 一定한 劑型을 만들어 醫療나 豫防에 應用하는 것이다. 配合組織을 通하여 藥物은 보다 좋게 또한 多方面의 作用을 發揮하게 된다. 例컨대, 1) 病情에 比較적 全面的으로 適應한다. 例로써 葛根黃芩黃連湯(葛根, 黃芩, 黃連, 甘草)은 表邪를 解除함과 아울러 裏熱을 淸解한다. 2) 藥物의 協同作用을 發揮한다. 例로써 大承氣湯을 大黃에 枳實, 厚朴, 芒硝를 加함으로써 瀉下作用을 強化한다. 3) 어떤 藥의 毒性을 抑制한다. 例로서, 小半夏湯을 半夏와 生薑을 同用함으로써, 生薑이 半夏의 毒性을 抑制한다. 다른 一面으로, 方劑의 配合差異는 作用에도 이에 따른 變化가 생긴다. 例컨대 白朮과 枳實을 同用한 것을 枳朮丸이라 名하며, 胃의 消食機能을 높인다. 白朮과 乾薑, 茯苓, 甘草를 同用한 것을 腎着湯이라 名하며, 傷濕으로 因한 身通腰冷을 治한다. 白朮과 黃芪, 防風을 同用한 것을 玉屏風散이라 名하며, 自汗이 不止함을 治한다. 白朮과 生薑皮, 陳皮, 茯苓皮, 大腹皮를 同用한 것을 白朮散이라 名하며, 妊娠脾虛, 面目 肢體의 虛浮 等證을 治한다.

鎊(방)

治削의 項 參照

膀胱(방광)

六腑의 하나, 脬(포)라고도 함. 속칭 尿脬라고 함. 膀胱은 小便을 貯藏하고 排泄하는 器官이며 「內經」에서 「州都之官」으로 比喻하였다(州都是 注渚와 同義이며, 水中의 居住할 수 있는 場所이다. 여기서는 膀胱이 水液의 聚集하는 곳임을 形容하였다). 膀胱과 腎은 서로 表裏가 되어 그 中の 小便은 氣化過程중의 產物이며 汗과 같이 津液이 變化한 것이다. 所謂 “氣化則出焉”이다. 「氣化」란, 氣가 變化하여 水가 된다는 뜻이다. 膀胱이 有病하면 小便異常이나 排尿困難이 생긴다.

膀胱氣閉(방광기폐)

膀胱 氣化의 機能障礙를 말함. 그 原因은, 대개 腎・三焦의 氣化不利와 有關하다. 主要症狀은, 小腹脹滿, 小便困難, 或은 尿閉이다. 대개 實證에 屬한다.

膀胱濕熱(방광습열)

濕熱이 下焦膀胱에 쌓이는 病變을 말함. 主要症狀은 頻尿, 尿急, 尿少而痛, 尿黃赤或尿血, 舌紅苔黃, 脈數 等이다. 急性膀胱炎에서 多見된다.

膀胱主藏津液(방광주장진액)

『素問·靈蘭秘典論』에서 “膀胱者 州都之官 津液藏焉 氣化則能出矣”라 하였다. 『州』는 洲이고, 『都』는 渚이다. 洲渚는 本來 水中의 居住할 수 있는 곳을 말하며, 여기서는 膀胱이 三焦의 水液이 歸集하는 곳임을 뜻한다. 津液은 腎의 氣化作用을 通하여 小便으로 變成되어 體外로 排出된다.

膀胱咳(방광해)

咳嗽할 때, 尿失禁이 되는 現象을 말함.

膀胱虛寒(방광허한)

膀胱이 氣化가 不足하거나, 或은 寒邪의 影響을 받아서, 調節 團束하는 能力을 喪失한 것을 말함. 대개 腎陽虛와 有關하다. 主要症狀은 遺尿, 尿急하고 맑은 尿가 頻繁하면서 淋瀝不盡하고, 苔薄潤하며, 脈細弱 等이다.

房勞(방노)

「房室傷」이라고도 함. 性生活이 過度하여 腎精을 耗損해서 勞損症의 病因의 하나가 됨을 말함.

方上(방상)

脾尖의 兩側의 鼻翼部, 古人은 이곳을 望診하여 胃部疾病의 診察에 參考가 된다고 보았다.

方書(방서)

①方劑를 傳聞으로 記載하거나 處方을 論述한 著作을 말함. 例컨대 宋代 汪昂의 醫方集解(AD 1694) 宋代 鮑相오의 驗方新編(AD 18**)등이다. ②一般的으로 處方이 있는 醫書를 말함. 例컨대 劉恕의 通鑑外紀에 遂作方書 以療民疾(마침내 방서를 만들어 이로써 민질을 요함)이라 했는데 이는 一般 醫書이면서 많은 方劑가 실려있다. 또 千金要方(AD 650年), 千金翼方(AD 682)은 方을 書名으로 했지만 實在로는 基礎醫學 및 臨床分科를 包括하고 있다.

房室傷(방실상)

「房勞」의 項 參照.

方劑配伍(방제배오)

君臣佐使의 配伍를 말함, 君臣佐使의 項 參照

傍針刺(방침자)

十二刺法의 一種 晚成風濕症을 治療하는데 쓰인다 그 자법은 환부를 직자하고 방측에 각일針을 刺入한다(靈樞 官針篇)

芳香化濁(방향화탁)

芳香性이 있고 濕濁을 治하는 藥物을 써서 體內에 濕濁이 있으므로 脘腹脹悶,惡心吞酸,大便稀薄,體倦乏力,口이하고 甘味가 있는 等症을 出現하는 症候를 治療하는 것이다.藿香,시란,砂仁,厚朴 等を 쓴다.또한 頭暈耳脹하고 嘔吐,舌苔白리를 兼有하면 石菖蒲,鮮荷葉,陳皮,半夏,大腹皮 等を 加한다.

背(배)

軀幹部の 後面, 後胸部, 腰部, 骶部(仙骨部)를 包括한 總稱.

焙(배)

미화로써 藥物 加熱하여 乾燥시키는 方法의 하나 이며 배는 藥物을 깨끗한 瓦片상에 놓거나 혹은 남비에 넣고 소초하지 않게 배조하는 것이다 배는 烘보다열을 조금 강하게 한다

痞瘤(배뢰)

「癰疹」의 項 參照.

背腧(背俞)(배유)

背部脊柱兩側의 體表에 있는, 五臟六腑의 生理·病理의 反應과 密接한 關係가 있는 反應點(穴位)을 말함. 이들은 모두 臟腑의 經氣가 輸注되는 곳이다. 즉, 心俞·心包俞·肺俞·脾俞·腎俞·膽俞·胃俞·膀胱俞·三焦俞·大腸俞·小腸俞이다.

背癰(배옹)

「發背」의 項 參照.

排腫托毒(배종탁독)

排托이라고도 함. 즉 內托법 中の 托毒透膿법이다.

排針(배침)

出針의 項 參照

排托(배탁)

排膿托毒의 項參照

培土(배토)

脾土를 補培하여 脾의 運化機能을 正常으로 回復시킴을 말함. 무릇 脾虛하여 飲食減少, 大便泄瀉 等症이 있는 경우에는 培土해야 한다. 培土는 健脾, 補脾, 益脾의 總稱이다.

培土生金(배토생금)

<補脾益肺>의 項 參照.

培土抑木(배토억목)

<健脾疏肝>의 項 參照.

衄血(배혈)

凝固되어 紫黑色을 나타내는 敗血.

白降丹(백강단)

丹의 項 參照

白降丹(백강단)

靈藥의 項 參照

白金丸(백금환)

截의 項參照

白帶(백대)

陰道에서 白色의 계란 흰자와 같은 粘液이 連續해서 流出되어, 帶와 같은 것을 「白帶」라 함. 正常적인 狀況에서, 成年婦女的 陰道는 少量의 粘液을 分泌하며, 대개는 無色 無臭(或은 微腥)하다. 白帶가 增多되면 病態에 屬한다. 脾虛로 因한 경우는, 白帶의 量이 많고, 身疲, 面黃, 肢冷, 便糖 等症을 兼發한다. 肝鬱에 起因한 경우는, 白帶가 많을 때도 있고 적을 때도 있으며, 情緒의 不安定, 頭眩, 胸悶, 乳脹 等症을 兼發한다. 濕熱의 下注에 起因한 경우는, 帶下에 腥臭가 있고, 陰痒(外陰腔真菌症・膺트리코모나스에서 비교적 많이 볼 수 있음), 頭眩, 倦怠 等症을 兼發한다. 이밖에 虛寒, 虛熱, 痰濕 등도 白帶增多를 일으킬 수 있다.

白禿瘡(백독창)

禿瘡의 項 參照.

白痢(백리)

濕熱의 毒邪가 氣分에 滯留하여, 白色의 鼻汁樣粘液 或은 魚腦와 같은 것을 下痢하는 것을 「白痢」라 한다. 또 寒濕이 凝滯하여, 脾陽이 受傷하므로 白色의 下痢를 하며, 그 質이 묽고 腥味가 나는 것은 寒痢에 屬하며, 이를 「寒痢」라 한다. 該當項을 參照.

白膜侵睛(백막침정)

주로 肺經의 風熱 或은 肝火가 上攻한으로써 생기는 病症이다. 그 症狀은 黑睛(검은자위)의 邊緣에 灰白色의 小疱가 생겨서 漸次 中央으로 進展되며 重한 경우는 灰白色의 小疱가 融合되어 片을 이루어 黑睛을 가로지른다. 罹患된 눈은 極度로 畏光 羞明하며 刺痛 流淚하고 病狀이 항상 反復해서 생긴다.

魄門(백문)

「七衝門」의 項 參照.

白黴苔(백미태)

舌面에 白膜 或은 밥알 같은 糜爛점이 생기는 것. 대개 胃中이 熱極하여 津液이 腐敗되어, 胃으로 蒸騰한 所致이다. 一般的으로 후에 舌面全體에 퍼지고, 甚한 경우 口腔全體에 퍼지는 수가 있으며, 病이 重한 것에 屬한다.

白駁風(백박풍)

皮膚에 白色의 얼룩 斑片이 생기므로 이렇게 이른다. 白癜風이라고도 함. 風邪가 肌表를 侵襲하여, 腠理가 不密하고, 氣血이 調和를 잃기때문에 發한다. 靑壯年에게 多見되며, 兒童과 老人에게도 볼 수 있다. 어떤 部位에나 發하며, 症狀은, 크기가 不同한 乳白色의 斑塊가 생기는데, 正常皮膚色과의 分界가 뚜렷하고, 周圍의 皮膚색은 비교적 짙고, 斑內의 毛髮은 희게 변하며, 白斑의 一部에는 中央에 褐色斑疹 或은 淡紅色의 丘疹이 생기고, 痛痒感은 없으며, 經過가 緩慢하고, 오래도록 消退되지 않는다.

白痞(백배)

濕溫病의 過程에서 頸·項·胸·腹등의 皮膚에 出現하는 一種의 細白水泡로서, 모양이 水晶과 같고, 破하면 淡黃色의 漿液이 流出하는데, 그 색깔이 희고 빛나므로 「晶痞」라고도 한다. 이는 濕熱이 氣分에 鬱阻하여 釀成되는 것이다. 痞의 색깔이 빛나는 것은, 濕熱의 邪가 밖으로 透泄하는 病機를 나타내는 것이다. 만약 痞色이 枯白하면 「枯痞」라 하며, 이는 氣液이 枯渴된 症候이다.

百病皆生於氣(백병개생어기)

「素問·舉痛論」에서 “(余知)百病生於氣也 怒則氣傷 喜則氣緩 悲則氣消 恐則氣下 寒則氣收 炅則氣泄 驚則氣亂 怒則氣耗 思則氣結”이라 하였는데, 이는 매우 많은 發病原因이 모두 氣의 活動에 影響을 미치어 臟腑機能을 失調케 함으로써 發病함을 說明한 것이다.

白散(백산)

丹의 項 參照

白屑風(백설피)

頭部에 多發하며, 白屑이 脫落되므로 이렇게 이름한다. 肌表의 熱이 當風하여, 風邪가 毛孔에 侵入해서, 오래 鬱結하므로 血燥가 되어, 肌表를 營養할 수 없기 때문에 생긴다. 青春期以後에 常見되며, 男子가 女子보다 많고, 全頭部에 好發되며, 顔面, 鼻翼, 耳項等處로 번지기도 한다. 頭皮에 비교적 많은 粉狀의 乾燥된 白屑이 생겨, 빗질을 하거나 긁을 때, 脫落하기 쉬우며, 脫落하면 또 생긴다. 또한 黃色을 띤 油膩性의 鱗屑, 痂皮가 多量 或은 少量이 생기며, 或은 小丘疹이 隨伴되어 甚한 瘙癢을 느끼면, 搔破하면 粘液 或은 血汁이 流出되고, 毛髮이 빠지기 쉬우며, 특히 頭頂部와 顳部가 심하다. 脂漏性皮膚炎의 類이다.

百啐嗽(백취수)

嬰兒의 百日內에 發生하는 咳嗽로서 痰이 많고, 睡眠이 不寧한 病症을 말하며, 「乳嗽」라고도 함.

白眼(백안)

『白睛』의 項 參照.

白如枯骨(백여고골)

[素問, 五臟生成篇]에 있음. 이는 肺의 眞臟色이다. 蒼白하고 枯槁不澤한 病色을 形容한 것이며, 久病으로 氣血이 俱虛하고, 胃氣가 衰敗한 경우, 例컨대 重한 失血, 貧血 및 呼吸困難 等에서 나타난다. [眞臟色]의 項 參照.

白肉(백육)

「分肉」의 項 參照.

白肉際(백육제)

赤白肉際의 項 參照.

白淫(백음)

① 陰道에서 流出되는 過多한 白色粘液을 말함. 房事過度 或은 下焦濕熱의 所致이다. ② 男性의 房事過多, 欲火妄動으로 因해 精液이 저절로 나오는 現象을 말함(素問·痿論). ③ 男子의 精滑, 女子의 白帶를 말함.(馬蒔의 黃帝內經素問注證發微).

百日咳(백일해)

兒童이 時邪를 感受하여, 痰濁이 氣道를 阻滯해서, 肺氣가 不暢하므로 惹起되는 2一種

의 疾病을 말함. 臨床表現은, 뚜렷한 發作性이 있고, 痙攣性咳嗽을 하며, 病程이 긴 것이 特徵이다. 傳染性이 있고, 流行을 일으키기 쉬우므로 「疫咳」라고도 한다. 그 咳嗽의 狀態와 咳嗽의 連續性을 形容하여 「驚자咳」, 「頓咳」, 「時行頓嗆」이라고도 한다. 咳嗽時에 特殊한 哮吼聲을 내어 啞啞이 알을 낳은 後의 啼聲과 類似하므로, 「鷄咳」라고도 함.

柏子養心丸(백자양심환)

養心安神의 項參照

白癩風(백전풍)

白駁風의 項 參照.

百節(백절)

一般的으로 全身의 關節을 말함.

白睛(백정)

『白眼』, 『氣輪』이라고도 함. 眼球의 白色을 나타내는 部分. 眼의 眼球結膜과 鞏膜部分.

白睛溢血(백정일혈)

‘胭脂障’이라고도 함. 本病은, 대개 肺經의 熱邪가 迫血하여 妄行하기 때문이며, 또한 飲酒過度 或은 外傷으로 惹起되는 水道 있다. 그 主要症狀은, 白睛(흰자위)의 表面에 部分的으로 充血이 나타나며, 鮮紅色으로 境界가 分明하고, 重한 경우는 出血現狀이 있다. 數日後에 저절로 消退되며, 豫候가 良好하다.

白疹(백진)

「白痞」의 別名이다.

白瘡(백창)

松皮癬의 項 參照.

白朮散(백출산)

- 方의 項 參照

白痴(백치)

「五軟」의 項 參照.

白苔(백태)

舌苔가 白色인것. 正常舌苔도 白色로 나타내는데, 短, 薄白하고 淨하며, 胃氣에서 생긴다. 病理上的 白苔는 風, 寒, 濕邪과 關聯이 있으며, 또한 表證과 關聯이 있다. 苔가 薄白

하고 少한 것은 대개 內部에 寒濕이 있거나 或은 外感風寒에 起因한다. 苔가 薄白하고 乾燥한 것은 대개 津液의 不足에 起因하며, 外感病에서 나타나는 경우는 대개 外邪이 火熱해서 傷津하기 시작한 것이다. 苔가 厚白하고 滑한 것은 대개 濕濁이 內盛한 所致이며, 表證을 겸하면 外寒이 內濕을 誘發한 것이다. 苔가 厚白하고 乾燥한 것은 津液을 열傷하여 濕濁이 되지 않기 때문이다. 苔가 白滑粘이 한 것은 대개 內部에 痰陰 濕濁이 있기 때문이다.

白通湯(백통탕)

熱因熱用의 項 參照.

魄汗(백한)

肺藏魄하며, 肺는 밖으로 皮毛와 相合하는데, 汗液은 또 表皮에서 透發하여 肺氣와 有關하므로 魄汗이라하며, 汗孔을 또 魄門(즉 鬼門) 이라고도 한다. 一說에는 魄이 陰이고, 汗이 陰液이므로 이렇게 이름한다고 하였다. 玄府의 項 參照.

百合固金湯(백합고금탕)

補陰의 項 參照

百合病(백합병)

古病名이다. 金匱要略에 있음. 이는 一種의 心肺陰虛의 病證이다. 臨床表現은 沈默少言하며 欲睡해도 不能眠하고 欲行해도 走行不能하며 欲食해도 먹지 못하고 惡寒發熱이 있는 듯도 하고 없는듯도 하며 神志가 때로 不寧하고 或은 自言自語하기도 하며 口苦尿赤 脈數등의 內熱에서 나타나는 症狀을 隨伴한다. 神經衰弱 疑病(히스테리) 或은 一部 熱病의 後期 虛弱證의 類이다. 어떤 사람은 金匱要略에 百合 地黃등의 滋陰藥을 써서 本病을 治療하여 有效함으로 이렇게 이름한다고도 한다.

百骸(백해)

일반적으로 人體에 있는 大小骨格을 말함.(莊子, 齊物論에 있음).

白虎歷節(백호역절)

歷節風의 項 參照.

白虎湯(백호탕)

①<辛寒清氣>의 項 參照. ②<寒因寒用>의 項 參照.

白喉(백후)

本病은 流行性 疫毒이 口鼻에서 侵入하여 咽喉에 結滯되기 때문에 생긴다. 患者의 咽喉部에 白膜이 생겨 漸次 擴大되어 喉頭內外로 蔓延해서 呼吸에 障礙가 된다. 局部的

白膜이 堅固하여 떨어지면 出血이 된다. 調治를 그르치면 白膜이 喉間을 腫塞해서 室息을 일으킨다. 本病은 秋冬과 春季에 多發하며, 兒童에게 多見된다.

白喉(백후)

小兒에게 發生하기 쉬운 急性傳染病의 하나이다. 本病은 疫癘의 氣가 口鼻에서 侵入하여 肺胃의 二經을 侵犯해서 化燥 化火하여, 咽喉를 上薰하므로 惹起된다. 臨床表現은, 咽喉部의 粘膜에 灰白色의 잘 脫落되지 않은 一種의 假膜이 생기고, 全身에 中毒症狀이 나타나는 것이 特徵이다. 發病季節은 冬·春의 二季에 많다. 氣候가 乾燥한 環境에서 더욱 流行, 傳播되기 쉬우므로 「疫候」(疫候에는 爛喉痧와 白喉를 包括함. 白喉는 그중의 하나이다). 디프테리아이다.

蕃(번)

頰部の 後方, 耳根(耳垂가 顔面의 皮膚에 付着된 곳)의 前方部分.

煩渴(번갈)

「煩躁」의 項 參照.

煩亂(번란)

「內煩」의 項 參照.

煩熱(번열)

發熱과 同時에 心煩 或은 煩躁症이 있어서, 悶熱한 感覺이 생기는 것을 모두 煩熱이라 한다. 대개 裏熱이 過盛하기 때문에, 氣와 陰液이 受傷한 所致이다.

煩冤(번원)

「內煩」의 項 參照.

翻胃(번위)

反胃의 項 參照.

煩躁(번조)

胸中이 熱하고 不安함을「煩」이라하고, 手足을 擾動하며 不寧한 것을「躁」라 한다. 煩과 躁는 항상 併稱하는데, 虛實寒熱의 差異가 있다. 溫熱病의 邪熱이 入裏하면, 高熱, 口渴, 胸中煩悶, 手足擾動을 나타내는데, 이는 陽明實熱이다. 陽明은 四肢를 主管하고, 그熱이 盛하므로 四肢를 擾動한다. 대개 煩에서 躁에 이르는 것을「煩躁」라 한다. 다만 煩熱 口渴하고, 手足의 擾動이 없는 경우를「煩渴」이라 하며, 이는 熱이 盛하여 津液을 損傷한 現象이다. 모두 實熱證에 屬한다. 熱性病의 後期 或은 外感病의 過程에서 汗·吐·下한 後에도 餘熱이 未清하고, 胸中이 煩熱하며, 睡眠不寧한 것은, 虛火가 內擾한 것이며, 「虛煩」이라 하고, 虛熱證에 屬한다. 煩하고 身冷하며, 手足이 無意識적으로 움직이

며, 心身이 疲勞하고, 口乾한데 不飲하며, 脈이 細弱한 證候를「躁煩」이라 한다. 이는 虛陽擾動이며, 虛寒證에 屬한다.

燔針(번침)

火針의 項 參照

翻花楊梅(번화양매)

楊梅瘡의 項 參照.

翻花痔(번화치)

內痔의 一種이다. 오랜 期間 肛門외로 翻出되므로, 表面이 平滑하지 않고, 形狀이 翻花와 같으므로 이렇게 이름한다. 大便시에 下血하며, 견디기 어려운 疼痛이 있다.

翻花下疳(번화하감)

腎岩의 項 參照.

伐肝(벌간)

<抑肝>이라고도 함. 肝氣의 過旺을 抑制하는 治法을 써야 한다. 이를 <伐肝>이라 한다. 伐肝에는 일반적으로 柴胡, 靑皮, 廣木香, 佛手 等を 쓴다. 실제로는 疏肝의 類에 屬한다. 伐肝藥은 일반적으로 益脾藥과 同用한다. <培土抑木>의 項 參照.

泛惡(범악)

惡心이라고도 함. 胃脘部에 痰濁 濕邪 食滯等の 原因으로 嘔逆이 나면서도 吐하지 못하고 清涎 或은 酸水가 泛溢되는 症狀을 말함.

法醫(법의)

禮記 月令에 **상, 視折, 審斷등이 있는데 이는 古代 法廷에서 死傷事件을 檢證한 簡單한 기재이다. 五代時의 疑獄集(951年)은 和凝 父子가 著述한 것으로 現存하는 最古의 法醫學 著作이다. 宋代에는 內여錄(著者실명), 折獄龜鑑(鄭克 著, 1200年), 棠陰比事(萬榮 著, 1213年)등의 著作이 있다. 南宋에서는 檢驗格目과 檢餘正背人形圖가 採用되어 法醫學의 內容이 豊富해졌다. 후에 宋慈는 疑獄集, 內여錄 등서를 拔萃하여 당시의 法醫學의 새로운 經驗을 結合시켜 洗冤錄(1247年)을 編成했는데 이는 人體解剖 屍體檢査, 現場檢査, 어떤 機械에 의한 死傷原因의 鑑定, 당시의 各種 毒物 및 救急解毒의 方法들이 包括되었다. 本書는 古代法醫學의 名著로서 國外에도 큰 影響을 주게 되었다.

癖(벽)

「疝癖」의 項 參照.

擘(벽)

어떤 藥物은 자오하기 전에 먼저 수지로 쪼개어 藥미가 전출되기 쉽게해야 한다 예컨대 계지湯중의 대조는 과해야 한다

癖氣(벽기)

發病要因의 하나. 어떤 것에 치우쳐 오랜 期間에 걸쳐 習慣化된 畿湖이며, 대개 飲食方面을 指稱함.

벽瘟丹(벽온단)

丹의 項 參照

便毒(변독)

橫痃의 項 參照.

辨絡脈(변락맥)

望診內容의 하나이다. 絡脈은 여기서 [浮絡] 즉, 淺表部에 浮行하는 小血管叢을 말함. 絡脈의 色澤 充盈度 等を 診察하고, 아울러 皮膚의 冷暖을 結合시키면 臟腑 經脈 氣血의 病變을 아는데 도움이 된다. 예컨대 痛證으로 青色이 나타나면, 대개 氣滯 血凝에 起因한다. 痺痛으로 黑色이면, 대개 慢性의 寒證, 痛證에 屬한다. 皮膚가 灼熱하고 黃赤色이 되는 것은, 대개 濕熱로 因한 癰腫에서 볼 수 있다. 皮膚가 冷하고 淡白色이면, 대개 氣虛血小에 起因한다. 手掌 魚際部의 絡脈을 診察함은, 胃氣의 狀況을 判斷하는데 도움이 된다. 예컨대, [靈樞, 經脈篇]에서, “凡診絡脈 脈色青 卽寒且痛, 赤卽有熱, 胃中寒手魚之絡多青矣, 胃中有熱 魚際絡赤, 其暴黑者留久痺也(頑固한 痛證), 氣有赤 有黑有青者 寒熱氣也(寒熱錯雜의 病). 其青短者 少氣也(氣虛)”라 하였다. 이밖에 幼兒에 對한 診指紋 및 耳後의 絡脈을 診하는 것도 이 範疇에 屬한다. 辨絡脈은 반드시 臨床症狀과 서로 結合시켜야 하며, 아울러 그것이 環境의 差異에서 오는 生理變化가 아닌지의 區別에 注意해야 한다.

變蒸(변증)

小兒 變蒸의 說은, 西晉의 王叔和가 創始하였다. 所謂 變蒸은, 小兒의 出生後 32日만에 一變하고, 64日만에 一蒸한다. 이렇게 三大蒸을 再加하여 合計 576日으로써 變蒸이 끝남을 말함. 徐春甫의 「古今醫統」에서는, “變者性情變易也, 蒸者身體蒸熱也”라 하였다. 變蒸의 臨床表現은, 身微熱하고, 耳 및 臀部가 冷하며, 이밖에 다른 症狀은 없다. 歷代醫家들은, 모두 이러한 發熱證候를, 嬰兒發育過程의 正常的인 生理現像으로 보았다. 예컨대, 「小兒衛生總微論方」에서는, “每經一次之後 則兒骨脈氣血稍強, 精神性情特異”(回數를 거듭할 때마다, 嬰兒의 骨脈氣血이 약간씩 強해지고, 精神 性情도 두드러지게 달라진 다)고 하였다. 明의 張景岳은, 變蒸이 嬰兒發熱의 別名이지, 發育의 正常過程이 아니라고 하였다. 淸의 陳復正도 그의 見解를 支持하였다.

變證(변증)

治療上의 錯誤(例컨대 汗法 吐法 下法等의, 不適當한 使用이나, 或은 實證에 壅補法을 쓰는 등)나, 病者의 正氣不足, 調理失宜 等으로 因해, 疾病을 實證에서 虛證으로 轉變시키거나, 或은 單純한 情況을 複雜한 情況으로 轉變케 한 것이다. 例컨대, 傷寒의 太陽病에서 發汗이 過多하여 心陽을 損傷해서, 心悸怔忡, 胸悶不舒 等を 發함은 惡寒의 變證이다. 또 麻疹이 誘發不暢하여 麻毒이 內陷하면 疹點이 內收되어 喘逆等の 變證을 나타낸다.

辨證施治(변증시치)

辨證論治라고도 함. 韓醫學의 診斷方法을 運用하여, 病人의 複雜한 證狀에 대해, 分析 綜合하여 어떤 性質의 證인가를 判斷하는 것이 辨證이고, 다시 韓醫學의 證治原則에 根據해서 治療方法을 確定하는 것이 施治이다. 例컨대, 患者가 罹病初期에 頭痛, 身熱, 自汗, 微惡寒, 口渴, 咳嗽, 苔薄白, 脈浮數 等症이 있는 境遇, 分析 綜合을 通하여, 風溫病의 初期인 風熱表證으로 判斷하고, 그 治法은 辛涼解表로서, 辛涼平劑인 連翹散을 쓴다. 이것이 辨證施治의 具體的過程이다. 韓醫學에서 말하는 病과 證의 概念은 다른데, 兩者의 關係는 不可分이다. 病은 하나의 總稱이고, 證은 病이 나타내는 主客觀的 證狀이며, 疾病의 病因, 病位 性質과 病人의 身體強弱等이 相互 連繫된 一聯의 特徵이다. 一種의 病에 二種 或은 二種以上の 相異한 證이 出現할 수 있다. 例컨대 熱性病은 病因, 病位, 病人의 身體強弱等の 差異에 따라, 證候의 表現도 다르게 되어, 表證.裏證.半表半裏證.寒證.熱證.虛證.實證.陰證.陽證等 各異한 性質의 證으로 出現된다. 또 같은 證이 서로 다른 許多한 疾病에서 出現할 수 있다. 例컨대, 表證이 多種의 急性傳染病의 初期에 出現하게 된다. 疾病이 表現하는 證에 對하여 明確히 判別해서, 適當한 治療를 하게 라는 것이, 辨證施治의 主旨이다. 同時에 病과 證의 關係가 不可分이므로, 두가지 問題에 注意를 要한다. 첫째는 辨證施治에 있어서, 疾病의 特徵에 注意해야 하는 것이다. 例컨대 喉病 가운데도 爛喉痧(성홍열)와 白喉(디푸테리아)는 다르다. 爛喉痧의 主要證狀은, 局部가 紅腫糜爛하고, 赤色皮疹等이 있으며, 白喉의 主要症狀은, 咽喉에 灰白色의 僞膜이 있는데, 쉽게 剝離되지 않고, 無理하게 닦아내면 出血을 일으키는 등이다. 爛喉痧는 疫火가 內蘊한 것으로, 初期의 風熱證候에 辛涼清遊해야 한다. 白喉는 燥火가 傷陰한것으로, 初期의 陰虛肺燥證候에 養陰清肺해야 한다. 이는 辨證施治와 辨病施治의 相互 結合이다. 둘째는, 辨證施治에 있어서 主證부터 着手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는 것이다. 頭痛이 그 例이다. 外感頭痛에는 通常 表證이 있는 데, 內傷頭痛에는 肝陽, 腎虛, 痰濁等이 있어서 다르므로, 治法은 具體的 情況에 따라 決定해야 한다. 이는 하나의 主證에서 出現하여, 辨證을 進行해서, 各異한 治法을 決定하는 것이다.

胼胝(변지)

手掌 惑은 足蹠部(발바닥)의 皮膚에 多發한다. 長期的으로 壓迫되거나 惑은 摩擦되므로, 局部의 氣血의 運行이 阻滯되어, 皮膚의 角質이 增生變厚하며, 발바닥, 손바닥의 突出部位에서 常見되는 못이다. 皮膚의 增厚는 中央이 甚하여, 닿으면 堅硬하고, 邊緣이 不明瞭하며, 表面은 대개 光滑하고, 黃白色 惑은 淡黃褐色을 띠며, 대개 自覺症狀이 없

다. 但, 足跟部나 惑은 蹠部の 胼胝는 壓迫이 太甚하거나 惑은 繼發感染되므로, 頑硬腫痛하여, 步行이 困難해지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牛程蹇이라 한다.

便血(변혈)

일반적으로, 血이 肛門에서 下泄되는 것을 말하며, 糞便에 帶血이 되거나, 或은 單純히 下血하는 症候를 包括함. 本病은 脾虛하여 血을 統攝하지 못하는 데 起因하는 경우가 있고, 濕熱이 大腸으로 下注하여, 陰絡을 損傷하는 데 起因하는 경우도 있다. 血色이 暗紫色이면, 대개 氣虛 或은 濕毒에 屬하고, 血色이 鮮紅色이면, 대개 熱證에 屬한다.

別(별)

「絡穴」의 項 參照.

別絡(별락)

「絡穴」의 項 參照.

別濁(별탁)

「泌別清濁」의 項 參照.

驚血灸(별혈구)

灸의 項 參照

病克色(병극색)

病色相剋의 項 參照.

病機(병기)

疾病의 病因 病位 및 疾病過程中的 變化的 重要的 理致를 말함.

病機十九條(병기십구조)

이는 「素問·至眞要大論」에 있음. 先人들은 臨床實踐中에서 疾病의 어떤 類似的 證候를, 어느 하나의 病因, 혹은 어느 하나의 臟의 範圍內에 歸納시켜, 辨證에서 病因을 찾는 根據로 삼게 19條로 列舉하였다. 그중六淫에 屬하는 것이 13條이고, 五臟에 屬하는 것이 6條이다. 이들 病機를 把握하면 일부 比較的 複雜한 病狀에 대하여 簡潔하게 要約할 수 있는 效果가 있지만, 이는 一種의 概略的 分類歸納일 뿐이며, 臨證에서는 반드시 具體的病情과 連繫시켜, 全面的인 分析을 해야만 비로소 實際와 附合된다. 病機十九條는 다음과 같다. ①諸風掉眩 皆屬於肝: 이는 一般的인 內風疾患으로, 頭目昏花 肢體動搖等症은 대개 肝의 病變에 屬한다는 뜻이다. ②諸寒收引 皆屬於腎: 이는 一般的인 陰寒內盛으로, 筋脈의 攣急, 關節의 屈伸不利(顔色蒼白 形寒肢冷 小便清등을 {06}兼現함)는 대개 腎의 病變에 屬한다는 뜻이다. ③諸氣膹鬱 皆屬於肺: 이는 一般的로 上焦의 氣

機不利로 因해 出現하는 呼吸促迫, 胸部鼻塞의 症狀은 대개 肺의 病變에 屬한다는 뜻이다. ④諸濕腫滿 皆屬於脾: 이는 一般的로 水濕이 貯留되어 出現하는 浮腫脹滿의 症狀은 대개 脾의 病變에 屬한다는 뜻이다. ⑤諸熱脊癢 皆屬於火: 이는 一般的인 熱病로, 神志昏迷 抽搐 등의 症狀을 나타내는 것은 대개 火證에 屬한다는 뜻이다. ⑥諸痛痒瘡 皆屬於心: 이는 一般的인 皮膚瘡瘍으로, 熾熱疼痛 瘙痒의 症狀을 出現함은 대개 心火熾盛에 屬하며, 血分에 熱이 있는 所致라는 뜻이다. ⑦諸厥固泄 皆屬於下: 이는 一般的인 厥逆 便秘 泄瀉 등의 證候는 대개 下焦의 病變에 屬한다는 뜻이다. ⑧諸痿喘嘔 皆屬於上: 이는 一般的인 痿證 氣喘 嘔吐 등의 病症은 대개 上部의 肺胃의 病變에 屬한다는 뜻이다. ⑨諸禁鼓慄 如喪神守 皆屬於火: 이는 一般的인 熱病으로, 口噤 寒戰鼓頤 神志失常등을 나타낸 것은 대개 火證에 屬한다는 뜻이다. ⑩諸瘰癧強 皆屬於濕: 一般的인 身體強直이나 혹은 頸項의 勁強 轉動障礙는 대개 濕證에 屬한다(濕濁이 筋脈 肌腠를 傷함)는 뜻이다. ⑪諸逆衝上 皆屬於火: 이는 一般的로 氣逆上衝하여, 噦逆(딸꾹질)을 連發하며, 噴射狀의 嘔吐를 하는 등은 대개 火證에 屬한다는 뜻이다. ⑫諸腹脹大 皆屬於熱: 이는 一般的로 腹部가 堅硬 脹滿(便秘 尿澀 煩熱 口苦 등을 兼現)한 것은 대개 熱證에 屬한다는 뜻이다. ⑬諸躁狂越 皆屬於火: 이는 一般的으로 煩燥發狂하고 舉動異常의 症狀을 出現함은 대개 火證에 屬한다는 뜻이다. ⑭諸暴強直 皆屬於風: 이는 一般的로 突然 筋脈이 剛直하며 瘳攣을 나타내는 症狀은 대개 風證에 屬한다는 뜻이다. ⑮諸病有聲 鼓之如鼓 皆屬於熱: 이는 一般的로 腹脹 腸鳴하여 두드리면 鼓音이 나는 것은, 대개 熱에 屬한다는 뜻이다. ⑯諸病跗腫 疼酸驚駭 皆屬於火: 이는 一般的로 下肢足背에 浮腫이 생겨 痠疼의 感覺이 있으며, 또 心神不安 驚駭의 症狀을 나타내는 것은 대개 火證에 屬한다는 뜻이다. ⑰諸轉反戾 水液渾濁 皆屬於熱: 이는 一般的로 抽筋 角弓反張하고, 肢體가 強直하며, 小便이 混濁한 것은 대개 熱證에 屬한다는 뜻이다. ⑱諸病水液澄澈清冷 皆屬於寒: 이는 一般的로 體內에서 排出되는 水液이 淡薄 透明하고 寒冷하면, 대개 寒證에 屬한다는 뜻이다. ⑲諸嘔吐酸 暴注下迫 皆屬於熱: 이는 一般的로 嘔吐物에 酸臭腐味가 있고, 혹은 比較的 急迫한 噴射狀泄瀉로 裏急後중한 感覺이 있는 것은, 대개 熱證에 屬한다는 뜻이다.

病脈(병맥)

疾病이 反映된 脈象의 變化를 말함. 一般的으로, 正常的인 生理變化의 範圍에 屬하는 것과 個體의 生理上의 特異性에 의한 것 以外의 脈象은 모두 病脈에 屬한다. 例컨대 같은 洪數의 脈象이라도, 極烈한 運動을 하고 있는 사람이면, 그 시점의 生理狀態를 反映한 것이며, 그렇지 않은 경우는 病脈에 屬한다.

病發于陰(병발우음)

①一般的으로 內臟 或은 陰經에서 發生하는 病證을 말하며, 病辨部位가 裏部에서 反映된다. ② 六經辨證中에서 陰證을 辨別하는 基本原則이다. 즉 病人이 發熱하지 않고 惡寒을 나타내는 것은 陰經의 病辨에 屬한다.

併病(병병)

傷寒病에서 一經의 證候가 未癒한데, 또 다른 一經의 證候가 出現함을 말함. 例컨대 太陽과 陽明의 併病, 太陽과 少陽의 併病 등이다.

病色(병색)

疾病이 反映된 色澤상의 變化으로서, 診斷상 面部의 色澤을 爲主로 한다. 病色에 善,惡의 區分이 있다. 어떤 種類의 顏色이 나타나든간에 明潤이 含蓄된 것은 모두 佳한 것으로, 善色이라 稱하며, 一般的으로 病情이 較輕하고 或은 豫後가 良好함을 表示한다. 만약 顏色에 枯槁 不澤이 露顯되면 惡色이라 稱하며, 一般的으로 病情이 較重하고, 豫後가 不良함을 標示한다. 色診, 五色主病의 各項 參照.

病色相剋(벼아색상극)

臟腑의 相互 相剋關係에 依據하여, 顏色의 變化를 分析함으로써 病情의 順逆을 判斷하는 一種의 方法이다. 五行學說에 의하여, 有病한 臟腑와 面部에 나타난 色澤이 相剋되는 것을 모두 病色相剋이라 稱하며, 一般的으로 모두 逆證에 屬寒다. 例컨대, 麻疹類는 血熱의 病(屬火)으로, 白色(屬金)을 나타내면, 火克金의 關係에 根據해서 病克色이라 稱하여, 病情이 加重될 수 있다고 說明한다. 또한 肺結核證(肺金屬)으로 兩類에 潮紅色(屬火)을 나타내면 위와 같은 火克金의 理致로 [色克病]이라 稱하여, 역시 病情이 加重됨을 標示하는 것이다. 이들은 다만 臨床辨證에 參考으로 삼을뿐이지, 必然的이라고 볼 수는 없다.

病兒(병아)

「惡阻」의 項 參照.

病案(병안)

醫案의 項 參照

屏翳(병예)

會陰의 項 參照.

病溫(병온)

얇는 病症이 溫邪의 性質에 屬하는 것을 말함

併月(병월)

「經閉」의 項 參照.

病因辨證(병인변증)

辨證施治方法의 하나이다. 各異한 病因은 人體內部的 矛盾을 通하여 各異한 變化를 惹起하게 된다. 그러므로 疾病의 各異한 表現에 根據하여, 病因을 追求해서, 治療 用藥의

根據로 삼는다. 例컨대 眩暈, 震顫, 抽搐은 大概 風에 屬하며, 煩躁, 發狂, 神昏은 大概 火에 屬하는 等이다. 이러한 分析方法을 審證求因이라 한다. 臨床上, 通常 八綱辨證과 結合시켜 相互 補充한다.

病傳(병전)

疾病의 傳變을 말함.

病侯(병후)

疾病의 外侯의 通稱이다. 즉 疾病이 反映되어 나타나는 現象으로서 症狀과 體徵을 包括한다.

輔骨(보골)

臂骨(前腕骨)中の 하나. 前臂部에 있으며, 解剖學上的 橈骨.

補氣(보기)

益氣라고도 한다. 氣虛증을 치료하는 방법이다. 血虛에도 補氣법이 상용된다. 氣가 왕성하면 生氣할 수 있기 때문이다. 예컨대 心氣가 虛하면 神情疲憊, 脉冷脉動, 面色虛浮, 心悸, 嗜臥, 自汗, 舌淡白, 脈虛弱등을 나타낸다. 養心湯(黃芩, 茯苓, 白茯苓, 半夏曲, 當歸, 川芎, 遠志, 酸棗仁, 肉桂, 柏子仁, 五味子, 黨參, 炙甘草)을 쓴다. 脾氣가 虛하면 言語氣短, 四肢無力, 消化力弱, 大便稀薄, 脫肛, 舌淡苔薄白, 脈濡緩 등증을 나타낸다. 補中益氣湯(黃芩, 炙甘草, 丹參, 白朮, 當歸, 橘皮, 升麻, 柴胡)을 쓴다. 肺氣가 虛하면 咳嗽氣短, 痰液清稀, 疲倦하여 말하기 싫어하고 語聲低微, 面色白, 舌淡苔薄白, 自汗, 脈虛弱 등증을 나타낸다. 補肺湯(黨參, 黃芩, 炙甘草, 五味子, 山藥)을 쓴다. 腎氣가 虛하면 面色淡白, 腰脊痠軟, 聰力減退, 小便清而頻數 심하면 小便不禁하기도 하고 滑精早泄, 舌淡苔薄白, 脈細弱을 나타낸다. 大補元煎(熟地黃, 黨參, 山藥, 杜仲, 酸棗仁, 枸杞子, 山茱萸, 炙甘草, 破故紙, 白朮, 肉桂, 附子)을 쓴다. 補氣약은 脾腎에 濕痰이 있는 경우는 신용해야 한다. 꼭 써야 할 경우에는 化痰祛濕약을 배합해서 동용하면 좋다.

補氣固表(보기고표)

氣虛하면 自汗하기 쉽다. 예컨대 心氣가 虛하거나 肺氣가 虛하면 모두 자한하게 되는데 보기약을 쓰면 자한이 정지된다. 이를 보기고표라고 한다. 예로써 黃芩, 白朮은 이런 작용을 具有한다.

補氣瀉下(보기사하)

<攻補兼施>의 項 參照.

補氣止血(보기지혈)

<補氣攝血>이라고도 함. 氣虛로 因한 出血이 오래도록 不止함을 治療하는 方法이다. 例컨대, 婦女의 子宮出血이 日久하여, 血色이 較淡하고 稀薄하며, 面色蒼白, 心慌氣短,

精神萎靡,四肢清冷,舌淡苔白,脈細軟한 경우,黨蔘,黃芪,白朮,灸甘草,當歸,熟地黄 등을 쓴다. 보기섭혈(보기섭혈);<補氣止血>의 項 參照.

補氣解表(보기해표)

<益氣解表>의 項 參照.

補母(보모)

<虛子補其母,實子瀉其子>의 項 參照.

補法(보법)

補益,補養이라고도 함.이는 인체의 氣血陰陽의 不足을 補養하여 각종 虛症을 治療하는 方法이다.虛症에는 氣虛,血虛,陰虛,陽虛의 차이가 있으며 補法도 補氣,補血,補陰,補陽등으로 나뉜다.人體의 氣血陰陽은 상호 依存되어 있으므로 각종 補法도 왕왕 配合해서 使用한다.예컨데 血奪益氣에는 補血藥中에 補氣藥을 가용한다. 또 腎陽의 補益을 위주로 하고 腎陰의 補益을 보조로 하여 陰陽을 협조케 하는 경우도 있다. 實邪가 아직 남아있는 病症에는 보법을 써서는 안된다. 滋補하므로 病邪가 滯有不去함을 피하기 위해서이다.만일 病邪가 微解한데 正氣가 이미 虛한 경우에는 祛邪藥중에 補益藥을 가미한다.이것이 扶正祛邪이다.

補脾(보비)

<健脾>의 項 參照.

補脾益肺(보비의폐)

<培土生金>이라고도 함.脾土를 補培하는 方法을 써서 脾의 機能을 強健케 하여 正常으로 回復시킴으로써 肺臟虧虛의 病症을 治療하는 것이다.例컨데 肺虛久咳,痰多清稀하며 食慾減退를 수반하고 甚하면 浮腫하고 舌質淡苔白,脈濡細한 경우 黨蔘,茯苓,白朮,山藥,木香,陳皮,半夏 등을 쓴다.

補瀉(보사)

보와 사는 治療상의 두개의 重要원칙이다 보는 주로 허증의 治療에 쓰이고 사는 주로 실증의 治療에 쓰인다. 針灸治療에 있어서의 補瀉는 주로 각이한 수법의 應用을 통하여 각이한 刺戟강도와 특징을 산생함으로서 얻어진다. 고대에 應用한 針법 補瀉종류는 매우 많다. 그 주된것으로는 영수 補瀉, 질서補瀉, 염전補瀉등이 있다 각해당項 參照

補腎(보신)

補腎陰과 補腎陽을 포함함. 補陰과 補陽의 項參照

補腎納氣(보신납기)

納氣의 項參照

補心丹(보심단)

補陰의 項 參照

補陽(보양)

보법의 項 參照

補陽(보양)

助陽이라고도 함. 陽虛증을 치료하는 방법이다. 陽虛에는 心陽虛 脾陽虛 腎陽虛등의 차이가 있다. 心脾의 陽虛등을 치료하는 방법은 溫法중에 기술되어 있다. 補陽은 주로 腎陽虛를 보하는 것을 말한다. 腎陽虛인 경우에는 腰膝이 산冷疼痛하고 軟弱無力하며 陽위滑精,小便頻數,苔淡白,脈沈弱등을 나타낸다. 右歸飲(熟地黃,山藥,山수유,當歸,枸杞子,鹿角膠,杜沖,토사자,肉桂,附子)을 쓴다. 補腎陽藥은 대개 溫燥하므로 陰虛인에게는 忌用한다.

補陰(보음)

益陰,陽陰,育陰,滋陰이라고도 함. 陰虛症을 治療하는 방법이다. 예컨대 心虛症인 경우에는 心悸,健忘,失眠多夢,舌質淡紅,苔少,脈細弱以數등의 증을 나타낸다. 補心丹(丹參,玄蔘,黨參,白茯苓,五味子,遠志,桔梗,當歸身,天門冬,麥門冬,柏子仁,酸棗仁,生地黃)을 쓴다. 肺陰虛인 경우에는 眩暈頭痛,耳鳴耳聾,麻木,震顫,夜盲,舌質紅乾少津,舌少,脈細弦數 등증을 나타낸다. 杞菊地黃丸(枸杞子,菊花,熟地黃,山수肉,乾山藥,澤瀉,茯苓,牡丹皮)을 쓴다. 肺陰虛인 경우에는 咳喘氣逆,痰少質粘,痰中帶血,午後低熱,관紅,夜間盜汗,睡眠不安,口乾咽燥,或音啞,舌紅少苔,脈細數 등증을 나타낸다. 百合固金湯(百合,生地黃,熟地黃,麥門冬,炒白芍,當歸,貝母,生甘草,玄蔘,桔梗)을 쓴다. 腎陰虛인 경우에는 腰酸腿軟,遺精,頭昏耳鳴,睡眠不足,健忘,口乾,舌紅少苔,脈細等증을 나타낸다. 六味地黃丸(熟地黃,山수유,乾山藥,澤瀉,茯苓,牡丹皮)을 쓴다. 滋陰의 項 參照

補益(보익)

보법의 項 參照

報刺(보자)

十二刺의 一種 痛處가 一定하지 않은 疼痛을 治療하는데 쓰인다. 刺法은 痛處를 찾아서 直刺하여 留針불발하고 左手로 局部를 순안하면서 다른 하나의 痛處를 찾아 먼저 자한 針은 拔出하고 두번째 痛處에 刺針한다(靈樞 官針篇)

補劑(보제)

補可去弱으로서 人蔘, 黃기의 類이다. 藥은 허약한 病證을 뜻하며, 補益하는 藥物으로써 治療해야 한다. 人蔘 黃기를 함께 煎熬한 것을 參기고라 하며 脾肺의 氣虛를 治한다. 또 비위가 衰弱하여 消化力이 弱하고 食慾이 不振한 等證의 경우 四君子湯(黨參, 白朮,

茯苓, 甘草)을 쓰면 좋다.

補中益氣湯(보중익기탕)

「昇劑」의 項 參照.

補中益氣湯(보중익기탕)

甘溫除大熱의 項 參照

補中益氣湯(보중익기탕)

補氣의 項參照

補托法(보탁법)

內托의 項參照

補土派(보토파)

「金元四大家」의 項 參照.

補肺湯(보폐탕)

補氣의 項參照

補血(보혈)

養血이라고도 함. 血虛증을 치료하는 방법이다. 혈허증의 임상표현은 面色蒼白, 脣舌爪甲色淡 頭暈目眩 心悸 氣短 女子月經不調 量少色淡 등증이다. 1)補血, 和血: 失血후에 신체쇠약, 血虛發熱하고 혹은 癰疽의 潰破후 午後에 身熱口渴하며 혹은 부녀의 월경부족, 臍腹作療, 崩中漏下, 舌質淡하고 脈虛 등증에 四物湯(熟地黃, 白芍藥, 當歸, 川芎)을 써서 치료한다. 2)氣血雙補: 예컨데 失熱過多, 飲食減少, 肌肉消瘦, 婦女崩漏, 呼吸氣短의 兼發, 語聲低微, 과冷과動 등증에 八物湯(當歸, 熟地黃, 白芍藥, 川芎, 黨參, 白朮, 白茯苓, 甘草)을 써서 치료한다. 3)補氣生血: 血虛자의 肌膚가 燥熱하고 面紅目赤, 心煩口渴, 喜飲水, 脈洪大而虛寒데, 重按即微하고 婦女的 行經, 産後 혹은 癰疽의 潰破후 血虛發熱 하는데 當歸補血湯(當歸酒洗두돈, 황기자하여 한냥)을 써서 치료한다.

補火生土(보화생토)

<溫補命門>의 項 參照.

保和丸(보화환)

消導의 項 參照

伏(복)

泡의 項 參照

腹(복)

胸部의 下方, 橫膈膜以下の 部分에 該當함. 그중 臍以上の 部分을 大腹이라 하고, 臍以下の 部分을 小腹 惑은 少腹(一說로는 臍의 兩傍을 少腹이라 함)이라 함.

伏氣(복기)

病邪가 體內에 伏藏하다가, 相當時期가 지나서 發病하는 것을 말함. 鬱熱이 內發하면 가장 傷陰하기 쉽다. 病變部位에 深과 淺이 있고, 少陽·陽明·少陰·厥陰 등 各異한 經에 發하기도 한다. 邪鬱이 깊을 수록 病情이 重하다. 發病時에는 裏에서 表에 이르며, 病程이 대가 길고, 多變的이다. 「伏氣溫病」의 項 參照.

復氣(복기)

勝復의 氣는 季節의 바뀔에 따라 法則的이라고 認識되어, 下半年에 上半年과 相反되는 氣候가 發生하는 것을 「勝氣」라 함. 「勝復」의 項 參照.

伏氣溫病(복기온병)

新感溫病과 區別되는 다른 한 種類의 溫病이다. 外邪를 感受하였으나, 邪氣가 輕하여 發病條件을 造成하기에는 未及해서 裏에 溫伏하는 境遇가 있고 혹은 平素 內部에 積熱이 있어서 一定 時間에 이르러 時邪를 感受함으로써 內伏했던 鬱熱이 裏部에서 流出하는 境遇가 있다. 이들을 모두 伏氣溫病(一說로는 溫邪의 感受가 比較的 甚하여 發病하자 곧 裏症을 나타내는 것이라 함)이라 한다. 그 特徵은 發病하면 곧 煩渴, 舌強, 尿赤, 脈數 등의 裏熱症候를 나타내어 往往 衛分症候가 뚜렷하지 않다. 예컨대 春溫, 伏暑, 溫瘧 등은 모두 이런 種類의 溫病에 속한다. 伏氣溫病과 新感溫病은 實質적으로 모두 溫邪를 感受하여 發하는 病으로서 다른 점은 주로 臨床表現의 差異이다. 이는 아마도 病邪의 性質, 治病의 經路, 病變部位, 病因의 體質 등의 要因의 差異에 起因한 것으로 보인다. 故로 반드시 症候에 依據해야 하며 症候를 떠나서는 病因을 公論할 수 없다. 또 伏氣를 疾病의 潛伏氣로 봐서도 안된다. 古人이 말한 伏邪가 冬伏했다가 春夏에 이르러 發病하거나 혹은 暑邪가 潛伏했다가 冬季에 이르러 發病한다는 說은 다만 參考로 하는데 그칠뿐이다. 臨床實際에서 出發하여 新感和 伏氣를 判別하면 病氣의 傳變, 預後, 治療 등에 一定한 臨床的 意義가 있으며 특히 伏氣溫病의 治療經驗은 크게 參考할 價値가 많다.

伏痰(복담)

宿痰이라고도 함. 水飮이 內熱로 因해 煎熬되어 痰이 된 것을 말하며 比較的 오래 橫膈膜 사이에 停留되므로 이렇게 이른다. 伏痰과 伏飮의 意義는 基本的으로 같은데 飮은 대개 胸腹部(胸腹部, 四肢에 潛伏되어 水腫이나 胸腹腔內的 積液과 類似하며 痰은 全身에 各處에 潛伏되고 一般的으로 喀痰症狀이 있는 疾病외에 癲癇이나 一部 關節病 및 淋巴腺腫大의 病證 등은 辨證施治面에서 往往 伏痰과 有關하다.

伏梁(복량)

古病名이다. 主로 心下에서 臍部周圍에 걸쳐 包塊를 形成하는 病證을 말하며 대개는 氣血이 結滯된 所致이다. 古代文獻에서 本病의 症狀을 著述함에 있어서 크게 三種類으로 說하였다. ① 五積病의 하나이며 心의 積에 屬함. 症狀은 臍下에서 心下部에 걸쳐 包塊가 있는데 크기가 手臂와 같고 오래 不愈하며 心煩 睡眠不安을 일으킨다.(難經五十六難) ② 下腹部가 堅硬脹滿하며 包塊가 腹腔腸胃의 外面에 생겨 밀어도 移動하지 않고 内部에 膿血이 瘀積되며 臍周圍가 疼痛하고 身重하며 四肢이 浮腫하고 按擦을 忌한다. ③ 包塊가 心胸의 下部에 있으며 능히 升降하고 때로 唾血한다.(靈樞邪氣臟腑病形篇)

腹滿(복만)

腹脹滿이다. 이는 腹部가 脹滿한 症狀이며 虛實의 區分이 있다. 虛證은 대개 脾陽失運의 所致이며 언제나 下利 腹滿痛하고 喜溫喜按하며 苔白 脈緩弱을 兼發한다. 實證은 대개 胃腸에 熱結한 所致이며 언제나 便秘가 되고 腹痛拒按하며 舌苔가 黃燥하고 脈象이 沈實有力한 症狀을 나타낸다.

伏脈(복맥)

脈象의 一種. 脈象이 隱伏하여 脈에 닿도록 重按해야만 느낄 수 있다. 亡證, 極痛 或은 邪氣가 內閉된 病症에서 볼 수 있다.

複方(복방)

二方 혹은 數方을 結合해서 使用하는 것을 複方이라 한다. 이밖에 두가지 意義가 있다. 1)本方외에 其他의 藥味를 加하는 것 2)方劑의 各藥物의 用量을 모두 같게 하는 것 病情이 複雜하거나 或은 慢性病이 久治해도 不癒하는 경우에 適用된다. 例로서 柴胡四物湯은 小柴胡湯에 四物湯을 合한것이다(柴胡, 人蔘, 黃芩, 甘草, 半夏, 川芎, 當歸, 芍藥, 熟地黃, 生薑, 大棗, 虛勞가 日久하여 寒熱이 약간 있고 脈이 沈數한 證候를 治한다.

伏熱在裏(복열재리)

體內에 熱邪가 內伏해 있거나 或은 其他의 邪氣가 鬱하여 熱로 化해서, 腸胃에 波及되어 熱이 集積되는 등을 말함. 發病時에는 咽乾 口臭 舌紅苔黃乾 腹脹壓痛 大便秘結 或은 臭穢 小便黃短 등의 內熱증상이 나타난다.

伏陰(복음)

痰飲이 體內에 潛伏하여 恒상 發作하는 것을 말함. 그 症狀은 腰部가 痠痛하고 惡寒發熱하며 胸脇이 脹滿하고 咳嗽嘔吐하며 甚하면 눈물이 自出하고 全身이 떨린다.

腹脹滿(복창만)

腹脹 腹滿의 項 參照.

伏衝(복충)

衝脈의 循行이 脊椎骨內로 進入하는 部分을 말함. 衝脈이 體內的 深層部에 있으므로 伏衝이라 한다(靈樞·百病始生篇).

伏兔(복토)

①腿를 폈을 때, 大腿部の 前面의 筋肉의 最高隆起部. 모양이 伏兔와 같으므로 이렇게 이름한다. 大腿直筋의 部分에 該當함. ②穴位名. 股部에 있으며, 臑骨(膝蓋骨)上緣의 上方 6寸, 足陽明胃經에 屬함.

腹皮癰(복피옹)

腹壁部에 생기는 癰을, 上下左右를 가리지 않고 「腹皮癰」이라 統稱한다. 但, 臍部에 생기는 것은 「臍癰」이라 함. 대개는 濕熱火毒이 蘊結되고, 氣血이 凝滯되기 때문에 생긴다. 또한 臍孔에 생긴 濕疹을 搔破한 後에 感染되어 생기는 수도 있다. 潰出되는 膿液이 粘稠하고 無臭한 경우는 쉽게 아문다. 만약 膿液이 臭穢하고, 粉狀物이 섞이게 되면 「臍漏」를 形成하기 쉽고, 잘 아물지 않는다.

伏瘕(慮瘕)(복가)

古病名이다. 「素問·氣厥論」에 있음. 「慮」과 「伏」은 音義가 같다. 一種의 邪氣가 大腸에 潛伏하는 瘕證을 말함. 下腹部에 때로 塊狀物이 鼓起하는데, 때로는 消散되고, 腹痛 便秘 等症을 隨伴한다. 대개 大腸의 熱氣가 鬱積되는 所致이다.

本節(본절)

手部の 手根中手關節(혹은 足部の 中足之關節)이 手背(혹은 足背)에서 外形上 隆起된 곳. 手足에 各 10개의 本節이 있다.

本草(본초)

中國古來의 藥物을 記載한 著作을 本草라 한다. 本草에 記載된 藥物에는 植物 動物 鑛物과 釀造된 飲料食品 및 小數의 化學製品등이 있다. 그중에 草類가 가장 많으므로 本草라고 이름하였다 오대시 蜀의 韓保昇은 藥有玉石草木蟲獸 而云 本草者 爲諸藥中草類最多也 라 하였다. 또 北宋時의 蘇頌이 編한 圖經本草는 藥物 圖譜의 一種이다.

封髓丹(봉수단)

<堅陰>의 項 參照.

蜂窩疽(봉와저)

「發背」의 項 參照.

封藏失職(봉장실직)

「封藏」은 封閉, 貯藏의 뜻. 腎에는 精氣를 貯藏하는 機能이 있고, 二便을 主管한다. 腎

氣가 不固하면, 遺精, 滑精, 早漏, 小便失禁, 夜尿頻多, 未明泄瀉 等症을 나타내는데, 이를 封藏失職이라 한다.

封藏之本(봉장지본)

腎藏精의 項 參照.

鋒鍼(봉침)

古代 九針의 一種이다 현대 常用되는 삼릉針이다 針체가 둥굴고 針침은 삼릉상으로 날이 있다 주로 皮下 정맥과 소혈관 을 차과하는데 쓰이며 癰腫 熱病 急性腸炎등을 治한다.

夫(부)

「同身寸」의 項 參照.

敷(부)

신선한 식물약을 잘게 썰어서 짓쪄거나 혹은 건조된 약을 갈아서 분말로 만들어 酒 蜜 醋 등을 가하여 이겨서 皮膚의 환부에 도포하며 일정시간이 지날 때마다 약을 갈아붙여 약물이 비교적 오랜 시간작용을 발휘하도록 한다. 예컨대 挫傷으로 관절근육이 동통할 때 鮮梔子를 적량 밀가루와 함께 찢어 주를 소량 가하여 반죽해서 상처에 붙인다. 종양의 초기에도 외부약으로 상용된다.

跗(부)

足趺라고도 함. 俗稱 脚面. 足背部. 발등.

附骨疽(부골저)

筋骨部位에 생기는 疽를 <附骨疽>라 함.대개는 風寒濕이 筋骨을 저애하여 氣血이 凝滯된 所致이다.처음에는 寒熱往來가 나타나며 이어서 筋骨이 疼痛하고 表面은 不紅不熱한데 송곳으로 찌르는 듯이 疼痛하여 屈身轉動이 불능하고 오래되면 寒鬱이 化熱하고 腐肉이 化膿하는데 외형은 여전히 넓게 腫起하고 腫頭가 생기지 않으며 皮膚색도 변하지 않는다.유과후에는 稀膿이 淋瀝不止하여 쉽게 아물지 않으며 骸骨이나 死骨을 형성하기 쉽다.死骨이 탈출된 후에야 연차로 유합된다.化膿性骨髓炎의 類이다.

符禁門(부금문)

禁의 項參照

不得眠(부득면)

不寐라고도 함. 잠들기 어렵거나 或은 자도 熟眠하지 못함을 말함. 대개 精神科로 陰虛 內熱하고 血虛하여 養心不能하며 憂思鬱結 老人의 陽氣衰退 胃不化 或은 火食痰鬱 溫病의 裏熱熾盛等の 原因에 의해 일어난다.

不得前後(부득전후)

「前」은 小便을 뜻하고, 「後」는 大便을 뜻하며, 二便不通을 말함.

浮絡(부락)

[辨絡脈]의 項 參照.

浮絡(부락)

皮下의 淺表에 있는 絡脈을 말함. 例: 「素問·皮部論」에서 “視其部中有浮絡者 皆陽明之絡也”라 하였다.

浮脈(부맥)

脈象의 一種, 脈을 가볍게 浮取하면 느끼는데 重按하면 感覺이 減弱된다. 主病은 表에 있으며, 浮하고 有力하면 表實이며, 浮하고 無力하면 表虛이다. 感冒와 一部 急性熱病의 初期에 多見된다. 이밖에 一部 久病으로 陽氣가 虛損해도 浮大無力한 脈이 나타난다.

附餅灸(부병구)

생부자의 세말에 물을 붓고 박병상을 만들어 그 위에 艾柱를 놓고 施灸한다. 慢性瘡瘍이 오래 수구되지 않고 유수가 될 뿐 농이 없는 경우에 利用된다.

釜沸脈(부비맥)

七怪脈의 一種. 脈象이 極히 浮數하며, 나오는 것이 있고, 들어가는 것이 없는 脈象으로, 술에서 湯水가 沸騰하는 것 같다.

臍疝(부산)

古病名이다. 臍下部에 硬結한 腫塊가 생기는 病症이다.

腑輸精於臟(부수정어장)

五臟은 精氣의 소장을 主管하고, 六腑는 『傳化物』(飲食物의 消化 吸收 轉送作用을 말함)하며, 또한 倉廩之本(水穀倉庫의 根本)이 된다. 五臟六腑는 必須的으로 胃氣의 供養에 依存해야 하므로, 『靈樞, 五味編』에서 “五臟六腑皆稟氣於胃”라고 하였다. 營氣는 中焦에서 나오며, 胃는 精氣를 輸送하여 五臟을 灌溉하고, 小腸은 飲食物을 한층 더 消化하여, 清濁을 分別해서, 水穀의 精微를 五臟으로 轉送하여 貯藏케 한다. 胃와 小腸의 이런 機能은 『藏輸精於臟』(腑가 臟으로 精을 輸送함)의 生理作用으로 體現된다.

浮陽(부양)

引火歸原의 項參照

趺陽脈(부양맥)

衝陽脈이라고도 함. 古代의 三部九候遍診法의 切脈部位의 하나이며, 足陽明胃의 經脈에 屬하고, 脾胃를 살피는데 쓴다. 이 脈位는 足背上 踝關節의 前方의 橫紋의 兩筋間(解谿穴)의 前方 1寸5分되는 前勁骨動脈의 搏動部位이다.

扶陽退陰(부양퇴음)

[益火之原, 以消陰翳]의 項 參照.

浮熱(부열)

①陰寒이 內部에 盛하여, 虛陽이 外部에 浮出하는 眞寒假熱을 말함. ② 外感初期의 表熱을 함.

腑俞七十二穴(부유칠십이혈)

「五腧穴」의 項 參照.

婦人(부인)

醫學述語中에서 婦人이란 古代에 婦女의 病을 治療한 傳科를 말하며 女科라고도 함. 現在의 産婦人科에 該當함

浮刺(부자)

十二刺法의 一種 汗성의 근육경련을 治療하는데 쓰인다 그 자법은 환처의 측방에서 천자한다.靈樞 官針篇)

附子理中湯(부자이중탕)

<回陽救逆>의 項 參照.

咬咀(부저)

靈樞 壽夭剛柔篇에 있음 부저는 부嚙이란 뜻이다 古代에 칼이 없었을 적에는 藥物을 씹어서 조림으로 만들어 물을 붓고 진복하였다 후인이 칼은 써서 자르거나 혹은 찢고 썰게 되었다

釜底抽薪(부저추신)

排便시킴으로써 實熱을 瀉去하는 것이다.이 方法은 가마솥 밑에서 타는 켄(薪)을 꺼내어 솥 안의 온도를 내리는 방식과 흡사하므로 이렇게 말한다.<寒下>法의 (1)및<急下存陰>法이 이에 해당한다.

不傳(부전)

外感病이 病情의 長短을 不問하고, 主症이나. 主脈이 不變하여, 病邪가 如前히 一經에

있음을 反映하는 것이다. 例컨대. 太陽病의 脈浮가 不變하고, 惡寒 頭痛의 症狀이 如前히 存在하면, 罹病期間이 길더라도 如前히 太陽病에 屬한다.

扶正祛邪(부정거사)

[正]은 人體의 正氣를 말하며, [邪]는 病因 病邪를 말함. [扶正]은 正氣를 扶助하는 藥을 써서 正氣를 加強케하여, 病邪를 消除하는 것이다. [祛邪]는 病邪를 救濟하는 藥을 쓰는 것이며, 正氣를 扶助하기도 하는 것이다. 무릇 病邪가 盛하고, 正氣도 比較的 強한 實證으로, 例컨대 어떤 感染性疾病의 實證期에는 祛邪法으로서, 解表, 清熱, 解毒, 瀉下等法을 單用한다. 그러나 陰寒證으로 傳變하여 虛脫傾向이 있을 경우, 病邪가 旺盛하고 正氣가 衰微하면, 扶正法으로서 이를테면 [回陽救逆]法을 採用해야 한다. 이밖에 感染性疾病의 過程에서도, 具體的 情況에 따라, 分別해서 處理한다. 例컨대 邪氣가 實하고 正氣가 比較的 虛한 경우는, 祛邪에 重點을 두고, 扶正을 補佐로 한다. 만약 正氣가 이미 虛하고, 邪氣도 比較的 衰한 경우는, 扶正에 重點을 두고, 祛邪를 補佐로 한다. 또한 [雜病] 인 肝硬變腹水の 滿期로서, 病情이 遷延日久하고, 病邪가 頑固하여, 正氣도 往往 不足한 경우는 治療에 扶正, 祛邪를 同用하는 [攻補兼施]로서, 한편으로는 [逐水], 或은 [利水]하는 藥을 쓰고, 다른 한편으로는 適當한 補益藥을 써서 正氣를 扶助해야 한다.

不定穴(부정혈)

「阿是穴」의 項 參照.

跗腫(부종)

「跗」는 足背(발등)을 말하며, 跗腫은 足背의 浮腫을 말함.

臑腫(부종)

臑는 膚字와 通하며, 全身肌膚의 浮腫을 말함. 「陽水」, 「陰水」의 項 參照.

臑證(부증)

三陽經의 病變이 所屬된 臑에 影響을 미친 것을 말함. 例컨대 太陽病에서 少腹脹, 小便不利를 나타내는 것은, 膀胱(膀胱은 太陽經의 臑이다)에 收縮된 것이다. 陽明病에서 腹痛, 大便秘結을 나타내는 것은 胃.大腸에 熱結한 것이다(胃는 陽明經의 臑이다). 少陽病에서 口苦, 咽乾, 目眩을 나타내는 것은 膽(膽은 少陽經의 臑이다)에 熱結한 것이다. 이들을 모두 臑證이라 한다.

膚脹(부창)

靈樞·水脹篇에 있음. 이는 寒氣가 皮膚의 內部에 滯留하여 腫脹이 出現하는 病證이다. 그 臨床特徵은 腹部가 膨大하여 이를 두드리면 中空不實하고 身腫하며 手指로 腹部를 按壓하면 눌린 部分이 陷凹되어 곧 回復되지 않고 皮厚하여 色澤에는 異常變化等이 없다.

腐苔(부태)

舌苔가 두부찌꺼처럼 舌面을 덮어 柔厚하며 닦아낼 수 있다. 宿食이 腐化되었는데, 患者의 胃氣가 아직 傷하지 않은 경우에 多見된다.

浮火(부화)

引火歸原의 項 參照.

腑會(부회)

「八會穴」의 項 參照.

奔豚(분돈)

古病名이다. 靈樞, 難經, 金匱要略等書에 있음. 五積의 하나이며 腎의 積에 屬함. 金匱要略에서는 奔豚氣라 하였음. 豚은 小豚을 뜻함. 奔豚의 原因은 하나는 腎臟의 寒氣가 上衝하기 때문이며 또 하나는 肝臟의 氣火가 上逆하기 때문이다. 臨床特徵은 發作的으로 下腹의 氣가 胸으로 上衝하여 咽喉로 直達해서 腹部가 絞痛하고 胸悶氣急하며 頭痛, 目眩하고 心悸易驚하며 煩躁不安하고 發作이 지난 後에는 如常하다. 때로는 寒熱往來 或은 吐膿症狀을 隨伴하기도 한다. 本病은 發作時에 胸腹에 小豚이 奔走하는 것과 같으므로 이렇게 이름한다. 證候의 表現으로 보아 胃腸神經官能證에 屬하며 腸道의 積氣와 蠕動의 亢進 或은 痙攣狀態가 나타난다.

奔豚氣(분돈기)

奔豚의 項 參照.

粉瘤(분류)

脂瘤의 項 參照.

分理(분리)

①外連하는 皮膚의 腠理. ②일반적으로 筋肉의 紋理를 말함.

噴門(분문)

「七衝門」의 項 參照.

臍鬱(분울)

鬱은 苑과 音義가 통함. 이는 一種의 喘急痞悶의 症狀이다. 素問·至眞要大論에서 諸氣 臍鬱 皆屬於肺라 하였다.

分肉(분육)

①筋肉을 말함. 先人은 筋肉의 外層을 白肉, 內層을 赤肉이라 하여 赤白으로 나누었다. 혹은 筋肉의 境界가 分명한 것을 말한 名稱이다. ②皮膚內에서 骨에 가까운 肉과 骨을

나누어 말한 것이다. ③穴名. 즉 陽輔穴로서, 足外踝의 上 4寸. 腓骨의 前, 絕骨端에서 3分되는 곳이며, 足少陽膽經에 屬함.

分刺(분자)

九刺法의 一種 直接 肌肉의 간극을 刺針하는 것(靈樞 官針편)

分清(분청)

「泌別清濁」의 項 參照.

不內外因(불내외인)

病因의 하나. 「三因」의 項 參照.

不能眴(불능현)

「眴」은 眼球의 轉動을 말함. 「不能眴」은 眼睛이 한 곳을 凝視하여 轉動 不能하다는 뜻이다. 平素 血虛한 사람이 過多하게 發汗하여, 精血이 損傷되고, 筋脈이 失養되면 이런 症狀이 出現하게 된다.

不寐(불매)

不得眠의 項 參照.

不月(불월)

「經閉」의 項 參照.

不乳(불유)

嬰兒가 出生하여 十二時間이 지난 後에, 口腔疾患에 依하지 않고, 젖을 빨지 못함을 「不乳」라고 함. 實證·寒證·虛證의 區分이 있다. 實證은, 腹脹 便秘하고, 嘔吐하며, 煩躁不寧하고, 울음소리가 거칠다. 이는 胎糞이 不下하고, 穢熱이 胃腸에 鬱結된 所致이다. 寒證은, 面色이 蒼白하고, 唇舌이 淡白하며, 白沫을 吐하고, 울음소리를 그치지 않으며, 甚하면 便溏 肢厥하는데, 이는 腸胃의 虛冷에 屬하며, 出產할 때의 受寒과 有關하다. 虛證은, 心身이 虛怯하고, 面色이 (白+光)白하며, 氣息이 微弱하고, 울음소리가 無力하며, 肢冷 唇淡한데, 이는 元氣의 怯弱에 起因하며, 難產 或은 早産兒에게 多見된다.

不育(불육)

通常, 男子의 生殖能力 缺如를 말함. 先天性 生殖器官 發育不全에 起因하는 것이 있고, 或은 後天的인 病變으로 惹起되는 腎氣의 虧損, 精氣의 虛冷에 起因하는 것이 있다.

不孕(불임)

女子가 結婚後, 夫婦同居生活을 三年以上 하고, 避妊을 하지 않았는데도 受胎하지 않는 것을 말함. 原因이 많은데(男子쪽의 缺陷도 包含), 婦人科面에서는 先天性인 것과 後天性인 것이 있다. 先天的인 것은, 先天的으로 生殖器官 或은 機能에 缺陷이 있는 것이고, 先天的인 것은, 月經不調, 氣鬱, 血瘀, 腎虛, 痰濕 등과 有關하다. 「不育」의 項 參照.

崩漏(붕루)

「經崩」이라고도 함. 月經期間이 아닌데, 陰道內에서 大量出血하거나 或은 持續적으로 出血하며, 淋瀝이 계속되는 病症을 말함. 出血量이 많고, 病勢가 急激한 것을 「血崩」或은 「崩中」이라 하며, 出血量이 비교적 적으나 끊임없이 持續되는 것을 「漏下」라 한다(金匱要略·婦人妊娠病脈證並治)(一說에는 月經이 停止된 直後에 또 下血이 되고, 淋瀝이 不斷한 것을 漏下라 하기도 함). 崩과 漏는 相互轉化하는데, 그 原因은 주로 衝·任脈이 不固하기 때문이다. 臨床上, 氣虛·血熱·血瘀 等型으로 나뉜다. 產婦人科에서 많은 疾病(例컨대 機能性子宮出血, 子宮腔이나 內生殖器官의 炎症, 腫瘍 등)이 崩漏의 證候를 惹起하는 수가 있으므로, 早期에 診斷治療해야 한다.

崩中(붕중)

「崩漏」의 項 參照.

崩中(붕중)

①固崩止帶의 項參照. ②崩漏의 項參照.

髀(비)

①股部(大腿部)의 別稱. ②股部の 上半部位.

飛(비)

水飛의 項 參照

脾(비)

五臟의 하나. 主로 消化系統의 一部機能을 具有하여, 所謂“脾主運化”(脾는 運化를 主管함)한다. 人體의 生命活動의 維持는 主로 營養에 依存하는바, 脾는 飲食을 消化하여, 飲食의 精華(엑기스)를 全身에 運輸하므로, 脾를 “後天之本”이라 한다. 脾는 또 全身의 血液을 統攝하여 血液循環을 調節함으로써 正常으로 運行케 한다. 臨床上 消化機能을 失調 或은 一部 慢性出血病症은 언제나 脾病과 有關하다. 脾氣는 上昇을 主管하여, 飲食中の 精氣와 津液을 肺로 上輸하며, 然後에 다시 其他臟腑로 輸布하여 氣血로 化生케 한다. 通常 脾에 益氣作用이 있다고 하는 그 「氣」는 人體 機能의 動力을 代表하며, 이러한 益氣作用의 產生은, 脾가 正常의 運化機能을 發揮하는데 依存한다. 脾는 水濕을 運化하여, 燥를 좋아하고 濕을 싫어한다는 것은 脾가 水液의 代謝와 有關함을 뜻한다.

脾虛하면 水濕이 쉽게 停聚하여 一部病症을 일으킨다. 또한 脾는 四肢 肌肉 등과 有關하여, 脾의 運化機能이 正常이면 四肢의 活動이 有力하고 肌肉이 豐滿壯實하며, 그렇지 않으면 이 方面에도 病態를 나타내게 된다.

臂(비)

下膊이라고도 함. 前臂部(前腕部)를 말함. 肘以下, 腕部(손목)以上の 部分.

痞(비)

胸腹間의 氣機가 阻塞不舒한 一種의 自覺症狀이다. 邪熱의 壅聚에 起因한 경우도 있고, 氣虛 氣滯에 起因한 경우도 있다. 만약 脹滿感을 兼有하면 「痞滿」이라 한다. 邪熱이 上焦에 阻滯하여, 胸部가 痞塞한 것을 「胸痞」라 한다. 만약 痰濕을 挾有하여 胸痞의 程度가 較甚해서 物體가 막혀있는 것처럼 느끼는 것을 「胸中痞硬」이라 한다. 邪熱이 胃脘部에 阻滯되어, 누르면 軟하고, 不痛한 것을 「心下痞」라 하며, 만약 눌러서 抵抗感이 있는것은 邪熱이 胃中の 停水와 相阻하는 것으로, 「心下痞硬」이라 한다. 急慢性胃腸炎, 消化不良에서 通常 이런 類의 症狀이 出現한다.

脾,其華在唇四白(비,기화재순사백)

素問, 六節臟象論에서, “脾胃…其華在唇四白”이라 하였다. 華는 榮華가 外部에 나타난다는 뜻. 唇四白이란, 口唇周圍의 白肉을 말함. 脾는 肉을 主管하고, 運化를 主管하며, 그 精氣는 口唇周圍에 나타난다. 素問 五臟生成篇에서, “脾之合肉也, 其榮唇也”라 했는데, 이는, 脾에 한 面으로 散精作用이 있고, 다른 한 面으로 藏營의 作用이 있어서, 營氣를 全身에 輸布하며, 脾氣가 健全하게 運行되면 口唇이 紅潤하고 光澤이 있는 것이다. 故로 口唇과 口唇周圍의 望診은 脾機能의 狀況을 判斷하는 데 도움이 된다.

鼻疳(비감)

本證은 小兒에게 많이 發生하며, 通常 乳食의 失調로 因해, 上焦에 積熱이 되어 惹起된다. 또한 風熱의 外邪가 肺를 侵犯하여 鼻疳을 誘發하는 水道 있다. 그 症狀은, 鼻孔이 赤痒하고, 潰破 生瘡하며, 疼痛한다.

脾疳(비감)

五疳의 하나이다. 乳食의 不節制로 因해 脾胃가 受傷된 所致이다. 主要症狀은, 面色이 萎黃하고, 腹大如鼓하여, 腹皮에 青筋이 露呈되고, 嘔逆하고, 食欲이 없으며, 泥土를 잘 먹고, 煩渴引飲하며, 消化不良하여, 酸臭物을 瀉下하고, 咳嗽喘促하며, 胸膈이 壅滿하고, 口鼻가 乾燥하며, 눈에 白膜이 생기고, 差明畏光하며, 唇赤 髮焦하고, 四肢가 乏力한 等이다.

脾開竅於口(비개규어구)

素問 金匱眞言論에서, “開竅於口, 藏精於脾”라 하였고, 靈樞 脈度篇에서는, “脾氣通於口,

脾和則口能知五穀矣”라 하였는데, 이는 脾臟의 精氣가 口로 通하고, 脾氣의 機能이 正常이면 舌이 辨味하게 됨을 뜻한다. 脾에 有病하면 口味에 影響을 미친다. 만약 脾虛하면 대개 口中이 淡白 無味함을 느낀다. 脾에 濕熱이 있으면 대개 口中에서 甘味를 느낀다. 이들은 辨證에 일정한 도움이 된다.

髀骨(비골)

解剖學上の 股骨(大腿骨).

髀關(비관)

股部の 前上方의 部分.

痞塊(비괴)

腹腔內的 積塊를 말함.

鼻鼽(비구)

이는, 肺氣의 虛損, 衛氣의 失固로 因해, 寒邪를 感受하기 때문에 생기는 病症이며, 그 表現은 항상 콧물이 흐르고, 재치기를 자주 한다. 過敏性鼻炎과 類似하다.

肥氣(비기)

古病名이다. 五積病의 하나이며 肝의 積에 屬함.(難經五十六難) 左脇下에 覆杯와 같은 形象의 腫塊가 突起하며 오래되면 咳嗽嘔逆하고 脈象이 弦細하다. 本病은 대개 肝氣의 鬱結, 瘀血의 停聚에 起因한다. 脾臟腫大等の 疾病에 屬한다.

痺氣(비기)

陽氣가 虛하고 內寒이 盛하여 營衛의 氣를 失調케해서 血液이 不暢하고 氣血이 閉阻不通하게 되는 病理을 말함. 素問·逆調論에서 “是人多痺氣也 陽氣少 陰氣多 故身寒如從水中出”이라 하였다.

痞氣(비기)

五積病의 하나이며 脾의 積에 屬함.(難經五十六難) 右胃脘部에 積시를 얹어놓은 것 같은 腫塊가 突起하며 오래도록 낫지않고 黃疸을 일으키며 營養이 吸收되지 못하여 肌肉이 消瘦되고 四肢이 無力해지는 等症을 나타낸다. 대개 脾氣의 鬱結 痞塞不通 積氣留結의 所致이다.

脾氣(비기)

主로 脾의 運化機能을 뜻하며, 脾의 昇清과 全身血液의 統攝機能도 包含한다.

脾氣不舒(비기불서)

脾胃의 消化機能障礙를 말함. 肝의 疏泄失調에 起因하거나, 濕困脾陽에 起因하거나 또

는 食傷脾胃으로 因해 脾氣가 壅滯됨을 말함. 主要症狀은, 脘腹脹悶 飲食不消化, 厭食 等이다.

脾氣不昇(비기불승)

脾氣가 水穀精微의 氣를 心肺로 上輸하지 못함을 말함. 脾氣는 昇清을 主管하므로, 脾氣가 上昇하면 運化가 健全하다. 脾氣不昇은, 脾陽虛, 中氣不足에 起因하기도 하고, 濕濁 食滯의 阻礙에 起因하기도 한다. 中氣不足에 起因한 경우는 健脾益氣를 爲主으로 하고, 濕濁 食滯에 起因한 경우는 燥濕消導를 爲主으로 한다.

脾氣主昇(비기주승)

脾主昇清의 項 參照.

脾氣通於口(비기통어구)

「脾開竅于口」의 項 參照.

脾氣下陷(비기하함)

「中氣下陷」의 項 參照.

脾氣虛(비기허)

脾氣의 虛弱, 運化機能의 無力을 말함. 臨床表現은, 乏力, 食欲不振 或은 食後易脹하고, 眩暈을 隨伴하며, 倦怠, 面色萎黃 等の 氣虛症狀이다. 胃十二指腸潰瘍, 神經性胃病, 慢性痢疾, 貧血 등에서 多見된다.

鼻衄(비늑)

鼻孔出血이다. 鼻衄을 일으키는 原因은 매우 많은데, 實熱證에서 多見된다. 例컨대, 風溫에 外感하며, 肺에 본래 熱이 있고, 或은 胃經에 積熱하거나, 或은 肝火가 上炎하면, 모두 鼻衄을 일으킬수 있다. 이밖에 陰虛火旺에 의해 惹起되기도 한다.

鼻衄(비늑)

俗稱 코피이다. 대개는 肺熱이 上壅하거나 或은 胃熱이 熏蒸된 所致이다. 또한 肝火가 偏旺하거나 肺腎이 陰虛하므로 惹起되기도 한다. 肺熱로 因한 鼻衄의 症狀은, 鼻燥하고, 咳嗆, 痰少등이다. 胃熱로 因한 鼻衄症은 鼻燥하고, 煩渴 引飲하며, 口臭 等이다. 肝火로 因한 鼻衄의 症狀은, 頭痛, 眩暈, 目赤, 善怒 等이다. 肺腎이 陰虛하여 虛火가 上昇해서, 血이 火를 따라 昇해서 衄血이 되는 데는 通常 咳嗽, 盜汗, 抵熱, 頭昏, 耳鳴 等症을 兼發한다.

痧毒(비독)

<暑癰>의 項 參照.

飛痘(비두)

牛痘를 按腫한 部位以外에 생기는 痘瘡을 말함. 대개는, 腫痘後에 손으로 긁어서 痘毒이 傳播됨으로써 發한다. 症狀은 牛痘와 같으며, 發熱等の 全身證狀을 兼發한다.

脾肚發(비두발)

「發背」의 項 參照.

鼻竇炎(비두염)

<鼻淵>의 項 參照.

沸騰八法(비등팔법)

靈龜沸騰의 項 參照

鼻梁(비량)

鼻柱의 項 參照

脾勞(비로)

五勞의 하나이다. 飢飽失調로 인해 或은 憂思로 인한 傷脾의 所致이다. 主要症狀은 肌肉이 消瘦하고 四肢이 倦怠하며 食慾이 減少되고 攝食하면 脹滿하며 大便이 溏泄되는 等症이다.

痞滿(비만)

「痞」의 項 參照.

鼻苗(비묘)

人痘接種法の 項 參照

鼻苗法(비묘법)

人痘接種法の 項 參照

飛門(비문)

①「唇」의 項 參照. ②「七衝門」의 項 參照.

臂膊(비박)

膊의 項 參照.

脾翻粘瞼(비번점검)

[皮翻證], [風牽出瞼]이라고도 함. 대개는 胃經에 積熱하고 肝風이 內盛하여 風痰濕熱이 上攻해서 氣滯血壅이 되기 때문이다. 눈꺼풀이 뒤집혀(翻轉), 眼瞼을 閉合할 수 없으므

로 항상 眼部에 乾燥 澁痛을 느끼고甚한 경우 角膜炎이 發生한다. 대개 下瞼에 發한다.

泌別清濁(비별청탁)

小腸이 胃中の 飲食을 承受한 以後 進行되는 消化와 「分清別濁」의 過程이다. 「分清」이란, 小腸에서의 進一步한 消化를 거쳐 飲食의 精微(營養成分)가 小腸에서 吸收된 後, 脾에 依하여 身體各部에 轉輸됨을 뜻하며, 「別濁」이란 小腸에서의 消化를 거친 後의 糟粕이 大腸으로 下注되며 或은 膀胱으로 滲入하여 大小便이 되어 體外로 排出함을 뜻한다. 이러한 消化와 「分清別濁」의 過程을 「泌別」(清濁을 分別하는 뜻)이라 稱함.

脾不統血(비불통혈)

脾氣가 虛하여 血液의 統攝이 不能함을 말함. 脾는 血液을 統攝하는 機能을 具有하여, 血液이 經脈을 따라 運行케 하는데, 만약 脾陽이 虛弱하여 攝血이 不能하면, 血이 經脈을 循行하지 않게 된다. 臨床上, 各種慢性出血病症으로, 例컨대 月經過多, 崩漏, 便血, 衄血, 皮下出血 등이 있다. 만약 舌淡 脈細 脾虛症狀이 나타나면, 「補脾攝血」, 「引血歸脾」의 方法을 常用하여 治療한다. 貧血, 機能性子宮出血, 原發性血小板減少性紫斑病 등에서 多見된다.

脾痺(비비)

五臟痺症의 하나이다. 主要症狀은 四肢倦怠 胸悶 咳嗽 清涎嘔吐等이다. 古人은 藏象學設의 觀點에서 本病이 肉痺가 日久不愈한데 다시 外邪를 感受하여 疾病이 深入發展한 所致로 認識하였다. 예컨대 素問·痺論에서 “肌痺不已 復感於邪 內舍於脾”라 하였다. 一說에는 四肢의 運動이 過度하여 汗出하는데 當風하므로 邪氣가 腹中에 쌓인 所致라 하였다. (素問·五臟生成篇)

脾消(비소)

「中消」의 項 參照.

脾水(비수)

「五水」의 하나. 腹部가 腫大하며, 小便이 困難하고, 少氣하며, 四肢가 困重하다.

鼻隧(비수)

鼻孔內的 鼻前庭部分과 鼻腔內的 通路. 一說로는 外鼻孔 혹은 鼻翼部를 말함.

鼻癰肉(비식육)

<鼻痔>의 項 參照.

脾失健運(비실건운)

脾의 運化機能 異常의 病理을 말함. 脾는 水穀의 精微와 水濕의 運化를 主管하는데, 脾陽이 虛하면 正常機能을 喪失하여, 腹脹 納呆(胃의 障礙), 腸鳴 泄瀉 等の 消化不良症狀이 出現하며, 오래되면 面黃肌瘦 四肢無力이 된다. 或은 水濕困阻로 因해 成痰 成飲, 四肢浮腫이 나타난다. 이들은 모두 脾가 虛하여 正常運化가 不能한 所致이다.

脾約(비약)

傷寒論에 있음. 津液이 不足하여 大便이 秘結되는 一種의 病證을 말함. 대개는 脾의 運化機能이 失調되고 氣虛하여 津液을 化成하지 못하므로 腸中の 津液이 不足해져서 大便이 乾結難解하게 된다.

脾陽(비양)

脾의 運化機能 및 運化過程中에 가지는 熱能(에너지)을 말함. 脾陽이 正常的으로 作用을 發揮하기 위해서는 「命門之火」(腎陽)의 溫養과 協助를 얻어야 한다.

脾陽虛(비양허)

脾胃의 虛寒을 말함. 主要症狀은, 胃脘冷痛, 腹脹滿, 呃逆, 嘔吐, 食少, 便溏或久瀉久痢, 倦怠, 尿少, 浮腫, 消瘦, 舌淡苔白, 脈虛緩 等이다. 胃十二指腸潰瘍 慢性胃腸炎, 慢性肝炎, 慢性痢疾, 水腫, 白帶下 등에서 多見된다.

飛揚喉(비양후)

[懸旗風]의 項 參照

脾與胃相表裏(비여위상표리)

脾合胃의 項을 參照.

鼻淵(비연)

<腦漏>라고도 함. 本病은 대개 風寒에 外感되고, 안으로 膽經의 熱이 腦에 影響을 미치므로 惹起되며, 그 主要症狀은 鼻塞하여, 항상 惡臭가 나는 膿濁한 鼻汁이 流出되고, 어떤 患者는 鼻頰部(콧등)에 辛酸感이 있으며(素問 氣厥論에서는 <辛頰>이라 하였음), 아울러 頭暈, 目眩 等症을 나타낸다. 本病은 鼻竇炎(蓄膿症)에 該當한다.

脾熱(비열)

脾가 熱邪를 받거나 或은 燥熱食物의 過食으로 惹起되는 熱證을 말함. 主要症狀은, 唇紅, 咽乾, 心煩, 腹脹滿 或 疼痛, 大便秘結, 小便黃短 等이다.

脾惡濕(비오습)

素問 宣明五氣編에서, “五臟所惡……脾惡濕”이라 하였다. 濕勝하면 脾의 運化機能에 影響을 미치기 쉬우며, 濕困脾土(濕은 脾土를 困하게 함. 常見症狀:大便秘泄, 頭重身重, 四肢困乏, 脘腹滿悶, 舌苔白膩 等)의 病症을 惹起한다. 또 脾主肌肉하므로, 濕勝하면 肌肉

이 癰腫하므로 脾惡濕의 說이 있다.

脾爲生化之源(비위생화지원)

脾主中州의 項 參照.

脾胃濕熱(비위습열)

濕熱이 脾胃에 內蘊함을 말함. 主要症狀은, 身目俱黃, 腹脹脘痞, 飲食減少, 惡心, 倦怠, 尿少黃, 苔黃膩, 脈濡數이다. 黃疸型肝炎 或은 其他急性肝膽疾患에서 多見된다. 濕疹, 膿疱瘡 等の 一部 皮膚病도 脾胃濕熱과 有關하다.

脾爲涎(비위연)

『五臟化液』의 項 參照.

脾胃陰虛(비위음허)

「脾陰虛」의 項 參照.

脾陰(비음)

①脾臟自體의 陰精을 말함. ②胃陽과 相對해서 하는 말. 脾는 臟에 屬하며 陰이고, 胃는 腑에 屬하며 陽이다.

脾陰虛(비음허)

「脾胃陰虛」라고도 함. 脾胃의 陰液이 不足하여 受納 運化에 影響을 미치는 것을 말함. 主要症狀은, 唇燥口乾, 喜飲, 口淡無味, 飲食減少, 大便乾結, 舌紅乾하고, 苔少하거나 或은 舌面光滑하는 等이다.

脾腸(비장)

脾의 項 參照.

脾藏營(비장영)

「靈樞·本神篇」에서 「脾藏營」이라 하였다. 이는 脾에 營血을 藏納하는 作用이 있음을 말함. 「營」은 經脈內를 循行하는 精氣—營養物을 말한다. 營은 또 血을 主管하여, 血로 化生시키므로 通常 營·血을 함께 말한다. 「難經·四十二難」에서 “脾……主裏血”이라 하였다. 「裏」에는 包藏 혹은 包護의 뜻이 있다. 이는 臟腑中에 「肝藏血」, 「脾統血」이 있지만, 實際로 脾에도 營血을 藏納하는 作用이 있음을 말해 준다.

脾藏意(비장의)

素問 宣明五氣編에서, “五臟所藏,……脾藏意”라 하였다. [意]는 一種의 思惟活動이다.(靈樞 本神編에서 “心有所憶謂之意”). 古人은, 五行學說에 의해 情志思惟活動을 五臟에 分屬시켜, 思慮過度로 인해 傷脾하여, 몇가지 病症이 發함을 觀察하였으며 然後에 補脾의

治法을 써서 療效가 있었으므로 脾藏意 로 認識했는데, 牽強附會를 면치 못한다. 五臟所藏의 項 參照.

鼻赤(비적)

<酒齙鼻>의 項 參照.

鼻癰(비절)

鼻內 或은 鼻外에, 肺經의 壅熱로 因해 小癰腫이 생겨, 局部가 發熱, 紅腫, 疼痛하며, 癰腫이 成熟된 후에는 頂点에 膿頭가 생긴다. 동시에 脣, 頰部가 紅腫하고, 全身이 不快한 症狀이 發生한다.

鼻柱(비주)

① 鼻의 中央部, 下極의 下方, 鼻尖의 上方. 下極之下, 鼻樑이라고도 함. 古人은 이곳을 望診하여 肝病의 診察에 參考가 된다고 보았다. ② 左右의 兩鼻空間의 鼻中膈部分을 말함.

脾主肌肉(비주기육)

筋肉의 營養은 脾의 運化吸收에 依해 얻어진다. 일반적으로 말해서, 脾氣가 健運하고, 營養이 充足하면 筋肉이 豐盈하므로 「脾主肌肉」이라 한다. 만약 脾에 有病하면 消化吸收에 障礙가 생겨 漸漸 消瘦해진다.

脾主四支(비주사지)

四肢가 活動할 수 있는 것은, 飲食物의 消化로 된 陽氣에 依存한다. 이러한 陽氣가 胃中の 飲食物 消化로 되는 것이지만, 반드시 脾의 轉輸를 通해야만 陽氣가 四肢에 達할 수 있게 된다. 脾氣가 健全하게 運行되는 狀況下에서, 全身이 充分한 營養을 供給받아 四肢의 活動이 有力해진다. 四肢無力은 흔히 脾氣가 虛弱한 表現이다.

脾主昇清(비주승청)

昇清이란, 脾의 運輸 轉化機能에 根據해서 말한것이다. 清은 一般的으로 精微物質을 가리킨다. 脾氣가 飲食物의 精微와 津液을 肺로 上輸하며, 다시 其他臟腑器官으로 輸布하여 氣血로 化生해서 全身을 營養한다. 이러한 運化의 特徵은 上昇을 胃主로 하고(所謂 脾氣主昇), 上昇하는 것이 主로 精微物質이므로 脾主昇清이라 한다. 만약 脾氣가 不昇하거나 심히 下陷하면 泄瀉 或은 內臟下垂 等症을 惹起한다.

脾主運化(비주운화)

脾機能의 하나인 「運化」는 運輸와 消化를 主管하는 것이며, 이는 飲食物의 消化와 精微(營養成分)의 輸布이다. 飲食物이 入胃하면 胃와 脾는 共同으로 消化를 進行하여, 產生되는 精微가 吸收된 後, 다시 脾氣의 幫助로 인해 身體各部에 運送되어 全身組織器官을 滋養한다. 同時에 脾는 또 水液의 運送과 排泄을 促進하여 人體水液代謝의 平衡

을 維持케 한다.

脾主爲胃行其津液(비주위위행기진액)

「素問·厥論」에서 “脾主爲胃行其津液者也”라 하였다. 이는 胃가 飲食物을 受納한 後, 다시 脾의 作用을 통해 많은 營養을 含有하는 津液을 其他臟腑와 人體各部分에 輸送해야 함을 뜻한다. 이는 胃는 단지 하나의 給養倉庫이며, 眞正 「行其津液」하는 데는 主로 「脾主運化」의 機能에 依存해야 함을 말해주는 것이다.

脾主重奏(비주중주)

古人은 東·西·南·北·中央을 各各 五臟과 配合시켰다. 그래서 脾를 中央에 配列하고, 동시에 五行學術에 根據해서 脾를 土臟에 歸屬시켰으므로 脾主中土 或은 脾主中州라 한다. 土는 萬物을 化生하는 것이로, 脾는 運化를 主管하며, 消化吸收된 水穀의 精微를 其他臟腑器官, 四肢百骸로 輸送하여(所謂 [脾居中央 灌溉四方]), 生長發育을 促進해서 人體의 機能과 代謝의 需要를 維持한다. 그러므로 매우 자연스럽게 脾와 土는 萬物을 化生하는 特性으로 함께 連繫되었다. 그래서 脾主中州라 한다. 다른 角度에서 말하면, 脾의 이러한 作用을 脾胃生化之源이라고도 말한다.

脾主中土(비주중토)

脾主中州의 項 參照.

脾主後天(비주후천)

사람이 出生한 以後에는, 主로 脾胃機能의 健全에 依據하여 生長·發育의 需要를 保證하게 되는데, 그 중에서 더욱 重要的 것이 脾이다. 왜냐하면 飲食物의 精微는 脾의 消化吸收와 아울러 臟腑 및 人體各部分으로의 輸送에 依해 營養을 얻게 하므로 「脾主後天」이라 한다. 「後天」은 脾만을 뜻하기도 하고, 脾·胃를 함께 뜻하기도 한다. 故로 營養不良 或은 發育不良을 흔히 「後天失調」하고 한다.

鼻準(비준)

準頭, 面王이라고도 함. 鼻尖部를 말하며, 俗稱 鼻尖이라 함. 古人은 이곳을 望診하여 脾病의 診察에 參考가 된다고 보았다.

痺證(비증)

痺는 閉阻不通의 뜻. 一般的으로 邪氣가 軀體 或은 內臟의 經絡을 閉阻하므로 惹起되는 病證을 말하는데 通常 대개는 風, 寒, 濕의 三種의 邪氣가 肌表의 經絡과 骨節을 侵犯하여 關節 或은 肌肉에 疼痛을 일으키고 腫大나 重着을 惹起하는 등의 一連의 疾患을 말함. 예컨대 素問·痺論에서 “風寒濕三氣雜至 合而爲痺也”라 하였다. 臨床上 主로 風痺, 寒痺, 濕痺, 熱痺의 四腫으로 나눈다. 風濕性(류머티즘)關節炎, 類風濕性(류머티즘성)關節炎等病의 類이다. 內經等の 古典에서는 病變部位에 따라 또 筋痺 骨痺 脈痺 肌痺 皮痺等로 나누었다. 이들 痺證이 發展하면 五臟痺를 惹起할 수 있다. 各 該當項을

參照.

脾志(비지)

『五志』의 項 參照.

脾之大絡(비지대락)

一名「虛里」라고도 함. 胃腑에서 直接 分出된 1條의 大絡脈. 그 循行徑路는 胃에서 上行하여 橫膈膜을 貫通해서 肺臟으로 連絡된 後, 外向으로 分出하여 左側의 乳部下方, 즉 心尖搏動部位(乳根穴에 該當함)에 分布된다(素問·平人氣象論).

鼻齷(비차)

<酒齷鼻>의 項 參照

肥瘡(비창)

病因은 白禿瘡과 같다. 처음에 毛髮의 根部에 小丘疹 或은 小膿疱가 생기며, 形態가 粟粒과 같고, 몹시 가려우며, 搔破하면 液汁이 나오고, 乾燥후에 점시모양의 黃痂가 생겨, 中央이 陷凹되고, 가운데 毛髮은 이를 貫通한다. 黃痂가 脫落된 후, 糜爛面이 나타나며 특유한 냄새가 난다. 毛囊이 破損되므로, 治癒後에 瘡痕이 남게되어, 局部가 禿髮이 된다. 本病은 黃癬의 類이다.

腓膈(비천)

膈의 項 參照.

鼻尖(비첨)

鼻準의 項 參照.

髀樞(비추)

①大腿骨의 大轉子の 部位. 股部(大腿部)의 外側 最上方에 있다. 大腿骨이 外方으로 向하여 顯著히 隆起된 部分. ②骨盤外側中央의 髌骨臼의 部位. 機라고도 함.

鼻痔(비치)

鼻腔內에 贅肉腫塊가 생기는 것을 通稱하여 <鼻痔>라 하며, <鼻癰肉>이라고도 함. 本病은, 肺經의 風,濕,熱의 諸邪가 鬱滯되므로 생긴다. 輕症이면, 鼻塞이 되어, 呼吸이 不便하게 되고, 重症이면, 鼻大의 奇形이 되며, 甚한 경우, 鼻孔 밖으로 垂出되기도 한다.

悲則氣消(비척기소)

『素問·舉痛論』에 있음. 「氣消」는 肺氣의 消耗을 뜻함. 過度하게 悲哀하면 上焦가 鬱結되어, 化熱해서 肺氣를 消耗한다.

비鍼(비침)

鉞鍼의 項 參照

鼻針療法(비침료법)

모두 外鼻部 주위에서 取穴하여 毫針을 써서 사자한다 주로 關節炎 神經痛 咳嗽 等병을 治療한다

脾統血(비통혈)

脾가 血液을 統攝하여, 經脈中에서 正常運行케 하는 機能이 있음을 뜻함. 脾가 益氣하여, 脾氣가 足하면 血液의 脈管內의 正常運行을 統攝할 수 있다. 脾氣가 虛하면 이러한 血液統攝機能에 影響을 미치게 되며, 血液이 經脈에서 外溢하여 各種出血疾患을 惹起한다.

脾肺陽虛(비폐양허)

「脾虛肺弱」의 項 參照.

脾合胃(비합위)

脾와 胃 사이의 相互關係와 影響을 말함. 이러한 狀況은 臟腑가 相互 表裏(臟은 陰이고 裏에 속하며, 腑는 陽이고 表에 속함)의 關係가 된다는 것이며, 脾與胃相表裏는 脾와 胃의 經絡間의 連繫와 生理機能의 相互配合를 통해 體現된다. 脾 或은 胃의 病症을 治療함에는 때로 이러한 相合 相表裏의 關係를 通하여 서로 影響을 미치게 한다. 그런데 生理機能上 胃主受納, 脾主運化 하므로, 어떤 症候面에서는 어느쪽에 속하는지를 구별해야 한다. 예컨대 嘔吐는 一般的으로 治胃를 爲主로 하고, 泄瀉는 通常 治脾를 爲主로 하여, 主治의 重點을 달리한다.

脾咳(비해)

기침할 때, 右脇部の 疼痛이 肩背에 까지 連하여 땅기며, 甚한 경우, 움직일 수 없고, 움직이면 咳嗽가 激增되는 證候를 말함.

脾虛(비허)

일반적으로 脾氣虛弱 或은 脾陰不足을 말함. 臨床表現은, 飲食不消化 腹滿 腸鳴 泄瀉 等이다(『素問·臟氣法時論』). 「脾氣虛」, 「脾陰虛」의 項 參照.

脾虛濕困(비허습곤)

脾虛로 因해 內濕 阻滯되는 病理을 말함. 脾는 水濕의 運化를 主管하며, 胃에 그 津液을 運行하는데, 脾虛하면 運化機能이 低下되어, 水濕의 停滯를 일으킨다. 水濕이 停滯되면 또 반대로 脾의 運化를 妨碍하게 된다. 主要症狀은, 飲食減少, 胃脘滿悶, 大便泄瀉, 甚하면 惡心欲吐, 口粘不渴하거나 或은 渴하여 熱飲을 좋아하고, 肢體困倦하며, 甚하면 或 浮腫하고 舌苔厚膩, 脈緩 等を 나타낸다. 慢性胃腸炎 慢性痢疾 慢性肝炎 等の

疾病에서 多見된다.

脾虛肺弱(비허폐약)

「脾肺陽虛」라고도 함. 脾는 運化를 主管하여, 營養을 攝取해서, 精氣를 肺로 上輸하여, 全身을 養한다. 만약 脾虛하면 精氣가 不足하여, 肺氣도 虛하게 되어, 面色蒼白, 手足不溫, 食少, 便溏, 短氣, 咳嗽, 痰多, 肌肉瘦削, 舌淡苔白, 脈細弱 등이 出現한다. 肺結核, 慢性氣管支炎, 慢性消化不良 等病에서 多見된다.

鼻掀胸挺(비흔흉정)

鼻翼煽動을 掀이라 하고 氣喘胸高를 挺이라 한다. 이는 小兒의 喘咳 呼吸困難狀態를 形容한 것임.

鬢骨(빈골)

『顱顫』의 項 參照.

頻腹(빈복)

病邪가 上部에 있으면 藥湯을 소량으로 여러 차례분복하는 것이 좋다 咽喉病에는 緩慢하게 자주 금인하는 것이 좋다

頻服(빈복)

病邪가 下部에 있으면 多量의 藥을 한꺼번에 완복한다. 病邪가 下部에 없더라도 危重하면 頻服하는 것이 좋다

牝臟(빈장)

五臟中 陰에 屬하는 것은 牝臟이라 함. 즉, 脾·肺·腎三臟을 말함(靈樞·順氣一日分爲四時篇에 있음)

牝瘡(빈학)

이 種類의 瘡疾은 대개 平素에 元陽이 虛弱하며, 邪氣가 少陰에 潛伏하기 때문에 惹起된다. 臨床表現은, 發病時에 寒戰이 비교적 甚하고, 無熱 或은 微熱하며, 面色이 淡白하고, 每日 定時에 發作하며, 脈象이 沈遲한 等이다.

氷礪散(빙봉산)

吹藥의 項參照

氷瑕障(빙하장)

凝脂翳(化膿性角膜炎)를 早期에 適切하게 治療하면, 黑睛上의 混濁이 吸收되어, 다만 點狀 或은 片狀의 薄翳가 남게 되는데, 이것이 明亮 光滑하여, 얼음(氷)이나 瑕玉과 같다. 一般적으로 視力에는 影響을 미치지 않으며, 或은 視力에 가벼운 障礙가 있을 뿐이

다.

邪(사)

「邪氣」라고도 함. ①風·寒·暑·濕·燥·火의 六淫과 疫癘之氣 등 外部에서 侵入하는 發病要因을 뜻한다. 故로 「外邪」라고도 한다. ②人體의 正氣와 相對되는 말로서, 일반적으로 各種 發病要因과 病理的損害를 指稱함.

薊(사)

治削의 項 參照

瀉肝(사간)

「清肝火」, 「清肝瀉火」라고도 함. 性味가 苦寒하고 肝火를 瀉하는 藥物을 써서 肝火의 上炎을 治療하는 方法이다. 肝의 實火가 上昇하면 頭痛眩暈, 耳鳴耳聾, 面紅目赤, 口乾苦, 脇部疼痛, 黃苦水嘔吐, 甚卽吐血, 躁急易怒, 大便秘結, 苔黃, 脈弦數 等症을 發汗다. 龍膽草, 山梔子, 牡丹皮, 夏枯草, 黃芩, 黃連 等藥을 쓰면 좋다.

四關(사관)

①上肢部の 左右의 肩關節(兩腋)과 肘關節, 下肢部の 股關節(兩大腿骨)과 膝關節을 말함. ②上肢部の 兩側 肘關節과 下肢部の 兩側 膝關節을 말함.

蛇串瘡(사천창)

纏腰蛇丹의 項 參照.

四君子湯(사군자탕)

①溫陽의 項參照 ②보제의 項參照

四君子湯(사군자탕)

緩方의 項 參照

四極(사극)

四肢의 別稱(素問 湯液醪醴論에 있음).

邪氣(사기)

「邪」의 項 參照.

四氣(사기)

사성이라고도 함 이는 한 열 온 랭의 사종의 藥성을 말한다. 藥성의 한량과 온열은 病症의 성질인 熱性病症 寒性病症과 사대해서 하는 말이다. 熱性病症을 治療할 수 있는 藥物은 寒性 혹은 涼性에 屬한다, 예컨대 黃連은 韓藥이며 열병의 사리를 治하고 茵陳

蒿는 微寒性으로 藥性이면 黃連의 性을 治한다. 寒性病症을 治하는 藥物은 熱性 혹은 溫性에 속한다. 예컨대 附子는 熱藥이며 大寒으로 인해서 陽氣가 쇠갈하고 四肢가 한량한 증상을 治한다. 草果는 溫藥으로 微熱性이며 胸腹冷痛과 냉이 比較的 심한 虐疾을 治한다. 草果는 溫藥으로 微熱性이면 胸腹冷痛과 냉이 比較的 심한 虐疾을 治한다. 寒藥과 涼藥 熱藥과 溫藥은 단지 정도의 차이 뿐이다. 이밖에 또 平性藥이 있는데 性質이 比較的 平溫하면 實際로는 偏寒이나 偏熱의 차이가 있기도 하다. 예컨대 白茯苓은 甘平하면서 偏溫하고 猪苓은 甘平하면서 偏涼하다 그러므로 여전히 四氣라 하지 五氣라고 하지 않는다

痧氣(사기)

夏·秋季에, 風寒暑濕의 氣를 感受하거나, 혹은 疫氣, 穢濁의 邪에 接觸되어, 內部를 阻塞하므로 出現하는 腹痛悶亂의 一種의 病症이다. 痧氣가 胃腸을 脹塞하고, 經絡을 壅塞하므로 「痧脹」이라고도 한다. 痧毒이 皮膚의 氣分에 있어서, 皮膚에 麻疹과 같은 紅點이 癰現하는 것을 「紅痧」라 한다. 만약 痧毒이 肌肉의 血分에 쌓이는 경우는, 全身이 脹痛하고, 黑斑도 생긴다. 이를 「烏痧」라 한다. 만약 證候가 深重하면, 寒熱을 發하고, 頭·胸·腹部가 或脹 或痛하며, 혹은 神昏喉痛하고, 혹은 上吐下瀉하며, 혹은 腰部에 束帶한 것 같고, 혹은 指甲이 靑黑하며, 혹은 手足이 麻木되는 等症을 나타낸다.

邪氣盛則實(사기성척실)

이는 「素問·通評虛實論」에 있는 말로서, 實證에 對해 내린 定義이다. 邪氣는 發病要因을 말한다. 病邪가 有餘하고 人體의 正氣가 充足할 때, 機能代謝活動이 增強되어 病邪에 抵抗하므로, 亢盛한 實證이 나타난다. 예컨대 痰滯 食積 瘀血 水濕등은 모두 邪氣가 有餘한 것이며, 壯熱 煩燥 狂亂 聲高氣粗 腹痛拒按 便秘尿赤 脈滑數有力등은 모두 機能亢盛의 表現으로서 모두 實證에 屬한다.

四大家(사대가)

①明代의 醫家들은, 대개 張仲景, 劉完素, 李東垣, 朱丹溪의 4人을 四大家라 하였음. ②清代의 醫家들은, 대개 劉完素, 張子和, 李東垣, 朱丹溪의 4人을 四大家라 하였음. 이를 「金元四大家」라고도 함. 一般的으로 四大家라 함은, 모두 金元四大家를 말함.

蛇頭疔(사두정)

「指疔」의 項 參照.

邪戀心包(사련심포)

「熱入心包」의 項 參照.

渣瘤(사류)

脂瘤의 項 參照.

邪留三焦(사류삼초)

①熱性病的 濕熱의 邪가 三焦의 「氣分」에 滯留하여, 上焦에서는 咳嗽 胸悶하고, 中焦에서는 腹脹 納呆(胃의 障礙)하며, 下焦에서는 小便不利가 됨을 말함. ②水液의 代謝障得로, 胸脇脹悶, 下腹窘急, 小便不利 等症이 出現함을 말함.

砂淋(사림)

「石淋」의 項 參照.

四末(사말)

四肢의 末梢를 말함. 즉 手部와 足部.

捨脈從證(사맥종증)

辨證의 過程에서, 脈象과 證候의 表現이 一致하지 않을 境遇에는, 經過를 分析하여, 臨床症狀으로 病機를 審定해서, 治療方法을 確定하는 準據로 삼은 것을 捨脈從證이라 한다. 一部 急性病의 病情이 複雜한 境遇에 比較的 많이 쓰인다. 例컨대 患者가 高熱神昏한데, 脈은 濡緩하며, 證候는 邪熱內閉에 屬하는 境遇, 이는 病勢가 急速하거나 或은 邪氣가 阻竭하기 때문에, 脈象이 熱邪의 內閉된 本質을 反映하지 못한 것이다. 그러므로 臨床表現에 의해, 서둘러 清營透熱法을 써야 한다.

四物湯(사물탕)

補血의 項參照

蛇背疔(사배정)

「指疔」의 項 參照.

瀉白(사백)

「瀉肺」의 項 參照.

瀉白散(사백산)

「瀉肺」의 項 參照.

邪犯衛分(사범위분)

衛分證의 項參照.

蛇腹疔(사복정)

「指疔」의 項 參照.

斜飛脈(사비맥)

生理上 特異한 一種의 脈位이다. 生理上の 特異性으로 因해, 橈骨動脈이 尺部에서 橈骨莖狀突起의 背外側으로 斜向하여, 合谷穴方向으로 伸延되었다. 故로 寸部에서 脈搏을 觸知할 수 없다. 이러한 脈位를 斜飛脈이라 하며, 反關脈과 同類이다.

沙蔘麥冬飲(사삼맥동음)

「養陰潤燥」의 項 參照.

四性(사성)

四氣의 項 參照

乍疎乍數(사소사삭)

脈搏의 리듬이 不均하여, 散亂 無秩序하거나 或은 遲速이 되풀이 되는 것으로, 怪脈의 脈形에 屬한다. 氣血의 消亡直前に 나타나며, 病의 危00000?에 屬함.

四時(사시)

春夏秋冬의 四季를 말함. 그중 夏季의 세째달(陰曆 6月)을 「長夏」라고 함.

四時不正之氣(사시부정지기)

일반적으로 四季의 正常이 아닌 氣候를 말함. 例컨대 冬季는 寒해야 하는데 도리어 暖하고, 春季는 暖해야 하는데 도리어 寒한 等이다. 이는 生物의 生長發育에 不利하다. 人體가 이러한 氣候에 適應하지 못할 때 疾病을 惹起하게 된다.

四神丸(사신환)

「溫補命門」의 項 參照.

瀉心(사심)

「瀉心」이란, 실제로는 胃火를 瀉하는 것이다. 胃火가 盛하므로 齒은 腫痛, 口臭, 嘈雜, 大便秘結, 舌紅苔黃厚, 脈數 等症을 發하는 경우 瀉心湯(大黃, 黃芩, 黃連)을 쓴다. 心火가 盛하여 迫血妄行해서 鼻出血을 일으키고 或은 大便秘結하며 小便赤澀, 目赤腫痛, 口舌生瘡, 苔黃, 脈數 等症을 나타내는 데도 本方으로 治療 할 수 있다. 이는 胃火를 瀉하는 方法을 써서 心火를 瀉하는 것이니 곧 「實卽瀉其子」의 方法이다.

瀉心湯(사심탕)

「瀉心」의 項 參照.

砂眼(사안)

[椒瘡]의 項 參照

蛇眼疔(사안정)

「指疔」의 項 參照.

四逆(사역)

手足厥冷의 項 參照.

四逆湯(사역탕)

「熱劑」의 項 參照.

四逆湯(사역탕)

急方의 項 參照

邪熱(사열)

①病因으로, 熱邪를 말함. ② 證狀으로, 外邪에 의해 惹起되는 發熱을 말함.

四維(사유)

古代醫書에 많이 쓰인 四肢의 別稱.

四飲(사음)

痰飲, 懸飲, 溢飲, 支飲의 四種類의 飲證을 말함. (金匱要略)

사음전(四陰煎)

「養陰清肺」의 項 參照.

瀉子(사자)

「虛子補其母,實子瀉其子」의 項 參照.

痧子(사자)

「麻疹」의 項 參照.

蛇瘡(사장)

「癰疽」의 項 參照.

捨證從脈(사증종맥)

辨證의 過程에서, 脈象과 證候의 表現이 一致하지 않을 境遇에는, 經過를 分析하여 脈象으로 病氣를 審定해서, 治療方法을 確定하는 準據로 삼은 것을 捨證種脈이라 한다. 一部 慢性病의 病情이 복잡한 境遇에 比較的 많이 쓰인다. 例컨대 大咯血을 한 患者가, 咯血은 멎었지만, 脈은 細弱한 虛상을 나타내지 않고, 도리어 滑數한 脈象을 나타내는 境遇, 滑數의 脈은 主로 內部에 熱邪가 있는 것과 關聯되며, 아무래도 迫血妄行하여 다시 出血하게 된다. 故로 症狀의 호전은 一時的인 現象一뿐이며, 脈象에 依據해서 火를

瀉하고, 血을 安靜케 하는 治法을 確定해야 한다.

四肢不用(사지불용)

四肢이 痿軟하여 活動能力을 喪失한 症狀이다.

四診(사진)

望診, 聞診, 問診과 切診 등 四種의 診病方法의 合稱. 四診은 반드시 結合해서 運用하여 相互參考해야만 비로서 全面的으로 病情을 理解할 수 있으며 辨證과 治療에 充分한 根據를 提供할 수 있다.

四診合參(사진합참)

變證의 過程에서, 望, 問, 聞, 切의 四診에서 얻어진 有關病力, 症狀, 形色, 脈象 등의 材料을 全面的으로 分析綜合하여, 部分的 및 一方的이 되지 않도록 해서, 疾病의 表本 緩急을 判斷하고, 正確한 治療을 指導할 수 있는 것을 말함. 色脈合參, 脈證合參의 各 項 參照.

痧脹(사창)

「痧氣」의 項 參照.

思則氣結(사칙기결)

『素問·舉痛論』에 있음. 「氣結」은 脾氣의 鬱結을 말함. 憂思가 過度하면 脾氣를 鬱結케 하여 運化作用이 失調되어 胸脘痞滿 食欲不振 腹脹便溏 등의 症狀이 나타난다.

死胎(사태)

「胎死腹中」이라고도 함. 胎兒가 臨産하기 前에 子宮內에서 死亡했거나 或은 妊娠期內에 死亡한 것을 말함. 原因은 매우 많다. 倒仆하여 胎兒를 損傷한 경우가 있고, 妊婦가 熱病을 앓아서 熱毒이 胎兒를 傷한 경우가 있으며, 母體가 本來 虛弱하여, 病後에 胎元이 失養된 경우가 있고, 또한 胎兒가 臍帶에 목이 감겨 氣絶 倒死한 경우도 있다. 오랜 時間 出産하지 못하여 胎兒가 窒息 死亡한 것을 「胎死不下」라 한다.

瀉肺(사폐)

「瀉白」이라고도 함. 肺內의 溫熱을 淸解하는 方法이다. 咳嗽 氣喘하고, 皮膚蒸熱(저녁때 더甚하다), 舌紅苔黃, 脈象細數 等症이 있으면, 瀉白散(地骨皮, 桑白皮, 生甘草, 粳米)을 써서 治療하면 좋다.

蛇皮癬(사피선)

魚鱗癬이라고도 함. 患部의 皮膚가 蛇皮狀 或은 魚鱗狀이 되므로 이렇게 이름한다. 대개는 血虛하여 生風하고 風邪가 肌部를 搏하므로 생긴다. 本病은 四肢의 伸側에 잘 생기며 重한 경우에는 全身에 번진다. 得病後에 患部의 皮膚가 漸次 灰色으로 변하며 乾

燥, 粗糙하고 皮膚가 角化하여 鱗層이 생겨서 손으로 만지면 약간의 찌르는 듯한 感(刺感)이 있다. 冬季에 發하기 쉬우며 頑固하여 좀처럼 낫지 않는다.

瀉下(사하)

「下法」의 項 參照.

瀉下禁例(사하금례)

아래의 情況에서는 瀉下法을 쓸 수 없다. 1)病邪가 外表에 있거나, 或은 半表半裏에 있는 경우. 2)老年層의 血虛로 因한 腸燥症인 경우. 3)新産婦의 血虛로 因한 便秘. 4)病後津液의 耗損으로 因한 便秘. 5)大失血의 病人. 6)熱邪가 裏部에 있어서 大便이 秘結한 것은 瀉下해야 할 證候인데, 病人의 臍部의 上下左右에 動氣가 있는 경우와, 脈이 微弱하거나 或은 浮大하여 按壓하면 無力하고 或은 脈遲한 경우, 氣喘하면서 胸部가 脹滿한 경우, 嘔吐하려는 경우, 病人이 平素 胃弱하여 食欲不振한 경우, 病人이 平素 氣虛하여 動作하면 氣喘하는 경우, 病人의 腹部가 脹滿한데, 때로 輕減되었다가 얼마 안 되어 다시 脹滿하는 경우, 孕婦 或은 月經期인 경우 等에는 瀉下해서는 안된다. 以上으로 瀉下해서는 경우를 例舉하였다. 下法이 不宜한데도 瀉下하지 않으면 안될 경우가 있으니, 「表裏雙解」, 「攻補兼施」, 「潤下」, 「蜜煎導」, 「猪膽汁導」의 各項을 參照.

四海(사해)

髓海(腦), 血海(衝脈), 氣海(膻中), 水穀之海(胃)를 말함(靈樞, 海論에 있음).

邪害空竅(사해공규)

「空竅」란, 耳·目·口·鼻 등의 器官을 말함. 病邪가 侵害하여 이들 器官에 나타내는 病變. 例컨대, 風寒은 鼻流清涕 鼻塞不通을 惹起하며, 風熱火邪는 眼目紅赤 耳病을 惹起하고, 燥邪는 鼻咽乾燥를 惹起하는 等이다.

邪火(사화)

生理的 火와 相對되는 것이며, 病因중의 火邪나, 病變중에 생기는 化熱現象이 모두 이에 屬한다. 「火」의 項 參照.

瀉火熄風(사화식풍)

「清熱熄風」이라고도 함. 熱極生風(實熱症)을 治療하는 方法이다. 熱性病의 高熱로 因해 手足抽搐, 兩眼上익, 項強, 甚한 경우 配付가 弓狀으로 反張되고 神志가 昏迷해지는 것을 「熱極生風」이라 한다. 患者가 苔黃舌質紅, 脈弦數을 나타낸다. 鉤藤, 蚯蚓, 全蝎, 蜈蚣, 生石決明, 生牡蠣, 石膏, 黃連, 大靑葉 等藥을 쓰면 좋다.

數脈(삭맥)

脈象의 一種. 脈動이 急屬하여, 醫師의 1回 正常呼吸에 患者의 脈搏이 5回異常(1分간 90回 異常)인것. 熱證과 關聯됨. 數하고 有力함은 實熱이며, 數하고 無力함은 虛熱이다.

疝(산)

①一般的으로, 體腔의 内容物이 밖으로 突出되는 病症을 말함. 대개 氣痛의 症狀를 隨伴하므로 「疝氣」, 「小腸氣」, 「小腸氣痛」, 或은 「盤腸氣」라고도 함. 例컨대 腹壁, 鼠蹊部로 突出하고, 或은 腹腔에서 陰囊으로 下垂하는 「腸疝」 등이 있다. ②生殖器, 睪丸, 陰囊部分의 病症을 말함. 例컨대, 男女 外生殖器的 腫瘍이 潰破되어 膿이 흐르고, 尿孔에서 腐敗한 精濁物이 流出되며, 睪丸 或은 陰囊이 腫大 疼痛하는 등의 病症이며, 腹部症狀를 兼有하는 경우도 있다. ③腹部的 劇烈한 疼痛에, 二便不通를 兼有하는 것을 말함. 例컨대 「素問·長刺節論」에서 “病在少腹, 腹痛不得大小便, 病名曰疝”이라 하였고, 「素問·骨空論」에서, “督脈爲病……從少腹上衝心而痛, 不得前後(大小便의 秘結)爲衝疝”이라 하였다.

散(산)

內服과 外用の 二種으로 나뉜다, 內服용의 散劑는 藥物을 갈아서 조말 혹은 細末로 한다. 조말은 물을 붓고 煮服하면 細末은 白湯 茶 미음 혹은 酒로써 조복한다. 外用の 散劑는 藥物의 粗강아서 그세말로 하여 局部에 산포하거나 혹은 酒 醋 蜜등으로 반죽하여 患處에 바른다. 外科 혹은 五官科에 多用된다.

酸甘化陰(산감화음)

酸味藥과 甘味藥을 同用하여 益陰하는 治法이다. 患者가 夜間失眠 多夢하고 健忘, 口舌麻爛, 舌質紅, 脈細數 等症을 發하면 酸棗仁, 五味子, 白芍藥, 生地黃, 麥門冬, 百合 등을 쓴다. 患者가 心陰이 虛하면 心陽이 亢盛해지고 心陽이 亢盛해지면 心陰이 더욱 虛해진다. 그러므로 本法에 의해 酸味藥인 酸棗仁, 五味子, 白芍藥으로 陰을 收斂하고 甘寒藥인 生地黃, 麥門冬, 百合으로 陰을 滋養하여 한편으로 收斂하고 한편으로 滋養하면 陰이 날로 伸長되고 陽亢이 날로 消退하여 陰陽이 協助하게 된다. 「化陰」이란 陰의 收斂과 滋養을 併進하여 陰을 날로 伸長케 한다는 뜻이다.

酸苦通泄爲陰(산고통설위음)

素問 至眞要大論에 있음 通은 吐이고 泄은 瀉이다 酸味와 苦味の 藥은 催吐하고 泄瀉하게 하며 그 성질은 陰에 屬한다 예컨대 膽礬은 酸味이고 瓜蒂는 苦味인데 催吐하며 大黃은 苦味인데 瀉下한다.

山廓(산곽)

八廓의 項 參照

山根(산근)

『王宮』 『頰』 『下極』이라고도 함. 左右의 眼內眥의 中間. 古人은 이곳의 望診으로 心病의 診察에 參考가 된다고 보았다.

疝氣(산기)

「疝」의 項 參照.

散脈(산맥)

脈象의 一種. 脈象이 散而不聚하여, 輕按하면 分散 散亂되는 感이 있고, 重按하면 脈動이 觸知되지 않는다. 氣血이 消亡하고, 元氣가 耗散된 所致이다. 疾病의 危重段階에서 볼 수 있다.

産門(산문)

婦女의 陰外口를 말함. 陰戶라고도 함.

散癥(산어)

「破癥消癥」의 項 參照.

酸入肝(산입간)

「五味所入」의 項 參照.

散者收之(산자수지)

『素問. 至眞要大論』에 있음. 散은 不固 不收의 證候를 말하며, 收는 收斂 收攝 固澀의 作用을 말함. 例컨대 心血이 虧損되어, 心神이 浮越해지고, 心悸 易驚함은 心氣가 不固한 것이니 養血安神해서 心氣를 收攝해야 한다. 또 久咳로 多汗 易汗함은 肺氣가 不固한 것이니 斂肺止咳法을 쓴다. 肺氣가 收斂되면 止咳 止汗된다. 或은 遺精 滑泄이 오래도록 不癒함은 腎氣가 不固한 것이니, 固腎澀精之劑를 쓴다. 腎氣가 固澀하면 遺泄이 自止된다.

産前(산전)

「臨蓐」의 項 參照.

疝瘕(산하)

『素問』『玉機眞臟論』等篇에 있음. 「瘕疝」이라고도 함. 이는 小腹部이 熱痛하며, 尿孔에서 白色의 粘液이 流出되는 病症이다.

酸鹹無昇,甘辛無降(산함무승,감신무강)

『本草綱目』『序例』에 있음. 酸味와 鹹味の 藥性은 向裏 下向하여 昇이 없다. 甘味와 辛味の 藥性은 外表를 향하여 發散하여 降이 없다. 단 이는 絶對的이 아니다. 例로서 蘇子は 氣味가 辛溫하며 沈香은 氣味가 辛微溫한데, 性味の 說에서 말한다면 모두 昇해야 할 것인데 質이 重하므로 降한다.

産後發瘧(산후발경)

「産後風瘧」의 項 參照.

産後發熱(산후발열)

産婦가 分娩後, 各種原因에 依해 일으키는 發熱을 말함. 常見되는 것은, 外感·血虛·血瘀·食滯 등의 4種이다. 外感에 屬한 경우는, 惡寒發熱, 頭痛身疼, 腰背痠疼, 無汗, 苔薄白, 脈浮 等症을 나타낸다. 이는 風寒의 邪가 虛를 틈타 侵入한 所致이다. 血虛에 起因한 경우는, 微熱, 自汗, 面紅口渴, 頭暈目眩, 四肢麻痺, 舌淡, 脈浮而中空, 或은 潮熱盜汗, 顴紅, 脈細數 等症을 나타낸다. 이는 失血過多. 陰虛陽浮의 所致이다. 血瘀에 奇人한 경우는, 惡露의 量이 적고, 瘀塊가 섞이며, 小腹이 脹痛 据按하고, 口乾하면서 不欲飲하며, 發熱이 持續不退하고, 脈이 弦澁하다. 대개 瘀血內阻에 屬하며, 營衛가 不和한 所致이다. 食滯에 起因한 경우는, 胸膈飽悶, 噯腐舌酸, 消化不良, 或은 脘腹脹痛, 苔厚膩, 脈滑 等症을 나타낸다. 대개 美味를 飽食하여 胃에 正體된 所致이다.

産後腹痛(산후복통)

腹痛과 小腹痛을 包括하며, 小腹部의 疼痛이 常見된다. 대개는 血瘀, 氣血虛, 或은 風寒을 感受한 所致이다. 産後의 瘀血凝滯(或은 風冷에 瘀血을 兼함)를 주로 하는 것을 「兒枕痛」이라하며, 小腹部에 硬塊가 만져지고, 뚜렷한 壓痛이 있으며, 通常 惡露가 不暢하거나 或은 不下하며, 胸腹이 脹滿하고, 脈은 대개 脈澁有力하며, 偏寒과 偏熱의 차이가 있다. 氣血虛에 起因한 境遇는, 언제나 風寒을 外感하기 쉽고, 대개 腹痛하여 熱按을 좋아하며, 往往 硬塊를 찾지 못하는 수가 있고, 頭昏目眩하며, 體倦畏寒하고, 甚하면 心悸, 氣短, 舌質淡, 脈虛細 或은 弦澁을 나타낸다. 瘀血이 兼挾되면, 小腹이 經痛하고, 舌質이 대개 暗黑色을 띤다. 氣滯를 兼하게 되면, 胸悶 腹脹하고, 大便溏薄 等症을 나타낸다.

産後三級(산후삼급)

産後 産婦에게 나타나는 嘔吐不止, 盜汗 및 泄瀉頻繁 등 迅速히 津液을 傷하고, 氣를 耗損하는 三種의 急増을 말함. 特히 三者가 併發하는 것은 危重한 證候이다.(張氏醫通).

産後三衝(산후삼충)

産後 惡露不下에 感染되는 等の 原因으로 惹起되는 三種의 危重證候를 말함. 즉, 「敗血衝心」, 「敗血衝胃」, 「敗血衝肺」를 「三衝」이라 合稱한다. 여기서 말하는 「敗血」은 主로 下해야 할 것이 不下하는 惡露를 말함. 詳細한 것을 該當 各項을 參照.

産後音啞(산후음아)

産婦가 分娩後에 聲音이 쉬는(甚하면 목소리를 내지 못함) 證候이다. 平素 腎虛한데, 産後에 陰精이 上承하지 못하기 때문에 생긴다.

産後喘促(산후천촉)

分娩後の 喘急한 證候이다. 主된 原因은 두 가지이다. 하나는 陰虛가 이미 甚한데, 失血이 過多하여, 上部에서 氣脫이 되어, 곧 脫하려고 하는 重證이고, 또 하나는, 寒邪가 肺를 犯하여, 肺氣가 不宜해서 喘急해지는 것이며, 대개 숨이 거칠고, 胸脹하며, 咳嗽한다. 風寒外感證에 屬한다. (景岳全書)

産後風痙(산후풍경)

「産後發痙」이라고도 함. 産後急症의 하나이다. 主要症狀은, 突然 項背가 剛直하고, 四肢가 抽掣하며, 甚하면 口噤不開하고, 角弓反張이 된다. 대개는 産後에 風邪를 感受한데다가 失血이 過多하여 津液이 虧損된 所致이다. 虛證과 實證의 二種類로 區分된다. 虛證은, 頸項이 強直되고, 牙關緊閉, 面色이 蒼白 惑은 危黃하며, 四肢抽搐, 脈虛數 等症을 나타낸다. 萬若 氣血이 拘急히 衰弱하면 肢體가 強直되고, 肢冷하며, 兩手を 약간 벌리고, 氣喘 自汗하며, 눈을 뜨고 입을 벌리며, 脈이 浮大하고 虛하다. 實證은, 대개 外感症狀이 먼저 나타난 다음에 四肢強直, 牙關緊閉, 脈浮弦 等症을 發한다. 만약 內熱이 熾盛하면, 身熱口渴하고, 面色潮紅, 混悶, 兩手緊握, 便閉尿赤, 脈弦數 等症을 發한다. 本病은 대개 産後의 破傷風 感染에 屬한다. 現在는 早産方式의 發達로 因해 本病을 거의 볼 수 없게 되었다.

産後血暈(산후혈혼)

産後急症의 하나이다. 主要症狀은, 分娩後에 忽然 頭暈하고, 目眩眼昏하여 起坐不能하고, 或은 心中이 滿悶하며, 惡心嘔吐하고, 或은 痰이 끓어 올라 氣急해지며, 甚하면 口噤 神昏하여 人事不省이 된다. 閉證과 脫證의 區分이 있다. 閉證은 惡露가 不下하거나 或은 量少하고, 小腹이 硬痛하며, 眩暈時에 神昏 口噤하고, 兩手を 緊握하며, 面黃 或은 暗紫하고, 舌紫하며, 脈弦有力하고, 實證에 屬하며, 대개는 血瘀 上攻의 所致이다. 脫證은, 面色이 蒼白하고, 惡露가 많으며, 眩暈時에 입을 벌리고, 손을 펴고, 四肢가 冷하며, 舌淡無苔하고, 脈象이 大虛 或은 微細欲絶하며, 甚하면 冷汗이 淋漓하고, 神志가 昏迷하며, 口唇과 肢端이 靑紫色을 띠는 등의 shock 證候를 나타낸다.

殺蟲(살충)

驅蟲의 項 參照

三奇(삼기)

「三寶」의 項 參照.

參芪膏(삼기고)

劑의 項 參照

三稜針(삼릉침)

鋒針의 項 參照

杉籬(삼리)

古代의 正骨用器具이다. 負傷한 四肢의 形狀, 患部의 長短廣狹에 따라 杉木을 竹籬(죽울타리)모양으로 엮어서 (杉木의 兩端에 各各 한 小孔을 뚫고 끈으로 엮으면, 그 形狀이 竹籬와 비슷하므로 이렇게 이름한다). 骨折된 患肢를 固定하는데 쓴다. 現在는 小夾板이 쓰이고 있다.

三毛(삼모)

足大趾의 爪甲의 後方部分. 足大趾趾骨의 第2節部分에 해당함.

三法(삼법)

汗, 吐, 下의 三法을 말함. 金代의 張子和는 『儒門事親』에서 汗, 吐, 下의 三法은 기타의 治法을 포함하는 것으로 보았다. 그는 涎液을 流出케 하고 嗅鼻藥을 써서 痰涎기를 시키며 點眼藥으로 催淚하는 등의 上向하는 作用은 모두 吐法에 屬하는 것으로 보았다. 또 灸, 蒸, 熏, 洗滌, 熨, 烙, 鍼刺, 砭刺(石針), 按摩 등의 解表作用이 있는 것은 모두 汗法에 속한다고 하였다. 分娩促進(催生), 乳汁의 分泌促進, 癥積의 攻伐, 逐水, 通經行血(月經), 絳氣 등의 下向하는 作用은 모두 下法에 속한다고 하였다. 張子和의 이러한 論法은 단지 그 개인의 주장일 뿐이며 실제로는 汗, 吐, 下의 三法이 八法 중의 기타 五法을 包括할 수 없다.

三寶(삼보)

精·氣·神을 뜻함. 「三奇」라고도 함. 이 理論은 人體의 生命活動을 說明하는 데 쓰인다. 「三寶」는 生命現象의 產生과 그 變化의 根本이 되는 것으로 認識한다. 이는 仙人이 道家思想의 影響을 받아서 借用한 述語이다. 實際上, 神의 活動에는 物質의 基礎가 있다. 精은 氣의 母(즉 氣는 精에서 產生됨)이며, 精의 化生은 氣에 依存한다. 精氣가 充足하면 神旺하고, 精氣가 虛하면 神衰한다. 故로 精 氣 神 三者의 關係는 매우 密接하여, 存在하면 具存하고 亡하면 俱亡한다. 精脫者는 死하고, 失神者도 역시 死한다. 그래서 精·氣·神은 生命存亡의 關鍵이 되므로 「三寶」라 한다.(精·氣·神의 各項 參照).

三伏(삼복)

① 初伏 中伏 末伏을 말함. 一年中 最炎熱한 時候이다. 夏至후부터 세째 「庚」日이 初伏, 네째 「庚」日이 中伏, 立春후 첫 「庚」日이 末伏이다. ② 末伏을 말함. 즉 初伏 二伏 三伏이 순서이다.

三部九候(삼부구후)

①『素問』「三部九候論」에 있음. 古代 最初의 全身遍診法의 一種이다. 즉 人體를 頭部, 上肢, 下肢의 三部로 나누고, 每部에 各各 上, 中, 下 3個所의 動脈이 있는데, 이들 部位를 診脈하는 것을 三部九候라 함. 頭部 上 - 兩額動脈(太陽穴)에서 頭部의 病變을 候함. 中 - 兩頰耳前動脈(耳門穴)에서 耳目의 病變을 候함. 下 - 兩搏動脈(地倉, 大迎穴)

에서 口齒의 病變을 候함. 上肢 上 - 手太陰肺經의 動脈(寸口穴)에서 肺를 候함. 中 - 手少陰心經의 動脈(神門穴)에서 心을 候함. 下 - 手陽明大腸經의 動脈(合谷穴)에서 胸中을 候함. 下肢 上 - 足厥陰肝經의 動脈(五里穴, 婦女는 太衝穴)에서 肝을 候함. 中 - 足太陰脾經의 動脈(箕門穴)에서 脾를 候하고, 足陽明胃經의 動脈(衝陽)을 配合하여 胃氣를 候함. 下 - 足少陰腎經의 動脈(太谿穴)에서 腎을 候함. ②臨床實淺에 根據하여, 全身 遍診法을 簡略化해서, 一般的으로 단지 寸口脈만을 살피는 것으로, [獨取寸口]라 한다. 寸口脈을 寸, 關, 尺의 三部로 나누고, 每部를 各各 輕按, 中按, 中按의 指力에 相應하게 浮, 中, 沈의 三候으로 나누어 모두 九候가 된다. 이밖에 張仲景의 傷寒論 原書에서 말한, 三部는 人迎(結喉 兩側의 總頸動脈), 寸口(腕部의 桡骨動脈), 趺陽脈(足背部의 前脛骨動脈)을 말함.

三消(삼소)

上消·中消·下消의 三種類의 證型의 合稱이다. 이는 病機, 症狀, 病情發展段階의 差異에 따라, 消渴病을 三種類로 分型한 것이므로 이렇게 이름한다.

參蘇飲(삼소음)

「益氣解表」의 項 參照.

滲濕于熱下(삼습우열하)

靑代 葉桂의 『溫熱論』에 있음. 熱性病의 濕邪가 熱보다 重하여 熱邪가 水濕에 抑退되어 外透不能하면 利濕藥을 써서 水濕을 分離해야만 熱邪가 外透할수 있다. 例컨데 濕溫의 初期에 頭痛惡寒, 心中疼痛, 舌白不渴, 脈弦細而濡, 胸悶不起, 午後身熱연고한 경우, 三仁湯(杏仁, 飛滑石, 白通草, 白蔻仁, 竹葉, 厚朴, 生薏仁, 半夏)을 쓴다. 그중의 滑石, 白通草, 生薏仁은 모두 淡滲 利濕하며 기타 芳香祛濕藥을 配合해서 治療目赤에 도달한다.

摻藥(삼약)

外用藥이다. 摻藥은 一般的으로 少量의 藥物粉末을 膏藥의 中心에 놓고 腫瘍위에 貼敷한다. 또 摻藥은 油膏위에 摻布해도 좋고 或은 直接 瘡面위에 摻布하거나 或은 藥線위에 粘敷해서 瘡口內에 插入하기도 한다. 摻藥의 處方이 各異하므로, 各其 다른 작용을 갖게 된다. 즉 消腫, 散毒하고 膿汁을 透導 하며 腐蝕된 것을 除去하고, 腐蝕作用으로 努肉을 除去하여 正常化하며, 새살이 돌아 瘡口를 아물게하고(生肌收口), 止痛, 止血하는 등이다(膿汁을 透導하며 腐蝕된 것을 除去하는 昇丹은 삼藥의 일종이다.)

三陽(삼양)

①太陽·陽明·少陽 三經의 總稱. 그중에 手三陽과 足三陽을 包括하여 實際로는 6條의 經脈이다. 六經辨證上 三陽病系는, 病邪가 體表의 淺層에 있거나 或은 六腑에 有病함을 指稱한다. ②太陽經의 別名(『素問』『陰陽別論』의 馬蒔注). 傷寒病이 表에서 裏로 傳해지

는 發病順序에 依하면, 三陽經中에서 太陽經이 最表層에 있고, 먼저 發病하므로 「三陽」이라 稱하며, 그 다음은 陽明經으로, 「二陽」이라 하고, 또 그 다음이 少陽經으로, 「一陽」이라 한다. ③足太陽膀胱經의 別名(『素問』『大奇論』의 馬蒔注).

三陽病(삼음병)

六經辨證의 項 參照.

三陽在頭,三陰在手(삼양재두,삼음재수)

三陽在頭는 足陽明經의 頭頸部의 人迎動脈을 말하고, 三陰在手는 手太陰經의 手腕部の 寸口動脈을 말함(『素問』『陰陽別論』). 이는 三陽之氣가 陽明胃氣를 本으로 삼고, 三陰之氣가 太陰脾氣를 本으로 삼기 때문이다(『類經』의 張注).

三陽合病(삼양합병)

太陽經과 少陽經의 邪熱이 同時에 陽明經에 入하여, 陽明邪熱이 獨盛한 證候를 出現함을 말함. 그 症狀으로는 身熱, 口渴, 汗出, 腹部脹滿, 身倦沈重, 轉側困難, 言語不利, 口不知味하며, 一見해서 顔面에 汚后가 낀것 같고, 神昏譫語하며, 小便失禁 등이 나타난다.

三陰(삼음)

①太陰·少陰·厥陰 三經의 總稱. 그중에 手三陰과 足三陰을 包括하여 實際로는 6條의 經脈이다. 六經辨證上 三陰病系는, 病邪가 身體의 深部に 있거나 혹은 五臟에 有病함을 指稱한다. ②太陰經의 別名(『素問』『陰陽別論』의 王冰注). 傷寒病이 表에서 裏로 傳해지는 發病順序에 依하면, 三陰經中에서 太陰經이 먼저 發病하므로 「三陰」이라 稱하며, 그 다음은 少陰經으로, 「二陰」이라 하고, 또 그 다음이 厥陰經으로, 「一陰」이라 한다. ③足太陰脾經의 別名(『素問』『陰陽別論』의 馬蒔注).

三陰經(삼음경)

三陰經의 症狀이 出現하는 瘕病을 말함. 臨床上, 手足厥冷, 筋脈拘急, 汗出不止, 項強, 脈沈 等症이 나타나는 外에, 頭搖口噤(厥陰에 屬함), 四肢不收, 發熱腹痛(太陰에 屬함), 閉目嗜睡(少陰에 屬함)등의 三陰經의 症狀를 나타낸다.

三陰病(삼음병)

六經辨證의 項 參照.

三陰瘧(삼음학)

「三日瘧」을 말함. 元氣가 內虛하고, 衛氣가 不固하므로, 病邪가 深入하여, 每三日間隔으로 1회씩 發作하여, 邪氣가 「三陰」에 潛伏하므로 이렇게 이름한다. 一說로는 病邪가 끈질기고, 日久하며, 三陰經의 主症을 兼有하게 되므로 이렇게 이름한다고도 함.

三因(삼인)

古代에 病因을 「內因」, 「外因」, 「不內外因」의 三種類로 나누었다. 「三因」은 이 三種類の 病因의 總稱이며, 陳無擇의 「三因極一病證方論」에 있다. 陳氏는 「金匱要略方論」의 「千般疾難 不越三條」의 뜻을 擴大하여, 「六淫」을 外因이라 하고, 「七情」의 過極을 內因이라 하고, 飢飽, 勞倦, 跌仆, 壓溺, 虫獸傷 등을 不內外因이라 하였다. 이들은 모두 發病條件이 發病過程에서 結合된 分類方法이다. 實際上 內因은, 主로 人體의 正氣의 盛衰 情況을 말한다. 所謂 「正氣存內 邪不可干」(正氣가 內部에 있으면 邪가 侵犯하지 못한다)으로, 內因은 體質, 精神狀態 및 抗病能力 등을 包括한다. 正氣의 相對的不足은 發病의 根據가 된다. 氣候의 變化, 疫癘病邪, 外傷 虫獸傷, 精神刺戟, 過勞, 飲食不節 등은 모두 外來의 發病要因이며, 疾病發生의 條件이다.

三仁湯(삼인탕)

「滲濕于熱下」의 項 參照.

三仁湯(삼인탕)

「通陽」의 項 參照

三日瘧(삼일학)

「瘧疾」의 項 參照.

三刺(삼자)

①古代針法의 一種 그 方法은 針을 刺入하는 皮下의 深度를 三層으로 나누어 먼저 深層에 刺入하고 다음에 약간 깊이 刺入하며 最後에 더 깊은 部位에 刺入한다 (『靈樞』「官針篇」에서 “始刺淺之 以逐邪氣而來血氣 後刺深之 以致陰氣之邪 最後極深刺之以下穀氣”) ②「齊刺」의 別稱.

三子養親湯(삼자양친탕)

「消痰」의 項 參照.

三才補瀉(삼재보사)

提插補瀉의 項 參照

三焦(삼초)

六腑의 하나. 「上焦」·「中焦」·「下焦」로 나뉜다. 部位를 말할 때, 上焦는 일반적으로 胸膈以上部位를 말하며, 心.肺를 內部에 包括한다, 中焦는 膈下 臍部以上部位를 말하며, 脾胃 등의 臟腑를 포함한다. 下焦는 臍以下部位를 말하며, 腎·膀胱·小腸·大腸을 포괄한다.(病理生理의 角度에서는 部位가 비교적 높은 肝도 包括한다. 故로 下焦는 往往 肝·腎을 함께 論한다.)機能으로 말하면, 「靈樞 營衛生會篇」에서 “上焦如霧(主로 心肺의 輸布作用을 말함), 下焦如瀆(腎과 膀胱의 排尿作用을 말하며, 아울러 腸道의 排便作

用도 包括함)”이라 하였다. 이들 기능은 실제로는 體內的 臟腑의 氣化機能을 綜合한 것이므로, 三焦의 機能을 概括해서 말하면, 水穀을 受納하고, 飲食物을 消化하며, 氣血精微物質을 化生하고, 營養을 輸送하며, 廢物을 排泄하는 것이다. 三焦의 「焦」字에는 「熱」의 뜻을 含有하는데, 이런 熱은 命門火에서 來源하며, 氣化의 作用에 의해 體現된다. 三焦의 實體에 대해서는 아직도 未解決의 문제로 論爭이 되고 있다. 『靈樞』『營衛生會篇』에서는 “上焦出於胃上口, 并咽以上, 貫鬲而布胸中.....中焦亦并胃中, 出上焦之後,.....下焦者, 別迴腸, 注于膀胱而滲入焉”이라 하였다. 「難經」에서는, 三焦를 “有名而無形”이라 하였고, 張介賓은 「類經附翼」에서 “……及之徐遁, 陳無擇始創言三焦之形, 云 ‘有脂膜如掌大, 正與膀胱相對, 有二白脈自中出, 夾脊而上, 貫于腦’……(…徐遁, 陳無擇에 이르러 처음으로 三焦의 形狀을 말하게 되었다. 즉, 手掌大의 脂膜이 있어서 바로 膀胱과 對應한다. 두 개의 白脈이 그 속에서 나와, 脊을 끼고 上行하여 腦를 貫하며……)”라고 기재하였다. 張氏 本人은 “三焦는 臟腑의 外偉이다”, “所謂 焦란, 火와 類似한 것이며 赤色이고 陽에 屬하는 것을 말한다, 사람의 身體에서 外는 皮毛이고 內는 臟腑인데 腔腹의 周圍上下全體의 形狀은 大囊과 같고 無巨無名 無細無見란 것은 과연 무엇일까? 그 內側의 한 層은 形色이 最赤하고 六合(十二經別의 六合)처럼 諸陽을 總括保護하고 있다. 이것이 三焦가 아닐까?”라고 하였다. 虞搏의 「醫學正傳」에서는 三焦란 腔을 指稱하는 것이며, …三焦라 總稱하고, …그 形狀은 腔內에 脂膜이 있어서 五臟六腑이외의 것을 包羅한다. “고 하였다. 王清任의 「醫林改錯」에서는 ”網油“가 三焦라고 하였다. 唐容川은 「血證論」에서 ”三焦는 옛날 膽로 썼고, 人體의 上下內外를 貫通하는 油膜이다,“라고 하였다. 以上은 古代醫家の 몇가지 主要論點인데 三焦가 人體에서 氣化綜合機能을 한다는 全面的解析은 모두가 하지 못하였다. 拔萃하여 參考로 한다.

三焦辨證(삼초변증)

三焦辨證은 溫熱病의 辨證方法의 하나이다. 이는 內經의 三焦部位를 傳變情況과 結合시켜, 總括한 것이다. 心肺의 病辨은 上焦에 屬하고, 脾胃의 病辨은 中焦에 屬하며, 肝腎의 病辨은 下焦에 屬한다. 三焦에 所屬되는 各經의 主要症狀은 다음과 같다. (1)上焦: 手太陰肺經의 病에는 發熱惡寒, 自汗頭痛, 咳嗽 等症이 있다. 手厥陰心包經의 病에는 舌質紅絳, 神昏譫語, 或은 舌蹇 肢厥 等症이 있다. (2)中焦: 足陽明胃經의 病에는 發熱不惡寒, 汗出, 口渴, 脈大 等症이 있다. 足太陰脾經의 病에는 身熱不揚, 體痛且重, 胸悶嘔惡, 苔膩, 脈緩 等證이 있다. (3)下焦: 足少陰腎經의 病에는 身熱面赤, 手足心熱하고 深하면 手足背도 熱하며, 心躁不昧, 脣熱舌燥 等症이 있다. 足厥陰肝經의 病에는 熱甚厥甚, 心中憺憺, 手足蠕動하며 深하면 抽搐한다. 三焦의 病辨에는 各其 다른 證候類型이 있어서, 瘟疫傳變의 세가지 各異한 段階의 標識가 된다. 初期에는 病이 上焦에 있고, 極期에는 病이 中焦에 있거나 或은 心包로 逆傳하며, 末期에는 病이 下焦에 있다. 이렇게 上에서 下로 傳變하여, 비록 衛氣營血辨證과 比較할 때 縱.橫의 角度的 差異는 있지만, 基本精神은 역시 一致하며, 相互 參照가 된다.

三焦實熱(삼초실열)

①上·中·下 三焦의 實熱을 말함. 上焦는 心肺의 實熱을 말하고, 中焦는 脾胃의 實熱

을 말하며, 下焦는 肝腎의 實熱을 말함. ②「氣分」實熱證의 別稱.

三焦主決瀆(삼초주결독)

「決瀆」은 水道를 疏通시킨다는 뜻. 三焦에는 水道를 通調하여 水液을 運行시키는 作用이 있다. 故로 「決瀆之官」(『素問』「靈蘭秘典論」에 있음)이라고도 한다. 三焦의 決瀆機能은, 많은 臟器와 聯合하여 그 作用을 發揮하는바 그중에서 특히 腎·脾·肺등과 關係가 密接하다. 이들 臟器에 機能障礙가 있으면 三焦가 通利하지 않고, 氣化가 失調되어 腫腸이나 小便不利 等症을 發한다.

三焦咳(삼초해)

咳嗽할 때, 肚腹이 脹滿하고 食欲이 없는 證候를 말함.

三焦虛寒(삼초허한)

①上·中·下 三焦의 虛寒을 말함. 上焦는 心肺의 虛寒을 말하고, 中焦는 脾胃의 虛寒을 말하며, 下焦는 肝腎의 虛寒을 말함. ②水腫病과 下消病機의 하나이다.

三衝(삼충)

「產後三衝」의 項 參照.

三品(삼품)

上品 中品 下品이라고도 함 素問 至眞要代論과 神農本草經에 있음. 이는 古代의 藥物 分類법의 一種이다. 당시에 毒性이 없고 多服 久服해도 人體에 損害를 주지 않는 것을 上品이라 하였고, 毒性이 없거나 혹은 有毒하더라도 參酌하여 씹으로써 治病 補虛할수 있는 것을 中品이라 하였으며, 多毒하여 長期服用할수 없지만 寒熱의 邪氣를 除하고 積聚를 破하는 것을 下品이라 하였다. 이는 當時에 一定한 參考가 되었짐나 上品藥 중에도 일부 劇毒이 있는 藥物이 包含되었으므로, 이 分類法은 比較的 原始的이었다고 할 수 있다.

三陷證(삼함증)

瘡瘍의 邪毒이 內攻함으로써 出現하는 「火陷」, 「乾陷」, 「虛陷」等 三種類의 逆症을 말함. (1)火陷: 瘡瘍의 形成期 或은 化膿期에 볼수 있으며, 瘡頭가 높지 않고, 根盤이 散漫하며, 瘡이 暗紫色이고, 瘡口가 乾枯無膿한데, 灼熱劇痛한다. 아울러 壯熱, 口渴, 便秘, 尿短, 煩躁不安, 神昏譫語, 舌絳脈數 等を 隨伴한다. 대개 陰液虧損, 火毒熾盛의 所致이다. (2)乾陷: 대개 化膿하여 穿潰期에 이르는 사이에 나타난다. 대개는 氣血이 兩虛하여 釀膿不能하므로 毒이 外托할수 없어서, 局部이 腐膿이 透發하지 못하여, 瘡口의 中央이 糜爛되며, 膿이 적고 稀薄하며, 瘡이 暗灰色을 띠고, 瘡頂이 平平하다. 發熱惡寒, 神疲, 自汗, 脈虛數 等症을 隨伴한다.甚하면 肢厥 脈微한 脫證으로 轉變한다. (3)虛陷: 대개 收口期에 나타나며, 氣血이 兩傷되거나 或은 脾腎의 陽衰로 因해, 腐肉이 脫落되더라도 膿水가 稀薄하고, 新肉이 不生하며 瘡口가 오래도록 아물지 않고, 瘡面에서는

疼痛을 느끼지 않는다. 寒熱不退, 神疲, 消化不良 或은 腹痛泄瀉, 汗出肢冷 等を 隨伴하며, 脫證으로 轉變할 水道 있다.

三黃石膏湯(삼황석고탕)

「表裏雙解」의 項 參照.

澁脈(삼맥)

脈象의 一種. 脈의 흐름이 미끄럽지 않고, 虛細하고 遲하며, 脈搏이 가끔 不規則하며, 마치 가벼운 칼로써 竹片을 긁는 것과 같다. 대개 血少傷精, 津液虧損, 氣滯血瘀의 所致이다. 貧血, 心機能不全 등에서 볼 수 있다.

插藥(삽약)

瘡內에 插入하는 가느다란 藥條(藥의 粉末에 濃糊를 加하여 線條를 만든 것)로서, 腐植作用이 있다. 組織이 壞死된 肌肉이나 痛痒의 感覺이 없는 瘡에 쓰인다. 插藥에는 劇毒이 있는 礦物藥이 있으므로 使用後 往往 強烈的 疼痛을 느끼는 수가 있으니 경솔하게 使用해서는 안된다.

澁腸固脫(삽장고탈)

澁腸止瀉의 項參照.

澁腸之瀉(삽장지사)

澁腸固脫이라고도함. 久瀉로 大便이 自出(즉 大便이 滑脫不禁)함을 治療하는 方法이다. 下痢가 오래도록 下止하고 大便에 膿血이 섞여 不淨하며 便血色이 暗紅하고 大便이 自出하여 調節이 不能하며 脫肛不收하고 腹痛하여 溫蔚을 좋아하며 혹은 뜨거운 手掌의 按摩를 좋아하고 脈遲弱或細한 경우 養臟湯(白芍藥, 當歸, 黨參, 白朮, 肉豆蔻, 肉桂, 炙甘草, 木香, 訶子, 罌粟殼)을 써서 치료한다. 泄瀉滑脫에도 이 方法을 쓰면 좋다.

澁劑(삼제)

「澁可去脫」로서 牡蠣, 龍骨의 類이다. 澁은 收斂이란 뜻이고, 脫은 滑脫하여 견고하지 못하다는 뜻이며, 收斂하는 藥物을 써서 治療해야 한다. 例컨대, 病後의 自汗은, 衛氣가 不固한 것으로, 牡蠣散(麻黃根, 黃芪, 牡蠣)을 쓴다. 腎虛하여 遺精하고 或은 睡眠中에 無意識的으로 精出하는 경우는 金鎖固精丸(沙苑蒺藜, 芡實, 蓮鬚, 龍骨, 牡蠣)을 쓴다.

頰(상)

「額頰」의 項 參照. 이마.

上膈下膈(상격하격)

上膈은 食入則吐하는 것이고 下膈은 朝食暮吐하는 것이다.

上工(상공)

古代에 技術이 優秀한 醫員을 일컫던 呼稱이다. 上工이라 칭하게 되는데는 구체적인 要求條件이 있었다. 즉 疾病이 아직 發病하기 전에 或은 이미 發病했더라도 發展하기 전에 일찍 診斷을 내리고 豫防과 治療를 하며 도한 90%以上の 治癒率에 到達되는 것이 要求되었다.

傷科(상과)

「正骨」의 項 參照.

桑菊飲(상국음)

「奇方」의 項 參照

上厥下竭(상궤하갈)

下部의 眞陰·眞陽이 衰竭됨으로써 昏厥 意識混濁 等の 症狀을 나타냄을 말한다. 「厥證」의 項 參照.

上竅(상규)

頭面部의 孔竅를 말함

相克(상극)

相互制約, 排斥 혹은 克服을 뜻함. 五行學說은 相克의 關係로써 事物에 相互拮抗의 一面이 있음을 說明함. 具體的으로, 木克土, 土克水, 水克火, 火克金, 金克木이다. 相克은 本來 正常範圍內的 制約에 屬하는데, 近來 사람들은 이를 異常的인 「相乘」과 混同하는 習慣이 있다. 例:病理上으로 木이 土에 乘함(木乘土)을 「木克土」로 通稱하고 있다.

上氣(상기)

① 呼氣가 많고 吸氣가 적어 氣息이 促急함을 말하며 이는 肺經이 邪를 받아 氣道가 不利한 證候이다. ② 上部의 氣(心肺의 氣)를 말함. 心肺는 人體의 上部에 있으므로 이렇게 말함.

上氣海(상기해)

「氣海」의 項 參照.

上丹田(상단전)

「丹田」의 項 參照.

上都穴(상도혈)

「八邪穴」의 項 參照.

上廉(상렴)

廉의 項 參照

常脈(상맥)

平脈의 項 參照.

相侮(상모)

「侮」는 強함을 믿고 弱한 것을 업신여김(凌辱)을 뜻함. 「相侮」는 「相克」의 反對로서 反克이며, 事物間의 關係가 正常協調를 벗어난 一種의 表現이다. 例: 正常의 相克關係에서는 金克木인데, 만약 金氣가 不足하거나 木氣가 偏盛하면, 木이 도리어 金을 侮하게 되어, 肺金虛損하고 肝木亢盛한 病症을 일으킨다. 五行學說에서의 「相侮」는 病理病化의 範圍에 屬함.

上膊(상박)

膈의 項 參照.

相反(상반)

七情의 하나이다. 二種의 藥物을 同用한 후에 생기는 強烈한 副作用을 相反이라 한다. 例로서 烏頭는 半夏와 相反한다.

上發背(상발배)

「發背」의 項 參照.

上病下取(상병하취)

「素問. 五藏政大論」에서, “病在上取之下”하고 하였다. 1) 疾病의 證狀이 上部에 出現되는데, 下部의 穴位를 鍼刺하는 것을 말함. 例컨대 失眠에 足三里를 鍼刺하고, 頭暈 目眩에 足跗의 太衝을 刺한다. 2) 疾病의 證狀이 上部에 表現되는데, 下部에서 治療하는 藥物을 쓴다. 例컨대 病人이 頭目眩暈, 耳鳴, 眼花, 苔黃, 脈洪數한데, 酒蒸大黃을 適當量 써서 輕하게 瀉下한다.

相傳之官(상부지관)

肺主治節의 項 參照.

相使(상사)

七情의 하나이다. 二種以上の 藥物을 同用하여, 그중의 一種을 主藥으로 하고, 그밖의 藥을 補로 하여, 그 藥效를 提高하는 것을 相使라 한다. 例컨대 款冬花는 杏仁을 使藥으로 한다.

傷產(상산)

「難産」의 項 參照.

相殺(상살)

七情의 하나이다. 한 藥物이 다른 藥物의 中毒反應을 消除하는 것을 相殺이라 한다. 例컨대 綠豆는 巴豆의 毒을 죽인다.

相生(상생)

相互支援, 促進, 助長을 뜻함. 五行學說은 相生의 關係로써 事物에 相互協同의 一面이 있음을 說明함. 具體的으로, 木生火, 火生土, 土生金, 金生水, 水生木이다.

傷暑(상서)

感暑라고도 함. 夏季에 暑邪에 傷하여 多汗身熱, 心煩, 口渴, 氣粗, 四肢疲乏, 小便赤澀 등의 陽暑症候를 나타내는 것을 말함.

上石疽(상석저)

「石疽」의 項 參照.

上盛下實(상성하실)

正氣가 上部에서 虛하고, 邪氣가 下部에서 實한 證候를 말함. 例컨대, 患者가 본래 怔忡證이 있어서, 心悸不寧한 것은, 大概 心血이 虛損된 所致로서, 上虛에 屬한다. 그런데 또 濕熱痢疾에 感染되어, 腹痛하며, 하루에 여러 차례 粘液이나 血이 섞인 下痢를 하고, 苔가 黃膩한 것이다. 上虛하므로 治療時에 한꺼번에 攻伐할 수 없다.

上盛下虛(상성하허)

「上實下虛」의 項 參照.

上消(상소)

「肺消」或은 「渴消」라고도 함. 口渴 多飲을 主症으로 하며, 偏熱과 偏寒의 差異가 있다. 口乾 舌燥하고, 小便이 많으며, 舌紅 苔黃한 것은, 上消의 偏熱證이며, 이는 胃火或은 心火가 肺를 熏灼하여, 肺陰을 耗傷케 하는 所致이다. 飲量보다 尿量이 많고, 急速히 야위며, 倦怠無力하고, 氣短하며, 脈이 沈遲한 것은 上消의 偏寒證이며, 이는 氣. 津이 兩傷한 所致이다.

上損及下(상손급하)

虛損病이 上部에서 下部로 發展한 病變을 말함. 「虛損」은 五臟의 虛弱으로 因해 생기는 各種疾病의 總稱이다. 往往 한 臟의 虛損이 오래 낫지 않으면 他臟에 損傷을 끼치며, 심지어 五臟에 모두 影響을 미치기도 한다. 만약 肺臟에 먼저 虛損의 證候가 나타나서 오래 되면 腎臟에 損傷을 끼쳐 腎臟도 虛해지는 것을 「上損及下」라 한다. 先人들

의 說에, 一損肺(勞嗽), 二損心(盜汗), 三損胃(食減), 四損肝(鬱怒), 五損腎(淋, 漏)라고 하였는데, 이는 上에서 下로 傳變됨을 가리켜 말한 것이다.

相須(상수)

七情의 하나이다. 性能이 相類한 兩種의 藥物을 同用하여, 相互作用을 增強케 하는 것을 相須라 한다. 知母와 黃柏이 그 例이다.

傷濕(상습)

「濕病」의 項 參照.

相乘(상승)

「乘」에는 虛에 乘하여 侵襲한다는 뜻이 있으며, 「相乘」이란, 「相克」이 太過하여 正常的인 制約의 程度를 超過하는 것이며 이는 事物間의 關係가 正常協調를 벗어난 一種의 表現이다. 例:木氣가 偏盛하여 金도 木에 對하여 正常的인 克制를 할 수 없게 될 때, 太過한 木氣가 土에 乘하여, 肝木亢盛과 脾土虛弱의 病症을 일으킨다. 五行學說中の 「相乘」은 病理病化의 範圍에 屬함.

傷食(상식)

「宿食」의 項 參照.

傷食(상식)

飲食으로인해 傷한 發病原因. 대개 暴飲暴食을 말하는데, 飲食不潔과 寒涼生冷物의 過食도 包括된다. 이들이 惹起하는 急性消化不良病症을 「食滯」라 한다. 臨床表現은, 厭食·胸脘痞悶·吞酸·噯腐·腹脹泄瀉·大便酸臭·舌苔濁膩 等이다.

上實下虛(상실하허)

①邪氣가 上部에서 實하고, 正氣가 下部에서 虛한 證候를 말함. 上과 下는 相對되는 말이다. 例컨대 脾胃가 虛弱하고, 中氣가 不足한데, 다시 寒邪를 感受하여, 한편으로 腹痛, 大便溏, 肢冷 等の 下虛證이 있고, 다른 한편으로 寒邪가 肺衛를 外束하므로, 惡寒, 頭項痛, 喘咳등 相對的으로 上部에 屬하는 表虛證도 나타나게 된다. ② 通常 肝腎不足으로, 下部에서 陰虛라고, 上部에서 陽亢함을 말함. 上盛下虛라고도 한다. 한편으로 腰膝이 痠軟無力하고, 遺精 等の 下虛證을 나타내며, 다른 한편으로는 脇痛, 頭眩, 頭痛, 目赤, 煩躁易勞 等 肝陽上亢의 證候를 나타낸다.

相惡(상오)

七情의 하나이다. 한 藥物이 다른 藥物의 性能을 減弱시키는 것을 相惡라 한다. 例컨대, 生薑을 黃芩을 惡하는데, 黃芩은 生薑의 溫性을 減弱시킨다.

上顎癰(상악옹)

喉癰의 一種이며, 「懸癰」이라고도 함. 上顎部に 생기는 癰瘍이다. 病因은, 대개 心,腎,三焦에 積熱된 所致이다. 主要症狀은, 上顎部(口蓋)에 膿腫이 突起하여, 舌의 伸縮이 困難하며, 嚥下가 不便하고, 아울러 發熱等の 全身症狀이 併發한다. 本病은 곧 上顎膿腫(口蓋膿瘍)이다.

傷陽(상양)

陽氣가 受傷됨을 뜻함. 各種의 急慢性疾患의 過程에서, 例컨대 寒邪의 [直中三陰], 或은 溫熱病에 寒熱藥物을 過用했거나 或은 發汗이나 瀉下의 過多, 或은 熱病의 末期, 或은 水濕의 停滯는, 모두 陽氣를 損傷하여, [陽虛]證候가 出現한다. 이 밖에 情志의 刺戟이 過度해도 陽氣를 耗傷하게 된다. 例컨대 暴喜가 過度하고, 心神이 浮越하면, 陽氣가 쉽게 耗傷되어, 心悸, 怔忡, 精神恍惚, 失眠 等證이 出現한다.

上熱下寒(상열하한)

①患者가 같은 時期에, 上部에는 熱性證候를 나타내고, 下部에는 寒性證候를 나타내는 것을 말함. 病因上으로는 寒熱錯雜에 起因하고, 病理上으로는 陰陽의 氣가 協調不能해서, 上部에서는 陽盛하고, 下部에서는 陰盛한 所致이다. 例컨대, 外感病에 攻下法을 誤用해서 甚한 泄瀉가 몇지 않고, 津液을 耗傷하므로, 熱邪가 上升해서 咽喉痛을 發하며, 甚하면 黃痰 或은 血痰을 咯出하게 된다. 寒邪가 下部에 盛하면, 大便溏泄, 四肢冷, 脈沈遲等を 發한다. ②腎陽이 虛하고, 陰寒이 下部에 盛하여, 火가 歸源하지 못하고, 虛陽이 上越하는 것을 말한다. 이는 眞寒假熱의 虛寒證에 屬한다.

上脘(상완)

「胃」의 項 參照.

相畏(상외)

七情의 하나이다. 이는 藥物의 相互 抑制이다. 例컨대 어떤 有毒性藥物에, 그 毒性을 制限하는 藥物을 配合하여 有害作用의 發生을 막는 것이다. 半夏는 有毒하며 生薑을 畏하는데, 半夏에 生薑을 配合하여 同用하면 半夏의 毒性을 抑制할 수 있다.

傷陰(상음)

一般的으로 溫熱病의 後期에, 肝,腎의 診陰이 受傷된것을 말함. 主要表現은, 手足心이 灼熱하고, 神倦, 消瘦, 口乾舌燥하며, 或은 咽痛, 耳聾, 顴紅, 舌乾絳, 脈細數無力 等を 나타낸다.

傷津(상진)

津液이 受傷된다는 뜻. 一般的으로, 肺胃의 津液을 말함. 熱性病의 過程에서, 邪熱의 熾盛으로 因해 往往 肺胃의 津液이 耗傷되어 潮熱症狀이 出現한다. 例컨대 肺津이 受傷되면, 乾咳無痰, 或은 痰에 血絲가 섞이고, 鼻咽乾燥, 喉痛을 發한다. 胃津이 受傷되면 口燥咽乾, 煩躁, 渴飲不止한다. 汗法의 誤用(誤汗), 誤吐, 誤下, 或은 消渴病等으로 小便

不利 或은 排便困難이 出現하는 것을 [傷寒論]에서 [亡津液]이라 하였다.

上焦(상초)

「三焦」의 項 參照

上焦如霧(상초여무)

『靈樞』『營衛生會篇』에서, “上焦如霧”라 하였다. 『霧』는, 蒸發하는 氣가 霧와 같이 두루 퍼지는 것을 形容함이다. 「上焦如霧」는 주로 心肺의 輸布作用을 뜻한다. 上焦의 心肺는 中焦에서 上輸되는 水穀의 精氣를 宣發하여, 이를 全身에 이르게 해서, 肌膚骨節을 溫養하고, 腠理를 通調시키며 體內的 各組織機關의 機能活動에 供給한다. 이 作用이 마치 霧露와 같이 고루 全身에 敷布되므로 이렇게 이름한다.

上焦主納(상초주납)

『難經』『三十一難』에서, “上焦者…主納而不出”이라 하였다. 「納」은, 여기서 주로 呼吸과 植物養分の 攝取를 말한다. 呼吸과 飲食物은 모두 上焦를 通하여 攝取되므로 이렇게 말한다.

上搭手(상답수)

「搭手」의 項 參照.

上胞下垂(상포하수)

[瞼廢]라고도 함. 先天性和 後天性的 二種類가 있다. 先天性인 것은 대개 發育不全의 결過勞 兩眼에 發生한다. 後天性인것은 대개 脾弱氣虛하고 脈絡失調하며 風邪가 胞瞼(눈꺼풀)에 侵入한 所致이며 통상 한쪽에 發生한다. 그 症狀은 上眼瞼의 筋肉이 無力하여 瞼裂을 開大할 수 없어서 언제나 머리를 들고 이마에 주름을 지어 物體를 보게 된다. 즉 眼瞼下垂症이다.

桑螵蛸散(상표초산)

「固腎澁精」의 項參照.

上品(상품)

「三品」의 項 參照

傷風(상풍)

風邪에 傷하여 發病하는 것이며, 習慣的으로 傷風感冒를 말한다. 臨床表現에는, 「風寒」 혹은 「風熱」等 各異한 類型이 있다. 「風寒感冒」, 「風熱感冒」의 項 參照.

傷寒(상한)

① 病名은 혹은 症候名이다. 廣義의 傷寒은 外感發熱病의 總稱이며 狹義의 傷寒은 太

陽表症에 屬하는 하나의 證型이며 그 主要症狀은 發熱 惡寒 無汗 頭項強痛 脈浮緊등이다. 現代 醫學에서 말하는 傷寒(장티푸스)와는 다르다. ② 病因이다. 寒邪에 傷寒 것을 말함.

傷寒兩感(상한양감)

「兩感」의 項 參照

傷寒派(상한파)

漢代 張仲景이 「傷寒論」을 著述한 이래, 後世醫家들이 자기의 經驗이나 體驗과 結合시켜, 이 書에 대하여 注解를 加한 것이 百가지나 되어, 仲景學說을 發展시키는데 一定한 役割을 하였다. 그들 사이에 各種의 相異한 見解의 論爭이 있었지만, 仲景學說을 繼承發展시키는 點에서는 一致하였다. 溫病學說이 提起되기까지, 傷寒과 溫病 사이에 學術的 論爭이 더욱 發展하여, 外感熱病的 診治에 대하여, 仲景傷寒의 學說을 尊重한 사람이 자연히 一大學派를 이루었으므로, 後世에 이를 「傷寒派」라 하였다.

上寒下熱(상한가열)

患者가 같은 時期에, 上部에는 寒性證候를 나타내고, 下部에는 熱性證候를 나타내는 것을 말함. 病因上的 寒熱錯雜에 依한 所致이다. 例컨대. 熱邪가 下部에서 發하여, 腹脹, 便秘, 小便赤澀 等證을 나타내고, 寒邪가 上部에 感受되어 惡寒, 惡心嘔吐, 舌苔白 等症을 나타낸다. 또한 上下에 각기 다른 疾病이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例컨대 上部에 痰飲 喘咳의 寒證이 있고, 下部에는 小便이 淋瀝하고 疼痛하는 熱證이 있는 것이다.

桑杏湯(상행탕)

「輕宣潤燥」의 項 參照.

桑杏湯(상행탕)

「輕宣肺氣」의 項 參照.

相火(상화)

「君火」에 相對해서 말한 것이다. 君火와 相火가 相互 配合되어 臟腑를 溫養함으로써 機能活動을 推動한다. 一般的으로 命門·肝·膽·三焦는 모두 그 속에 相火가 있으며, 相火의 根源은 主로 命門에서 發한다.

相火妄動(상화망동)

一般的으로 肝·腎의 相火가, 腎陰의 滋養을 잃음으로써 妄動함을 말함. 臨床表現은, 肝火의 上炎에 屬하는 경우는 眩暈頭痛, 視物不明, 耳鳴耳聾, 躁急易怒, 睡眠多夢, 面覺烘熱 等症을 나타낸다. 腎의 虛火內灼의 屬하는 경우는, 五心煩熱, 頭目眩暈, 腰背脛跟痠痛, 性機能興奮, 遺精早漏 等症을 나타낸다.

上橫骨(상횡골)

胸骨上端의 胸骨柄의 切痕部位. 그 外側은 鎖骨과 連接됨.

色克病(색극병)

病色相剋의 項 參照.

色脈合參(색맥합참)

辨證의 過程에서, 脈象과 病色의 變化를 相互 參照하여, 分析綜合함으로써 病情을 推斷하는 方法이다. 一般的으로, 病色과 脈象의 表現이 一致되는 것이 順證이고, 不一致한 것은 逆證이다. 例컨대 患者가 面赤脣洪하고, 舌洪苔黃한 것 등은 모두 熱邪이 盛한 病色인데, 여기에 洪數 或은 滑數한 脈象(陽脈 或은 實脈)이 나타나면 色과 脈이 一致한 것이며, 邪氣가 비록 盛하더라도 精氣가 尙足함을 表現하는 것이므로 順證이 되며, 豫後가 比較的 좋다. 만약 上述한 病色에 脈이 細數(脈虛)하면 色과 脈이 不一致한 것이며, 邪氣가 盛하고 精氣가 虛하여, 熱이 陰津을 傷했거나 或은 邪氣가 이미 內陷한 것이므로 逆證이 되며, 豫後가 比較的 나쁘다. 또한 數脈은 熱이고, 赤色 역시 熱인데, 脈數하면서 面色이 蒼白하거나, 或은 面色이 潮紅하면서 脈象이 微弱한 것은 모두 色과 脈이 相反한 逆證이 되며, 病情이 凶險함을 例視하는 것이다.

色盲(색맹)

「視赤如白」의 項 參照.

塞法(색법)

藥의 粉末을 脫脂綿이나 가아제로 싸서 동여매거나 혹은 錠劑로 만들어 鼻 陰道 肛門 내 등처에 插入하여 治療 목적에 도달하는 것이다. 예컨대 慢性副鼻腔炎을 치료하는데 川芎 辛荑 細辛 木通을 갈아서 세말하여 소량을 가제로 싸서 비강내에 插入해서 자주 更換한다. 또 부녀의 트리코모나스질염 혹은 세균성질염에는 每夜 桃樹葉의 煎수로 음도를 세척하고 가아제에 梔子 蛇床子 生黃柏 冰片을 모두 세말하여 錠 丸 劑로 만들어도 좋다)을 2~3푼씩 묻혀서 陰道에 삽입한다.

色隨氣華(색수기화)

色은 色澤을, 氣는 五臟의 精氣를, 華는 外榮을 뜻함. 正常적인 色澤은 五臟精氣의 外榮으로서, 顔面에 光澤 明潤이 含蓄되어 있다. 이는 五臟精氣가 充足한 象徴이다. 만약 病重하거나 或은 久病으로 臟氣가 已衰하면, 枯槁하고 두드러진 各種病色이 表現된다. 이는 色澤이 五臟精氣의 盛衰에 따라 相應하게 變化함을 설명한 것이다.

塞因塞用(색인색용)

『素問』「至眞要大論」에 있음. 反治法의 하나이다. 補益藥을 써서 阻塞된 假象을 治療하는 方法을 말함. 例컨대 患者가 胸脘이 肥滿하여 때로는 脹하고 때로는 減退되며, 손으로 자주 按摩하고, 得熱하면 시원하며, 食慾不振하고, 때로 久勞하며, 同時에 舌質이 淡

白하고, 脈이 虛大한 證狀을 나타내는데, 이러한 痞悶은 實證이 아니고, 脾胃의 虛弱에 起因함을 알 수 있다. 六君子湯去甘草를 써서 治療한다.

色診(색진)

望診內容의 하나이다. 이는 顔面皮膚色の 變化를 觀察함으로써 病情을 아는 方法이다. 診察시에는 모름지기 顔色の [沈浮] [散搏](搏은 團 또는 結聚의 뜻), 潤澤, 枯槁와 上下擴散의 方向등에 注意해야 한다. 例컨대, 色이 明顯하면 浮이며, 表病과 關聯이 있고, 色이 隱晦하면 沈으로서, 裏病과 關聯이 있으며, 色이 淡疏하면 散으로서, 大개 新病이며, 邪氣가 輕하다. 色이 짙고(深) 壅滯한 것은 단으로서, 大개 久病이거나 或은 邪氣가 盛한 것이다. 潤澤은 胃氣가 있는 것이고, 枯槁은 胃氣가 衰敗한 것이다. 病色の 上下擴展의 方向은 一般的으로 病變의 方向과 有關한 것으로 본다. 上述한 가운데, 특히 枯槁과 病色이 一處에 結聚된 것은, 病情이 重深한 象이다. 臨床上, 色診은 五色主病의 大綱이 된다. 但, 모름지기 症狀 脈象等과 結合시켜 全面分析을 해야만 判斷을 내릴 수 있다.

色悴(색취)

面色이 憔悴 無華한 慢性病容貌이다. 久病으로 顔色이 枯槁不潤한 것을 [夭然不澤]이라 稱하며, 慢性重病容貌에 屬하고, 熱血이 虧損하며, 胃氣가 곧 竭하려는 現象이다.

生氣(생기)

①春季의 生發之氣를 뜻하며, 萬物이 生長하기 위해 必要한 것이다. 古人은, 사람의 活動에는 季節變化의 特徵에 適應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發病하기 쉽다고 보았다. ②元氣를 生發·增強시키는 뜻을 含有함. 「素問·陰陽應象大論」에서 “壯火食氣 …… 少火生氣”(壯火는 氣를 食하고, 少火는 氣를 生함)이라 하였다. 「少火」는 正常的인 陽氣 或은 熱에너지를 뜻하며, 이러한 陽氣 或은 熱에너지는 元氣를 生發하고 增強시키는 作用이 있다.

生脈散(생맥산)

「益氣生津」의 項 參照.

生熟水(생숙수)

「陰陽水」의 項 參照

生殖之精(생식지정)

「精」의 項 參照

生津(생진)

「養津液」이라고도 함. 熱性病에 發熱이 여러 날이 되어 津液을 損耗해서 病人에게 發熱 口乾渴, 舌紅, 脣燥 等症이 있으면 津液을 滋養하는 藥物을 써서 退熱시키고 津液이

生하게 해야 한다. 例컨데 玄蓼, 麥門冬, 生地黃, 석료 等藥이다.

暑(서)

夏季의 主氣이며, 六淫의 하나. 暑는 陽邪이며, 發病에 季節의 特徵이 있다. 臨床表現은 頭痛·發熱·口渴·心煩·多汗·脈洪數 등이다. 暑邪는 또 耗氣 傷津하기 쉬우므로, 身體疲倦 四肢乏力 口乾 等症이 잘 出現한다. 「長夏」는 多濕하여, 暑邪가 夾濕하기 쉬워서, 언제나 胸腹脹悶 惡心嘔吐 혹은 泄瀉 等症을 發한다.

犀角地黃湯(서각지황탕)

「涼血」의 項 參照.

舒肝(서간)

「疏肝」의 項 參照.

暑瘧(서경)

「暑風」의 項 參照.

暑厥(서궤)

中暑의 患者가 神志昏迷하고 手足이 肘膝部까지 厥冷함을 말함.

鼠瘻(서루)

「瘰癧」의 項 參照.

署痢(서리)

夏節에 暑熱을 感受하여, 內部에 積滯가 있으며, 腸胃를 損傷한 所致이다. 腹中이 絞痛하고, 赤白의 混合物을 下痢하며, 發熱하고, 面垢하며, 汗出하고, 嘔逆하며, 煩渴多飲하고, 小便不利한 等症을 나타낸다.

書目(서목)

圖書目錄을 記載한 冊이다. 中國 醫書의 書目으로는 例컨대 明代 殷仲春의 醫藏書目(1644年), 清代 凌奐의 醫學薪傳(1892年)등이 있다. 또 史庫全書總目提要 醫家類(1782年), 清代 曹禾의 醫學讀書志(1892年)등과 같이 書目を 記載한 외에 각 書籍에 대하여 간단히 批評紹介하고 作者의 一生과 그 書籍의 電波 修訂들을 考證하였는바 이는 醫書의 書目提要가 된다.

暑病(서병)

暑는 六淫의 하나이며 夏季의 主氣이다. 무릇 夏季에 暑熱의 邪氣를 感受하여 多種의 急性熱病을 發하는 것을 暑病이라 通稱한다. 단 狹義로는 一般的으로 暑溫 中暑 感暑의 類의 病症을 말한다.

暑瀉(서사)

熱瀉의 一種이다. 暑熱의 邪를 感受함으로써 惹起된다. 主要症狀은, 물을 붓는 것처럼 瀉下하고, 或은 粘稠한 便을 瀉出하며, 煩渴, 尿赤, 自汗, 面垢, 脈濡數 等이다.

暑濕(서습)

暑熱에 濕을 兼挾한 것. 胸脇痞悶 心煩 身熱 舌苔黃이 主症이다. 만약 暑濕이 中焦를 困阻하면, 壯熱煩渴, 汗多尿少, 胸脘痞悶, 身重困倦해진다. 만약 暑濕이 三焦에 널리 膩滿하면 咳嗽 身熱面赤 胸脘痞悶 大便稀臭 小便短赤 或 咯痰帶血이 나타난다. 만약 暑濕이 內積한데 風寒을 外感하면, 頭痛身熱 惡寒無汗 身體拘急不舒 胸悶心煩 舌苔白이 等이 나타난다.

暑濕流注(서습유주)

「濕痰流注」의 項 參照.

暑熱(서열)

①病因로서 暑邪를 말함. 「素問·五運行大論」에서 “氣在天爲熱 在地爲火 …… 其性爲暑”라 하였다. ②外感의 暑邪로 인한 發熱 病症. 「暑熱證」의 項 參照.

暑熱症(서열증)

① 廣義로는 暑天의 一般的인 熱症을 말함. ② 狹義로는 小兒의 夏季熱(古稱은 主夏이다)을 말함. 幼兒가 夏季를 만나면 오랫동안 發熱하고 혹은 暮熱朝涼 或은 朝熱暮涼하며 口渴, 多尿, 無汗 혹은 少汗 等症을 隨伴한다. 發病의 原因은 대개 嬰幼兒 時期에 陰氣가 未充하며 陽氣가 未盛하여 炎熱한 氣候의 重蒸에 견디지 못하는 것과 有關하다. 病이 後期에 이르면 往往 元氣가 受損하여 上實下虛의 症狀을 나타내게 된다. 主夏의 項 參照

暑穢(서예)

暑濕穢濁한 氣를 感受하여 發하는 病症이다. 臨床表現은 發病이 急速하고 頭痛而脹, 胸脘脹悶, 煩燥, 惡心嘔吐, 身熱有汗하고 重症이 되면 神昏, 耳聾 等症을 나타낸다.

暑溫(서온)

夏季에 暑邪를 感受하여 發病하는 熱性病을 말함. 臨床表現은 發病하면 곧 發熱身困하고 大汗出하며 背部에 微惡寒여 狀態가 傷寒과 비슷하고 右脈이 洪大하고 數한데 左脈은 右보다 小하며 頭暈痛, 面赤齒燥, 口渴引飲, 面赤心煩惡熱, 大便或秘或瀉하고 혹은 瀉해도 不爽快한 等症이다. 暑溫은 傳染性이 있는 暑氣를 挾雜하기 쉬우며, 이는 夏季에 比較的 심한 一種의 傳染病으로서 先人은 暑溫挾戾라고 하였다. 예컨대 流行性B型 腦炎, 中毒性痢疾, leptospirosis, 惡性霍亂等이다.

暑溫挾癘(서온협려)

暑溫의 項 參照

暑癰(서질)

暑日에 發生하는 小癰腫을 말함. 대개 땀띠를 긁은 후의 感梁에 의해 생기며, 「痱毒」或은 「熱毒」이라고도 함. 本證은 小兒와 新産婦에게 많으며, 頭面部에 잘 생긴다.

鼠瘡(서창)

瘰癧의 項 參照.

暑瘵(서채)

暑熱을 感受하여 突然 咯血, 咳嗽하며 症狀이 노채의 病症과 비슷한 것을 말함. 이는 暑熱이 傷肺해서 肺絡을 蒸迫한 所致이다. 臨床表現은 煩熱口渴하며 咳嗽氣喘하고 頭目이 不清하며 咯血 衄血 脈紅而芤등이다. 暑熱에 挾濕하면 口不渴하고 舌苔가 白滑하다.

暑風(서풍)

暑溫病으로 熱이 盛하기 때문에 昏迷, 抽搐症狀을 나타내는 것을 暑風 혹은 暑瘵이라 한다. 그 臨床表現은 高熱을 突發하고 神志不清, 面赤, 口渴, 小便短赤하며 甚하면 角弓反張하고 牙關緊閉 手足抽掣等이다. 暑邪는 대개 挾濕하거나 혹은 痰濕이 互阻하기도 한다. 예컨대 濕이 盛하면 胸悶惡心, 大便澇泄하고 痰濕이 互阻하면 喉間에서 痰鳴이 나고 面色이 晦暗하며 舌苔가 厚膩해지는 等症을 말한다.

署瘧(서학)

暑邪가 內鬱한데, 다시 秋涼의 氣를 感受하므로 誘發되는 一種의 瘧疾이다. 그 臨床表現은, 惡寒壯熱하며, 無汗하고, 煩渴引飲하며, 脈弦數或洪數하고, 着衣하면 煩하고, 脫衣하면 冷하며, 大汗出後에 退熱하는 等이다.

署咳(서해)

暑邪를 感受하여, 暑氣가 肺를 傷한 기침이다. 主要症狀은, 咳嗽하는데 少痰 或은 無痰하고, 身熱口渴하며, 心煩 或은 胸悶 脇痛하고, 尿赤하며, 脈象이 濡滑하고 數한 等症을 나타낸다.

石女(석녀)

「實女」라고도 함. 陰道口가 細小한 女性을 말함.

石淋(석림)

「砂淋」이라고도 함. 主要症狀은, 臍腹部가 拘急하고, 腰部의 한쪽이 疼痛하며, 或은 發

作性 絞痛이 있고, 疼痛이 小腹部와 陰部에까지 미치며, 排尿가 不暢하거나 或은 中斷되며, 或은 尿意가 頻急하면서 澀痛 難出하고, 때로는 尿中에 砂石이 섞이며, 尿色이 黃濁하고, 或은 血尿를 나타내기도 한다. 대개 濕熱이 下焦에 蘊結되어, 尿中에 雜質이 凝結됨으로써 생긴다. 排尿系結石에 屬한다.

石水(석수)

水腫證候의 類型的 하나이다. 主要表現은, 腹滿하지만 不喘하고, 或은 脇下가 땅기며 脹痛하고, 水腫이 腹部에 偏在하며, 脈象이 沈하다. 대개는, 腎陽의 虛弱으로 因해 化水不能한 所致이며, 肺脾와도 一定한 關係가 있다.

石蛾(석아)

乳蛾의 一種이며 症狀이 거의 乳蛾와 같다. 小兒에게 多見되고, 病情의 進展이 緩慢하며 速히 낫지도 않고 喉核이 堅硬하게 腫大하므로 [石蛾]라 이름짓는다. 本病은 慢性扁桃炎과 類似하다.

石癭(석영)

비교적 重한 癭病의 一種이며, 肉癭 등이 發展해서 생기는 것으로, 癭塊가 비교적 堅硬하며, 表面이 울퉁불퉁하고, 어떤 것은 돌처럼 堅硬하여, 밀어도 移動하지 않으며, 甚한 경우는 疼痛을 發한다. 煩躁, 心悸, 氣促, 多汗, 多食善飢, 消瘦, 脫毛, 或은 眼球突出, 手部震顫, 月經不調 等症을 隨伴하며, 또한 音聲이 쉬고, 呼吸이나 呑嚥키가 困難한 등의 症狀을 나타낸다. 대개는 久病으로 情志가 鬱結하고, 肝脾氣逆하며, 濕痰 瘀血이 凝滯된 所致이다. 結節性甲狀腺腫, 甲狀腺癌 等病과 類似하다.

石疽(석저)

疽가 돌처럼 堅硬하고 形態가 桃李나 鷄卵같으며, 皮膚色은 如常하고, 小에서 漸次 커지고, 難小 難潰하며, 潰破後에도 잘 收斂되지않는 것을 石疽라 함. 대개는 寒凝氣滯의 所致이다. 만약 內向으로 潰爛되면 대개 逆證이 된다. 또 化膿하여 陽證으로 轉變되는 것은 比較的 낫기 쉽다. 發病部位의 差異에 따라서 上, 中, 下의 三種類로 나뉜다. (1) 上石疽: 頸項의 兩側(或左 或右, 항상 單發이다)에 생기며, 比較的 큰 淋巴節腫塊가 되며, 堅硬 疼痛하고, 대개는 肝氣鬱結, 氣血이 經絡에 凝滯된 所致이다.(2) 中石疽: 腰股 사이에 생기며, 때때로 麻痺疼痛을 느낀다. 이는 寒氣 瘀血이 凝結된 所致이다. (3) 下石疽: 兩側左右에 생기며, 항상 疼痛하여 膝部の 活動에 影響을 미친다. 病因은 中石疽와 같다.

蓐瘡(석창)

「褥瘡」의 項 參照.

石針(석침)

「砭石」의 項 參照

石瘕(석가)

「靈樞·水脹篇」에 있음. 本病은 대개 月經期間에 寒氣가 侵入하여, 惡血이 停聚된 所致이다. 主要症狀은, 子宮內에 塊狀物이 形成되어, 날로 增大해서 妊娠한 것처럼 되고, 閉經을 隨伴하는 等이다. 包塊가 돌처럼 堅硬하므로 이렇게 이름한다. 子宮腫瘤의 類이다.

蟬拱頭(선공두)

「螻蛄癰」의 項 參照.

先攻後補(선공후보)

攻下法을 쓸 症狀이 있어서 攻下法을 쓴 후에 大便이 通하고 熱이 내렸는데 呼吸氣短하고 手足이 약간 冷하며 脈弱한 것은 氣虛症狀이다. 適量의 黨蔘을 煎服하여 補氣한다. 或은 熱性病에 攻下法을 쓸 症狀이 있어서 攻下法을 쓴후에 大便이 通하고 熱이 내렸는데 汗出이 비교적 많고 脈細한 것은 陰虛이다. 胃陰을 滋補하는 藥으로 沙蔘, 麥門冬, 細生地黃, 玉竹 等を 쓴다. 또 胸脇에 積水가 있으면 甘遂, 芫花, 大戟 等の 攻下藥을 쓴다. 水瀉便으 瀉下한 後 病人이 適量의 米湯을 마시고 臥床休息하는 것도 일종의 補法이다. 이와 같이 攻下法을 先用한 後 補益法을 쓰는 것을 先攻後補라 한다.

宣竅(선규)

「開竅」의 項 參照.

旋螺突起(선라돌기)

本病은, 肝熱의 過甚으로, 風輪部分(黑睛)이 螺旋狀으로 突出하여, 眼球가 白色 或은 青色으로 變하며, 日久하면 黑色으로 變한다. 重症은 失明하게 된다. 本病은, 角膜葡萄腫과 類似하며, 角膜潰瘍이 穿破된 後, 虹彩膜이 脫出되어 癍痕을 이룬 것이다.

宣白(선백)

「宣肺」의 項 參照.

先別陰陽(선별음양)

[素問, 陰陽應相對論]에서 “善診者察色按脈, 先別陰陽”이라 하여, 醫師이 臨床에서 疾病診察시, 四診법을 運用함에 있어서, 먼저 疾病의 陰陽의 屬性을 分析해야 함을 強調하였다. 이는 辨證論治의 基本原則이다.

先補後攻(선보후공)

攻下法을 써야할 疾病인데 病人의 體質이 虛弱하여 한때 攻下法을 쓸 수 없을 경우에는 먼저 補法을 써서 體質을 增強시킨 후에 攻下해야 한다. 例컨데 肝硬變腹水로 瀉水

해야 하는데 病人의 身體가 교허하여 食慾이 不振하면 먼저 脾胃를 補培해서 營養을 增加시켜 病人의 身體가 비교적 強健해진 年後에 甘遂류의 逐水藥을 써서 瀉水해야 한다. 이와 같이 補培法을 先用한 후에 攻下法을 쓰는 것을 先補後攻이라 한다.

善色(선색)

야[病色]의 項 參照.

善食而瘦(선식이수)

「中消」증의 主要한 臨床表現이다. 이는 內熱이 陰津을 消耗하는 所致이다. 「食亦」, 「中消」의 項 參照.

先煎(선전)

鑛物藥 具穀藥은 藥의 氣味가 쉬게 전출되지 않으므로 모두 도쇠선전해야 한다 예컨대 石膏 대자석 아관석 牡蠣 鱉甲등이다 處方중의 麻黃은 반드시 2 3배 먼저 끓여서 수면의 포말을 떠낸다음 다시 물을 붓고 나머지 藥物으 投入해야 한다 麻黃을 전전거말하지 않으면 服用후 심번이 생긴다는 설에 의해서이다.

宣劑(선제)

宣可去壅으로 生薑, 橘皮의 類이다. 宣은 散의 뜻이고, 壅은 鬱塞한 病을 뜻함. 例컨대 胸中脹悶, 嘔吐, 惡心 等症에 二陳湯(陳橘皮, 半夏, 茯苓, 甘草)을 써서 利氣 散鬱시킨다. 만약 胃에 痰飲이 있으면 瓜蒂散등의 吐法을 써도 좋다. 이것도 宣의 또 하나의 方式이다

先天(선천)

『腎主先天』의 項 參照.

先天之精(선천지정)

①腎藏精의 項 參照. ②精의 項 參照.

先天之火(선천지화)

「腎陽」의 項 參照.

善太息(선태식)

「太息」의 項 參照.

宣通水道(선통수도)

肺氣를 開通시켜, 水濕을 通利시키는 方法이다. 咳嗽 氣喘하고, 水腫이 있는 症候에 適用한다. 患者의 浮腫이 上半身과 面部에서 重하고, 小便不利, 量少色深黃, 腹部脹滿하

며, 咳嗽氣喘을 수반하고, 或은 寒熱이 있으며, 苔白滑, 脈浮滑한 경우, 麻黃, 桂枝, 浮萍, 連皮茯苓, 杏仁, 桑白皮 等藥을 쓰면 좋다.

宣肺(설편)

「宣白」이라고도 함. 肺氣가 通利하지 않음을 治療하는 方法이다. 肺氣가 通利하지 않으면 咳嗽 氣喘 痰多를 나타내는데, 肺氣를 開通하고, 化痰 止咳하는 藥을 쓰는 것을 宣肺라 한다. 先人은, 肺는 五行上 金에 屬하고, 五色中에서는 白色에 屬하므로, 宣白은 곧 宣肺의 뜻으로 인식하였다. 「化痰」項중의 「宣肺化痰」의 項 參照.

宣肺化痰(설편화담)

「化痰」의 項 參照.

舌(설)

舌은 口腔內에서 매우 重要的 作用을 한다. 五味를 辨別할 뿐만 아니라, 咀嚼된 飲食物을 咽喉部로 보내는 것을 돕고, 「音聲之機」로서 舌은 口腔內를 轉動하여 發音·談話에 重要的 作用을 한다. 또한 舌의 變化를 觀察하여(舌體·舌苔등을 包含) 疾病의 狀態를 理解하는데 도움이 되어, 望診中の 重要的 部分이 된다.

炳(熱)(설)

본래는 燒의 뜻인데 고의서에서는 화침 온침 혹은 편석을 가열하여 체표의 局部를 刺戟하는 療法을 지칭하였음

泄肝(설간)

「疏肝」의 項 參照.

舌絳(설강)

舌質의 心紅色을 말함. 대개 溫病의 邪熱이 榮分에 轉入했을 경우에 볼 수 있다. 舌苔에 처음으로 心紅色이 생겼으나 아직 黃白苔가 남아있는 것은 邪가 氣分에 있고, 營分으로 다 轉入하지 않는 것이다. 舌質의 鮮絳色은 往往 心包絡의 受邪를 말해준다. 舌絳하고 中心이 乾燥함은 胃火의 傷津에 屬한다. 絳色이고 光滑함은 胃陰의 大傷이다. 絳色이고 大紅點이 있는 것은 熱毒이 心을 侵犯한 것이다. 舌尖만 絳色이면 心火가 盛한 것이다. 絳色이며 乾枯함은 腎陰이 이미 枯渴渴한 것이다. 舌絳한데 乾燥한 것처럼 보이면서 綿棒으로 닦으면 津液이 있는 것은, 津液이 虧乏하고 濕熱이 上昇하거나 或은 濕熱이 있음이다. 舌絳하고 粘膩한 白苔가 있는 것은 [濕鬱熱伏]의 證候이다. 최근 臨床觀察에서 나타난 바에 依하면, 重證感染性疾病, 惡性腫瘤, 甲狀腺機能亢進, 重寒 肺, 肝, 腎等の 實質臟器의 疾病等에서 患者의 舌質이 대개 紅絳色이고, 舌體가 瘦小하며, 舌이 乾燥하여 裂紋이 있고, 때로는 舌苔가 光刻이 되고, 舌邊과 舌尖에 紅刺가 있으며, 後期에는 舌全體가 光刻如鏡해진다.(新篇中醫學概要).

舌強(설강)

舌體가 強硬하여 運動이 不便한 것. 萬若 肢體의 麻痺, 口眼窩斜 等證을 兼有하면 대개 中風에 屬한다. 만약 舌이 強硬하고, 舌質이 紅強하며, 아울러 頸項強直 神昏譫語하면, 대개 濕熱病의 [熱入心包]에 屬하며, 熱毒이 熾盛한 것이다.

雪羹湯(설갱탕)

「鹹寒增液」의 項 參照.

舌蹇(설견)

蹇은 遲鈍의 뜻. 舌體가 卷縮되어, 轉動이 遲鈍하거나 或은 強硬하여 言語不能함을 말함. 대개 痰이 心竅를 阻礙하거나 或은 熱이 深하여 陰液을 損傷함에 起因한다. 中風 或은 流行性腦膜炎, B形腦炎 및 그 後遺症 등에서 多見된다.

雪口(설구)

[鵝口瘡]의 項 參照

舌卷卵縮(설권란축)

舌卷은 舌體가 卷曲하여 不伸함이고, [卵縮]은 辜丸의 上縮을 말함. 모두 足厥陰肝經의 氣가 絶한 證候이다. 肝은 筋을 主關하며, 肝經脈이 外陰을 거쳐 咽喉로 上循한다. 火熱이 肝經을 煩灼하여 病情이 危重하게 發展하면, 그 筋脈이 攣縮하므로, 舌體가 卷曲 不伸하고, 辜丸이 上縮된다. 急性熱病의 衰竭期 或은 重한 腦血管病變 등에서 볼 수 있다.

舌菌(설균)

舌岩의 項 參照.

舌起芒刺(설기망자)

舌苔가 刺狀(가시)으로 隆起되는 것. 이는 熱極의 症狀이며, 苔色이 대개 焦黃하거나 或은 黑色이다. 熱邪이 盛할수록 芒刺가 많다. 芒刺가 생기는 部位에 따라 病位를 區分하는데 도움이 된다. 例컨대 舌尖의 가시랭이(芒刺)는 心熱이고, 舌中の 芒刺는 脾胃의 積熱이다.

舌衄(설늑)

血液이 舌體에서 滲出되는 것이다. 대개는 心火가 熾盛한 所致이며, 脾腎 二經의 虛火가 上炎하는 데 起因하기도 한다.

舌短(설단)

[舌縮]이라고도 함. 舌體가 收縮되어 伸長不能한 것. 寒이나 熱 或은 痰濕에 起因한다.

舌이 淡色이고 苔가 白潤함은 寒邪가 經脈에 凝滯된 것이다. 舌이 紅絳色이고 乾燥하며, 無苔하거나 或은 焦黑苔가 있는 것은 熱病으로 傷津한 것이다. 舌이 肥胖 粘膩하고 短한 것은 痰이 阻閉한 것이다. 무릇 舌이 短縮 強硬하고, 神昏不語함은 대개 危重한 證候에 屬한다.

泄痢(설리)

「驚漉」의 項 參照.

舌面如鏡(설면여경)

舌面에 無苔하여, 膜을 除去한 豚의 腎臟처럼 光滑如鏡한 現象을 말함. 肝腎의 診陰이 虧損된 病症에서 多見된다.

舌胖(설반)

舌體가 肥大한 것. 一般的으로 舌形이 약간 肥胖하고 軟嫩하며, 色淡하고, 舌邊에 齒痕이 있으면 대개 脾虛에 屬한다. 만약 舌色이 心紅色이고, 腫大하여 滿口한 것은 心脾二經의 有熱이다. 舌腫의 項 參照. 만약 舌이 腫胖하고 暗靑紫色을 띠는 것은 重毒에서 多見된다. [舌脹大]의 項 參照.

舌本(설본)

舌根을 말함. 足太陰脾經이 舌本에 連하여 舌下로 散布된다.

泄瀉(설사)

大便이 稀薄하고, 나오다가 멎다가 하는 것을「泄」이라 하며, 大便이 물을 붓는 것처럼 直下하는 것을「瀉」라 한다. 그런데, 臨床上으로는 대개「泄瀉」라고 合稱한다. 그 發病原因이 매우 많다. 例컨대, 風·寒·濕·熱이 腸胃를 內犯하거나, 飲食不節, 脾胃內傷 및 腎陽衰微 등이 모두 發病要因이 된다. 一般的으로 寒瀉·濕瀉·熱瀉·食瀉·虛瀉등으로 나뉜다. 詳細한 것은 아래의 各項을 參照.

舌象起瓣(설상기관)

舌苔가 花瓣狀으로 융기되는 것. 瓣은 대개 黑色을 띠며, 黃腐瓣 或은 焦黃瓣도 있다. 瓣이 적으면 病이 較輕하고, 瓣이 많으면 病重하다. 대개 臟腑의 實火가 薰蒸한 所致이다. [濕溫], [溫疫] 等病에서 볼 수 있다.

舌岩(설암)

舌의 兩側邊緣이나 或은 舌尖의 下面에 多發하며, 初期에는 腫物이 穹만하고, 堅硬하며, 漸次 버섯처럼 커지므로 舌菌이라고도 함. 腫物이 豆大 蒂小하며, 紅紫色을 띠고, 疼痛하며, 未久에 潰破되어, 深部로 四方으로 蔓延되며, 邊緣이 鷄冠처럼 隆起되어, 닿으면 出血되기 쉽고, 惡臭가 나며, 局部에 滲出液이 있다. 後期에는 舌이 短縮되고 몹시 아프며, 怒氣가 激發하면 破裂되어 出血이 잘 멎지 않는다. 心脾의 毒火가 熾盛하

여, 舌部에 結集되기 때문에 생긴다. 舌癌 等病의 類이다.

舌裂(설창대)

舌에 裂紋이 있는 것이며, 傷陰의 證候이다. 舌絳하고 光燥하면서 裂紋이 생기는 것은 대개 熱盛 傷陰에 屬한다. 舌色이 淡白하고 舌質이 軟하면서 裂紋이 있는 것은 대개 久病으로 陰陽이 俱虛하고 氣血이 兩傷한 所致이다.

舌歪(설왜)

舌이 한쪽으로 치우쳐, 伸出해도 歪斜되는 것. 대개 肝風內動의 所致이다. 中風 等 病에서 볼 수 있다.

舌萎(설위)

舌이 軟弱無力하여, 자유롭게 伸縮轉動할 수 없는 것. 대개 陰液이 虧損되어 筋脈을 營養하지 못한 所致이다. 新病으로 舌이 紅乾하면서 萎한 것은 熱이 心하여 陰을 傷한것(熱灼陰傷)이고, 久病으로 舌絳하면서 萎한 것은 陰虧가 極度に 達한한 것이며, 久病으로 舌이 白色이면서 萎한 것은 氣血이 俱虛한 것이다.

舌爲心苗(설위심묘)

「心開竅於舌」의 項 參照.

泄衛透熱(설위투열)

溫病으로 邪熱이 氣分에 이르면 身熱不惡寒, 心煩口渴, 舌苔黃 等症을 발하는데 外邪가 閉鎖되어 無汗함. 이는 衛分이 閉鎖되어 不通한 것이니 반드시 辛涼透達藥을 써야하며 病人이 미미하게 發汗케 하는것이 「泄衛」이다. 氣分の 熱邪를 表部에서 밖으로 透散시키는 것이 「透熱」이다. 泄衛透熱하는 辛涼藥으로는 浮萍, 薄荷, 淡豆豉, 蟬衣, 菊花, 金銀花, 連翹, 백부근 等を 쓴다.

舌顫(설진)

舌頭가 轉動하는 것. 대개 內風에 起因한다. 舌色이 淡紅하고 꿈틀거리면서 轉動함은 血虛生風에서 나타나고, 舌色이 紫紅하고 轉動함은 대개 熱克生風에서 나타난다. 이밖에 舌을 내밀고 轉動함은 알콜中毒에서 볼 수 있다.

舌疔(설정)

疔瘡疾患의 하나이다. 疔이 舌上에 생기므로 이렇게 이름한다. 이는 心經의 鬱火가 成毒한 所致이다. 그 症狀은 舌面上에 豆形의 紫色疱가 생겨서 堅硬하고 劇痛하며 심하면 寒熱등의 全身症狀이 出現한다.

泄劑(설제)

泄可去閉로서 정력 大黃의 類이다. 泄은 瀉이고 閉는 病邪가 實證을 形成한 것이다. 裏

實인 경우에는 瀉法을 써야 한다. 例컨대 肺實證으로 咳嗽 氣急 痰多 한 경우에는, 葶藶大棗瀉肺湯(葶藶, 大棗)를 써서 祛痰한다. 또한 氣鬱로 因해 便秘를 일으켜, 患者가 자주 애기하고, 胸脇脹滿하며, 大便이 마렵지만 排出이 어렵고 甚한 경우에 腹中이 脹痛하며 沈黃膩 脈弦한 證候에 六磨湯(沈香, 木香, 檳榔, 烏藥, 枳實, 大黃)를 쓴다.

舌腫(설중)

舌體가 腫張하고 疼痛하며, 深한 경우 喉頭가 막혀서 窒息하게 된다. 대개 心經의 火盛 血壅에 起因한다.

舌診(설진)

望診內容의 하나이다. 主로 舌苔와 舌質의 兩面의 形態, 色澤, 潤燥 等の 變化를 觀察하여, 病變의 性質, 病邪의 淺深, 病情의 虛實 等を 辨別하는 根據로 삼는다. 故로 [辨舌質可辨五臟之虛實 視舌苔可察六淫之淺深]의 說이 있다.

舌質(설질)

舌體라고도 함. 舌診에서, 一般的으로, 舌尖은 心肺를 살피고, 舌邊에서 肝臟을 살피며, 舌根部에서 腎을 살핀다. 그러나 拘碍될 것은 없다. 舌質의 望診에는 形象 色澤 動態 潤濕도 等이 包括된다. 一般的으로 臟腑의 虛實을 診함에는 舌質을 重點적으로 觀察한다. 근래 舌色의 變化와 舌의 血液循環과의 關係가 密接한 것으로 본다. 貧血이나 組織의 水腫에서는 色淡하고, 充血되거나 或은 血管이 膨脹하면 心紅色이 되며, 鬱血 或은 酸素缺乏이면 靑紫色이 된다. 舌體가 胖嫩함은 대개 血漿蛋白의 減少나, 舌組織의 水腫에 氣인한다. 만약 水腫 或은 筋肉의 張力低下, 舌體의 增大 或은 弛緩, 齒緣의 壓迫은 舌邊에 齒痕을 出現시킨다. 舌質의 乾燥는 水液의 減少 或은 水液의 含水量 低下에 起因한다. 陰虛患者는 通常 交感神經의 緊張性이 增大되고, 副交感神經의 緊張性이 低下되어, 水液分泌의 質과 量이 改變되므로 舌이 언제나 乾燥하다. 舌象의 裂紋은 舌乳頭가 融合되어 생기며, 이는 舌粘膜의 萎縮과 有關하다고 보는 사람도 있다. 舌面의 光滑은 舌의 粘膜上皮가 萎縮된 所致이다.(新篇中醫學概要).

舌脹大(설창대)

舌體가 腫脹增大되는 것. 赤色으로 滿口되게 腫大하는 것은 心脾兩經에 有熱한 것이다. 舌이 赤色으로 腫滿하여, 甚한 경우 呼吸을 妨碍하는 것은 血絡이 熱盛하고, 氣血이 壅滯된 것이다. 또한 食物中毒으로 因해 舌이 腫大하여 靑紫色로 거무스름하게 되는 경우도 있다. 舌色이 暗紫色을 띠고, 腫脹함은 酒毒上壅過 心火上炎의 所致이다. 舌이 腫大하고 舌質이 淡軟하며 舌邊에 齒痕이 있는 것은 脾虛하고 寒濕이 熾盛한 病症에 屬한다.

舌體(설체)

[舌質]의 項 參照.

舌縮(설축)

舌短의 項 參照.

舌苔(설태)

舌面上에 생기는 苔上物이다. 舌苔의 變化를 觀察하면 病情을 推斷할 수 있고, 病邪의 深淺, 津液의 存亡을 아는데 도움이 되며, 辨證에 하나의 根據가 된다. 正常舌象에서는 모두 白色薄苔가 있는데, 이는 胃氣의 所生이다. 病理的舌苔는, 病邪가 外侵했거나 或은 體內에 停痰 食積이 있어서 影響을 미친 所致이다. 舌苔를 診察함에는, 主로 色彩, 津液, 厚薄 形象 및 分포狀況 等の 變化를 觀察하고, 아울러 舌質을 結合시켜 分析해야 하며, 同時に 食物 或은 藥物에 의한 染色으로 造成된 假象이 아닌지 注意해야 한다. 최근에는 正常舌苔는 舌의 絲狀乳頭의 末端의 角化樹 및 그 空隙中の 脫落角化上皮, 細菌, 食物 殘渣, 滲出細胞 및 水液으로 構成된다고 본다. 舌苔가 두껍게 되는 것은 病後의 食減, 舌의 機械的 摩擦減少, 或은 發熱失水, 水液分泌減少 等に 起因하여 舌의 自淨作用에 影響을 미치어, 絲狀乳頭가 延長된 所致이다. 舌苔가 白色에서 黃色로 변하는 것은, 대개 絲狀乳頭의 增生, 角化의 著增, 細胞浸潤, 血管擴張 및 含菌量의 增多 等に 起因하며, 炎症感染, 發熱 및 消化機能紊亂과 가장 많은 關係가 있다. 苔色이 變黑하는 것은 絲狀乳頭의 增生이 더욱 甚하고, 黑褐色의 角化細胞와 黑色細菌의 證이 等이 主된 原因이다. 이때의 病理變化는 大體으로 粘膜의 下層으로 확전된다. 高熱脫水, 炎症感染, 毒素刺戟, 胃臟機能紊亂, 細菌感染 및 亢生物質의 長期使用 等이 모두 黑苔의 發生과 有關하다(新篇中醫學概要).

泄風(설풍)

① 腠理가 弛緩되어 風邪를 外感해서 寒泄이 不止하고 口乾하며 身痛하는 症狀을 나타내는것을 말함.(素問·風論) ② 皮膚에 작은 腫氣가 생겨서 가려운 病證.

舌紅(설홍)

舌質이 正常에 比해 淡紅色이 比較的 짙은 것이며, 熱證과 關聯이 있다. 深紅色로 黃苔가 있는 것은 實熱이고, 鮮명한 紅色은 虛熱이며, 舌이 嫩紅 無苔한 것은 陰虛火旺이다. 舌이 鮮紅色이고 芒刺가 생기는 것은, 營分에 熱이 있는 것이다. 紅色이고 乾燥함은 위의 津液이 異常함을 말해준다. 舌尖의 紅色은 心火의 上炎에서 볼 수 있고, 舌邊의 紅色은 대개 肝膽의 有熱에 屬한다.

閃罐(섬관)

拔罐療法の 一種이다. 綿棒에 95%알콜을 묻혀 點火하여, 罐內를 일주 돌린 後에 꺼내고, 곧 罐을 拔罐할 局部上에 썬우고는 곧 떼고 再吸再拔을 여러차례 反復하되, 局部의 皮膚가 充血하면 그친다.

譫妄(섬망)

裏熱이 過盛하거나 或은 痰火의 內擾등의 原因에 依해, 意識이 模糊해져서, 헛소리를

하며, 錯覺 幻覺을 일으키고, 情緒의 異常 或은 興奮激動등의 症狀을 나타낸다.

閃傷(섬상)

閃挫의 項 參照.

譫語(섬어)

患者가 神志不明瞭한 狀況하에서 엉터리 말을 함부로 하는 症狀이다. 대개 實證에 屬한다. 高熱 或은 溫邪가 營血에 入한 경우나 [邪犯心包] 等の 경우에 나타난다.

閃挫(섬좌)

閃傷과 挫傷의 名稱이다. 軀幹의 突然한 旋回, 屈伸으로 因해, 筋膜, 靱帶, 腱 等이 急激히 당겨서 惹起되는 損傷을 閃傷이라 하며, 이는 扭傷의 範圍에 屬하고, 腰部에서 常見된다. 體表에 鈍器의 直接打擊을 받아서 肌肉等の 軟部組織이 損傷된 것을 挫傷이라 한다.

顳顬(섬유)

『鬢骨』, 『太陽』이라고도 함. 眼眶(眉稜骨)의 外後方, 顴骨弓(협골궁)의 上方部位, 관자놀이.

腥臊氣(성조기)

[腥臭氣]의 項 參照.

醒腦(성뇌)

「開竅」의 項 參照.

性能(성능)

대개 四氣 五味와 昇降浮沈등을 말함 實際로는 藥物의 作用을 말한다.

性味(성미)

氣味の 項 參照

醒脾(성비)

脾氣가 虛寒하여 運化機能이 無力해진 症狀을 治療하는 方法이다.脾氣가 허한하면 食慾不振,食物不消化 때로 噯氣하고 大便溏泄하며 때로 腹隱痛하여 熱按을 좋아하고 舌質淡,脈弱 等症을 나타낸다.醒脾散(黨蔘,白朮,茯苓,炙甘草,草果,木香,陳皮,厚朴,蘇梗 各等量을 粉末로 하여 每服 3錢.或은 生薑 1片,大棗 1枚를 加하여 水煎服)을 써서 健脾溫中하여 運化機能을 促進하고 食慾을 增進시킨다.

醒脾散(성비산)

「醒脾」의 項 參照.

醒神(성신)

「開竅」의 項 參照.

聲如曳鋸(성여열거)

喉中の痰鳴을 形容한 것으로, 呼吸이 곤란하여 톱으로 나무를 켜는 것같은 소리를發하는 症狀을 말함. 昏迷나 어떤 喉頭梗阻의 疾病에서 볼 수 있다.

聲重(성중)

[語聲重濁]의 項 參照.

腥臭氣(성취기)

腥臊氣라고도 함. 病因의 痰液 或은 白帶下 糞便 等の 分泌物 或은 排泄物에서 發散되는 누린내로서, 그다지 惡臭가 없는 特殊한 냄새를 말함. [臭氣味]의 項 參照.

盛胎(성태)

「激經」의 項 參照.

洗(세)

물로써 藥物의 表面에 附着된 사니혹은 기타의 不潔物의 洗去하는 것.

細脈(세맥)

脈象의 一種. 脈象이 실오라기만 하며, 重按하면 始終 觸知된다. 血虛 陰津虧損 或은 陰損及陽, 血少氣衰한 病症에서 볼 수 있다.

洗浴(세욕)

湯浴의 項參照

世醫(세의)

옛날에는 醫員이 父職을 繼承한 世代相傳이었으며 이러한 醫員을 世醫라 칭하였다. 古代人들은 대개 世醫를 信用하였다.

疏肝(소간)

「舒肝」,「疏肝利己」,「泄肝」이라고도 함. 이는 肝氣의 鬱結을 疏散시키는 方法이다. 肝氣가 鬱結하면 兩脇脹痛或竄痛, 胸悶不舒, 或誤審, 酸水嘔吐, 食慾不振, 腹痛複寫, 全身竄痛, 舌苔薄, 脈弦 等症을 나타낸다. 柴胡, 當歸, 白芍藥, 香附子, 川芎, 延胡索, 厚朴 等藥을 쓴다.

疏肝理氣(소간이기)

「疏肝」의 項 參照.

消渴病(소갈병)

① 渴해서 多飲하고, 多食하는데 도리어 야위며, 尿가 많고 糖尿가 나타나는 類의 病症을 말하며, 糖尿病과 類似하다. 本病은 대개 嗜酒하고, 營養分을 過食하여, 中焦에 積熱하기 때문이며, 或은 情志가 過極하여, 鬱積이 化火하기 때문이며, 或은 지나치게 過慾하여 虛火가 妄動해서, 腎精이 耗損되는 데 起因하기도 한다. 陰虛와 燥熱의 兩者는 相互 因果關係가 있어서, 肺胃의 津液과, 腎의 陰精을 消灼하게 된다. 陰虛의 重點은 腎에 있는 것인데, 腎陰의 損傷이 腎陽에 影響을 미치어, 病久하면 往往 腎陽도 虛하게 된다. ② 일반적으로, 渴飲多尿를 主證으로 하는 類의 疾病을 말하며, 病機, 症狀 및 病情의 發展段階의 差異에 따라서 上消.中消.下消의 區別이 있다. 糖尿病, 尿崩症, 腎上腺皮質機能減退 等病에서 常見된다.

小結胸(소결흉)

結胸證의 한 類型이다. 대개 痰과 熱이 서로 結合된 所致이며, 「痰熱結胸」이라고도 한다. 臨床表現은, 胃脘部가 硬滿하며, 壓痛이 있고, 舌苔가 黃微膩하며, 脈象이 浮滑한 等症이다.

小溪(소계)

「溪谷」의 項 參照.

消穀善飢(소곡선기)

消渴病의 主要症狀의 하나이다. 「消穀」은 飲食物의 消化를 말하며, 「善飢」는 空腹感을 느끼기 쉬움을 말함. 이는 食慾이 지나치게 旺盛하여, 食後에 곧 空腹感을 느끼는 것을 形容한 것임. 往往 몸이 도리어 消瘦하는데, 이는 胃火가 熾盛하여, 胃陰을 耗損하는 所致이다.

少氣(소기)

氣가 虛하여 不足한 것. 主要 症狀은 喘息이 低微하고 말할때 氣가 不足함을 느끼게 되며 말하기를 꺼리고 倦怠하며 脈이 弱하다. 대개 中氣不足, 肺腎兩虛의 所致이다.

消癰(소단)

「內經」에 있음. 「熱癰」이라고도 함. 消渴病을 말함. 「消」는 津液을 消耗하여 消瘦함을 뜻하고, 「癰」은 內熱을 뜻함. 消癰은, 體內에 邪熱이 熾盛하여, 津液을 消灼해서, 飲食을 많이 取해도 소수하는 症候이다.

消痰(소담)

濁痰이 滯留된 것을 攻伐하는 方法이다. 多用하면 元氣를 損傷하게 되므로 體弱한 경우는 慎用해야 한다. 1)消痰平喘: 痰飲이 閉場에 潛伏하여, 喘嗽를 發하며, 痰多하고, 胸部가 不舒하며, 食慾不振하고, 苔粘이한 경우, 三子養親湯(蘇子, 白芥子, 萊菔子)을 쓴다. 2) 消痰軟堅: 濁陰이 結聚되어 나력을 이루면, 貝母, 玄蔘, 牡蠣, 海藻 등을 쓴다.

消痰軟堅(소담연건)

「消痰」의 項 參照.

消痰平喘(소담평천)

「消痰」의 項 參照.

消導(소도)

消食導滯,消食化滯라고도 함. 食滯를 掃除하여 脾胃의 運化機能을 回復시키는 방법이다. 1)消食導滯:傷食의 初期에 腕腹이 脹悶하고 食物의 腐敗臭를 排出하여 때로 腹痛或은 嘔吐泄瀉하고 舌苔가 厚利이黃하며 脈滑한 경우에 適用한다. 保和丸(山査,神曲,半夏,茯苓,陳皮,連翹,萊菔子)을 쓴다. 2)消補兼施:消導藥과 脾胃를 補하는 藥을 同用한다. 脾胃가 虛하여 食物이 消化되지 않고 腕腹이 脹悶하며 大便稀薄,舌苔黃리,脈弱無力등증이 나타나는 경우에 適用한다.健脾丸(白朮,白茯苓,黨參,甘草,木香,黃連,神曲,陳皮,麥芽,砂仁,山査,楮實子,山藥)을 쓴다.

消導兼施(소도겸시)

消導의 項 參照

小半夏湯(소반하탕)

方의 項 參照

小方(소방)

邪氣가 輕淺하고, 病에 兼證이 없는 경우에는 小方을 使用한다. 小方에는 三種의 意義가 있다. 1) 病勢가 輕淺하여 猛劑를 쓸 必要가 없다. 2) 上焦의 病을 治療하며, 分量이 輕하고 여러차례 內服한다. 3) 病에 兼證이 없고, 藥味가 적은것, 小方の 例로서 汗法에 쓰이는 桂枝湯(桂枝, 芍藥, 甘草, 大棗, 生薑)이 있다.

小方脈(소방맥)

幼科의 別稱이다. 中國古代의 醫學分科의 一種으로 이는 小兒疾病을 專門으로 治療한 것이며 現在의 小兒科에 該當함 小兒科를 少小라고 부르기도 하였음.

消法(소법)

消散과 消導의 두가지법을 包含한다. 消散과 消導,破積의 藥物을 써서 食滯 및 氣血의 瘀滯로 인해 생긴 積滯등을 掃除하는 것이며, 消導(消食化滯)와 消積化滯 등법으로 나

닌다.

小便失禁(소변실금)

「失洩」의 項 參照.

小便淋瀝(소변임력)

排尿回數가 많은데, 短澁하고, 點滴하여 잘 그치지 않는 것. 本證에는 虛證과 實證이 있다. 虛證은 대개 腎氣가 不固하거나 或은 脾腎이 兩虛한 所致이다. 實證은 대개 下焦에 濕熱이 있거나 혹은 尿路結石의 所致이다.

小腹(소복)

腹의 項 參照.

少腹(소복)

腹의 項 參照.

少腹硬滿(소복경만)

臍以下の 部位가 堅硬하고 脹滿한 症狀을 말함. 손으로 누르면 不硬한데 自覺적으로 脹滿 拘急 不舒한 것을 「少腹急結」이라 한다. 모두 瘀血과 邪熱이 서로 結合되어 少腹部에서 阻滯하기 때문이며, 或은 膀胱의 氣化機能이 失調되어, 水가 下焦에 停滯된 所致이다. 前者는 蓄血證에 屬하고, 後者는 蓄水證에 屬하는 것이다. 辨證의 要點으로는, 小便이 通利한지 不利한지를 區分한다. 小便이 通利한 것은 蓄血證이고, 小便이 不利한 것은 蓄水證이다.

少腹急結(소복급결)

「少腹硬滿」의 項 參照.

少腹如扇(소복여선)

「金匱要略·婦人妊娠病脈證併治」에 있음. 妊娠 6~7個月 사이에 下腹部에 寒冷感이 있어서, 마치 부채질을 하는 것처럼 느껴지는 것을 말함. 이는 下焦가 虛寒하여, 陽氣가 胞胎를 溫養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小分(소분)

「肉分」의 項 參照.

所不勝(소불승)

「勝」은 克과 같음. 五行의 相克關係중 「克我」는 「所不勝」이다. 例:土는 木의 極을 받으므로, 木은 土의 「所不勝」이다.

消痞(소비)

化痞라고도 함. ①消痞化積:비적을 治療하는 方法이다.예컨데 兩脇下에 腫塊가 있고 食慾減退,腹脹,脣舌紫色,脈細한 경우 桃仁,紅花,當歸,赤芍藥,丹參,三稜,莪朮,香附子,枳殼,蜆甲 등의 行氣 化瘀 軟堅藥을 同用한다.②食積氣滯症으로 胸脘이 비만한 경우 行氣 消食藥을 써서 治療하는 것도 소비라고 한다 消導의 項 1) 參照

消痞化積(소비화적)

「消痞」의 項 參照

小產(소산)

「墮胎」의 項 參照.

燒山火(소산화)

古代針刺手法의 一種이다. 한증을 治療하는데 쓰이며 보버브이 一種에 속한다. 그 조작 方法은 病人에게 호기를 시켜 신속히 針을 皮下의 真皮層에 刺入하여 穴位주위의 皮膚를 중안하고 여러 차례강하게 笁전한 다음 약간 進針해서 마찬가지로 笁전하고 바로 一定한 심도까지 刺入하여 다시 各은 方法으로 笁전한다. 病人이 국부 혹은 全身에 溫熱感을 느끼에한 후에 針을 서서히 笁전하면서 拔出한다. 이밖에 기다수법을 쓰고 호기와 배합하지 않는 경우도 잇집나 요컨대 病人에게 熱感이 出現하도록하는 것이 원칙이다.

小舌頭(소설두)

「懸雍垂」의 項 參照.

少小(소소)

小方脈의 項 參照

所勝(소승)

「勝」은 克과 같음. 五行의 相克關係中 「我克」은 「所勝」이다. 例:「木克土」에서 土는 木의 「所勝」이다.

小昇丹(소승단)

靈藥의 項 參照

小柴胡湯(소시호탕)

「和解少陽」의 項 參照.

消食導滯(소식도체)

消導의 項 參照

消食化滯(소식화체)

消導의 項 參照

小心(소심)

「素問,刺禁論」에서 “七節之旁 中有小心”이라 했다. 歷代 注釋家,醫家の 이에 대한 見解가 瞿瞿하다. ①心包絡을 말함. 馬蒔는 “自五椎(心俞)之下而推之 卽包絡當推至第七節而至...蓋心...爲大心, 包絡...爲小心也”라고 注하였다. ②命門을 말함. 吳鶴臬는 “下部之第七節也(尾椎에서 위로 세어 第七椎를 가리킴), 其傍乃兩腎所系 左爲腎 右爲命門 命門相火 代君行事 故曰小心”이라 注하였다. ③膈俞穴을 말함. 張志聰은 “七節之傍膈俞之間也 中有小心者 謂心氣之出於其間 極微極細”라고 注하였다.

少陽(소양)

經脈名稱의 하나. 陽氣減弱의 뜻이 있다. 그 位置가 半表·半裏에 있고, 太陽과 陽明의 中間에 屬하므로 「少陽爲樞」(素問·陰陽離合論, 「開·合·樞」의 項 參照)라고도 한다. 즉 本經은 두 陽經 사이에서 戶樞(문지도리)作用을 한다는 뜻이다.

少陽病(소양병)

六經病의 하나이다. 少陽病의 臨床에 常見되는 症狀은, 口苦咽乾, 目眩, 寒熱往來, 胸脇滿悶, 心煩喜嘔, 不慾食, 脈弦等이다. 熱型의 特徵은 寒熱往來이며, 發熱惡寒, 全身疼痛의 表症이 아니고, 또 發熱不惡寒, 大便燥結의 裏症도 아니며, 脇下硬滿등의 症狀이 있어서, 病邪가 이미 太陽의 表府에 있지 않고, 또 陽明의 裏部에도 未入한 것이므로, 少陽病을 半表半裏證이라 한다.

少陽爲樞(소양위추)

「少陽」의 項 參照.

小逆(소역)

치료상 비교적 작은 착오를 범한 것.

疏鬱理氣(소울이기)

「寬胸」, 「貫中」, 「解鬱」, 「開鬱」이라고도 함. 情志의 抑鬱로 인해 야기된 氣滯를 治療하는 方法이다. 胸膈痞悶, 兩脇急少腹脹痛 等症이 發하는 경우, 香附子, 延胡索, 烏藥, 廣木香 等藥을 쓴다.

少陰(소음)

經脈名稱의 하나. 陰氣減弱의 뜻이 있다. 그 位置가 太陰과 厥陰의 中間에 있으므로 「少陰爲樞」(素問·陰陽離合論, 「開·合·樞」의 項 參照)라고도 한다. 즉 本經은 두 陰經 사이에서 戶樞作用을 한다는 뜻이다.

少陰病(소음병)

六經病의 하나이다. 主要症狀은 精神不振, 嗜睡, 脈微細이다. 이는 心腎이 兩傷하고 陰陽氣血이 俱虛한 所致이다. 臨床上 陽虛證이 多見된다. 故로 惡寒, 肢冷, 下痢 等證이 出現하게 되며, 陽虛裏寒證에 屬한다. 만약 腎陰의 受傷이 더 甚하면, 心煩 失眠하는 虛熱證이 나타나게 된다.

少陰熱化(소음열화)

傷寒六經의 病理의 述語이다. 心·腎은 少陰에 屬한다. 腎陰이 受傷하면 心火가 偏盛하게 되어, 夜熱이 나고, 心煩하여 臥하지 못하며, 舌紅絳 脈細數하고 혹은 邪熱이 少陰經絡에 內鬱하여, 咽痛을 發한다. 이를 少陰熱證이라 한다. 熱性病이 少陰經으로 傳病하면 대부분 寒化한다. 少陰熱化는 陰虛內熱에 屬하며, 少陰寒化와 相對해서 말하는 것이다.

少陰爲樞(소음위추)

「少陰」의 項 參照.

少陰表證(소음표증)

「實則太陽, 虛則少陰」의 項 參照.

蘇子竹茹湯(소자죽여탕)

「降劑」의 項 參照.

小腸(소장)

六腑의 하나. 그 主要 機能은 胃의 初步의 消化를 거친 飲食物을 다시 消化하여 飲食物中の 精華養分(엑기스)를 吸收한 後, 脾의 運化를 通하여 全身을 滋養하고, 아울러 消化後의 糟粕樣의 分解物을 大腸으로 傳達하며, 그중의 水液은 其他臟腑의 作用에 의해 膀胱으로 滲入된다.故로 小腸은 全消化過程中 매우 重要的 清濁의 選別作用을 한다. 飲食物의 精華와 糟粕은 주로 小腸의 消化作用에 의해 分別된다. 이밖에 小腸經과 心經은 서로 表裏가 되어, 心經에 熱이 있으면 小腸으로 轉移되어 小便短赤 등의 症候를 出現한다.

小腸氣(소장기)

「疝」의 項 參照.

小腸氣痛(소장기통)

「疝」의 項 參照.

小腸實熱(소장실열)

邪熱이 小腸에 쌓이는 病變을 말함. 主要症狀은, 心煩 耳鳴 咽痛 口瘡 小便赤澀 排尿刺痛 或尿血 腹脹 苔黃 脈滑數 等이다. 尿道感染症 口腔炎 등에서 多見된다.

小腸癰(소장옹)

「腸癰」의 項 參照.

小腸主受盛(소장주수성)

「受盛」에는 承受의 뜻이 含有됨. 「素問·靈蘭秘典論」에서, “小腸者 受盛之官, 化物出焉”이라 하였는데, 이는 小腸이 胃中에서 나오는, 初步消化를 거친 飲食物을 承受하여 消化를 더 한다는 것이다.

小腸咳(소장해)

咳嗽할 때, 放屁(방비)하고, 기침과 방귀가 同時에 나오는 證候를 말함.

小腸虛寒(소장허한)

寒邪가 小腸을 傷하거나 或은 小腸機能을 低下시키는 病變을 말함. 臨床表現에는, 대개 脾虛證候를 兼發한다. 例컨대 小腹에 자주 隱痛이 發하는데, 痛時에 按壓하기를 좋아하고(喜按), 腸鳴泄瀉하며, 小便頻數不利하고, 舌淡苔白하며 脈緩弱 等症을 發한다.

小劑量穴位注射(소제량혈위주사)

穴位注射療法の 項 參照

燒存性(소존성)

植物성藥物을 회제로 만드는데 外부는 초흑하고 표면은 초황할 정도로 소하여 藥物의 일부분은 회화게하고 다른 일부분을 여전히 본래의 氣味를 가지는 것이다 이를 存性이라 한다 지혈藥의 회제를 만드는데 이 炮製法을 常用한다 (소조성은 直接火소하고 초존성은 間接적으로 火處理하는데 그 目的은 같다)

消中(소중)

「素問·脈要精微論」 等篇에 있음. 多食해도 곧 空腹感을 느끼는 病症을 말하며, 消渴病의 「中消」證이다. 中消의 項 參照.

小青龍湯(소청룡탕)

「化飲解表」의 項 參照.

燒針(소침)

火針의 項 參照

小腿疽(소퇴저)

「股脛疽」의 項 參照.

疏表(소표)

表邪를 疏解 하는 것이다.外感의 表症이 비교적 輕한 경우에 (風寒表症과 風熱表症을 포괄) 發表作用이 비교적 약한 解表藥(辛溫藥으로서 紫蘇葉,荊芥,防風等,辛涼藥으로서 薄荷,桑葉,葛根等)을 써서 만드시 發汗 하지 않더라도 表症을 解除 할수 있다.

疏表化濕(소표화습)

「化濕」의 項 參照.

疏風(소풍)

風邪를 疏散시키는 것이다.外感의 風邪를 治療하느는데 舉風이 잘 되는 藥物을 사용한다.風寒表症에는 防風,白芷,藁本 등을 쓰고 風熱表症에는,薄荷,牛蒡子등을 쓰며 風濕症의 骨節疼痛에는 羌活桂枝湯을 쓴다.

疏風泄熱(소풍설열)

外表에 風邪가 있는데, 裏熱을 兼有한 症候를 治療하는 方法이다. 風邪가 侵襲하면, 頭痛, 鼻塞, 咳嗽 等症이 發하고, 裏熱이 있으면, 口渴, 小便化, 舌質紅, 舌苔黃 等症을 發汗다. 이상의 諸證이 있고, 身熱미惡寒, 脈浮數한 경우는, 鮮葱白, 淡豆豉, 蔓荊子, 焦山梔子, 苦桔梗, 連翹, 淡竹葉, 杏仁, 牛蒡子 等藥을 쓴다. 이상의 諸症이 있고, 身熱惡寒, 脈浮數한 경우는, 荊芥, 防風, 白芷, 焦山梔子, 苦桔梗, 連翹, 淡竹葉, 杏仁, 牛蒡子 等藥을 쓴다.

蘇合香丸(소합향환)

「逐寒開竅」의 項 參照.

小夾板(소협판)

正骨用의 器具이다. 四肢를 骨折했을 때 固定用으로 쓴다. 柳木, 杉木, 或은 베니어합판 등을 써어, 肢體의 길이에 맞게 만든 長方形의 薄板이다.

少火(소화)

「壯火食氣」의 項 參照.

少火(소화)

『素問·陰陽應象大論』에서 “少火之氣壯”이라 하였다. 少火와 壯火는 相對되는 用語이다. 이는 一種의 正常的으로 具有하는 生氣의 火로서, 人體의 正常生理活動을 維持하는데 必須的인 것이다.

小活絡丹(소활락단)

「搜風逐寒」의 項 參照.

屬(속)

治求其屬의 項 參照.

束骨(속골)

①足外側 第5跖趾關節(第 5中足之關節)의 部分. ②穴位名. 第5跖趾關節의 後上方의 陷凹處에 있으며, 足太陽經에 속함.

粟粒疹(속립진)

[眼胞菌毒]의 項 參照

粟瘡(속창)

本病의 原因은 椒瘡와 비슷하며 그 主要症狀은 眼瞼(눈꺼풀)내에 黃色의 軟한 粟粒狀 病變이 發生한다. 언제나 椒瘡(砂眼)과 同時에 發生하며 沙澁 痒痛한다. 重症인 경우는 粟粒이 眼球를 摩擦하여 翳膜을 誘發해서 視力에 影響을 미친다.

孫絡(손락)

「絡脈」의 項 參照.

孫脈(손맥)

「絡脈」의 項 參照.

飧泄(손설)

本病은 肝鬱脾虛하고, 清氣가 不昇한 所致이다. 臨床表現은, 大便의 泄瀉가 清稀하며, 不消化의 食物殘渣가 섞이고, 腸鳴腹痛하며, 脈弦緩 等症이다.

宋九科(송구과)

宋代의 太醫局은 醫學을 九科로 나누었다. 즉 大方脈科, 風科, 小方脈科, 瘡腫兼折傷科, 眼科, 產科, 口齒兼咽喉科, 針兼灸科, 金匱兼書禁科,이다. 고로 宋九科라 한다.

送服(송복)

送下라도도 함 丸劑의 服用은 탕수로 송복해야 한다 一般的으로 丸劑는 끓인 온수로 송복한다 온하게해야 할 丸劑나 한사를 제어하는 丸劑는 생강湯을 上송복한다 淸열하는 丸劑는 박하湯을 쓰기도 한다 두목을 맑게하는 丸劑에는 청다를 쓴다 子寶藥 혹은 調劑한 準약과 補腎하는 丸劑는 모두 담염湯을 쓴다 거어 活혈야궁니 술로 써 송복하여 藥력을 돕는 다 이서중에 丸劑의 服用법을 설명한 하자는 곧 送服을 뜻한다.

松皮癬(송피선)

患處의 皮膚가 소나무껍질(松皮)처럼 損傷되므로 이렇게 이름한다. 그 浸潤이 肥厚하고, 表面에 白色의 皮屑이 생기므로 白瘡이라고도 함. 대개는 風寒의 侵襲, 營衛의 失調, 或은 風熱이 毛孔으로 侵入하여, 오래, 鬱結해서 燥로 化하므로, 皮膚가 失養되어 생긴다. 通常 四肢의 伸側에 發하며, 그 다음은 軀幹部와 頭皮 等處에 發한다. 癬의 크기는 같지 않으며, 局部가 가렵다. 薄竹片으로 表面의 鱗屑을 가볍게 긁으면, 漸次 한屑의 淡紅色 半透明의 薄膜이 露出되고, 계속 긁으면, 작은 出血點이 생긴다. 癬의 形態는 대개 點滴狀, 貨幣狀, 盤狀, 地圖狀 等이다. 通常 오래도록 낫지 않으며, 반복해서 發하기 쉽다. 銀屑病의 類이다.

送下(송하)

送服의 項 참조

刷(쇄)

治削의 項 參照

鎖骨(쇄골)

柱骨의 項 參照.

鑱口疔(쇄구정)

疔瘡疾患의 하나이다.疔이 口角에 생겨서 입을 벌리는데 영향이 있으므로 이렇게 이름한다.이는 心脾 二經의 火毒이 鬱發하기 때문에 생긴다.「疔瘡」의 項 參照.

洒淅惡寒(쇄석악한)

病人이 惡風寒할때 마치 冷水를 몸에 뒤지어쓰거나 혹은 비를 맞아 흠뻑 젖은 感覺을 形容한 말이다.

鎖子骨(쇄자골)

柱骨의 項 參照.

鎖肛痔(쇄항치)

肛門癌腫이, 肛門狹窄을 일으키는 一種의 病症을 말함. 처음에는 肛門에 墜脹感이 있고, 便秘하거나 或은 大便에 血이나 粘液이 섞인다. 症狀이 漸次 甚해져서, 裏急後重을 隨伴하고, 糞便중에 膿血이 있으며, 異常한 穢臭를 發한다. 後期에는 糞形이 가늘게 되고, 發作性腹痛이 생기며, 兩股와 腹部사이에 腫塊가 發하여, 堅硬해서 밀어도 移動하지 않고, 항상 肛癰 或은 肛漏를 隨伴하며, 身體가 衰弱하다.

鎖喉毒(쇄후독)

本病은 心과 小腸에 積熱이 된데다가 다시 風寒을 外感하여 凝結되기 때문에 생긴다. 症狀은 먼저 耳前部에 멍울(核)이 생겨 腫痛하고 漸次 咽喉部에 영향을 미치어 腫塞 疼痛해서 飲食에 障礙가 된다.

鎖喉壅(쇄후웅)

本病은 대개 肺.胃의 兩經이 時邪인 風熱을 感受하여, 或은 心經의 火毒에 風邪가 섞이므로 發한다. 壅瘍이 結喉(甲狀軟骨)의 外部에 생겨 紅腫脹大하면 喉頭に 영향을 미치기 쉽다. 일반적으로 潰破되어 膿이 나오는 것은 낫기 쉽다고 한다.

衰(쇠)

衰之以屬의 項 參照.

衰之以屬(쇠지이속)

衰는 病邪를 削弱시켜 治療하는 方法이다. 屬은 證候와 治法의 連繫를 말함. 衰之以屬은, 먼저 證候의 性質을 明確히 한 然後에 藥性の 分類와 서로 連繫시켜 治法을 決定하는 것이다. 例컨대, 寒藥을 써서 熱證을 治하고, 熱藥을 써서 寒證을 治하며, 溫藥을 써서 冷症을 治하고, 冷藥을 써서 溫證을 治한다. 이는 寒. 熱. 溫. 冷, 衰之以屬이다. 淸法, 溫法의 項 參照.

髓(수)

뇌는 주로 척수를 가리키고 골수내의 수질도 포괄하며 신에 소장된 정기가 변화해서 산생된다. 이는 신이 수를 생함을 말해 주는 것이며 척주중의 수는 뇌와도 상통하므로 임상상 수, 뇌, 골의 병증은 왕왕 신에서 론치한다.

手脚軟(수각연)

「五軟」의 項 參照.

水結胸(수결흉)

「結胸」의 項 參照.

水鼓(수고)

鼓脹의 類型의 하나이다. 主要症狀은 腹部가 脹大하고 皮膚가 팽팽하며 青色을 띠며 小便이 困難하고 兩脇이 疼痛한다. 많은 患者가 面色이 萎黃하며 或은 黃疸을 隨伴하고 몸에 紅點이 나타나기도 한다. 이는 肝氣가 鬱結하여 脾를 損傷하고 肝의 疎泄機能이 失調되며 脾의 運化機能이 障礙되고 水毒이 結聚한 所致이다.

水穀痢(수곡리)

脾胃의 氣虛로 因해, 水穀을 消化하지 못한 所致이다. 腹中이 微痛하고, 糞便中에 食物

의 殘渣와 膿血이 섞이며, 飮食減少, 四肢困倦, 脈細緩無力 等症을 나타낸다.

水穀之氣(수곡지기)

「穀氣」의 項 參照.

水穀之精(수곡지정)

精의 項 參照

水穀之海(수곡지해)

「腎主受納」의 項 參照.

水穀之海(수곡지해)

「胃」의 項 參照.

水廓(수곽)

八廓의 項 參照

水溝(수구)

人中の 項 參照.

綉球風(수구풍)

陰囊의 皮膚가 瘙痒 潰爛하는 病症이다. 대개는 肝經의 濕熱이 下注한 所致이다. 陰囊의 皮膚에 紅斑, 丘疹, 水疱, 糜爛, 結痂가 생기고, 皮膚가 症候되거나 或은 脫屑등이 생긴다. 항상 瘙痒 或은 灼痛이 隨伴된다. 重症인 경우는, 陰囊의 皮屑이 거의 剝脫되는데, 이를 脫囊이라 한다. 濕疹, 皮膚炎 或은 維生素 B2缺乏症등의 類이다.

手厥陰心包經(수궐음심포경)

十二經脈의 하나. 그 循行路線은, 體內에서는 心包絡에 屬하고 三焦로 連絡되며, 아울러 橫膈膜과 相連된다. 體表에서는 側胸部에서 起始하여, 腋下 上肢屈側正中線을 거쳐 中指端에 이른다. 本經에 有病하면 主로 心煩 心痛 心悸 精神病 面黃 目赤 等の 症狀과 病症, 그리고 本經의 循行部位의 局部症狀이 나타난다.

水潰瘡(수궤창)

脚濕氣의 項 參照.

水氣(수기)

「水腫」을 말함. 水氣는 病理에서 말한 것이고, 水腫은 症狀에서 말한 것임. 體內水分의 運行은, 主로 肺氣의 通調肅降, 腎氣의 開闔調節, 脾氣의 運化轉輸에 依存하는데, 그중 어느 一臟의 機能異常을 일으키면, 水가 化氣하지 못하여(水不化氣), 水分이 停留되어

水腫을 發한다. 「金匱要略」에서는 「風水」, 「皮水」, 「正水」, 「石水」, 「黃汗」等の 類型으로 나누었고, 또 五臟의 證候에 따라서 「五水」로 나누었다. 그런데 臨床上으로는 일반적으로 「陰水」, 「陽水」의 二種類로 大別한다. 有關各項을 參照.

水氣(수기)

水液이 體內에 停留하여 생기는 病症을 말함. 대개 脾腎陽虛로 인해 水濕을 運化하지 못한 所致이다. 「金匱要略」에서 말한 水氣는, 주로 「水腫」을 뜻한다.

水氣結胸(수기결흉)

「結胸」의 項 參照.

水氣凌心(수기능심)

水氣가 心臟에 影響을 미치는 病變을 말함. 脾腎이 陽虛하여 氣化가 障礙되므로, 水液이 體內에 停留해서 正常排泄이 안되어, 痰飲 水腫 等 水氣病을 發할 때, 水氣가 上逆해서 胸膈에 停滯되어 心陽을 阻礙해서, 「心陽不振」, 「心氣不寧」을 惹起하여, 心悸氣促等症이 出現함을 水氣凌心이라 稱한다.

受納(수납)

胃主受納의 項 參照.

水毒(수독)

「溪毒」이라고도 함. 溪澗의 汚染된 疫水를 말함. 사람이 感染되면 「蠱病」이 된다. 「諸病源候論·水蠱候」(二十一卷)에서, “此由水毒氣結聚于內 令腹漸大, ……名爲蠱也”라 하였다. 여기서 말한 汚染源은 住血吸虫의 幼虫의 類이다.

垂簾障(수렴장)

‘赤膜下垂’의 項 參照.

水輪(수륜)

『瞳神』의 項 參照.

水輪(수륜)

五輪의 項 參照

水苗法(수묘법)

人痘接種法の 項 參照

水不涵木(수불함목)

「涵」은 滋潤임. 腎은 水에 속하고 肝은 木에 속함. 腎陰이 虛하여 肝木을 滋養하지 못

하면 肝陰不足 虛風內動이 되므로 이렇게 말함. 臨床上으로는 低熱 眩暈 耳鳴 耳聾 腰痠 遺精 口乾 咽燥 手足蠕動 심하면 抽掣 등증을發함.

水不化氣(수불화기)

水液의 代謝機能이 障礙되어 小便不利나 水腫을 惹起하는 病理을 말함. 人體의 水液의 輸布와 排泄은, 必須的으로 氣化過程을 거쳐야 하며, 이 過程은, 肺·脾·腎의 機能과 密接한 關係이 있다. 特히 腎陽이 虛하면 正常的인 昇清 降濁의 氣化作用을 維持할 수 없어서, 水液의 蒸發敷布가 不能하여 水腫이 出現한다.

水飛(수비)

비라고도 함 어떤 藥物은 수비법을 쓴다 즉 먼저 藥物을 갈아서 粉末로 하여 水에 넣고 물을 부어 또 갈아서 극세말로 하여 다시 다량의 물으 붓고 각반해서 藥分을 함유한 물을 기울여 藥分을 분리해서 건조시켜 극세粉末을 취한다 滑石 礞石 朱砂 爐甘石 등은 거의가 수비한 것이다

修事(수사)

明代 李時珍의 本草綱目에 있음 考證의 뜻이다 清代 張仲岩의 著書 修事指南이 있다

洩數(수삭)

小便이 頻繁하여, 排尿回數가 많은 것.

水疝(수산)

陰囊이 腫痛하고, 陰部에 汗出하며, 或은 陰囊이 水晶처럼 腫脹하며(辜丸鞘膜積液 等症의 類), 或은 陰囊이 燥痒하여 黃水가 흐르고, 或은 少腹部를 만지면 水聲이 난다(儒門事親). 대개는 腎虛한데 다시 風寒을 感受하여, 濕邪가 囊中에 流入한 所致이다.

手三陽經(수삼양경)

十二經脈中の 3條의 經脈으로서, 手陽明大腸經·手太陽小腸經·手少陽三焦經을 말함. 이들의 循行方向은 手部에서 上肢伸側(外側)을 거쳐 頭部에 이른다.

手三陰經(수삼음경)

十二經脈中の 3條의 經脈으로서, 手太陰肺經·手少陰心經·手厥陰心包經을 말함. 이들의 循行方向은 모두 胸部에서 上肢屈側을 거쳐 手部에 이른다.

收澁(수삽)

固澁의 項參照

水性流下(수성유하)

물이 아래로 흐르는 현상처럼 水濕邪氣가 원인이 된 病變이 下向하는 특징을 비유하는데 쓰임. 예: 泄瀉 下肢倦怠 下肢浮腫 등.

受盛之官(수성지관)

「小腸主受盛」의 項 參照.

手少陽三焦經(수소양삼초경)

十二經脈의 하나. 그 循行路線은, 體內에서는 三焦에 屬하고 心包絡으로 連絡되며, 아울러 耳·眼과 相連된다. 體表에서는 無名指端에서 起始하여, 上肢伸側正中線을 沿하여, 肩部 側頸部 側頭部 耳部를 거쳐 眼部에 이른다. 本經에 有病하면 主로 耳病 咽喉病 眼痛 頰腫 汗出 등의 症狀과 病症, 그리고 本經의 循行部位의 局部症狀이 나타난다.

手少陰心經(수소음심경)

十二經脈의 하나. 그 循行路線은, 體內에서는 心에 屬하고 小腸으로 連絡되며, 아울러 咽部和 眼으로 相連된다. 體表에서는 腋下部에서 上肢屈側後面을 沿하여 下向해서 小指端에 이른다. 本經에 有病하면 主로 心痛 口渴 咽乾 目黃 脇痛 등의 症狀과 病症, 그리고 本經의 循行部位의 局部症狀이 나타난다.

晬時(취시)

一周時를 말함. 1日中 어느 時刻에서 다음날 同一時刻까지를 말함.

手陽明大腸經(수양명대장경)

十二經脈의 하나. 그 循行路線은, 體內에서는 大腸에 屬하고, 肺로 連絡된다. 體表에서는 食指端에서 上肢伸側前面, 肩部, 頸部, 脇部를 거쳐 鼻孔傍에 이른다. 本經에 有病하면, 主로 泄瀉 痢疾 腸鳴 惡寒戰慄 目黃 口乾 鼻衄 鼻塞 咽喉炎 齒痛 頸部腫大 등의 症狀과 病症, 그리고 本經의 循行部位의 局部症狀이 나타난다.

水逆(수역)

胃에 停水가 있고, 水氣가 不化하며, 渴하여 飲水하고자 하지만 水入하면 卽吐하는 病變을 말함.

水熱結胸(수열결흉)

「結胸」의 項 參照.

首烏枸杞湯(수오구기탕)

固崩止帶의 項參照.

垂癰(수옹)

[紫舌脹]이라고 함. 心經의 火가 盛하여 血이 壅滯한 所致이다. 新生嬰兒에게 多見되며

舌上에 竹皮같은 腫物이 생겨 内部에 血水가 있으며 舌面에 脹起하여 堅硬하고 疼痛한다.

水鬱折之(수울절지)

「素問:六元正紀大論」에 있음. 「水鬱」은 水氣가 體內에 鬱滯한 것이고 「折」은 調節 制約한다는 뜻이다. 調節 制約의 根本은 腎에 있다. 腎과 有關한 水氣가 鬱滯하여 例컨데 腎陽이 衰微하며 顏色이 蒼白하고 頭暈眼花하며 腰部가 痠痛하고 四肢가 冷해지며 小便이 短少하고 浮腫이 頭面에서 시작하여 下半身으로 波及되어 오래 不退하며 누르면 陷凹가 不起하고 舌淡 苔薄白하며 脈이 沈細하고 약한 症狀을 나타내는데 「溫腎利水」法을 쓴다. 或은 肝腎이 陰虛하여 가벼운 浮腫을 나타내고 頭暈하며 面紅昇火하고 眼花耳鳴하며 腰脚이 痠痛하고 咽乾하며 夜間睡眠에 다소 장애가 있고 尿少色黃하며 舌紅苔少하고 脈弦細 等症을 나타내면 「滋陰肝腎」法을 써야 한다. 이 밖에 「汗法」, 「逐水法」, 「利小便法」等도 「水鬱折之」의 범주에 속한다.

水飲(수음)

水飲은 臟腑의 病理變化 過程中的의 滲出液이다. 水와 飲의 區別은 稀薄하고 맑은것이 水이고 稀薄하고 粘稠한것이 飲이다. 名實이 다르므로 언제나 水飲이라 併稱한다.

獸醫(수의)

家畜의 疾病을 專門으로 治療하는 醫員이며 주례 천관에 기재되었다. 現存하는 獸醫書로는 著書 不明의 安翼集(906年以前? 唐 賈誠重校正), 明代 俞仁 俞杰의 元亨療馬 集附牛經, 사經 등이 있다.

收引(수인)

「收」은 收縮을 뜻하고 「引」은 拘急을 뜻함. 收引은 筋脈이 拘急하고 關節의 屈伸이 잘 안되는 것을 말함. 대개 寒邪에 起因해서 發病한다.

輸刺(수자)

①九刺法의 一種 사지부의 정영수경합등의 穴位와 배부의 장수혈을 자하는 것 ②十二刺方法의 一種 기성하고 유열한 病症을 治療하는데 쓰임 그 方法은 針을 직입직출하되 심자하며 取穴은 적게 하는 것이 좋다(靈樞 官針篇) ③五刺方法의 一種 骨痺의 治療에 쓰인다 刺法은 針을 직입직출하되 깊이 골에 이르게 한다 이는 腎病을 治療하는 데 쓰이던 古代의 一種의 針法이다 (靈樞 官針篇)

水臟(수장)

「命門」의 項 參照

水臟(수장)

溫腎의 項參照

手足厥冷(수족결냉)

四肢의 冷이 肘膝以上에 이르는 症狀로서 手足逆冷 或은 略稱해서 四逆이라고도 함. 寒熱의 區分이 있다. 寒證은 陰寒이 內盛하고 陽氣가 衰微하므로 四肢에 陽氣의 溫暖이 이르지 못하여 언제나 迫冷 清穀下痢 脈沈微 舌淡白等症을 隨伴한다. 熱證은 熱盛 傷津하고 熱邪가 阻遏하므로 陽氣가 四肢으로 外達하지 못하고 다만 通常적으로 胸腹에만 灼熱하며 舌質紅絳 脈促 或은 沈遲有力等症을 隨伴한다.

手足逆冷(수족역냉)

手足厥冷의 項 參照.

手足躁擾(수족조요)

手足을 擾動하면서 不寧함을 말함. 實證과 虛證의 區別이 있다. 實證은 內熱이 熾盛하여, 心中이 煩躁不寧하므로 手足을 躁擾하면서 安臥하지 못한다. 언제나 身熱口渴, 或은 腹脹痛, 大便秘結등의 實熱症狀를 隨伴한다. 虛證은 病이 危重하므로, 元氣가 곧 雜脫하려고 하여, 意識의 自制力을 喪失하므로, 循衣摸床하고, 四肢를 躁擾하는 等の 無意識的動作을 나타낸다. 대개 身倦昏沈하고, 肢冷하며, 脈微 等の 虛寒症狀를 隨伴한다.

水腫(수종)

「水氣」의 項 參照.

睡中呢喃(수중이남)

睡夢中에 헛소리를 하는데 發音이 明瞭하지 않고, 뜻도 不明함을 말함. 대개 心火, 痰熱 或은 胃不和 等の 所致이다.

髓之府(수지부)

骨을 말함. 骨內에 髓를 藏하므로 이름이다.(素問·脈要精微論에 있음).

水脹(수창)

「靈樞·五癰津液別篇」에 있음. ①水腫의 別名이다. 水가 肌膚에 溢하여 腫脹하므로 이렇게 이름한다. 대개는 脾腎의 陽虛로 因해, 水濕을 運化하지 못한 所致이다. ②水脹은 水腫과 區別되는 것으로 본다. 汪必昌의 「醫階辨證」에서, “水腫之狀 或先足跗腫而上 或先眼窠腫而下 或面目足跗一時併腫 漸至於胸腹 甚者外腫而內脹”(水腫의 狀態는 먼저 발등이 부어 上行하고, 或은 먼저 眼窠(누두덩)가 부어 下行하며, 或은 面目과 足跗가 함께 부어, 점차 胸腹部에 이르고,甚하면 外腫하고 內脹한다.) “水脹之狀 先腹內脹 而後外亦大 漸至四肢亦腫”(水脹의 狀態는, 먼저 腹部가 內脹하고, 그후 外部도 크게 붓고, 점차 四肢도 붓는다.)고 하였다.

漱滌(수척)

함수라고도 함. 이는 구강이나咽喉의 환부를 청결하는 데 쓰이는 방법이다. 약탕의 청열해독작용으로 인해 腐爛된 조직 및 농액을 제거할 수 있다. 함수약은 각종약물을 水煎하여 사용시에는 이분지일량의 온수를 가하여 잠시 입안에 머금은 후 다시 漱滌하고 吐去한다.병이 경하면 일일 3~4회 중하면 5~6회 시료한다. 약탕이 너무 뜨거워도 안된다. 구강탕상의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예컨대 麻疹의 과정에서 구내염이 발생하면 들 薔薇의 根을 수전하여 함수한다. 급성편도선염에는 風化硝 白礬 食鹽을 각 한돈씩 취하여 물 한컵을 붓고 끓여서 식힌 후 구강을 수척한다.

修治(수치)

宋代 龐安時的 傷寒總病論에 있음 同書에 修治藥法 즉 附劑의 記載가 있다

水針療法(수침료법)

이는 注射藥液 혹은 生理溶液을 넣은 注射器를 毫針 대신 기육에 刺入하는 治療方法이다 注射의 部位는 穴位 가 되며 체표의 병통局部가 될수도 있다 구체적方法은 穴位注射療法の 項 參照

手太陽小腸經(수태양소장경)

十二經脈의 하나. 그 循行路線은, 體內에서는 小腸에 屬하고 心으로 連絡되며, 아울러 胃·眼·內耳로 相連된다. 體表에서는 手小指端에서 上肢伸側後面 肩胛部 側頸部 顔面 眼部를 거쳐 耳部에 이른다. 本經에 有病하면 主로 耳聾 目黃 煩腫 下顎部腫脹으로 頸部の 旋回不能 咽喉病 等の 症狀과 病症, 그리고 本經의 循行部位의 局部症狀이 나타난다.

手太陰肺經(수태음폐경)

十二經脈의 하나. 그 循行路線은, 體內에서는 肺에 屬하고, 大腸으로 連絡되며, 胃·喉와 相連된다. 體表에서는 胸部의 外上方에서 上肢屈側前面을 沿하여 下向해서 拇指端에 이른다. 本經에 有病하면, 主로 咳嗽 咳血 喘息氣短 口渴 煩躁 胸滿 肩背痛 手掌發熱 傷風 自汗 小便頻數 尿黃赤 等の 症狀과 病症 그리고 本經의 循行部位의 局部症狀이 일어난다.

水土不服(수토불복)

어떤 地域에 처음 到着하여, 自然環境이나 生活習慣의 變化로 因해, 暫時 適應不能이 되는 現象. 例:食欲不振 腹脹 腹痛泄瀉 月經不調등.

搜風逐寒(수풍축한)

風邪의 寒邪'濕痰을 兼하여, 瘀血이 經絡에 滯留된 症候를 治療하는 方法이다. 中風手足麻木이 오래 不癒하여, 經絡中에 濕痰 瘀血이 있고, 腿臂間이 局部的으로 疼痛하며, 或은 風寒·濕의 邪氣가 經絡에 滯留하여 肢體 筋骨이 痠痛한다. 小活絡丹(川烏, 蚯蚓, 草烏, 天南星, 乳香, 沒藥을 研末하여 酒맥糊丸한다)을 쓴다.

水寒射肺(수한사폐)

寒邪와 水氣가 肺臟에 影響을 미친 病理을 말함. 平素 痰飲이나 水腫을 앓은 病人이, 寒邪를 外感하여, 寒邪가 水飲을 引動시켜, 寒水가 上逆해서 肺氣의 宣暢을 障礙한다. 主要症狀은, 咳嗽, 氣喘, 痰涎多而稀白, 舌苔白膩, 脈浮緊하며, 發熱 惡寒을 隨伴하는 等이다.

修合藥所(수합약소)

太平惠民和劑局의 項 參照

髓海(수해)

「뇌」의 項 參照

溲血(수혈)

「尿血」, 「溺血」이라고도 함. 이는 小便中에 血液 或은 血塊가 섞이는 것이며, 排尿時에 뚜렷한 疼痛은 없으며, 間或 輕微한 脹痛이나 熱痛이 있더라도, 小便이 難澁하고 疼痛을 참기 어려운 血淋 같지는 않다. 그러므로 일반적으로 有痛한 것을 「血淋」이라 하고, 不痛한 것을 「溲血」이라 한다. 臨床上, 虛證과 實證으로 나뉜다. 實證은, 대개 突然 發作하며, 尿血이 鮮紅色이고, 排尿할 때 尿道에 熱澁한 感覺이 있다. 만약 身熱 面赤, 心煩 口渴을 兼發하는 것은, 血分の 열우 或은 下焦의 濕熱 때문이다. 神疲, 目眩耳鳴, 腰腿산軟을 兼發하는 것은, 陰虛火動에 起因한다. 虛證은, 대개 久病에 屬하며, 尿血이 鮮紅色이고, 排尿時에 대개는 痛滯感이 없으며, 食少하고, 神倦하며, 面色이 萎黃하고, 腰脊이 산통하며, 頭暈耳鳴 等症을 나타내며, 대개는 脾腎兩虛의 所致이다.

水火不濟(수화부제)

心은 火에 속하고 腎은 水에 속함. 水火는 相互制約 相互作用하여 生理的動態의 平衡을 유지 하므로 「水火相濟」라 칭함. 만일 腎水가 부족하여 위로 心火를 다스리지 못하거나 心火가 妄動하여 아래의 腎陰을 傷하면 이러한 협조가 消失되어 心煩 失眠 遺精 등증을 發하는 바 이것이 곧 「水火不濟」의 病變이다. 「心腎不交」의 項 參照.

水火相濟(수화상제)

①「心腎不交」의 項 參照. ②「水火不濟」의 項 參照.

水火之臟(수화지장)

「腎」의 項 參照.

髓會(수회)

「八會穴」의 項 參照.

水虧火旺(수휴화왕)

① 「水」는 腎水を 「火」는 心火를 뜻함. 腎水가 부족하여 心火를 制約하지 못해서 心火를 獨旺케 하면 心煩失眠 혹은 睡臥不寧의 證候를 發함. ② 腎陰 腎陽의 失調를 뜻함. 水는 腎水を 火는 命門火를 뜻함 . 腎水가 虧損되면 命門火가 偏亢하여 性慾亢進 遺精 등증을 發한다.

宿痰(숙담)

伏痰의 項 參照.

宿食(숙식)

宿滯, 食積, 傷食이라고도 함. 脾胃의 運化機能에 異常을 招來하거나 或은 脾胃에 寒이 있어서 飲食物이 하룻밤을 지나도 消化되지 않고 胃腸에 停滯되므로 이렇게 이름한다. 처음에는 대개 胸脘이 痞悶하고 惡食하며 噯腐吞酸하고 舌苔가 厚위한 等症을 나타낸다.

宿疾(숙질)

오래 낫지 않는 疾病을 말하며, 久病이라고도 함. 新病과 相對되는 말이다.

宿滯(숙체)

宿食의 項 參照.

瞶(순)

눈꺼풀이 떨리고 움직이는 것을 말하며, 筋肉이 跳動하는 形容詞로도 쓰인다.

循(순)

針刺手法의 하나이며 針刺전의 준비공작이다 의사가 먼저 수지로써 針刺하고자하는 穴位의 局部와 그 소속경맥을 순안하여 기혈이 흘러지게한 후 針刺하는 方法이다

循經傳(순경전)

「傳經」의 項 參照.

順經取穴(순경취혈)

全身 經脈의 體表의 順行에는 모두 一定한 노선이 있다. 針灸治療시에 병환국부와 같은 經맥상에서 환부로부터 원격한 穴位를 선정한다. 이러한 取穴方法이 순경取穴이다.

順氣(순기)

「降逆下氣」의 項 參照.

循蒙招尤(순몽초우)

素問·五臟生成篇에 있음. 頭暈目眩의 症狀을 말함. 循蒙은 眼目이 瞬動하며 夢寐不明한 것이고 招尤는 頭部가 動搖하며 不定한 感覺을 말함.

脣四白(순사백)

脾, 其華在脣四白의 項 參照.

脣裂(순열)

口脣이 乾燥하여 破裂되는 것. 外感初期 或은 熱病傷津 등에서 볼 수 있다.

循衣摸床(순의모상)

意識이 昏迷한 病人이 衣服이나 이불을 만지작거리고 或은 寢床의 가장자리를 문지르는 症狀을 形容한 말. 이는 熱이 心神을 傷하여, 邪氣가 盛하고 正氣가 虛한 一種의 危重한 證候이다.

脣紫(순자)

脣色이 暗紫色 或은 紫紅色을 띠는 것은 熱에 屬하며, 血分에 熱이 盛한 경우 或은 血瘀證에서 多見된다. 脣色이 靑紫色(紫紺色과 같음)을 띠는 것은 寒에 屬하며, 寒邪熾盛, 甚血瘀 或은 酸素缺乏 或은 急性中毒 등에서 多見된다.

順傳(순전)

疾病이 一定한 順序대로 傳變함을 말함. 例컨대 傷寒病의 陽經이 表에서 裏로 傳入되고, 太陽病에서 陽明으로 傳入되거나 或은 少陽으로 傳入된다. 或은 陽經이 陰經으로 傳入된다(陰經은 처음이 太陰이고, 끝이 厥陰이다). 이는 모두 順傳이다. 瘟疫가 上焦의 手太陰肺經에서 中焦의 足陽明胃經으로 傳入되고, 또 下焦의 足少陰腎經, 足厥陰肝經으로 傳入된다. 或은 衛分에서 氣分, 營分, 血分으로 傳入되는 등을 모두 順傳이라 稱한다.

脣腫(순종)

口脣의 腫脹을 말함. 脾胃의 積熱 或은 食物中毒 등에서 多見된다.

順證(순증)

病情이 一般規則대로 發展하여, 正氣가 微衰하고, 抵抗能力이 尙足하여, 病邪가 重要器官을 損害할수 없으며, 或은 證狀이 重에서 輕으로 好轉되는 趨勢에 있는 것을 말함. 例컨대, 小兒麻疹을 三段階로 나누어, (1)疹前期:發病에서 疹點이 流布될 때까지. (2)出疹時:疹點이 나타날때부터 疹點이 全身에 퍼질 때까지. 上에서 下로 擴散하며, 顆粒이 分明하고, 色澤이 紅滑함. (3)疹回期:疹點의 流布에서 消失解熱되기까지. 二三段階를 順序로 經過하여 辨證이 없는 것이 順證이다.

脣疹(순진)

[疹]은 [疹]과 같다. 口脣部에 발생하는 乾性の 瘡疹을 말함.

脣焦(순초)

口脣의 焦乾으로, 대개 脾胃實熱에 屬하며, 或은 秋燥, 或은 熱病으로 傷津한 [內燥] 證에서 볼 수 있다.

脣風(순풍)

本病은 대개 胃經에 본래 濕熱이 있는데다가 風邪를 外感하여 風熱이 上博하므로 생기며 [노주풍]이라고도 함. 대개 下脣에 생기며 主要 症狀은 脣部가 紅腫하며 疼痛하고 日久하면 破裂되어 汁이 나온다.

淬(쉬)

藥物을 불로 소홍한 후 곧 수 혹은 초안에서 투입하기를 여러 차례반복하는 것이다 이 方法을 단쉬라고 한다 광물성藥物인 자석 대자석 자연동등에 이 方法이 많이 쓰인다

淬刺(쉬자)

九刺法의 一種 火針을 말함(靈樞 官針篇) 該當項을 參照

淬針(쉬침)

火針의 項 參照

膝彎(슬만)

膕의 項 參照.

膝解(슬해)

骸關이라고도 함. 膝關節部.

濕(습)

「濕氣」라고도 함. ①六淫의 하나. 濕은 陰邪에 屬하며, 性質이 重濁하고 粘膩하여, 氣의 活動을 阻滯시키고, 脾의 運化를 障礙한다. 臨床表現으로, 外感濕邪에는 體重腰痠 四肢困倦 關節肌肉疼痛이 常見되는데, 病處가 한곳에 限定되어 不移한다. 濕濁이 腸胃를 內阻하면 胃納不良 胸悶不舒 小便不利 大便溏泄 等症이 常見된다. ②運化機能의 障礙로 水氣가 停滯된 病症. 「內濕」의 項 參照.

濕家(습가)

平素 濕病을 앓는 사람을 말함.

濕困脾陽(습곤비양)

脾虛濕困의 症狀과 대체로 같은데, 다만 病機上 약간의 差異이 있다. 濕困脾陽은, 外濕

이 脾陽의 運化에 影響을 미치기 때문이며, 燥濕 利濕을 爲主로 해야 한다. 濕이 除去되면 脾陽이 恢復될 수 있다. 「脾虛濕困」은 脾虛로 因해 水濕困阻를 招來한 것이며, 健脾를 爲主로 하고, 燥濕을 結合시켜야 한다. 脾가 健全해야만 正常運化할 수 있다. 「脾虛濕困」의 項 參照.

濕霍亂(습곽란)

「霍亂」의 項 參照.

濕氣(습기)

「濕」의 項 參照

濕痰(습담)

濕濁이 體內에 오래 停滯되어 생기는 痰. 「痰濕」 혹은 「痰濁」이라고도함. 病因은, 脾虛하여 水濕을 運化할 수 없고, 津液을 正常輸布할 수 없어서 停滯되어 「內濕」이 되고, 積留되어 「痰飲」이 된다. 臨床表現은, 痰多稀白하고, 胸悶 或은 惡心이 發하며, 喘咳, 舌體胖 苔滑而 等이 나타난다.

濕痰流注(습담유주)

邪毒이 流注하는 一種의 化膿性病症이다. 脾虛 氣弱하여, 濕痰이 內저한 데다가 다시 邪毒을 感受하여, 營衛肌肉間에 流溢하기 때문에 생긴다. 처음에는 患部の 肌肉이 疼痛하고, 넓게 腫起하여 腫頭가 없으며, 皮膚色이 不變하고, 寒熱과 全身關節疼痛 等症을 隋伴한다. 化膿하면 腫脹疼痛이 激化되고, 壯熱 汗出한다. 潰破後 流膿하면 漸次 癒한다. 或은 正氣가 虛하고 邪氣가 滯留되어, 여기저기 起伏하며, 좀처럼 낫지 않는 경우가 있다. 만약 夏秋節에 發生하여, 暑濕의 症狀을 兼發하면 「暑濕流注」라 한다.

濕毒(습독)

濕氣가 鬱積日久하여 成毒한 것을 말함. 濕毒이 腸에 쌓여 下注하면 「濕毒便血」이 되는데, 症狀은 糞便에 血水가 있고, 혹은 便血의 色이 暗紫色이며, 腹痛은 없다. 만약 濕毒이 下注하여 肌膚에 鬱積되면, 小腿부에 瘡癰이 잘 생겨, 「濕毒流注」라 한다. 症狀은, 瘡形이 平塌하며 根脚이 漫腫하고, 色이 靑紫 혹은 紫黑하며, 潰破후 膿水가 浸潰蔓延하여 오래 아물지 않는다.

濕毒便血(습독변혈)

「濕毒」의 項 參照.

濕毒流注(습독유주)

「濕毒」의 項 參照.

濕痺(습라)

項의 後方, 足太陽膀胱經이 通過하는 部位에 생기는 痺癢을 말함.

濕斂瘡(습렴창)

奶癬의 項 參照.

濕病(습병)

一般的으로 濕으로 인해 惹起되는 病症을 말함. 濕은 重濁하고 粘니한 사이며 外濕과 內濕의 區分이 있다. 霧露를 感受하거나 潮濕한 곳에 久居하거나 혹은 물을 건너거나 비에 젖거나 혹은 땀에 젖은 옷을 입음으로 濕邪가 肌膚에 侵入하여 身重體산, 關節疼痛 혹은 惡寒發熱 身重自汗하는 것은 外感濕邪에 속하며 傷濕이라고 한다. 만약 飲食不節 生冷物の 過食 혹은 脾胃虛弱으로 因한 運化機能의 異常, 水濕의 內停으로 인하여 食慾不振, 泄瀉, 腹脹, 小便少 甚한 경우 面目四肢의 浮腫 等症의 出現하게 되면 이는 溫邪가 內部에서 생긴 것이며 모두 濕病에 屬한다. 外濕, 內濕等の 項 參照

濕痺(습비)

着痺라고도 함. 痺證의 類型의 하나이다. 臨床表現은 肌膚가 麻木되고 關節이 重着되며 腫痛處가 固定不移하다. 病因은 風寒濕의 三邪중에서 濕邪가 偏勝하며 濕性이 粘滯着되기 때문이다. 故로 素問·痺論에서 “濕氣勝者 爲着痺也”라 하였다.

濕瀉(습사)

「洞泄」或은「濡泄」이라고도 함. 이는 水濕이 胃腸에서 阻礙되고, 脾虛하여 制水不能한所致이다. 소위「濕勝則濡瀉」(素問·陰陽應象大論)이다. 臨床表現은, 身重, 胸悶, 口不渴, 腹不痛或微痛, 大便溏, 尿少或黃赤, 舌苔滑利, 脈濡緩 等症이다.

濕勝陽微(습승양미)

濕邪가 過盛하여 陽氣를 傷害하는 病理을 말함. 濕은 陰邪에 屬하는데, 만약 濕邪가 過盛하면 陽氣를 傷害하여 陽氣를 衰微케 해서 「寒濕」症狀이 產生한다. 慢性水腫류의 疾患에 多見된다.

濕勝則濡瀉(습승칙유사)

『素問·陰陽應象大論』에 있음. 濕氣가 偏勝하여 出現하는 大便泄瀉의 病理을 말함. 脾는 喜燥하고 惡濕하는데, 濕氣가 偏勝하면 脾陽이 不振하여, 水濕을 運化하는 機能이 障礙되어 「濡瀉」를 일으키게 된다. 「濡瀉」는 腸鳴腹瀉로서, 稀爛大便을 瀉出하며 腹不痛한 症狀이다.

濕遏熱伏(습알열복)

「濕鬱熱伏」의 項 參照.

濕熱(습열)

「溫熱」의 項 參照.

濕熱內蘊(습열내온)

濕熱이 中焦脾胃나 肝膽에 蘊釀됨을 말한다. 濕은 重濁粘膩한 邪로서 氣機의 流通에 影響을 미치기 쉽다. 濕과 熱邪가 相合하여 濕熱이 交困하면, 熱이 濕에 阻礙되어 純粹한 熱이 되기 어렵고, 濕은 熱蒸되어 陽氣가 더욱 甚하게 傷한다. 臨床表現은, 熱勢가 纏綿하고, 午後高熱 身重 神疲懶言 神志昏沈 胸脘痞悶 惡心 納呆(胃의 障碍) 腹脹 便溏 或黃疸 小便不利 或黃赤 舌苔黃膩 等이다. 腸티푸스, 黃疸形肝炎 등에서 多見된다.

濕熱痢(습열리)

痢疾證候의 類型의 하나이다. 脾胃에 濕熱이 內蘊하므로, 胃가 消導하지 못하고, 脾가 健全한 運化機能을 喪失해서, 濕熱이 挾滯한 所致이다. 赤色の 便을 下痢하며, 或은 魚腦와 같은 粘稠하고 臭穢한 便을 下痢하는데, 排便回數가 頻多하고, 裏急後重하며, 肛門이 灼熱하고, 小便이 熱赤하며, 舌苔가 黃膩하고, 脈이 滑數有力한 等이 特徵이다. 만약 濕熱의 邪毒이 血分에서 盛하여, 腸絡을 損傷해서 純血을 下痢하는 것을 「赤痢」或은 「血痢」라고 한다. 만약 病邪가 氣血을 損傷하여, 赤白이 相兼하고, 膿血이 相雜된 便을 下痢하며, 腹中이 絞痛하고, 排便回數가 頻多한 것을 「赤白痢」라 한다.

濕熱下注(습열하주)

「下焦濕熱」이라고도 함. 濕熱이 下焦에 注하는 病理을 말함. 臨床上 各種疾病에서 볼 수 있다. 例컨대 濕熱痢疾, 濕熱泄瀉, 淋濁, 癰閉, 陰陽, 帶下 等症이다.

濕溫(습온)

長夏(陰曆 6月)季節에 多見되는 熱性病이다. 季節的인 濕熱의 邪를 感受하여 體內的 腸胃의 濕과 交阻해서 釀成發病되는 것이다. 臨床表現은 身熱不揚, 身重酸痛, 胸部痞悶, 面色淡黃, 苔膩 脈濡等이다. 그 特徵은 病勢가 끈질기고 病情이 比較的 길며 病變이 대개 氣分에 滯溜하고 濕이 熱보다 重한 경우와 熱이 濕보다 중한 경우의 差異가 있으며 病情이 더 發展하면 營分, 血分으로 轉入되어 瘧厥 便血등의 辨證이 發生한다. 장티푸스 파라티푸스 등의 疾病에 多見된다.

濕溫潮熱(습온조열)

「潮熱」의 項 參照.

濕鬱熱伏(습울열복)

「濕遏熱伏」이라고도 함. 濕이 內部에 阻鬱하여, 邪熱이 쉽게 外透하지 못하는 病變을 말함. 主要症狀은, 「身熱不揚」, 午後熱高하고, 汗出해도 熱이 不退하며, 胸悶腹脹, 厭食, 頭部重痛, 苔白膩, 脈濡數 等이다.

濕劑(습제)

「濕可去枯」로서 麥門冬, 地黃의 類이다. 「濕」은 滋潤을 뜻하고, 「枯」은 津·血의 乾燥를 뜻한다. 예컨대, 秋季의 氣候가 炎烈 乾燥하여, 肺가 燥熱에 受傷되어, 咳嗽無痰하고, 脇痛하며, 口舌乾燥, 舌紅無苔한 경우, 清燥救肺湯(麥門冬, 甘草, 桑葉, 石膏, 黑芝麻, 黨蔘, 杏仁, 阿膠, 枇杷葉. 血虛하면 地黃을 加함)을 쓰면 좋다.

濕阻氣分(습조기분)

氣分이 濕邪를 받아 阻滯되는 病理을 말함. 主된 臨床表現은, 「身熱不揚」, 「頭重如裹」, 身重體酸, 骨節疼痛, 胸悶, 納呆(胃의 障礙), 腹滿泄瀉, 苔滑膩 脈濡緩 等이다.

濕阻中焦(습조중초)

濕邪가 脾胃을 阻礙하는 것이다. 「濕困脾陽」, 「脾虛濕困」 等の 項 參照.

濕濁(습탁)

濕氣를 말함. 濕은 性質이 重濁 粘膩하므로, 언제나 病位에 停留하여, 輕淸한 陽氣의 活動을 阻礙하므로 濕濁이라 한다.

濕瘡(습학)

이 種類의 瘡疾은, 오래 陰濕을 받아 濕邪가 體內에 潛伏한 데다가 風寒의 邪氣에 觸感되므로 誘發된다. 그 臨床表現은, 惡寒하고 熱이 不甚하며, 汗出하고, 全身이 疼痛하며, 四肢沈重, 嘔逆脘悶, 脈緩 等이다.

繩(승)

耳廓根部의 前面에 附着된 側頭部의 邊緣.

昇降浮沈(승강부침)

藥物이 作用하는 方向을 말함. 昇은 上昇 降은 下降 浮는 發散 上行하고 沈은 下沈 下行하는 것이다 昇浮藥은 上行外向하여 昇陽發表散寒등의 作用이 있다 沈降藥은 下行內向하여 潛陽 降逆 收斂 淸熱 滲濕 瀉下등의 作用이 있다. 무릇 藥氣가 溫熱에 屬하고 藥味가 辛甘에 속하는 陽性藥物에는 대개 昇浮作用이 있다 예컨대 麻黃 桂枝 黃芩의 류이다. 한편 藥氣가 寒冷에 속하고 藥味가 苦酸에 속하는 陰性藥物에는 대개 沈降作用이 있다. 예컨대 大黃 芒硝 黃柏의 류이다. 화염 질이 경한 藥物에는 대개 昇浮하는 作用이 있다. 예컨대 辛夷 薄荷 升麻등이다 (단 旋覆花는 不昇하며 例外도 있다) 種子 果實 및 質이 重한 藥物에는 대개 沈降作用이 있다 예컨대 小麥 枳實 漢黍等이다) 단 만형子是 불침하면 예외도 있다) 포구등 藥物의 修治가공면에서는 예컨대 酒炒하면 上昇하고 鹽炒하면 下降하면 薑炒하면 發散하고 醋炒하면 收斂한다.

昇降失常(승강실상)

胃氣가 不降하고, 脾陽이 不昇하여, 脾胃의 機能이 失調된 病理現象을 말함. 臨床表現

은, 腹脹 噯氣 厭食 泄瀉 등의 證候이다. 「清陽不昇, 濁陰不降」의 項 參照.

勝氣(승기)

勝復의 氣는 季節의 바뀔에 따라 法則的이라고 認識되어, 上半年에 異常氣候가 發生하는 것을 「勝氣」라 함. 「勝復」의 項 參照.

承氣養營湯(승기양영탕)

「攻補兼施」의 項 參照.

昇丹(승단)

靈藥의 項 參照

勝復(승복)

「勝復」이란, 五運六氣의 1年間의 相勝相制, 先勝後復의 相互關係를 말함. 「勝」은 勝氣이고, 「復」은 復氣이다. 「勝」은 能動的이며 强勝이란 뜻이고, 「復」은 受動的이며 報復이란 뜻이다. 勝復의 氣란, 1年中의 上半年에 太過한 勝氣가 있다면 下半年에는 반드시 이와 相反되는 復氣가 있다는 것이다. 例: 上半年에 熱氣가 偏盛하면 下半年에는 반드시 寒氣가 이에 報復한다. 또 木運이 不及하면 金氣가 木을 勝하고, 木이 鬱滯되어 火를 生하고, 火는 金을 克할 수 있다. 이를 「復」이라 한다. 「勝復」의 一般的法則은 모두 「勝」이 먼저 있고, 後에 반드시 報復이 있어서 그 「勝」에 報한다. 「勝復」의 氣는 每年 반드시 있는 것은 아니다.

承漿(승장)

①下脣中央部下方의 凹陷부. ②穴位名. 承漿部の 正中央이며, 任脈經에 屬함.

承漿疔(승장정)

「人中疔」의 項 參照.

昇劑(승제)

「昇可去降」로, 升麻, 柴胡의 類이다. 「昇」은 昇提作用이 있는 藥物이고, 「降」은 氣虛 下陷한 症證이며, 마땅히 昇提하는 藥을 써서 治療해야 한다. 例컨대 氣虛로 因해 脫肛하거나 혹은 子宮下垂가 되는 경우에, 補中益氣湯(黃芪, 甘草, 人蔘, 當歸, 橘皮, 白朮, 升麻, 柴胡)을 쓰면 좋다.

昇提中氣(승제중기)

중기의 하함을 치료하는 방법이다. 중기는 脾氣를 말함. 脾氣가 상승하면 水穀의 精米의 기가 脩로 上輸되어 기타 臟腑를 營養한다. 만약 비기가 下陷하면(즉 중기하함이다. 실은 脾氣가 허하고 허하기 때문에 下陷함)久瀉, 脫肛, 子宮脫垂 등증이 나타나며 심하면 비기하함으로 小便不利가 되며 비병으로 九竅가 불통하게 된다. 이런 경우 補氣법 가

운데서 중기를 昇提하면 좋다. 비기가 완성하여 하함하지 않으면 구사,탈항,자궁탈수등의 下垂증상이 저저로 소실된다. 심지어 小便不利도 비기가 왕성하여 淸陽을 상승시키고, 濁陰을 하강하게 되면 소변이 통창하게 된다.

昇淸(승청)

脾主昇淸의 項 參照.

腮(시)

『頤』이라고도 함. 口部の 外傍. 頰部の 前方, 頤部の 上方, 口腔粘膜의 外壁에 該當함.

柴葛解肌湯(시갈해기탕)

「解肌」의 項 參照.

尸厥(시궤)

突然昏倒하여 人事不省이 되어 昏死한 듯한 狀態가 되고 呼吸이 微弱하며 脈象이 극히 微細하여 거의 反應이 없어서 얼른 보기에 死者와 같다. 慎重히 觀察하여 適時에 救拔處置를 해야한다. 어떤 氣體 예컨데 一酸化炭素中毒으로 惹起된 窒息 腦震蕩 등에서 볼 수 있다.

時氣(시기)

「時行戾氣」의 項 參照.

矢氣(시기)

「失氣」의 項 參照, 방귀.

視歧(시기)

物體를 볼 때, 하나의 物體가 두개로 보이는 것이며, 肝腎의 陰精이 毀損된 病變에 屬한다.

時毒(시독)

季節性和 流行性이 있는 病邪, 疫毒을 말함.

時令(시령)

① 每季節의 主要氣候를 말함. ② 季節에 따라 제정된 農事 醫事 등에 관한 政令을 말함.

時令病(시령병)

時病의 項 參照.

時方(시방)

張仲經以後의 醫家들이 만든 方劑를 말함 이는 經方의 基礎위에서 매우 크게 發展하였다. 清代 陳修園의 時方歌括 小引에 의하면 “唐宋以後에 비로소 時方이 쓰이게 되었다”고 하였다(唐代 孫思邈의 千金要方 千金翼方 및 王수의 外臺秘要에 記載된 方劑는 주로 晋代以後의 方劑를 包括하고 있다)

時方派(시방파)

무릇, 漢代의 張仲景 以後의 醫家들이 制定한 處方을 時方이라 한다. 後世醫員들은 古典醫方의 法을 쓰되, 그 藥物組成에 拘碍될 必要는 없으며, 臨床治療의 處方에는, 宋代以後의 時方을 多用하며, 或은 病症의 實際情況에 따라 스스로 處方 用藥할 것을 主張하여, 時方派라 칭하였다.

時病(시병)

時令病이라고도 함. 季節性으로 多發하는 病으로서, 예컨대 春季의 春溫, 風溫, 溫毒, 傷風등이 있고, 夏季의 泄瀉, 痢疾, 中暑, 暑溫, 熱病, 主夏等이 있으며, 秋季의 霍疾, 濕溫, 秋燥等이 있다. 時病中에는 傳染性과 流行性을 띠는 病이 不少하여, 古代에는 時行이라 稱하였다. 만약 大流行을 일으킬 境遇는 天行 혹은 天行時疫이라 稱하였다. 靑代의 雷豐이 著述한 時病論에는 溫病學의 重要 內容이 包括되었고, 溫疫類의 一部 病症도 包括되었다.

豉餅灸(시병구)

黃酒로써 淡豆豉沫을 반죽조화하여 두께 2분정도의 원병을 만들어 그 위에 艾柱를 놓고 시고한다. 응저발배가 껴과된 후 오래도록 수구되지 않고 창색이 암흑한 경우에 다용된다. 이 方法은 창구의 유함을 촉진하게 된다.

時邪(시사)

일반적으로 四季의 氣候와 相關되는 病邪를 말하며, 季節病의 發病要因의 統稱이다.

嘶啞(시애)

목이 쉬는 聲音의 嘶啞症狀를 말함. 風熱이 肺를 犯하여 津液이 損傷되었을 경우에 생기며, 或은 急慢性咽喉炎, 聲帶創傷, 喉癰, 喉癌 等 證에서 생긴다.

試月(시월)

「難產」의 項 參照.

視赤如白(시적여백)

‘色盲’을 말함. 대개 先天的인 發育不良이며, 陰精이 眼部까지 上達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患者가 어떤 색깔 或은 모든 색깔에 대한 辨別能力을 喪失한다.

腮腫(시중)

「疔腮」의 項 參照.

視瞻有色(시침유색)

‘青盲’의 項 參照.

視瞻昏渺(시침혼묘)

‘青盲’의 項 參照.

鍤鍼(시침)

古代 九針의 一種이다 針체가 굵고 針침이 무디다 혈맥병과 열병을 治療하는데 利用되었다

時行(시행)

「時行戾氣」의 項 參照.

時行(시행)

時病의 項 參照.

時行頓噎(시행돈창)

「百日咳」의 項 參照.

時行戾氣(시행러기)

「時行」, 「時氣」로 略稱하기도 함. 流行中인 強烈한 傳染性을 가진 病邪를 말함.

柴胡四物湯(시호사물탕)

複方의 項 參照

食癰(식간)

癰症의 一種이며 小兒가 乳食에 損傷되어 誘發하는 境遇를 볼수 있다.

息高(식고)

呼氣가 많고 吸氣가 적은 喘迫現狀을 말함. 이는 肺기가 끊어지려 하고 眞陽이 離散되는 虛脫證候이며 潮息呼吸의 類이다. 傷寒論에서 少陽病, 六七日, 息高者, 死라 하였다.

食厥(식결)

飲食의 不節制로 인해 惹起되는 厥症이며 食中이라고도 함. 暴飲 暴食한 後에 볼 수 있는 바 마치 風寒을 感受하거나 或은 情志가 觸動되므로 發病하기도 하고 中脘의 食滯氣逆上壅하여 清竅를 閉塞시키므로서 昏厥을 일으킨다. 症狀은 脘腹이 脹滿하고 飲

食의 腐味를 嘔出하며 舌苔가 厚위하고 脈이 滑數한 等이다. 但 食物을 吐出한 後에는 蘇醒한다.

食療(식료)

食治의 項 參照

息微(식미)

呼吸이 淺表하고, 氣息이 微弱한 症狀을 말함. 陽虛氣衰으로 因해 肺氣가 곧 絶하려는 證候이다. 呼吸衰竭에서 볼 수 있다.

食復(식복)

勞復의 하나. 久病 혹은 大病이 初癒되자 마자, 飲食의 不節制로 因해 脾胃의 消化 및 吸收에 影響을 미치어 疾病을 再發케 함을 뜻함. 특히 小兒의 熱病에 餘熱이 未淸한데, 肥膩한 肉類를 過食하면 더욱 再發하기 쉽다.

息賁(식분)

古病名이다. 靈樞 經筋篇 難經五十六難等書에 있음. 五積病의 하나이며 肺의 積에 屬함. 症狀은 右脇下에 臃臃을 엮어 놓은것 같은 包塊가 생기며 急迫感을 나타내고 胸背痛 吐血을 發하며 寒熱 咳嗽 嘔逆 呼吸促迫等症을 隨伴한다. 이는 肺氣의 鬱結 痰熱의 阻塞에 起因한다.

食痺(식비)

素問·脈要精微論에 있음. 胃病의 一種이다. 主要症狀은 飲食物이 入胃한 후 上腹部에 悶痛을 느끼고 吐出하면 시원해진다. 대개는 肝氣勝胃 胃脘氣滯의 所致이다.

食瀉(식사)

傷食으로 인한 泄瀉이다. 臨床表現은, 吞酸噯臭하고, 飲食의 냄새를 맡기 싫어하며, 胸脘痞悶, 腹痛則瀉, 瀉後痛減, 苔膩등을 나타낸다. 이는 飲食不節로 因해 腸胃를 傷하여, 脾가 運化機能을 喪失한 所致이다. 소위 “飲食自倍, 腸胃乃傷” 「素問·痺論」이다.

食時(식시)

「十二時」의 項 參照

食亦(食佚)(식역)

古病名이다. 「素問.氣厥論」에 있음. 「中消」證을 말함. 「亦」은 「佚」과 같으며, 怠수를 뜻함. 잘 먹어도 飢하기 쉬우며, 몸은 도리어 야위고, 倦怠無力하므로, 이렇게 이른다. 이는 中焦가 燥熱한 所致이다.

食遠服(식원복)

正常的인 食事時間에서 比較的 먼 時間으로 食간에 服藥하는 것이다 비위병을 治療하는 藥으로 藥은 食원복하는 것이 좋다 사하藥도 食원복하는 것이 좋다

瘰肉痔(식육치)

直腸의 下端이 脫出되는 瘰肉을 말함. 兒童에게 多見되며, 색깔이 鮮紅色이고, 質이 嫩軟하며, 꼭지가 작고, 크기는 一定하지 않은데, 最大의 것은 胡桃만 하다. 一般的으로 한개가 單生하는데, 가끔 葡萄처럼 連珠狀으로 되는 水道 있다. 疼痛은 없고, 언제나 大便시에 肛門外로 突出하며, 鮮血과 粘液을 隨伴한다. 比較的 큰 瘰肉은 손으로 밀어 넣어야만 還納된다.

食肉則復(식육척복)

「食肉則遺」라고도 한다. 「復」은 復發이며, 「遺」는 遺留를 뜻함. 어떤 急性熱病의 恢復期에 消化機能이 低下되었는데, 비린내 나는 기름진 肉類를 恣食함으로써 體溫이 다시 오르고 病情이 反復해서 出現하는 現象을 말함. 특히 小兒는 이러한 情況이 되기 쉽다.

食肉則遺(식육척유)

「食肉則復」의 項 參照.

食醫(식의)

封建時代, 帝王 등의 飲食 衛生을 管理한 醫員이다. 現在의 營養醫에 該當함. 「疾醫」의 項 參照.

食積(식적)

古病名이다. 素問·奇病論에 있음. 病因은 肺의 肅降機能이 失調되어 肺氣가 長期的으로 鬱積된 所致이다. 症狀은 胸脇이 脹滿하고 呼吸氣逆한데 飲食에는 障礙가 없다. 肺氣腫等병에 屬한다.

食積(식적)

宿食의 項 參照.

食粗(식조)

呼吸의 氣息이 粗糙(거칠다)한 症狀을 말함. 대개 實證에 屬함. 風, 熱, 痰, 濕 등의 邪氣가 肺氣를 壅塞한 所致이다. 氣管 및 肺部의 急性炎證 등에서 나타난다.

食中(식중)

食厥의 項 參照.

食滯(식체)

「傷食」의 項 參照.

食滯胃脘(식체위완)

飲食의 不節制로, 胃脘에 滯留되고, 消化不能하여, 上腹脹痛 噯腐 嘔吐 厭食 舌苔厚膩 脈滑 等症을 出現하는 것. 消化不良症, 胃炎 등에서 多見됨.

食治(식치)

食料라고도 한다. 植物을 應用하여 疾病에 대하여 治療 혹은 병리를 하는 것을 食治라 한다 植物에는 各이한 性味が 있어서 各개장기의 疾病에 대하여 治療作用이 있다 當代 孫思邈의 千金要方에 食治門이 있는데 內徑에서 當代以前까지의 植物治療學說을 採集함과 아울러 많은 植物의 性味와 治療作用을 敍述한 것이며 著名한 食治專門書의 하나이다.

息胞(식포)

「胞衣不下」라고도 함. 「胞」, 「胞衣」는 胎盤을 말함. 息胞는 胎兒가 娩出된 後, 비교적 오랜 時間이 지나도 胎盤이 自動娩出되지 않는 것을 말함. 患者가 대개는 出血症狀를 隨伴하므로, 빨리 胎盤을 排出시켜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出血이 過多하여 虛脫이 된다. 本病은 대개, 分娩後에 元氣가 大虛하므로, 繼續해서 排出할 힘이 없거나, 或은 出產時에 外邪를 感受하여 氣血이 凝滯된 所致이다.

熄風(식풍)

內風을 鎮靜시키는 方法이다. 內風의 臨床表現은 眩暈, 進展, 高熱, 抽搐, 小我驚風 및 癲癇 等症이다. 羚羊角, 傳喝, 蜈蚣, 蜈蚣, 蚯蟲 等藥을 쓴다. 「滋陰熄風」, 「平肝熄風」, 「瀉火熄風」, 「和血熄風」 등으로 나뉜다.

食瘡(식학)

飲食이 停滯한데다가 다시 外邪를 感受하여 誘發되는 一種의 瘡疾이다. 그 特徵은, 寒熱이 交代로 發하여, 寒이 그치면 다시 熱하고, 熱이 그치면 다시 寒하며, 噯氣를 隨伴하고, 胃弱하며, 食則吐逆하고, 腹脹腕悶等症을 發한다.

顙(凶)(신)

『凶門』이라고도 함. 솟구멍. 頭頂部の 正方中央에 있으며, 額骨(前頭骨)과 左右의 頂骨(頭頂骨)의 連結部에 해당함. 癭瘤兒의 顙骨(頭蓋骨)이 아직 完全히 縫合되지 않으므로, 凶門이 未肺되어, 여기서 손으로 血管의 跳動을 觸知할 수 있다.

神(신)

「神」은 表情態度 知覺 運動 等 生命活動現象을 主宰하는 것이며, 物質的基礎를 가진다. 先天之精에서 生成되며, 아울러 後天의 飲食物에서 化生된 精氣의 充養이 있어야만 그 機能을 維持 發揮할 수 있다. 神은 人體에서 가장 重要的 地位를 占한다. 무릇 神氣가

充旺하면 身强하고, 臟腑器官의 機能이 旺盛하며 協助한다. 神氣가 흐트러지면 一切의 機能活動의 正常現象이 모두 破壞된다. 先人은 大腦·中樞神經의 部分的機能이 心과 連繫되어 일어나는 것으로 보았으므로 「心藏神」이라 하였다. 「素問·宣明五氣篇」에서 “心藏神 肺藏魄 肝藏魂 脾藏意 腎藏志”라고 한, 神·魄·魂·意·志 등은 단지 이로써 相異한 中樞神經活動現象과 內臟에 대한 어떤 病理上的 影響을 區別한 것 뿐이며, 實際로는 모두 心에 依해 主管되는 것이다(「五臟所藏」의 項 參照). 「神」은 또 生命活動現象의 總稱이며, 이는 內臟機能의 反映이다. 例컨대 診斷할 때, 眼睛 脈象 等に 生理機能이 正常反映되는 데 對하여 모두 「神」이 있다고 한다(「得神」의 項 參照).

腎(신)

五臟의 하나, “腎爲先天之本”으로, 精을 貯藏하는 臟이다. 腎이 貯藏하는 精은, 本藏의 精(即, 男女 性交의 精氣로서 “先天之精”이 됨)뿐만 아니라, 五臟六腑에서 水穀으로 化生된 精氣(“後天之精”이 됨)도 貯藏하여, 藏府와 肢體의 各組織을 滋養한다. 腎이 貯藏하는 精은, 飲食物의 不斷한 補充에서 來源하며, 이것이 人體의 生命과 生長發育을 維持하는 基本物質이 된다. 腎精은 또한 骨과 髓를 滋養하며, 「靈樞, 海論」에서 “腦爲髓之海”라고 하였다. 故로 腎은 腦·髓·骨의 生長 發育 및 그 機能狀態와 직접적인 關係가 있어서, 腎精이 充足하면, 人體는 自然히 精力이 充溢 해진다. 齒牙의 健康과 頭髮의 生長·脫落·光澤도 腎氣의 充實與否와 有關하다. 腎에 「納氣」의 機能이 있으므로 呼吸系統과도 密接한 關係가 있다. 一部分의 腰部症狀도 腎과 有關하다(腎은 後腰部位에 있으므로 所謂“腰爲腎之附”라 함). 腎은 위로 “開竅於耳”하여, 腎氣가 調和하면 聽覺이 보다 英敏해진다. 아래로 “開竅於二陰”(前陰은 尿道를 말하며, 或說은 精竅를 包括하고, 後陰은 肛門을 말함)한다. 이의 生理病理나 一部分의 大小便異狀은 腎의 面에서 分析을 해야 한다. 腎은 水를 主管하며, 水液이 腎으로 下行하면 그 濁液은 腎의 氣化를 거쳐 膀胱에서 體外로 排出되고, 濁液中의 淸淨한 것은 腎에 의해 體內에 保存된다. 故로 腎은 體液의 平衡調節의 重要器官이 된다. 腎은 두 개가 있는데, 「難經 三十六難」에서 左側을 腎, 右側을 命門이라 하였다. 腎은 陰을 主管하여 水에 屬하며, 命門은 陽을 主管하여 火에 屬하므로 腎을 「水火之臟」이라고 稱하기도 한다. 通常「眞陰」이라 할 때는 腎水를 뜻하고, 「眞陽」이라 할 때는 腎陽을 뜻하며, 或稱「命門之火」라 한다.

神(신)

胃, 神, 根의 項 參照.

脾(이)

①髌骨(腸骨)部の 髌嵴(腸骨稜)以下の 筋肉部分. ②脊椎兩側의 筋肉群.

腎, 其華在髮(신, 기화재발)

『素問·六節臟象論』에서, “腎者, …其華在髮”이라 하였다. 『華』는 榮華가 外部에 나타나는 뜻. 頭髮의 營養이 血에서 來源하지만(소위 髮爲血之餘), 頭髮의 生機는 腎氣에 根源한다. 體內腎氣의 外部表現이 毛髮에서 나타나며, 靑壯年의 腎氣가 充盛한 사람은 頭

髮이 茂密 光澤한데, 年老體弱하고 腎氣가 虛弱한 사람은 흔히 毛髮이 枯槁하고 脫落되기 쉽다.

腎間動氣(신간동기)

『原氣』라고도 稱함. 이는 兩腎間에서 생기는 一種의 熱에너지와 動力이며, 實際로는 命門之火의 作用이다. 人體의 臟腑와 經脈의 活動및 三焦의 氣化 등은 모두 『腎間動氣』의 作用에 依存하므로, 이를 生氣의 原이라고하고, 또 生命의 根源이라고도 한다.

新感(신감)

病邪를 感受한 後, 가장 빨리 發病하는 것을 新感이라 함. 만약 內部에 伏邪가 있는데, 新感에 依해 觸發되어 發病하는 것을, 新感이 伏邪를 불러일으켰다고 한다. 新感和 伏氣의 區別은 다음과 같다. 新感溫病은 感受하자 곧 發病하며, 發病初期에 惡風畏寒의 表證을 나타내며, 伏氣는 發病初期에 內熱病狀을 나타낸다. 「伏氣溫病」의 項 參照.

腎疳(신감)

五疳의 하나이다. 乳食의 失調로 因해 伏熱이 內阻한 所致이다. 主要症狀은, 四肢가 消瘦하고, 面色이 靑黑하며, 齒齦에 生瘡하거나 或은 潰爛 出血이 되고, 上熱下冷하며, 때때로 寒熱이 發하고, 吐逆하며, 乳食이 減少되고, 大便을 滑泄하며, 甚하면 脫肛이 되고, 肛門이 潰爛하며, 濕痒生瘡한다. 通常 解頤, 齒遲, 行遲 등의 腎氣不足 等症을 併發한다.

辛甘發散爲陽(신감발산위양)

素問 至眞要大論에 잇음 辛味와 甘味の 藥物은 발산하며 그 藥성은 양에 속한다. 예컨대 桂枝 防風의 性味는 辛甘하여 發汗 解肌의 作用이 있다

新感溫病(신감온병)

四季를 통하여 外邪를 感受함으로써 隨時로 發하는 溫病을 말함. 처음에 表寒症이 되는 것은 發熱이 比較的 輕하고 惡寒 頭痛하며 體痛이 比較的 重하고 舌質淡白, 舌苔薄白, 口中火, 不渴, 脈浮緊或浮緩하며 그후 化熱하여 入裏한다. 처음에 表熱症이 되는 것은 發熱이 比較的 重하고 惡寒 頭痛하며 體痛이 比較的 輕하고 舌質紅 舌苔薄白或微黃하며 口渴, 脈象浮數하고 그후 熱이 入裏하여 더욱 甚해진다. 風溫, 暑溫, 濕溫, 秋燥, 冬溫등이 모두 新感溫病에 屬한다.

辛甘化陽(신감화양)

辛味약과 甘味약을 동용하여 조양하는 치법이다. 예컨대 脾腎이 陽虛하고 血虛하면 頭眩, 耳鳴, 眼花하고 腰酸腿軟하며 疲憊無力하고 面色蒼白하며 脣爪不紅潤하고 爪冷하며 舌質淡白하고 脈細軟을 나타낸다. 當歸, 熟地黃, 黨參, 黃기, 鹿角膠, 仙靈脾, 肉桂, 甘草 등약을 쓴다. 방제에 있어서 當歸, 숙지황은 성미가 甘溫하여 補血하고 當參, 黃기, 감초는 성미가

甘溫하여 脾陽을 보하며 녹각교, 선령비, 육계는 藥味가 신감하여 腎陽을 보한다. 즉 약미가 신감한 약물은 주로 脾腎의 양을 보하여 양이 생하고 음이 장하게 함으로써 혈허의 정황을 개선할 수 있다.

辛開苦降(신개고강)

「辛開苦泄」의 項 參照.

辛開苦泄(신개고설)

「開泄」이라고도 함. ①辛味の 藥을 써서 表邪를 發散 시키고 고미의 약을 써서 이열을 청설하는 것. 例컨데 病人이 微惡寒, 身熱, 頭痛, 汗少, 口渴, 咽痛, 舌苔黃, 脈浮數한 경우 桑葉, 菊花, 蔓荊子 等の 辛涼藥을 써서 表邪를 發散시키고 連翹, 大靑葉, 山豆根 等を 써서 裏熱을 清泄한다. ②辛味の 藥을 써서 胸脘의 痰濕을 開通시키고 苦味の 藥을 써서 胸脘의 濕熱을 治한다. 兩者를 合用하여 痰濕으로 인해 胸脘部에 熱이 阻滯되어 痞悶脹滿하고 惡心嘔吐하는 等症을 治療하는데 辛味藥으로는 厚朴, 地殼, 薑半夏, 橘皮等이고 苦味藥으로는 黃連, 黃芩等이다. (②의 治法을 「辛開苦降」이라고도 함.)

腎開竅於耳(신개규어이)

『素問·陰陽應象大論』에서, 腎은 『左竅爲耳』라 하였고, 『靈樞·脈度篇』에서는, “腎氣通於耳, 腎和則耳能聞五音矣”라 하였다. 耳는 腎의 官이며, 腎精이 充足하면 聽覺이 聰敏하고, 腎精이 虛하면 兩耳가 失聽한다. 耳聽覺의 變化를 通해 일반적으로 腎氣의 盛衰狀況을 推斷할 수 있다.

腎開竅於二陰(신개규어이음)

前陰은 尿道를 뜻하고(一說은 輸精管을 포함), 後陰은 肛門을 뜻함. 이는 주로 腎과 大小便의 關係를 말한 것이다. 腎은 水를 主管하는데, 이는 水液의 代謝를 管理하는 것이며, 이機能의 產生은 命門之火의 氣化機能과 有關하다. 故로 腎機能이 正常的인 狀況下에서는, 水液의 分布 排泄이 각기 그 通路를 通하게 된다. 大小便의 利, 不利도 腎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만약 腎水가 不足하면 大便이 乾燥 秘結되며 혹은 小便量少해진다. 命門之火가 不足하면 泄瀉 혹은 小便失禁 等症을 惹起한다.

神厥(신귄)

①臍의 別名. ②穴位名. 臍部の 正中이며 任脈에 屬함.

腎氣不固(신기불고)

「下元不固」라고도 함. 腎은 藏精을 主管하며, 「二陰」으로 開竅한다. 만약 腎氣가 不固하면, 遺精, 早漏, 或은 夜尿頻多, 遺尿, 小便失禁 等症을 나타내게 된다.

腎氣通於耳(신기통어이)

『腎開竅於耳』의 項 參照.

腎囊癰(신낭옹)

囊癰의 項 參照

辛涼解表(신량해표)

性味が 辛涼한 藥物을 써서 發汗力이 弱하지만 退熱作用이 있는 方法으로 表症을 治療하는 것을 말함.本法은 怕冷이 輕微하고 發熱이 輕重하며 或은 有限한 風熱表症 麻疹의 初期에 아직 發疹이 안된 경우 등에 적용 된다.만약 風寒表症에 辛涼解表의 治法을 오용하면 病情을 加重케 하거나 或은 遲延시키게 된다.常用되는 辛涼平劑로서 風熱表症을 治하는 銀翹散(金銀花,連翹,苦桔梗,薄荷,竹葉,生甘草,荊芥,薄荷,淡豆豉,牛蒡子)이 있다.方中の 荊芥,薄荷는 性味が 辛溫하지만 다수의 辛涼清熱藥과 同用하므로 本方은 역시 辛涼解表方이다.辛涼解表方에는 또 峻烈한 辛溫藥을 配合하기도 한다.例로서 麻黃杏仁甘草湯의 麻黃은 辛溫하고 石膏는 甘辛寒한데 二者를 相配하면 肺熱을 宣泄하게 되며 杏仁甘草를 加하여 辛涼宣泄之劑로 合成되어 外感風熱,肺氣壅塞으로 咳嗽氣急 鼻鼽(鼻翼呼吸)口渴,高熱,舌紅,苔白或黃,脈滑數 等症을 出現하는 境遇에 適用된다.

腎勞(신로)

五勞의 하나이다. 性慾過度로 인해 腎氣를 損傷한 所致이다. 主要症狀은 遺精, 盜汗, 骨蒸潮熱 甚하면 腰痛如切하고 下肢가 委弱하여 久立不能하는 等이다.

神明(신명)

神의 概念을 뜻함.

凶門(신문)

『凶』의 項 參照.

神門脈(신문맥)

手少陰心經의 神門穴의 動脈을 말함. 手掌의 後方 銳骨(尺骨莖狀突起部)의 끝의 陷凹中の 搏動部位에 있음.

新病(신병)

卒病의 項 參照

神不守舍(신불수사)

精神錯亂이다. 心은 精神을 藏하는 곳이며(靈樞·邪客篇에서, 心者……精神之所舍也……라 하였음), 病邪가 心을 犯하거나 或은 精神의 過度한 刺戟에 依해 出現하는 情志異常을 모두「神不守舍」라 할 수 있다.

身不仁(신불인)

身體의 肌膚가 麻木되어 各種의 皮膚感覺을 喪失한 症狀이다. 이는 邪氣가 絡脈을 損傷하여 營氣가 肌表로 運行하지 못하는 所致이다.

腎痺(신비)

五臟痺症의 하나이다. 主要症狀은 骨이 痿弱하여 步行이 不能하고 腰背가 彎曲되어 伸直이 不能하며 或은 關節이 腫脹하고 強直하여 屈曲이 不能한 等이다. 骨痺가 오래도록 不愈한데 다시 外邪를 感受하여 疾病이 深入發展한 所致이다. 素問·痺論에서 “故骨痺不已 復感於邪 內舍於腎”이라 하였다. 一說에는 邪氣가 小腹과 外陰部에 쌓여 腎氣를 內傷한 所致라 하였다.(素問·五臟生成篇)

神思間病(신사간병)

一般的으로 精神神經活動(특히 思惟意識活動)이 異常해지는 類의 病證을 말함.

腎生骨髓(신생골수)

腎主骨의 項 參照.

晨泄(신설)

「五更泄」의 項 參照.

腎泄(신설)

「五更泄」의 項 參照.

伸舌(신설)

舌이 항상 伸出하여 口外로 伸出하려는 것은 心 或은 心包經에 痰熱이 있는 實證이다.

腎消(신소)

「下消」의 項 參照.

腎水(신수)

「五水」의 하나. 腰痛하며, 排尿가 困難하고, 腹部가 腫大하여 臍部가 濡고, 下陰에서 언제나 水濕이 滲出되고, 足冷하며, 面形이 消瘦한다.

腎水(신수)

腎陰의 項 參照.

腎水不足(신수부족)

「腎陰虛」의 項 參照.

身潤動(신순동)

身體의 筋肉이 痙攣하는것. 그 原因은, 發汗이 過多하므로 津液이 損傷되기 때문이며, 또 陽虛로 因해 津液의 產生을 促進하는 正常機能이 喪失되어, 氣液이 不足하고, 肌肉이 溫養을 喪失한 所致이다.

神失者亡(실신자망)

失神의 項 參照.

辛頰(신알)

「鼻淵」의 項 參照.

腎岩(신암)

腎岩翻花 或은 翻花下疳이라고도 함. 대개는, 肝腎이 본래 虛弱하며, 或은 鬱慮憂思로 相火가 內灼하여, 陰精이 乾涸해져서, 火邪가 鬱結한 所致이다. 처음에는 冠狀溝에 하나의 肉刺가 생겨, 堅硬하고 가려우며, 局部에 滲出液이 있다. 1-2年이 지난 후에, 陰莖이 漸次 腫瘡하고, 肉刺가 增大되어, 石榴처럼 뒤집혀 糜爛되고, 점점 龜頭가 破裂되어, 凹凸이 생기며, 이상한 냄새가 나고,甚하면 鮮血이 淋瀝하기도 하고, 食慾減退, 心身困憊한다.本病은 陰莖癌에 屬한다.

腎岩翻花(신암변화)

腎岩의 項 參照.

腎陽(신양)

元陽, 眞陽, 眞火, 命門之火, 先天之火등의 名稱이 있다. 腎陽은 命門 속에 있으며, 先天의 眞火이다. 이는 腎臟의 生理機能의 動力이며, 人體의 熱에너지의 源泉이라고도 할 수 있다. 腎에 所藏된 精(先天과 後天의 精을 包括함)은 모두 命門之火의 溫養을 要하며, 이래야만 體內各部組織器官의 滋養과 子孫繁殖의 作用을 發揮할 수 있가. 특히 後天의 脾胃의 火는, 先天의 命門之火의 溫蒸이 있어야만 消化 運輸의 作用을 잘 발휘할 수 있다.

腎陽衰微(신양쇠미)

「腎陽虛」의 項 參照.

腎陽虛(신양허)

腎은 全身의 陽氣를 主管하므로 腎陽이 衰微하면 全身에 陽氣가 모두 虛해 지므로 腎陽을 元陽이라고도 하며, 이는 命門火의 體現이다. 一般的虛弱을 腎陽虛라 칭하며, 이는 命門火가 不足한 所致이다. 主要症狀은, 身寒, 怕冷, 腰痠, 滑精, 陽痿, 夜尿頻多 等

이다. 虛弱의 程度가 비교적 重한 것을 「腎陽衰微」或은 「命門火衰」라 하며, 主要表現은, 上述한 症狀이 加重되는 外에, 精神痿靡, 腰痛, 脊冷, 未明泄瀉, 或浮腫, 脈沈遲微弱等이다. 이러한 現象을 「下元虛憊」或은 「眞元下虛」라 稱하기도 한다.

腎與膀胱相表裏(신여방광상표리)

『腎合膀胱』의 項 參照.

身熱不揚(신열불양)

濕邪에 阻遏된 一種의 熱象을 形容한 것으로, 그 特徵은 體表에서 처음에는 문질러도 甚한 熱을 느끼지 못하는데, 잠시 지나면 灼手하는 感覺이 있다.

腎惡燥(신오조)

『素問·宣明五氣篇』에서, “五臟所惡, …腎惡燥”라 하였다. 腎은 主骨 生水하는데, 燥하면 陰精이 受傷하고, 腎氣가 耗損되며, 骨髓가 枯渴되고, 津液이 消灼되므로 『腎惡燥』의 設이 있다.

辛溫解表(신온해표)

性味가 辛溫한 藥物을 써서, 發汗力이 강한 方法으로 表症을 治療하는 것을 말함. 本法은 怕冷이 甚하지만 發熱이 비교적 輕하고 身體가 疼痛하면서 汗出이 없는 風寒表症, 水腫의 초기로써 上半身의 浮腫이 비교적 현저한 경우 或은 伯風 發熱을 겸하는 風濕의 邪氣가 外表에 있어서 骨節이 疼痛하는 경우 外感風寒에 哮喘을 兼發하는 等症에 적용된다. 夏季의 氣候가 煩熱하여 쉽게 汗出할 때는 辛溫解表法을 慎用해야 한다. 通용되는 辛溫解表方으로는 例로서 香蘇飲(香附子, 蘇葉, 陳皮, 甘草, 生薑, 葱白)을 四時感冒의 風寒表症이나 或은 胸膈滿悶 噯氣惡食하는 경우에 적용할수 있다. 辛溫과 辛涼을 同用하는 것도 역시 辛溫解表方에 속한다. 例로서 葱豉湯(葱白, 淡豆豉)은 感冒風寒의 輕症에 適用된다.

腎爲先天之本(신위선천지본)

『腎主先天』의 項 參照.

腎爲水臟(신위수장)

腎主水の 項 參照.

腎爲唾(신위타)

『五臟化液』의 項 參照.

腎陰(신음)

元陰, 眞陰, 腎水, 眞水 等の 名稱이 있다. 腎陽에 相對되는 말. 腎陰은 腎臟의 陰液(腎臟에 所藏된 精을 包括)을 말하며, 이는 腎陽機能活動의 物質的 基礎이다. 만약 腎陰이

不足하면 腎陽이 亢奮하게 되어 相火妄動의 病理現狀을 나타낸다.

腎陰虛(신음허)

「眞陰不足」, 「腎水不足」이라고도 함. 腎精의 耗損이 過度한 所致이다. 臨床表現은, 腰痠疲乏, 頭暈耳鳴, 遺精早漏, 口乾咽痛, 兩顴潮紅, 五心煩熱, 或 午後潮熱, 舌紅無苔, 脈細數 等이다. 이러한 現象을 「下元虧損」이라고도 한다.

辛入肺(신입폐)

『五味所入의 項 參照.

腎者胃之關(신자위지관)

『關』은 水液出入의 關口로 이해된다. 腎은 下焦에 位置하여 『至陰之臟』이며, 二陰으로 開竅하고, 膀胱과 서로 表裏가 된다. 腎은 水를 主管하여 人體의 水液代謝에 있어서 極히 重要的 作用을 한다. 正常狀況에서는 水가 胃에 入하여, 脾에 의해 肺로 上輸되고, 肺氣가 肅降하여, 水는 下流해서 腎에 歸하는 것으로, 이것이 水液이 體外에서 攝取된 후, 體內에 昇降하는 대체적 過程이다. 만약 腎氣가 不化하면 왕왕 大小便이 不利하고, 大小便이 不利하면 中焦가 痞滿하여 水液代謝에 影響을 미친다. 그래서, 『素問·水熱穴論』에서 “腎者 胃之關也關門不利 故聚水而從其類也”라 하였다. 水液의 排泄이 障礙되면 體內에 積聚되어 浮腫을 形成한다. 이런 浮腫은 腎의 『聚水』에서 進行된 것이다.

神臟(신장)

神臟이란, 五臟의 神을 藏하는 心·肝·脾·肺·腎을 말함. 所謂 心藏神, 肝藏魂, 脾藏意, 肺藏魄, 腎藏志이다. 五臟은 神氣가 居하는 곳이므로 神臟이라 함.(素問·三部九候論에 있음).

腎藏精(신장정)

精은 生命의 基本物質이다. 腎藏精에는 두가지 뜻이 있다. ①五臟六腑의 水穀의 精氣(後天之精)는 生命을 維持하고, 人體各部組織器官을 滋養하며, 機體의 生長發育을 促進하는 基本物質이다. ②腎臟自體에 所藏된 精(先天之精)은 男女性交의 精氣로서, 이는 生育繁殖의 基本物質이다. 이 精은 사람의 生殖 生長 發育 老衰와 有關하다. 이 一部分의 精의 生成, 貯藏, 排泄은 모두 腎이 主管한다. 腎은 先天의 根本이며, 其他臟腑의 精氣를 接受해서 貯藏한다. 五臟의 精氣가 充旺함으로써 腎精의 生成 貯藏 排泄이 正常을 維持하게 된다. 腎藏精은 腎의 重要機能의 하나이다. 素問 六節臟象論에서 腎을 封藏之本(封藏에는 閉藏, 貯藏의 뜻이 있다)이라 하였는데, 이는 主로 腎의 藏精作用의 體現을 뜻한다. 精을 過度하게 消耗하지 않음으로써 全身의 各種機能에 影響을 미치지 않게 해야 한다.

腎藏志(신장지)

『素問·調經論』에서 『腎藏志』라 하였다. 『志』는 옛날 『誌』로 통하며, 記憶力을 뜻함. 腦

와髓는 모두腎精에 의해 化生되므로, 腎虛患者에게 健忘症이 많다. 一說로는, 『志』에 專心이란 뜻이 있다고 함. 『五臟所藏』의 項參照.

凶填(신전)

凶門(숫구멍)의 隆起를 말함. 寒氣의 凝滯에 屬하는 경우에는, 凶門이 腫脹하고 堅硬하며, 發熱은 없고, 四肢가 不溫하다. 火氣의 上衝에 起因한 경우는 凶門이 腫脹하고 柔軟하며, 面赤唇紅하고, 指紋이 紫色을 띤다. 凶填은 腦積水의 類이다.

腎主開闔(신주개합)

腎主水の 項 參照.

腎主骨(신주골)

素問 宣明五氣編에서 “五臟所主…腎主骨”이라 하였다. 主는 主宰의 뜻. 腎主骨에는, 腎이 骨格을 充養하는 것과 兩者의 生理機能面의 連續關係를 包含한다. 素問 六節臟象論에서, “腎者……其充在骨”이라 하였다. 骨格은 人體를 支持하는 作用을 하며, 人體의 支柱이다. 骨이 이러한 作用을 함은, 骨髓의 營養에 依存한다. 骨髓는 腎精에서 化生된다. 素問 陰陽應象大論에서 腎生骨髓라 하였다. 髓는 骨腔중에 所藏되어 骨格을 形成하여, 腎充則髓實이라 한다. 髓의 生成은, 腎主骨에 物質的基礎를 提供하는 것이 된다. 이밖에 齒牙와 骨의 營養의 來源이 같으며, 함께 腎臟의 精氣에서 化生되므로, 齒爲骨之餘라는 說이 있다.

腎主恐(신주공)

心中이 畏懼하고 不安한 것이 『恐』이다. 『素問·陰陽應象大論』에서 腎은 『左志爲恐』이라 하였다. 先人은, 五臟의 精氣가 腎에서 相併되므로, 腎經經脈의 脈氣不足 或은 腎水의 不足, 肝·心·胃의 一部病症은 모두 『公』의 證候로 出現하게 된다고 認識하였다. 또한 主要한 것은, 腎自體의 所因이다. 왜냐하면 腎水가 充足하면, 肝血도 充分하고, 膽도 強壯한데, 腎水가 虛하면 肝血이 不足해지고 膽도 弱해져서 易恐하기 때문이다. 『恐則氣下』로서, 恐의 結果는 또 傷精 傷神하므로 『腎主恐』이란 設이 있다. 『五志』의 項 參照.

腎主技巧(신주기교)

素問 靈蘭秘典論에서 “腎者 作强之官 技巧出焉”이라 하였다. 作强의 作은 動作 或은 工作을 뜻하고, 强은 負荷能力으로 理解해야 한다. 作强은 重勞動에 견디고, 動作이 輕勁有力하다는 뜻이 包含된다. 技巧는 精巧靈敏하다는 것이다. 腎에 이러한 작용이 있음은, 신의 藏精 主骨 生水하는 作用과 分離할 수 없다. 腎氣가 充旺하고, 精髓가 充足하면, 精神이 健旺하고 精巧敏捷할 뿐만 아니라 筋骨이 強勁하고 動作에 힘이 있다. 이에 반해, 腎虧, 精虛 體少한 사람은 흔히 腰痠骨弱하고, 精神疲勞, 頭昏健忘하며 動作이 疲懶遲緩하다.

腎主納氣(신주납기)

肺가 呼吸을 主管하지만, 腎에는 肺氣를 攝納(즉 納氣)하는 作用이 있다. 臨床上 一般的으로 久病人 咳喘, 특히 老年의 腎虛患에는 納氣困難이 많으며, 氣喘의 特徵은 呼多吸少이다. 例컨대, 老人의 慢性氣管支炎에 肺氣腫을 併發하면, 主된 表現이 吸氣困難이며, 臨床上 이를 腎不納氣라 하고, 補腎納氣의 方法으로 治療해야 한다.

腎主生殖(신주생식)

腎은 藏精의 臟이므로, 人體의 生長發育 및 子孫繁殖에 重要的 作用을 한다. 男女의 生殖器官의 發育成熟과 그 生殖能力은 모두 腎氣(腎臟自體의 精氣)의 充實에 依存한다. 古代에 일찌기, 女子는 14歲前後에 이르면 月經이 來潮하고, 男子는 16歲前後에 精氣가 充滿하여 排精하게 됨을 認識하였다. 이는 生殖機能이 成熟하기 시작함을 말한 것이다. 男女는 生殖機能이 成熟한 狀況下에서 交合하여 生育하게 된다. 女子는 49歲, 男子는, 64歲前後에 이르면 腎氣의 衰微로 인해 老化가 두드러질 뿐만 아니라, 女子는 更年期로 經閉되고, 男子는 精力이 減退되며 身體가 衰하여 生殖能力도 漸次 喪失된다. 精氣의 生成, 貯藏 排泄을 腎이 主管하므로 腎主生殖이라 한다.

腎主先天(신주선천)

이는 腎의 生理機能의 人體에서의 重要性을 말한 것이다. 왜냐하면, 腎은 藏精, 主骨, 生水하고, 各部기관에 열에너지를 供給하는 등의 重要機能이 있을 뿐만 아니라, 腎氣의 盛衰가 직접 사람의 生長發育 老衰 및 生殖能力과 有關하기 때문이다. 先人은 腎을 『先天』이라 稱하였고, 혹은 『腎主先天』, 『腎爲先天之本』이라 하여, 腎이 發育生殖의 本源임을 說明하였다. 故로 嬰兒의 出生後에 發育面의 障碍로서, 예컨대 五遲(起立, 步行, 頭髮生長, 生齒, 會話가 모두 正常嬰幼兒보다 늦다), 五軟(頭項, 口, 手, 足, 肌肉이 모두 痿軟無力함), 解顱(頭縫裂開不合, 前囟廣大)等症은 모두 腎虛나 先天不足과 有關한 것으로 보며, 治療面에서 흔히 補腎을 爲主로 한다.

腎主水(신주수)

腎爲水臟으로, 腎은 體內水液의 平衡을 調節하는 面에서 極히 重要的 作用을 한다. 腎은 體內水液의 貯留 分布 排泄에 있어서 主로 腎氣의 開·闔(所謂 腎主開闔)에 依存한다. 開는 主로 水液의 輸出과 排泄을 말하며, 闔은 一定量의 水液을 體內에 貯留시킴을 말한다. 開와 闔은, 腎陰, 腎陽機能의 協調에 의해 決定된다. 正常狀況下에서는 人體의 腎陰 腎陽이 相對적으로 平衡하므로 腎氣의 開闔도 協調的이다. 따라서 尿液排泄도 正常이다. 만약 腎에 有病하면, 主水의 機能이 失調되어, 體內水液代謝의 平衡을 維持하기 어려워, 水腫 等症을 發한다.

腎志(신지)

『五志』의 項 參照.

腎之府(신지부)

腰部를 말함. 故로 「腰爲腎之府」라 함. 臨床上 腰痠痛은 虛症에 屬하며, 대개가 腎虛에 起因한다(素問·脈要精微論에 있음).

腎着湯(신착탕)

方의 項 參照

身體煩疼(신체번통)

肌肉關節이 疼痛하고 煩憂不寧하며 全身이 不快한 症狀을 말함.

腎充則髓實(신충척수실)

「腎主骨」의 項 參照.

辛寒生津(신한생진)

性味が 辛寒한 藥物을 써서 胃熱을 淸解해서 津液을 生하게 하는 方法이다. 例컨데 口瘡이 發汗지 數日이 되어 口中에서 穢氣가 나고 舌苔가 焦黃하며 脈大而虛 한것은 胃火가 盛하고 胃陰虛한것이니 生石膏, 知母, 竹葉, 元蓼 等藥을 써야한다.

辛寒淸氣(신한청기)

性味が 辛寒한 藥物을 써서 氣分の 熱을 淸解하는 것이다. 患者가 高熱을 發하며 다만 惡熱하고 不惡寒하며 大汗, 面目赤色, 呼吸氣粗하며 말하는 聲音이 重濁하고 小便澀少, 舌苔黃, 脈浮洪而躁한 경우는 白虎湯(生石膏, 知母, 甘草, 粳米)을 쓴다.

凶陷(신함)

凶門(숫구멍)이 坑狀으로 下陷됨을 말함. 대개는 先天的인 虧損에 起因하며, 或은 長期的인 泄瀉, 或은 慢驚風後에 氣血이 虛弱하여, 臟虛해져서, 上榮이 不能한 所致이다. 六個月 以內的 乳兒는 凶部가 微陷해도 其他의 症狀이 없는 경우는 病態가 아니다.

腎合膀胱(신합방광)

腎과 膀胱과의 相互關係와 影響을 뜻함. 이러한 相合은, 臟腑가 相互 表裏(臟은 陰이고 裏에 屬하며, 腑는 陽이고 表에 屬함)의 關係임을 뜻한다. 『腎與膀胱相表裏』는 腎과 膀胱 經絡間의 連繫와 一部 生理機能의 相互配合를 通하여 體現된다. 例컨대 膀胱의 排尿에는 腎의 氣化作用이 있어야 한다. 腎과 膀胱의 病症 治療에는 이러한 『相合』, 『相表裏』의 關係를 通해 相互 影響을 미칠 수 있다. 例컨대, 小便失禁 或은 小便不通을 治療함에 때로는 治腎에서 着手해야만 좋은 效果를 얻을 수 있다.

腎咳(신해)

기침하면 腰背가 서로 땅기고 아프며, 甚한 경우, 涎液을 唾出하는 證候를 말함.

腎虛(신허)

「腎虧」라고도 함. 腎臟의 精氣가 不足한 病變이다. 一般症狀은, 精神疲乏, 頭暈耳鳴, 健忘, 腰痠, 遺精, 陽痿 等이다. 「腎陽虛」, 「腎陰虛」의 項 參照.

腎虛水泛(신허수범)

腎陽이 虛하여 水腫이 나타나는 病理을 말함. 腎은 水液의 代謝를 主管하는데, 腎陽이 虛弱하여, 水를 主管하지 못하면, 膀胱의 氣化가 不利해져서, 小便量이 적어지고, 同時에 脾의 運化에도 影響을 미치어, 水液이 泛濫해서 水腫을 形成한다. 一般症狀은, 全身이 浮腫(특히 腰部以下가 甚함)하여 누르면 陷凹되고, 腰痛痠重, 畏寒肢冷, 舌淡胖, 苔白潤, 脈沈細 等이다. 慢性腎痰, 心性水腫 등에서 常見된다.

神昏(신혼)

神志(意識)가 昏迷하여 睚지 못한 것. 이는 邪熱이 心包로 內陷하거나 或은 濕熱, 痰濁이 清竅(外官)를 蒙蔽해서 出現하는 症狀이다.

腎火偏亢(신화편향)

「龍火內煩」의 項 參照.

腎虧(신후)

「腎虛」의 項 參照.

失氣(실기)

①人體에 津液이 過度하게 消耗되어, 運化不能해져서 精氣를 失하여, 全身이 衰弱하고, 食物의 精微를 化生하지 못하여, 身體가 影響을 吸收하지 못함을 말함. ②肛門에서 排出되는 氣로서, 俗稱 방귀라 하며, 失氣「矢氣」라고도 한다.

實女(실녀)

「石女」의 項 參照.

實女(실녀)

未婚女性을 말함. 곧 處女이다.

實脈(실맥)

脈象의 一種. 脈象이 俱盛하여, 輕按이든 重按이든 모두 有力하게 느껴진다. 實證과 關聯된다. 實熱의 內結, 停痰, 食積 등에서 多見된다.

實脾飲(실비음)

陰病治陽의 項 參照.

實邪(실사)

①邪氣가 盛함을 뜻함. ②「五邪」의 하나. 어떤 臟을 發病케 한 邪氣가 「子盜母氣」에 依해 傳來된 것.

實邪脈(실사맥)

五邪脈의 項 參照.

失笑散(실소산)

「祛瘀止血」의 項 參照.

失洩(실수)

「小便不禁」을 말함. 脾肺의 氣가 虛하고, 腎氣가 不足하며, 膀胱에 制御力이 없는 데 起因하는 失洩은, 老人이나 病後의 體質虛弱人에게 多見되며, 그 症狀은, 少腹에 때로 墜脹感이 있으며, 항상 尿意가 있는데, 量이 적고 不禁 등을 나타낸다. 神志가 昏迷하여, 膀胱의 制御가 喪失된데 起因하는 失洩은, 中風, 熱性病의 邪氣가 心包에 陷入된 病人에게 多見되며, 病情이 대개 危重하다.

失神(실신)

神氣의 喪失을 말함. 神은 生命活動現象의 總稱이다. 生命機能이 顯著히 障礙되고 五臟의 精氣가 衰敗하면 目精昏暗하며 몸이 여위고 色澤이 敗하며 暴瀉不止하고 異常喘息하며, 或은 全身의 大肉이 脫肉되고, 或은 兩手로 循衣摸床하며, 或은 卒倒하여 眼閉口開하고, 手撒尿遺 등을 나타내는데, 이를 모두 失神이라 稱하며, “失神者亡”[素問, 移精變氣論]의 設이 있다. 이밖에 望診中の 眞臟色, 脈診中の 眞臟脈 역시 失神의 表現이다. 故로 失神을 精神症狀으로 局限해서 理解하면 안된다.

實熱(실열)

外邪가 體內에 侵入하여, 熱로 化해서 裏部로 傳入되는데, 邪氣가 盛하며, 正氣도 아직 充足하여, 邪氣와 正氣가 相爭해서 생기는 發熱이다. 그 表現은 高熱, 煩渴, 大便秘結, 舌苔黃, 脈洪數 或滑數等이다. 感染性熱病의 高熱期에 多見된다.

失榮(失營)(실영)

岩證의 하나이다. 通常, 頸部 或은 耳의 前後에 생기며, 初期의 形狀은 栗과 같으며, 頂點은 突出되고, 뿌리가 깊다. 누르면 돌처럼 堅硬하고, 밀어도 移動하지 않으며, 發赤, 發熱, 疼痛이 없다. 半年 내지 一年前後를 지나면 腫塊가 漸大되어, 비로소 隱痛을 느끼며, 漸次 潰爛한다. 潰破後에는 臭穢한 血汁이 滲出된다. 腫의 堅硬이 더욱 甚해지고, 瘡口가 울퉁불퉁하여 岩穴과 恰似하고, 疼痛이 激甚하다. 언제나 血管이 糜爛 切斷되어 大量出血한다. 대개는 憂思鬱怒로 因해 氣鬱 血逆해지고, 少陽, 陽明의 絡脈에서 痰火와 凝結되기 때문에 생긴다.

失音(실음)

말을 할 때 聲音이 나지 않는 症狀을 말함. [암], 或은 [음]이라고도 함. 證에 虛實의 區分이 있다. 外感의 風寒, 風熱 或은 病邪을 感受한 후, 飲食에 傷하거나 或은 妊娠末期에 氣道가 阻碍되어 發한 실음은 대개 實證에 屬한다. 例컨대 喉頭炎 等이다. 失音은 대개 突然히 發生한다. 그래서 暴음이라고도 한다. 肺腎의 內傷으로 陰精이 虧損되어 津液이 上昇할 수 없게 되므로, 慢性 或은 反復해서 發作하는 失音은 대개 虛證에 屬한다. 例컨대, 聲帶疾患, 은病(히스테리) 等이다.

失精(실정)

「遺精」의 項 參照.

失精家(실정가)

平素 遺精病이 있는 사람을 말함. 精液이 消耗되므로, 下腹部가 緊張되어 柔和하지 않고, 陰部가 冰冷하며, 目眩, 脫毛髮 等の 虛弱症狀을 發하게 된다.

實中挾虛(실중협허)

實邪가 結集된 病證中에 虛證을 挾有한 것을 말하며, 大概 邪盛正虛에 屬한다. 例컨대, 久患의 鼓脹病은, 證狀에, 通常 腹部가 脹大하고 實하며, 靜脈이 怒張되고, 面色이 蒼黃하고 暗晦하며, 身體는 瘦瘠하고 四肢는 浮腫하며, 飲食即脹하고, 二便不利하며, 舌質이 暗紅色을 띠고 芒刺가 생기며, 苔黃乾燥하고, 脈이 緩弱 或은 沈細弦數한 等症이 나타나는데, 이는 氣血이 鬱結한 實證中에, 脾腎이 不足한 虛像을 挾有한 것이다.

實即瀉之(실즉사지)

「素問. 三部九候論」에 있음. 證候가 實에 屬하는 것은, 邪氣를 除去하는 瀉法을 써서 治療한다는 뜻이다. 瀉法을 써야 할 實證은, 燥屎, 痰飲, 瘀血, 食滯, 寒積 等이며, 이에 대해 寒下, 潤下, 祛制痰飲, 祛瘀, 消導, 溫下等の 治療方法을 選用한다. [下法], [祛痰], [祛瘀], [消導]의 各項 參照.

實證(실증)

病邪가 亢盛하여, 正氣와 邪氣가 對抗하는 反應이 激烈한 것임. 或은 人體內部の 機能障礙로 惹起된는 氣血의 鬱結, 水飲, 停痰, 食滯 等으로, 이들은 大概 實證에 屬한다. 所謂 邪氣盛即實이다. 例컨대 急性熱病高熱, 口渴, 煩躁, 譫語, 腹滿痛이거안, 便秘, 小便短赤, 舌質乾枯, 苔黃乾燥, 脈實有力 等은 實證에 屬한다.

實喘(실천)

喘은 呼吸이 急促한 症狀이며, 病因 病理와 證型에 따라서 實喘과 虛喘의 區分이 있다. 實喘은 邪氣가 肺에 壅盛하기 때문이며, 證候는 痰이 主가 되며, 通常 外感風寒이나 或

은 燥邪로 因해 誘發된다. 風寒型實喘은, 胸滿喘咳, 頭痛惡寒, 痰稀薄, 口不渴, 舌苔白이, 脈不滑 等證을 나타낸다. 이는 氣管支喘息證에서 多見된다. 燥熱型實喘은, 喘而煩熱, 咽痛口渴, 咳嗽胸痛, 黃稠痰咯出, 舌苔黃, 脈數等을 나타낸다. 이는 大葉性肺炎等에서 多見된다.

實喘(실천)

哮證의 項 參照.

實則陽明,虛則太陰(실칙양명,허칙태음)

外感發熱病에서 病邪가 內傳할 때의 두가지 相異한 病理變化를 말함. 하나는, 患者의 中氣가 充足하여, 病邪가 入裏할 때 津液을 傷하고 化熱해서 胃腸實熱證을 이루는 것이다. 胃는 陽明에 屬하므로 「實則陽明」이라 한다. 다른 하나는, 患者의 中氣가 虛弱하여, 裏部로 傳入한 邪氣가 化熱하지 못하고, 寒이 陽氣를 傷하여, 脾陽의 運化機能을 잃게해서 脾胃虛寒證을 이룬다. 脾는 太陰에 屬하므로 「虛則太陰」이라 한다.

實則太陽,虛則少陰(實則太陽,허칙소음)

外寒을 感受하여 發病한 後의 두가지 相異한 病理變化를 말함. 하나는, 患者의 正氣가 比較的 充實하여, 感寒後 곧 侵入한 外寒에 抵抗을 일으켜, 頭項強痛 惡寒發熱 無汗或有汗 脈浮등 太陽表證을 나타내므로 「實則太陽」이라 한다. 다른 하나는, 正氣가 虛弱하여, 感寒後 寒邪가 少陰으로 內陷해서 惡寒하고, 發熱하지 않으면서 心煩神倦이 약간 나타나고, 때로는 發熱하지만 頭痛은 없고, 脈象이 浮하지 않은 것을 「少陰表證」이라 한다. 「傷寒論」에서 “病有發熱惡寒者 發於陽也 無熱惡寒者 發於陰也”라 하였다. 「發於陽」은 太陽에서 發病함을 이르고, 「發於陰」은 少陰에서 發病함을 이룸이니 參考가 된다.

實火(실화)

火邪의 極盛으로 因해 惹起된 實證, 熱證을 말하며, 肝. 膽. 胃腸의 實熱症狀에서 多見된다. 例컨대 高熱, 口乾渴, 煩躁, 脇痛, 腹痛拒按, 便秘, 頭痛, 口苦, 舌苔厚黃 舌乾燥 或은 舌에 芒刺가 생기며, 脈滑數有力 等症으로 나타난다.

心(심)

五臟의 하나로서 五臟중 가장 중요한 臟器, 즉 君主之官이다. “心主血脈으로 血液의 運行은 心氣의 推動에 依한다. 그런데 生理機能의 면에서 볼 때 中樞神經系統의 일부활동에 더 많은 뜻이 있다. 所謂 ”心藏神“의 神은 人체의 高級中樞神經의 機能活動을 뜻하며 이러한 機能活動은 心에 의해 主管되고 體現되는 것으로 인식한다. 心과 發汗도 밀접한 관계가 있어서 所謂 ”汗爲心液으로서 臨床上 自汗 혹은 盜汗의 병증은 心에서 論治해야하며 自律神經系統에 어떤 機能紊亂을 나타내는 것도 心과 관계가 있다. 이밖에 “心開竅于舌” “舌爲心之苗”라는 것은 心의 病증이 舌의 變化와 비교적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설명한다.

心,其華在面(심,기화재면)

「華」는 榮華가 外部에 나타난다는 뜻, 心은 全身의 血脈을 主管하는데, 血脈이 全身을 循行하므로, 氣血의 充盈與否를 面色의 望診으로 알 수 있다(素問, 六節臟象論에 있음).

心疳(심감)

五疳의 하나이다. 乳食의 失調로 因해, 心經이 鬱熱한 所致이다. 主要症狀은, 身熱하고, 頰赤面黃하며, 口舌에 生瘡하고, 胸膈이 煩悶하며, 口渴飲冷하고, 膿血을 下痢하며, 盜汗하고, 이를 갈며(磨牙), 易驚하는 等이다.

心開竅於舌(심개규어설)

主要한 뜻은, 心의 生理·病理狀態가 舌의 變化中에 反映된다는 데 있다. 「素問, 陰陽應象大論」에서 「心」을 論述하기를, “在色爲赤, ……在竅爲舌”이라 하였다. 古人은 또 “舌爲心苗”라 했는데, 苗에는 약간 나타난다는 뜻이 있으며, 心의 病症은 舌象에 나타난다고 하였다. 이와 같이 五官의 苗竅의 變化로써 臟腑의 病情을 推斷함은 診斷의 具體的 內容의 하나이다.

心悸(심계)

心臟의 動悸가 甚하여 不安을 느끼는 病證이다. 一般的으로 大개는 發作性으로 나타나며 언제나 情緒의 波動이나 或은 過度한 疲勞로 因해 發作한다. 本病의 發生은 精神的 素因외에 大개는 心血不足, 心陽虛弱, 腎陰虧損 或은 水飲의 內停, 瘀血, 痰火로 因한 所致이다. 心悸이 驚恐하거나 惱勞로 因해 發作하는 것을 驚悸라 하는데 大개는 먼저 心氣가 內虛한 內在的 素因이 있기 때문이다. 心血의 不足에 起因한 境遇는 面色이 萎黃하고 頭暈目眩한다. 心陽의 衰弱에 起因한 境遇는 面色이 皸白하고 頭暈心倦하며 四肢이 冷하고 形體가 寒冷하다. 心身의 虛損에 起因한 境遇는 心煩少寐하고 頭目이 昏眩하며 耳鳴腰痠한다. 水飲의 內停에 起因한 境遇는 心下가 脹滿하고 小便不利하며 頭眩暈하고 甚하면 浮腫喘息하고 形體가 寒冷하며 四肢이 冷하다. 痰熱上僣에 起因한 境遇는 痰多胸悶하고 잘 놀라며 惡夢紛우한다. 瘀血의 內阻에 起因한 境遇는 胸悶不快하고 甚하면 心痛이 發作하기도 하며 短氣喘息하고 舌色이 暗紫하며 脈象이 澁하거나 結代하는 等症을 나타낸다.

心系(심계)

直接 心臟과 連繫된 大血管을 말함. 主動脈 肺動脈 및 上·下腔靜脈을 包括함(靈樞·經脈篇에 있음). 「類經」 卷七張注에서 “(心)其系有五 上系連肺 肺下系心 心下三系 連脾·肝·腎”이라 하였다.

心憤憤(심페페)

「憤」은 煩亂을 뜻함. 心中이 煩亂하여 自制할 수 없는 症狀을 形容함. 만약 心中이 煩

亂하고, 痞悶感이 있으면「心惋」이라 한다. 「惋」은 煩悶을 뜻함.

心氣(심기)

主로 心血管系統의 몇가지 機能表現을 뜻함. 이들 機能과 「心陽」은 不可分の 關係가 있으며, 그중에는 心臟搏動의 強弱, 頻度, 리듬과 心臟의 傳導, 氣血의 循環狀態등을 包含한다. 同時에 心의 精神活動과 心氣에도 一定한 關係가 있다.

心氣不足(심기부족)

「心氣虛」의 項 參照.

心氣不寧(심기불녕)

心氣에 不安寧이 出現하는 病理을 말함. 臨床表現에 두가지 面이 있다. 하나는 心悸 怔忡이고, 또 하나는 心神不安이다. 心煩不寐 脈搏不整 等の 兼證을 수반하게 된다. 病因은 대개 心血이 不足하여 心이 營養을 잃기 때문이며, 또한 邪氣가 影響을 미치기 때문에 일어난다. 例컨대, 「痰火擾心」, 「水氣凌心」 혹은 肝火旺, 肝膽氣虛 等이다.

心氣不收(심기불수)

心氣가 虛弱하여 收斂이 不能함을 말함. 心에는 精神을 藏하고, 汗液을 主하는 機能이 있다. 만약 心氣가 虛弱하여 收斂不能하면, 心神浮越, 精神散亂, 健忘易驚, 心悸怔忡, 自汗多汗 或은 動則汗出 等の 症狀이 出現한다.

心氣盛(심기성)

「心陽盛」이라고도 함. 主로 精神面의 病理變化를 말함. 心氣가 盛하면 心火가 熾盛하여, 精神의 過度한 興奮, 心煩失眠, 夢中發笑 等を 나타낸다. 火盛의 程度가 더욱 심하여, 煩燥 發狂을 나타내는 것을 일반적으로 「心陽盛」이라 한다.

心氣虛(심기허)

「心氣不足」을 말함. 主要症狀은, 心悸, 短氣(活動時에 加重), 胸悶不舒, 自汗, 脈細弱 或 結代 等이다. 一部 虛弱病人이나, 貧血, 心律不整, 神經衰弱 等症에서 多見된다.

心動悸(심동계)

心臟이 比較的 極熱하게 躁動하여 患者가 心悸을 自覺할뿐만 아니라 外觀上으로도 그 搏動을 알수있는 것을 말하며 所謂 其動應衣이다. 心悸, 怔忡의 項 參照.

心勞(심로)

五勞의 하나이다. 心血이 耗損된 所致이다. 主要症狀은 心煩, 失眠, 心悸, 易驚等이다.

心惋(심만)

「心憤憤」의 項 參照.

心苗竅(심묘규)

望診內容의 하나이다. [苗竅]는 狀態가 表面에 드러나는 孔竅이다. 臟象學說에 의하면, 心の 苗竅는 舌이고, 肺의 苗竅은 鼻이며, 肝의 苗竅은 目이고, 脾의 苗竅은 口脣이며, 腎의 苗竅은 耳이다. 그러므로 이들 苗竅의 異常變化를 審察하면 內臟의 病變을 아는데 도움이 된다. 例컨대 心火가 熾盛하면 舌絳하고 肺氣가 絶하려고 하면 鼻翼순動을 볼 수 있다. 鞏膜이 橘色처럼 黃炎되는 것은 肝臟의 濕熱에서 볼 수 있다. 口脣의 疱疹은 대개 脾胃의 濕熱에 屬한다. 蟬聲같은 耳鳴은 대개 心氣의 虧損에서 나타난다. 단 人體는 하나의 有機的 總體으로서 各 組織器官에 密接한 連繫가 있으므로 診法上 하나의 臟器에 하나의 苗竅을 審察하는 것으로 機械的으로 생각할 순 없다.

心煩(심번)

心中的 煩悶이다. 대개 內熱로 因해 惹起된다.『內煩』의 項 參照.

心痺(심비)

五臟痺症의 하나이다. 主要症狀은 心悸, 氣喘, 咽乾, 上視, 歎息하고 煩躁, 驚恐하기 쉬운等이다. 脈痺가 日久不愈한데 다시 外邪를 感受하므로 疾病이 深入發展한 所致이다. 素問·痺論에서 “脈痺不已 復感於邪 內舍於心”이라 하였다. 一說에는 思慮의 過多로 인해 心血이 虛損한데 다시 外邪를 感受하여 邪氣가 胸中에 쌓인 所致라고 한다.

心脾陽虛(심비양허)

心·脾 兩臟의 俱虛를 말함. 主要症狀은, 心悸-健忘 失眠 多夢 食欲減退 腹脹 便溏 倦怠 面赤 苔白 脈細 等이다. 神經官能症(노이로제), 貧血 등에서 多見된다.

心疝(심산)

古病名이다.『素問·脈要精微論』 등에 있음. 이는 寒邪가 心經에 侵入하여 생기는 一種의 急性痛證이다. 症狀은, 下腹部에 塊狀의 突起가 생겨, 氣가 胸으로 上衝하며, 心이 暴痛하고, 脈象이 弦急하다.

心水(심수)

『五水』의 하나. 身重하고 少氣하며, 煩躁하여 눕지 못하고, 下陰이 浮腫함.

心腎不交(심신불교)

心陽과 腎陰과의 生理關係異常의 病變을 말함. 心은 上焦에 居하고, 腎은 下焦에 居한다. 正常狀況에서는 心과 腎은 相互協調 相互制約하여 彼此가 交通해서 動態의 平衡을 維持한다. 만약 腎陰이 不足하거나 或은 心火가 搖動하여, 兩者의 協調關係이 喪失되는 것을 心腎不交라 한다. 主要症狀은, 心煩 失眠 多夢 怔忡 心悸 遺精 等이다. 神經官能症(노이로제) 및 慢性虛弱病因에게 多見된다.

心腎相交(심신상교)

心은 上焦에 있고 火에 屬하며, 腎은 下焦에 있고 水에 屬한다. 心中의 陽이 下降하여 腎에 이르러 腎陽을 溫養할 수 있고, 腎中의 陰이 上昇하여 心에 이르러 心陰을 涵養하게 된다. 正常狀況下에서는 心火와 腎水가 相互 昇降協調하여 彼此가 交通해서 動態의 平衡을 維持한다. 이것이 「心腎相交」 또는 「水火相濟」의 表現이다. 例컨대 腎陰이 虧虛하거나 心火가 熾盛하여, 腎水와 心火의 平衡이 失去되어 相濟가 不能하면 心煩·怔忡不安·失眠등 心火熾盛의 證候를 일으키게 된다. 臨床上 이를 「心腎不交」라 한다.

心陽(심양)

主로 心血管系統의 몇가지 機能活動을 뜻함. 이들 機能과 「心氣」는 不可分の 關係가 있다.(心氣의 項 參照). 心陽은 心血管系統의 몇가지 機能活動을 表現하는 外에 衛外의 陽을 宣通케 한다.

心陽不振(심양부진)

「心陽虛」의 項 參照.

心陽盛(심양성)

「心氣盛」의 項 參照.

心陽虛(심양허)

「心陽不振」을 말함. 이는 「心氣虛」의 重症이다. 「心氣虛」의 症狀外에 또한 四肢厥冷, 大汗出하며 心悸이 加重되고, 심하면 昏迷不醒 脈微欲絶한다. 心力衰竭 혹은 쇼크 등의 病症에서 多見된다.

心與小腸相表裏(심여소장상표리)

「心合小腸」의 項 參照.

心熱(심열)

心火의 亢盛로 惹起되는 病變을 말함. 主要症狀은, 面赤, 心中煩熱, 睡眠不寧, 小便赤 혹은 譫語如狂, 或은 吐血, 衄血 等이다.

心營過耗(심영과모)

心陰의 損耗이 太過함을 말함. 心은 血을 主管하며, 營은 血中の 氣로서, 血脈 속을 流動하고 있는 營養物質이다. 熱性病을 앓게 되면 久熱로 因해 傷陰하며 혹은 虛損內傷하여 虛火가 亢盛해져서, 血液 속의 營養物質을 過多하게 消耗하여 體質이 虛弱해져, 夜熱 心煩 易汗 舌絳 脈細數 等の 症狀을 出現할 때를 心營過耗라 칭한다.

心惡熱(심오열)

心은 火臟이며, 血脈을 主管한다. 熱甚火亢하면 心血이 쉽게 傷한다. 「心主神明」인데, 高熱患者는 神昏譫語 狂躁등 神明熱傷의 證候를 일으키기 쉬우므로 心은 熱을 싫어한다는 說이 있다(素問·宣明五氣篇에 있음).

心爲汗(심위한)

『五臟化液』의 項 參照.

心陰(심음)

心臟의 陰液을 말하며, 營血의 組成部分이다. 그 生理·病理와 「心血」과는 密接한 關係가 있으며, 肺陰 腎陰등의 消長盈虧와 有關하다. 臨床上 陰虛內熱症은 대개 心肺腎等の 陰液缺乏과 有關하다.

心陰不足(심음부족)

「心陰虛」의 項 參照.

心陰虛(심음허)

「心陰不足」을 말함. 主要症狀은 心煩, 怔忡, 失眠, 低熱, 盜汗, 顴紅, 口乾, 脈細數 等이다. 神經官能症(노이로제), 貧血, 結核病 등에서 多見된다.

心移熱於小腸(심이열어소장)

心火가 小腸에 影響을 미친 病變을 말함. 心과 小腸은 서로 表裏가 되며, 心火가 旺盛하면 心煩 口舌生瘡 等이 症狀이 出現한다. 나아가 小腸의 清濁을 分別하는 機能에 影響을 미치면, 小便短赤 或은 刺痛, 尿血 等症을 나타내는 바, 이를 心移熱於小腸이라 稱한다.

甚者從之(심자종지)

「素問·至眞要大論」에 있음. [甚]은 複雜하여 辨別하기 어렵고 重한 證候를 말함. 例컨대 熱極似寒(內部는 眞熱이고 外表는 似寒이다), 或은 寒極似熱(內部는 眞寒이고 外表는 假熱이다)에는 假寒, 假熱의 假象에 順從해야 하며, 一般的으로 [從治]라 稱하는 [反治法]을 採用한다.

心藏神(심장신)

「心主神明」의 項 參照.

心主神明(심주신명)

「素問·靈蘭秘典論」에서 “心者 君主之官 神明出焉”이라 하였고, 「素問·調經論」에서 “心藏神”이라 하였다. 「君主」에는 統帥, 모든 것보다 높다는 뜻을 含有하며, 心이 臟腑中에서 가장 으뜸地位에 있음을 뜻함. 「神明」 혹은 「神」은 高級中樞神經의 機能活動을 말함. 이들 機能은 心에 의해 主宰되고 體現되므로 「心主神明」이라 한다. 先人の 心에 대

한 理解에는, 中樞神經系統의 機能이 內在함을 包含한다. 人體의 臟腑 氣血은, 心の 이러한 中樞神經系統의 活動의 影響下에, 統一協調된 生理活動을 進行한다. 만약 心에 病變이 있으면, 神明의 統率作用이 失却되어, 其他臟腑의 生理機能도 影響을 받는다.

心主言(심주언)

「難經」에서 心을 論述함 「其聲音」이라 했는데, 이는 正常狀況下에서 言語는 心(中樞神經系統의 一部機能을 概括함)의 主宰와 制御를 받으며, 心 혹은 心の 外衛인 心包絡이 熱邪의 侵犯을 받은 症狀의 하나가 「譫語」임을 說明한 것이다.

心主血(심주혈)

心이 全身의 血脈을 主管함을 말함. 「素問·痿論」에서 “心主身之血脈”이라 하였고, 「素問·六節藏象論」에서 “心者……其充在血脈”이라 하여, 心の 機能과 血脈 사이에 不可分の 關係가 있음을 說하였다. 心은 血液運行的 動力을 主宰하며, 脈管은 血液運行的 通路이다. 心과 血脈과의 關係는 主로 營養의 輸送과 血液循環의 相互連關面에서 나타난다.

心中憺憺大動(심중담담대동)

憺은 空虛하고 振動한다는 뜻. 心中憺憺大動은 心臟이 劇烈하게 躁動하여 空虛感이 있음을 形容한 것임. 溫熱病의 後期에 多見되며 陰虛水虧하고 虛風이 惱優하며 心身을 制御하지 못한 所致이다. 通常 手足유動 神倦 脈虛 등의 心腎陰虧 肝風內動의 症狀를 隨伴한다.

心中懊惱(심중오노)

「懊惱」의 項 參照.

審證求因(심증구인)

病因辨證의 項 參照.

心志(심지)

『五志』의 項 參照.

心包(심포)

「心包絡」의 項 參照

心包絡(심포락)

「心包」로 間稱함. 心臟의 外膜이며, 氣血通行의 通路인 絡脈을 附有함. 心包와 心은 함께 中樞神經의 活動과 有關하다. 만약 外邪가 心臟을 侵犯하면 먼저 心包가 影響을 받는다. 例컨대 臨床上 急性傳染病 등의 高熱로 인해 惹起되는 精神昏亂 譫語發狂을 「熱入心包」라 하며, 治療上 「清心」을 爲主로 하는바. 이는 心包와 心이 辨證의 角度에서

볼 때 一致하며, 病程의 淺.深.輕.重의 程度의 差異를 反影함에 不過함을 說明한 것이다.

心包絡合三焦(심포락합삼초)

『臟腑相合』의 項 參照.

心下急(심하급)

胃脘部가 急迫하며 微痛하고, 脹滿不舒한 感覺을 말함. 이는 邪熱이 胃에 結聚되어 惹起되는 極烈한 嘔吐後에 出現하는 自覺症狀이다. 通常 心煩, 大便閉 等症을 隨伴한다. 急性胃炎, 胃腸型感冒 등에서 볼 수 있다.

心下滿(심하만)

胃脘 사이에 痞悶脹滿함을 느끼는 것을 말함. 만약 氣가 上逆하는 感覺을 兼有하면, 「心下逆滿」이라 한다. 이는 中陽이 損傷되므로 運化機能이 失調되어, 水飲이 中焦에 停滯되어 出現하는 自覺症狀이다.

心下痞(심하비)

「痞」의 項 參照.

心下痞硬(심하비경)

「痞」의 項 參照.

心下逆滿(심하역만)

「心下滿」의 項 參照.

心下溫溫欲吐(심하온온욕토)

傷寒論에 있음. 心下는 胃脘部位를 말함. 溫溫은 惡心을 말함. 全體의 뜻은 胃脘部에 惡心감이 있는데 嘔逆이 나면서도 吐出되지 않음을 形容한 것임. 이는 胃中の 寒飲이 逆上하거나 或은 胸中の 痰氣가 阻塞된 所致이다.

心下支結(심하지결)

胃脘 사이에 마치 物體가 걸려있는 듯한 自覺症狀이 있어서 煩悶不舒하며, 堅硬하지도 않고 膨滿하지도 않은 一種의 症狀이다. 이는 少陽病의 胸脇苦滿의 輕症이다.

心下痛(심하통)

胃痛의 項 參照.

心汗(심한)

心前區(前胸의 全部位를 包含)에만 局所的인 汗出이 많은 症狀을 말함. 坊友의 醫林繩

墨에서 “皆因多慮 有傷心脾”의 所致라 하였다.

心合小腸(심합소장)

心과 小腸間의 相互關連과 影響을 말함, 이러한 相合은 臟과 腑가 相互表裏(臟은 陰이고 裏에 屬하며, 腑는 陽이고 表에 屬함)의 關係가 된다는 것이며, 「心與小腸相表裏」는 主로 心과 小腸經絡間의 關係 및 一部 生理機能의 相互配合을 通해 體現된다. 心 혹은 小腸의 病症을 治療함에는 때로 이러한 「相合」, 「相表裏」의 關係를 通하여 相互 影響을 미치게 할 수 있다. 例컨대 心이 熱을 小腸으로 옮겨 小便이 血尿가 되면, 處方中에 心火를 淸解하는 藥物을 써야 한다.

心咳(심해)

기침할 때, 心胸部가 疼痛하고, 喉頭に 物體가 걸린 것 같으며, 甚한 경우, 咽喉가 腫痛하는 證候를 말함.

心虛(심허)

일반적으로 心臟의 氣血不足을 말함. 主要症狀은, 心悸怔忡, 短氣, 健忘, 易驚, 心中苦悶不樂, 睡臥不安, 面色不華, 或自汗, 盜汗 等이다.

心虛膽怯(심허담겁)

心中이 空虛하여 쉽게 恐懼하는 一種의 證候를 말함. 대개 心血이 不足하고 心氣가 衰弱한 所致이다. 精神的 要因과 一定한 關係이 있다. 一部 虛弱증, 貧血, 神經官能症(노이로제) 등에서 쓸 수 있다.

心血(심혈)

人體의 血液循環의 主要內容物이다. 心血은 全身의 各部組織을 營養할 뿐만 아니라, 心の 精神活動에도 物質的 基礎를 提供한다. 故로 心血處는 心悸·健忘·失眠多夢과 一般貧血症候로 表現된다.

心血不足(심혈부족)

「心血虛」의 項 參照.

心血虛(심혈허)

「心血不足」을 말함. 主要症狀은, 頭暈, 面色蒼白, 心悸, 心煩, 失眠, 多夢, 健忘, 脈細弱 等이다. 神經官能症(노이로제), 貧血, 一部 虛弱患者에게 多見된다.

心火內焚(심화내분)

「心火內熾」의 項 參照.

心火內熾(심화내치)

「心火內焚」이라고도 함. 焚과 熾는 모두 火熱過盛을 形容한 것임. 心은 火에 屬하며, 心經本臟의 火가 過盛하므로 出現하는 病變이기 때문에 이렇게 稱한다. 主要症狀은, 心煩失眠 怔忡不安하며, 甚하면 狂躁譫語하고 웃음을 그치지 않는(喜笑不休) 등의 症狀을 나타낸다.

心火上炎(심화상염)

心臟本經의 虛火의 上昇을 말함. 主要症狀은, 舌生瘡 心煩 失眠 等이다.

十怪脈(십괴맥)

七怪脈의 項 參照.

十九畏(십구외)

漢藥의 配合禁忌의 一種이다. 二種의 藥物을 同用하여, 한 藥物이 다른 藥物의 抑制를 받아, 그 毒性이나 功效가 低減되고, 심지어 功效를 完全히 喪失하는 것을 相畏라 한다. 옛부터 전해오는 19種 藥物의 相畏가 있다. 즉, 硫黃은 朴硝를 畏하고, 水銀은 砒霜을 畏하며, 狼毒은 密陀僧을 畏하고, 巴豆는 牽牛를 畏하며, 丁香은 鬱金을 畏하고, 牙硝는 三棱을 畏하며, 川烏·草烏는 犀角을 畏하고, 人蔘은 五靈脂를 畏하며, 肉桂는 赤石脂를 畏한다. 十九畏가 完全히 確實한지 어떤지는 더 研究해서 確定해야 할 것이다.

十問(십문)

聞診시, 病情을 質問하는 中點을 十條로 歸納시켜 十問이라 한다. 十問에 2種類가 있다. ①景岳全書에서 “一問寒熱二問汗, 三問頭身四問便, 五問飲食六問胸, 七聲八渴九當辨, 九因脈色察陰陽, 十種氣味章神見...”(後의 兩구는 切診 望診 聞診의 內容에 포함된다)이라 하였다. ②診修園의 醫學實在易에서 “一問寒熱二問汗, 三問頭身四問便, 五問飲食六問胸, 七聲八渴九當辨, 九問舊病十問因, 再兼服藥參機變, 婦人尤必問經期, 遲速閉崩皆可見, 再添片語告兒科, 天花麻疹全占驗”이라 하였다. 兩者의 內容은 大體的으로 같으며, 臨床의 聞診에 參考가 된다.

十四經(십사경)

十二經(正經)과 奇經八脈中の 任脈 督脈의 合稱. 中國古代書籍의 記述에 依하면, 이들 14條의 經脈에는 모두 直接 連屬되는 經穴이 있는데, 奇經八脈中の 餘他 6條의 經脈에는 直接 連屬되는 經穴이 없다.

十四經經穴(십사경경혈)

「經穴」의 項 參照.

十三科(십삼과)

中國古代醫學의 分科를 말함. 元代 明代의 太醫員은 모두 醫學을 十三科로 나누었다. 元代的 十三科는 大方脈科 雜醫科 小方脈科 風科 産科 眼科 口齒科 咽喉科 正骨科 金

瘡腫科 針灸科 祝由科 禁科이다. 明代 太醫員의 十三科는 大方派 小方派 婦人 瘡瘍 針灸 眼 口齒 咽喉 傷寒 接骨 金鏃 按摩 祝由等科이다.

十宣穴(십선혈)

10個 手指의 尖端의 正中에 있으며, 左右手에 合 10個穴이다. 中風·中暑로 因한 昏迷時에 救急으로 常用함.

十五絡(십오락)

全身에서 最大의 絡脈은 모두 十五條이다. 즉 十四經에 各各 一條의 絡脈이 있고, 다시 「脾之大絡」을 合쳐 十五絡이라 한다.

十二經(십이경)

「正經」의 項 參照.

十二經筋(십이경근)

「經筋」이라고도 함. 十二經脈의 循行部位上에 分布된 體表筋肉系統의 總稱이며, 全身의 體表筋肉을 十二經脈의 循行部位에 依據해서 分類한 하나의 方法이기도 함. 이로 미루어 十二經筋은 十二經脈에 依據해서 命名된 것이다. 各經筋은 모두 同名의 經脈循行部位上에 있는 若干의 筋肉群을 包括한다. 즉, 足太陽之(經)筋, 足少陰之(經)筋····· 등이다. 이 十二類의 筋肉群은 主로 四肢部에 分布되고, 그 다음이 體幹 및 頭部에 分布되었다. 經筋이 患病하면, 主로 痺症과 筋肉拘急 不收 等症을 發함(靈樞·經筋篇).

十二經動脈(십이경동맥)

十二經脈의 循行過程에서 脈搏이 손에 닿는 動脈部位를 말하며, 身體의 淺表에 있는 一部 動脈血管이다(難經 一難). 이러한 體表局部의 動脈位置는 매우 많다. 예컨대 手太陰經의 動脈을 中府·雲門·天府·俠白·經渠 등의 穴處이며, 모두 觸知된다. 臨床診斷時 가장 常用되는 動脈部位는 寸口部이다.

十二經脈(십이경맥)

「正經」의 項 參照.

十二經別(십이경별)

「經別」이라고도 함. 十二經脈에서 別行 分出한 一種의 循行으로서, 身體의 比較적 深部에 있는 經脈幹線이다. 全身에 모두 12條(身體의 한쪽)이다. 그 循行方式은, 主로 正經經脈에서 分出된 후, 體幹, 臟腑, 頭頂 等處를 거쳐 最後에 本來대로 正經經脈中에 回流한다. 循行過程에서 六陽經의 經別이 모두 原來의 陽經으로 回流하며, 그밖에 六陰經의 經別도 모두 그와 相互 表裏가 되는 陽經으로 流入한다. 따라서 十二經別의 主要作用은, 正經經脈 循行의 補充徑路가 될 뿐만 아니라, 서로 表裏가 되는 陰經과 陽經의 連繫를 더 한층 疏通시키게 된다. 十二經別은 그 陰陽表裏의 配合에 따라 六條로 나누

여지는데 이를 「六合」이라 略稱한다(靈樞·經筋篇).

十二經之海(십이경지해)

「經脈之海」라고도 함. 衝脈의 別稱(靈樞·海論). 衝脈의 別行은, 足少陰腎經 足陽明胃經과의 連繫가 가장 密接하기 때문이다. 腎은 人體의 先天의 根本이고, 胃는 人體의 後天의 根本이다. 따라서 衝脈內에는 人體의 先·後天의 元氣를 兼有한다. 그러므로 「十二經之海」라고 한다.

十二官(십이관)

「十二臟」의 項 參照.

十二時(십이시)

子 丑 寅 卯 辰 巳 午 未 申 酉 戌 亥의 12時辰을 말함. 時辰은 古代의 시간 단위이며 1時辰은 2時間에 해당. 子時는 밤 11시에서 다음날 1시까지이며, 丑時는 1시에서 3시까지이며 餘他는 十二時辰의 순서를 따라 類推된다. 이밖에 子時를 「夜半」「午夜」라 하고 丑時를 「鷄鳴」 寅時를 「平旦」 卯時를 「日出」 辰時를 「食時」 巳時를 「隅時」 午時를 「日中」 未時를 「日昃」 申時를 「晡時」 혹은 「日晡所」 酉時를 「日入」 戌時를 「黃昏」 亥時를 「人定」이라고도 함. (左氏傳 昭公 5年注) 이들 命名은 중국고대의 국민생활습관과 관계가 있으며 黃河流域地區의 晝夜推移의 특징과 대략 符合된다.

十二原穴(십이원혈)

「原穴」의 項 參照.

十二俞穴(십이유혈)

「俞穴」의 項 參照.

十二刺(십이자)

十二節刺라고도 함 12종의 古代 針法이다 즉 1)偶刺 2)報刺 3)恢刺 4)齊刺 5)揚刺 6)直針刺 7)輸刺 8)短刺 9)浮刺 10)陰刺 11)傍針刺 12)贊刺(靈樞 官針篇) 각 該當項 參照

十二臟(십이장)

臟腑의 總稱. 「十二官」이라고도 함. 心·肝·脾·肺·腎·心包經·膽·胃·大腸·小腸·三焦·膀胱을 包括함(素問·靈蘭秘典論에 있음).

十二節(십이절)

四肢의 大關節. 上肢의 肩·肘·腕(손목)과 下肢의 股·膝·踝의 關節을 包括함.

十二節刺(십이절자)

十二刺의 項 參照

十二劑(십이제)

두가지 說이 있다. 1)十劑에 寒劑熱劑를 가한 것이다(宋代 寇宗奭이 『本草衍義』에서 提唱함) 2)十劑에 承劑, 降劑를 가한 것이다(明代 繆仲淳이 『本草經疏』에서 제기함)

十二皮部(십이피부)

「皮部」라고도 함. 十二皮部는 十二經脈의 體表의 一定皮膚部位에서의 反映區이다. 皮膚와 經脈 사이는 主로 絡脈에 依해 連繫되며, 十二皮部の 具體的分區는 基本的으로 十二經脈의 體表의 循行部位와 一致된다(素問·皮部論).

十全大補湯(십전대보탕)

「溫血」의 項 參照.

十劑(십제)

方劑를 效用에서 分類하여 十劑라 하는 명칭이 있다. 즉 宣劑, 通劑, 補劑, 泄劑, 經劑, 重劑, 滑劑, 澀劑, 燥劑, 濕劑이다(十劑의 說은 近人이 千金要方の 考證에 의해 唐代 陳藏器가 그 著書 本草綱目에서 처음으로 제기한 것으로 認識하고 있다)

十棗湯(십조탕)

「滌痰」의 項 參照.

十棗湯(십조탕)

「寒下」의 項 參照.

十八反(십팔반)

漢藥의 配合禁忌의 一類이다. 二種의 藥物을 同用하여, 劇烈한 副作用이 發生하는 것을 相反이라 한다. 옛부터 傳해오는 18種의 藥物의 相反이 있다. 즉, 甘草는 大戟·芫花·甘遂·海藻와 反하고, 烏頭는 貝母·瓜蒌·半夏·白斂·白芨과 反하며, 藜蘆는 人蔘·丹蔘·沙蔘·苦蔘·玄蔘·細辛·芍藥과 反한다(藜蘆와 反하는 蔘은, 原來 人蔘·丹蔘·沙蔘·苦蔘의 4種뿐이었는데, 李時珍이 「本草綱目」에서 玄蔘을 加하였으므로 實際로는 19種藥物이 된다). 十八反이 客觀的實際와 完全히 符合되는지 아닌지는 앞으로 더 研究해서 確定해야 할 것이다.

牙齦(아늑)

「齒齦」이라고도 함. 대개 胃火가 上昇하여, 血이 火를 따라 動하기 때문이며, 或은 肝腎이 陰虛하여 虛火가 上浮하는 所致이다. 齒齦이 紅腫 疼痛하고, 口腔에서 異臭가 나며, 大便이 秘結되는 것은 胃火의 上昇에 起因한 것이며, 齒齦이 浮腫하고 齒牙가 動搖하며 微痛하는 것은, 陰虛火炎에 起因한 것이다.

牙床(아상)

『頰車』의 項 參照.

阿是穴(아시혈)

「天應穴」, 「不定穴」이라고도 함. 즉 「以痛爲腧」로서, 取穴部位가 經絡 經穴 位置에 依하는 것이 아니고, 局部症狀(疼痛 및 其他異常)이 發生하거나 或은 發現되는 部位에 根據하여 針灸 等の 治療를 進行한다. 例컨대, 어느곳에 病痛이 있으면 그곳을 取穴하는데 그곳이 곧 發病局部의 體表刺戟點이다(千金要方 卷二十九에 있음).

牙肉(아육)

齦의 項 參照.

鵝掌風(아장풍)

手癬을 말함. 手掌에 發하는 一種의 皮膚病이며 風毒 或은 濕邪가 皮膚에 侵入하기 때문에 생긴다. 처음에는 皮下에 小水疱가 생겨 가렵고 以後 白皮가 겹겹이 쌓여 脫屑이 된다. 오래되면 皮膚가 粗糙하게 變厚하며 겨울이 되면 트고 疼痛한다. 만약 皮膚의 掌心に 局限되면 掌心風이라 한다. 만약 손톱으로 蔓延되어 爪甲에 光澤이 없어지고 變形 症候되면 鵝爪風이라 한다.

牙疔(아정)

疔瘡疾患의 하나이다.疔瘡이 齒齦 部位에 생기므로 이렇게 이름한다.齒齦으로 穿入하므로 「穿牙疔」이라고도 한다.이는 胃腎二經의 鬱火가 成毒한 所致이다.病變이 은혈부로 미치며 심하면 寒熱등의 全身症狀이 수반된다.「疔瘡」의 項 參照.

鵝爪風(아조풍)

鵝掌風의 類 參照.

牙車(아차)

「頰車」의 項 參照.

兒枕痛(아침통)

「產後腹痛」의 項 參照.

惡氣(악기)

①病邪. 일반적으로 六淫 혹은 疫癘之氣등을 말함(素問·四氣調神大論에 “惡氣不發……”이라 하였음). ②病理性產物. 예컨대 「靈樞·水脹篇」에서 “……癰而內着 惡氣乃起 瘰肉內乃生”이라 하였는데, 여기서는 氣血의 阻滯로 因해 생긴 瘀濁한 一種의 病理性產物을 말함.

惡色(악색)

[病色]의 項 參照.

惡寒(악한)

과冷, 裏寒의 뜻이다. 惡寒의 症狀은 外感表症 혹은 陽虛裏症에서 모두 出現하게 된다. 外感惡寒은 風寒이 外表에 있으므로 만드시 發熱 頭痛 脈浮 등의 表症을 隨伴한다. 陽虛惡寒은 內臟이 虛寒하고 陽氣가 不足하므로 만드시 身冷 脈沈 등의 裏寒症을 나타낸다. 이밖에 또한 裏熱이 盛하고 外表에 假寒을 나타내어 비록 惡寒하고 手足이 冰冷한 症狀이 있지만 患者가 口渴하고 呼吸氣粗, 便秘, 尿赤하며 脈이 大개 滑實한 境遇가 있다.

惡血(악혈)

「瘀血」의 一種. 經脈외로 넘쳐 組織의 間隙에 괴어 壞死된 血液. 「敗血」이라고도 함.

顏(안)

①面部的 前面 正中部分. ②左右의 眉間部位. ③額部の 中央部分.

眼角瞼緣炎(안각감염염)

[眦帷赤爛]의 項 參照

眼瞼胞疹(안검포진)

[眼胞菌毒]의 項 參照

眼丹(안단)

本病의 病因, 部位등은 針眼과 같은데 病情이 비교적 重하며 眼瞼(눈꺼풀)이 넓게 赤腫 疼痛하여 硬結 拒按하며 심한 경우 疼痛 寒熱 등의 全身症狀이 隨伴된다.

按摩(안마)

推拿, 按蹻라고도 함. 醫員이 自己의 손이나 上肢로써, 病人이 進行하는 波動的運動을 協助하는 一種의 醫療方法이다. 氣血의 造化, 經絡의 疏通, 新陳代謝의 促進, 抗病能力의 提高, 局部의 血液循環과 營養狀態를 改善하는 등의 作用이 있다. 常用되는 手法으로서, 按. 摩. 推. 拿. 揉. 掐. 搓. 搖. 滾. 抖 등의 方法이 있다. 關節炎, 神經痛, 軟部組織의 損

按脈(안맥)

脈診의 項 參照.

安神(안신)

神志가 안정치 못한 것을 치료하는 방법이다. 그 작용의 차이에 따라 重鎮安神과 養心安神의 양종으로 나뉜다.

安中(안중)

中은 中氣, 즉 脾胃의 氣를 뜻함. 藥物을 써서 脾胃之氣를 調整安定 시키는 것을 安中이라고 한다. 일반적으로 和胃,調和肝胃등법을 말한다.

眼胞(안포)

胞瞼의 項 參照.

眼胞菌毒(안포균독)

本證은 脾經의 濕熱이 蘊熱된 所致이다. 患者의 眼瞼 邊緣에 小泡가 생겨서 漸次 菌形狀(버섯모양)의 贅生物(균더더기)로 자라고 작은 꼭지(蒂)가 있으며 不痛 不痒하고甚하면 눈꺼풀이 뒤집히고 눈물이 나며 視物이 昏蒙하고 오래도록 낫지 않는 경우도 있다. [眼瞼胞疹] 或은 [粟粒疹]과 類似하다.

眼胞痰核(안포담핵)

[胞瞼腫核]이라고도 함. 本病은 대개 胃腸의 蘊熱과 濕痰이 上結하여 經絡이 狹塞되어 胞瞼(눈꺼풀)사이에 생기며 症狀은 胞瞼內에 核狀의 硬結物이 생기며 (대개 上瞼에 생김), 눌러도 아프지 않고 밀면 이동하며 日久하면 隆起되어 붉게 되고 眼瞼이 重墮하고 脹澀한다. 本證은 [目疣]라고도 하며 瞼板線囊腫이다.

眼皮(안피)

胞瞼의 項 參照.

眼眩(안현)

目眩의 項 參照.

眼弦赤爛(안현적란)

[風弦赤爛]이라고도 함. 대개는 脾胃의 濕熱과 外感 風邪의 所致이다. 그 特徵은 眼瞼의 邊緣이 紅赤 潰爛되고 때로 痛痒한다. 重症인 경우는 睫毛가 脫落되고 瞼弦(眼瞼緣)이 變形된다. 本病은 곧 [瞼緣炎]이다.

頰(알)

『山根』의 項 參照.

岩(암)

癌과 通함. 外症으로는, 처음에 核과 같은 것이 생겨서, 以後 돌처럼 堅硬한데, 不痛하다. 一般的으로 몇년후에야 潰爛되어, 血汁이 나오며, 腫은 없다. 疼痛이 激甚하고, 患

部가 潰爛되어 비교적 오래 되면 少量의 膿液이 瘡面に 蔓延되어 惡臭을 낸다. 瘡面이 岩石처럼 울퉁불퉁하므로 이렇게 이른다.

暗經(암경)

「經閉」의 項 參照.

暗疔(암정)

「耳疔」의 項 參照

鴨漚(압당)

「驚漚」의 項 參照.

押針(압침)

針병은 편평하고 針체는 1-2분길이이다 사용시에 針체를 皮下에 입한다 一般的으로 皮 내針혹은 이針에 많이 쓰이며 치하매장용으로 쓰인다. 중국명으로는 금針이라고 한다.

艾卷(애권)

艾條라고도 한다. 조제의 艾絨을 감아서 원주상으로 길이 20cm, 직경 ①2cm로 한 것이며 灸法에 常用되는 一種의 材料이다 艾卷 하나의 무게는 약 10g이며 1시간정도 연 소된다. 이밖에 艾卷속에 어떤 藥品을 混合한 것도 있는데 이를 藥物艾卷이라 한다.

噯氣(애기)

景岳全書·雜證謨에서 “噯者 飽食之息 則噯氣也……”라 하였다. 대개 肝胃不和 或은 飽食으로 胃氣가 阻鬱된 所致이다. 그 症狀은 胃中에서 氣가 올라오는 듯이 약간의 性 向이 나오는데 자주 딱꿀질하는 呃逆과는 다르다.

噯腐(애부)

胃內의 腐臭가 口에서 排出되는 것을 噯腐라 하며 傷寒論에서는 乾噯食臭라 하였다. 대개 消化不良에서 볼 수 있다. 만약 胃內에서 排出되는 氣體가 無味하면 噯氣라 한다. 傷寒論에서는 噯氣라 하는데 이러한 噯氣를 俗稱 胃風이라 한다. 대개는 中焦의 氣體로 胸膈이 脹滿하기 때문이며 噯出하면 시원하게 느껴진다. 胃病과 脾胃虛弱 肝胃不和 의 患者에게 多見된다.

呃逆(애역)

氣가 逆上衝하여 喉間에서 딸꾹질이 連續不斷하는 症狀이다. 生冷物을 過食하거나 或은 苦寒藥物을 過服함으로써 惹起되기도 하고 辛熱物의 過食이나 或은 溫燥藥物의 過服으로 惹起되기도 하며 精神的인 刺戟, 情志의 失調 胃氣의 鬱逆으로 인해 惹起되기도 하고 또한 久病이나 重病으로 脾胃가 虛寒해서 惹起되기도 한다. 이들 素因은 모두

胃氣를 上逆시켜 呃逆이 出現하는데 辨證上 한열 虛實을 區別해야 한다. 胃寒呃逆은 呃聲이 沈緩하고 得熱하면 呃逆이 減少되고 得寒하면 呃逆이 增加되며 手足이 冷하고 食少便溏하며 小便이 清長하고 舌苔가 白潤하다. 胃熱呃逆은 呃聲이 크고 뚜렷하며 連續有力하고 煩渴口臭하며 面赤便秘하고 舌苔가 粗黃하다. 胃虛呃逆은 呃聲이 微弱하고 緩慢하며 한참만에 呃聲을 發하고 厭食하며 먹으면 腹脹하기 쉽고 心神이 疲困하며 舌이 淡紅하고 光剝無苔하다. 久病이나 重病에서 虛呃가 나는것은 呃聲이 短頻하고 無力하며 대개 危重한 證候에 屬한다. 胃實呃逆은 대개 暴食하여 胃를 傷하거나 胃脘의 食滯에 起因하고 或은 痰濁이 阻滯된 所致이며 呃聲이 比較的 頻繁하고 有力하며 腐敗한 酸臭氣를 呃出하고 通常 腹痛, 胸脘痞悶 或은 痰涎의 嘔吐等症을 兼發한다.

艾絨(애융)

施灸시에 쓰이는 主要촌료이다 건조한 애융을 마쇄하여 잡질을 제거하고 섬유상의 물질을 만든다 가공정도에 따라 艾絨에 조세의 구분이 있다 세艾絨의 纖維는 짧고 잡질이 적으며 가능성이 크고 比較的 작은 해성을 만들게 되며 直接灸法에 이요오딘다 조艾絨의 섬유는 길고 잡질이 약간 많으면 比較的 큰 艾柱를 만들며(一般的으로 반조해대)문안灸法에 利用된다

艾柱(애주)

艾絨을 써서 만들어 灸法에 應用되는 一種의 材料이다. 형상은 대개 원추형이며 또 大小의 구분이 있다. 소艾柱는 미립대이며 대개 세艾絨을 손으로 비벼서 만든다. 모두 直接灸法(直接 皮膚상에 놓고 점화함)에 쓴다. 대艾柱는 조艾絨을 손으로 혹은 금속제의 艾柱모형에 넣고 가압하여 만든다. 直接고 혹은 間接구에 쓴다.

艾柱灸(애주구)

灸法의 一種이다. 艾柱를 체표의 穴位 혹은 一定부위상에 놓고 점화하여 治療목적에 도달케한다. 直接구와 間接구의 二種方法이 있다.

額(액)

『額顱』의 項 參照.

液(액)

津液의 項 參照.

額各(액각)

『頭角』이라고도 함. 前髮際의 左右兩端이 아래로 彎曲되어 이룬 角度.

額顱(액로)

『額』또는 『顱』이라고도 함. 顔面의 上部, 頭髮邊錄以下, 兩眉間以上の 部分. 이마.

腋癰(액옹)

腋窩內에 發하는 癰을 말하며, 「夾肢癰」이라고도 하며, 陽證에 屬한다. 대개는 肝脾의 血熱 或은 心과 心包絡 兩經의 風熱의 所致이다. 그 症狀은, 처음에 突然 紅腫疼痛하고, 腫處가 堅硬하여, 잘 消散되지 않고, 寒熱을 隨伴한다. 만약 이미 柔軟해졌으면 化膿한 것이다. 만약 처음에 皮膚色이 不變하며, 腫處가 넓고 堅硬하며, 腫勢가 緩慢하고, 疼痛이 비교적 輕하며, 微熱이 있을 뿐이고, 오래 지나서야 化膿 潰破되는 것은 「腋疽」 或은 「米疽」라 하며, 陰證에 屬한다. 대개는 肝脾 二經의 氣滯 血鬱의 所致이다.

腋疽(액저)

「腋癰」의 項 參照.

液燥生風(액조생풍)

「虛風內動」의 項 參照.

額汗(액한)

頭額部에서 汗出하고 몸에는 汗出이 없는 症狀을 말하며 陽明證이 瘀血이나 濕熱證을 兼한 境遇에 多見된다. 熱이 內部에 鬱結하여 發泄되지 못하므로 經脈을 따라 上越하기 때문이며 熱이 退하면 汗出이 自止한다. 病後나 或은 老人의 喘息으로 인해 氣가 上逆해서 往往 頭額에 多汗하기도 하며 虛證에 屬한다. 重病의 末期에 神倦肢冷하고 泄瀉하며 脈이 微細하여 돌연 額汗이 大出하는 것은 虛陽이 上越하는데 陰虛로 인해 陽이 따를수 없어서 陰核이 氣를 따라 脫出하는 危險한 現狀이다.

夜盲(야맹)

‘鷄盲’, 或은 ‘雀目’이라고도 함. 本病은, 脾胃가 虛弱하므로, 肝血의 虧虛 或은 腎陰의 不足을 招來하고, 비타민A 缺乏에 의해 생긴다. 그 主要症狀은, 夜間 或은 어두운 곳에서 視物이 不明瞭하다.

夜半(야반)

「十二時」의 項 參照.

夜啼(야제)

小兒이 夜間에 울음을 그치지 않는 病症이다. 原因은, 主로 脾寒과 心熱이다. 脾寒에 起因한 경우는, 面色이 靑白하고, 手腹이 俱冷하며, 不思乳食하고, 腹痛하며, 허리를 굽히고 운다. 心熱에 起因한 경우는, 面赤하고, 手腹이 俱暖하며, 口中氣熱하고, 煩躁하며, 燈火를 보기 싫어하고, 언제나 고개를 치켜들고 운다.

藥膏(약고)

膏의 項 參照

藥罐(약관)

拔罐療法の 一種이다. 竹罐을 미리 配合 處方한 漢液煎劑에 넣어 끓인 다음 꺼내어 약간 식혀서 拔罐法을 施行한다.

弱脈(약맥)

脈象의 一種. 脈象이 軟弱하고 沈하다. 氣血이 不足한 虛弱病症에서 볼 수 있다.

藥物艾卷(약물애권)

艾絨에 一定한 藥物의 粉末을 混合해서 권제한 야권을 말한다. 직경이 약 1cm전후이다. 고대에 두가지 종류의 藥物 배합으로 만든 藥物艾卷이 있었다. 하나는 太乙神針(人蔘, 蔘三七, 肉桂, 沉香, 沒藥, 麝香 등 16종 藥物의 配方)이고 또 하나는 뇌화신針(沈香, 木香, 沉香, 麝香 등 7종 藥物의 配方)이다. 治療시에는 그 일단을 點燃하여 몇겹의 포를 격하여 穴位상에 놓는다. 풍습성관절염등병에 쓰인다. 一定한 治療효과가 있을지라도 쓰이는 藥品의 가격이 비싸므로 개선할 必要가 있으며 원處方의 實際價値를 심정해서 새로이 簡便하고 效驗이 좋으며 염가인 藥物艾卷을 만들어야 할 것이다.

藥線(약선)

藥線引流의 項 參照

藥線引流(약선인류)

약선은 일반적으로 桑皮紙나 絲棉紙 등을 쓴다. 실제용도에 따라 너비와 장단이 다른 紙條나 紙繩을 만들어 외측에 약분을 점착시키거나 속에 약분을 넣고 속칭 紙捻을 만든다. 이를 궤양의 내부에 삽입하여 引流작용을 이용해서 농수를 외소시킨다. 외점약분은 승단의 성분을 함유한 약분을 다용한다. 궤양창구가 과소하여 농수가 쉽게 배출되지 않는 경우에 적용된다. 內裏藥粉은 약물을 미리 紙內에 놓고 말아올려 紙繩을 만든다. 內裏藥粉으로는 白降丹등을 다용하며 漏管을 부식할 수 있다(昇丹과 白降丹은 靈藥의 項參照)

約束(약속)

①眼瞼(안포). ②括約筋에 該當함. 예:肛門括約筋, 眼輪筋등.

藥丸(약울)

丸법의 項參照

藥條(약조)

插藥의 項 參照

藥酒(약주)

劑의 項 參照

藥汁灸(약즙구)

灸의 項 參照

藥筒(약통)

藥筒拔法の 項 參照

藥筒拔法(약통발법)

藥筒과 火罐은 비슷하여,潰瘍의 膿毒을 吸引해서 排出케 한다. 陰發背가 15일 前後되는 데, 堅硬하고 散漫不收하며, 膿이 深部に 있어서 밖으로 潰破되지 않는 경우, 혹은 毒蛇의 咬傷으로, 腫勢가 迅速히 擴散되며, 毒水가 나오지 않는 경우에 適用된다. 이 方法은 다음과 같다. 먼저 鮮菖蒲, 羌活, 獨活, 艾, 白芷, 甘草 各 5錢, 連鬚蔥 3兩을 清水 10碗으로 수침沸 끓여서 藥이 完全히 저熟되도록 한다. 다음에 新鮮한 수竹을 몇마디 取하여, 每節을 길이 7寸, 口徑 1寸 2-3分으로 하고, 한쪽은 節을 남겨둔다. 靑皮를 刮去하고, 白質을 두께 約 1分 남짓으로 한다. 마디쪽으로 1小孔을 뚫어 柴木으로 단단히 마개를 한다. 이 竹筒을 上記한 藥水內에서 수침沸(藥筒이 浮上하면 무엇으로 눌러야 한다.)한다. 膿이 內潰되었으나 難出한 경우, 먼저 品字形으로 3個의 切口를 내고, 藥液송을 病人의 寢床 앞에 놓고, 藥筒內의 熱水를 비우고 뜨거울대 빨리 瘡口에 맞추어 썬워서 단단히 눌러 自然히 吸引케 한다. 한동안(約 5-10分間)지나서 藥筒이 식으면 柴木마개를 拔去하여 藥筒이 自落한다. 潰爛이 심하면 出血을 惹起할 우려가 있으므로 쓸 수 없다. 이 方法은 原理가 拔火罐과 相同한다. 皮膚에 燙傷을 일으키기 쉽다. 近來 毒蛇의 咬傷에도 傷口를 處理한 後에 拔火罐을 多用하여 毒液을 吸引하고 있으며 藥筒은 쓰지 않는다

養肝(양간)

「柔肝」의 項 參照.

陽癇(양간)

① 癇症의 實熱에 치우친 一種의 類型이다. 一般的으로 病因의 體質이 比較的 壯實하고 發作이 急激히 생기며 卒倒하여 울며 외치고 抽搐吐涎하며 牙關緊閉, 兩目上視, 身熱, 脈弦數等症을 나타낸다. ② 小兒急驚風의 別名이다.

羊癇風(양간풍)

癇症의 項 參照.

兩感(양감)

① 陰陽兩經의 表裏同病을 뜻하며 傷寒兩感이라고도 한다. 예컨대 太陽經表症의 發熱, 頭痛이 있는데 同時에 또 少陰經裏症의 神倦, 肢冷脈微를 隋伴하는 症候이다. ② 重感의

別稱이다. 즉 二種의 病邪를 重複해서 感受하는 것이다. 예컨대 臟腑에 본래 積熱의 邪가 內在하는데 또 風寒을 外感하여 表裏同病의 症候가 出現하는 것이다.

涼開(양개)

「清熱開竅」을 뜻함

陽結(양결)

「熱結」을 뜻함. 邪熱이 入胃하여, 大便이 燥結한 陽明腑實證을 말함.

陽經(양경)

「陽脈」의 項 參照.

良工(양공)

古代에 醫療技術이 優秀한 醫學家에 대한 呼稱이었다.

陽蹻脈(양교맥)

奇經八脈의 하나. 足踝外側에서 起始하여 外踝를 沿해 上行해서 下肢外側 側腹部 側胸部 肩部 面頰을 거쳐 後頸部에 이른다. 本經에 有病하면, 主로 肢體內側의 肌肉이 弛緩되고 外側의 肌肉은 拘急해지며, 癲狂 失眠 等の 症狀과 病症이 나타난다.

陽氣(양기)

무엇을 代表하는 事物의 두 가지 對立面의 하나를 말함. 例컨대, 機能과 物質에 대해 말한다면 陽氣는 機能이고, 臟腑의 機能에 대해 말한다면 六腑의 氣는 陽氣이다. 營衛의 氣에 대해 말한다면 衛氣가 陽氣이다. 運動의 方向과 性質에 대해 말한다면, 外表를 循行하는 것, 上向하는 것, 亢盛하는 것, 增強되는 것, 輕淸한 것이 陽氣이다. 餘他는 類推할 수 있을 것이다. 陰氣의 相對語이다.

陽旦(양단)

「陽旦」은 陽旦湯으로 治療하는 病證을 말함. 陽旦湯은 곧 桂枝湯이다(金匱要略·婦人產後病脈證併治에 있음). 後世醫家인 孫思邈의 「千金方」 및 王壽의 「外臺秘要」 등에도 陽旦湯 곧 桂枝湯에, 黃芩一味를 加하여, 微惡寒, 發熱, 自汗, 心煩, 小便數, 脚攣急 등의 太陽表虛證에 陰虛內熱을 兼한 證像을 治한다고 하였다. 陽旦湯이라 했지만, 「金匱要略」의 陽旦湯과는 약간 다르다.

陽絡(양락)

①무릇 手·足 三陽經에서 分出되는 絡脈을 陽絡이라 한다. ②上行하거나 혹은 位置가 비교적 얇은 絡脈을 말한다. 例: 「靈樞·百病始生篇」에서 “陽絡傷則血外溢 血外溢則衄血”이라 하였다. ③足陽明胃經의 絡脈을 말함. 例: 「素問·調經論」에서, “形有餘 則瀉其

陽經 不足則補其陽絡”이라 하였으며, 王冰注에서 “并胃之經絡”이라 하였다.

陽絡傷則血外溢(양락상칙혈외일)

「陽絡」은, 上部의 表에 屬하는 絡脈을 말함. 「血外溢」은, 咯血 鼻出血 等を 말함. 臨床上, 어떤 原因으로 上部出血을 惹起함은 대개 陽絡損傷의 所致이다.

楊梅結毒(양매결독)

楊梅瘡의 項 參照.

楊梅豆(양매두)

楊梅瘡의 項 參照.

楊梅斑(양매반)

楊梅瘡의 項 參照.

楊梅疹(양매진)

楊梅瘡의 項 參照.

楊梅瘡(양매창)

梅毒을 말함. 瘡의 外形이 楊梅와 비슷하므로 이렇게 이름한다. 本病은 梅毒의 各種皮膚病變을 包括한다. 皮膚에 먼저 紅暈이 생기고, 後에 斑點이 發하는 것을 楊梅斑이라 하며, 狀態가 風疹과 비슷한 것을 楊梅疹이라 하고, 形態가 赤豆와 같고, 肉內에 感入되어 大豆처럼 堅硬한 것을 楊梅豆라 하며, 疹粒이 潰爛되어, 肉이 乾혀져 밖으로 突出된 것을 翻花楊梅라 한다. 梅毒이 骨髓 關節에 侵入하며, 惑은 臟腑로 流入되어 發病하는 것을 楊梅結毒이라 通稱한다.

陽脈(양맥)

「陽經」이라고도 함. 經脈中の 陽經을 말하며, 그중에 手足三陽經·督脈·陽維脈·陽蹻脈 等を 包括함.

陽脈之海(양맥지해)

督脈의 別稱. 手·足三陽經에는 모두 督脈과 直接 合치는 分支가 있어서, 全身의 陽氣를 調節하는 作用을 하므로 이렇게 이름한다.

陽明(양명)

經脈名稱의 하나. 陽氣發展의 最後段階이며, 太陽·少陽 兩經의 陽氣의 基礎 위에서의 繼續이기도 하여, 「兩陽合明」(素問·至眞要大論)의 뜻에서 取한 名稱이다. 그 位置가 太陽과 少陽의 裏面に 있으므로 「陽明爲合」(素問·陰陽離合論, 「開·合·樞」의 項 參照)라고도 한다.

陽明病(양명병)

六經病의 하나이다. 本病은 經證과 腑證의 兩種類型으로 나뉜다. 經證의 主症은, 身熱, 不惡寒而惡熱, 汗出煩渴, 脈洪大有力하다. 腑證의 主症은, 腹痛拒按, 大便閉, 潮熱하고, 甚하면 譫語하며, 脈沈實有力하다. 이는 熱이 盛하여 津液을 傷하고, 胃腸에 熱結한 所致이며, 實熱裏證에 屬한다.

陽明與少陽合病(양명여소양합병)

이에 두가지 情況이 있다. 하나는 少陽經에 偏重한 合病으로, 비록 陽明病의 潮熱이 있지만, 大便이 秘結하지 않고, 小便도 正常이며, 少陽病의 口苦, 胸脇滿悶의 證狀이 比較的 뚜렷하다. 다른 하나는 陽明經에 偏重한 合病으로, 비록 少陽病의 口苦咽乾이 있지만, 陽明病의 身熱 口渴의 症狀이 比較的 顯著하며, 또한 熱臭糞水を 下痢하고, 脈이 滑數한 등의 裏熱偏盛의 症狀을 出現하게 된다.

陽明爲合(양명위합)

「陽明」의 項 參照.

陽病(양병)

①三陽經의 病을 말함. ②一般的으로는 實證, 熱症의 通稱이다.

陽病治陰(양병치음)

「素問. 陰陽應象大論」에 있음. 1)陽熱이 盛한 病에 罹患하여 陰津을 損傷한 경우, 治療는 滋陰을 해야 함을 말함. 例컨대 瘧病이 오래도록 낫지 않아, 身熱面赤하고, 口乾舌燥하며, 甚하면 齒黑唇裂하고, 手足心熱이 手足의 背部까지 熱하게 되며, 脈이 虛大한 경우, 甘潤滋陰之劑로서 加減復脈湯(炙甘草, 乾地黄, 白芍藥, 麥門冬, 阿膠, 麻仁)을 쓰는 것이 좋다. 2)疾病의 證狀이 陽經에 있는데, 陰經을 鍼刺하는 것을 말함. 例컨대 足陽明胃經에 有病하여 嘔吐하는데, 內關(手厥陰心包經穴), 太衝(足厥陰肝經穴)을 刺한다.

陽邪(양사)

①六淫의 病邪中, 風·暑·燥·火 등 四腫의 邪氣를 말함. 이들 邪氣는 發病하면 대개 陽熱證候를 나타내며, 陰津을 傷하기 쉬우므로 陽邪라 한다. ②陽經에 侵犯하는 邪氣를 말함.

陽事(양사)

남자의 성생활 혹은 성기능을 말함.

陽事不舉(양사불거)

「陽痿」의 項 參照.

陽殺陰藏(양살음장)

『殺』은 收束 혹은 消滅을 뜻함. 陽氣가 收束하면 陰氣도 潛藏된다. 이로써 事物의 收斂貯藏의 一面을 說明함.

陽常有餘,陰常不足(양상유여,음상부족)

元代의 朱丹溪가 臨床實踐을 通하여 體驗한 바를 提唱한 一種의 論說이다. 그가 말한 陰은 精血이고, 陽은 氣火로서 精血의 虧損으로 因해 產生되는 虛火를 指稱한 것이다. 그는 精血이 生命活動의 物質的 基礎이며, 不斷히 消耗되어 易損 難復하므로 「陰常不足」이라고 認識하였다. 例컨대 精血의 保養에 注意하지 않고, 酒色에 耽溺하여 損傷이 過度하면 陽氣가 易亢하여 虛火가 妄動하므로 「陽常有餘」가 된다. 陰虛陽亢하면 百病이 叢生한다. 故로 精血을 保重함으로써 身體의 陰陽의 相對的 平衡을 維持할 것을 主張하였다. 이는 그가 臨床上 滋陰法에 重點을 둔 理論의 根據이다.

養生(양생)

氣功의 項 參照

陽生於陰(양생어음)

陰陽의 相互依存의 原理에 依據해서, 『陽』은 『陰』의 存在로써 自己存在의 前提로 한다. 人體로 말하면, 陽氣로 代表되는 에너지量의 產生은, 陰氣로 代表되는 物質(陰精)에 依存함을 基礎로 해야 한다. 따라서 陽氣는 陰精의 化生에서 생기는 것이라 할 수 있다.

陽生陰長(양생음장)

陽氣의 生化가 正常이면 陰氣는 不斷히 滋養하게 된다. 이로써 事物의 生長發展의 一面을 說明함.

陽暑(양서)

夏季에 烈日下에서 作業하거나 혹은 長距離를 走行하여 炎熱 暴暑를 感受해서 發病하는 傷暑症을 말한다. 이는 動하여 얻는 것이므로 陽暑라고 이름한다. 主要症狀은 高熱, 心煩, 口渴, 大汗, 舌苔黃乾 脈紅數等이다.

陽盛(양성)

陽熱亢盛의 뜻. 一般的로 邪熱이 盛하여 人體의 機能도 比較的 亢盛됨을 뜻한다. 「素問·調經論」에서 說한 「陽盛則外熱」은 外邪를 感受한 후, 陽氣의 上亢을 일으켜, 正邪가 相搏하여 發熱症狀을 出現함을 말한다.

陽盛格陰(양성격음)

熱極似寒의 一種의 病理變化를 말함. 病의 本質은 熱에 屬하며, 熱極하여 邪氣가 裏로 深伏하므로 陽氣가 막혀서 外透하지 못한다. 그 表現은 四肢厥冷 脈象沈伏 등의 假寒症狀이다. 그런데 患者가 心胸煩熱하고, 腹部를 만지면 灼熱하며, 몸이 大寒한데 도리

어 衣類를 입고자 하지 않는 것 등은 모두 陽熱이 盛한 證候이다.

陽盛陰傷(양성음상)

「陽勝則陰病」과 同義이다. 여기서는 熱病이 陰을 傷함을 말한다. 무릇 陽熱이 過盛한 病症에는 陰津이 반드시 耗傷된다. 臨床上 熱邪가 氣分에서 初盛할 때는, 甘寒生津法으로 熱邪를 淸解해야 한다. 熱이 退하면 陰이 저절로 回復된다. 例컨대 胃腸에 熱結하여 腹痛便秘하면 瀉하해서 泄熱해야 한다. 소위 「急下存陰」이다. 만약 陰液이 이미 傷하였으면 養陰淸熱해야 한다. 要컨대 高熱病人에게는 특별히 陰津의 耗損을 防止함에 注意해야 한다. 先人은 熱泄病의 治療에 「留得一分津液 便有一分生機」의 貴重한 經驗이 있었다. 參考할 만 하다.

陽損及陰(양손급음)

陽氣의 虛弱으로 인해 陰精의 化生不足을 惹起하는 것이며, 『陽虛陰盛』의 病理와는 다르다. 例 : 本來 水腫 腰痠 膝冷 등 腎陽虛證候가 있는데, 病變이 發展日久하여, 다시 煩燥 咽乾喉痛 齒齦出血 小便短赤 등의 腎陰虛證候가 出現하는 경우를 『陽損及陰』이라 함.

陽水(양수)

水腫病의 二大類型의 하나이다. 肺의 宣降機能이 失調되므로, 水가 下行하지 못하여 惹起되는 熱象의 水腫을 「陽水」라 함. 臨床表現은, 대개 上部가 先腫하며, 皮膚色이 黃赤하고, 便秘, 口渴하며, 脈象이 沈數하다. 일반적으로 대개는 急性, 實證에 屬함.

陽勝則熱(양승칙열)

「素問·陰陽應象大論」에 있음. 陽氣가 偏勝하여 機能이 亢盛할 때, 熱盛의 病變이 생김을 말한다.

陽勝則外熱(양승칙외열)

「陽勝則熱」의 項 參照.

陽勝則陰病(양승즉음병)

陽은 陽熱을 뜻하고, 陰은 陰液을 뜻함. 陽熱이 過盛하거나 혹은 虛火가 妄動하면 陰液을 耗損케 하는데, 이들은 모두 陽氣가 勝하여 陰이 不足한 病證에 屬한다.

養心安神(양심안신)

음허하여 심신이 불안정함을 치료하는 방법이다. 心血의 虧損으로 인해 必悸易驚하고 健忘하며 많은 思考를 할 수 없고 정신이 恍惚하며 수면불안하고 多夢하며 遺精하고 大便燥結, 口舌生瘡, 舌紅少苔, 脈細數한 경우 柏子養心丸(백자인, 구기자, 맥문동, 당귀, 석창포, 복신, 현삼, 숙지황, 감초)을 쓴다.

養心湯(양심탕)

補氣의 項參照

兩陽傷熏灼(양양상훈작)

「傷寒論·辨太陽病脈證并治法」에서 “太陽病中風 以火劫發汗 邪風被火熱血氣流溢 失其常度 兩陽相熏灼……” 이라 하였다. 陽熱의 病症에, 艾灸 혹은 火熏迫汗의 方法을 誤用하여, 火邪와 陽熱의 二種의 陽邪가 相互 熏蒸燔灼해서, 火毒의 內攻을 일으켜, 傷津劫液하여 도리어 病情을 加重시키는 것을 말함.

陽痿(양위)

「陽事不舉」라고도 함. 陰莖이 勃起하지 않는 病症을 말함. 「內經」에서는 「陰痿」라 稱하였음. 대개는 性欲의 過度 或은 手淫의 誤犯으로 인해 精氣를 損傷하고, 命門火가 衰해지기 때문이며, 或은 思慮憂鬱로 心脾를 損傷하고, 或은 過度하게 恐懼하여 腎氣를 損傷한 所致이다. 命門火가 衰한 데 起因한 경우는, 대개 頭暈神倦하고, 腰足이 痠軟한 症狀을 나타낸다. 思慮로 心脾를 損傷하거나 或은 恐懼로 傷腎한 데 起因한 경우는, 언제나 膽怯하여 잘 놀라고, 睡眠不安의 症狀을 나타낸다.

養胃(양위)

滋養胃陰의 項 參照.

陽維脈(양유맥)

奇經八脈의 하나. 外踝下方에서 起始하여 下肢外側 側腹部 肩部 後頰部를 거쳐 頭頂部에 이른다. 本經에 有病하면, 惡寒發熱의 症狀이 나타난다.

養陰(양음)

「滋陰」의 項 參照.

養陰(양음)

「補陰」의 項 參照

兩陰交盡(양음교진)

「厥陰」의 項 參照.

養陰潤燥(양음윤조)

燥熱의 邪氣가 肺胃의 津液을 傷한 症候를 治療하는 方法이다. 病人이, 咽乾口渴, 午後身熱, 或乾咳少痰 舌質紅, 脈細數한 경우, 沙蔘麥冬飲(沙蔘, 五竹, 麥門冬, 甘草, 冬桑葉, 生扁豆, 天花粉)을 쓴다.

養陰清肺(양음청폐)

肺熱하고 陰虛한 症候를 治療하는 方法이다. 例컨대, 1) 咽喉디프테리아가 3~4일이 되어, 喉中에 白腐成片하여 잘 剝脫되지 않고, 口渴欲飲冷하며, 身熱이 과히 높지 않는데, 몹시 乾燥하게 느껴지고, 面色이 희게 되며, 기침을 해보면 犬吠聲이 없고, 舌紅少苔하며, 脈이 細數한 경우, 養陰清肺湯加減(生地黃, 麥門冬, 元蓼, 川貝母, 白芍藥, 甘草, 蚤休)을 쓴다. 急性咽喉部炎症으로, 陰虛에 屬하는 것은 모두 이 治法을 쓸수 있다. 2) 肺結核患者가 乾咳하고, 痰少한데, 가끔 血絲가 섞이고, 오후에 低劣이 나며, 盜汗이 있고, 胸悶隱痛하며, 身體乏力하고, 飲食減少되며, 口乾하고, 苔薄荷며, 舌의 邊尖이 紅色이고, 脈이 細數한 경우, 四陰煎(生地黃, 麥門冬, 白芍藥, 百合, 沙蓼, 生甘草)에 白芨을 加하여 쓴다.

養陰清肺湯(양음청폐탕)

「養陰清肺」의 項 參照.

養陰派(양음파)

「金元四大家」의 項 參照.

養陰解表(양음해표)

「滋陰解表」라고도 함. 養陰藥과 解表藥으로 組成하여 本來陰虛한 體質에 外邪를 感受하여 頭痛身熱, 微惡風寒, 無汗或少汗, 咳嗽心煩, 口渴咽乾, 舌赤, 脈數等症을 나타내는 것을 治療한다. 加減葳蕤湯(生玉竹, 白米, 生葱白, 豆豉, 薄荷, 桔梗, 灸甘草, 紅棗)에서 紅棗를 去하여 쓰면 좋다.

瘍醫(양의)

腫瘍, 潰瘍, 金瘡, 骨折傷 등 外科疾病을 治療하는 醫員이다. 「疾醫」의 項 參照.

揚刺(양자)

十二刺의 一種 範圍가 比較的 크고 병위가 比較的 얇은 한기를 治療하는데 쓰인다 그 자법은 患部位 中央에 一針을 자하고 그 사위에 사針을 천자한다(靈樞 官針篇)

陽臟(양장)

①患者의 陽盛한 體質을 말하며, 通常 藥을 써서 清滋하면 좋다. ②牡臟과 同義.

養臟湯(양장탕)

瀉腸止瀉의 項參照.

陽絕(양절)

脈搏이 寸口部の 寸部에서만 나타나고 關, 尺 兩部에서는 脈動을 느끼지 못하는 一種의 脈象을 말함. [傷寒論, 平脈法]에서 “寸脈下不至關 爲陽絕”이라 하였다. 成無己는 이를

陰陽偏絶의 所致으로 보았다. 陽絶이란 陽氣가 偏絶 隔絶됨을 뜻한다.

凉燥(양조)

「潤燥」의 項 參照.

凉燥(양조)

秋冷의 燥氣를 感受하여 發病하는 것으로 즉 秋燥의 寒에 치우친 것을 말함. 臨床表現은 처음에 頭痛身熱하고 惡寒, 無汗하며 鼻鳴而塞하여 風寒을 感受한 것과 類似한데 本病에는 津氣가 乾燥한 現狀이 있다. 예컨대 唇燥咽乾, 乾咳連聲, 胸滿氣逆, 兩脅竅痛, 皮膚乾痛, 舌苔白薄而乾 等症을 나타낸다. 이는 肺가 寒燥의 邪을 感受하여 津液이 耗損되어 出現하는 寒燥症狀이다.

陽中之陽(양중지양)

①陽의 事物中에서 다시 나누어 陽의 方面에 屬하는 것을 말함. 事物의 陰陽의 屬性은 相對的인 것이므로, 그들중 어느 한쪽을 다시 陰陽의 兩面으로 나눌 수 있다. 예컨대 胃는 臟腑의 相對的關係에서 陽에 속하는데, 胃自體를 다시 胃陽과 胃陰으로 나눈다. 胃陽(胃氣)은 이런 뜻에서 陽中之陽이라 稱한다. ②陰陽의 屬性이 相異한 關係로 인해 相對的으로 變化할 때, 그 事物의 두 가지 屬性이 모두 陽에 屬함을 말함. 예컨대 心은 五臟의 相對的位置에서 上에 居하므로 陽에 屬한다. 心은 火를 主하고, 心氣는 夏와 通하므로 역시 陽에 속한다. 그러므로 五臟間의 位置와 機能의 相互關係를 分辨할 때, 心은 陽中之陽이다.

陽中之陰(양중지음)

①陽의 事物中에서 다시 나누어 陰의 方面에 屬하는 것을 말함. 예컨대 胃는 陽에 屬하며, 胃陰은 陽中之陰이다. ②어떤 事物의 두가지 屬性中 하나는 陽에 屬하고, 다른 하나는 陰에 屬함을 말함. 예컨대 肺는 上部에 位置하여 陽에 屬하며, 肺氣는 降을 主하여 陰에 屬한다. 故로 陽中之陰이라 稱함. 『陽中之陽』의 項을 參照.

陽證(양증)

一般的으로 疾病의 臨床辨證에서 陰陽의 屬性에 따라 歸類하여, 陽證과 陰證으로 區分한다. 무릇 急性이고, 動的이며, 強實하고, 興奮性이며, 機能亢進性이고, 代謝가 滑發하며, 進行性이고 向外(表)性이며, 上行性證候에 屬함은 다 陽證에 屬한다. 예컨대 面色이 潮洪 或은 通紅하고, 身熱喜冷, 狂躁不安, 口唇潮熱, 煩渴引飲, 語聲長厲, 煩躁多言, 呼吸氣粗, 大便秘結 或은 臭穢, 服痛拒按, 小便短赤, 脈象의 浮, 洪, 數, 滑, 實, 有力, 舌質絳, 舌苔黃燥, 甚或芒刺 等等이다. 八綱中の 表證, 熱證, 實證은 모두 相對的으로 陽證의 範圍에 屬한다.

陽證似陰(양증사음)

熱性病이 極期에 이르면, 때로 一種의 假象을 나타내게 된다. 즉, 疾病의 本質은 陽證

인데, 表現되는 現象(症狀)은 陰證과 恰似하다. 具體的 症狀은 [眞熱假寒]의 項 參照.

羊脂灸(양지구)

灸의 項 參照

養津液(양진액)

「生津」의 項 參照.

陽縮(양축)

「陰縮」의 項 參照.

陽閉(양폐)

閉의 項 參照.

陽亢(양항)

「陰虛陽亢」의 項 參照.

陽虛(양허)

陽氣不足을 말함. 臨床表現은, 面色蒼白, 手足不溫, 容易出汗, 大便稀爛, 小便清白, 脣色淡白, 口淡無味, 舌質淡白, 苔白潤, 脈虛弱 等이다.

陽虛發熱(양허발열)

①人體의 生理機能低下, 특히 脾胃의 虛弱, 陽氣의 外越로서, 內傷發熱]의 一種의 病理變化를 指稱한다. 主要症狀은 身熱自汗, 惡風, 身倦懶言, 納呆(胃의 障礙), 午前에 多弦되는 發熱, 脈細弱 或은 浮大無力 等이다. ②陰寒內盛으로, 虛陽이 外에서 拒格되므로 出現하는 浮熱을 말함. 主要症狀은 微熱惡寒 精神倦怠 肢冷 下利 脈微等이다.

陽虛水泛(양허수범)

이는 慢性水腫의 病理을 말한 것이다. 脾는 水濕의 運化를 主管하며, 腎은 水液의 排泄를 主管하는데, 脾腎이 陽虛하면 水液의 運化와 排泄機能이 減弱되어 水濕이 泛濫해서 肌膚에 溢하여 水腫을 形成한다. 그 證狀은 全身浮腫이 나타나며, 특히 腰以下가 顯著하고, 小便短少 脛腹脹滿 大便溏 舌淡苔白]滑 脈沈細 等이다. 慢性腎炎 心性水腫 등에서 常見된다. 治療에는 溫陽行水해야 한다.

陽虛陰盛(양허음성)

「陽虛」는, 腎陽이 虛함을 뜻하며, 「陰盛」은 陰寒이 內盛함을 뜻함. 腎陽이 虛하므로 臟腑을 溫養할 수 없어서 臟腑機能을 低下시켜, 陰寒의 病狀이 出現한다. 例컨대 怕寒 肢冷 下利 水腫 脈沈遲 等이다.

陽虛則外寒(양허척외한)

「素問·調經論」에 있음. 「陽虛」는 氣虛 或은 命門火의 不足으로 臟腑機能의 減弱을 뜻함. 특히 脾腎의 陽虛로, 精微를 運化하지 못하므로, 熱에너지가 不足하여 衛氣가 不固하고 末梢循環에 影響을 미치어 外寒의 病症을 發한다. 臨床表現은 面色蒼白 畏寒 肢冷하고, 感冒에 걸리기 쉽다.

涼血(양혈)

「涼血散血」이라고도 함. 血分의 熱邪를 淸解하는 方法이다. 熱性病의 熱邪가 血分에 侵入하여 迫血妄行, 吐血, 衄血, 便血하고 舌色이 紫絳하며 或은 發斑하여 紫黑色을 띠는 等症을 나타내는 경우에 適用한다. 犀角地黃湯(犀角, 生地黃, 芍藥, 牡丹皮)을 쓴다. 「散血」은 血中の 熱을 涼散시키는 것이다.

養血(양혈)

「補血」의 項 參照

涼血散血(양혈산혈)

「涼血」의 項 參照.

養血柔肝(양혈유간)

「柔肝」의 項 參照.

養血潤燥(양혈윤조)

血虛로 因한 便秘를 治療하는 方法이다. 面色蒼白, 唇燥不紅潤, 때로 頭暈을 느끼고, 心悸하며, 大便乾結難下, 舌質干而色淡, 脈細數한 경우, 當歸, 生地黃, 麻仁, 桃仁, 地殼 等藥을 쓴다.

涼血解毒(양혈해독)

溫疫, 溫毒等의 熱毒이 熾盛한 症狀을 治療하는 方法이다. 高熱口渴, 煩躁, 口氣臭穢, 或은 頭面腫大 等症을 發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淸瘟敗毒飲(生石膏, 生地黃, 犀角, 黃連, 知母, 赤芍藥, 元蓼, 連翹, 甘草, 牡丹皮, 鮮竹葉)을 쓴다.

養血解表(양혈해표)

養血藥과 解表藥으로 組成하여 陰血이 虧虛(病後血虛 或은 實熱後의 血虛)한 感冒로 인해 頭痛, 身熱, 微惡寒, 無汗, 等症을 나타내는 것을 治療하는 것. 葱白七味飲(葱白, 連根, 豆豉, 葛根, 生薑, 生麥門冬, 乾地黃, 甘瀾水)을 쓴다.

涼血化斑(양혈화반)

「透斑」의 項 參照.

兩脇拘急(양협구급)

兩脇部가 당기며 不快한 感覺이다. 대개는 水飮이 兩脇에 結聚되거나, 或은 肝氣가 鬱結된 所致이다.

烱火(양화)

芒硝(혹은 현명분) 대당 봉밀 阿膠(미리 물을 붓고 달여서 溶解함)는 모두 藥湯이 煎熬되어 거예한 후에 가입하여 다시 藥관을 불에 올려 藥간 달이며 망초드은 湯藥내에서 완전히 溶解시킨다 至寶丹 抱龍丸등은 소잔내에 넣고 藥湯에 침하면 藥순갈로 가볍게 눌러서 溶解시켜 內服한다.

陽化氣,陰成形(양화기,음성형)

『素問.陰陽應象大論』에 있음. 化氣와 成形은, 物質의 두가지 相反되고 또 相成되는 運動形式이다. 張景岳의 注에 “陽動而散 故化氣, 陰靜而凝 故成形”이라 했다. 그러므로 여기서의 陽과 陰은, 物質의 動과 靜, 氣化와 凝集, 分化와 合成 등의 相對運動을 뜻하며, 또한 物質과 에너지의 相互依存, 相互轉化의 作用을 說明한 것이다.

陽黃(양황)

黃疸病의 二大類型의 하나이다. 대개 急性에 屬하며, 그 症狀은, 初期에 寒熱이 있기도 하고, 面目 皮膚에 黃色이 鮮明하며, 口苦口乾, 胸悶惡心, 腹滿便秘, 小便膿赤, 舌質紅苔黃膩, 脈弦數 等證을 隋伴한다. 急性黃疸型傳染性肝炎, Leptospira症 등에서 多見된다.

魚(어)

手拇指(혹은 足踰指) 後方의 掌骨(中手骨 혹은 中足骨)이 있는 곳에 현저히 隆起된 筋肉이 있어서 모양이 魚腹과 같은 部位(手の 拇短展筋[短拇指屈筋]과 足の 踰短屈筋[短踰指屈筋]의 部位에 해당함)을 말함. 魚際란 魚의 邊際로서, 手背 혹은 足背部의 皮膚色の 深淺部分의 境界處를 말함.

魚口(어구)

橫痃의 項 參照.

魚肚疔(어두정)

「指疔」의 項 參照.

魚絡(어락)

手拇指內側의 魚際部(拇指의 腹部)에 있는 絡脈(一說에는, 魚際之下 陽谿穴과 列缺穴 사이에 있다고 함)을 말함. 臨床上 보통 그 局部充血의 現象을 觀察하여 手陽明經 病變을 診斷하는데 參考로 한다. 例: 「靈樞·邪氣臟腑病形篇」에서 “魚絡血者 手陽明病”이라

하였다.

魚鱗癬(어린선)

蛇皮癬의 項 參照.

漁翔脈(어상맥)

七怪脈의 一種. 脈搏이 있는듯 없는 듯하여, 마치 물고기가 水中에서 헤엄치는 것 같다.

語聲重濁(어성중탁)

[聲重]이라 略稱하기도 함. 聲調가 病理性인 影響에 의해 低沈 重濁해짐을 形容한 것이다. 대개 外感의 風寒 或은 濕濁의 困阻로 因해, 氣道가 不暢한 所致이다. 例컨대, [素問, 脈要精微論]에서 “...聲如從室中言(混濁不青)是中氣之濕야”라 하였다.

瘀熱(어열)

①熱과 痰濕이 서로 결합되어 내부에 鬱積된 熱證을 말함. ②體內에 貯留된 瘀血이 鬱結하여 熱로 化한 것을 말함.

瘀熱在裏(어열재리)

「瘀」는 積滯 停留의 뜻. 瘀熱在裏에 二種의 情況이 있다. ①陽明의 熱이 無汗으로 因해 外越不能하거나 또는 小便不利로 因해 水濕이 內停하여, 熱이 濕困을 당해 內部에 瘀積해서, 濕熱의 鬱蒸이 오래 되면 黃疸을 發한다. ②體內에 瘀血이 停留하여, 一定한 條件下에서 發熱을 일으킨다.

御醫(어의)

封建時代의 醫員의 職名의 하나이다. 專的으로 國王이나 宮廷官員들의 診療를 擔當하였음.

瘀血(어혈)

體內的 血液이 일정한 處所에 瘀滯된 病症. 그중 經脈外로 넘쳐 組織의 間隙에 괴어 壞死된 血液을 「惡血」이라하며, 血液의 運行이 沮害되어 經脈管內 혹은 氣管內에 瘀積된 것을 「蓄血」이라 하며, 이들도 瘀血의 範圍에 屬한다. 病으로 因해 瘀血이 될 수 있다. 例컨대 跌撲負重, 月經閉止, 寒凝氣滯등이다. 또한 瘀血로 因해 病이 되기도 한다. 이런 경우 氣化가 阻滯되고, 經脈이 阻塞되며, 瘀血과 熱이 結合되어 심지어 出血發狂等症을 일으킨다. 臨床表現이 比較的 複雜하다. 例컨대 肌膚가 靑紫色이 되고, 固定性疼痛이 생기며, 紫黑血塊를 吐하고, 大便黑色, 小腹硬滿, 胸脇疼痛, 舌靑紫, 皮膚乾枯起鱗等症을 發하며, 甚한 경우 善忘·驚·狂 등을 發한다. 이밖에 여러 가지 頑固한 疾病이 辨證論治上 瘀血과 有關하다.

瘀血頭痛(어혈두통)

頭痛증의 하나이다. 症狀은 頭昏頭脹하고 頭部の 刺戟이 劇烈하여 痛處가 一定하며 때때로 發하다가 멎곤하는데 좀처럼 낫지않고 舌에 瘀點이 생기고 或은 暗紫色을 띄며 脈象이 澁하다. 대개 久病으로 氣滯血瘀하거나 或은 外傷의 後遺症으로 인해 생긴다.

瘀血疔(어혈산)

「血疔」의 項 參照.

瘀血流注(어혈유주)

流注病症의 하나이다. 跌仆損傷이나 或은 産後의 瘀血이 停滯되어 濕毒과 相搏되어 생긴다. 四肢의 內側에 好發된다. 患部의 周圍가 腫瘡하여 누르면 堅硬腫瘡하고 蔓延範圍가 廣範하며 膿窩(오금), 鼠蹊部 或은 腋部에 항상 멍울이 생긴다. 全身症狀으로 惡寒, 發熱, 全身骨痛 等症을 나타낸다. 約 一週日後에 化膿하며 排膿 收口되어 癒한다. 氣血不足으로 因해 오래도록 化膿되지 않고 慢性으로 轉變되는 경우도 있다.

臆(억)

膺의 項 參照.

抑肝(억간)

「伐肝」의 項 參照.

瘰癧球(억구)

[梅核氣]의 項 參照

偃刀脈(언도맥)

十怪脈의 一種. 偃刀는 세워놓은 칼로서, 날은 銳利하고, 등은 두껍다. 脈象이 弦細하고 緊急함을 形容한 것이며, 손으로 칼날을 만지는 듯한 感覺이 있다.

엄(엄)

엄은 덮는다는 뜻. 냉엄법과 열엄법의 이종으로 나뉜다. 냉엄법은 예컨대 타월이나 깨끗한 천을 냉수에 담갔다가 짜서 비출혈시에 前額上을 찜질한다. 수건이 덩게 되면 바꾸되 지혈이 되면 멈춘다. 열엄법은 예컨대 타월이나 깨끗한 천을 열탕에 담갔다가 가볍게 짜서 동통부위를 찜질한다. 엄법에 대해서 한의학상 많은 기재가 있다. 예컨대 냉엄법으로 靑布를 냉수에 적서 찜질하는데 때로는 빙괴를 쓰기도 한다. 열엄법은 약즙에 천을 적서 비증의 동통부위를 찜질하는데 천이 식지 않게 계속 뜨거운 약즙을 가하는 방법이 있다.

膺(여)

膂筋이라고도 함. 背部의 脊椎骨左右兩側의 背部筋肉群.

膂骨(여골)

① 脊椎骨의 總稱. ② 第 1胸椎棘突起를 말함.

女科(여과)

婦人の 項 참조

膂筋(여근)

膂의 項 參照.

戾氣(癘氣)(여기)

「疫癘之氣」, 「毒氣」, 「異氣」, 「雜氣」라고도 함. 「戾」는 兇惡 또는 어그리짐을 뜻함. 戾氣는 強烈한 傳染病을 일으키는 一連의 邪氣를 뜻함. 古人은 氣候의 久旱 酷熱 등 異常變化로 因해 이러한 烈性の 發病物質이 產生하며, 사람이 이를 感受하여 疫病이 流行하게 되는 것으로 알았다.

女勞復(여노복)

「勞復」의 하나. 大病이 갓 治愈되어, 精神 氣血이 아직 恢復되지 않았는데, 調攝에 不注意하여, 房事가 過度해서 腎精을 損傷하므로 出現하는 一種의 病症. 主된 症狀은 頭重不舉 眼花 腰背疼痛 小腹急迫絞痛 憎寒發熱 虛火上衝 頭面紅熱 心胸煩悶 등이다.

女勞疸(여로달)

「金匱要略」에 있음. 黃疸의 類型的 하나이다. 그 證候는, 身黃하고, 額上이 微黑하며, 膀胱이 急하고, 少腹滿, 小便通利, 大便色黑하며, 저녁무렵에 手足心이 發熱하는데 도리어 惡寒을 느낀다. 「金匱要略」에서는, 本證이 房勞 醉飽에 起因한 것으로 보았다. 臨床所見에 依하면, 本證은 대개 黃疸病의 後期에 出現하며, 氣血이 兩虛하고, 濁邪가 阻滯한 證候이다. 通常, 脇下에 積塊가 脹痛하고, 皮膚色이 暗黃色이 되며, 額上에 色素가 沈着되고, 舌質이 暗紅하며, 脈弦細 等症을 隨伴하고, 重症인 경우는 鼓脹이 생긴다.

如喪神守(여상신수)

「素問·至眞要大論」에서, “諸禁鼓慄, 如喪神守 皆屬於火”라 하였다. 「如喪神守」은 神志의 昏亂 不安을 形容한 것으로, 대개 內部에서 熱이 盛하여 表現되는 證候에 屬한다.

如銀內障(여은내장)

「圓翳內障」의 項 參照.

女子胞(여자포)

「포궁」, 「포장」, 「자장」이라고도 하며 통상 자궁으로 인식됨. 그런데 여자포의 실제기능

에서 말하면 내생식기전체(자궁, 난소, 수란관을 포괄)를 개괄함. 그 주요기능은 월경의 통조와 태아의 잉육이다. 여자포의 생리기능은 五臟중의 신·간·심·비, 경락중의 충·임맥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예컨대 여자의 연령차이에 따른 월경의 변화는 신기의 성쇠와 직접 유관하며 비는 혈액을 통섭하고 충맥에는 「혈해」라는 명칭이 있으며 임맥은 포태를 주관한다. 이 이맥이 유통하면 월경이 정기에 래조하며 용이하게 수태한다. 단 충·임 이맥의 기능의 정상적인 발휘는 신에 의해 결정된다. 고로 신정과 신기의 충실은 여자포의 생리기능과 상당히 밀접한 관계가 있다.

癘風(여풍)

麻風을 말하며, 癩大風 또는 大麻風이라고도 함. 暴癘風毒에 感觸되어, 邪가 肌膚에 滯留하여 오래 되면 發病한다. 처음에는 患部에 麻木不仁을 느끼고, 다음에 紅斑이 發하며, 이어서 腫潰하는데, 膿이 없고, 얼마 後에, 全身의 肌膚로 蔓延되어, 眉毛가 脫落되고, 目損, 鼻崩, 脣反, 足底穿孔 등의 甚한 症候가 나타난다.

癰(역)

癰癰의 項 參照.

逆經(역경)

「倒經」의 項 參照.

疫毒痢(역독리)

痢疾證候의 類型의 하나이다. 「疫痢」라고도 함. 本病은 患者의 體質이 本來 虛하거나 或은 癘毒이 過盛하므로, 疫毒이 깊이 腸胃에 停滯되어, 營分 血分으로 轉入하기 쉽고, 비교적 강한 傳染性이 있으므로, 이렇게 이름한다. 臨床表現은, 發病이 急激하고, 病情이 비교적 極烈하여, 突然 高熱을 發하고, 寒戰하며, 煩渴하고, 腹痛이 急激하며, 粘稠한 膿血을 下痢하고, 下痢回數가 頻多하며, 惡心嘔吐하고, 或은 斑疹을 兼發하다. 兒童은 體質이 軟弱하여, 언제든지 泄痢症狀이 出現하기 前에, 高熱, 昏迷, 抽搐을 發하며, 甚하면 肢冷하기도 하고, 大汗出하며, 脈微欲絶등의 危重證候를 나타낸다. 이는 中毒性痢疾과 類似하다.

疫癘之氣(역려지기)

「戾氣」의 項 參照.

逆流挽舟(역류만주)

痢疾에 表症이 있는 것을 治療하는 方法이다.痢疾의 初期에 惡寒,發熱,身痛,頭痛無汗等の 表症이 있으면 人蔘敗毒散(羌活,獨活,柴胡,前胡,川弓,地殼,桔梗,茯苓,人蔘,甘草)을 써서 治療한다.古人은 痢疾의 邪가 본래 表部에서 裏部로 陷入한 것으로 보아 本方을 써서 病邪를 裏에서 表로 出하게 하는 것이 마치 水中을 거슬러 逆流로 배를 끌어(挽船)上

行하는 것과 같다고 인식하였다. 현재는 本方이 辛溫香燥劑로서 外感挾濕證에 적합한 것으로보는데 痢疾은 대개 濕熱과 관계가 있으며 本方이 꼭 적합한 것은 아니므로 대개 解表藥과 導滯藥, 清裏濕熱藥을 同用한다.

疫痢(역리)

「疫毒痢」의 項 參照.

逆産(역산)

「難産」의 項 參照.

癰癰(역옹)

足背의 兩側에 생기는 癰瘍을 말한다. 形態가 粗나 栗처럼 작지만, 病程이 비교적 重하므로 癰癰이라 한다. 대개는 足三陰經의 虧損에 의한다. 만약 紅腫腫痛하고, 潰破되어 膿이 흘러, 腐敗된것이 除去되고 不黑한 것은 濕熱 偏盛에 屬하며, 이는 順證이다. 만약 微紅微腫하고 潰破後에 透明하고 稀薄한 膿汁이 흐르면, 陰寒凝滯에 屬하며, 잘 癒合되지 않는다. 만약 瘡色이 暗黑하고 넓게 腫起하여, 腫頭가 없으며 疼痛해도 化膿하지 않고, 惡寒發熱 心煩口渴, 小便淋瀝등을 隋伴하면, 病程이 險惡한 것이다

癰子頸(역자경)

癰癰의 項 參照.

逆傳(역전)

順傳과 相對되는 말이다. 瘟病의 傳變은, 順傳이면 衛分에서 氣分에 이르고, 氣分에서 營分. 血分으로 傳入된다. 萬若 病이 衛分에 있는데, 營分. 血分の 症狀이 나타나는 것을 逆傳이라 한다. 例컨대 逆傳心包의 類이다.

逆傳心包(역전심포)

清代 葉天士의 「溫熱論」에서 나온 말이다. 溫病이 傳變되는 또 하나의 規律을 말한 것이다. 一般的로 溫病의 傳變規律은, 衛分에서 氣分 營分을 거쳐 血分에 이르는데, 만약 病邪가 比較的 重하고, 發病하자마자 重態가 되어, 變化가 迅速하여, 차례대로 傳變되지 않고, 衛分(肺)에서 돌연 營分(心包)으로 陷入하여 神昏 譫語等 中樞神經症狀을 出現하는 것을 逆傳心包라 한다.

歷節風(역절풍)

金匱要略・中風歷節病脈證并治에 있음. 歷節이라 略稱하기도 함. 關節이 紅腫하고 疼痛이 劇烈하며 屈伸不能함이 特徵이다. 대개는 肝腎不足한데 風寒濕의 邪氣를 感受하여 關節에 侵入해서 오래쌓여 化熱하여 氣血이 鬱滯된 所致이다. 그 主要病變은 關節의 急痛이고 發展이 매우 빠르므로 白虎歷節이라 한다. 寒濕이 偏勝한 境遇는 關節이 急痛하여 屈身不能함이 主證이 된다. 急性風濕性(류머티즘) 關節炎, 類風濕性(류머티즘성)

關節炎 痛風等 疾患의 類이다.

疫疔(역정)

疔瘡疾患의 하나이다. 疫死한 家畜의 毒에 感染되어, 그 毒이 肌膚를 저에하므로 血凝毒滯해서 생긴다. 牧畜業, 屠殺業 或은 皮革製造業 및 其他의 接觸者에게서 多見된다. 傳染性이 있어서, 接觸後 約 1-3日만에 發病하며, 手, 頸, 手臂等 露出部位에 好發된다. 局部의 變化가 牛痘와 恰似하다. 먼저 疱疹이 생기고, 이어서 出血 壞死가 생겨, 黑色의 焦痂를 形成하며, 不痛하고, 火膿하지도 않으며, 周圍가 腫脹한다. 만약 蔓延이 그치지 않으면, 惡寒戰慄, 高熱, 神昏등의 變證을 惹起한다. 皮膚炭疽病의 類이다.

逆從(역종)

「素問. 至眞要大論」에서, “逆者正治 從者反治”라 하였다. 즉, 證候에 逆하는 藥을 써서 治하는 것은 [正治]法이고, 證候에 從하는 藥을 써서 治하는 것은 [反治]法이다. 各該當項을 參照.

逆證(역증)

病情이 一般規律대로 發展하지 않고, 突然 嚴重하게 變하여 惡化될 趨勢가 있는 것을 말함. 例컨대 小兒의 麻疹過程에서 發生하는 辨證으로서, 1)風寒閉塞:身熱無汗하고, 頭痛, 嘔惡하며, 疹色이 淡暗紅色이다. 2)毒熱壅滯:面赤身熱하고 煩渴譫語하며, 疹色이 暗赤紫色이다. 3)正氣虛弱:面色蒼白, 身微熱, 精神倦怠, 疹色이 白色으로 不紅하다. 4)咳喘合病(肺炎). 5)喉痛合併(喉炎). 6)腹瀉合併(腸炎), 或은 기타 嚴重한 情況이 發生함. 病情의 發展이 이상한 것은 모두 逆證이다.

逆治(역치)

[正治]의 項 參照.

疫癘(역학)

무릇 瘧疾이 한 地域에서 流行하고, 相互傳染하며, 病情이 比較적 重한 것을 疫癘이라 한다. 그 臨床表現은, 寒熱往來하고, 每日 一回 或은 2回씩 發作하며, 發熱이 比較적 높고, 煩渴有汗하다.

疫咳(역해)

「百日咳」의 項 參照.

疫喉(역후)

「白喉」의 項 參照.

疫喉痧(역후사)

[喉痧]의 項 參照

疫喉痧(역후사)

「爛喉痧」의 項 參照.

礮(연)

治劑의 項 參照

軟堅散結(연견산결)

濁痰 瘀血 등이 結集되어, 癥積 나력 등을 形成한 諸症을 治療하는 方法이다. 「祛瘀消癥」의 項 參照. 例컨대, 癭氣(甲狀腺腫大)라는 症候는, 濁痰이 凝集되어 이루어진 것으로, 海藻, 昆布 등을 常食하여 消痰 軟堅 散結해야 한다. 또한 久瘕으로 脾臟이 腫大되는 것을 古稱 「瘕母」라 하며, 瘕母丸(鱉甲醋灸 2兩, 三棱醋浸透煨 1兩, 莪朮醋浸透煨 1兩을 共研細末하여, 綠豆大로 神曲糊丸해서 每服 20丸씩 溫水로 送下한다)을 써서 軟堅 散結한다. 「軟堅」의 또 하나의 意義는, 芒硝類를 써서 燥結된 糞便을 攻除하는 것이다.

軟堅臍滿(연견제만)

「堅」은 여기서 乾燥한 大便을 말함 大便이 燥結하므로 腹部가 脹滿한데 「鹹寒增液」法을 써서 潤燥하여 大便을 稀釋시켜 大便이 通하면서 腹部의 脹滿이 掃除된다.

然骨(연골)

①內髌의 앞쪽 舟狀骨部分 ②穴位名 然谷穴을 말하며 足內髌前의 舟狀骨 結節下의 陷凹處로서 足少陰經에 속함.

煉丹術(연단술)

古代에 丹약을 제연한 一種의 技術로서 이는 近代 化學의 先驅가 된다. 中國에서는 周秦代부터 藥物을 가온승화시키는 이러한 製藥方法을 創始하여 세세에서 가장 일찍 開發하였다. 9-10世紀에 中國의 煉丹術은 아랍으로 전해졌고 12世紀에는 유럽으로 전해졌다. 煉丹法에 의해 精製된 藥物에는 外用과 內服用의 二種類가 있다. 外用은 지금도 아직 가치가 있다. 內服藥은 그 毒性이 비교적 크므로 漸次 ***** 되었다.

軟肋(연륵)

季肋의 項 參照.

蓮蓬發(연봉발)

「發背」의 項 參照.

攣痺(연비)

素問·異法方宜論에 있음. 筋脈이 拘急한것이 攣이고 肌膚가 疼痛하고 麻木한 것이 痺

이다. 一般的으로 痺症의 筋脈이 拘急하고 肌膚가 麻木되며 疼痛하고 關節의 活動이 不如意한 一連의 症狀을 말함.

涎爲脾液(연위비액)

『五臟化液』의 項 參照.

淵刺(연자)

關刺의 別칭(靈樞 官針篇)혹 함곡자의 別명이다(갑을경 권오) 각해당項 參照

淵疽(연저)

脇肋疽의 項 參照

胭脂障(연지장)

‘白睛溢血’의 項 參照.

涎唾(연타)

涎과 唾는 모두 口腔內의 唾液이다. 涎은 俗稱 口水로서, 比較的 清淡하여, 主로 口腔을 潤澤케 하는 作用이 있다. 唾는 比較的 稠粘하여, 主로 食物의 消化를 돕는다. 五臟化液의 理論에 依據하면, 涎 唾는 各其 脾와 腎의 作用을 通해 化生되므로, 脾爲涎, 腎爲唾의 說이 있다(素問 宣明五氣 編에 있음).

沿肛痔(연항치)

肛門이 沿한 外側의 皮膚上에 突出하는 小肉이다. 梅毒의 傳染에, 濕熱의 下注를 兼하므로 생긴다. 肛門 周圍의 皮膚에 扁平한 종기가 隆起하여, 乳白色 或은 灰白色을 띠며, 臭穢한 粘液을 滲出하고, 때로는 搔痒 或은 刺痛을 發한다. 重症인 경우는 會陰部位에 까지 미치고, 或은 같은 症狀이, 口腔 咽喉部等處에도 나타나는 수가 있다.

連骸(연해)

膝部の 內外兩側의 두개의 骨隆起. 解剖學上的 大腿骨의 內側上髌와 外側上髌의 部位에 해당함.

熱疳(열감)

小兒의 夏季 離乳로 因한 脾胃의 虛弱, 飮食不節制의 所致이다. 主要症狀은, 肌肉이 야위고 腹部는 脹滿하며, 手掌足底가 熱하고, 煩渴하면서 잘 먹으며, 泄瀉하는데, 大便色이 淡白하고, 或은 未消化食物殘渣 等を 瀉下한다.

熱結(열결)

「陽結」의 項 參照.

熱結膀胱(열결방광)

膀胱은 下焦에 위치하며, 足太陽經의 腑이다. 만약 傷寒太陽病이 不解하면, 化熱 入裏하여, 邪熱이 經脈을 따라 血氣와 相搏해서, 膀胱에 結하여, 下腹部硬滿, 拘急不舒, 發熱而不惡寒, 神志如狂 等症이 出現하는 것을 熱結膀胱이라 稱한다.

熱結傍流(열결방류)

陽明病의 實證의 한 가지 表現이다. 腑實證은, 大便이 일반적으로 燥結不通한데, 때로는 黃色의 냄새나는 糞水를 泄出하며, 燥屎의 瀉出은 볼 수 없고, 如前히 陽明腑實證이 있는 것을「熱結傍流」라 한다.

熱結下焦(열결하초)

여기서 말한 「下焦」는, 主로 大小腸 膀胱等の 臟氣를 말함. 熱邪가 下焦에 結하면 이들 臟氣의 機能을 障碍하여, 下腹脹痛 大便秘結 小便澀痛不通 甚하면 尿血등이 出現한다. 「熱結膀胱」의 項 參照.

熱厥(열결)

邪熱이 過盛하므로 津液이 受傷하여 陽氣의 正常流通에 影響을 미치어 四肢으로 輸達할 수가 없어서 手足이 厥冷한 病證이다. 熱厥과 寒厥의 區別點은 寒厥인 境遇는 腹部가 清冷하고 대개 寒邪의 症狀을 隨伴하며, 熱厥인 境遇는 胸腹部에 灼熱感이 있고 또한 目赤, 煩躁, 口渴, 便秘, 尿赤, 舌苔黃燥等の 實熱症狀이 있다.

熱極生風(열극생풍)

「瀉火熄風」의 項 參照.

熱極生風(열극생풍)

「熱盛風動」의 項 參照.

熱瘧(열단)

「消瘧」의 項 參照.

熱毒(열독)

「暑癰」의 項 參照.

熱毒(열독)

「清熱解毒」의 項 參照.

熱毒(열독)

「火毒」의 項 參照.

熱淋(열림)

淋證의 類型的 하나이다. 臨床表現은, 小腹部가 拘急 疼痛하고, 小便이 血과 같이 赤澁하고, 排尿時에 灼痛하며, 或은 寒熱이 隨伴되고, 몸이 痠痛하는 等症을 나타낸다. 이는 下焦에 熱結한 所致이다. 急性泌尿系感染症의 類이다.

熱無犯熱(열무범열)

「素問. 六元正紀大論」에 있음. 이는 寒證이 없으면, 炎熱의 夏節에 함부로 熱藥을 쓸 必要가 없다는 뜻이다. 이리하여 津液이 損傷되고 化燥해서 辨證이 發生하는 것을 避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表寒證이 있는 경우, 熱藥類에 屬하는 辛溫發表藥을 써야 함은 例外이다. 그런데 夏節에 辛溫發表藥을 쓸 경우는, 方藥을 選擇하여, 劑量을 敵意하게 考慮해야 한다.

熱迫大腸(열박대장)

濕熱이 腸胃를 傷하여, 大腸의 傳導機能이 失調됨으로써, 腹痛 泄瀉을 일으키는 病變을 말함. 主要表現은, 瀉下如注, 糞便黃臭, 肛門灼熱, 小便短赤, 舌苔黃膩, 脈滑數 等이다.

熱病(열병)

① 夏季의 暑病을 말함. ② 外感에 의해 惹起되는 모든 熱病을 말함. 素問 熱論에서 “今夫熱病者 皆傷寒之類也”라 하였다. 여기서 말한 傷寒은 廣義의 傷寒을 뜻하며 널리 熱性病을 말함.

熱服(열복)

熱劑를 熱服하는 것을 大한증에 적용되고 한제를 열복하는 것은 가한 진열증에 적용된다(승암존생서에 있음)

熱伏衝任(열복충임)

熱邪가 衝脈과 任脈에 潛伏함을 말함. 熱이 衝·任 二脈에 潛伏하면, 陰精이 暗耗되고, 腎陰이 虧損되며, 或은 迫血妄行하게 된다. 臨床表現은, 低熱 腰痠通 下腹疼痛 子宮出血 等이다.

熱痺(열비)

痺證의 類型的 하나이다. 臨床表現은 關節이 紅腫熱痛하고 通常 發熱 惡風 口渴 胸悶 等の 全身症狀를 隨伴한다. 病因은 本來 蘊熱이 있는데다가 다시 風寒을 感受하여 熱이 寒鬱이 되어 氣機가 不通하며 오래되면 寒이 또한 火熱하며 或은 風寒濕의 邪가 經絡에 滯留하여 오래되면 化熱해서 發病한다.

熱瀉(열사)

熱이 大腸을 迫하여 惹起된다. 「火瀉」라고도 함. 主要症狀은, 죽과 같은 黃白色의 便을 瀉下하며, 或은 粘膩한 것이 섞이고, 惡臭가 나며, 腸鳴腹痛하고, 痛이 一陣한 후에 한 바탕(一陣)瀉하고, 瀉後에도 後重感이 있으며, 肛門이 灼熱하고, 小便이 短赤하며, 口渴하고, 苔黃하며, 脈數한 等症을 나타낸다.

熱邪傳裏(열사전리)

溫熱의 邪가 外表에서 풀리지 않고 裏로 向해 傳入되며, 或은 風寒濕燥 等の 外邪가 一定한 條件下에서 化熱하여 入裏하는 것을 말함. 그 特徵은, 惡風 惡寒등의 表證이 消失되고, 裏熱證狀으로 例컨대 高熱日赤, 胸中煩悶, 口渴引飲, 煩躁, 甚하면 譫語를 發하고, 大便秘結, 小便短赤, 舌紅苔黃, 脈數 等を 나타낸다.

熱邪阻肺(열사조폐)

熱邪가 肺를 壅阻하여 喘咳이 發하는 病理을 말함. 主要症狀은, 發熱, 咳嗽, 痰稠黃, 或痰中帶血, 甚하면 呼吸促迫하고, 胸脇作痛, 舌邊尖紅, 苔黃乾, 脈洪數或弦數 等이다. 氣管支炎, 肺炎 等症에서 多見된다.

熱傷筋脈(열상근맥)

高熱 혹은 久熱로 因해 營陰을 灼傷하여, 筋脈이 그 濡養을 잃게 되어, 四肢拘攣 癱瘓 등을 出現하는 것이다.

熱傷神明(열상신명)

熱性病에서, 過熱로 因해 神昏譫語 意識障礙 等の 症狀을 出現할 때 일반적으로 「熱傷神明」이라 하며, 「熱入心包」와 意義가 대체로 같다. 다만 「熱入心包」는 病變部位에 對해 말한 것이고, 「熱傷神明」은 精神의 病狀에 對해 말한 것으로, 表現이 다를 뿐이다.

熱傷肺絡(열상폐락)

肺의 絡脈이 火熱로 因해 傷하여, 咳血 或은 咯血을 惹起하는 病理을 말함. 臨床上, 實熱과 虛熱로 나뉜다. 實熱은 대개 外邪가 鬱하여 化熱해서, 肺絡을 熱傷하거나 或은 肝臟實火가 肺로 上迫하기 때문이며, 咯血量多, 發熱面赤, 舌紅苔黃, 脈多滑數을 나타낸다. 虛熱은 대개 平素 肺腎이 陰虧하여 虛火가 肺를 灼하기 때문이며, 咯血量少하고 或은 다만 痰中帶血하며, 低熱, 午後潮熱, 兩顴潮紅, 咽喉乾燥, 舌質嫩紅苔少, 脈細數 等を 나타낸다.

熱盛氣分(열성기분)

氣分の 熱勢가 熾盛함을 말함. 主要症狀은 壯熱 面赤 心煩 大汗 口渴舌苔黃乾 脈洪大 등이다. 만약 더 病進하여 邪熱이 結實하면, 午後에 熱이 높고, 煩燥하며, 심지어 神昏 譫語 腹痛便秘 舌苔黃燥 등을 나타낸다.

熱盛風動(열성풍동)

「熱極生風」이라고도 함. 病機는 대개 熱邪가 太甚하여, 營血에 損傷을 끼쳐, 肝經을 燔灼하므로 이루어진다. 病이 아직 發展하지 않고, 衰竭되기 前에는 대개 實證에 屬하며, 小兒의 高熱 驚厥 및 流行性腦膜炎, 乙型腦炎, 中毒性痢疾 敗血症 등에서 多見된다. 「風火相煽」의 項 參照.

熱勝則腫(열승칙종)

「素問·陰陽應象大論」에 있음. 陽熱이 偏勝하여 腫痛이 出現하는 病理을 말함. 熱은 陽邪에 屬하며, 陽氣를 內鬱케하고, 血脈을 壅滯시키므로, 紅腫이 發生한다. 例컨대 癰瘡 皮膚炎症 등의 病症이다.

熱甚厥甚(열심결심)

熱厥證의 一種의 病理現象이다. 溫熱病로, 高熱이 持續不退하면 突然 手足이 逆冷하고 昏迷하여 人事不省이 된다. 이는 正氣가 傷하고 熱邪가 潛伏하므로, 陽氣가 邪熱에 抑阻되어 四肢(사지)로 透達하지 못하기 때문이며, 熱厥이라 한다. 熱邪가 더욱 深伏하면 手足厥冷의 程度가 한층 심해진다. 이를 熱甚厥甚이라 한다.

熱遏(열알)

「熱鬱」의 項 ② 參照.

熱鬱(열울)

①六鬱의 하나. 情志不舒 肝氣鬱結으로 인해, 氣鬱이 熱로 化하여, 頭痛 口乾口苦 情緒躁急 胸悶脇脹 嘈雜吞酸 大便秘結 小便短赤 或은 目赤耳聾 舌紅苔黃 脈弦數 등이 나타난다. ②熱邪가 內部에서 鬱하여 透泄이 不能하다는 뜻. 故로 「熱遏」이라고도 함. 遏은 阻遏을 뜻함.

熱因熱用(열인열용)

反治法의 하나이다. 內部에 眞寒이 있고, 外表에 假熱이 있는 證狀을 治療하는 方法을 말함. 病의 實質은 眞寒인데 假熱의 現象을 나타내는 것으로, 즉, 內部는 眞寒이고 外表가 假熱인 경우, 모름지기 溫熱藥을 써서 治療해야 한다. 例컨대 病人이 四肢逆冷, 下痢青穀, 脈沈細하고, 面頰浮紅, 煩躁, 口渴欲冷飲(그러나 마시게 하면 不欲飲한다) 등 證을 發하는 경우, 그중의 四肢逆冷, 下痢青穀, 脈沈細는 眞寒의 症狀이고, 面頰浮紅, 煩躁, 口渴欲冷飲은 假熱의 證狀이다. 白通湯을 써서 煎成 冷服해야 한다. 熱은 假象이고, 寒이 病의 實質이므로 熱藥을 써서 解決해야 한다.

熱因寒用(열인한용)

熱因熱用의 項 參照.

熱入心包(열입심포)

溫邪가 化熱 入裏하여, 高熱 神昏 譫語 或은 昏沈不語 等症을 出現하는 것을 熱入心包라 한다. 이는 「逆傳心包」와 症狀이 대체로 같은데, 病情의 傳變에 差異이 있다. 昏迷 驚厥이 여러날 持續되어 清醒하지 않는 것을 「邪戀心包」라 한다. 「戀」 留戀不去하는 것으로, 病邪가 心包에 留戀하는 것이다. 「邪戀心包」는 대개 痰의 現象을 兼有하며, 또 後遺症을 나타내기 쉽다.

熱入血分(열입혈분)

邪熱이 血分으로 侵入하는 病機를 말함. 「血分」은 溫熱病의 傳變중 가장 深入하는 層이다. 대개 營分病에서 發展하여 血分으로 傳來하여, 發熱이 언제나 夜間에 더 높고, 神志昏沈 躁擾不安하고, 甚하면 抽搐을 나타낸다. 斑疹 出血 或은 傷陰의 證을 나타내는 것이 그 特徵이다.

熱入血室(열입혈실)

「傷寒論·辨太陽病脈證并治法」에 있다. 婦女가 月經期間中에 外邪를 感受하여 邪熱과 血이 相互 搏結되어 나타나는 病證을 말한다. 臨床表現은 下腹部 或은 胸脇下가 硬滿하고, 不定期로 寒熱이 往來하며, 夜間에 亂話を 하기도 하고, 精神異常 等を 나타낸다. 先人은 「血實」에 대하여 三種類로 解釋하였다. (1)衝脈을 말함. 衝脈은 十二經脈의 海이며, 女子의 太衝脈이 盛하면 月經이 來潮하는 것으로 認識하였다. (2)肝臟을 말함. 肝은 血海를 主하고, 藏血을 主하며, 病變이 脇下 少腹에 미치는 것으로 認識하였다. (3)子宮을 말함. 發病과 月經의 關係이 있는 것으로 認識하였다. 「傷寒論」의 原文을 臨床實際와 連繫시켜 理解한다면, 血室은 子宮을 말한 것 같다.

熱者寒之(열자한지)

「素問. 至眞要大論」에 있음. 證候가 熱에 屬하는 것은, 寒冷性藥物을 써서 治療한다는 뜻이다. 熱證에는 表熱, 裏熱, 虛熱, 實熱等の 差異가 있다. 實熱이 表에 속하는 境遇는 [辛涼解表]의 方法으로 透邪하며, 이에 屬하는 경우는 清法을 쓰며, 虛熱에는 滋陰法을 써서 退熱시키거나 或은 甘溫除大熱等法을 쓴다.

熱灼腎陰(열작신음)

熱性病의 後期에 腎陰이 邪熱에 消耗되어, 低熱, 手足心灼熱, 口齒乾燥, 耳聾, 舌光絳乾枯, 脈細數或虛數 等症을 나타냄을 말함.

熱劑(열제)

「熱能去寒」로, 乾薑, 附子의 類이다. 즉 熱藥으로 寒證을 治하는 것이다. 例컨대, 四肢寒冷, 怕冷, 四肢屈曲而睡眠, 水瀉, 不消化食物의 排出, 口不渴, 脈沈細無力한 경우, 四逆湯(附子, 乾薑, 甘草)을 쓴다.

熱中(열중)

① 熱邪가 腸胃에 滯留함을 뜻함. ② 消瘴의 別名이다. ③ 風病의 一種이다. 風邪가 陽明胃經을 侵犯하여 熱로 化해서 目黃을 主症으로 하는 것.(素問·風論)

熱證(열증)

熱邪로 因해 惹起되는 陽氣의 亢盛(正氣가 抵抗하는 反應이 强盛함)으로 나타나는 一連의 熱의 證候이다. 例컨대 身熱, 煩躁, 面目紅赤, 不惡寒하고 도리어 惡熱하며, 口乾咽燥, 渴喜 冷飲, 脣紅乾, 大便秘結, 小便短赤, 舌質紅 苔乾黃或乾黑, 脈數 等이다. 感染性疾患 및 身體機能代謝活動의 過度한 亢盛(陽盛)으로 發生하는 疾病에서 多見된다.

熱瘡(열창)

高熱의 經過중에 皮膚粘膜에 水疱가 생기는 證候이다. 上脣의 外圍에 多發하며, 水疱가 群像으로 簇生하여, 胡麻 或은 綠豆大로 크기가 일정하지 않고, 約1週日前後에 消退되는데, 再發하는 傾向이 있다. 風熱이 肌表를 外襲하거나 或은 肺胃의 熱이 盛하여 熏蒸하기 때문에 생긴다. 單純疱疹의 類이다.

熱則氣泄(열칙기설)

「炅則氣泄」의 項 參照.

熱汗(열한)

發熱時의 發汗을 말함. 汗出해도 熱이 不退하거나 或은 退熱하여 다시 發熱할 때 나타나며 口渴, 煩躁, 面紅, 目赤, 大便秘結, 小便短黃, 舌質紅, 苔黃乾, 脈數等의 熱性證候를 隨伴한다. 대개 風邪가 化熱하거나 或은 內熱이 蒸迫한 所致이다.

熱烘(열홍)

열홍법은 병변부위에 도포한 후 다시 火烘법을 가하는 것이다. 鵝掌風 파裂瘡 慢性濕疹 牛皮鮮등의 皮膚乾燥癢痒疾患에 적용된다. 매일 일회 매회 약20분 시료하며 끝나면 약을 제거한다. 이 치법은 비교적 오랜 치료를 계속해야만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일절의 급성피부병에는 금용한다.

熱哮(열호)

哮證의 項 參照.

廉(염)

古代解剖學의 術語로서 側 혹은 面의 뜻. 上廉은 上側(上面), 內廉은 內側(內面)을 말함. 例:上肢의 內廉은 軀幹部分에 接하는 屈側이다. 餘他는 類推할 수 있다.

鹽灸(염구)

灸의 項 參照

斂陰(염음)

陰氣를 收斂하는 方法이다.陰津이 耗散되고 病邪가 이미 衰退한 症候에 適用된다.이 種類의 藥物의 味는 대개 酸澁하다.例컨데 熱性病에 熱이 退하고 辛涼하여 餘邪가 이미 淸解되어 飲食이 增進되는데 夜間에 아직 虛寒이 있는 경우 山茱萸,五味子を 止汗劑中에 加하여 쓰면 좋다.

捻轉補瀉(염전보사)

針刺手法의 一種이다. 그 구체적조작은 단일방향을 향해 염전하는 경우와 좌우를 향해 염전하는 경우가 있다 현재 一般的으로 염針의 강도를 기준으로 하여 進針과 出針시의 강한 염전을 사법으로 삼고 경미한 염전을 보법을 삼는다.

臙瘡(염창)

脛骨部位에 생기는 潰瘍을 말함. 外側에 생기는 것을 「外臙瘡」이라고 하고, 內側에 생기는 것을 「內臙瘡」이라고 함. 外臙瘡은 足三陽經의 濕熱이 結聚됨으로써 생기고, 內臙瘡은 三陰經의 蘊濕에, 血分虛熱이 兼發함으로써 생긴다. 局部에는 항상 破損 或은 濕疹 等の 病歷이 있다. 患部에 처음에는 痒痛紅腫이 생겨, 消破하면 乳汁性膿이 되고, 甚하면 腐敗되며, 重證이 되면 骨質에 까지 미치고, 오래 收口되지 않는다. 「外科大成」에서는 外斂創은 易治이고, 內臙瘡은 難瘥라 하였다. 現在는 下肢潰瘍이라 通稱한다.

捻針(염침)

轉針이라고도 함 針을 좌우로 반복해서 염전하는 方法이다 염針은 進針과 出針 그리고 手法操作面에서 모두 사용된다.

染苔(염태)

舌苔가 飲食物 或은 藥物로 染色되어 본래의 苔色이 變한 것을 말함. 診察시에 반드시 注意하여 假象을 排除해야 한다.

斂肺止咳(염폐지해)

久咳하며 肺虛한 것을 치료하는 方法이다. 肺虛하여 咳창이 日久하고 痰少 呼吸促迫 自汗 口舌乾燥 脈虛而數한 경우 五味子湯(黨參,五味子,麥門冬,杏仁,橘紅,生薑,紅棗)을 써서 치료한다.

斂汗固表(염한고표)

陽虛로 인한 自汗이나 혹은 陰虛로 인한 盜汗을 治療하는 方法이다. 예컨데 양허로 인한 자한으로 心悸 呼吸氣短 苔少 脈大無力한 경우는 牡蠣散(황기,마황근,모려,浮小麥)을 쓴다. 음허로 인해 야간 수면중에 도한하고 午後低熱 口乾 脣燥 舌質紅 脈細數한 경우는 六味地黃湯(熟地黃,산수유,乾山藥,澤瀉,白茯苓,牡丹皮)에 白芍藥 牡蠣 浮小麥 烏稻根鬚 등을 가해서 쓴다.

營(영)

①飲食物에서 化生된 精微物質 素問 痺論에서 “營者 水穀之精氣也”라 하였다. 이들 物質이 脾胃 氣化作用을 통하여 肺로 上注되어 經脈속을 運行해서 臟腑와 身體의 其他組織에 골고루 分布된다. ②經脈의 脈管을 말함. [靈樞經脈篇]에서 “脈爲營”이라 하였다. 여기서의 營에는 營舍의 뜻이 있으며 血氣가 所在하는 곳이다.

癭(영)

癭氣라고도 함. 甲狀腺腫大에 屬하는 疾病이다. 대개는 鬱怒憂思의 過度, 肝의 條達機能失調, 膽氣의 頸部凝結에 起因하며, 或은 生活環境이나 飲水와도 有關하다. 그 形狀이나 性質의 差異에 따라서, 肉癭, 筋癭, 血癭, 氣癭, 石癭등 五種類로 나뉜다. 各 項을 參照.

榮枯老嫩(영고노은)

舌質을 望診하는 基本內容에 屬한다. 榮은 舌體가 明潤함을 말하며, 津液이 充足함을 表示한다. [枯]는 舌體의 乾故로서, 津液의 異常을 表示한다. 舌體가 瘦薄 乾枯한 것은 대개 久病의 氣血虧損에 屬한다. [老]는 舌體의 形色이 堅險하고 乾枯함을 뜻하는 것이며, 實證에 屬한다. [嫩]은 舌體의 形色이 浮胖 嬌嫩함을 말하며, 虛證에 屬한다. 舌體가 淡紅 胖嫩함은 陽虛이고, 舌體가 瘦薄 鮮紅한 것은 陰虛에 屬한다.

靈龜飛騰(영귀비등)

靈龜八法 沸騰八法이라고도 함 古代針灸取穴의 一種의 穴法이다. 기경팔맥중의 팔개穴位를 각이한 일 시의 간지와 배합해서 어느 날 어느 시에 어떤 穴位(매회의 針灸에 주혈 배혈 각1개를 취함)를 應用할 것인가를 추산하는 方法이다. 이러한 方法은 臨床應用上 一定한 效果가 있을지라고 전체적으로 볼때 그중에는 형이상학적냉요이 포함되었고 또한 기계적인 治療공식을 채택하고 있으며 비판적인 태도로서 대처해야 할 것이다.

靈龜八法(영귀팔법)

靈龜沸騰의 項 參照

營氣(영기)

脈管중에서 運行되는 精氣로서, 水穀에서 生하며, 脾胃에서 來源하고, 中焦로 出하며, 그 性質이 柔順하고, 血液을 化生하여 全身을 營養하는 作用을 한다. 營氣의 運行은 中焦에서 手太陰肺經으로 上注된 후, 全身의 經脈을 通하여 끊임없이 運轉해서 人體의 上下 內外 各個部分을 營養한다. 그러므로 生理的인 觀點에서 말한다면, 營氣는 血液의 作用을 뜻한다.

癭氣(영기)

癰의 項 參照.

營氣不從(영기부종)

血脈 속의 營氣의 運行이 阻碍되어 癰腫이 出現하는 病理을 말한다. 「素問·生氣通天論」에서, “營氣不從 逆於肉理 乃生癰腫”이라 하였다. 營氣는 經脈의 內部를 流通하는데, 만약 邪氣가 侵襲하거나 혹은 長期的로 膏粱厚味를 恣食함으로써 熱毒이 內阻하여 營氣의 運行이 順暢하지 못해서, 肌肉의 內面에 瘀阻되고, 血鬱熱聚하여, 오래 되면 化膿해서 癰腫을 形成한다.

營分(영분)

營分證의 項 參照.

營分證(영분증)

溫熱病의 邪氣가 內陷한 深重한 段階로서, 大概 氣分證에서 傳變되며, 衛分證에서 逆傳하기도 한다. 臨床表現은, 高熱, 夜間熱甚, 心煩不寐, 或은 神志不清, 譫語, 斑疹隱現, 舌質絳, 苔黃燥, 或乾灰, 脈細數 等이다. 營分은 氣分과 血分사이에 介在한다. 營은 血中の 氣이며, 營氣는 心으로 內通하고, 病邪가 營分에 이르면, 正氣가 支撐하지 못하여, 邪氣가 深入해서, 心包를 威脅하여, 神志에 影響을 미치고, 或은 厥陰肝經에 病이 波及된다. 疾病이 衛分에서 氣分으로 傳變하면, 病情의 好轉을 標示하며, 營分에서 血分으로 傳入하면 病情의 深重을 標示한다.

迎隨補瀉(영수보사)

針두補瀉 針망補瀉라고도 함. 古代針刺手法의 一種이다 . 즉 針刺시에 針침을 經맥의 順行方向(手三陰經은 胸部에서 手부에 이르고 手三陽經은 手部에서 頭部로 이르고 足三陽經은 頭部에서 足부에 이르고 足三陰經은 足部에서 胸部에 이른다)에 連하여 進針하고 操作하는 것을 수라 하며 보법이다 針刺시에 針침을 經맥의 순행방향과 역으로 해서 進針하고 조작하는 것을 영이라 하며 이것이 사법이다.

嬰兒濕疹(영아습진)

奶癬의 項 參照.

靈藥(영약)

金石藥品을 昇華, 精鍊하여 만든 昇丹 降丹의 總稱이다. 昇丹의 處方은 水銀, 火硝, 白礬, 雄黃, 朱砂 各 5錢, 皂礬, 6錢(小昇丹은 水銀 1兩 火硝 7錢, 白礬 8錢을 쓸 뿐이다)이다. 白降丹의 處方은 朱砂, 雄黃 各 2錢, 水銀 1兩, 礬砂 5錢, 火硝, 食鹽, 白礬, 皂礬 各 1兩 5錢이다. 昇丹의 紅色인 것을 紅昇丹이라 하고, 黃色인 것을 黃昇丹이라 한다. 昇丹은 原料가 되는 藥物을 아래의 容器에 넣고, 昇華된 藥粉이 위의 容器에 凝集되도록 한다. 降丹은 原料가 되는 藥物을 위의 容器에 넣고, 結晶이 아래의 容器에 凝集되도록 한다. 昇丹, 降丹의 製法은 비교적 複雜하다.

營衛氣血(영위기혈)

營衛氣血은人體의生命活動의過程에서必需的인物質이며,動力의基礎이다.氣血은經脈中을不斷히循環運行한다.營衛는水穀之精氣에서來源하며,그生成에는一系列의臟腑의氣化活動을,例컨대脾胃의消化運輸,心肺의氣化輸布를거쳐야하며,그然後에各其人體各部를營養한다.故로靈樞營衛生會篇에서,“穀入於胃以傳與肺五臟六腑皆以受氣其清者爲營濁者爲衛”라하였다.여기서말한清과濁은主로機能上的差異에서말한것이다.清은營氣의作用이比較的柔和한것을,濁은衛氣의作用이慄悍滑利하고이르지않는곳이없음(無所不到)을말한것이다.衛主氣하고,營主血하며,衛는陽에속하고營은陰에속하며,陽은外를主管하고陰은內를主管한다.故로그所在位置에서말하여,“營行脈中,衛行脈外”의說이있는데,이것이비록絶對的이아닐지라도,營과衛가在內하고在外하는概念上的差異를說明하고있다.作用面에서말하면,衛에는外에서防禦하는保衛作用이있고,營에는內에서充盈하여營養作用이있다.一般的으로말하여,營衛는主로機能作用面에서體現되며,氣血은主로物質的基礎面에서體現된다.氣血의運行을通하여營衛의作用이發揮된다.그러므로素問陰陽應象大論에서,“陰在內陽之守也,陽在外陰之使也”라하였다.陰은營血을뜻하고,陽은衛氣를뜻한다.이들陰陽,內外,守(內守)使(運行)등의相對的인概念의名詞는營衛氣血間의相互依存關係를말해주는것이다.靑代의葉天士의溫熱論은,이基礎위에서溫病의轉變은衛氣營血의4段階로나누어,臨床上辨證施治의綱領으로삼았다.衛氣營血辨證의項參照.

營衛不和(영위불화)

「傷寒論」에있음.「衛」는體表를防禦하는陽氣이고,「營」은汗液의物質的基礎이다.營衛不和는一般的로表證自汗의病理을말하는것이다.表證自汗에는두가지情況이있다.하나는「衛弱營強」이다.衛外하는陽氣가虛弱하므로外固하는能力을잃게되어汗液이自行溢出한다.臨床表現은身體에發熱이없는데,때로自汗出한다.또하나는「衛強營弱」으로,陽氣가肌表에鬱하여,營陰을內迫해서汗自出한다.臨床表現은,때로發熱하면서自汗하고,發熱하지않으면無汗하다.強과弱은相對的인것으로,治法은桂枝湯을써서扶正祛邪하여,營衛를調和시킨다.但,服藥時間에區別이있다.發熱時自汗하는데는發熱前에服藥해야하며,無熱自汗에는服藥時間에拘碍받지않는다.

鈴醫(영의)

走方醫라고도함.옛날에는廣대한農村을돌아다니는한가지特技가있는醫員이있었는데,이들은종을치면서患家를불러모았으므로이렇게이름한다.이들의醫術은대개스승으로부터口傳되것이며각기特徵이있었다.往往小數의草藥과간편한醫療方法을써서病을治療하여效果를거두었다.그런데개중에는돌팔이도있었다.

營血(영혈)

生理的觀點에서 말하면 營血은 血液을 말한다.

翳(예)

黑睛部分이 疾病으로 因해 그 透明光豪한 特性을 喪失하고 이에 癍痕組織이 가리워 輕重 各樣으로 視力을 障蔽한다. 이러한 病症을 [翳]라 한다.

銳骨(예골)

兌骨이라고도 함. 手腕部の 手背側의 小指에 가까운 骨隆起部. 解剖學上的 尺骨莖狀突起이다.

銳毒(예독)

疔疽의 項 參照

銳髮(예발)

『兌髮』의 項 參照.

銳眚(예자)

外眚의 項 參照.

穢濁(예탁)

汚穢 混濁의 뜻. 대개 「濕濁」 혹은 腐敗汚穢之氣 및 「山風瘴氣」등을 形容하는데 쓰임. 또한 어떤 病人의 排泄物 分泌物 혹은 身體에서 發散되는 特殊한 氣味를 形容하는데 쓰임.

熬(오)

熬에는 煮爛 혹은 煎乾이 있다. 1)煮爛 : 예컨대 저피湯(張仲景의 傷寒論方이다 猪膚 1斤 用水 1斗 煮取 5升 去滓 加 白蜜 1升 白粉 5合 熬香 和均)의 熬香은 香기가 날때까지 煮爛하는 것이다 2)煎乾 : 예컨대 煎膏藥을 熬膏藥이라고도 하며 藥物을 麻油에 넣고 煎熬하여 조수하고 응고한 膏로 만든다.

五疳(오감)

疳證을, 主要한 臟腑의 病變에 따라 五種의 類型으로 나눈 것이다. 즉 心疳, 肝疳, 脾疳, 肺疳, 腎疳이다. 詳細한 것은 各項을 參照.

五決(오결)

[素問,五臟生成篇]에서 “所謂五決者 五脈야”라 하였는데, 이것은, 疾病을 診察할때, 五臟

의 脈象의 變化와 結合시켜, 病情의 輕重과 豫後の 吉凶을 判斷해야 한다는 것이다.

五更瀉(오경사)

「溫補命門」의 項 參照.

五更泄(오경설)

「晨泄」, 「腎泄」이라고도 함. 매일 未明時에 腸鳴泄瀉하므로 「晨泄」이라 한다. 發病原因은, 主로 腎陽虛와 命門火의 不足으로, 脾胃를 溫養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腎泄」이라고도 한다.

五穀(오곡)

五穀의 解釋은 多樣하다 素問 臟氣法時論의 王冰註에서는 更米 小豆 麥 大豆 黃麥이고 小豆에는 많은 種類가 있다고 되어 있다.

五穀之府(오곡지부)

「胃」의 項 參照.

五過(오과)

素問疏五過論에 있음. 의사가 치료에 있어서 범하는 오종의 과실을 말함. 1)병인이 직업이나 지위의 변화로 인해 발생한 情志면의 질병을 의사가 그 발병원인을 모르고 멋대로 처리하는 것. 2)병인의 생활환경 사상정서를 이해하지 못하고 어떤 증후를 보해야 하고 사해야 하는지 알지 못한 채 치료를 망시하여 인체의 정기를 나날이 허모케해서 사기가 침입하게 된다. 3)진단을 잘하는 의사는 반드시 증후를 분석하여 정상과 이상을 구별한다. 동명동형의 병증을 비교분석하면 비슷한 가운데서 차이점을 찾게 된다. 의사는 태도를 침착하게 하여 상세하게 깊이 심찰해서 변별하기 어려운 병증에서 이동을 변별한다. 만약 의사가 이러한 진찰방법을 모르면 과실이 된다. 4)진병에는 먼저 精氣神을 관찰하고 또 병인의 생활환경과 정서의 변화로 인해 *병함을 이해해야 한다. 의사가 병인을 규명하지 못하고 병인의 정신상태의 개변을 모르며 또 병인의 호악에 순종한다면 치료의 착란이다. 5)질병의 診治에는 반드시 질병의 개시에서부터 현재에 이르는 사이의 음양의 속성과 발병의 기타정황을 알아야 한다. 절맥뿐만 아니라 병명도 정확해야 하며 남녀의 각이한 정상맥과 병맥을 서로 비교하여 정서와 오장기혈과의 관계를 알아야 한다. 의사가 만약 이런 것을 명확히 하지 않으면 병정이 날로 중해져 병의 예후가 나쁘다고 말할 수 밖에 없다. 이것이 좋지 않은 의료작풍이다.

五官(오관)

①五臟과 상연되는 감각기관을 말함. 즉 비·안·구순·설·이이다. 소위 “ 비자폐지관야, 목자간지관야, 구순자비지관야, 설자심지관야, 이자신지관야”(영추·오예오사편). ②진단적 의의에서 말하면 간주청색, 심주적색, 비주황색, 폐주백색, 신주흑색의 이론에 근거하여 五臟에 유병할 때 망진으로 병색을 볼 수 있으며 동시에 상응한 증후의 발현을 알 수

있다. 예컨대 폐병에는 비익번동이 상견되고 肝病은 目이 發靑하며, 비病은 구순이 發황하고, 심病은 설이 권단되고 관부가 발홍하며, 신병은 안광이 암흑하거나 관·안면부에 모두 암청흑색을 나타낸다. 또한 「영추·오색편」에서 “ 청흑위통, 황적위열, 백위한, 시위오관”이라 하였다. 여기서의 「오관」의 의의는 진단의 의의에서 말한 것이다.

五禁(오금)

『五味所禁』의 項 參照.

五禽戲(오금희)

古代의 一種의 醫療體育이다. 화타의 戶樞不** 流水不腐(문지도리는 좀슬지 않고 유수는 썩지 않는다.)라는 思想의 지도하에 虎 鹿 熊 猿 鳥의 動作이나 姿態를 模倣하여 단연을 해서 筋骨을 活動하고 氣血을 疏通시키며 體質을 增強시켰다. 이것이 五種類의 禽獸의 動作을 模倣한 것이므로 이렇게 이른다.

懊懣(오노)

「傷寒論」에 있음. 汪必昌의 「醫階辨證」에서, “懊懣之狀 心下熱如火灼不寧 得吐則止”라 하였다. 이는 胸膈間에서 一種의 燒灼嘈雜感을 自覺하는 症狀이다. 病變部位가 胸膈心窩部位이므로 「心中懊懣」라고도 한다. 病因은 대개 表證에서 發汗을 제대로 하지 못했거나, 或은 瀉下法을 誤用하므로, 外邪가 入裏해서 胸膈에 滯留하여, 胃腑를 擾亂시킨所致이다. 急性熱病 或은 胃腸炎의 病程에서 볼 수 있다.

五苓散(오령산)

「溫陽利濕」의 項 參照.

五勞(오로)

①心勞·肝勞·脾勞·肺勞·腎勞등 五臟勞損의 病證. 「證治要訣」에서 “五勞者 五臟之勞也”라 하였고, 「醫學綱目」에서 “何謂五勞 心勞血損 肝勞神損 脾勞食損 肺勞氣損 腎勞精損”이라 하였다. ②五種類의 勞苦와 安逸의 不當으로 因해 惹起된 損傷. 「五勞損傷」의 項 參照.

惡露(오로)

産後 陰道에서 排出된는 瘀濁敗血物을 말함. 이들 血性的 液體에는 血, 粘液 및 壞死한 子宮內膜組織 등이 含有되었다. 처음에는 若干의 小血塊가 섞여, 색깔이 紫紅色인데, 後에는 暗紅色의 液體가 滲出될 뿐이며, 一般的으로 二週間정도면 깨끗해 진다.

惡露不絕(오로부절)

産後, 2~3週間을 지나도 惡露가 깨끗이 그치지 않는 것을 말함. 「惡露不止」라고도 함. 原因은 主로 세 가지이다. 하나는, 平素 體質이 虛한데다가 産後의 氣血虛損이 加해져서, 氣虛로 因해 血을 統攝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둘째는, 瘀血이 內阻하여 新穴이 歸

經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세제는 血熱이 內鬱하여, 迫血 妄行하기 때문이다. 氣虛에 起因한 境遇는, 面色이 蒼白 或은 萎黃하고, 心身이 疲倦하며, 腰痠하고, 腹脹하며, 下墜感이 있으며, 惡露가 淸稀하고 냄새가 없는 等症을 나타낸다. 血瘀에 起因한 境遇는, 面色이 暗紫色이고, 小腹이 疼痛하며, 惡露가 紫色을 띠고 或은 血塊가 섞이는 等症을 나타낸다. 血熱에 起因한 境遇는, 面色이 潮紅하고, 口舌이 乾燥하며, 惡露가 鮮紅하거나 或은 深紅色을 띠며, 臭穢氣가 나는 等症을 發한다.

惡露不止(오로부지)

「惡露不絕」의 項 參照.

惡露不下(오로불하)

胎兒를 娩出한 後, 子宮內에 遺留된 濁液敗血이 排出되지 않거나 或은 아주 적게 排出되는 것을 말함. 主로 氣滯 或은 血瘀의 所致이다. 氣滯에 속한 境遇는, 小腹이 脹甚하고 疼痛하며, 胸脇이 脹滿하고, 脈弦한 兼證이 나타난다. 血瘀에 屬한 境遇는, 小腹이 疼痛하여 拒按하고, 痛處를 만지면 硬塊가 있으며, 脈이 대개 沈澁한 兼證이 나타난다.

五勞所傷(오로소상)

勞苦와 安逸의 不當으로 因해 氣血筋骨의 活動이 失調되어 惹起되는 五種類의 損傷. 「素問·宣明五氣篇」에서 “久視傷血 久臥傷氣 久坐傷肉 久立傷骨 久行傷筋 是謂五勞所傷”이라 하였다.

五輪(오륜)

眼科의 一種의 學說이다. 눈을 外周에서 中心을 向하여 肉輪, 血輪, 氣輪, 風輪, 水輪의 5개 部位로 나누어 이로써 局部와 內藏과의 相關적인 生理病理를 설명함과 아울러 眼疾患의 診斷과 治療의 根據로 삼는다. [肉輪]은 上胞(瞼)과 下胞(瞼)에 있으며 胞瞼(눈꺼풀)은 藏器와의 관계에서 脾에 屬하며 그 疾患은 대개 脾胃와 有關하다. [血輪]은 兩眦(眼角)의 血絡(毛細血管)에 있으며 藏器와의 관계에서 心에 屬하며 心은 血을 主管하므로 그 疾患은 대개 心.小腸과 有關하다. [氣輪]은 白睛(흰자위)이며 藏器와의 관계에서 肺에 屬하며 肺는 氣를 主管하므로 그 疾患은 대개 肺.大腸과 有關하다. [風輪]은 黑睛(검은자위)이며 藏器와의 관계에서 肝에 屬하며 肝은 風木에 屬하므로 그 疾患은 대개 肝.膽과 有關하다. [水輪]은 瞳孔이며 藏器와의 관계에서 腎에 屬하며 腎은 水를 主管하므로 그 疾患은 대개 腎.膀胱과 有關하다. 이 설은 眼科의 일부의 臨床經驗을 總括한 것인데 五行을 常例대로 五輪에 적용한 것이다. 牽強附會의 感이 없지 않다. 應用時에 이를 무리하게 적용할 필요는 없다.

五淋(오림)

石淋, 氣淋, 膏淋, 勞淋, 血淋의 合稱이다. 詳細한 것은 各項을 參照.

五立回春丹(오립회춘단)

丹의 項 參照

五脈(오맥)

五臟의 脈象을 말함. 즉 肝脈弦, 心脈洪, 脾脈緩, 肺脈浮, 緊脈沈이다. 一般的으로 五臟의 機能이 正常이고, 胃氣가 充足하면 和緩하고 均一한 脈象을 나타내어, 弦, 洪, 浮, 沈이 모두 뚜렷하지 않다. 어느 한 脈이 단독으로 出現함은 該當臟氣에 有病함을 表示하며, 그 脈象이 顯著할수록 病도 더 重하다.

五味(오미)

辛苦甘辛鹹의 五種의 藥味를 말함 이밖에 藥味가 뚜렷하지 않으므로 여전히 五味라 하는데 實際는 六味이다 藥味가 다름에 따라 作用도 다르다 辛味는 散行의 作用이 있다 예로서 荊芥는 風寒을 散하고 사인은 行氣하며 川芎은 活血한다. 甘味는 補完의 作用이 있다 예로서 黃기는 補氣하고 阿膠는 補血하며 甘草는 攣急을 緩解한다. 酸味는 收澁의 作用이 있다 예로서 山茱萸는 虛寒을 收斂하고 金櫻子는 流精을 멎게 하며 五倍子는 澁腸하여 久瀉를 멎게 한다. 苦味는 燥燥의 作用이 있다 예로서 黃連은 瀉火하고 大黃은 瀉下通便케하면 蒼朮은 燥濕한다. 鹹味는 軟堅 潤下의 作用이 있다 예로서 海藻와 牡蠣는 나력을 治하면 芒硝는 燥結된 大便의 潤下한다. 淡味는 滲濕하여 小便을 通利하는 作用이 있다 예로서 通초 복령등이다 최근에는 藥미의 차이가 含有된 化學成分과 有關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예컨대 辛味의 藥物에는 대개 揮發油가 含有되었고 酸味의 藥物에는 대개 有機酸이 含有되었으면 甘味의 藥物에는 대개 灰水化合物이 含有되었고 苦味의 藥物에는 알칼로이드 配糖體 혹은 苦味質이 含有되고 있는 등이다.

五味所禁(오미소금)

『五禁』이라 略稱함(素問·宣明五氣篇에 있음). 『禁』은 避 또는 禁忌의 뜻. 五味는 五臟에 歸하므로, 五味의 性에 각각 偏性이 있다. 치우치면 致病하기 쉬우므로 반드시 禁해야 할 바(所禁)가 있다. 辛味는 『氣分』로 잘 走行하는데, 性質이 散을 主하여, 多食하면 氣를 耗損하므로 氣病에는 辛味를 多食해서는 안된다. 鹹味는 『血分』로 잘 走行하는데, 多食하면 血行이 凝澁되므로 血病에는 酸味를 多食해서는 안된다. 苦味는 骨로 잘 走行하며, 이는 心火를 도우므로, 多食하면 火盛하여 腎水를 耗損케 한다. 腎은 骨을 主管하며, 腎은 骨髓를 生하므로 骨病에 苦味를 多食해서는 안된다. 甘味는 肌肉으로 잘 走行하는데, 甘味는 性質이 壅滯하여 多食하면 壅滿되므로 肉病에 甘味를 多食해서는 안된다. 酸味는 筋으로 잘 走行하는데, 酸味는 收斂하여, 多食하면 筋이 拘急되기 쉬우므로 筋病에 酸味를 多食해서는 안된다. 이것이 五味의 偏性이며, 多食하면 病에 不利하므로 『五禁』의 設이 있다.

五味所入(오미소입)

『五入』이라 略稱함(素問·宣明五氣篇에 있음). 五味는 胃에 入하는데, 各其 좋아하는 臟腑가 있다. 즉, 『酸入肝』, 『辛入肺』, 『苦入心』, 『鹹入腎』, 『甘入脾』한다. 『五味所入』은

臨床藥物治療와 有關하다.

五味子湯(오미자탕)

斂肺止咳의 項參照.

五味偏嗜(오미편기)

①五味는 辛·甘·酸·苦·鹹을 말함. 長期的로 五味의 어느 하나를 偏食함은 發病要因의 하나가 된다. 「素問·生氣通天論」에서, “是故味過于酸 肝氣以津 脾氣乃絕, 味過于鹹 大骨氣勞 短肌 心氣抑……”이라 하였다. 그런데 이 說은 五味를 機械的으로 五行에 맞추어 牽強附會의 感이 있다. ②어떤 飲食物의 嗜好가 지나쳐 疾病을 일으킴을 말함.

五不男(오불남)

男性의 生殖能力이 없는 五種의 不育症으로서 天·漏·疝·怯·變을 말함. 「天」은 「天宦」을 말하며, 一般的으로 男性의 先天的인 外生殖器 或은 辜丸의 缺陷 및 第二次性徵의 發育不全을 말함. 「漏」는 精液이 不固하여, 恒常 저절로 遺泄되는 것임. 「疝」은 陰莖 或은 辜丸을 切除한 것임. 「怯」은 陽痿를 말함. 「變」은 「人疴」라고도 하며, 兩性을 具有한 畸型으로서 俗稱 「陰陽人」의 類이다.

五不女(오불녀)

「五不女」은 女子의 先天的 生理缺陷을 말함. 즉, 螺, 蚊, 鼓, 角, 脈의 五種이다. 先人은 이러한 情況을, 生殖能力이 없는 것으로 보고, 이렇게 이름하였다. 「螺」은 陰戶(陰)속에 螺旋紋이 있어서 性交에 障礙가 되는 것이다.(一說에는 「螺」이 「驪」의 誤字라 함. 「螺」(노새)는 수나귀와 암말과의 사이에서 난 雜種으로, 生殖力이 없음) 「문」은 「문음」이며, 선천적 陰道狹小 或은 缺陷의 類이다. 故는 「鼓花」로서, 陰鼓가 팽팽하여 無孔인 듯한 것으로, 處女膜閉症의 類이다. 「角」은 「角花」로서, 陰蒂가 過長한 것으로 陰陽人의 類이다. 「脈」은 女子가 평생 月經이 全無(或은 月經不調)하여 懷妊不能의 症이다.(以上은 모두 「廣嗣紀要 擇配篇」에 있음)

烏痧(오사)

「痧氣」의 項 參照.

五邪(오사)

五種 病邪의 合稱. ①「虛邪」, 「實邪」, 「賊邪」, 「微邪」, 「正邪」 등의 五種을 말함. 이는 五行生克關係에서 五臟이 受病하는 情況을 說明한 것이다. 무릇 病邪가 生我(母)하는 데서 傳來한 것을 「虛邪」라 한다. 病邪가 我生(子)하는 데서 傳來한 것을 「實邪」라 한다. 病邪가 克我(我를 克함)하는 데서 傳來한 것을 「賊邪」라 한다. 病邪가 我克(我が 克함)하는 데서 傳來한 것을 「微邪」라 한다. 臟自體의 屬性과 같은 病邪의 侵犯으로 發病한 것을 「正邪」라 한다(難經·五十·難에 있음). 臨床上, 病邪의 虛·實·微·賊 등의 性質은,

主로 臨床表現의 輕重에 따라 定해지는데, 이에 依據하여 臆지로 適用해서는 안된다. ②風·寒·濕·霧·傷食 등 五種의 病邪를 말함(金匱·臟腑經絡先後病脈證). ③中風(風에 傷함), 傷暑, 飮食勞倦, 傷寒(寒에 傷함), 中濕(濕에 傷함)을 말함(難經·四十九難에 있음).

五邪脈(오사맥)

五邪로 因해 생긴 病이 나타내는 脈象을 말함. 古代에는 五臟간의 病理變化를 설명하는데 썼으나, 지금은 그다지 應用되지 않는다. 例컨대, 肝脈은 弦細하고 長해야 하는데, 肝病으로 浮澁하고 短의 脈象이 나타나는 것은 肺가 肝을 乘한 것이며, 賊邪脈이고, 病情이 險惡함을 表示한다. 만약 肝肺에 洪大하고 散한 脈象이 나타나는 것은, 心이 肝을 乘한 것이며, 實邪脈이고, 可治이다. 만약 肝病에 沈澁하고 滑한 脈象이 나타나는 것은, 腎이 肝을 乘한 것으로, 虛邪脈이고, 비록 病일지라도 易治이다. 만약 肝病에 大하고 和緩한 脈象이 나타나는 것은 脾가 肝을 乘한 것이며, 微邪脈이고 豫後가 比較的 좋다.

五常(오상)

五行으로 代表되는 五種類의 事物의 正常運動을 말함. 「傷寒論」의 序에, “人稟五常 以有五臟”이라 하였다.

五色(오색)

靑,黃,赤,白,黑의 五種 색깔을 말함. 五行學說에 依하면, 이들의 歸類는 다음과 같다. 靑色은 木,肝에 屬하고 黃色은 土,脾에 屬하며, 赤色은 火,心에 屬하고 白色은 金,肺에 屬하며 黑色은 水,腎에 屬한다. 단, 이로써 疾病을 診斷할 때는 반드시 實際와 結合시켜, 病歷 脈證과 서로 參照해야 하며, 臆지로 機械的인 適用을 해서는 안된다.

五色帶(오색대)

婦女의 陰道에서 流出되는 多種의 색깔이 뒤섞인 惡臭가 나는 分泌物을 말함. 대개는 濕熱이 下焦에 증하여 積瘀가 毒이 되어 日久하여 腐敗 所致이다. 五色帶가 發現되면 子宮頸 或은 子宮體의 癌을 고려하여 빨리 診斷해야 한다.

五色痢(오색리)

痢疾로서, 膿血이 섞인 糞便中에 多種의 색깔이 뒤섞였으므로 이렇게 이름한다. 虛證과 實證의 區別이 있다. 實證은, 腸中의 體熱이 未盡한데, 止澁藥을 너무 일찍 使用했거나, 或은 毒이 腸中에 滯留된 所致이며, 臨床表現은 裏急後重이 비교적 甚하고, 脈이 實하고 有力하다. 虛證은, 下痢한 後에 臟腑의 氣가 이미 傷하여, 脾腎이 兩虛한 所致이며, 臨床表現은, 臍下가 急痛하고, 頻繁히 虛坐하여 排便이 안되며, 脈象이 虛하고 無力하다. 만약 腎陰이 虧虛되면, 여러 색깔이 뒤섞인 粘稠한 便을 下痢하며, 滑泄이 대중없이 繼續되고, 臍下部가 急痛하며, 發熱煩渴하고, 病情이 비교적 重하게 된다.

五色五味所入(오색오미소입)

藥物歸經學說의 內容의 하나이다. 이는 古人이 五行學說에서 出發하여 五色 五味와 五

行소소를 토하여 臟腑經脈과 서로 結合시켜 생긴 理論이다. 즉 青色酸味는 木에 속하면 足厥陰肝經 足少陽膽經에 입한다. 赤色 苦味는 火에 속하며 手少陰心經 水太陽小腸經에 입한다. 黃色 甘味는 土에 속하며 足太陰脾經 足陽明 胃經에 입한다. 白色辛味는 金에 속하며 手太陰 肺經 手陽明 大腸經에 입한다. 黑色 鹹味는 水에 속하며 足少陰腎經 足太陽膀胱經에 입한다. 이상의 논법은 五行學說의 影響을 받아 機械的으로 歸屬시킨 것이면 分析批判的으로 對處해야 한다.

五色主病(오색주병)

①五行學說에서 五色을 五臟과 配合시킨 것이다. 즉, 青色은 肝病과 關聯이 있고, 赤色은 心病과 關聯이 있으며, 黃色은 脾病과 關聯이 있고, 白色은 肺病과 關聯이 있으며, 黑色은 腎病과 關聯이 있다. 이 五色은 모두 一般的 情況下에서의 病色이며, 合稱해서 五色主病이라 한다. 단, 其中에는 牽強附會의 痕이 없지 않다. ②後世이 이르러 臨床實踐을 通하여 五色主病의 理論을 發展시켜, 比較的 實際와 附合되게 하였다. 그 歸類는 다음과 같다. 青色은 風病, 寒病, 痛症, 驚風 等과 關聯되고, 赤色은 熱病(虛熱, 實熱을 包括)과 關聯되며, 黃色은 濕熱, 寒濕 或은 血虛와 關聯되고, 白色은 虛證, 寒證과 關聯되며, 黑色은 寒證, 痛證, 勞傷, 血瘀 等과 關聯된다.

五色診(오망진)

望診의 內容에 屬寒다. 즉, 患者의 面部에 나타나는 靑, 黃, 赤, 白, 黑 等, 色澤의 變化에 根據하여 診斷辨證을 進行하는 方法이다. [五色主病], [正色], [病色]의 各 項 參照.

五善(오선)

1) 瘡瘍을 앓은 豫候가 좋은 五種의 現象을 말함. ①起居安寧, 飲食知味. ②大小便正常. ③ 膿稠, 肉色良好. ④ 精神充足, 語音靑朗. ⑤ 服藥後病情好轉. 2) 痘瘡의 豫候가 良好한 五種의 現象을 말함. ① 飲食如商. ② 二便調均. ③ 痘瘡色澤紅滑堅實. ④ 脈靜身涼, 手足和緩. ⑤ 聲音清亮, 舉動安寧.

五泄(오설)

①胃泄, 脾泄, 小腸泄, 大腸泄, 大가泄을 말함(難經·五十七難). ②飧泄, 溏泄, 渴泄, 濡泄, 滑泄을 말함(朱震亨, 「平治會要」).

五聲(오성)

사람의 精神活動과 關聯해서 發하는 呼笑歌哭呻(呻吟)의 五種類의 聲音을 말함. 이는 臟象學說이 五行의 觀點에 依據하여 사람의 發聲活動을 分類한 것이다. 즉, 肺主呼, 心主笑, 脾主歌, 肺主哭, 腎主呻이다. 이러한 分類에도 牽強附會를 隨伴하므로 지금은 그다지 쓰이지 않는다.

五水(오수)

「金匱要略·水氣病脈證并治」에 있음. 水腫病은 五臟이 水氣의 影響을 받음으로써 各異

한 證候를 나타내는 것인데, 心水・肝水・脾水・肺水・腎水로 나뉜다. 主要症狀은 該當項을 參照.

五腧穴[五俞穴,五輸穴](오수혈)

이는 四肢의 遠端(上肢는 肘部以下에, 下肢는 膝部以下)에 있는 常用穴位の 總稱이다. 그중 五臟에 屬하는 (5條의 陰經)穴位로서 各各 5個腧穴, 즉 井・榮・俞・經・合으로서 모두 25穴이 있다. 左右側 모두 50穴을 「臟俞五十穴」이라 한다. 六腑에 屬하는 (6條의 陽經)穴位로서 各各 6個腧穴, 즉 井・榮・俞・經・合穴 외에 하나의 原穴을 加하여 모두 36穴이 있다. 左右側 모두 72穴을 「腑俞七十二穴」이라 한다. 이들 穴位는 臨床上 거의가 비교적 常用되고 有效한 穴位이다(靈樞・本輸篇 및 素問・氣穴論).

五勝(오승)

① 五臟의 氣의 「相勝」을 利用하여 治療의 方法과 原理로 삼는 것. 例:肺(五行上 金에 屬함)의 病症은 脾胃(五行上 土에 屬)를 調補하는 方法으로 治療한다. 所謂 「培土生金」이다. ② 五行의 相克을 뜻함.

五實(오실)

『素問. 玉機眞臟論』에서 “脈盛, 皮熱, 腹脹, 前後不通, 悶瞀 此謂五實”이라 하였다. 이는 五臟에 모두 實熱이 있는 嚴重한 症候이다. 이러한 情況도 治療後, 汗出하고, 二便이 通利하면, 邪氣의 出路가 있는 現象으로서, 病情이 危機를 免한 標識이 된다.

惡心(오심)

泛惡의 項 參照.

五液(오액)

『五臟化液』의 項 參照.

午夜(오야)

「十二時」의 項 參照

五軟(오연)

頭軟, 項軟, 手脚軟, 肌肉軟, 口軟을 「五軟」이라 하며, 또 「胎弱」, 「胎怯」, 「白痴」라고도 함. 發育이 遲緩하고, 智力發育이 不完全함이 特徵이다. 대개는 先天的인 體質의 虛弱, 早産, 或은 後天的인 乳養不足의 所致이다. 大腦發育不全의 軟白痴, 즉 伸舌樣의 愚鈍症의 類이다.

惡熱(오열)

發熱하며, 熱을 두려워한다는(과열) 뜻이다. 外感表證은 一般적으로 發熱惡寒하는데, 表

邪가 入裏(邪가 氣分으로 傳入)하거나 혹은 外感風溫의 경우는 往往 惡寒하지 않고, 도리어 惡熱한다.

五惡(오오)

『五臟所惡』의 項 參照.

五運六氣(오운육기)

「運氣」라고도 略稱함. 「運」은 木 火 土 金 水의 五段階의 相互推移를 뜻하고 「氣」는 風 寒 暑 濕 燥 火의 6種의 氣候轉變을 말함. 古代醫家は 甲 乙 丙 丁 戊 己 庚 辛 壬 癸의 十天干으로 「運」을 정하고 子 丑 寅 卯 辰 巳 午 未 申 酉 戌 亥의 十二地支로써 「氣」를 정하였다. 古人은 五行生克理論과 결합시켜 每年의 氣候變化와 疾病의 關係를 類推하였다. 그런데 그 중에는 牽強附會의 說이 적지 않으며 지금은 그다지 쓰이지 않는다.

五有餘,五不足(오유여,오부족)

素問. 調經論에 있음. 이는 神 氣 血 形 志의 五者의 有餘와 不足을 말함. 臟象學說에 서의 이에 關한. 心藏神, 肺藏氣, 肝藏血, 脾藏肉, 腎藏志의 理論에 根據하지만, 이 五者는 實際로는 五臟의 有餘와 不足을 指稱한다. 有餘는 邪氣가 有餘한 것으로, 實證에 屬하며, 不足은 正氣가 不足한 것으로, 虛症에 속한다. 臨床表現은 다음과 같다. 神이 有餘하면 笑不休하고, 不足하면 悲한다. 氣가 有餘하면 喘咳上氣하고, 不足하면 呼吸不利하고 氣張하다. 血이 有餘하면 怒하고, 不足하면 恐한다. 形이 有餘하면 腹脹하고 二便이 不通利하며, 不足하면 四肢의 隨意運動이 不能하다. 志가 有餘하면 腹脹 泄瀉하고, 不足하면 四肢가 厥冷한다.

五音(오음)

古樂中の 角徵宮商羽의 五個音階를 말함. 五行學說은 五音を 五臟에 配屬시켰다. 病人의 發音의 高亢 低沈 重濁 등으로 五臟의 病變을 推測한다. 즉 肝音은 角, 心音은 徵, 脾音은 宮, 肺音은 商, 腎音은 羽이다. 이것은 牽強附會이므로 지금은 쓰이지 않는다.

五宜(오의)

靈樞五味論에 있음 五種類의 穀 肉 果 菜가 五臟病에 適合한것을 五宜라한다 예컨대 脾病에는 粳米 豆 麥 肉 杏을 먹는 것이 좋다 心病에는 小豆 羊肉 杏을 먹는 것이 좋다 腎病에는 大豆 黃卷 豬肉 栗 藟를 먹는 것이 좋다 肝病에는 麻 犬肉 李 杏을 먹는 것이 좋다 肺病에는 黃麥 雞肉 桃 棗을 먹는 것이 좋다 五宜說은 五行學說에 따른 것으로 그중에는 合理的인 점도 있지만 대개는 牽強附會이다

五入(오입)

『五味所入』의 項 參照.

五刺(오자)

五臟과 유관한 病變에 適應되는 五種의 古代針法이다 즉 1)半刺 2)豹文刺 3)關刺 4)合谷刺 5)輸刺(靈樞 官針篇) 각해당項 參照

五臟(오장)

五臟은 心肝脾肺腎을 포괄한 것 「臟」이란 일반적으로 胸腹腔內的 內部組織이 충실하고 貯藏分泌 精氣製造의 기능을 가진 臟器(所謂 “藏精氣而不瀉”)를 말함. 東醫學의 五臟에 대한 개념은 實質臟器를 뜻하며 또한 주요하게 臟器의 機能活動과 病理變化의 각종 反映을 뜻한다. 그러므로 現代醫學의 同名臟器와 다른 여러 특징이 있다. 예컨대 脾는 消化系統의 일부기능에 해당되며 또한 일부의 代謝機能 및 血液系統과 관련되는 기능 등도 포괄한다. 또 心은 心臟의 實體 및 循環系統과 관련을 맺고 있는 生理機能을 뜻하며 또한 中樞神經系統의 일부활동(精神思惟等)과 기타방면의 기능도 포괄한다. 東醫學은 內臟의 生理作用을 중시함과 아울러 內臟의 病理變化의 反映,內臟間과 形體 各組織間의 연계를 중시한다.六腑와 서로 배합시키기 위해 五臟에 「心包絡」을 加한 것이 所謂 六臟이다. 臟과 腑의 배합 (相互表裏라고도함. 臟은 表 腑는 裏)은 心~小腸, 脾~胃, 肝~膽, 肺~大腸, 腎~膀胱, 心包絡~三焦이다.

五臟六腑咳(오장육부해)

『素問 咳論』에 있음. 咳嗽는 肺臟에 病이 있는 하나의 症狀이다.五臟六腑에 病이 있을 때, 病氣가 肺에 影響을 미치어도 咳嗽를 惹起한다. 한편 咳嗽가 오래 되면, 其他 臟腑의 機能에 影響을 미치어 異常을 일으킨다. 그러므로 古人은 咳嗽의 兼證은, 대개 臟腑의 機能 및 臟腑의 經脈循行徑路和 有關하게 나타나는 것으로 보고, 咳嗽를 五臟六腑로 分類하여 辨證하는 方法을 導出했는데, 肺以外的 其他臟腑(心 肝 脾 腎등)자체에서 咳嗽가 생긴다고 보는 것은 誤解이며 있을 수 없다.

五臟痺(오장비)

痺症이 日久不愈한데 다시금 風寒濕의 邪氣를 感受하여 痺症이 筋脈骨肉皮 등에서 發展하여 그와 相合되는 內臟에 까지 이르러 內臟이 受傷되어 相應하게 出現하는 肝痺 心痺 脾痺 肺痺等이다. 또한 氣血內虛 陰精虧損 或은 陽氣不運行으로 인해 邪氣가 虛를 틈타서 侵襲하여 胸腹에 積聚되기 때문에 생기기도 한다.(素問·痺論等 篇을 參照.)

五臟所惡(오장소오)

『五惡』라 略稱함(素問·宣明五氣篇에 있음). 『惡』는 싫어한다는 뜻. 五臟은 各各 性能과 氣化에 따라 싫어하는 것(所惡)이 있다. 소위 『五惡』는, 『心惡熱』, 『肺惡寒』, 『肝惡風』, 『脾惡濕』, 『腎惡燥』이다.

五臟所藏(오장소장)

주로 精神 思惟 등 各種中樞神經活動이 五臟과 서로 連繫됨을 뜻한다. 두 가지 解釋이 있다. ①心藏神, 肺藏魄, 肝藏魂, 腎藏意, 腎藏志(素問·宣明五氣篇에 있음). ②肝藏魂, 肺

藏魄, 心藏神, 脾藏意와志, 腎藏精과志(難經·三十四難에 있음). 『五臟所藏』의 理論은, 故人이 五行學設에 의해 分類歸納시킨 것으로, 臨床實際와 完全히 附合되지 않을 뿐더러, 사람의 精神活動은 社會性을 떠나서 論할 수 없으므로, 더 分析的이고 批判的으로 對處해야 한다.

五臟所主(오장소주)

『五主』라고 略稱함(素問·宣明五氣篇에 있음). 즉, 心主脈, 肺主皮, 肝主筋, 脾主肉, 腎主骨이다.

五臟化液(오장화액)

『素問·宣明五氣篇』에서, “五臟化液 心爲汗, 肺爲涕(콧물), 肝爲淚, 脾爲涎(군침), 腎爲唾, 是爲五液”이라 하였다. 五液의 由來에 대하여, 清代의 張志聰은, “五臟이 水穀의 津을 受하여 外竅로 淖注해서 五液이 된다”(素問集注)고 하였다. 汗·漏·涎·涕·唾의 五液中, 心은 血을 主管하고, 汗은 血에서 化生하므로 『汗爲心液』이라 한다. 腎經의 一絡은 舌本을 上俠여 舌下의 廉泉·玉英의 二穴을 通해 唾가 되므로 『唾爲腎液』이라 한다. 肝·脾·肺는 各各 目·口·脾로 開竅하여, 淚出於目, 涎出於口, 涕出於鼻하므로, 『淚(泪)爲肝液』, 『연위비액』, 『涕爲肺液』이라 한다.

五積(오적)

積은 胸腹腔에 塊를 形成하는 類의 病證이다. 難經 56難에서 그 發病의 病機, 部位, 形態等を 五臟을 써서 區分하였다. 예컨대 心의 積을 伏梁이라하고 肝의 積을 肥氣라하며 脾의 積을 痞氣라 하고 肺의 積을 息賁이라하며 腎의 積을 奔豚이라 하는 등인데 合稱해서 五積이라 한다. 原文에서 五積에 對하여 各種 症狀을 著述한 바 있는데 肝脾腫大 및 胸腹腔의 腫塊, 積液, 膿腫等の 病變을 包括한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具體的이고 實用的인 治法이 缺乏되었으므로 五積의 이러한 名稱이 現在는 그다지 쓰이지 않고 있다. 各項을 參照.

惡阻(오조)

「妊娠惡阻」라고도 함. 妊娠 二個月前後에 各異한 程度의 反應이 出現하는 것을 말함. 例컨대, 胸悶不舒하고, 惡心嘔吐하며, 飲食냄새를 싫어하고, 食入即吐하며, 頭重目眩 等이다. 古代에는, 「子病」, 「病兒」, 「阻病」등으로 稱하였다. 이는 妊娠期에 常見되는 病症이다. 症狀이 輕微한 것은 正常反應에 屬하며 甚한 境遇는 妊娠이 迅速히 消瘦하게 되며 或은 其他疾病을 誘發하기도 한다. 대개는 妊娠後에 衝脈의 氣가 衝逆하여 胃의 和降機能이 失調된 所致이다. 臨床上 脾胃虛弱, 肝胃不和, 胃熱上衝, 膽濕阻滯 등의 四種類로 나뉜다. 脾胃虛弱에 起因한 境遇는, 脘悶腹脹하고, 嘔吐不能食하며, 口淡無味하고, 倦怠하며, 酸味와 辛辣 食物을 좋아하고, 때로 清涎을 吐하는 等症을 發한다. 肝胃不和에 起因하는 경우는, 嘔吐가 頻煩하여, 酸水を 兼吐하며, 氣逆上衝하고, 食入即嘔하며, 胸腹脅脹하고, 頭重眩暈하며, 精神沈鬱, 易怒 等症을 發한다. 胃熱上衝에 起因한 경우는, 대개 面部潮紅, 煩渴, 嘈雜, 舌質紅絳 等症을 나타낸다. 痰濕阻滯에 起因한 경우는

痰涎을 嘔吐하고 胸腹이 脹悶하며 不思飲食하고 心悸 氣促하며 口淡, 舌苔滑膩 等症을 나타낸다.

五走(오주)

1靈樞 九針篇에 있음 예컨대 酸走筋 辛走肌 苦走血 鹹走骨 甘走肉이다 2 靈樞 五味篇에 있음 五味가 走하는 장기를 말함 즉 酸先走肝 苦先走心 甘先走脾 辛先走肺 鹹先走骨이다 주 素問 至眞要大論에서는 先入이라 하였는데 뜻은 같다.

五主(오주)

『五臟所主』의 項 參照.

五中(오중)

五臟을 말함(素問·陰陽類論에 있음).

五遲(오지)

小兒의 立遲, 行遲, 髮遲, 齒遲, 語遲로, 發育이 遲延되는 것을 五遲라 함. 病因은 「五軟」과 基本的으로 같다. 「五軟」의 項 參照.

五志(오지)

五種의 情志의 變動을 말함. 『內經』은 情志의 變動이 五臟의 機能과 有關한 것으로 보아, 肝志는 怒이고, 心地는 喜이며, 脾志는 思이고, 肺志는 憂이며, 腎志는 恐으로서 『五志』라 通稱한다. 이렇게 사람의 情志의 變化를 五行歸屬의 方法에 의해 機械的으로 五臟에 分屬시키는 實際와는 그다지 附合되지 않는다. 사람의 情志變化에는 環境과 社會的인 影響도 있으므로, 이러한 論法은 分析的이고 批判的으로 對處해야 한다.

五志過極(오지과극)

「五志」란, 喜·怒·憂·思·恐의 五種의 情志이며, 또 一般的으로 各種 精神活動을 말한다. 이들 活動이 過度하면 臟腑氣血의 活動에 影響을 미치어 發病의 原因이 된다. 「五志」, 「五志化火」의 項 參照.

五志化火(오지화화)

喜·怒·憂·思·恐등 各種情志活動이 失調되어, 病理性機能亢進을 일으킴을 말한다. 情志와 氣의 活動은 密接한 關係가 있어서, 長期的으로 精神活動이 過度하게 興奮 혹은 抑鬱되면 氣機를 紊亂케 하여, 臟腑의 眞陰이 虧損되어, 煩燥 易怒 頭暈 失眠 口苦 脇痛 喘咳 吐血 等症을 發하는바, 이들은 모두 火의 表現에 屬한다.

五奪(오탈)

靈樞. 五禁篇에 있음. 奪은 耗損의 뜻. 臨床上, 久病이나 重病으로 因해 5種類의 氣血

津液이 耗損되는 情況이 出現할 境遇, 鍼灸나 藥物治療를 不問하고, 瀉法의 使用을 禁止하는 것을 말함. 1)肌肉이 過度하게 消瘦되어, 身體가 極度로 虛弱한 境遇. 2)大出血後. 3)大泄瀉後. 5)出產大出血後 等이다.

五風(오풍)

‘五風內障’의 項 參照.

五風內障(오풍내장)

‘靑風’, ‘綠風’, ‘黑風’, ‘烏風’, ‘黃風’의 五種의 內障으로 나눌 수 있다. 그 病因은, ‘綠風內障’과 같다. 各色風은, 瞳孔에 나타나는 색깔의 差異에 따라 命名한 것이다. ‘風’자는, 病勢의 變化가 迅速함을 뜻한다. 五風 가운데, 靑風·綠風은 病이 比較적 輕한 것이며, 比較적 常見되는 것이다. 黑風·五風은 드물게 볼 수 있으며, 黃風은 病이 最重한 것으로, 失明하기 쉽다.

五皮飲(오피음)

「燥劑」의 項 參照.

誤下(오하)

본래 下證이 아닌데 下法을 誤用한것을 誤下라 한다. 熱性病의 表症이 아직 解除 되지 않은 경우 解表法을 써야 마땅한데 下法을 誤用하면 變證을 야기하게 된다. 例컨데 泄瀉, 結胸, 痞證等이다. 기타 內科, 產婦人科, 小兒科 等에서도 下해서는 안되는데 下法을 誤用하면 모두 變證이 생길 수 있다. 구체적 情況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五行(오행)

中國古代의 哲學理論이며, 古人들의 物質의 屬性과 그 相互關係에 대한 認識의 範疇에 屬한다. 醫學에 있어서의 五行學說은, 古代의 素朴한 哲學的 思考方法과 醫學實踐이 結合되어 생긴 產物이다. 「五」는 木火土金水의 五種類의 事物을 가리키며, 「行」은 運動을 뜻한다. 이 學說은 五行의 屬性을 人體의 臟腑器官과 聯關시켜, 五臟을 中心으로 하여, 相生. 相克. 相乘. 相侮의 理論을 運用해서 生理現象과 病理變化의 一部를 說明하고, 臨床經驗을 總括하는 데 썼다. 基本內容은 ① 五行의 屬性으로써 臟腑器官의 特徵을 分別하였다. 例: 肝. 筋. 目は 木에 속하고, 心. 脈. 舌은 火에 屬하며, 脾. 肉. 口는 土에 屬하고, 肺. 皮毛. 鼻는 金에 屬하며, 腎. 骨. 耳는 水에 屬하는 等이다. ② 相生. 相克의 關係로써 臟腑器官의 相互支援과 制約의 生理現象을 說明하였다. 例; 肝은 脾를 制約하는데(木克土), 脾는 肺를 支援하며(土生金), 肺는 또 肝을 制約하는(金克木) 等이다. 이로써 臟腑間에 生理活動을 서로 維持하고 協調하는 關係가 있음을 說明한다. ③ 相乘. 相侮의 關係로써 病理變化와 治療方法을 說明하였다. 例: 肝病이 脾를 犯함은 木이 土에 乘하는 것이며, 治療에는 木을 抑制하고 土를 扶하는 抑木扶土法을 써야 한다. 肺氣虛弱의 治療에는 健脾補肺로서 土를 培養하고 金을 生하는 培土生金法을 써야 한다. 이를 볼때 五行學說은 醫學의 各方面에 貫通하여 古人의 貴重한 臨床經驗의 一部가 包含되어, 基礎理論

의 組成部分으로도 됨을 알 수 있다. 이는 事物間の 相互依存.相互制約이라는 素朴한 辨證法的觀點을 強調하여 古代醫學의 發展에 一定한 作用을 하였다. 그러나 이 學說은 五行으로써 一切의 事物을 總括하려는 것으로, 만약 「生克勝侮」에 依해 全적으로 事物의 變化發展을 解釋하게 된다면 曖昧模糊하게 될 수 있다. 故로 後世의 醫學實踐過程에서는 漸次 이 學說에서 離脫하고 있다.

五虛(오허)

「素問, 玉機眞臟論」에서 “脈細, 皮寒, 氣少, 泄利前後, 飲食不入 此謂五虛”라 하였다. 이는 五臟이 俱虛한 嚴重한 證候이다. 이러한 情況도 治療후, 食慾이 생기고, 泄瀉가 멎으면, 胃氣가 恢復된 現象으로서, 病情이 危機를 免한 標識이 된다.

屋漏脈(옥루맥)

七怪脈의 一種. 脈搏이 한참만에 한번씩 躁動하며, 間歇시간이 不規則하여, 마치 玉漏水가 滴下하는 것 같다.

玉屏風散(옥병풍산)

方の 項 參照

玉樞丹(옥추단)

丹의 項 參照

玉枕骨(옥침골)

『枕骨』의 項 參照.

溫開(온개)

「逐寒開竅」을 뜻함.

溫經祛寒(온경거한)

寒邪가 經絡에 侵入한 것을 治療하는 方法이다. 例컨대, 1) 寒邪가 經絡에 凝滯되어, 肢體關節이 疼痛이 比較的 甚하고, 痛處가 固定되며, 日輕夜重하고, 行動이 不便할 境遇, 麻黃, 桂枝, 蒼朮, 制川烏, 附子, 細辛, 千年健 等藥을 常用한다. 2) 婦女가 衝任 二脈의 虛寒으로 因해 月經不調 或은 經行後期가 되는 境遇에는, 吳茱萸, 桂枝, 附子, 生薑, 當歸, 川芎, 白芍藥, 黨蔘, 灸甘草, 阿膠 等を 쓴다.

溫毒(온독)

溫熱 時毒을 感受하여 發生하는 急性感染症으로 所謂 諸溫挾毒을 말함. 臨床面에서 高熱을 發하고 頭面 혹은 咽喉가 重痛하며 出血性斑疹이 나타남을 特徵으로 한다. 대개 二種類의 疾病이 包括된다. 하나는 頭面, 口腔, 咽喉가 感染되는 化膿性疾患으로 예컨대 繼發性化膿性耳下腺炎, 扁桃體周圍의 膿腫, 急性化膿性扁桃炎等이다. 다른 하나는

急性流行性傳染病으로 예컨대 流行性耳下腺炎, 猩紅熱, 斑疹傷寒(발진티푸스)등이다.

溫毒發斑(온독발반)

溫毒症狀의 하나이다. 溫熱의 毒이 肺胃에 停滯되므로 三焦에 充滿하여 營血에 波及해서 肌膚로 誘發하여 斑點이 생긴다. 斑點의 색깔이 紅滑하면 熱毒이 비교적 輕하고 斑色이 暗紫色이면 熱毒이 重하며 斑血이 黑色이면 熱毒이 極히 重하다. 突發型流行性腦脊髓膜炎, 발진티푸스등의 急性傳染病류이다.

溫法(온법)

「祛寒法」이라고도 함. 溫熱약을 써서 回陽救逆하여, 溫中 散寒하는 方法이다. 寒症은 表寒과 裏寒으로 나누어지는데, 本法은 表寒이 아닌 裏寒에 대해서만 사용되는 것이며, 「回陽救逆」, 「溫中祛寒」, 「溫經祛寒」 등으로 나누어진다.

溫病(온병)

四季의 각이한 溫邪를 感受하여 惹起되는 多種의 急性熱病의 總稱이다. 古人은 熱病에 대하여 溫病의 一語로 概括했는데 後世人은 熱이 輕한 것이 溫이고 重한 것은 熱이라고 認識하게 되었는바 實質상으로는 一致한 것이므로 溫과 熱은 往往 互稱하기도 하며 溫熱病이라 通稱하기도 한다. 그 臨床特徵은 發病이 비교적 많으며 相見되는 것으로는 風溫, 春溫, 濕溫, 暑溫, 冬溫, 溫毒 등이 있다. 詳細한 것은 各 項을 參照

溫病派(온병파)

明・清代이래, 古代의 傷寒病 治療의 基礎 위에, 長期의 臨床實踐을 통하여, 溫熱病에 대해 比較的 깊은 認識이 되어, 溫熱病의 病因, 病理 및 治療原則面에서, 漸次 比較的 整理된 하나의 學說이 形成되었다. 이 學說을 濟唱하고 이에 贊同한 醫家들이 스스로 一大學派를 이루었으므로, 後世에 이를 「溫病派」라 하였다.

溫補命門(온보명문)

「補火生土」라고도 함. 命門之火를 溫補함으로써 脾의 運化機能을 回復시키는 方法이다. 晝明前泄瀉, 瀉前腹痛腸鳴, 瀉出物中或有不消化物, 瀉後에 安適感이 있고 腹部怕冷, 四肢發冷, 舌質淡, 苔白, 脈沈細 等症을 發汗다. 이런 病症을 속칭 「五更瀉」或은 「鷄鳴瀉」라 하며 이는 命門火가 衰하고 脾의 運化가 無力한 것이므로 命門之火를 溫補하여 脾의 運化를 加強시켜야 한다. 사신훈(肉豆蔻, 破故紙, 五味子, 오수유, 生薑, 紅棗)을 써서 治療하면 좋다.

溫補血分(온보혈분)

「溫血」의 項 參照.

溫服(온복)

藥湯이 不冷不熱할 때 服用하는 것이다 一般的으로 보든 藥이나 溫藥은 모두 溫服한 것이 좋다 現在 여러 性質의 藥湯에 모두 溫服法을 쓰고 있다

撲粉의 項參照

脾에 虛寒의 症候가 있어서 溫中祛寒法의 1)로써 治療하는 것이다.

偶方の項参照

各種熱性病을 일으키는 外因의 總稱. 臨床에서 常見되는 여러 溫熱病, 例컨대 春溫·風溫·暑溫·伏暑·濕溫·秋燥·冬溫·溫疫·溫毒·溫瘡등의 病因은 모두 溫邪의 範圍에 屬함.

溫熱의 邪가 肺經을 侵犯함을 말함. 風溫의 病邪는 대개 口鼻에서 侵入하여 처음에는 肺의 症狀을 나타낸다. 例컨대 咳嗽, 發熱口渴, 或은 咽喉焮紅疼痛하고, 舌邊尖紅, 脈浮數 等이다. 感冒, 上呼吸道感染, 急性氣管支炎, 急性扁桃炎 等の 疾患에서 多見된다.

清代 葉天士의 「溫熱論」에서 나온 말이다. 그 뜻은, 다만 어떤 溫邪가 上部의 口鼻에서 感受된다는 徑路를 가리킬 뿐만 아니라, 더욱 중요한 것은, 대다수 外感發熱病的 發病 規律을 闡明한 것으로, 대개는 上焦의 肺經衛分에 시작하여, 發熱 惡寒 頭痛 咳嗽 無汗 或小汗 口渴 脈浮數 舌苔薄白 등의 衛分症狀이 出現하는 것이다.

溫腎의 項參照

煖水臟,溫水臟이라고도 함. 즉 腎陽을 溫補하는 것이다. 補陽의 項參照.水臟은 腎臟을 말함. 溫水臟과 煖水臟은 곧 溫腎이다.

腎陽이 虛하여 水腫을 形成한 症候를 治療하는 方法이다.臨床表現이 面色蒼白,頭暈眼花,腰部痠痛,四肢發冷,小便短少하고, 浮腫이 頭面에서 下半身으로 波及되어 長期不退하고 按壓하면 陷凹가 不起하며 舌淡苔薄白,脈沈細而弱한 경우,濟生腎氣丸(肉桂,制附子,地黃,山藥,山茱萸,澤瀉,茯苓,牡丹皮,牛膝,車前子)을 쓴다.

溫陽(온양)

「回陽救逆」, 「溫中祛寒」의 二法을 包括함.

溫陽(온양)

온성의 약물을 써서 正氣를 補陽하는 것이며 예컨대 四君子湯(黨參, 白朮, 茯苓, 甘草)은 溫性약으로 구성되어 脾胃를 보익하는 방제이니 곧 溫陽제이다.

溫陽利濕(온양이습)

「化氣利濕」이라고도 함. 陽氣가 水寒의 邪氣로 인해 인퇴된 것을 治療하는 方法이다. 病人의 體內에 水濕이 頂滯하여 外表에 表寒이 있고 陽氣가 水寒의 邪氣를 받아 引退하므로 小便不利, 頭痛, 嘔發熱, 心煩口渴, 飲水即吐, 舌苔白利 或白厚, 脈浮한 경우 五苓散(茯苓, 澤瀉, 猪苓, 白朮, 桂枝를 共研細末)을 쓴다. 茯苓, 猪苓, 澤瀉, 白朮은 健脾利濕하고, 桂枝는 體內에 陽氣를 通하게 하여 肌表를 外解하고 化氣利水해서 小便을 通暢시켜 水를 下에서 排出한다.

온엄법(온엄법)

엄의 項參照

溫疫(온역)

疫려의 邪를 感受하여 發生하는 多種類의 急性傳染病의 通稱이다. 그 特徵은 發病이 急激하고 病情이 險惡하여 強烈한 傳染性이 있어서 大流行을 일으키기 쉽다. 相見되는 溫疫에는 二種類가 있다. 하나는 濕熱穢濁의 疫病으로서 惡寒壯熱하고 頭痛身痛하며 舌苔가 積粉한 것처럼 회고 脈數한 등이 主症이다. 또 하나는 暑熱火毒의 疫病으로서 高熱, 煩燥, 頭痛如劈, 腹痛吐瀉, 或神昏發斑, 身發臭氣 등이 主症이다.

溫熱(온열)

①病因로서의 「溫邪」를 말함. 邪가 비교적 輕한 것이 溫이고, 邪가 重한것이 熱이라 하는 경우가 있다. 漸進的으로 感受되는 것이 溫이고, 급속히 侵襲하는 것이 熱이라 하는 경우가 있다. 冬春에 發하는 것이 溫이고, 夏季에 發하는 것이 熱이라 하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實際上 差別은 그다지 없다. ②病名으로서 溫病을 말함. 예컨대 「溫熱經緯」에서 「溫熱」을 외감熱病의 總稱으로 썼다. ③溫病의 分類名稱. 病因이 熱에 起因하는데 濕을 兼挾하지 않은 것을 「溫熱」이라 한다. 例: 風溫 溫燥 등. 濕과 熱이 結合된 病邪를 「濕熱」이라 한다. 例: 暑濕 濕溫 등.

溫胃建中(온위건중)

胃氣의 虛寒을 治療하는 方法이다. 病因이 胃脘隱痛, 食後通輕減, 吐清水, 大便泄瀉, 舌淡白, 脈細한 경우 黃기建中湯(黃기, 桂枝, 白芍藥, 炙甘草, 生薑, 大棗, 飴糖)을 쓴다.

溫燥(온조)

秋季의 한발로 인한 燥氣를 感受하여 發病하는 것으로 즉 秋燥의 熱에 치우친 것을 말

함. 臨床表現은 처음에 頭痛身熱하고 乾咳無痰하며 혹은 稀粘한 痰을 咯出하고 氣逆而喘하며 咽喉乾痛하고 鼻乾唇燥하며 胸滿脇痛하고 心煩口渴하며 舌苔가 白薄하고 乾燥하며 舌尖과 舌邊이 具紅하는 等症을 나타낸다. 이는 肺가 溫燥의 邪를 感受하여 肺津이 受灼해서 出現하는 燥熱症狀이다.

溫中祛寒(온중거한)

脾胃의 陽虛로 出現하는 裏寒症候를 治療하는 方法이다. 例컨대, 1) 脾胃가 陽虛하여, 食物不消化, 清水嘔吐, 大便水瀉, 舌淡苔白, 脈象沈細한 경우, 理中湯(黨蔘, 乾薑, 白朮, 炙甘草)을 쓴다. 2) 胃部가 脹滿冷痛한데, 차게 하거나 飲冷하면 加重되며, 清水를 吐出하고, 或은 食後 오래 잇다가 吐出하며, 苔가 白滑하고, 脈象이 沈細無力함은 胃寒이 比較的 重한 것이다. 熟附子, 乾薑, 吳茱萸高良薑, 沈香 등을 쓴다.(이 方法은 「煖胃」法이라고도 함)

溫針(온침)

針法을 應用함과 동시에 溫熱刺戟을 가하는 一種의 療法이다 一般的으로 皮下에 刺入한 毫針의 病상 혹은 침체부에 애을 연소하여 침체를 통해 열을 人體내에 전입케해서 治療목적에 도달하는 것이다

溫下(온하)

溫性의 瀉下藥을 쓰거나 或은 溫熱性藥物과 寒性瀉下藥物을 同用하여 寒性의 積滯裏實證을 治療하는 것이다.(1)大便不通이 寒結에 속하고 그 症狀이 腹滿而實하며 手足冷, 苔白리, 脈沈弦한 경우에는 巴杏丸(巴豆 45枚, 杏仁 30枚를 모두 去皮心하여 黃色이 되도록 炙해서 搗碎 糊丸하는데 赤小豆大로 作丸하여 成人은 매일 1分5厘씩 服用한다.(2)腹痛, 大便秘結, 手足冷, 舌苔白, 脈沈弦而緊한 경우에는 大黃附子湯(大黃, 附子, 細辛)을 쓴다.

溫瘧(온학)

①內部에 伏邪가 있으며, 夏季에 暑熱을 感受하여 發하는 一種의 瘧疾이다 臨床表現은 先熱後寒하며, 熱重寒輕하고, 汗이 或多或少하며, 口渴하여 喜涼飲하고, 舌紅하며, 脈象은 輕按하면 浮數하고, 重按하면 無力한 等症이다. ②「金匱要略. 瘧病脈證并治」에서, “溫瘧者 其脈如平 (瘧疾이 나타나기 前에 通常 볼 수 있는 弦脈을 말함)身無汗 但熱骨節疼煩時嘔.....”라 하였다.

溫血(온혈)

血分에 寒邪가 있는 症候를 治療하는 方法이다. 1) 溫補血分: 例컨대 婦女의 崩漏, 男子의 吐血로서, 舌質淡, 脈虛無力, 唇燥不紅潤한 경우, 十全大補湯(黨蔘, 白朮, 茯苓, 炙甘草, 熟地黃, 白芍藥, 當歸, 川弓, 黃芪, 肉桂)을 쓰면 좋다. 2) 溫化祛瘀: 寒邪로 因한 瘀血을 治療하는 것이다. 例컨대, 婦女의 虛寒으로 인해 月經이 不調하여, 通經, 閉經, 經來量少色暗하며, 舌上에 紫點이 생기고, 脈이 沈緊한 경우, 當歸, 芍藥, 川弓, 桂枝, 牡丹皮, 生薑 등을 쓴다.

溫化祛瘀(온화거어)

「溫血」의 項 參照.

溫和灸(온화구)

艾卷灸法의 一種이다. 艾卷의 일단을 點燃하여 穴位에 접근시켜 一定한 距離를 維持하여 患者에게 適한 溫度를 느끼게 하며 지나치게 灼熱하지 않도록 한다. 이러한 灸法은 一般的으로 10-15분간 維持할 必要가 있다.

瘟黃(온황)

本病은 濕熱 時毒을 感受하여, 毒이 盛해서 化火하여, 營分 血分으로 轉入된 所致이다. 臨床表現은, 身體와 眼目에 紅黃色이 나타나고, 高熱神昏하며, 煩渴, 腹脹, 脇痛, 衄血, 便血하고, 或은 斑疹을 發하며, 舌絳하고 苔黃燥한 等症을 나타낸다. 急性黃疸型傳染性肝炎, 黃疸型 leptospirosis 等の 類이다.

癰(옹)

腫瘍의 表面이 紅腫高起하고, 焮熱疼痛하며, 周圍限界가 뚜렷하고, 化膿前에는 瘡頭가 없고, 消散되기 쉬운데, 化膿하면 쉽게 潰破되며, 潰破後의 膿液이 粘稠하고, 瘡口가 쉽게 아무는 것을 모두 癰이라 함. 癰은, 氣血이 毒邪에 感受되어 壅塞不通한다는 뜻이며, 陽證에 屬한다. 처음에는 항상 實熱症候를 隨伴한다. 例컨대 身熱, 口渴, 便秘, 尿赤, 舌紅苔黃, 脈洪數有力 等症을 나타낸다. 「外癰」과 「內癰」의 二種類로 大別된다. 詳細한 것은 各項을 參照.

完骨(완골)

①耳廓(耳介)後面의 隆起된 골. 즉 解剖學上的 『顳骨乳突』部分을 말함. ②穴位名. 顳骨乳突의 尖端의 後方陷凹部로서 足少陽膽經에 屬함.

頑痰(완담)

頑固하여 難治의 痰證을 말함. 例컨대, 哮喘의 發作이 反復되고, 或은 痰飲이 遷延되어 잘 낫지 않는 等症을 一般的로 頑痰이 胸膈에 貯留된 所致로 認識한다.

緩脈(완맥)

脈象의 一種. 正常과 病態의 區分이 있다. 脈象이 均一하게 和緩한 것은 正常人的 脈象이고, 만약 脈象이 弛緩하면 病脈이며, 濕邪으로 因한 病이나 脾胃虛弱證에 常見된다.

緩方(완방)

慢性的인 虛弱한 病證에 適用된다. 緩方에는 六種의 意義가 있다. 1)藥味가 많고, 相互制藥하며, 單獨으로 患部에 直達하는 力量이 있다. 2) 舞毒의 藥物로써 治病하며, 病邪를 緩慢하게 除去하여 正氣를 傷하지 않는다. 3) 藥物의 氣味가 비교적 淡薄하여, 迅速

한 效果를 要求하지 않는다. 4) 甘藥을 섞어서 使用하여, 甘緩한 藥性を 和用해서 猛熱한 藥物의 作用을 甘藥한다. 5) 丸藥으로 써서 邪氣를 緩慢하게 攻逐한다. 6) 緩和藥을 써서 本證을 治하며 人體의 抗病力을 增進시켜, 疾病이 自然히 除去된다. 緩方의 例로서 補法에 쓰이는 四君子湯(人蔘, 白朮, 茯苓, 甘草)이 있다.

緩下(완하)

性質이 緩和하고 滋潤한 作用이 있는 藥物을 써서 大便을 潤下시키는 方法을 말하며 緩下에 屬하는 藥物로서는 火麻仁, 郁李仁, 瓜蒌仁, 竹瀝, 蜂蜜 등이 있다. 老人의 虛寒便秘를 治하는 半硫丸(半夏, 硫黃)은 溫下하는 가운데 緩下의 類에도 屬한다.

王宮(왕궁)

『山根』의 項 參照.

煨(외)

藥物을 습지 혹은 면호로 포과하여 화회중에 묻어 습지나 면호가 초흑이 되도록 구워 중이나 면호를 벗기면 유질을 흡거한게 된다 예컨대 육두구 에 이方法을 써서 嘔吐의 誘發을 防止한다 ○혹은 생강을 화회속에서 외한 것을 외강이라 하면 그 發散성을 輕減시켜 온중케한다.

外感(외감)

病因과 病證의 分類에서, 六淫·疫癘之氣 등의 外邪를 感受한 것. 이들 病邪는 먼저 人體의 皮毛肌膚를 侵犯하기도 하고, 或은 同時에 受病하기도 하는데, 모두 外에서 入하므로 外感이라 한다.

外感發熱(외감발열)

「發熱」의 項 參照.

煨薑(외강)

煨의 項 參照

外格(외격)

「關格」의 項 參照.

外經(외경)

體表에 있는 經脈部分을 말하며, 일반적으로 體內(裏)에 있는 臟腑와 相對해서 말하는 것이다(例: 靈樞·邪氣臟腑病形篇 “榮 俞治外經 合治內腑”)

外科補法(외과보법)

외과의 創傷을 內服藥으로 치하는 삼대치법의 하나이다. 이는 보익약물을 運用하여 정

기를 부조해서 새살이 나오는 것을 방조함으로서 瘡口를 빨리 癒合을 시키는 방법이다.潰瘍의 후기에 화독이 이미 제거되고 신체가 허약한 증후에 적용된다. 1)助補氣血:환자가 기허혈소하여 농양이 궤과된 후 收口되지 않고 청회한 농수가 나오며 정신이 피곤하고 맥허한 경우에 八珍湯(黨參 白朮 茯苓 甘草 地黃 當歸 白芍藥 川芎)을 써서 치료한다. 2)助陽:환자가 양기부족하여 농양이 궤과된 후 육색이 암회색을 띠고 새살이 잘 성장하지 않으며 大便稀당하고 小便回數가 많으며 手足發涼 自汗 舌質淡苔薄 脈微細한 경우 八味地黃丸(熟地黃 산수유 牡丹皮 白茯苓 澤瀉 肉桂 熟附子)을 써서 치료하면 좋다. 3)補陰:환자의 체질이 음허하여 궤양의 未潰已潰를 불문하고 體瘦하며 顏色憔悴 口乾咽燥 目眩耳鳴 舌紅苔少 脈細數한 경우 六味地黃丸(八味地黃丸에서 附子 肉桂를 거한것)을 써서 치료하면 좋다. 창양에는 기혈이 쌍허한 경우와 음양이 互傷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보익법을 구체적정황에 따라 적의하게 운용해야 한다.

外科消法(외과소법)

「內消」의 項 參照

外癰瘡(외렴창)

「癰瘡」의 項 參照.

外輔骨(외보골)

解剖學上의 腓骨. 小腿部の 外側에 있음.

外傷(외상)

①撲擊 跌仆等으로 皮膚 肌肉 筋骨이 受傷하는 것을 말함. ②六淫外邪에 損傷된 것을 말함. 例:傷風·傷寒·傷濕·傷暑等.

外濕(외습)

外界의 濕邪를 感受하는 것을 말함. 예컨대, 濕氣가 많은 氣候에 濕地에 久居하거나 혹은 霧露之邪를 感受하거나 혹은 長期間 水中作業을 하는 等이다. 濕은 一種의 陰邪이며, 性質이 重濁 粘膩하여, 氣의 活動을 가장 阻礙하기 쉽다. 臨床表現은 頭重如裹 頸項痠痛 胸悶腰痠 四肢困倦 關節疼痛 等이다.

外癰(외옹)

癰이 軀幹, 四肢等 體表部位에 發하는 것으로, 例컨대, 「頃癰」, 「背癰」, 「乳癰」等이다. 外癰은 대개 많은 毛囊과 皮脂腺의 化膿性炎症이며, 乳癰(乳腺炎)은 乳腺組織의 化膿性感染이다.

外因(외인)

「三因」의 項 參照.

外眦(외자)

『銳眦』라고도 함. 外眼角. 上下眼瞼의 顚側과의 連結部位.

外障(외장)

胞瞼(眼瞼皮膚, 肌肉, 瞼板, 眼瞼結膜등을 包括), 兩眦(淚器를 包括), 白睛(眼球結膜과 前部鞏膜등의 部分을 包括)의 眼病을 말함. 局部症狀으로는, 眼部가 紅赤 腫瘡하고 눈에서 대개 膠粘液이 나오며, 或은 星點雲翳, 赤脈, 努肉등이 생기는 것을 ‘外障’이라 稱칭한다. 元代 危亦林의 「世醫得效方」에서는 外障의 病症을 50餘種이나 列舉 하였다.

外證(외증)

①通常 體表上에 形證이 있어서 볼수 있는 外科病情을 말함. 例컨대 癰, 疽, 疔, 瘡, 癰, 癰, 癰, 痔, 疥, 丹毒, 流注, 瘰癧, 疔腮, 灼傷等이다. ②一般的으로 外科病症을 말함.

外吹(외취)

「乳吹」의 項 參照.

外吹乳癰(외취유옹)

「乳癰」의 項 參照.

外治(외치)

治療方法의 일종이다. 藥物手法을 선택하며 或은 적당한 器機를 배합해서 體表 或은 九竅 等處에 사용함으로써 臨床各科의 疾病을 治療하는 것이다. 常用되는 것은 敷 罨 罨 罨 熏蒸 吸入 熱烘 浸浴 楊梅 發泡 膏摩 點眼 搐鼻 漱滌 撲粉 導 塞 薄貼 등이다.

外痔(외치)

肛門의 齒線밖에서 생기며, 皮瓣狀을 나타내고, 漸漸 增大하며, 比較的 硬質이고, 外表가 光滑하며, 대개는 疼痛하지 않고, 出血도 없는데, 異物感이 있으며, 或은 感炎腫瘡되므로 비로소 疼痛을 느끼게 되며, 腫이 消退되면, 原狀대로 回復된다. 皮瓣이 肛門의 前後 正中부에 생기면, 往往 肛門裂瘡를 隨伴하며, 皮瓣이 肛門의 左中 右前 右後의 部位에 생기면 往往 內痔를 隨伴한다. 皮瓣이 環狀 或은 花冠狀으로 되는 것은, 經産婦에게 多見된다.

外脫(외탈)

「脫」의 項 參照.

外風(외풍)

外感의 風邪를 말함. 「風」의 項 參照.

外寒(외한)

①外感의 寒邪를 말함. 寒邪가 肌膚를 侵襲하여, 陽氣가 宣通·透泄되지 못하므로, 惡寒·發熱·無汗·頭痛·身痛·脈浮緊 等症을 나타낸다. ②人體의 陽氣가 虛弱하여, 形寒外冷하거나 쉽게 感冒의 病症이 出現함을 말한다. 「素問·調經論」에서 “陽虛則外寒”이라 하였다.

髀(요)

骨節間의 部位의 統稱. 一部 穴位의 名稱에도 이러한 解剖的特徵에 依據하여 命名된 것이 있다.

腰(요)

後胸部의 第 12肋骨以下에서 가척(腸骨上緣)以上の 軟組織部分.

尿床(뇨상)

「遺尿」의 項 參照.

夭然不澤(요연불택)

「色悴」의 項 參照.

夭疽(요저)

頸項 耳後乳突起部에 생기는 癰疽으로서, 左側에 생기는 것을 腰疽라 하고, 右側에發하는 것을 銳疽라 함. 모두 足少陽膽經에屬하는 病이며, 이는 膽經의 鬱火가 凝結된所致이다. 該當部位의 肌肉이 매우 적고, 또 頭部에 가까우므로, 火毒이 쉬게 擴散된다. 만약 治療가 遲延되거나 잘못되면, 多種의 危險한 症狀이 發生하게 된다. 처음에는 形狀이 ?粒과 같은데 漸次 腫大되어 瓜와 같이 되고 堅硬하며 平平하고, 皮膚에 暗紫色을 띠며, 疼痛이 極甚하다. 治療한 後에 紅腫으로 轉變되어 穿潰되는 것은 順證이고, 豫後가 比較的 良好하다. 만약 오래도록 堅硬하고, 皮膚가 黑色이되며, 瘡形이 下陷하는 것은 逆證이며, 대개 危證에 屬한다.

腰柱(요주)

正骨用의 器具이다. 이는 腰椎骨折의 固定에 쓰인다. 扁平하고 긴 杉木 4개로 되었으며, 각각 幅 1寸, 厚 5分, 길이 1尺 内外이며, 그 兩端에 구멍을 뚫어, 끈으로 모두 연결하면 腰部의 脊骨을 둘러쌀수 있다.

搖針(요침)

針刺手法의 하나이다 그 方法은 針을 체내에 刺入한후 한손으로 혈의를 고정하고 한손으로 針체를 요동하는 方法이다.

尿脬(요포)

「膀胱」의 項 參照

尿血(溺血)(요혈)

「洩血」의 項 參照.

蓐勞(육로)

産婦가 分娩後에, 氣血이 虧損되고, 調養을 잘못했거나 或은 疲勞가 過度하고, 風冷에 損傷되어 나타내는 病證이다. 主要證狀은, 頭昏하고, 肢節이 疼痛하며, 煩悶하고, 口渴, 盜汗, 咳嗽하며, 瘧疾처럼 寒熱하고, 消化不良하여 몸이 날로 瘦弱해진다.

欲傳(욕전)

病邪가 內部를 向해 發展할 趨勢에 있음을 말함. 例컨대 外感의 風寒證이 처음에는 汗出이 없었는데, 現在는 微寒하며 熱이 不退하고, 心煩하며, 同時에 또 물을 마시고자 하며, 脈象이 比較的 數한 것은, 寒邪가 점차 熱로 化하여, 裏部로 傳入하려는 症狀이다.

褥瘡(육창)

蓐瘡이라고도 함. 長期間 壓迫되므로 局部의 壞死, 潰爛을 惹起하는 瘡瘍을 말함. 本病은, 대개 重病으로 長期間 臥床하는 患者에게 나타나며, 腰骶部, 肩胛部, 枕骨部, 肘, 足跟等 處에 多見된다. 대개는, 患者의 氣血이 大虧하여, 氣가 血을 運行시키지 못하는데다가, 局部가 壓迫됨으로써 생긴다. 患部는 一般的으로 不通하며, 처음에 紫班이 생기고, 漸次 壞死 潰爛되어, 腐肉이 脫落되고, 潰瘍을 形成하여, 잘 癒合되지 않는다.

涌痰醒腦(용담성뇌)

痰涎의 壅塞으로 인한 神昏을 治療하는 方法이다. 涌吐藥을 써서, 痰涎을 吐出시켜 病人을 覺醒케 하는 것이다. 例컨대, 類中風으로, 홀연 昏倒하여 喉間에 痰涎이 壅塞해서 言語不能하고, 遺尿하지 않으며, 脈象이 滑實 有力한 경우, 稀涎散(黑皮를 削去한 皂角 4個, 白礬 1兩을 갈아서 極細末로 하여 매회 5分씩 溫水로 권하한다. 이 治法은 一般的으로 嘔吐를 일으키지 않고, 단지 소량의 冷涎을 흘릴 뿐이다. 覺醒後 계속 조치한다)을 쓴다.

龍泉疔(용천정)

「人中疔」의 項 參照.

涌泉疔(용천정)

「足疔」의 項 參照.

涌吐(용토)

「吐法」의 項 參照

涌吐禁例(용토금례)

아래의 情況에서는 吐法을 쓸 수 없다. 1)手足이 寒冷한 경우. 2)脾胃가 虛弱하고, 面色이 萎黃하며, 脈이 微弱하거나 或은 虛大無力한 경우. 3)氣虛하며 脹滿하고 運化不能한 것을 實證으로 誤認해서는 안된다. 4)虛喘 不安한 경우. 5)脚氣病이 衝心하는 경우. 6)病人 惡寒하면서 이불을 덮으려 하지않는 眞熱假寒의 경우. 7)妊娠婦. 8)老人의 虛弱한 경우 9.)産後. 10)失血患者. 이상으로 吐法을 써서는 안될 경우를 列舉하였다.

龍火內煩(용화내번)

「燔」은 焚燒의 뜻. 여기서는 「腎火偏亢」을 말함. 「龍火」는 腎火, 命門之火를 말함. 腎은 陰臟이며, 水火를 內藏한다(즉 眞陰, 眞陽). 水火는 반드시 相對的 平衡을 維持해야 한다. 만약 腎水의 虧損이 太過하면 腎火를 偏亢케하여, 陰虛火旺의 病理變化를 產生해서, 腎에 封藏을 主管하는 機能을 失調케 함으로써 性機能興奮, 遺精, 早漏 等の 症狀이 나타난다.

疣(우)

體表에 生長하는 一種의 贅生物(군더더기)이며, 贅疣, 千日瘡, 瘻子, 飯蕊등의 名稱이 있다. 本病은 手背, 手指, 惑은 頭面部에 多發한다. 患部의 贅生物은, 처음에 작은 것은 麥粒大이고, 큰 것은 大豆大로, 表面에 突出하며, 그 表面이 거칠고(粗糙), 形狀은 꽃술(花蕊)과 같으며, 灰白色 惑은 濁黃色을 띤다. 疣의 數는 一定하지 않고, 一般的으로 自覺症狀이 없으며, 힘껏 按壓하면 약간의 痛感이 있고, 打撲傷이나 惑은 摩擦後에 出血하기 쉽다. 治療時에는 먼저 原發疣(俗稱 母瘻)를 治療해야 한다. 原發性的 疣가 治療된 後에는 續發性疣가 往往 저절로 消退된다.

右歸飲(우귀음)

「補陽」의 項 參照

偶方(우방)

方劑의 藥味の 種類가 偶數인 것을 偶方이라 한다. 偶方에는 두가지 意義가 있다. 1)方劑에 단 2種의 藥物을 쓴것 2)方劑의 藥物이 2以上을 超過하는 偶數이다. 일반적으로 病因이 비교적 複雜하여 二種以上の 主藥을 써서 治療해야 하는 것을 偶方으로 認識하고 있다. 偶方의 例로서 金匱腎氣丸(乾地黃, 山茱萸, 山藥, 澤瀉, 茯苓, 牡丹皮, 桂枝, 附子, 桂枝를 後世에는 肉桂로 바꾸어 쓴다. 肉桂, 附子는 主藥이며, 腎陽을 溫한다)이 있다. 또 素問, 至眞要大論에서 “君二臣四 偶之制也, …君二臣六 偶之制也…源者偶之…下者不以偶…”라고 설하였다. 여기서 偶方의 組成例를 두가지로 例舉 하였다. 源者偶之는 病位가 먼 경우에는 偶方을 쓴다는 뜻이고 下者不以偶는 瀉下에는 偶方을 쓰지않고 奇方을 써야한다는 뜻이다. 그러나 後世에 이르러서는 이 說에 포함되지 않는다. 病位가 먼 경우에도 奇方을 쓴다. 例로서 溫脾湯은 寒積 大便不通을 治하는데 黨蔘, 乾薑, 附子, 黨蔘, 甘草, 大黃의 7味를 쓴다. 下者不以偶이지만 大承氣湯은 4味로 偶方이다.

偶刺(우자)

十二刺의 一種 心脾(心胸痛)를 治療하는데 쓰인다 그 方法은 동통이 있는 前胸部와 背部의 상대되는 部位를 손으로 눌러 前後에서 각각 一針을 사자한다 내장을 상하지 않도록 直刺와 深刺를 防止함에 주의를 요한다.(靈樞 官針篇)

牛程蹇(우정견)

「胼胝」의 項 參照.

隅中(우중)

「十二時」의 項 參照

牛皮癬(우피선)

患處의 皮膚가 소의 頸皮처럼 厚堅하므로 이렇게 이름한다. 대개는 風, 濕, 熱이 肌部에 蘊阻하기 때문이며 血虛하여 生風해서 化燥하므로 發病하고 精神的 素因過度 一定한 關係가 있다. 대개 項部, 肘窩, 臑窩, 上眼瞼, 會陰部에 생기며 大腿 內側에도 생긴다. 皮損部位는 扁平狀의 丘疹이며, 融合되어 片을 이루고, 乾燥 肥厚하여 苔癬 모양으로 變化하여, 긁으면 약간 脫屑이되고 發作性的 기묘한 瘙痒감이 있고 야간에 더 심하다. 그 發作이 때로는 精神刺戟과 有關하다. 本病은 慢性 皮膚病이며 항상 發作한다. 神經性 皮膚炎, 慢性 濕疹 등의 類이다.

運氣(운기)

「五運六氣」의 項 參照.

運脾(운비)

濕邪가甚하여 脾機能을 困難케 하는 症狀(濕重困脾)을 治療하는 方法이다. 濕重의 臨床表現은 胃部飽脹, 飲食無味, 惡心嘔吐, 口中淡而粘, 頭暈身倦, 大便泄瀉 或腹脹, 四肢浮腫, 小便少, 舌苔白膩, 脈濡 等症이다. 蒼朮, 厚朴, 陳皮, 藿香, 白朮, 白蔻仁, 茯苓, 澤瀉等 芳香性藥物을 써서 祛濕하여 運脾케 한다.

雲翳(운예)

黑睛上에 [凝脂翳]等症이 罹患되어 한 層의 얇고 不透明한 組織이 遺留되는데 이것이 雲霧와 같으므로 [雲翳]라 한다. 일반적으로 視力에 대한 영향은 크지 않거나 或은 輕度の 障礙가 있다.

運化(운화)

「脾主運化」의 項 參照.

鬱冒(울모)

鬱冒眩暈하며甚하면 一時的인 昏厥을 일으키는데 이윽고 저절로 蘇醒함을 말함. 血虛하여 津液이 亡失되거나 혹은 短氣鬱結, 外邪阻遏에 起因하여 일어난다. 金匱要略에서 “新産婦人…… 亡血復汗 汗多 故令鬱冒”라 하였다.

鬱證(울증)

情志의 不舒 氣機의 鬱結로 인해 일어나는 一連의 病證이다. 實證과 虛證으로 나뉜다. 實證에는 肝氣鬱結 氣鬱化火 痰氣鬱結의 三種類가 있다. 肝氣가 鬱結하면 肝의 調達機能이 失調되어 精神抑鬱 胸悶脇痛의 症狀을 나타낸다. 만약 肝氣가 橫逆하여 脾를 犯하면 腹脹噯氣 不思飲食等症을 나타낸다. 氣鬱化火하면 肝火上逆하여 口乾口苦 頭痛躁急 胸悶 脇脹等症을 나타낸다. 痰氣가 鬱結하면 咽中에 物體가 걸리는 듯 한데 咯出할수도 없고 삼킬수도 없다. 虛證은 久鬱傷腎과 陰虛火旺의 二種類로 나뉜다. 久鬱傷腎하면 營血이 耗損되어 心神을 失養해서 精神恍惚 悲哀善哭 疲乏等症을 나타낸다. 陰虛火旺하면 虛火가 上炎해서 眩暈 心悸 心煩 易怒 失眠等症을 나타낸다.

鬱火(울화)

①일반적으로 陽氣가 鬱積되어 나타나는 臟腑內熱의 症狀을 말함. ②通常「木乙化火」를 指稱함.

原氣(元氣)(원기)

元陰之氣와 元陽之氣를 包括함. 先天之精이 化生하는 것이며, 後天的으로 攝取하는 營養에 의해 不斷히 滋養된다. 原氣는 腎(命門을 包括)에서 發源하여 臍下의 丹田에 貯藏되어, 三焦의 通路를 통해 全身에 分布되고, 臟腑等 一切 組織器官의 活動을 推動하므로, 人體의 生化動力의 源泉이 됨을 알 수 있다.

原氣(원기)

「腎間動氣」의 項 參照.

元氣虛弱(원기허약)

「氣虛」의 項 參照.

遠道刺(원도자)

九刺法의 一種 身體의 上部에 有病하면 下肢部 陽經의 俞穴을 取하여 治療하는 것이다.(『靈樞』『官針篇』)

圓利針(원리침)

古代 九針의 일종이다 形態가 마미와 같고 針침은 둥글고 뾰족하다. 癰腫 痞病 一部 急性病의 治療에 쓰였다.

元府(원부)

「玄府」의 項 參照.

遠痺(원비)

靈樞·九鍼十二原篇에 있음. 日久토록 不愈하는 痺症을 말함.

圓癰(원선)

金錢癰이라고도 함. 圓形이고 貨幣와 같으므로 이렇게 이름한다. 濕熱이 肌部를 侵襲하거나 或은 接觸 傳染으로 因해 생긴다. 대개 軀幹, 腹部 或은 股內側에 생기며, 頸, 顔面등의 部位에도 생긴다. 病損部가 貨幣狀(그 形態가 작은 것을 筆管癰이라고도 함)의 紅斑이 되며, 그 中央部가 通常 저절로 治癒消退고, 周圍邊緣이 뚜렷하여, 丘疹, 水疱, 膿疱, 結痂, 鱗屑등의 變化가 생긴다. 대개는 夏季에 생겨서 冬季가 되면 輕減되거나 或은 消退된다.

元神之府(원신지부)

「本草綱目」에 있음. 腦를 말함. 「元」은 首의 뜻이며, 「元神」이란, 人體의 高級中樞神經의 機能活動을 말함. 「府」란 所在處를 말함. 「元神之府」란, 腦가 高級中樞神經의 機能活動을 主管함을 說明한 것이다.

元陽(원양)

「腎陽虛」의 項 參照.

元陽(원양)

「腎陽」의 項 參照.

圓翳內障(원예내장)

‘如銀內障’이라고도 함. 本病은 肝腎이 兩虧하거나 或은 脾胃가 虛衰하여, 運化機能이 失調되므로 생긴다. 그 症狀은, 水晶體가 본래의 透明度를 喪失하여 混濁해져서, 視力이 低下되거나 或은 喪失된다. 白內障과 類似하다.

元陰(원음)

「腎陰」의 項 參照.

員針(원침)

古代 九針의 一種이다 鍤針은 원동상이고 鍤鍼은 란원형이다 혈의를 안마하여 기류의 疾病을 治療하는데 多用되었다.

遠血(원혈)

먼저 大便을 排泄한 後에 出血하며, 血色이 暗黑色을 띠는 病症을 말함. 이는 直腸, 肛門에서 遠離한 部位의 出血이므로 이렇게 이름한다. 대개는 上消化道(胃.小腸)의 出血

에서 볼 수 있다.

原穴(원혈)

五腧穴의 一種. 모두 手·足 三陽經穴에는 各各 하나의 原穴이 있다(合 6穴). 그 位置는 腕 혹은 踝의 關節附近이다. 「針灸聚英」에서 “所過爲原”이라 하였다. 이는 經脈의 流注方面이 마치 水渠(개천)中の 水流가 끊임없이 流過하는 것과 같다는 것이다. 手·足三陰經은 모두 本經의 「俞穴」로써 原穴을 대신한다(合 6穴, 原穴이라고도 함). 陽經의 原穴과 합쳐서 「十二原穴」이라고 한다. 그 名稱은 아래와 같다. 肺－太淵 心包－大陵 心－神門 脾－太白 肝－太衝 腎－太溪 (注: 以上 6혈은 태음경의 수혈인데, 모두 원혈 대신 쓴다.) 大腸－合谷 三焦－陽池 小腸－腕骨 胃－衝陽 膽－丘墟 膀胱－京骨

月經(월경)

女子의 周期的인 子宮出血의 生理現象이며, 通常 一個月에 一回 來潮하고, 每回 3~5日로써 깨끗해진다. 每月 周期的로 오는 것이므로 「月經」, 「月事」, 「經水」, 「月信」(每月온다는 뜻)이라 함. 일반적으로, 14歲前後에 月經의 來潮이 開始되어, 49歲前後에 月經이 閉止된다. 月經의 正常與否는, 相隔의 期日, 經量의 多少, 色澤의 濃淡, 經血의 厚薄 등 몇가지 면에서 判斷된다. 正常的인 婦女의 經血은 暗紅色이고, 開始時에는 색깔이 비교적 연하고, 中間에는 漸次 진하다가 最後에는 다시 淡紅色을 띠며, 凝結되지 않고, 血塊가 없으며, 不清不稠하고, 特殊한 臭氣가 없으며, 經量이 適量이고, 달마다 來潮한다. 이는 健康의 象徵이다. 만약 月經의 期·量·色·質의 面에 變化가 있으면 그것은 病態에 屬한다.

月經愆期(월경건기)

「經行先後無定期」의 項 參照.

月經過多(월경과다)

月經의 來潮時에 正常血量を 超過하거나 或은 月經期間이 延長되어, 7日 以上을 超過하여 經血이 過多한데, 一個月에 一回의 周期性은 잃지 않는 것을 말함. 本證은 대개 血熱에 起因하거나, 衝·任脈이 損傷되거나, 或은 氣虛로 因한 血의 統攝不能의 所致이다. 血熱에 起因한 경우는, 經血이 深紅色이고, 質이 濃稠하며, 或은 臭穢氣가 있다. 衝·任脈이 損傷된 경우는, 月經이 延線不斷하고, 面色이 萎黃하며, 身倦困乏하고, 經血이 暗淡色이며, 質이 약간 稀薄하다. 氣虛不攝에 起因한 경우는, 面色이 淡白하고, 氣弱懶言하며, 經血이 淡色이다.

月經過少(월경과소)

行經時에 出血이 粘稠하여, 量이 적고 不暢하며, 1~2日로써 그치는 것을 말함. 「月經

澁少」,「經行不爽」이라고도 함. 臨床上, 血虛, 血寒, 血瘀 및 痰濕 等證으로 나뉜다. 更年期에 가까운 婦女에게 이러한 證候가 있는데, 이는 閉經의 前兆가 될 수 있다. 만약 毎回의 經量이 極少하여, 點滴에 그치는 狀態가 長期的으로 不癒하면, 生殖系統의 結核 일 可能性을 考慮하여 빨리 治療해야 한다.

月經病(월경병)

婦人科의 病中에서, 月經에 屬하는 各種病症을 말하며, 經期・經量・經色・經質 등의 異常에 各種症狀를 兼有하는 것이다. 「月經不調」, 「痛經」, 「經閉」, 「倒經」, 「崩漏」, 「經前便血」, 「經行泄瀉」 등등을 包括한다. 詳細한 것을 各項을 參照.

月經不調(월경불조)

月經病의 統稱이며, 臨床上 常見되는 經行先期, 經行後期, 經行先後無定期, 및 月經過多, 月經過少, 痛經, 閉經 등을 包括함. 詳細한 것을 各項을 參照.

月經澁少(월경삼소)

「月經過少」의 項 參照.

月經先期(월경선기)

「經行先期」의 項 參照.

越經傳(월경전)

「傳經」의 項 參照.

月事(월사)

「月經」의 項 參照.

月信(월신)

「月經」의 項 參照.

胃(위)

「胃, 神, 根」의 項 參照.

胃(위)

六府中の 하나. 胃는 주로 水穀을 受納腐熟시킨다.(즉 飲食物을 消化함). 胃가 飲食物을 受納하므로 「水穀之海」, 「五穀之府」 혹은 「太倉」이라고도 稱한다. 胃와 脾는 表裏가 되어, 다음과 같이 分業하고 있다. 胃는 주로 飲食物을 受納 消化하고, 脾는 주로 飲食物

의 精微를 運化한다. 故로 脾와 胃는 往往 함께 并論한다. 胃의 機能을 一般的으로 「胃氣」라 칭한다. 胃는 初步的消化를 거친 飲食物을 小腸으로 보내야 하므로, 胃氣는 下降을 順調로 한다. 만약 胃氣가 不降하면 胃의 機能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어 各種 病症을 일으킨다. 先人은 “納穀者昌 絕穀者亡 有胃氣即生 無胃氣即死”라 하여, 胃의 기능을 매우 重要視하였다. 胃의 內腔을 「胃脘」이라 하며, 胃의 上口를 「上脘」, 下口를 「下脘」이라 함.

胃,腎,根(위,신,근)

正常脈象의 三個條件이다. 脈勢가 和緩하고, 흐름이 조용하며, 리듬이 一定함은 脈에 胃氣가 있는 것이다. 腎은 脈象이 柔和하고 有力한 것이다. 根은 根氣로서, 두가지를 表現하는데, 하나는 세게 按指(沈取)하여 應指되는 것이고, 또 하나는 寸關尺三部脈이 相應하다는 것이다. 胃, 神, 根은 모두 健康한 脈象에 具備되는 것인데, 病脈中에서는 이들의 存在與否로써 疾病의 吉凶을 判別한다. 그런데 脈診時에 胃, 神, 根의 三者가 實際으로 確然히 區分되는 것이 아니며, 一般的으로 脈搏의 從容 和緩 一定한 律動, 柔和와 有力을 三者의 總體的 表現으로 보고, 人體의 胃氣가 充實하며 精氣가 邪氣를 勝하는 것으로 설명한다.

胃家實(위가실)

「傷寒論」에 있음. 「胃家」은 胃와 大小腸의 略稱이다. 「胃家實」은 邪熱이 陽明經에 結하여, 津液이 受傷되어 나타나는 證候이다. 主要症狀은, 壯熱, 煩熱, 大汗出, 脈洪大 등이다. 邪熱과 腸中の 糞便이 서로 結合되어, 潮熱便秘, 腹痛拒按 等症을 나타내게 된다.

衛強營弱(위강영약)

「營衛不和」의 項 參照.

痿厥(위궤)

① 痿證의 症狀의 하나이다. 則 手足이 痿弱無力하고 不溫하다. ② 痿證과 厥證의 합침이다.

胃氣(위기)

① 一般的으로 胃腸을 主로 하는 消化機能을 말함. 胃氣는 下降을 主管하며, 消化機能上 主로 脾氣와 配合된다. 靈樞 五味編에서 “五臟六腑皆稟氣於胃”라 하였다. 사람은 胃氣를 本으로 삼는데, 그 뜻은, 消化機能이 一定한 程度에서 病人의 一般抗病能力을 代表한다는 것이며, 胃氣의 人體에서의 特殊한 重要性을 말해준다. 故로 治病時에 歷代醫家들은 모두 胃氣의 保護를 重要視하여, “有胃氣則生, 無胃氣則死”라하여, 腸胃機能이 衰弱한 사람에게 處方할 때는 性味가 苦寒하여 瀉下해서 胃氣를 損傷하는 藥物은 되도록 使用을 戒할 것을 強調하였다. ② 脈의 胃氣를 뜻함. 脈은 胃氣를 本으로 삼는다. 정상인의 脈象은 不浮不沈하고, 不急不徐하여 從容和緩하고 리듬이 고른데, 이를 胃氣가 있다고 한다.

衛氣(위기)

衛氣」는 人體의 陽氣의 一部分이며, 水穀에서 生하고, 脾胃에서 來源하며, 上焦로 出하여, 脈外를 運行한다. 그 性質이 剛悍하여 經脈의 制約을 받지 않으며, 氣의 運行이 迅速하고 滑利하다. 그 運行이, 안으로는 臟腑, 밖으로는 肌表腠理로 이르지 않는 곳이 없다. 「衛氣」는 臟腑를 溫養하고, 또 肌膚를 溫潤케 하며, 腠理를 滋養하고, 汗孔을 開閉하는 등 重要機能을 가진다. 이러한 氣는 肌表를 保衛하고 外邪에 抗禦하는 作用을 特徵으로 하기 때문에 「衛氣」라 한다.

衛氣同病(위기동병)

表邪가 入裏하여 熱이 되고, 氣分の 熱勢가 이미 盛한데, 表寒이 아직 除去되지 않는 病機를 말함. 主要症狀은, 壯熱 口渴 心煩 汗出하며, 惡風寒 身痛 등을 수반함.

胃氣不降(위기불강)

「胃失和降」이라고도 함. 胃氣는 通降하는 것이 順調이다. 만약 飲食所傷하거나 胃火衝逆 或은 痰濕阻滯 등의 原因이 모두 胃의 和降을 失調케 하며,甚하면 「胃氣上逆」이 된다. 主要症狀은, 不思飲食, 胃部脹滿, 噯氣, 呃逆, 或 胃脘疼痛, 嘔吐 等이다.

衛氣不固(위기불고)

「表氣不固」의 項 參照.

胃氣不和(위기불화)

「胃不和」라고도 함. 胃陰不足 邪熱擾胃 或은 胃中食滯가 胃氣의 下降 受納에 影響을 미치어, 厭食, 惡心, 不寐, 大便失調 等症을 出現하는 것.

胃氣上逆(위기상역)

「胃氣不降」의 項 參照.

衛氣營血辨證(위기영혈변증)

溫熱病에 應用하는 一種의 辨證施治方法이다. 이는 溫熱病의 發展過程에서의 各異한 四個段階와 그 病理表現을 概括한다. 一般的으로, 罹病當初에는 病이 衛分에 있으며, 比較的 輕하고 比較的 淺部에 있음을 나타낸다. 衛分에서 氣分에 이르면, 이미 한층 病이 進行됨을 顯示하며, 營分에 傳入되면 病辨이 점차 深入 加重되고, 血分에 이르면 最重하다. 이 四段階의 發展變遷은 確然한 區分이 아니고, 相互 連繫된다. 一般的으로 衛. 氣. 營. 血의 順序대로 傳變되지만, 반드시 이 順序대로 出現하지 않는 疾病도 있으며, 發病하자 곧 氣分에 있는 境遇도 있고, 심지어 營分. 血分에 있는 경우도 있다. 或은 衛分에서 直接 營分. 血分으로 傳入하기도 하고, 或은 兩分이 兼病하기도 하며, 或은 病이 이미 營分. 血分으로 傳入했는데, 氣分에 病이 繼續 存在하기도 한다. 그러므로 各異한 證候에 대하여 具體的으로 分析해야 하며, 四者를 分明히 區別함과 아울러 相

互間の 連繫에도 注意 해야 한다. 有關各項을 參照.

胃氣主降(위기주강)

「胃主降濁」의 項 參照.

胃氣虛(위기허)

胃의 水穀을 受納하고 消化하는 機能이 虛弱함을 말함. 主要症狀은, 胸脘痞悶, 不思飲食, 或은 食不消化, 甚則食入反吐, 大便稀爛, 唇舌淡白 等이다.

胃納呆滯(위납태체)

「納呆」의 項 參照.

胃苓湯(위령탕)

「利小便,實大便」의 項 參照.

胃苓湯(위령탕)

「因其衰而彰之」의 項 參照.

胃反(위반)

「反胃」의 項 參照.

熨法(위법)

藥物の 粉末 혹은 藥物の 粗粒을 熱炒하여 錢으로 싸서 患部를 문질러(外熨) 風寒痺濕 腕腹冷痛 等症을 治療하는 데 쓰는 것을 藥熨라 한다. 예컨대 胃氣痛에는 橘葉을 熱炒하여 錢으로 싸서 藥熨한다. 일반적으로 鹽 砂 혹은 乾정한 黃土를 열초하여 布包外熨 해도 熨法の 목적에 도달할 수 있는데 皮膚의 火傷에 주의해야 한다.

痿躄(위벽)

「痿證」의 項 參照.

衛分(위분)

「衛分證」의 項 參照.

衛分證(위분증)

溫熱病의 初期段階이다. 臨床表現은, 發熱, 微惡風寒, 頭痛, 肢痠或身痛, 無汗或少汗, 口微渴, 苔薄白, 脈浮數, 或鼻塞, 咳嗽等이다. 發熱과 惡風寒이 特徵이다. 衛에는 衛外의 뜻이 있다. 身體의 表層을 衛分이라 한다. 안으로 肺氣와 相合하며(肺主皮毛), 肌膚를 溫養하고, 體溫을 調節하며, 外邪를 防禦하는 機能이 있다. 邪氣가 體表에 侵入하면, 衛氣의 機能이 正常을 잃고, 衛分證候를 出現한다. 이를 邪犯衛分이라 한다.

胃不和(위불화)

「胃氣不和」의 項 參照.

胃消(위소)

「中消」의 項 參照.

胃實(위실)

證候名이다. 胃腸에 積熱하여, 熱이 盛하므로 津液을 傷하고, 胃氣가 壅滯不通한 證候를 말함. 主要症狀은, 脘腹이 脹痛하고, 噯氣하며, 大便이 不通하고, 或은 煩躁發熱 等症을 나타낸다.

胃實呃逆(위실애역)

「呃逆」의 項 參照.

胃失和降(위실화강)

「胃氣不降」의 項 參照.

圍藥(위약)

「고위약」의 項 參照

衛弱營強(위약영강)

「營衛不和」의 項 參照.

胃陽(위양)

胃의 機能을 뜻함.

胃熱(위열)

「胃中熱」이라고도 함. 胃가 邪熱을 받거나, 或은 煎炒 燥熱한 食物을 過食하여, 口渴 口臭 易肌嘈雜 小便短赤 大便秘結 等症을 나타냄을 말함. 胃熱이 化火할 때는, 口腔糜爛, 齒牙周圍의 腫痛 等이 나타난다. 「胃火上昇」의 項 參照.

胃熱殺穀(위열살곡)

「殺穀」은, 穀食을 쉽게 消化한다는 뜻. 胃의 機能은 水穀의 腐熟을 主管하는 것인데, 胃中이 熱하면 腐熟作用이 過盛하여, 飲食이 들어가서 얼마 안되어 飢餓感을 느끼게 된다. 이를 胃熱殺穀이라 함. 비록 多食할지라도 身體는 도리어 營養을 얻지 못하여 消瘦하는데, 이런 現象을 「消殺善飢」라 한다. 該當 項을 參照.

胃熱呃逆(위열에역)

「呃逆」의 項 參照.

胃熱壅盛(위열옹성)

「胃火熾盛」이라고도 함. 胃熱의 嚴重한 程度를 形容한 것임. 主要症狀은, 煩渴喜冷飲, 口臭, 口唇糜爛, 齒周圍腫痛, 脘腹灼熱, 小便黃短, 大便秘結, 舌紅 苔黃厚 等이다. 溫熱病에 胃熱壅盛이 나타나면, 陽明實證으로서 神昏譫語, 狂躁 等症을 發하게 된다.

衛營同病(위영동병)

「營分證」에 惡寒 頭痛 身痛 咳嗽 등의 衛分症狀을 兼有한 病機.

胃脘(위완)

「胃」의 項 參照

胃脘痛(위완통)

「胃痛」의 項 參照.

胃陰(위음)

胃中の 津液을 말함. 胃津 或은 胃汁이라고도 함. 이는 水穀의 化生에 由來한다. 臨床上 肺胃의 熱이 盛하면 쉽게 胃陰이 消耗되어, 發熱 口乾 咽燥 便秘 舌紅小苔 脈細數 等의 症狀을 發한다. 故로 어떤 意味에서는 胃陰은 實際上 體內的 其他 一部津液도 包括하는 것으로 解釋한다.

胃陰不足(위음부족)

「胃陰虛」의 項 參照.

胃陰虛(위음허)

「胃陰不足」이라고도 함. 胃의 陰液不足을 말함. 대개 胃火熾盛 脾胃濕熱 或은 熱性病의 熱盛傷津으로 因해, 胃의 陰液을 損耗하게 되어, 胃陰虛를 惹起한다. 主要症狀은, 唇燥 口乾, 喜飲, 飲食減少, 大便乾結, 小便短少, 甚則乾嘔呃逆, 舌中心絳乾, 脈細數 等이다. 慢性胃炎, 神經性胃病, 消化不良, 糖尿病, 熱性病의 恢復期에 多見된다.

胃主降濁(위주강탁)

脾氣는 主昇하고, 胃氣主降한다. 飲食物의 消化는 主로 脾胃의 協調에 의한 昇清 降濁의 過程이다. 脾는 陰土이고, 胃는 陽土이다. 胃는 燥하고 脾는 濕하여, 相互 協調해서 飲食을 消化한다. 脾는 昇清을 主管하며, 水穀의 精微는 그 上輸와 生化에 依存한다. 胃氣는 下降하는 것이 順當하며, 初步的 消化를 거친 飲食物(食物殘渣를 포함)을 계속 아래로 보내어 降濁한다. 降濁과 脾의 昇清작용은 相反하면서 相成한다. 만약 胃氣가 不降하면 嘔吐 등의 症狀을 發하게 된다.

胃主腐熟(위주부숙)

胃의 主要機能의 하나이다. 胃가 飲食物을 消化하여 粥狀으로 만드는 過程을 말함.

胃主受納(위주수납)

受納은 水穀의 接受와 容納을 뜻함. 全消化管中에서 胃腔은 容量이 較大하여 水穀之海라는 名稱이 있으며, 飲食物의 受納이 胃의 主要機能의 하나이다.

委中毒(위중독)

「委中癰」이 項 參照

胃中熱(위중열)

「胃熱」의 項 參照.

委中癰(위중옹)

魄窩의 委中穴部位에 생기는 癰을 말하며, 委中毒이라고도 함. 대개는 肝膽의 積熱이 膀胱經에 結踞되어 생긴다. 或은 患肢의 破損, 濕疹의 潰爛등으로 因해 毒에 感染되어 誘發된다. 처음에는 木硬 腫痛하고 皮膚色이 微紅하며, 或은 灼熱色赤하고 腫塊가 形成될 때는 患肢의 小腿가 屈伸 困難해진다. 故로 俗名을 曲鰓라한다. 이때는 惡寒發熱이 있고, 만약 腫痛이 날로 甚해져서, 寒熱이 不退하면 化膿한것이며, 潰破後에 膿이 다나오면 낫는다.

胃中燥矢(위중조시)

腸中の 大便燥結을 말함.「傷寒論·辨陽明病脈證并治」에서, “陽明病 譫語 有潮熱 反不能食者 胃中必有燥矢五六枚也”라 하였다. 여기서「胃中」은 腸道를 말한다.「胃中燥矢」는, 胃腸內에 實熱이 內結하여, 津液이 邪熱을 받아서 煎灼消耗되므로, 腸中の 大便이 燥結되는 것을 說明한 것이다.

胃汁(위즙)

「胃陰」의 項 參照.

痿證(위증)

痿躄이라고도 함. 素問·痿論에 있음. 이는 肢體가 痿弱하여 쓰지 못하는 하나의 病證이다. 처음에는 대개 下肢가 無力하다가 점차 手足이 軟弱해지고 肌肉이 麻木不仁해지며 皮膚가 乾枯해진다. 또 高熱後에 四肢이 痿弱하여 들 수 없게 되는 수가 있고 或은 産後에 兩脚이 痿軟하여 쓰지 못하게되는 境遇도 있다. 그 原因은 肺熱葉焦로 인해 邪熱이 血脈을 灼傷하기 때문이며 或은 陽明의 濕熱이 筋을 傷하여 筋을 弛緩不遂케 하기도 하며 或은 肝腎이 虧損되어 精血이 不足해져서 筋을 濡養하지 못하는데 起因하기도 한다. 病理變化上 弛緩性麻痺와 比較的 類似하다. 예컨데 小兒麻痺後遺症 및 一部の 肌

肉疾病等이다. 病因과 症狀에 따라서 筋痿, 脈痿, 骨痿, 肉痿等 各異한 種類이 있다. 詳細한 것은 各項을 參照.

胃津(위진)

「胃陰」의 項 參照.

胃呆(위태)

「納呆」의 項 參照.

胃痛(위통)

胃脘痛이라고도 함. 胃脘部の 心窩(명치)에 가까운 部位에 疼痛이 發生함으로 心下痛이라고도 함. 대개 長期的으로 飲食을 不節制했거나 或은 精神刺戟으로 인해 發病한다. 처음에는 肝胃不和, 胃氣鬱滯가 되고 오래되면 氣滯血瘀하여 胃絡을 損傷하며 氣에서 血에 미치어 이 病證을 이룬다. 臨床에서는 主로 肝胃不和와 脾胃虛寒의 區分이 있다. 肝胃不和에 屬한 境遇는 예컨대 胃脘이 脹滿하고 疼痛이 脇肋에 連한다. 아울러 心煩易怒 泛酸 嘈雜 口苦한 火鬱證을 兼有하게 된다. 만약 痛處가 固定되고 拒按하며 便黑하고 脈象이 澁하면 血瘀證이다. 脾胃虛寒에 屬한 境遇는 症狀이 隱痛하고 喜按하며 清水를 吐出하고 몸이 疲困하며 四肢이 冷하고 大便이 不實한 等症을 말한다.

胃寒(위한)

胃陽이 虛하여 胃에 寒氣가 있음을 말함. 主要症狀은, 清水嘔吐, 或 冷涎, 口淡喜熱飲, 舌苔白潤 等이다.

胃寒呃逆(위한애역)

「呃逆」의 項 參照.

胃咳(위해)

咳하면 嘔하고, 嘔逆이 激甚하면 蛔虫을 嘔出하는 證候를 말함.

胃虛(위허)

일반적으로 胃氣虛弱 或은 胃陰不足을 말함. 「胃氣虛」, 「胃陰虛」의 項 參照.

胃虛呃逆(위허애역)

「呃逆」의 項 參照.

胃火上昇(위화상승)

胃熱이 火로 化하여, 口腔炎症을 나타내는 病理을 말함. 例컨대, 口臭, 齒齦腫痛, 甚하면 齒齦出血 等を 나타낸다. 「胃熱」의 項 參照.

胃火熾盛(위화치성)

「胃熱壅盛」의 項 參照.

瘤(유)

이는 體表에 생기는 군더더기(贅生物)이다. 李梴의 醫學入門에서, “瘤初起如梅李 皮嫩而光 漸如石榴瓜瓠之狀 原因七情勞欲 復被外邪 生痰聚瘀隨氣留注 故又曰瘤贅 總皆氣血凝滯結成”(瘤는 처음에는 梅李와 같이 생겨 皮는 軟하고 光澤이 나며 漸次 石榴나 瓜瓠 처럼 된다. 七情勞欲에 起因하며 또 外邪를 입어 痰이 생기고 瘀가 모여 氣를 따라 留注한다. 故로 瘤贅라고도 한다. 모두 氣血의 凝滯에 依해 생긴다)고 하였다. 그 形狀과 病因의 차이에 따라, 氣瘤, 肉瘤, 筋瘤, 血瘤, 骨瘤, 脂瘤 等으로 나뉜다.

柔肝(유간)

「養肝」, 「養血柔肝」이라고도 함. 이는 肝陰虛(肝血不足)를 治療하는 方法이다. 肝陰虛의 臨床表現은 視力減退, 兩眼乾澀, 夜盲 때로 頭暈耳鳴, 爪甲色淡白, 或夜間睡眠不好, 多夢, 口乾津液缺少, 脈細弱 等이다. 當歸, 白芍藥, 地黃, 何首烏, 枸杞子, 女貞子, 일연초, 상기자 等藥을 쓰면 좋다. 肝은 剛臟이며 (肝爲剛臟) 血의 營養에 依存하므로 養血之品을 씌으로써 肝이 營養을 얻게 해야 한다.

柔痙(유경)

「痙病」의 項 參照.

幼科(유과)

「小方脈」이 項 參照

遺溺. 遺尿(유뇨)

- ①夜間 睡眠中에 언제나 自覺하지 않고 排尿하는 것을 말하며, 「尿床」이라고도 함. 兒童에게 많다. 대개는 腎氣不足으로 인해 膀胱의 氣가 不固해지기 때문이며, 虛證에 屬한다. 偏寒의 遺尿症은 尿色이 清白하고, 偏熱의 遺尿症은 尿가 黃色이고, 냄새가 난다.
- ②小便失禁을 말함.

流痰(유담)

骨關節의 結核病이다. 骨癆 或은 瘡癆라고도 함. 學齡兒童에게 多發하며, 通常 患者에게 其他의 結核病歷이 있다. 病變部位는 脊椎에 가장 많고, 그다음이 髕(股關節), 膝, 踝이고, 이에 버금하여 肩, 肘, 腕등의 關節이다. 病因은 대개 先天的인 體質虛弱, 或은 久病으로 腎陰이 虧損되어, 骨髓가 不充實하며, 骨質이 軟弱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虛를 틈타 外邪가 侵襲하여, 痰濁이 凝聚되고, 或은 跌仆損傷 등으로 因해 誘發된다. 本證의 過程은 길며, 대개는 不熱 不紅 不腫하고, 數週 或은 數個月後에 비로소 痠脹하면서 넓은 範圍로 약간 腫起하는데, 堅硬하지 않으며, 오래되면 문드러져, 潰破後에 汁이

나오며, 或은 두부찌끼 같은 것이 나오기도 하고, 좀처럼 아물지 않으며, 이어서 癭管을 形成한다. 언제나 몸이 羸瘦하고, 힘이 없으며, 潮熱 盜汗등의 全身症狀을 나타낸다.

乳痰(유담)

「乳核」의 項 參照.

流痰結瓜(유담결과)

「流注」의 項 參照.

乳頭破碎(유두파쇄)

「乳頭風」이라고도 함. 乳頭, 乳頸 및 乳暈部の 皮膚가 漸次 浸濕되어 潰爛破裂되는 病症을 말함. 대개는 肝火가 疏泄되지 않고, 肝胃의 濕熱이 蘊結되기 때문에 생긴다. 그 症狀은, 乳頭가 破碎 裂開되고, 疼痛이 劇烈하며, 손으로 문지르면 出血되거나 粘液이 流出되며, 或은 黃痂가 생겨서, 外吹乳癰을 誘發하기 쉽다. 哺乳期에는 좀처럼 낫지 않고, 離乳後에야 낫게 되는 경우가 많다.

乳頭風(유두풍)

「乳頭破碎」의 項 參照.

乳癰(유력)

「乳核」의 項 參照.

乳癆(유로)

乳核이 擴散되어 생기는 疾病이다. 氣血이 內虛하거나 或은 調治를 그르치므로 乳核이 사발처럼 漸大되어 堅硬疼痛하며, 그것이 胸脇이나 腋下에 미치고, 색깔이 紫色 或은 黑色이 되며, 潰破後에 輕한 것은 白汁이 나오고, 重한 것은 臭汁이 나온다. 오래 되면, 午後潮熱, 咳嗽, 顴紅, 羸瘦등의 陰虛內熱症狀을 나타낸다.

乳漏・乳癭(유루)

「乳癭」라고도 함. 乳房 或은 乳暈에 생기는 漏管이다. 乳癰, 乳發 등의 疾病의 治療를 잘못하여, 瘡口이 오래도록 낫지 않기 때문에 생긴다. 患部에서 때때로 透明的한 汁이 흐르며, 或은 汚穢物이 섞이기도 한다. 瘡口은 通常 陷凹되며, 周圍의 皮膚가 暗紫色을 띤다. 만약 瘡口이 乳暈部에 있으면, 대개 乳頭가 內縮되고, 膿液이 臭穢하며, 豆腐찌끼 같은 것이 섞여 排出되고, 쉽게 收口되지 않으며 收口後에 다시 再發하기 쉽다.

由裏出表(유리출표)

病邪가 裏部에서 肌表로 透達하는 것을 말함. 主要表現은, 먼저 內熱煩躁, 咳逆胸悶 등의 裏證이 있는데, 뒤이어서 發熱汗出하고, 皮膚에 痧疹이 漸次로 돌아나면서 煩躁證이

輕減되어, 病邪가 裏에서 肌表로 出하는 趨勢를 나타내는 것을 말하며, 이는 病情이 好轉되는 趨勢의 象徵이다.

濡脈(수맥)

脈象의 一種. 濡는 軟의 뜻 脈象이 細軟하고 浮하여, 輕按하면 觸知되는, 重按하면 도리어 不明瞭하다. 亡血傷陰 或은 濕邪滯留에서 볼 수 있다.

幽門(유문)

「七衝門」의 項 參照.

乳發(유발)

乳房 或은 胸筋의 內部이 腐爛 壞死되기 쉬운 化膿性感染을 말함. 男女 共히 發病할 수 있으며, 대개는 胃腑에 濕火가 相凝하기 때문에 생긴다. 그 症狀은, 처음에 乳房(或은 胸部)이 熾熱하여 넓게 腫起하며, 甚하게 疼痛하며, 惡寒發熱을 隨伴한다. 病勢가 凶猛하여 急速히 進展되어, 皮肉이 焦黑 腐爛된다. 婦女는 通常 乳房全體가 潰爛되어, 囊隔損傷이 된다(대개 囊性으로 됨). 오래도록 收口 되지 않으면 「乳漏」가 되기 쉽다.

乳癖(유벽)

① 대개 肝脾의 鬱怒思慮로 損傷되어 氣滯 痰凝이 되기 때문에 생긴다. 中老婦女에게 多發한다. 처음에는 乳房에 하나의 腫塊가 생겨 鷄卵처럼 表面이 光滑하고 移動한다. 대개는 痛感이 없는데 少數의 경우는 輕微한 脹痛感이 있다. 後期에도 腫塊가 皮膚와 粘着되지 않고 皮膚색은 如常하며 역시 發熱이 없고 몇년을 지나도 潰破되지 않는다. 乳腺 纖維瘤의 瘤이며 一部 患者는 妊娠期에 腫塊가 急速히 增大되어 惡化되는 경우도 있다. ② 氣滯 痰凝에 或은 衝任 二經의 失調를 兼發한 것이다. 이러한 病症은, 대개 中年婦人의 양쪽 乳房에 잘 생기며, 月經前期에 乳房에 脹痛과 멍울이 있음을 느끼게 된다. 누르면 크기가 一定하지 않은 몇개의 멍울이 있는데, 약간 輕하고, 邊緣이 不明瞭하다. 月經期를 지나면 症狀이 輕減되고, 腫塊의 消長이 往往 情志의 刺戟과 有關하다.

濡瀉(유사)

「濕勝則濡瀉」의 項 參照.

扭傷(유상)

關節附近의 軟部組織, 例컨대 筋膜, 靱帶, 腱 등이 外力의 猛烈的 牽引에 의해 損傷을 일으킨 것을 말함. 主要症狀은, 局部的 腫痛, 關節運動의 障礙 等이다.

類書(유서)

部門別로 分類하여 編輯한 書籍이다. 醫學類서는 基礎醫學과 臨床醫學등을 包括하며 그주에 靑代 陳夢雷등이 편한 古今圖書集成醫部全錄이 代表作이다.

濡泄(유설)

「濕瀉」의 項 參照.

遺泄(유설)

「遺精」의 項 參照.

乳細(유세)

藥物이 粉末을 유본에 넣고 극세하게 염마하는 것 유본은 도자기제이며 형태는 구와 같고 내면이 藥간 조조하면 도자기제의 유봉으로 藥物을 연마한다. 점안藥이나 취후藥 등은 모두 유본내에서 극세말로 연마한다

乳嗽(유수)

「百啐嗽」의 項 參照.

乳蛾(유아)

本病은 扁桃를 위주로 한 咽喉部의 病症이며 [喉蛾]라고도 함. 病因은 風熱의 外邪가 相博하여 咽喉部에 結滯되기 때문에 或은 虛火가 上炎하므로 或은 氣血이 凝滯되므로 發한다. 本病은 發病이 急速하며 喉核의 充血이 顯著하고 紅腫 灼熱하며, 咽頭部의 疼痛이 甚하고 扁桃의 表面에 黃白色의 膿과 같은 分泌物이 나와서 形狀이 蠶蛾와 같다. 즉 急性扁桃炎이다.

乳岩(유암)

婦女에게 많이 생긴다. 鬱怒 傷肝, 思慮 傷脾로 因해, 氣滯 痰凝이 되기 때문이며, 或은 衝任 二經의 失調로 因해, 氣滯 血凝이 되어 發病한다. 처음에는 乳房에 豆大의 小核이 結成되어, 漸次 바둑알 만큼 커지는데, 不痛 不痒하고, 不紅 不熱하며, 몇 해를 지나면서 점점 커져서 비로소 疼痛은 느끼게 되며, 아픔이 지속된다. 未潰時에는 腫塊가 栗무더기나 옅은 주발같고, 紫色이며, 堅硬하다. 漸漸 潰爛되어 汚汁이 滲出되고, 때로는 臭血이 나오며, 潰爛이 岩穴처럼 깊어지고, 瘡口의 邊緣이 가지런하지 않고, 或은 突起하기도 하며, 疼痛이 甚하다. 어떤 경우는, 처음에 乳房에 腫塊가 생기고, 腫塊의 중앙을 누르면 彈力性이 있고, 未潰時에는 대개 乳孔에서 流血이 되며, 後期에 潰爛되어, 膿은 없고 出血하며, 瘡口의 中央은 陷凹되고 邊緣은 堅硬하다. 또한 처음에 乳暈部位가 發紅하며, 丘疹이 생겨 表面은 腐爛되어 血과 汁이 滲出되고, 後期에 乳頭가 漸次 陷凹되어, 周圍는 堅硬하며, 皮膚色이 紫褐色을 띠고, 後期에는 乳頭가 潰爛되며, 乳房의 內側에 堅硬한 腫塊가 形成되는 경우도 있다. 以上の 三種類에서, 病的 進行中 언제나 患側의 頸部와 腋下部位에 腫大한 硬塊가 생기며, 周圍의 組織과 粘連된다. 乳腺癌 等症의 類이다.

乳癰(유옹)

乳房部位에 發하는 癰을 「乳癰」이라 統稱하며, 急性乳腺炎이다. 대개 産後의 婦女에게서 볼 수 있으며, 그 病因은, 肝氣鬱結, 胃熱壅滯에 起因하는 경우가 있고, 或은 乳汁積滯에 起因하는 수가 있으며, 或은 乳兒가 吸乳時에 乳頭를 損傷하여 熱毒에 感染되거나, 或은 産後에 血虛한데 外邪를 感受하여, 濕熱이 蘊結되고, 氣血이 凝滯되기 때문에 생긴다. 대개는 乳房의 外上方에 생기며, 그 症狀은, 처음에는 硬結脹痛하고 炊熱하며, 惡寒 壯熱을 隨伴한다. 一週間에 成形이 되고, 10日前後에 化膿한다. 만약 切開하지 않으면, 外向 自潰되어, 膿이 다 나온 後에 收口된다. 少數의 化膿性瘻管을 形成하게 되는데, 이를 「乳漏」라 한다. 古代醫家들은, 産後의 哺乳期에 앓는 乳癰을 「外吹乳癰」이라 하였고, 妊娠期에 앓는 乳癰을 「內吹乳癰」이라 하였다. 內吹乳癰은 外吹乳癰에 比하여, 消散되기 어렵고, 化膿도 더디며, 潰破後에는 언제나 産後에 이르러서야 收口된다.

乳栗(유율)

「乳核」의 項 參照.

留飲(유음)

長期間 停留하여 運行되지 않는 水飲을 말함. 모두 中焦의 脾胃가 兩虛하므로 運化機能이 喪失되어 津液이 凝滯된 所致이다. 主要 臨床 表現은 口渴하고 四肢關節이 疝痛하며 背部에 寒冷感이 있고 氣短하며 脈象이 沈한 等이다. 中陽이 回復되지 않으면 久飲을 排泄하더라도 新飲이 다시 沮留되므로 遷延難愈하게 된다.

乳泣(유읍)

妊娠期間中에 乳汁이 저절로 流出되는 것을 말함(産後에 嬰兒가 아직 젖을 빨지 않는 데 저절로 流出하며,甚하면 終日 繼續되는 것을 「乳汁自出」이라 함). 氣虛와 肝熱의 二種이 있다. 氣虛에 起因한 境遇는, 乳房이 不暢하고, 面色이 淡白하며, 氣短 身疲하고, 心悸 頭暈하며, 手足이 冷하고, 脈象이 대개 緩弱하다. 肝熱에 起因한 境遇는, 乳房이 脹痛하고, 面色이 潮紅하며, 頭暈 脇脹하고, 煩躁便秘하며, 脈象이 대개 弦數하다.

留者攻之(유자공지)

「素問. 至眞要大論」에 있음. 病邪가 體內에 滯留하면 藥을 써서 이를 攻逐해야 한다는 뜻이다. 氣. 血. 痰. 水等은 모두 滯留될 수 있다. 氣滯는 行氣해야 하며, 血滯한 血瘀는 祛瘀活血해야 하고, 痰飲의 滯留는 滌痰해야 하며, 水가 體內에 滯留되면 逐水法을 써야 한다.

乳疽(유저)

乳腺深部の 化膿性感染이며, 陰證에 屬함. 肝氣 胃熱의 蘊結에 依해 생긴다. 主要症狀은, 乳房에 結塊가 생겨 堅硬 微痛하며, 皮膚色은 不變하고, 腫塊가 漸次 增大되며, 化膿은 비교적 더디고, 化膿時에 惡寒發熱이 있고, 潰破後에 黃色膿液이 流出되며, 潰孔이 비교적 깊다.

遺精(유정)

「遺泄」, 「失精」이라고도 함. 꿈에 遺精하는 것을 「夢遺」라 하며, 晝間에 精液이 저절로 滑出하는 것을 「滑精」이라 함. 주로 이는 「心腎不交」, 「相火熾盛」, 「腎氣不固」 등에 의해 惹起되며, 또 少數의 경우는 濕熱의 下注에 起因하기도 한다. 心腎不交에 起因한 경우는, 夢中에 遺精하고, 頭暈하며, 心悸 神倦하고, 小便이 黃短하면서 熱感이 있다. 相火熾盛에 起因한 경우는, 陰莖이 勃起하기 쉽고, 口乾舌紅하며, 頭暈目眩하고, 耳鳴 腰痠한다. 腎氣不固에 起因한 경우는, 精液이 滑出하기 쉽고, 面色이 光(白+光)白하며, 精神이 萎靡하고, 頭眩 腰痠하며, 脈이 沈弱하다. 만약 濕熱로 인해 惹起된 경우는, 대개 口苦하고, 尿赤하며, 舌苔黃膩 등을 兼發한다.

有諸內,必形諸外(유제내,필형제외)

[從外測內]의 項 參照.

流注(유주)

「流痰結瓜」라고도 함. 이는 毒邪가 定處없이 流注하며, 定處없이 注入되어, 비교적 深部の 組織에 變生하는 하나의 化膿性病症이다. 대개는 氣血이 虛弱한 者에게 생긴다. 대개 肌肉의 深部に 생기며, 結塊가 되거나 或은 넓게 腫起하며, 單發하거나 或은 多發하여, 여러 날 지나면 化膿한다. 이 種類의 病名이 매우 많다. 病因에 依해 命名된 것으로는, 「濕痰流注」, 「暑濕流注」, 「瘀血流注」등이 있고, 部位에 의해 命名된 것으로는, 「臍下流注」등이 있으며, 症狀에 의해 命名된 것으로는 「縮脚流注」등이 있다.

類中風(유중풍)

「中風」의 項 參照.

乳汁不行(유즙불행)

「缺乳」의 項 參照.

乳汁自出(유즙자출)

「乳泣」의 項 參照.

乳吹(유취)

「乳癰」의 別名이다. 內吹와 外吹의 二種類로 나뉜다. 先人들은, 「內吹」의 原因을, 妊娠期에 孕婦의 胎氣가 旺盛하고, 熱邪가 鬱蒸한 所致라 하였으며, 「外吹」는 嬰兒이 吸乳時에 乳頭를 咬傷하거나 或은 吮乳한 채 잠이 들어, 口鼻의 氣가 乳頭に 吹入되므로 惹起된다고 하였다. 이러한 名稱에는 큰 意義가 없다. 其實 內吹, 外吹는 모두 細菌感染에 屬한다. 그런데 古代醫家들은, 乳癰의 發病을 產前과 產後로 區別하였으므로 이렇

게 記述하였다. 「乳癰」의 項 參照.

留針(유침)

針刺手法의 하나이다 針을 穴位에 刺入하여 針감이 出現한 후 針을 혈내에 방치하여 움직이지 않고 病人에게 一定한 체위를 維持시켜 一定時間이 지난후에 拔針하는 方法이다. 유針시간의 장단은 病이느이 구체적정황에 따라 결정한다.

由表入裏(유표입리)

表證이 未解하여, 病勢가 內部를 向해 發展하는 것을 말함. 區分할 점은, 病邪가 表에 있으면, 惡風 惡寒하며, 表에 入하면 惡寒하지 않고 도리어 惡熱한다. 表證은 대개 不渴하고 舌苔가 薄白한데, 入裏하면 대개 煩渴하고 舌苔가 黃燥하는 것이다.

油風(유풍)

斑禿이라고도 함. 이는 頭髮이 단시일내에 片狀으로 脫落되어, 頭皮가 光滑해지는 一種의 病症이다. 症狀이 甚한 경우는 여러 곳이 斑塊狀으로 脫毛되고, 아주 甚하면 頭髮이 급속히 完全脫毛가 된다. 대개는 血虛生風 或은 風盛血燥로 因해, 毛髮이 濡養되지 못하기 때문에 생긴다. 통상 脫毛이외에는 自覺症狀이 없으며, 어떤 患者는 脫毛部位의 皮膚가 붉게 되고, 가려운 경우도 있다. 恢復期의 頭髮은 細嫩柔軟하고, 색깔이 淡黃色 或은 淡白色이며, 以後 漸次 正常으로 된다.

游風(유풍)

赤游風 或은 赤游丹이라고도 함. 이는 風證을 爲主로 皮膚에 나타나는 一種의 急性 疾病이다. 小兒에게 많다. 口脣, 眼瞼, 耳垂, 或은 胸腹, 背部, 手背 等に 多發된다. 항상 急激히 發하며, 消退도 빠르고, 定處없이 流注한다. 患處의 皮膚에 紅暈이 생겨, 浮腫의 形狀이 雲片과 같고, 灼熱하며 瘙痒한다. 形狀이 風疹塊와 같은데, 그보다 더 腫大하다. 發熱 或은 腹痛, 嘔吐, 泄瀉 便秘 等症을 隨伴한다. 一般的으로, 背腹部에서 생겨, 四肢로 流産되는 것은 順證이고, 四肢에서 생겨 胸腹으로 流入되는 것은 逆證으로 본다. 病因은 脾肺가 燥熱하거나 或은 表氣가 不固하여, 風邪가 腠理에 侵襲해서, 風熱이 壅滯되어, 營衛의 調和를 잃기 때문이다. 또한 食物의 過敏反應(알레르기)에 의해 發하는 水道있다. 一說에는, 赤游丹이 丹毒의 一種이며, 그 색깔이 丹처럼 붉고, 流注無定하므로 이렇게 이름한다고 함.

乳核(유핵)

婦女의 乳房에 생기는 慢性炎症이며, 一部 結核의 病變을 包括한다. 乳痰, 乳栗, 乳癰 等이라고도 함. 대개는 生長期에 있는 體質虛弱者에게 發하며, 肝鬱, 脾虛, 痰濁 凝結의 所致이다. 結核이 처음에는 대개 한쪽 乳房의 上部에, 한개 或은 여러개가 생기는데, 작은 것은 梅와 같고, 큰 것은 李와 같으며, 質이 堅硬하고, 밀면 移動하며, 皮膚색은 不變하고, 만져도 아프지 않으며, 數個月後에 腫塊가 增大되고, 皮膚색이 微紅해지며, 慢性으로 柔軟해지면 化膿한 것이다. 潰破後에는 通常 瘻管이 形成되며, 膿液은 清稀하

고, 屑綿樣의 汚物이 섞이고, 瘡口의 腐肉이 脫落되지 않으며, 患側의 腋窩에는 항상 腫大한 結塊가 생긴다.

俞穴(腧穴, 輸血)(수혈)

①널리 穴의 總稱이며, 穴의 別名이기도 하다. ②五腧穴의 一種이며, 모두 手·足部에 있다. 「靈樞·九鍼十二原篇」에서 “所注爲俞”이라 하였다. 이는 經脈의 流注方面이 마치 水流가 漸次 모여서 더 큰 水渠(개천)로 輸注되는 것과 같다는 것이다. 全身의 十二經에 각각 하나의 俞穴이 있어서 「十二俞穴」이라고도 한다. 그 名稱은 아래와 같다. 肺－太淵 大腸－三間 心包－大陵 三焦－中渚 心－神門 小腸－後溪 脾－太白 胃－陷谷 肝－太衝 膽－(足)臨泣 腎－太谿 膀胱－束骨

流火(유화)

① 小腿부에 發하는 丹毒을 말하며, 濕火의 下流로 因해 생긴다. ② 風痺의 別名이다. 痛處가 一定하지 않으므로 이렇게 이른다.

衄家(육가)

平素 鼻血이 잘 나는 사람을 말함. 항상 失血하므로, 血虛하고 津液이 虧乏된다. 그러므로 張仲景의 著述에서, 이런 사람은 發汗시켜서는 안되며, 만약 發汗시키면 筋脈이 緊急해지고 兩眼直視 失眠 等を 惹起한다고 하였다.

六綱(육강)

「八綱辨證」의 項 參照.

六經(육경)

太陽經·陽明經·少陽經·太陰經·少陰經·厥陰經의 合稱, 古代에는 臨床上 六經의 名稱과 그것이 表現하는 證候의 特徵을 많이 써서 疾病部位의 深淺(表裏)과 疾病의 發展段階를 說明하여, 急性熱病(廣義의 傷寒)의 진찰과 치료時에, 辨證論治의 綱領, 즉 「六經辨證」으로 삼았다.

六經辨證(육경변증)

外感病(發熱이 多見됨)의 辨證方法의 하나이다. 六經이란, 太陽. 陽明, 少陽. 太陰. 少陰. 厥陰을 말하며, 外感病의 過程에서 나타나는 6種의 症候의 分類名稱이며, 六經病이라고도 한다. 外感病의 初期段階에, 惡寒. 發熱. 頭痛. 脈浮等を 나타내는 것을 太陽病이라 한다. 病邪가 內部로 向해 發展하여, 表寒症에서 裏熱症으로 傳變하여, 身熱이 나고, 惡寒하지 않으며 도리어 惡熱하는 것을 陽明病이라 한다. 發熱時에 不惡寒하고, 惡寒時에 不發熱하며, 惡寒과 發熱이 交潛해서 出現하고, 또한 口苦 咽乾等の 症狀이 있는 것을 少陽病이라 한다. 以上 3種의 類型을 三陽病이라 한다. 三陽病의 性質은 陽에 屬하고, 熱에 屬한다. 病邪가 內部로 向해 發展하는 다른 一種의 病理傳變으로, 陽證. 熱證에서 陰證. 寒證으로 傳變하여, 腹滿. 嘔吐, 泄瀉等症을 나타내는 것을 太陰病이라 한다. 그리

고 身倦, 脈微細, 惡寒, 肢冷을 나타내는 것을 少陰病이라 한다. 病情이 比較的 複雜하여 寒熱이 交錯해서 出現하는 것을 厥陰病이라 한다. 以上の 類型을 三陰病이라 한다. 三陰病의 性質은 陰에 屬하고, 寒에 屬한다. 故로 一般的으로 發熱하지 않는다. 六經病은 東漢의 張仲經이 「素問」 六經의 基礎 위에, 傷寒病의 傳變情況과 結合시켜 總括한 6個의 辨證綱領이다. 이는 다만 外感熱病過程의 어느 段階에서 나타내는 綜合證狀일 뿐이며, 一種의 獨立된 病이 아니다. 六經중 서로가 一定한 有機的 連繫를 가지므로 發病에 合併, 併病이 될 수 있고, 또 相互 傳變이 되기도 한다. 六經辨證의 主要目的은, 各經의 主證과 熱型을 分辨하는 데 있으며, 熱性病의 辨證에는 限界性이 있으니, 「衛氣營血」辨證과 結合시켜야만 比較的 全面的 辨證이 된다.

六經病(육경병)

「六經辨證」의 項 參照.

六君子湯(육군자탕)

「塞因塞用」의 項 參照.

肉極(육극)

「六極」의 項 參照.

六極(육극)

六種類の 勞傷虛損의 病證을 말함. 血極하면 毛髮이 빠지고 善忘한다. 筋極하면 拘攣, 轉筋한다. 肉極하면 肌초하고 萎黃한다. 氣極하면 短氣喘急한다. 骨極하면 齒浮하고 足萎한다. 精極하면 目暗하고 耳聾한다.

六氣(육기)

①自然界的 一年四季의 風·寒·暑·濕·燥·火 等 六種의 氣候要因의 變化를 뜻함. ②人體의 生命活動의 六種의 基本物質, 즉 精·氣·津·液·血·脈 등을 말함. 이들 物質은 모두 飲食物의 精氣에서 化生된 것이므로 이렇게 이른다(靈樞·決氣篇)

肉瘤(육류)

瘤의 一種이다. 內部에 濕痰이 있어서, 氣血과 凝結된 所致이다. 數는 一定하지 않고, 크기도 一定하지 않다. 瘤體가 柔軟하며, 밀면 移動한다. 때로는 瘤腫이 약간 輕하고, 皮膚色은 不變하며, 痛感도 없고, 發展이 比較적 緩慢하다.

肉輪(육륜)

「五輪」의 項 參照

肉輪(육륜)

「胞臉」의 項 參照.

六磨湯(육마탕)

「泄劑」의 項 參照.

六味地黃湯(육미지황탕)

「斂汗固表」의 項參照.

六味地黃丸(육미지황환)

「補陰」의 項 參照.

六味地黃丸(육미지황환)

「外科補法」의 項參照

六變(육변)

①急, 緩, 大, 小, 滑, 澁의 6種의 脈象의 病理變化를 말함. 『靈樞』『邪氣臟腑病形篇』에서, “病之六變者...諸急者多寒, 緩者多熱, 大者多氣少血, 小者血氣皆少, 滑者陽氣盛, 微有熱, 澁者多血少氣, 微有汗”이라 하였다. 여기서의 6種은 모두 脈搏의 形象을 말한 것이며, 遲速을 말한 것이 아니다. 급은 弦緊한 脈搏로, 外感한邪에 多見된다. 緩은 脈波가 弛緩되는 長한 것으로, 氣盛 或은 實熱과 關聯이 있다. 大은 脈象이 浮大한 것으로, 陽盛陰虛와 關聯이 있으므로 多氣少血하다. 少는 細脈로, 氣血의 俱虛와 關聯이 있다. 骨은 脈象이 流暢 滑利한 것으로 陽氣가 旺盛한 乾康脈象에 屬하며, 또한 熱病에서도 볼 수 있다. 澁은 脈動이 亂澁한 것으로, 血瘀와 關聯이 있으며, 氣虛不運에 起因하거나 或은 寒邪가 氣血을 阻滯한 所致이다. ②八綱中の 表, 裏, 虛, 實, 寒, 熱을 말함.

六腑(육부)

六腑는 膽.胃.大腸.小腸.膀胱.三焦를 包括함. 腑는 一般的으로 胸腹腔中の 中空인 器官을 가리키고, 水穀의 出納轉輸, 傳化의 機能을 가지며, 所謂“傳化物而不藏”이다. 東西醫學에서 論述하는 六腑의 機能은 대체로 一致하지만, 다른 點도 있다. 例컨대 三焦는 東醫臟腑學說에만 있는 것이다. 또 東醫學에서 말하는 六腑는, 臟腑學說과 經絡學說에 連繫되는 것으로, 그 機能은 解剖學上の 同名인 腑와 완전히 같지 않을 수 있다. 膽을 例로 들면, 膽은 肝葉의 下部에 附着되어 膽汁을 貯藏하는 것인데, 膽은 其他의 腑가 水穀을 傳化하고 糟粕을 傳導하는 機能과는 뚜렷한 차이가 있다. 膽은 肝과 서로 表裏가 되며, 「肝主謀慮」, 「膽主決斷」이란 것은, 肝膽이 모두 中樞神經의 活動과 有關함을 뜻하며, 膽과 肝은 또 病理學上으로도 함께 一部 「火」의 證候를 일으키기 쉽다. 이들은 現代解剖學上에서 말하는 膽과는 區別됨을 말해준다. 腑와 臟의 配合(互爲表裏라 하며, 腑는 表이고 臟은 裏이다.)은 膽合肝, 胃合脾, 大腸合肺, 小腸合心, 膀胱合腎, 三焦合心包絡이다.

六腑以通爲用(육부이통위용)

六腑는 『傳化物』하는 器官이며, 分業協力에 의해 飲食物의 消化·吸收·轉輸·排泄을 共同

으로 完成한다. 예컨대, 胃의 受納·消化 그리고 半消化物の 腸道로의 送下, 膽의 膽汁疏泄, 小腸의 半消化物の 承受·吸收·清濁의 分別, 大腸의 水分吸收와 排便, 膀胱의 尿液의 貯藏·排泄 等이다. 三焦는 各部分의 機能을 連繫하여 協同해서 蒸發 氣化시키며, 또 三焦는 水液의 升降 排泄의 主要通路이다. 六腑가 五臟과 다른 점은, 때로 出하고 때로 入하며, 때로 實하고, 때로 虛하여, 出納 消化 및 轉輸하는 하나의 『大集合體』인 것이다. 그러므로 六腑는, 機能面에서 協助하여, 暢通 無碍 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傳化物』의 機能에 影響을 미치므로 『六腑以通爲用』(六腑는 通을 用으로 삼는다)이라 한다.

肉分(육분)

筋肉의 紋理를 말함. 大腿部나 上膊部の 筋肉은 限界가 分明하여 「大分」이라 하고, 筋肉間의 紋理를 「小分」이라 함.

肉痺(육비)

素問·痺論에 있음. 肌肉의 症狀을 爲主로 하는 痺症이며 肌痺라고도 함. 臨床表現은 肌肉이 麻木되고 或은 痠痛無力하며 困倦하고 汗出하는 等이다. 風寒濕의 邪氣가 肌肉에 侵入한 所致이다.

六神曲(육신곡)

「曲」의 項 參照

六陽脈(육양맥)

生理적으로 특이한 一種의 脈象을 말함. 平素 兩手의 寸, 關, 尺, 各部分의 脈象이 모두 比較的 洪大한데, 病態는 아니므로, 病理性脈象에 屬하지 않는다.

肉癭(육영)

癭의 一種이다. 結喉部의 兩側에 하나 或은 여러개의 半球形의 腫塊가 생겨, 皮膚色은 如常하며, 不緊 不軟하고, 表面이 光滑하며, 삼키는 동작에 따라 上下로 移動하며, 눌러도 아프지 않고, 약간의 振動感이 있다. 同時에 心情이 躁急하고, 多汗하며, 胸悶하고, 心悸, 月經不調 等症을 나타낸다. 대개는 肝氣鬱結에 起因하고, 或은 脾의 運化機能이 失調되어 氣滯되고, 濕痰이 凝結된 所致이다. 本病은 突眼性甲狀腺腫과 類似하다.

六鬱(육울)

氣·血·濕·火·痰·食등 六種鬱證의 合稱. 「鬱」은 壅遏하여 通暢하지 않거나 혹은 鬱結不舒한 것이다. 元代의 朱丹溪는 “氣血沖和 萬病不生 一有怫鬱 諸病生焉”이라고 認識하였다. 이는 氣血이 鬱結하면 其他鬱證이 잇달아 생김을 說明한 것이다.

肉痿(육위)

素問·痿論에 있음. 痿證의 하나이다. 症狀은 肌肉이 麻痺되어 無感覺이 되고 痿弱無力해 진다. 本病은 脾氣의 內熱과 腎精의 不足으로 인해 肌肉에 營養이 輸布되지 못하게

나 或은 濕地에 久居함으로 肌肉이 濕邪에 損傷된 所致이다.

育陰(육음)

「滋陰」의 項 參照.

育陰(육음)

「補陰」의 項 參照

六淫(육음)

風·寒·暑·濕·燥·火의 六種의 病邪의 合稱. 「淫」이란, 邪·過·甚을 뜻함. 일반적으로 「六氣」가 太過·不及하거나 或은 계절이 아닐 때 나타나서 發病케 하는 邪氣로서, 外感病에 屬하는 一連의 病因을 말한다. 六淫은 人體의 氣候變化에 對한 反應性에 影響을 미칠 뿐만 아니라, 病原體의 繁殖을 助長하게 되므로, 實際로는 一部 流行性病과 傳染病의 病因도 包括한다. 六淫의 發病은, 口鼻에서 혹은 肌膚에서 人體를 侵犯하는데, 모두 外部에서 侵入하여 「表」의 病證을 나타내므로, 「外感六淫」이라고도 한다. 發病에는 비교적 顯著한 季節性이 있어서, 春季에는 風病이 많고, 夏季에는 暑病이 많으며, 長夏(陰六月)는 濕病이 많고, 秋季에는 燥病이 많으며, 冬季에는 寒病이 많다.

六陰脈(육음맥)

生理的으로 特異한 一種의 脈象을 말함. 平素 兩手의 寸, 關, 尺 各部의 脈象이 모두 比較的 細弱한데, 病態는 아니므로, 病理性脈象에 屬하지 않는다.

六一散(육일산)

「清熱利濕」의 項 參照.

肉刺(육자)

鷄眼의 項 參照.

六藏(육장)

①통상은 心 肝 脾 肺 腎 心包絡을 뜻함. ②「難經 36難」에서는 五臟중의 腎을 左右兩臟으로 나누어 “左者爲腎 右者爲命門”이라하여 六藏(즉 心 肝 脾 肺 腎 命門)이라 稱했다.

肉腠(육주)

「肌腠」의 項 參照.

六合(육합)

「十二經別」의 項 參照.

潤而太息(윤이태식)

「太息」의 項 參照.

潤燥(윤조)

「清燥」, 「涼燥」, 라고도 함. 滋潤藥을 써서 燥熱證을 治療하는 方法이다. 燥證을 內燥와 外燥의 二種으로 나눈다. 外燥는 外感의 燥氣가 病人이고, 內燥는 內臟의 津液이 虧損된 症候이다. 潤燥는 「輕宣潤燥」, 「甘寒滋潤」, 「清腸潤燥」, 「養陰潤燥」, 「養血潤燥」 등으로 나뉜다. 청조(청조); 「潤燥」의 項 參照.

潤燥腐膩(윤조부이)

舌苔를 望診하는 하나의 基本內容이다. 潤은 舌苔의 潤澤을 뜻하며, 津液이 充足함을 말해준다. 病理上의 舌苔를 兼有하면 대개 濕邪에 屬한다. 燥는 舌苔의 乾燥으로서, 어떤 種類의 舌苔가 나타나든간에 모두 陰診異常에 屬한다. 腐는 舌苔가 두부찌꺼처럼 된 것이다. 이는 舌苔의 粘이를 말함. 腐苔, 膩苔의 項 參照.

潤肺化痰(윤폐화담)

「化痰」의 項 參照.

潤下(윤하)

二腫으로 大別된다. ①潤滑作用이 있는 藥物을 써서 熱性病의 過程에서 津液을 消耗한 便秘 或은 老人의 腸燥便秘 或은 習慣性便秘 및 妊婦 或은 産後便秘를 治療한다. 常用하는 藥物에는 火麻仁, 郁李仁, 蜂蜜 등이 있다. 近年, 生油(落花生油等)와 葱汁의 混合液을 內服하여 蛔虫性腸閉塞을 治療하는데 이격도 潤下法에 屬한다. ②津液을 滋潤하는 藥物을 써서 大腸이 熱結하여 津液이 枯燥된 大便秘結을 治療하는데 增液湯(元蔘, 連心麥, 門冬, 生地黃)을 使用한다. 이를 「增液潤下」라 하며 熱性病의 津液虧損으로 인한 便秘에 適用된다.

癃閉(옹폐)

이는 尿閉 或은 排尿困難하고, 下腹이 脹滿되는 一種의 證候이다. 「癃」은 小便이 不暢하여 방울방울 떨어지며, 下腹部가 緩慢하게 脹滿하는 것이고, 「閉」은 小便이 不通하여 點滴되지도 않고, 病勢가 比較的 急한 것이며, 一般的으로 「癃閉」라 統稱한다. 本證에는 膀胱 尿道의 器質性 或은 機能性疾病으로 인해 惹起되는 排尿困難과 尿貯留, 或은 各種原因으로 惹起되는 腎機能減退나 衰竭에서 오는 尿量의 極度한 減少 등을 包括한다. 癃閉를 일으키는 原因은 매우 많은데, 臨床所見으로는 虛證과 實證의 二種類로 大別된다. 濕熱의 下注, 或은 瘀血, 結石阻塞에 起因한 경우는 대개 實證에 屬하며, 腎陽이 不足하므로 氣化作用이 안되거나 或은 腎陰이 虧損되어 津液이 內虛해서 惹起되는 경우는 대개 虛證에 屬한다.

銀翹散(은교산)

「辛涼解表」의 項 參照.

癰瘡(은사)

「癰疹」의 項 參照.

癰疹(은진)

「痞瘤」, 「風疹塊」, 「癰疹」라고도 함. 蕁麻疹(두드러기)이다. 이는 常見되는 過敏性疾病이다. 皮膚에 出現하는 大小各樣의 風團으로서, 작은 것은 麻疹과 같고, 큰 것은 豆瓣변과 같이 塊나 片을 이룬다. 風熱에 屬하는 것은, 灼熱, 舌紅, 脈浮數을 나타낸다. 風寒에 屬하는 것은, 丘疹이 白色이고, 몹시 가려우며, 惡風, 舌苔薄白, 脈浮弦을 나타낸다. 風濕에 屬하는 것은, 丘疹이 微紅色이고, 胸悶, 四肢痠重, 舌苔厚膩를 兼發한다. 發作이 反復되고 經年토록 不癒하는 것은 大개 氣血虛에 屬한다.

乙癸同源(을계동원)

「肝腎同源」의 項 參照.

飲(음)

湯劑를 冷服해야하는 것을 飲이라 한다 예로서 香薷飲이 있다 時間을 정하지 않고 隨時로 飲服하는 것을 飲子라 한다 예로서 선명론에 地黃飲子가 있다 厚니한 藥物을 1-2 회 沸騰시켜 取汁 飲복하는 것을 後世에 濁藥輕投라 稱한다.

瘖(암)(음)

「失音」의 項 參照.

陰茄(음가)

「陰挺」의 項 參照.

陰家(음가)

平素 水飲病을 앓은 患者를 말함. 張仲景의 『金匱要略』에서 水飲患者의 證候는, 患者가 口渴을 느껴서 飲水한 後에 嘔吐가 出現하는 것이며, 이는 水飲이 心下(胃脘을 말함)에 停留되었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陰癇(음간)

① 癇症의 虛寒에 치우친 一種의 類型이다. 一般的으로 病因의 體質이 比較的 弱하며 或은 癇症의 發作을 反復해서 正氣가 漸衰되고 痰結이 없어지지 않는다. 發作時에 症狀은 面色이 蒼白하고 呆滯無知, 不動不語, 身冷, 脈沈弦等を 나타낸다. ② 小兒의 漫驚風의 別名이다.

陰竭陽脫(음갈양탈)

疾病이 嚴重한 段階에 이르러, 陰陽이 相互 維持連繫될 수 없는 病理現象을 말함. 즉 「陰陽離決」이다. 臨床上, 急症으로는 大出血 大吐大瀉 高熱등 嚴重한 「亡陽」症狀이 出現할 때, 陰氣가 衰竭하고 陽氣가 수시로 外脫하는 危險이 있다. 內傷雜病으로, 心陰이 衰竭하면 또한 陽氣가 暴脫하게 된다. 이러한 情況에는 急히 回陽救陰으로 固脫시켜야 한다.

陰強不能密,陰氣乃絕(음강불능밀,음기내절)

「素問 生氣通天論」에 있다. 陽強은 陽亢을 뜻함. 이는 陽氣가 過亢하면 衛外 固密이 不能하게 되어, 內部에 있는 陰氣도 耗損되거나 혹은 蒸迫外泄하여 眞陰虧損이 된다는 것이다.

陰結(음결)

脾腎이 虛寒하여 大便秘結이 되는 것을 말함. 臨床表現은 病因이 대개 體質이 虛弱하며 大便이 여러 날 나오지 않고 비록 便意가 있어도 排出이 어려우며 腹中에는 一般的으로 脹滿感이 없고 四肢이 冷하며 小便이 清長하고 舌質이 淡白하며 舌苔는 薄白하고 脈象은 대개 沈遲하다.

陰經(음경)

「陰脈」의 項 參照.

陰蹻脈(음교맥)

奇經八脈의 하나. 足踝內側에서 起始하여 內踝를 沿해 上行해서 下肢內側 前陰部 腹部 胸部 頸部 鼻의 兩側을 거쳐 眼部에 이른다. 本經에 有病하면, 主로 肢體外側의 肌肉이 弛緩되고 內側의 肌肉은 拘急해지며, 喉痛 嗜眠 等症을 일으킨다.

陰菌(음균)

「陰挺」의 項 參照.

陰筋(음근)

高환의 인대를 말함.

淫氣(음기)

①「淫」은 浸淫(漸漸 깊이 스며 드는 것)을 뜻하며, 「氣」는 正氣 或은 邪氣를 뜻한다. 正氣의 浸淫은, 飲食物의 精微가 肌膚 筋脈을 濡潤하는 生理作用을 말한다. 例: 「素問·經脈別論」에서 “食氣入胃 散精于肝 淫氣于筋”이라 하였다. 邪氣의 浸淫은, 病邪가 流溢하는 病理變化를 말한다. 例: 「素問·生氣通天論」 “風客淫氣 精乃亡”이라 하였다. ②「淫」은 有餘·過度 혹은 그 節制를 失함을 뜻한다. 무릇 人體의 陰氣·陽氣가 過度하거나 혹은 어떤 氣候의 異常은, 모두 사람의 正氣를 損傷하여 致病케 한다.

陰氣(음기)

무엇을 代表하는 事物의 두 가지 對立面的 하나를 말함. 例컨대, 機能과 物質에 대해 말한다면 陰氣는 物質이고, 臟腑의 機能에 대해 말한다면 五臟의 氣는 陰氣이다. 營衛의 氣에 대해 말한다면 營氣가 陰氣이다. 運動의 方向과 性質에 대해 말한다면, 內部를 循行하는 것, 下向하는 것, 抑制하는 것, 減弱되는 것, 重濁한 것이 陰氣이다. 餘他는 類推할 수 있을 것이다. 陽氣의 相對語이다.

陰器(음기)

外生殖器를 말함. 足厥陰肝經이 通過하는 곳이며 그 機能과 發育狀態는 腎氣의 盛衰와 有關하다. 그러므로 男女의 外生殖器의 一部 病證은 흔히 肝腎에서 論治한다.

陰卵(음난)

「辜」의 項 參照

陰絡(음락)

①무릇 手·足 三陰經에서 分出되는 絡脈을 陰絡이라 한다. ②下行하거나 혹은 位置가 비교적 깊은 絡脈을 말한다. 例: 「靈樞·百病始生篇」에서 “陰絡傷則血內溢 血內溢則後血(卽 便血)”이라 하였다.

陰絡傷則血內溢(음락상칙혈내일)

「陰絡」은, 下部의 裏에 屬하는 絡脈을 말함. 「血內溢」은, 大便下血을 말함. 臨床上, 어떤 原因으로 大便出血을 惹起함은 대개 陰絡이 損傷된 所致이다.

陰冷(음랭)

①陰寒을 말함. 婦女의 陰戶에 寒冷感이 있음을 말하며, 甚한 경우 腹內에도 冷感이 있어서, 往往 生殖에 影響을 미친다. 대개는 下元이 虛寒한 所致이다(金匱要略). ②陰莖 혹은 陰囊이 冷하여 不溫한 것을 말하며, 대개는 命門火가 衰하거나 혹은 寒氣가 腎에 凝滯된 所致이다.

陰脈(음맥)

「陰經」이라고도 함. 經脈中の 陰經을 말하며, 그중에 手足三陰經·任脈·衝脈·陰維脈·陰躄脈 등을 包括함.

陰脈之海(음맥지해)

任脈의 別稱. 足三陰經과 陰維脈 衝脈에는 모두 任脈과 直接 合치는 分支가 있어서, 全身의 陰氣를 調節하는 作用을 하므로 이렇게 이른다.

陰搏陽別(음박양별)

脈象의 一種이다. 陰은 尺脈을, 陽은 寸脈을 말함. 尺脈의 搏動이 현저하게 寸脈보다 滑한 것을 陰搏陽別이라 한다. 妊娠에서 多見된다.

陰斑(음반)

① 虛寒性에 屬하는 斑이며, 「陰證發斑」이라고도 함. 主要表現은, 胸腹部에 희미하게 斑點이 나타나는데, 斑色은 淡紅色이며, 隱隱하여 두드러지지 않고, 四肢逆冷, 清穀下痢, 脈虛大無力 或 沈微 等症을 隋伴한다. ② 皮下의 慢性出血로 暗紫色을 나타내는 것.

陰病(음병)

①三陰經의 病을 말함. ②一般的으로는 虛症, 寒症의 通稱이다.

陰病治陽(음병치양)

「素問. 陰陽應象大論」에 있음. 1)陰寒이 盛한 病에 罹患하여 陽氣를 損傷한 경우, 治療는 扶陽을 해야 함을 말함. 例컨대, 水腫의 飲水는 그 浮腫이 通常 下半身에서 먼저 生기며, 大概 身涼不渴하고, 氣色枯白하며, 言語低怯하고, 手足不溫하며, 小便清白하고, 大便稀薄하며, 脈沈遲를 나타내는데, 이런 경우는 溫陽 實脾하고, 行氣 利水하는 方劑를 써서 治療한다. 實脾飲(厚朴, 白朮, 木瓜, 木香, 草果仁, 大腹皮, 附子, 白茯苓, 乾薑, 甘草)을 쓰면 좋다. 2)疾病의 證狀이 陰經에 있는데, 陽經을 鍼刺함을 말함. 例컨대, 手太陰肺經에 有關하여 感冒 咳嗽하는데, 大杼, 風門(足太陽膀胱經穴)을 刺한다.

陰不抱陽(음불포양)

陰의 病變으로 인해, 陽氣의 正常固守를 維持할 수 없어서 病理上 陰虛陽亢 혹은 陰盛格陽의 病理現象을 나타냄을 말함.

陰痺(음비)

① 陰邪로 인한 痺症을 말함. 예컨대 寒濕은 陰邪에 屬하므로 痛痺 着痺는 陰痺이다. ② 痺症이 陰分에서 發하는 것을 말함. 예컨대 五臟痺等이다.

瘖痺(음비)

中風의 症候의 하나이다. 瘖은 言語不便 或은 言語不能을 뜻하며 痺는 四肢痿廢 運動不能을 뜻함. 臨床上 虛實의 區別이 있다. 實證은 風痰阻塞에 起因하고 虛證은 腎虛하여 正氣가 上升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陰邪(음사)

①六淫의 病邪中, 寒·濕 등의 邪氣를 말함. 이들 邪氣는 發病하면 陽氣를 傷하기 쉽고, 氣化活動을 阻滯시키므로 陰邪라 한다. ②陰經을 侵犯하는 邪氣를 말함.

陰生於陽(음생어양)

陰陽의 相互依存의 原理에 依據해서, 『陰』은 『陽』의 存在로써 自己存在의 前提로 한다. 人體로 말하면, 陰氣로 代表되는 物質(陰精)의 化生은, 陽氣로 代表되는 에너지量에 依存해야 한다. 따라서 陰精은 陽氣의 活動을 通하여 攝取되고 產生됨을 陰生於陽이라 함.

陰暑(음서)

夏季에 氣候가 炎熱하여 바람을 쐬고 納涼하거나 혹은 無節制하게 飲冷함으로써 中氣가 內虛하여 暑熱과 風寒의 邪가 虛를 틈타 沈襲하여 發病한 것을 말함. 이는 칭하여 얻는 것이므로 陰暑라고 이름한다. 主要病狀은 發熱惡寒, 無汗, 身重疼痛, 神疲倦怠, 舌質淡 苔薄黃 脈弦細等이다.

陰盛(음성)

陰寒過盛의 뜻. 一般的로 機能衰退로 表現된다. 「素問·調經論」에서 說한 「陰盛則內寒」은 機能이 衰退하여 出現하는 「內寒」을 말한다.

陰盛格陽(음성격양)

體內的 陰寒이 過盛하여, 陽氣를 外에서 拒格하므로, 內部는 眞寒이고 外部는 假熱의 證候가 出現함을 말한다. 이를 「格陽」이라 略稱하기도 한다. 臨床에 常見되는 어떤 寒證에서, 寒이 極點에 이르므로 陰이 內部에서 盛하여, 肌表에는 도리어 浮熱(약간 누르면 浮熱하다)이 나타나고, 口渴하며, 手足躁動不安, 脈洪大 등의 假熱症狀이 나타난다. 그런데 病人이 熱하지만 衣類나 이불을 덮으려 하지 않고, 혹은 물을 찾지만 마시려 하지 않고, 手足을 躁動하는데, 神態는 安定하고, 脈이 洪大한데 按壓하면 無力하다.

陰盛陽衰(음성양쇠)

陽虛陰盛의 病狀과 대체로 같은데, 病機에 차이가 있다. 前者는 陽虛로 因해 寒盛이 되고, 後者는 陰寒 內盛으로 因해 陽氣가 衰弱해지며, 兩者는 언제나 因果關係가 있다. 臨床上 陰盛陽衰는 대개 水濕으로 因해 陽을 傷하며 或은 寒涼藥物을 過服해서 惹起된다.

音聲之機(음성지기)

「舌」의 項 參照.

陰損及陽(음손급양)

陰精의 虧損으로 인해 陽氣의 化生不足을 惹起하는 것이며, 『陰虛陽亢』의 病理와는 다르다. 例 : 本來 咳嗽 盜汗 遺精 咯血 등의 陰虧證候가 있는데, 病變이 發展日久하여, 다시 氣喘 自汗 大便 溇泄 등의 陽虛證候가 出現하는 경우를 『陰損及陽』이라 함.

陰水(음수)

水腫病의 二大類型의 하나이다. 脾腎이 虛弱하므로, 化水와 制水를 할 수 없어서 생기는 水腫을 「陰水」라 함. 臨床表現은, 대개 下肢가 先腫하고, 皮膚色이 淡白하거나 或은 晦暗하며, 口淡, 便溏(軟便)하고, 脈象이 沈遲하다. 일반적으로 대개는 慢性, 虛證에 屬함.

陰勝則內寒(음승칙내한)

「陰勝則寒」의 項 參照.

陰勝則陽病(음승즉양병)

陰은 陰寒을 뜻하고, 陽은 陽氣를 뜻함. 外感寒邪는 衛外하는 陽氣의 活動을 制約하는 수가 있고, 陰寒內盛한 경우에도 臟腑의 陽氣의 虛弱을 惹起할 수 있다. 이들은 모두 陰寒이 勝하여 陽氣에 影響을 미친 病證이다.

陰勝則寒(음승칙한)

「素問·陰陽應象大論」에 있음. 陰氣가 偏勝하여 機能이 減退될 때, 寒盛의 病變이 생김을 말한다. 즉 「陰勝則內寒」이다.

陰蝕(음식)

「陰痒」의 項 參照.

陰液(음액)

①一般的으로 體內一體의 營養이 많은 液體를 말하며, 혹은 臟腑의 陰精을 말함. ②液의 性質에서 말하는 것으로, 液은 稠濁하여 陰에 속하므로 이름이다.

陰痒(음양)

婦女의 外陰部 或은 陰道內가 瘙痒하며, 甚하면 疼痛하고, 恒常 水液이 滲出되어 痛痒을 참기 어려운 것을 말함(陰트리코모나스의 類이다). 瘙痒으로 因해 陰道에 瘡瘍 潰瘍이 생기는 것은 陰痒의 重症으로서 「陰蝕」이라 한다. 病因은, 대개 濕熱下注 或은 肝經鬱熱에 起因한다. 濕熱下注에 屬하는 境遇는, 陰道에 恒常 水液이 滲出되고 帶下가 매우 많으며, 淡黃色을 띠고, 小便이 黃赤하며, 淋瀝不盡하고, 心煩 少寐하며, 胸悶不舒하고, 脈이 滑數한 症狀이 나타난다. 肝經鬱熱에 屬하는 境遇는, 精神抑鬱, 性急易怒, 或은 脇痛潮熱하고, 口苦乾, 便秘, 小便黃短難澀 脈弦數 等症이 나타난다.

陰陽(음양)

中國古代의 哲學理論이며, 古人들의 自然界事物의 性質과 發展變化의 法則에 대한 認識의 範疇에 屬한다. 醫學에 있어서의 陰陽學說은, 古代의 素朴한 哲學的 思考方法과 醫學의 實踐이 結合되어 생긴 產物이다. 즉 陰陽의 對立과 統一, 消長과 轉化라는 觀點

에서, 人間과 自然과의 關係를 說明하고, 또한 醫學領域에 있어서의 一連의 問題를 概括한 것이다. ①解劑方面 : 人體의 臟腑組織의 屬性을 歸納시켰다. 例컨대 『靈樞. 壽夭剛柔篇』에서 “是故內有陰陽 外亦有陰陽, 在內者 五臟爲陰 六腑爲陽, 在外者 筋骨爲陰 皮膚爲陽”이라 하였다. ②生理方面 : 人體의 生理機能을 分析하였다. 例컨대 『素問. 生氣通天論』에서, “陰者 藏精而起亟也, 陽者 衛外而爲固也”라 하였다. 즉 陰은 物質의 貯藏을 代表하여, 陽氣인 에너지의 來源이 되고, 陽은 機能 活動을 代表하여, 衛外로써 陰精을 固守하는 作用을 한다는 것이다. ③病理方面 : 病理變化의 基本法則을 闡明하였다. 例컨대 『素問. 陰陽應象大論』에서 “陰勝則陽病 陽勝則陰病 陽勝則熱 陰勝則寒”이라 하였다. 또한 『素問. 調經論』에서 “陽虛則外寒 陰虛則內熱 陽盛則外熱 陰盛則內寒”이라 하였다. ④診斷方面 : 病症의 屬性을 歸類하는 總綱으로서, 陽證과 陰證을 모든 鑑別의 要領으로 삼았다. 例컨대 『素問. 陰陽應象大論』에서 “善診者 察色按脈先別陰陽”이라 하였다. ⑤治療方面 : 有餘를 瀉하고 不足을 補하여, 陰陽의 相對的平衡을 調整하는 原則을 確定하였다. 例컨대 『素問. 陰陽應象大論』에서 『陽病治陰 陰病治陽』이라는 등으로 論述하였다. 이밖에 藥物의 性能, 針灸의 手法등에도 相應한 陰陽의 屬性이 있다. 臨床에 있어서는 證의 陰陽과 治의 陰陽의 關係에 注意해야한다. 以上을 綜合하면, 陰陽은 基礎理論의 중요한 組成部分이 되고, 또 臨床實踐經驗을 總括하는 手段이 되기도 한다. 그러나 이 學說은, 다소 直觀的體驗에 根據하여 事物의 內部的矛盾에 대하여 疎略한 說明을 하는 데 그쳤으므로, 素朴한 唯物觀이라 할 수 있다. 故로 이 學說을 더 높은 發展의 見地에서 받아들여야 한다.

陰陽乖戾(음양괴려)

『乖戾』란 不和 혹은 失調를 뜻함. 陰陽의 不和 혹은 失調는, 陰陽의 偏衰偏亢, 氣血逆亂, 臟腑機能의 異常등을 일으킨다. 이는 病理變化의 基本原理이다.

陰陽交(음양교)

素問 評熱病論에 있음. 熱病으로 汗出한 後에도 계속 發熱하며 脈이 躁疾한 것. 發熱과 脈象이 汗出해도 緩和되지 않고 도리어 狂言하며 不能識하는 症狀을 先人들의 陽氣가 陰分에 交入하여 陰氣가 消耗된 所致로 認識하였으므로 이렇게 이름하였다. 危重한 症候에 屬한다.

陰陽毒(음양독)

「金匱要略」에 있음. 疫毒을 感受해서 咽喉에 內蘊하여 血分으로 侵入하는 病症이다. 陽毒과 陰毒으로 나뉜다. 陽毒은 熱이 上部에서 壅塞되므로 顔面에 錦紋 같은 赤斑點이 생기고, 咽喉가 疼痛하며, 膿血을 吐하는 것이 主要症狀이다. 陰毒은 邪가 經脈을 阻碍하므로, 面目이 青色이 되고, 몸이 打撲傷을 입은 것처럼 疼痛하며, 咽喉痛을 發하는 것이 主要症狀이다. 病情은 모두 危重한 것에 屬한다. 「諸病源候論·傷寒陰陽毒候」에서, “夫欲辨陰陽毒病者, 始得病時 可看手足肢冷者是陰 不冷者是陽”이라 하였다. 이는 陰毒·陽毒의 典刑의인 症狀이 出現하기 前의 一種의 鑑別方法이다.

陰陽消長(음양소장)

『消長』은 陰陽雙方的 對立의 一面을 말함. 陰陽의 어느 一方이 다른 一方에 대해 制約作用을 일으킴으로써 事物의 對對的 平衡을 維持한다. 만약 一方이 太過하면 다른 一方에 不足을 일으키고, 一方이 不足하면 다른 一方에 太過를 招來하여, 此盛하면 彼衰하고, 此消하면 彼長하는 動的變化를 產生한다. 이런 關係는 病理變化의 說明으로서 『陰虛陽亢』, 『陰盛陽衰』등으로 比較的 많이 쓰인다.

陰陽水(음양수)

生熟水라고도 함 生水와 熟水を 混合한 것

陰陽勝復(음양승복)

「勝」은 勝利 혹은 亢盛이고, 「復」은 報復 혹은 反復을 뜻함. 陰陽의 變化, 陰盛陽衰, 陽亢陰虛는 陰陽의 發展이 不均衡한 一面이며, 陰勝陽復, 陽勝陰復은 不均衡의 反作用의 다른 一面이다. 이들은 모두 變化過程의 轉歸에 影響을 미친다. 先人은 이 理致를 써서 一部 氣候變化와 臨床病理를 解釋하였다. ① 氣候面 :만약 某年에 濕氣가 勝하고 雨水가 過多하면, 翌年은 燥氣의 復氣가 있어서 旱(가뭄)이 出現할 可能性이 있다. 氣候의 勝復은 또 人間의 發病情況에도 影響을 미치어, 특히 季節性유행病과 有關하다. ② 病理面:邪正相爭의 過程에서도 勝復의 現象이 出現하게 된다. 例:「傷寒論」의 厥陰病에서 述한 陰陽勝復의 陰은 寒邪를 뜻하고, 陽은 正氣를 뜻하는 것으로, 陰陽勝復은 邪正의 相爭을 表示한다. 例:厥陰病의 下痢 四肢厥冷은 虛寒證에 屬하며, 正氣가 恢復되면 身熱이 나고, 下痢 肢厥冷이 모두 除去되는데, 邪가 勝하며 體溫이 下降하면 肢厥冷과 下痢가 다시 出現한다. 이러한 情況의 交替出現도 陰陽勝復이라 함.

陰陽兩虛(음양양허)

陰陽俱虛이다. 대개 疾病이 嚴重한 段階로 發展하여 陰損及陽 혹은 陽損及陰해서, 陰虛와 陽虛의 證候가 동시에 나타나는 病理現象이다. 「陰虛」, 「陽虛」의 項 參照.

陰陽離決(음양이결)

陰陽의 關係가 分離 決裂되는 것. 陰陽失調로 인해 이쪽이 消沈되고 저쪽이 增長하여, 그것이 發展해서 한쪽이 다른 한쪽을 消滅시키거나 혹은 한쪽의 損耗가 過度하여 다른 한쪽이 依存할 수 없게 함으로써 더 이상 陰陽兩者의 能動的 相互關係를 계속할 수 없게 됨을 뜻하며, 死亡의 病理를 表示하는 데 쓰인다. 例: 亡陰亡陽 등이 더 發展하면 『陰陽離決』의 重大結果를 惹起한다. 故로 『素問, 生氣通天論』에서 “陰陽離決 精氣乃絕”이라 하였다.

陰陽人(음양인)

「五不男」의 項 參照.

陰陽自和(음양자화)

『傷寒論』에 있다. 病理上의 陰陽失調가 相對的平衡에 이르는 方向으로 나가는 것이며, 疾病의 好轉 혹은 治愈를 表示함. 例:恢復期에 熱이 내리고, 脈이 和緩하며, 口津이 充足해지고, 食欲이 漸進하며, 二便이 通調해지는 等이다.

陰陽轉化(음양전화)

事物의 陰陽 兩方面은 一定한 條件下에서 相互 轉化할 수 있어서, 陰이 陽으로 轉化할 수 있고, 陽도 陰으로 轉化할 수 있다. 例컨대 生理上으로는, 陰은 陽에서 生하고, 陽은 陰에서 生하여, 陰陽互根을 表現한다. 病理上으로는, 寒極하면 生熱하고, 熱極하면 生寒하여, 陰證이 陽證으로 轉化할 수 있고, 陽證도 陰證으로 轉化할 수 있는 등이 있다.

陰陽互根(음양호근)

『互根』은 相互 依存을 뜻함. 陰陽은 雙方이 모두 相對方의 存在로 인해 存在한다. 故로 『孤陰』과 『獨陽』으로는 生化와 滋長이 不能하다. 同時에 陰陽은 또 一定한 條件下에 相互 轉化한다. 例컨대 機能과 物質 사이에 이러한 互根의 關係가 있다. 그런데 陰陽學說에서는 互根을 人體의 生理範圍內的 變化를 表示하는 데 常用하고 있다.

陰熱(음열)

①慢性 消耗性疾病의 低熱로서, 內傷의 陰虛發熱을 말함. ②急性熱病의 後期에 陰液이 消耗되므로 생기는 發熱狀態를 말함.

陰痿(음위)

『陽痿』의 項 參照.

陰維脈(음유맥)

奇經八脈의 하나. 內踝上方에서 起始하여 下肢內側 腹部 胸部 咽喉를 거쳐 後頸部에 이른다. 本經에 有病하면 心痛의 症狀이 나타난다.

陰刺(음자)

十二刺法의 一種 寒厥을 治療하는데 쓰인다. 그 刺法은 양족의 足內踝後部の 足少陰腎經의 太谿穴을 針刺한다.(『靈樞』『官針篇』)

飮子(음자)

『飮』의 項 參照

陰臟(음장)

①患者의 音聲한 體質을 말하며, 通常 藥을 써서 剛燥케 하면 좋다. ②牝臟과 同義.

陰絶(음절)

脈搏이 尺部에서만 나타나고, 寸,關 兩部에서는 脈動을 느끼지 못하는 一種의 脈象을 말함. [傷寒論,平脈法]에서 “尺脈上不至關 爲陰絶”이라 하였다. 成無己는 이를 陰陽偏絶의 所致으로 보았다. 陰絶이란, 陰氣가 偏絶 隔絶됨을 뜻함.

陰挺(음정)

婦人의 陰部에 下墜物이 있는 것으로, 或은 膻口 밖으로 突出하는 病症을 말함. 「陰脫」, 「陰癰」, 「陰菌」, 「陰痔」라고도 함. 또한 脫出物의 形狀이 茄子(가지)와 같은 것을 「陰茄」或은 「茄子疾」이라 하며, 또는 「子宮不收」라고도 함. 名稱이 매우 많은데, 지금은 「子宮不收」라고도 함. 名稱이 매우 많은데, 지금은 「子宮脫垂」로 通稱한다. 本病의 原因은, 主로 氣虛下陷하여, 收攝不能하거나 或은 臨産時에 用力이 過度하여 胞絡이 損傷된 所致이다. 또한 濕熱의 下注로 因해 惹起되기도 한다. 氣虛와 胞絡의 損傷에 起因한 境遇의 主要症狀은, 下腹部에 墜重感이 있고, 腰部가 痠脹하며, 心悸 氣短하고, 身倦하며, 白帶가 比較的 많고, 脈象이 浮虛하다. 濕熱에 起因한 境遇의 症狀은, 外陰部가 腫痛하고, 黃水가 淋瀝하며, 小便時에 灼熱疼痛하고, 心煩하며, 自汗하고, 口中이 쓰고 乾燥하며, 脈象이 滑數하다.

陰躁(음조)

陰寒이 極盛하므로 惹起되는 躁擾와 神志不安한 證候로서, 대개 危重한 證에 屬한다. 臨床表現은, 四肢厥逆, 冷汗自出, 脈微欲絶, 躁擾不安 等症이다. 이러한 種類의 煩躁는 陰盛格陽으로 因해 惹起되므로 陰躁라 한다. 쇼크의 前期, 心力衰竭(心臟機能不全), 尿毒症 등에서 볼 수 있다.

陰腫(음종)

婦女의 下陰部가 腫痛하는 病症을 말함. 대개는 陰戶가 破損되고, 毒氣에 感染되며, 或은 肝脾二經의 濕熱이 下注하기 때문에 생긴다. 患者의 下陰部가 突然 腫痛하여, 數日後에 化膿해서, 漸次 穿潰 收口 된다. 그런데 反復해서 膿이 나오고 漏管을 形成되는 수가 있으며, 甚한 경우는, 寒熱,大便秘結, 小便不暢 등의 症狀이 나타난다. 漏管이 오래 낫지 않는 경우는 언제나 氣血兩虛의 症狀을 나타낸다.

陰中之陽(음중지양)

①陰의 事物中 다시 나누어 陽의 方面에 屬하는 것을 말함. 例컨대 背面은 陽이고 腹面은 陰인데, 腹面中 胸部는 上에 있어 陽에 屬하고, 腹部는 下에 있어 陰에 屬하므로, 胸部는 陰中之陽에 屬한다. ②어떤 事物의 두가지 屬性中 하나는 陰에 屬하고, 다른 하나는 陽에 屬함을 말함. 例컨대 肝은 腹內에 있어 陰에 屬하고, 肝氣는 昇을 主하며 疏泄의 性이 있어 陽에 屬하므로 陰中之陽이라 稱함.

陰中之陰(음중지음)

①陰의 事物中에서 다시 나누어 陰의 方面에 屬하는 것을 말함. 例컨대 背面은 陽이고 腹面은 陰인데, 腹面中 胸部는 上에 있어 陽에 屬하고, 腹部는 下에 있어 陰에 屬하므로, 腹部는 陰中之陰이다. ②어떤 事物의 두가지 屬性이 모두 陰에 屬하는 것을 말함. 例컨대 腎은 下에 位置하여 陰에 屬하여, 腎은 水臟으로서 藏精을 主하여 역시 陰에 屬한다. 故로 陰中之陰이라 稱함.

飲證(음증)

各種의 水飲이 惹起하는 病證의 總稱이며 그 意義는 廣意義 痰飲과 같다. 痰飲, 四飲等項 參照

陰證(음증)

一般的으로 疾病의 臨床辨證에 있어서 陰陽의 屬性에 따라 歸類할때, 陰證과 陽證으로 區分한다. 무릇 慢性이고, 虛弱하며, 靜的이고, 抑制性이며, 機能低下性이고, 代謝가 減退되며, 退行性이며, 向內(리)性인 證候에 屬하는 것은 모두 陰證에 屬한다. 例컨대 面色이 蒼白 或은 暗淡하고, 神倦重臥, 肢冷倦怠, 語聲低微, 靜而少言, 呼吸微弱, 氣短, 陰食減少, 口淡無味, 不煩不渴, 或喜熱飲, 大便腥臊, 小便清長或短少, 腹痛喜按, 脈象의 沈, 細, 遲, 無力, 舌質淡而胖嫩, 舌苔潤滑 等等이다. 八綱中の 寒證, 虛證, 裏證은 모두 相對的으로 陰證의 範圍에 屬한다.

陰證發斑(음증발반)

「陰斑」의 項 參照.

陰證似陽(음증사양)

虛寒性疾患이 嚴重한 段階에 이르면, 때로 一種은 陽證인데, 表現되는 現象(症狀)은 陽證과 恰似하다. 具體的 症狀은 [眞寒假熱]의 項 參照.

陰縮(음축)

「陽縮」이라고도 함. 陰莖이 痿軟하여 오그라드는 症狀이다. 대개는 腎陽 虧虛한 所致이다.

陰吹(음취)

『金匱要略』「婦人雜病脈證病治」에 있음. 婦女의 陰道에서 氣가 排出되어 소리가 나는 一種의 病症을 말함.

陰痔(음치)

「陰挺」의 項 參照.

陰脫(음탈)

「陰挺」의 項 參照.

陰癰(음퇴)

「陰挺」의 項 參照.

飲片(음편)

저편이라고도 함 藥材를 加工處理한 후 片 絲狀 塊狀 段狀으로 만드려 煎湯 飲服하기 便利하도록 한 것이다

陰平陽秘(음평양비)

陰氣가 平順하고, 陽氣가 固守하여 兩者가 相互 調節함으로써 相對的平衡을 維持한다. 이는 正常生命活動을 進行하는 基本條件이다. 『素問·生氣通論』에서 “陰平陽秘 精神乃治”라 하였다.

陰閉(음폐)

「閉」의 項 參照.

陰汗(음한)

外生殖器 陰囊 및 그 周圍(大腿 內側의 股陰에 가까운 곳)에 언제나 局所的인 汗出이 比較的 많은 症狀을 말하며 땀에 腥臭가 난다. 대개 下焦의 濕熱로 因해 일어난다.

陰虛(음허)

陰液不足을 말함. 臨床表現은, 五心痰熱, 或午後潮熱, 脣洪口乾, 舌質嫩紅 或絳乾無苔, 大便燥結, 小便黃短, 脈細數 等이다.

陰虛發熱(음허발열)

體內的 陰液의 損耗過度로 出現하는 內熱을 말함. 즉 「素問·調經論」에서 말한 「陰虛則內熱」이다. 主要表現은 潮熱 夜熱이며, 或은 五心煩熱로서 대개 盜汗 口乾 舌紅 脈細數 등의 症狀을 兼發한다. 「陰虛陽亢」의 項 參照.

陰虛陽浮(음허양부)

眞陰이 不足하고, 津血이 虧損되어 陽氣가 위로 浮越하는 病理變化를 말함. 그 主된 表現은, 頭目眩暈 面色顴紅 目赤 咽乾 喉痛 齒痛등이다. 「陰虛陽亢」의 項 參照.

陰虛陽亢(음허양항)

「陰虛」는 精血 혹은 津液의 虧損을 뜻한다. 一般的로 正常狀態에서는 陰과 陽은 相對的平衡을 維持하여, 相互 制約하고 協助한다. 陰氣가 虧損되어, 陽氣가 制約을 잃으면 亢盛하는 病理變化가 생겨, 病理性機能亢進을 나타내어 「陽亢」이라 稱한다. 그러므로 陰虛는 陽氣亢盛을 일으키고, 陽亢은 陰液을 耗損케하여, 兩者는 因果關係을 이룬다.

臨床表現은, 潮熱 顴紅 盜汗 五心煩熱 解熱 消瘦 혹은 失眠 煩燥易怒 혹은 有情 性慾亢進 舌紅而乾 脈細數 등이다.

陰虛潮熱(음허조열)

「潮熱」의 項 參照.

陰虛則內熱(음허칙내열)

「陰虛發熱」의 項 參照.

陰虛肺燥(음허폐조)

陰虛로 因해 惹起된 肺燥를 말함. 肺는 嬌臟으로, 火灼을 두려워한다. 肺腎이 陰虛하여 內熱의 虛火가 肺를 灼傷하면, 肺燥하고 陰이 더욱 虛해진다. 主要症狀은, 乾咳無痰하고, 或은 痰中帶血하며, 咽痛嘶啞하고, 舌嫩紅苔少하며, 脈細數 등이다. 肺結核, 慢性咽喉炎, 白喉(디프테리아), 氣管支擴張 等症에서 볼 수 있다.

陰虛火旺(음허화왕)

陰精이 虧損되어 虛火가 亢盛하는 病理變化를 말함. 主要表現은, 性慾亢進 煩燥易怒 兩顴潮紅 口乾 咳血등이다. 「陰虛陽亢」, 「水虧火旺」, 「命門火旺」의 項 參照.

陰虛喉痺(음허후비)

本病은, 陰虧火旺, 虛火上炎의 所致이다. 主된 症狀은, 患部가 潮紅하여, 항상 痰이 있는 것 같은데, 쉽게 咳出되지 않고, 嚥下不順하다. 어떤 경우는 其他의 陰虛症狀을 隨伴하기도 한다. 本病은 慢性咽頭炎의 病症과 類似하다.

陰虛喉癰(음허후선)

本病은 대개 腎陰이 虧損되어 虛火가 上炎하므로 肺陰이 損傷되기 때문에 생기며, 그 症狀은 後頭部の 粘膜이 壞爛되어 表面이 突起하며 색깔이 晦暗하고 日久하면 漸次 潰爛 疼痛하여, 飲食을 妨碍한다. 患者는 항상 午後潮熱하고, 盜汗, 消瘦등 陰虛內熱의 症狀을 나타낸다. 本病은 咽喉粘膜結核 或은 喉頭結核과 유사하며, 肺結核患者에게 多見된다.

陰戶(음호)

「產門」의 項 參照.

陰火(음화)

肝·腎의 虛火를 말한다. 「陰虛火旺」의 項 參照.

陰黃(음황)

黃疸病의 二大類型의 하나이다. 대개 慢性에 屬하며, 그 症狀은, 皮膚의 黃色이 暗晦하

고, 低熱 或은 無熱하며, 神疲身倦, 食慾減少, 大便不實, 小便淡黃, 舌質淡白 苔白滑, 脈弦緩 或은 沈細 等を 나타낸다. 慢性肝炎, 慢性膽囊炎, 膽結石, 肝硬化 等症에서 多見된다.

膺(응)

膺中, 臆이라고도 함. 前胸部 兩側의 筋이 隆起된 部位로서, 大胸筋部位에 該當함.

膺中(응중)

膺의 項 參照.

凝脂翳(응지예)

本病은 毒邪가 黑睛을 侵犯하고 또한 肝膽의 火가 熾盛하며 風熱이 壅盛하므로 惹起된다. 그 症狀은 頭額이 極痛하고 目痛 羞明하며 黃綠色의 凝脂같은 淚液이 流出되므로 이렇게 이름한다. 만약 치료를 失期하면 黑睛이 潰破되어 瞳孔에 영향을 미치어 失明하게 된다. 本病은 化膿性角膜炎과 類似하다.

醫經(의경)

韓醫學術의 古典 著作을 말함 ①漢書 藝文志 方技略에 漢代以前의 醫書 7부 전 216권이 실렸는데 이를 醫經이라 함. 즉 黃帝內經 外經, 扁鵲內經, 外經, 白氏內經, 外經 및 旁篇 등 7종의 解剖生理 病理 및 治療原則에 관한 基礎 醫學의 著作을 말함 ②後世에서는 素問, 靈樞, 難經을 醫經이라 하기도 하며 또는 內經, 傷寒論, 金匱要略, 神農本草經을 醫經이라 하기도 하고 또한 以上을 通稱해서 醫經이라 하기도 한다.

醫工(의공)

中國 古代의 一般 醫員에 대한 呼稱이다. 醫工이란 말은 일찌기 內經에 나와 있으며 漢代에는 醫工長이 있었는데 이는 宮廷의 醫藥을 主管하는 官名이었다. 唐代에는 醫工 針工 按摩工 呪禁工이 있었는데 職位는 醫師 針師. 按摩師의 下, 醫生, 針生, 및 按摩生의 上이었다.

醫論(의론)

이는 醫員個人的 學術見解를 論述한 專門書이다. 現在의 醫學論文集에 該當함.

醫林(의림)

醫學系를 말함. 古代 或은 近代의 一部 文書에는 醫林을 醫員의 職業을 대표하는 것으로 썼다.

醫案(의안)

카르테, 차아트, 병안을 말함. 이는 醫員이 疾病을 治療할 때의 辨證(診斷), 治法(治法), 處方, 用藥의 連續적인 記錄이다. 漢代의 名醫 淳于意가 처음으로 자기가 治療한 25예

의 醫案을 記載했는데, 당시 이를 진적이라 하였다. 患者의 姓名 住所, 職業, 病理, 辨證, 治療, 預後등을 包括한다. 後世의 醫家들은 자기가 治療한 병안의 記錄을 整理하여 個人의 醫案으로 삼았다. 또한 專門的으로 古今 名家의 醫案을 모아 冊으로 편성한 것도 있다. 例컨대 名醫類案, 續名醫類案, 古今醫案按 等이다.

醫緩(의완)

「和緩」의 項 參照

醫話(의화)

醫員의 筆記를 말함. 이는 一定한 體制가 없고 대개는 個人의 臨床治病의 研究成果, 讀書의 理解, 治驗例 전문한 經驗 및 醫學問題의 考證과 討論 等等을 記錄한다.

醫和(의화)

「和緩」의 項 參照

耳(이)

腎氣는 耳로 通한다. 腎氣가 調和하면 耳가 正常聽覺機能을 發揮한다. 老年하여 腎氣가 不足하면 往往 失聽한다. 耳는 또 腎臟의 外候로서, 어떤 外耳의 變化는 腎과 有關하다. 耳部에는 手太陽小腸經・手少陽三焦經・足少陽膽經・足陽明胃經・足太陽膀胱經 等の 經脈이 循行한다.(그중 膽・胃・三焦의 三經經脈은 모두 耳中에 入함.)

頤(이)

頤部の 外上方, 口角의 外下方, 腮部の 下方部位.

耳疳(이감)

耳內의 慢性的인 腫脹의 一種이며, 黑色의 臭膿이 流出되는 耳病이고, 대개는 濕熱의 內蘊과 肝火의 上擾에 의해 생긴다. 本病은 慢性化膿性中耳炎과 類似하다.

裏結(이결)

大便의 秘訣을 말함. 熱結. 寒結의 區分이 있다. 熱結은 胃腸의 積熱 或은 熱邪의 胃腸侵入으로 因해, 胃腸의 津液이 消耗되어 大便의 燥結不通을 惹起하는 것이다. 寒結은, 陰寒이 胃腸에 結集되므로 傳導機能이 減弱되어 大便의 秘結不通을 惹起하는 것이다. 熱結은 대개 發熱 午後高熱을 兼發하며, 때로는 譫語하고, 腹痛(혹 壓痛), 舌苔黃燥, 脈沈有力 等を 나타낸다. 寒結은 대개 神疲氣弱하고, 便意가 있어도 排出하기 어려우며, 食慾不振, 四肢不溫, 小便清長, 舌質淡, 脈沈遲無力 等を 나타낸다.

離經脈(이경맥)

①너무 빠르거나 너무 느린 脈을 말함. 難經에서는 脈搏과 正常呼吸과의 比率이 6異常(1分間 108回 異常)과 2以下(1分間 36回 以下)를 離經脈이라 하였다. ②妊産婦가 分娩

시기에 脈搏이 加速되는 것을 역시 離經脈이라 한다.

耳廓(이곽)

耳輪이라고도 함. 外耳道以外の 耳殼全部의 總稱. 耳介.

耳垢(이구)

「耵聍」의 項 參照.

裏急後重(이급후중)

痢疾의 主要症狀의 하나이다. 大便하기 前에 腹痛하고, 大便하고자 할때 참을 수 없는 것을 「裏急」이라 한다. 大便時에 窘迫한데 시원히 排出되지 않고, 肛門에 重墜한 感覺이 있는 것을 「後重」이라 한다.

理氣(이기)

「行氣」의 項 參照.

異氣(이기)

「戾氣」의 項 參照.

理氣(이기)

藥物에 行氣·解鬱·補中益氣하는 作用이 있는 것을 運用하여, 氣滯·氣逆·氣虛를 治療하는 方法이다. 氣虛에는, 中氣를 補益하는 藥을 써서 補氣한다. 通常 말하는 「理氣」은 대개 氣滯·氣逆에 대하여 말하는 것이며, 「疏鬱理氣」, 「和胃理氣」, 「降逆下氣」 등으로 나뉜다. 理氣藥은 대개 香燥한 性質이 있어서 津液을 虧損할 우려가 있으므로 慎用해야 한다.

以毒攻毒(이독공독)

유독성약물을 써서 악독병증을 치료하는 방법이다. 예컨대 大風子는 기미가 辛熱하고 유독한데 환제에 넣어 내복하면 麻瘋(癩病)을 能治하고 藤黃은 기미가 酸澁하고 유독한 데 외부하여 용양을 능치하며 露蜂房은 甘平 유독한데 研沫하여 猪油和 和均해서 塗布하면 頭癬을 치료할 수 있다.

耳聾(이롱)

耳는 腎의 外竅이며, 膽 및 三焦 등의 經脈이 耳中에서 會하므로, 一般的으로, 耳病은 이三者와의 關係가 가장 密接하다. 耳聾에는 虛證과 實證의 區分이 있다. 虛證 耳聾은 發病이 比較的 緩慢하며, 처음에는, 대개의 경우 먼저 聽力이 減退되는데, 이를 「重聽」이라 하며, 그 病因은, 「下元虧損」, 腎精不足이다. 實證耳聾은, 發病이 갑작스러우며, 「暴聾」이라 한다. 대개의 경우, 外傷, 風火의 外感, 或은 內火上炎의 所致이다.

耳輪(이륜)

「耳廓」의 項 參照.

耳鳴(이명)

耳中에서 매미소리(蟬鳴) 或은 其他 各種의 聲響을 自覺하는 것을 「耳鳴」이라 한다. 虛證과 實證의 두가지 類型으로 나뉜다. 虛證은 腎陰虧損, 虛火上炎에 起因하며, 通常 頭暈 目眩 腰痛 등의 症狀을 隨伴하며, 脈象은 大개 細弱하다. 만약 暴怒 傷肝으로 因해, 肝,膽의 火가 上逆해서 耳中에 종이나 북소리 같은 것이 暴鳴하는 것은 實證에 屬한다.

耳門(이문)

①幣의 項 參照. ②穴位名, 耳의 前方, 耳屏前方의 凹陷部이며, 手少陽三焦經에 屬함.

耳屏(이병)

「幣」의 項 參照.

異病同治(이병동치)

一般的인 情況下患서는 異病. 異證에는 各異한 治法을 써야 한다. 그런데 몇가지 相異한 疾病에, 同一한 性質의 證이 具有되어 같은 種類의 方法으로 治療하게 된다. 例컨대 虛寒泄瀉, 或은 脫肛 或은 子宮下垂는 各異한 病證인데, 모두 中氣下陷의 表現이 있으면, 補中益氣의 方藥으로 治療할 수 있다. 補氣, 升提中氣의 項 參照.

理傷續斷(이상속단)

各種의 外傷, 骨傷疾病을 處理함을 뜻하는 略稱이다.

利小便,實大便(이소변,실대변)

濕邪를 治療하는 方法이다. 濕邪의 患者는 大便이 大개 水양성이며 小便이 短少하고 腸鳴漉漉하며 腹不通, 苔白, 脈濡細하다. 胃苓湯(蒼朮, 厚朴, 陳皮, 甘草, 桂枝, 白朮, 豬苓, 茯苓, 澤瀉 즉 平胃散과 五苓散의 合方이다)을 常用하여 健脾 祛濕해서 小便을 清利케 함으로써 大便이 正常이 된다.

利濕(이습)

小便의 通利로 濕邪를 下焦에서 滲利 除去하는 方法이다. 무릇 陰虛하여 津液이 虧損되어 遺精, 滑精하는 경우에는 慎用해야 하며 꼭 써야 할 경우는 滋陰藥을 加해야 한다. 利濕藥中에 滑利 降泄性이 비교적 큰 것은 生薏苡仁, 瞿麥, 冬葵子 等이며 妊婦에게는 注意하여 使用한다.

裏實(이실)

內實이라고도 함. ①外邪가 化熱하여 入裏해서 胃腸에 結하여, 壯熱 煩渴 腹痛 便秘등 腑實의 證候를 나타내는 것을 말함. ② 널리 人體內部的 機能障礙로 惹起되는 氣血의

鬱結, 停痰, 食滯, 衝積 등을 말함.

耳聾(이심)

「耳痔」의 項 參照

二十八脈(이십팔맥)

①比較的 常見되는 二十八腫의 脈象을 말함. 通常 浮,沈,遲,數,滑,澁,虛,實,長,短,洪,微,緊,緩,弦,芤,革,노,濡,弱,散,細,伏,動,促,結,大,代脈을 말함. ②二十八조의 經脈을 말함. [靈樞,五十營]에서 “人經脈上下左右前後二十八脈...”이라 하였는데, 이는 手足三陰三陽의 12條 經脈의 左右對稱으로 計 24條에, 任脈 督脈 各 1조와 左右의 蹻脈을 합쳐 合計 28條임을 말함.

二陽(이양)

「三陽」의 項 參照.

二陽併病(이양병병)

傷寒病에서 두개의 陽經의 併病을 말함. 例컨대 먼저 太陽病의 頭痛 惡寒, 發熱, 四肢關節微痛이 있는데, 그후 또 嘔吐, 胸脇滿悶의 少陽症狀이 出現하는 것이다. 陽經의 證狀이 併見되고, 또한 前後해서 出現하므로 이렇게 말한다.

裏熱(이열)

一般的으로 胃腸의 實熱, 肺胃의 實熱 或은 肝膽의 鬱熱을 말함. 主要證狀은, 高熱이 있고, 惡寒하지 않고 도리어 惡熱하며, 口渴引飲, 煩躁 或은 心煩口苦, 小便短赤, 舌質紅苔黃, 脈洪數或弦數有力 等이다.

耳癰(이옹)

耳竅의 癰腫의 一種이며, 耳根이 焮熱 腫痛하고, 潰破되어 膿이 나오는 耳病이다. 外耳道 癰腫과 類似하다.

二陰(이음)

「三陰」의 項 參照.

二陰(이음)

前陰과 後陰의 總稱. 外生殖器, 尿道外口, 肛門 等の 部位를 包括함.

耳挺(이정)

「耳痔」의 項 參照

耳疔(이정)

外耳道에 생긴 疔瘡를 말함. 대개의 경우, 腎經의 火毒에 의해 惹起되며, 疔瘡가 黑色이고, 뿌리가 깊으며, 「暗疔」이라고도 함. 發作時에 송곳으로 찌르는 듯한 疼痛을 말하며, 寒熱頭痛이 併發한다.

以左治右,以右治左(이좌치우,이우치좌)

針灸治療方法의 一種이다 身體의 한 쪽(左 혹은 右側)에 병통이 있을 때 다른 한쪽의 穴位에 針灸를 하여 治療하는것 무자법과 거자법의 二種으로 나누어진다. 各행당項 參照

理中(이중)

脾胃는 中焦에 있으며 理中은 脾胃를 調理하는 方法이다.一般的으로 脾胃의 虛寒을 溫中祛寒법의 1)로써 치료하는 것을 말한다.

理中湯(이중탕)

「溫中祛寒」의 項 參照.

裏證(이증)

六淫, 七情等の 病因이 臟腑, 血脈 혹은 骨髓등에 影響을 미치어 惹起되는 證候를 말함. 두가지 면을 包括한다. ①外感病의 表邪가 內部 즉 裏部로 傳入하여(氣分, 營分, 血分으로 傳入), 病이 臟腑에 미치어, 高熱 혹은 潮熱, 神昏, 煩躁, 口渴, 腹脹或痛, 大便秘結 혹은 泄瀉, 小便短赤 혹은 不利, 舌苔黃乾, 脈沈數 등證을 나타낸다. 急性熱病의 中氣나 極期에 多見된다. ②內臟의 病辨으로, 이는 外感和 相對해서 말하는 것이다. 例컨대, 肝病의 眩暈 脇痛, 心病의 心悸 氣促, 脾病의 腹脹 泄瀉, 肺病의 咳嗽 氣喘 等이다.

移指(이지)

脈診시 醫師의 診方法의 하나이다. 寸,關,尺 三部의 脈形이 현저하게 다를때는, 正常的인 指間 거리로 布診할 수 없다. 반드시 實際情況에 따라 指間거리를 이동해야 한다. 例컨대, 患者의 寸脈이 澁하고 尺脈이 滑하거나, 혹은 寸脈이 小하고 尺脈이 大한 境遇에는, 診時에 寸脈에 댄 食指를 뒤로 移動시켜 尺部의 脈形을 완전히 掌握하도록 해야 한다.

二陣湯(이진탕)

「宣劑」의 項 參照.

痢疾(이질)

古名은 「滯下」이고, 또 「腸澼」이라고도 함. 「滯下」은 大便의 回數가 增多하고, 急히 排便하고자 하지만 暢通不能하여, 肛門이 重墜해서 物體가 阻滯된 感覺이 있음을 形容한 것이다. 「腸澼」은 腸內에 積滯가 있어서, 排便時에 「澼澼」하고 有聲함을 形容한 것이다. 本病은 夏.秋의 季節에 常見되는 腸의 急性傳染病이며, 臨床上으로는, 腹痛하고, 粘

液膿血樣의 大便으로 回數가 增多하는데 量少하며, 裏急後重함이 主證이 된다. 대개 腸胃가 內虛한데 生冷瓜果등 不潔한것을 攝食하므로, 濕熱이 內蘊해서, 毒이 腸中에 滯留한 所致이다. 古代의 痢疾에 대한 論述은, 그 範圍가 매우 廣範하여, 細菌性痢疾과 아메바 痢疾을 包括할 뿐만 아니라, 其他의 一部腸疾患도 그중에 包括하고 있다. 臨床特徵과 誘發要因등에 따라, 風痢, 寒痢(冷痢), 溫熱痢(熱痢,赤痢,赤白痢), 寒濕痢(濕痢), 水穀痢, 噤口痢, 白痢, 五色痢 休息痢, 久痢(遷延痢), 疫毒痢 等으로 나뉘며, 名稱이 비교적 많다. 現在 臨床上, 일반적으로 濕熱痢, 疫毒痢, 寒濕痢, 久痢(遷延痢), 休息痢등의 五種類型으로 나뉜다. 有關各項을 參照.

泥鰕疔(이추정)

「指疔」의 項參.

耳痔(이치)

外耳道內에 생기는 小腫塊를 「耳痔」라 通稱한다. 대개는, 肝,腎,胃의 三經에 火가 쌓여서 釀成되는 것이며, 耳가 腫脹하여 막혀서 聽力이 減退되고, 耳鳴, 搔痒등의 感覺이 있다. 本病은 外耳道の 乳頭狀腫瘤와 類似하다. 腫塊 形狀의 差異에 따라, 各異한 名稱이 있다. 그 中 櫻桃狀 或은 桑椹狀(오디모양)인 것을 「耳痔」라 하고, 棗核(대추씨)狀인 것을 「耳挺」이라 하며, 頭大蒂小하여 버섯과 같은 것을 「耳蕈」이라 한다.

耳針(이침)

耳針療法에 쓰는 針으로 형태가 毫針과 같은데 짧아서 길이가 0.7-①0mm이며 押針으로 代用할 수 있다

耳針療法(이침료법)

耳角上에 針刺하여 疾病을 治療하는 方法이다 人體의 內臟 或은 구체에 유병한 경우 耳角上의 一定部位에서 민감반응점을 탐색할 수 있다 이를 이혈이라 한다. 一般的으로 別제한 이針 或은 毫毫針을 써서 直接이혈으 큰針刺하며 或은 電流를 通하게 하고 或은 耳穴埋針등의 方法을 쓴다 전신의 各種 질丸에 적용된다.

膩苔(이태)

混濁하고 光滑한 粘液이 舌面全體를 덮고 있는데, 쉽게 拂拭되지 않는것이다. 濕濁으로 인한 內困 或은 食積, 痰飲內燥의 경우에 多見된다.

以痛爲腧(이통위수)

「阿是穴」의 項 參照.

裏寒(이한)

臟腑의 寒證을 말함. 대개 陽氣의 不足에 起因하며, 或은 外寒이 表部로 傳入된 所致이

다. 主要病狀은, 外寒肢冷, 面色蒼白, 腰膝痠冷, 大便溏泄, 小便清長, 脈沈遲 或은 微細, 舌質淡 苔白潤 等이다.

裏寒格熱(이한격열)

①「陰盛格陽」의 別稱. ②體內的 陰陽이 失調되어, 下寒이 上熱을 拒格하는 證候이다. 例로써, 虛寒久痢에 寒涼藥을 誤用하여, 食入卽吐하는 症狀이 나타나는 等이다.

裏虛(이허)

臟腑의 氣血이 不足하고, 機能이 衰退한 證候이다. 有關 各項 參照.

理血(이혈)

溫血은 血分病을 治理하는 方法이며, 「補血」, 「養血」, 「溫血」, 「祛瘀活血」, 「止血」의 五種類가 包括된다.

耳穴(이혈)

「耳針療法」의 項 參照

裏喉癰(이후옹)

「咽喉癰」의 項 參照.

耳後疽(이후저)

本病은 三焦 및 膽의 二經의 火毒으로 因해 惹起된다. 그 症狀은 ,耳後가 腫痛, 潰破, 流膿하며, 恒상 頭痛, 惡寒, 發熱等の 全身症狀이 隨伴된다. 急性乳突炎과 類似하다.

噤(익)

「食道」의 上口.

益氣(익기)

「補氣」의 項 參照

益氣生津(익기생진)

氣와 津의 兩虛를 治療하는 方法이다. 氣,津이 兩虛하면 汗出過多, 津液耗傷, 肢體倦怠, 氣短懶言, 口乾作渴, 舌質紅, 舌乾無津, 脈象虛散 等を 나타낸다. 生脈散(人蔘, 麥門冬, 五味子)을 쓴다.

益氣生津(익기생진)

氣虛하고 津液이 虧損된 것을 治療하는 方法이다. 汗出이 過多하고 津液이 손상되면 肢體疲倦, 呼吸短期, 口乾而渴, 脈虛 等症을 나타내는데 生脈散(人蔘, 麥門冬, 五味子)을 써서 治療한다.

益氣解表(익기해표)

「補氣解表」라고도 함. 補氣藥과 解表藥으로 組成하여 氣虛感冒로 因해 頭痛 惡寒發熱, 咳嗽睡多, 鼻涕粘稠, 胸膈滿悶, 脈弱, 無汗 等症을 發하는 것을 治療하는 것. 參蘇飲(黨參, 蘇葉, 葛根, 前胡, 薑半夏, 陳皮, 桔梗, 茯苓, 木香, 地殼, 甘草)을 쓴다.

益脾(익비)

「健脾」의 項 參照.

翼狀努肉(익상노육)

「努肉攀睛」의 項 參照

益胃(익위)

胃虛를 治療하는 方法이다. 그 하나는 胃氣의 虛寒으로 溫胃建中法을 쓰고 또 하나는 胃陰의 不足으로 滋陰胃陰法을 쓴다.

益陰(익음)

「滋陰」의 項 參照.

益陰(익음)

「補陰」의 項 參照

益火消陰(익화소음)

[益火之原, 以消陰翳]의 項 參照.

益火之原,以消陰翳(익화지원,이소음예)

唐의 王冰이 [諸熱之而寒者取之陽]이란 內經說에 대하여 註釋한 것임. 後에 [益火消陰], [扶陽退陰]이라 簡稱하게 되었다. 扶陽 益火하는 方法을 써서 陰盛을 消退시킨다는 뜻이다. 가령 溫熱藥을 써서 寒證을 治療하여도 效果가 나타나지 않고 도리어 嚴重해지는 것은, 이 寒證이 陽虛陰盛에 屬하며, 腎陽虛에 屬하는 것이므로, 腎陽을 補해야 한다. 例컨대 腎陽이 不足하여 腰痛脚弱하고, 下半身に 恒常 冷感이 있으며, 陽痿, 精冷, 等證을 나타내면 八味地黃丸(熟地黃, 山茱肉, 山藥, 茯苓, 牡丹皮, 澤瀉, 熟附子, 肉桂)을 써서 治療한다.

咽(인)

口腔과 鼻腔의 後部, 食道에서 上部의 空腔部位. 鄭梅澗의 「重樓玉鑰」에서 “咽者 嚥也, 主通利水穀 爲胃之系, 乃胃氣之通道也”라 하였다. 사람이 飮食을 먹을 때, 食物은 咽을 거쳐 食道로 入한다.

引經報使(인경보사)

어떤 藥物이 다른 藥物을 病變部位에 到達케 하는 引導作用이 마치 嚮導와 같으므로 引經報使라 한다. 두 種類가 있다. 한 種類는, 經脈으로 引導하는 것이다. 例컨대 太陽經病에 羌活 防風을 써서 引導하고, 陽明經病에 升麻 葛根 白芷를 써서 引導하며, 少陽經病에 柴胡를 써서 引導하고, 太陰經病에 蒼朮을 써서 引導하며, 少陰經病에 獨活을 써서 引導하고, 厥陰經病에 細辛 川芎 青皮를 써서 引導한다. 이러한 引經의 說은 引9經藥의 藥性이 어느 病에나 다 適合한 것이 아니므로 信賴할 수 없다. 例컨대, 少陰病은 四肢寒冷하고, 手足을 屈曲하여 睡眠하며, 精神이 衰乏하고, 脈이 沈細欲絶한데, 附子 乾薑 甘草 등을 써서 回陽 救逆해야 한다. 引經藥인 獨活과 같은 發表藥을 써서는 안된다. 또 다른 種類는 疾病이 所在하는 곳으로 引導하는 것이다. 例컨대, 咽喉病에는 桔梗을 써서 그 載藥上浮하는 作用을 利用하여 咽喉部에 到達케 하는 것이다. 또한 下肢病을 治하는데 牛膝을 引導藥으로 쓰고, 上肢病을 治하는데 上肢를 引導藥으로 쓴다. 그런데, 이들 藥이 咽喉 下肢 上肢의 어떤 病을 治療하는데 有效할 뿐이며, 이들 藥을 必須的인 引導藥으로 認識한다는 것을 實際와 符合되지 않는다.

因其輕而揚之(인기경이양지)

「素問. 陰陽應象大論」에 있음. [輕]은 病邪가 浮淺하고, 病位가 外表에 있음을 뜻하고, [揚]은 病勢가 順調롭게 밖으로 發泄함을 뜻함, 이는 病邪가 浮淺한 表證은 밖으로 發泄하는 [解表法]을 써서 汗으로 解除하는 것이 좋다는 뜻이다.

因其衰而彰之(인기쇠이창지)

「素問. 陰陽應象大論」에 있음. [衰]는 病邪가 거의 消盡되었는데, 正氣가 아직 恢復되지 않음을 뜻하고, [彰]은 正氣를 扶助하여, 正氣를 旺盛케 해서 病邪를 消盡시킴을 뜻함. 例컨대, 水腫病에 逐水藥을 쓴 후, 腫勢가 대체로 消退되면, 溫陽 健脾하는 藥物로서 例컨대 胃苓湯(蒼朮, 厚朴, 陳皮, 甘草, 桂枝, 白朮, 豬苓, 茯苓, 澤瀉)으로 用藥內容을 바꾸어, 脾의 水濕을 運化하는 機能을 強化함으로써 與腫을 消除할수 있다.

因其重而減之(인기중이감지)

「素問. 陰陽應象大論」에 있음. [重]은 病이 在裏하고, 病邪가 內決함을 뜻하고, [減]은 瀉下 或은 其他의 攻削하는 方法을 써서 治療함을 뜻함. 例컨대, 腹中에 瘀血結塊가 있는 경우, [破血消癥]藥을 써서 攻削하면 結塊를 점차 消除시키게 된다.

印堂(인당)

「闕」의 項 參照.

人痘接種法(인두접종법)

이는 患者의 痘漿을 取하여 사람에게 接種해서 免疫力이 생기게 함으로써 天然痘를 豫防한 方法이다. 中國古代醫學家들이 이러한 方法을 發明한지 이미 오랜 歷史가 있으며 16-17世紀에 人痘接種으로 天然痘를 豫防하는 것이 國內에서 專業으로 되었다 그 方法

에 四種類가 있었다. 즉 痘漿法 旱苗法 水苗法 및 痘衣法이다. 앞의 三種은 모두 鼻孔에 接種하며 그 痘苗를 鼻苗라 하며 그 方法을 鼻苗法이라 하였다. 痘衣法은 天然痘患者가 患時에 입던 衣服을 着用하는 것이다. 人痘接種法의 創造는 免疫學의 先驅로 認定되고 있다. 이러한 技術이 17世紀에 始作되어 러시아 韓國 日本 아랍 유럽 아프리카 各國에 前後해서 電波되었다. 西曆 1717년에 英國으로 전해져서 西曆 1796년에 英國人이 牛痘接種法을 發明하였다.

咽門(인문)

喉腔內的 嚥下하는 門이다. 飲食物은 咽門을 通하여 食道로 下入한다.

人蔘敗毒散(인삼패독산)

「逆流挽舟」의 項 參照.

因時制宜(인시제의)

「因人制宜」의 項 參照

人疴(인아)

「五不男」의 項 參照.

人迎(인영)

①結喉의 兩側, 總頸動脈의 搏動部位. 人迎脈이라고도 함. ②診脈部位으로서, 左手의 寸口脈의 別稱이다. ③足陽明胃經의 穴位名. 結喉의 兩側의 總頸動脈의 後方, 胸鎖乳突筋의 前緣部에 있음.

人迎脈(인영맥)

「人迎」의 項 參照.

因人制宜(인인제의)

[制宜]는 病證에 대하여, 季節, 地區 및 人體의 體質 年齡의 差異에 따라서 敵意한 治療方法을 制定해야 함을 뜻함. (1) 因時制宜는, 四季의 氣候變化가 人體에 對하여 一定한 影響을 미치므로, 治療에도 氣候의 特徵에 注意해야 한다. 例컨대, 夏季는 氣候가 炎熱하여 腠理가 疏開되므로, 風寒感冒를 앓는 患者에게 辛溫藥을 過用할 수 없다. 이리하여 汗多로 因한 陽氣의 耗散, 津液의 損傷을 피해야 한다. 冬季는 氣候가 寒冷하여 腠理가 緻密하므로, 風寒感冒를 앓는 患者에게 辛溫藥을 약간 重하게 써서 風寒을 汗으로 解하게 하는데, 반드시 病人의 體質을 考慮해야 한다. (2) 因地制宜는, 中國의 경우 國土가 廣闊하여 各 地區의 氣候가 다르다. 南方은 炎熱多雨地區로서 病人이 往往 濕熱證候를 나타내므로, 治療에 濕熱을 兼顧해야 한다. 北方은 少雨乾燥하므로 때로 燥證이 出現하니, 涼燥와 溫燥를 區別해서 治療해야 한다. 또한 어떤 地區에는 地方病이 있

으므로 더욱 注意해야 한다. (3) 因人制宜는, 各人의 具體的情況이 다르므로, 治療時에 具體的情況을 正確하게 掌握해야 함을 말함. 例컨대, 性別面에서, 男女의 生理가 다르므로, 各기 特殊한 疾患이 있다. 治療時에 그 生理 病理의 特徵을 考慮해야 한다. 年齡面에서, 小兒는 臟腑가 柔弱하고, 老人은 氣血이 衰少하여, 各기 相見되는 疾病이 있다. 體質面에서, 每個人의 先天的稟賦와 後天的調養이 다르므로, 身體의 素質도 다르게 마련이다. 偏寒 偏熱 或은 本來 어떤 慢性疾病이 있는 等으로 差異가 있다. 職業面에서, 作業條件과 어떤 疾病의 發生이 有關하므로, 診療時에 患者의 職業에 注意 해야 한다.

人定(인정)

「十二時」의 項 參照

人中(인중)

水溝라고도 함. ①脾下方, 脣上方의 皮膚縱溝部(鼻脣溝). 古人은 이곳을 望診하여 膀胱과 子宮(子處라고도 함)의 疾病을 診察하는 것으로 보았다. ②穴位名. 鼻脣口의 上으로부터 1/3이 되는 곳이며, 督脈經에 屬함.

人中疔(인중정)

疔瘡이 人中穴 部位에 생기므로 이렇게 이름한다. 「龍泉疔」이라고도 함. 疔이 承漿穴 部位에 생기면 「承漿疔」이라하고 口角의 外방에 생기면 「虎鬚疔」또는 「虎鬚毒」이라 한다. 모두 腎과 督脈 二經의 火毒이 上攻한 所致이다. 처음에는 豆粒狀의 작은 종기(소을태)가 생겨 堅硬 重痛하며 寒熱 의 全身症狀이 兼發한다. 손으로 짜서는 안된다. 쉽게 「疔瘡走黃」을 일으킬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因地制宜(인지제의)

「因人制宜」의 項 參照

引針(인침)

「出針」의 項 參照

引火歸原(인화귀원)

腎의 虛火가 上승하는 것을 치료하는 방법이다. 신화의 上승을 浮火 혹은 浮陽이라하며 그 임상표현은 上熱下寒 面色浮紅 頭暈耳鳴 口舌糜爛 요산퇴연 兩足發涼 舌質紅 脈虛 등증이다. 이에 肉桂 附子 熟地黃 五味子 등약을 쓴다. 육계 부자는 부화를 하행으로 끌어 腎중에 귀하게 하고 숙지황 오미자는 腎陰을 보하여 수렴시켜 신화가 다시 상행하지 않게 해서 上寒下熱의 증후가 소제하게 된다.

咽喉(인후)

舌根의 後部, 喉頭腔의 가장 넓은 곳, 口腔과 氣管·食道 사이의 通路이다. 全身의 많은 經脈이 여기를 循行 혹은 貫通하고 있다.

咽後膿瘍(인후농양)

「咽後癰」의 項 參照.

噎膈(일격)

삼킬때 무엇이 목에 걸리는 듯한 感覺이 있는것을 噎이라 하고 胸膜이 막혀서 飲食物이 不化하는 것을 膈이라 한다. 噎은 通常 膈의 前兆症狀인데 대개 噎膈이라 合稱한다. 胃癌, 食道癌, 食道狹窄, 食道痙攣 등의 病變에서 볼 수 있다. 대개는 長期的인 憂思鬱怒 辛辣食物 油煎物 硬食物의 嗜食으로 인해 脾가 傷하고 氣가 結하여 津液이 轉輸되지 못하고 모여서 痰이되고 肝이 傷하여 氣가 鬱結되고 血이 停滯되어 쌓여서 瘀血이 되는데 痰과 瘀血이 互結되어 食道를 內阻하며 胃가 和降하지 못하여 噎膈이 된다. 오래 되면 津血이 枯渴되고 胃氣가 虛廢해지며 脾陽이 不振하게 되어 衰渴證候를 나타낸다. 臨床上 三種의 類型으로 나눈다. ① 痰氣交阻 : 症狀은 삼킬때 목에 걸리는 듯 하고 胸膈이 痞滿隱痛하며 大便이 잘 안나오고 口乾咽燥한다. ② 瘀血內結 : 症狀은 胸膈이 송곳으로 찌르는 듯이 疼痛하고 食入하면 吐出하여 甚한 境遇는 水飲도 마시기 어렵고 大便이 羊糞처럼 굳고 或은 痰涎 紫血을 嘔吐하며 大便이 乾黑하다. ③ 氣虛陽微 : 症狀은 飲食이 不化하고 面色이 白光白하며 몸이 冷하고 氣短하며 清涎을 吐出하고 顔面과 足跗가 浮腫하며 腹脹을 나타낸다.

一貫煎(일관전)

「和肝」의 項 參照.

一陽(일양)

「三陽」의 項 參照.

一逆(일역)

치료상 일차의 착오를 범한 것.

一陰(일음)

「三陰」의 項 參照.

溢飲(일음)

水液이 體表 및 皮下組織에 停留된 것을 말하며 一般的으로 水氣病과 같다. 主要 表現은 身體가 疼痛하고 四肢가 浮腫沈重하며 或은 咳嗽等症이 나타난다. 心臟病水腫, 心炎水腫等에 屬한다.

日入(일입)

「十二時」의 項 參照

逸者行之(일자행지)

『素問』『至眞要大論』에 있음. [逸]은 氣血의 逆亂을 뜻하고, [行]은 氣血을 調理하여 正常으로 恢復시킴을 뜻한다. 예컨대, 肝氣가 橫逆하여 兩脇이 疼痛하면 [疏肝]法을 써야 하며, 行散되면 脇痛이 自止한다. 또 婦女가 下腹이 脹痛하여 拒按하고, 經穴이 紫黑色이며, 脈澁한 等으로 下焦에 血瘀한 證候가 있으면 [祛瘀]法을 써서 行之해야 한다. 瘀血이 除去되면 經血이 저절로 멎는다.

日中(일중)

「十二時」의 項 參照

日昃(일질)

「十二時」의 項 參照

日出(일출)

「十二時」의 項 參照

日晡所(일포소)

「十二時」의 項 參照

日晡潮熱(일포조열)

「潮熱」의 項 參照.

溢血(일혈)

① 出血을 말하며, 일반적으로 血液의 外溢을 뜻함. ② 咳血, 咯血, 吐血, 衄血 等, 口鼻 等의 上竅에서 出血하는 것을 말함. 「張氏醫通」에서, “從上溢者 勢心假道肺胃, 從下脫者 勢必由於二腸, 及從膀胱下達耳”(上에서 溢하는 것은, 반드시 肺胃에서 道를 빌리고, 下에서 脫하는 것은 반드시 大小腸과 膀胱에서 下達된다)고 하였다.

淋家(임가)

平素 小便이 淋瀝不盡하고, 尿意가 頻數하면서 尿量이 短少하고, 小便時에 陰莖中에 疼痛이 있는 病因을 말함. 古代醫家들은 經驗的으로, 淋家에게 發汗法을 써서 治療해서는 안되며, 만약 發汗시키면 便血을 일으키는 것으로 認識하였다.

任脈(임맥)

奇經八脈의 하나. 小腹內(胞中)에서 起始하여 脊椎骨內部를 沿하여 上行한다(靈樞·五音五味篇). 同時에 또 會陰部로 出하여 前陰으로 올라가서 腹部正中線을 沿하여 臍部를 지나 위로 胸部 頸部(모두 正中線)에 이르고, 下脣中央에 이른다. 여기서 左右로 갈라져 眼部에서 그친다(素問·骨空論). 循行過程에서 諸陰經과 서로 連繫된다. 任脈은 陰經

經脈의 總綱이다. 本經에 有病하면, 主로 疝氣, 赤白帶下, 腹內腫塊, 胸腹部의 內臟의 機能失調, 元氣虛弱 等の 症狀과 病症이 나타난다.

臨垂煎服(임수전복)

病邪가 胸膈부에 停滯된 경우 病邪가 좌우의 늑골부에 잇는 경우 병이 폐나 橫膈膜의 上部에 있는 경우에는 就寢전에 服用하면 좋다.(清代 경일진의 송암존생서에 있음)

妊娠(임신)

婦女의 懷孕으로서 「重身」, 「胎甲」등의 名稱이 있다.

妊娠癰證(임신간증)

「子癰」의 項 參照.

妊娠小便淋痛(임신소변임통)

「子淋」의 項 參照.

妊娠水腫(임신수종)

「子腫」의 項 參照.

妊娠失音(임신실음)

「子瘖」의 項 參照

妊娠心煩(임신심번)

「子煩」의 項 參照.

妊娠藥忌(임신약기)

妊娠중에 流産을 惹起하거나 或은 母子를 損害할 藥物은 일반적으로 사용하지 않는바, 이를 妊娠藥忌라 한다. 대체로 아래의 몇 種類로 나뉜다. (1)植物藥類: 1)毒草類: 烏頭·附子·天雄·五朮·側子·野葛·羊躑躅·南星·半夏·大戟·芫花·常山. 2)破血藥類: 牛膝·桃仁·牡丹皮·茜根·乾漆·瞿麥·蘭茹·三棱·鬼箭羽·通草·紅花·蘇木. 3)吐下滑利藥類: 藜蘆·巴豆·牽牛·皂莢·葵子·薏苡仁. 4)辛溫辛熱藥類: 厚朴·肉桂·生薑. (2)動物藥類: 1)毒虫類: 水蛭·芫青·斑蝥·地膽·蜘蛛·螻蛄·葛上亭長(甲虫)·蜈蚣·衣魚·蛇蛻·蜥蜴·蝨虫·蚱蟬·螻蛄. 2)其他動物藥類: 蝟皮·牛黃·麝香·龜版·鱉甲. (3)礦物藥類: 代赭石·水銀·錫粉·硃砂·砒石·芒硝·硫黃·雄黃·雌黃. 그중 일부 毒劇藥으로서 砒石 巴豆 斑蝥 등은 絶對로 禁用한다. 어떤 것은 炮炙해서 使用할 수 있다. 例컨대, 生半夏는 有毒하여 胎兒를 損傷할 우려가 있으므로, 薑汁으로 處理하여 薑半夏를 만들면 妊娠婦의 妊娠初期의 보통 惡心嘔吐를 治療할 수 있다. 그러므로 妊娠禁忌藥을 모두 完全禁忌해야 할 것인지 어떤지는 더 研究할 必要가 있다.

妊娠惡阻(임신오조)

「惡阻」의 項 參照.

妊娠音啞(임신음아)

「子瘖」의 項 參照.

妊娠腫脹(임신종창)

「子腫」의 項 參照.

妊娠咳嗽(임신해수)

「子嗽」의 項 參照

臨蓐(임욕)

妊娠 9個月以後부터 分娩前까지의 一期間을 말하며 「產前」이라고도 함.

淋證(임증)

頻尿, 尿急, 排尿障碍 或은 澁痛, 淋瀝不斷한 證候를 「淋證」이라 統稱한다. 石淋, 氣淋, 膏淋, 勞淋, 血淋 等 五種의 類型으로 나뉜다. 泌尿系의 感染, 結石, 結核, 乳糜尿, 前立腺炎 等 多種의 疾病이 包括된다. 대개는 濕熱이 下焦에 積留되어 膀胱으로 滲入하기 때문이며, 或은 腎虛로 因해 濕濁이 下注하여 氣化作用이 順理롭지 못한 所致이다. 五淋中の 病因이 各各 다르므로 詳細한 것은 各項을 參照.

炙(자)

藥材를 液體의 補助材와 함께 炒하여 補助材가 藥材 속에 插入되게 하는 것이면 炙이라고도 한다. 사용하는 補助材에 따라 11종의 炙法으로 나뉜다. 1)酒炙: 대개 黃酒를 쓰면 白酒를 쓰기도 한다. 二種類의 方法이 있다. 하나는 먼저 藥材와 酒를 잘 混合하여 가열해서 미황색이 되도록 炒한다. 또 하나는 먼저 藥材를 미황색이 되도록 炒한 다음 酒를 넣어 微炒한다. 예컨대 當歸 川楝 등이 이 方法으로 炙製한다. 2)炒炙: 微炒를 써서 炙한다. 예컨대 香附子 三棱 등을 이 方法으로 炙製한다. 3)鹽炙: 鹽을 물로 溶解하여 藥材와 함께 炒한다. 예컨대 橘核 杜冲 등을 이 方法으로 炙製한다. 4)薑炙: 먼저 生薑을 찢어 取汁하여 藥材와 함께 炒한다. 예컨대 竹茹 등을 이 方法으로 炙製한다. 5)蜜炙: 藥材와 蜂蜜를 잘 섞은 후에 가열하여 同炒한다. 예컨대 甘草 枇杷葉 등을 이렇게 炙製한다. 6)米甘水炙: 米泔水에 浸한 후 다시 炒한다. 예컨대 蒼朮 등을 이렇게 炙製한다. 7)羊脂炙: 羊脂와 藥材를 同炒한다. 예컨대 淫羊藿 등을 이렇게 炙製한다. 8)童便炙: 藥材와 童便을 同炒한다. 예컨대 香附子 등을 이렇게 炙製한다. 9)鰾血炙: 鰾血에 소량의 清水를 가하여 藥材와 잘 混合한 후 1시간 정도 방치했다가 남비에 넣고 변색하도록 炒한다. 예컨대 柴胡 등을 炙製한다 10)礬炙: 먼저 礬을 물로 溶解하여 이를 초열한 藥材 중에 分入해서 다시 건조하도록 同炒한다. 예컨대 鬱金 등을 이렇게 炙製한

다. 11)藥汁灸: 藥材와 藥汁을 同炒한다. 예컨대 吳茱萸등을 甘草汁으로 灸製한다. 補助材는 製藥 時의 補助物質을 말한다. 液體인 補助材로는 酒炒 등이 있고 非液體인 補助材로는 澱粉 糖 鹽 등이 있다. 단 鹽은 물로 溶解하여 液體補助材가 되기도 한다.

煮(자)

어떤 藥物은 清水 내에 혹은 液體인 補助材안에 넣고 약간 煮하여 그 毒性을 減弱하거나 혹은 그 藥物의 純度を 높인다. 예컨대 芫花는 醋炙하면 그 毒性이 減弱된다. 朴硝에 泥土 雜質이 붙어있는 것은 白蘿蔔子(무우)와 同煮하여 冷却하면 玄明粉이 되어 質量이 朴硝보다 純淨하게 된다.

子癇(자간)

「妊娠癇證」을 말함. 「子冒」라고도 함. 妊娠 6~7個月後, 或은 分娩이 臨迫해서, 突然, 眩暈하여 쓰러져서 人事不省이 되고, 四肢抽搐하며, 牙關緊閉하고, 眼睛直視하며, 白沫을 吐하고, 甚하면 角弓反張이 되다가 얼마 後에 漸次 깨어나는 症狀이 때때로 發作하는 것을 말함. 6~7個月以上の 妊婦에게, 頭暈目眩, 血壓上昇, 下肢水腫, 蛋白尿가 나타나면, 곧 檢査하여 早期에 豫防治療해야 한다. 本病의 原因은, 主로 腎陰이 本來 虛한데, 肝陽이 上亢하기 때문이다. 産後에 發病하는 수도 있다.

自灸(자구)

「天灸」의 項 參照.

子宮脫垂(자궁탈수)

「陰挺」의 項 參照.

刺禁(자금)

「禁刺」의 項 參照.

紫金錠(자금정)

「丹」의 項 參照.

子氣(자기)

「子腫」의 項 參照.

子氣(자기)

五行의 相生關係중 「我生」하는 것이 子氣이다. 例:火는 木에 의해 生하므로, 火가 木의 「子氣」이다.

子盜母氣(자도모기)

五行論으로 五臟間의 相生의 母子關係를 說明하는 가운데, 子病이 母에 미치는 것을

말함. 五臟의 虛損性疾病이 相互 影響을 미치는 病理를 說明하는데 多用된다. 例: 土生金으로서, 脾土는 母이고 肺金은 子인데 肺氣의 虛弱이 一定한 程度까지 發展하면 脾氣의 運化機能에 影響을 미치게 된다.

煮爛(자란)

「熬」의 項 參照.

眚漏(자루)

「漏睛」의 項 參照.

子淋(자림)

「妊娠小便淋痛」이라고도 함. 妊婦의 小便이 頻數하고, 淋瀝 疼痛하는 一種의 病症이다. 대개는 下焦의 虛熱 或은 濕熱의 所致이다.

子滿(자만)

「子腫」의 項 參照.

子冒(자모)

「子癰」의 項 參照.

子門(자문)

「子宮外口」의 項 參照.

紫白癩風(자백진풍)

俗名으로 汗斑이라 함. 대개는 臟腑에 積熱이 있는데, 다시 風濕을 感受하여 毛孔으로 侵入해서, 氣血을 凝滯케 하므로, 毛孔이 폐색되어 發한다. 胸 背 面 項 등의 部位에 많이 생기며, 紫色 或은 白色의 斑點을 이루고, 斑點이 빨리 擴散되어, 甚하면 蔓延해서 片狀이 되고, 全身에 波及된다. 初期에는 不痛 不痒한데, 病程이 오래 되면 斑點部位에 瘙痒感이 생긴다.

子煩(자번)

妊娠心煩이라고도 함. 이는 妊娠期中에 出現하는 煩悶不安, 心悸 膽怯의 病症이다. 病因은 陰虛, 膽火, 肝鬱等이다. 陰虛에 屬한 경우는 午後發熱, 手掌發熱, 舌紅無苔, 脈細數 等症을 나타낸다. 膽火에 屬한 경우는 頭暈, 脛悶, 惡心嘔吐 等症을 나타낸다. 肝鬱에 屬한 경우는 兩脅脹痛, 脈弦數 等症을 나타낸다.

刺法(자법)

「鍼法」의 項 參照.

子病(자병)

「惡阻」의 項 參照.

煮散(자산)

藥物을 粗末의 散劑로 만들어 물을 붓고 煎湯하여 去渣服用하는 것을 煮散이라 한다.

紫雪丹(자설단)

「清熱開竅」의 項 參照.

紫雪丹(자설단)

「丹」의 項 參照.

紫雪丹(자설단)

「調服」의 項 參照.

紫舌脹(자설창)

「垂壅」의 項 參照.

子嗽(자수)

「妊娠咳嗽」라고도 함. 妊娠期中에 乾咳가 出現하여 日久不止하고 甚하면 惡心이 煩熱하고 胎動不安한 病證을 말함. 대개는 平素 陰虛한데 妊娠後에 血氣가 養胎를 위해 下部에 많이 모여 陰精이 上承不能해서 肺陰이 汚損된 所致이다. 만약 久咳不癒하면 癆嗽가 될 수 있으며 抱兒癆라 한다.

滋水制火(자수제화)

「壯水之主, 以制陽光」의 項 參照.

滋水涵木(자수함목)

「滋養肝腎」의 項 參照.

疳腮(차시)

「腮腫」或은 「含腮瘡」, 또는 「蝦蟆瘟」이라고도 함. 溫毒의 病邪를 感受한 後, 腸胃의 積熱과 肝膽의 鬱火가 少陽經絡을 阻塞한 所致이며, 冬·春季에 잘 流行되고, 學齡兒童의 發病이 比較적 많다. 主要症狀은, 한쪽 혹은 前後해서 양쪽의 耳下腺部가 腫脹하며, 境界가 不明瞭하고, 누르면 약간 彈力感이 있고, 疼痛과 壓痛이 있다. 이는 流行性耳下腺炎이다.

滋腎(자신)

補腎陰과 같다. 「補陰」의 項 參照.

滋養肝腎(자양간신)

①腎陰을 滋養함으로써 肝陰을 潤養하는 것이다. 이 方法은 대개 腎陰이 虧損되고 肝木이 旺盛한 症候에 쓰인다. 例컨데 頭目眩暈, 眼乾澀, 耳鳴顴紅, 口乾, 惡心煩熱, 腰膝痠軟, 男子遺精, 婦女月經不調, 苔少舌質洪, 脈細弦數 等症이다. 乾地黃, 山茱萸, 枸杞子, 玄蔘, 舊版, 女貞子, 何首烏 等藥을 쓰면 좋다. 이 方法을 「滋水抑木」이라고도 한다. ②肝腎이 陰虛한데 輕度の 浮腫을 兼發汗 治療하는 것이다. 患者가 頭暈, 面紅昇火, 眼花耳鳴, 妖婦痠痛, 咽乾, 夜間睡眠不足 或有盜汗, 尿少色黃, 舌紅苔少, 脈現世 等症을 發한다. 杞菊地黃丸(熟地黃, 山萸肉, 山藥, 牡丹皮, 茯苓, 澤瀉, 枸杞子, 菊花)을 쓴다.

滋養胃陰(자양위음)

養胃라고도 함. 胃陰의 不足을 治療하는 方法이다. 胃部灼痛, 胃中不舒, 理氣, 大便燥結, 口乾咽燥, 舌質淡紅少苔, 脈細數한 경우 北沙蔘, 麥門冬, 石斛, 玉竹 等藥을 쓴다.

子午流注(자오유주)

鍼灸取穴의 一種의 古代學說이다. 十二經中の 五腧穴(모두 66개穴位)을 기초로 하여 일시의 天干地支의 變化와 配合하여 某日 某時에 어떤 穴位를 쓸 것인지를 결정한다. 쓰이는 穴位가 臨床상 一定한 效果가 있을지라도 전체적으로 볼때 그 중에는 形而上學的 내용이 포함되었고 또한 기계적인 治療公式를 채택하고 있으므로 批判적인 태도로서 대처해야 할 것이다.

子癰(자옹)

辜丸部位에 생기는 癰을 말하며, 急慢性의 區分이 있다. 急性인것은 대개 濕熱下注, 氣凝血滯의 所致이다. 發病이 急速하며, 한쪽의 陰囊이 腫大 灼熱하고 皮膚가 緊張 光亮하며, 疼痛이 極烈하며, 辜丸이 腫硬하며, 潰破後에 黃稠한 粘液이 流出되고 收口가 比較的 빠르다. 慢性인 것은 肝腎이 陰虧하고, 痰濕의 邪가 凝聚된 所致이다. 辜丸이 漸漸 腫大되어 硬結을 形成하며 疼痛은 比較的 輕微하고 陰囊이 不紅 不熱하며, 通常 數個月에서 一年이 지난後에야 膿腫이 形成되고 潰破後에 稀膿이 流出되며 때로는 漏管이 形成되어, 좀처럼 낫지 않는다.

眥惟赤爛(자유적란)

本證은 「眼角臉緣炎」과 類似하며 그 病因은 眼弦赤爛과 같다. 主要症狀은 兩眼角이 糜爛하여 딱지가 앉고 痛痒感을 隨伴한다. 重症인 경우에는 眼臉에서 出血하며 睫毛가 脫落된다.

滋陰(자음)

「育陰」, 「養陰」, 「補陰」, 「益陰」이라고도 함. 陰虛症을 治療하는 方法이다. 陰虛症에는 乾咳咳血, 潮熱盜汗, 口乾人燥, 腰痠遺精, 頭暈目眩, 手足心煩熱 等症이 나타난다. 天門冬, 麥門冬, 石膏, 沙蔘, 玉竹, 百合, 旱蓮草, 女貞子, 舊版, 鱉甲 等藥을 選用한다. 「補陰

」의 項 參照.

子瘕(자음)

「妊娠失音」, 「妊娠音啞」라고도 함. 妊娠期間中에 나타나는 것으로 音聲이 쉬거나 或은 失音이 되는 一種의 病症이다. 대개는 腎陰不足의 所致이다. 臨床表現은 往往 頭暈耳鳴, 手掌煩熱, 顴紅, 心悸, 心煩, 咽喉乾燥 等の 陰虛症狀을 隨伴한다. 만약 分娩이 臨迫해서 突然 失音이 되고 其他 症狀이 없는 것은 胞脈이 阻礙되어 腎脈이 不通하여 腎陰이 上承不能한 것으로 一般的으로 治療할 必要는 없으며 分娩後에 自然히 恢復된다.

滋陰利濕(자음이습)

邪熱이 陰液을 傷하여 小便不利함을 治療하는 方法이다. 患者가 口渴飲水하고 小便不利하며 或은 咳嗽嘔惡하고 心煩하여 安眠不能한 경우 猪苓湯(猪苓, 茯苓, 澤瀉, 阿膠, 滑石)을 쓴다. 心煩顔面不能함은 傷陰의 現狀이며 阿膠는 補血養陰하여 其他藥과 同用하면 能이 利水하고 또 陰液을 傷하지 않는다.

滋陰瀉下(자음사하)

「攻補兼施」의 項 參照.

滋陰疏肝(자음소간)

「和肝」의 項 參照.

滋陰熄風(자음식풍)

滋陰을 爲主로 하여 陰虛로 인한 內風을 消除하는 方法이다. 熱性病의 後記에 熱이 眞陰을 傷하여 身熱은 不甚한데 持續되는 熱이 不退하고 手足心熱, 面紅, 虛煩不眠, 咽乾口燥, 心慌神倦, 甚或耳聾, 手足蠕動或抽搐, 舌乾絳少苔, 脈虛數 等症을 나타낸다. 生地黃, 白芍藥, 麥門冬, 鷄子黃, 龜板, 鱉甲, 牡蠣, 鉤藤 等藥을 쓰면 좋다.

滋陰平肝潛陽(자음평간잠양)

陰虛하여 肝陽이 上亢됨을 治療하는 方法이다. 肝陰虛나 或은 腎陰虛는 모두 肝陽上亢을 일으킨다. 頭痛, 頭昏暈, 耳鳴耳聾, 情緒가 波動하기 쉽고 面部洪熱, 口燥咽乾, 睡眠不足, 舌質洪, 脈細弦數 等症이 出現한다. 肝腎의 陰을 滋養하는데는 熟地黃, 枸杞子, 山茱萸, 旱蓮草를 쓴다. 平肝에는 鉤藤, 菊花, 天麻, 僵蚕 等を 쓴다. 潛陽에는 生牡蠣, 生地黃, 生龍骨, 生石決明, 磁石 等を 쓴다.

滋陰涵陽(자음함양)

「壯水之主, 以制陽光」의 項 參照.

滋陰解表(자음해표)

「養陰解表」의 項 參照.

子臟(자장)

「女子胞」의 項 參照.

子腸不收(자장불수)

「陰挺」의 項 參照.

子腫(자종)

妊娠 7~8個月後에, 下肢가 약간 浮腫하고, 其他症狀이 없는 것은, 妊娠後期에 常見되는 現象이다. 만약 水腫이 漸次 加重되어, 股部, 外陰部, 혹은 下腹部에 미치고, 甚한 경우, 面部 혹은 肢體上部까지 全身이 浮腫하고, 同時에 尿量이 減少되며, 體重이 迅速히 增加되는 것은 「子腫」, 혹은 「妊娠腫脹」, 「妊娠水腫」이라 한다. 이는 晚期妊娠中毒症의 一種의 臨床表現이며, 患者는 언제나 皮膚色이 蒼白하고, 精神이 疲乏하며, 肢冷倦怠하고, 口淡厭食 等症으 兼發한다. 病因은, 主로 脾腎의 陽虛 或은 氣滯의 所致이다. 이밖에 妊娠 6~7個月 사이에 出現하는, 腹部가 脹滿하고, 숨이 차는 것을 「子滿」 혹은 「胎水」라 한다. 膝以下가 浮腫하고, 小便이 清長한 것을 「子氣」라 하며, 兩脚이 浮腫하고, 皮厚한 것을 「皺脚」이라 한다. 兩脚이 浮腫하고 皮薄한 것을 「脆脚」이라 한다. 그 病理는 上述한 바와 대체로 같다. 近來에는 이러한 名稱이 그다지 쓰이지 않는다.

磁朱丸(자주환)

「重劑」의 項 參照.

自汗(자한)

晝間에 勞動이나 厚衣 或은 發熱하지 않는데 汗이 저절로 나는 一種의 症狀을 말함. 대개 肺氣가 虛弱하고 胃陽이 不固한 所致이다.

子懸(자현)

婦女가 妊娠 4-5個月後에 胎動不安. 心胸脹滿, 痞悶不舒한 病症을 말함. 대개는 肝氣鬱結, 痰氣塞遏로 因해 胎氣가 上逆한 所致이다.

作強之官(작강지관)

「腎主伎巧」의 項 參照

雀盲(작맹)

「夜盲」의 項 參照.

雀盲(작맹)

「夜盲」의 項 參照.

灼熱(작열)

發熱이 비교적 높은 狀態로서, 손으로 患者의 皮膚를 만지면 灼手하는 感覺이 있음을 形容한 것이다.

雀啄脈(작탁맥)

七怪脈의 一種. 脈象이 急數하고, 律動이 不調하여, 끊어졌다가 다시 搏動하여, 마치 참새가 모이를 쪼는 것같이 느껴지는 말함.

蠶蛾(잠아)

「乳蛾」의 項 參照

潛陽(잠양)

陰虛하여 肝陽이 上昇(上亢)됨을 治療하는 方法이다. 肝陽이 上昇하면 頭痛眩暈, 耳鳴耳聾, 肢體麻木 或은 進展 等症이 出現한다. 生牡蠣, 生龍骨, 生石決明, 眞珠母, 磁石, 代赭石 等の 質重 眞髓한 性質의 藥物을 쓰면 좋다. 이렇게 虛陽을 收斂하는 것을 「潛陽」이라 한다. 潛陽法은 通常平肝滋陰 等法과 同用한다. 「滋陰平肝潛陽」의 項 參照.

潛鎮(잠진)

「鎮潛」이라고도 함. 質重 下墜의 性質이 있는 鎮靜安神藥과 潛陽藥을 同用하는 治療方法을 말함. 質重 下墜의 性質이 있는 鎮靜安神藥은 硃砂, 磁石, 代赭石, 龍齒, 牡蠣 等이다. 質重 下墜의 性質이 있는 潛陽藥은 牡蠣, 龍骨, 石決明, 眞珠母, 磁石, 代赭石 等이다. 그 중 어떤 藥物은 鎮靜安神과 潛陽의 두가지 作用을 兼有한다. 潛鎮法은 心神不寧, 心悸失眠과 肝陽上亢의 頭痛, 眩暈 等症의 治療에 常用된다.

雜氣(잡기)

「戾氣」의 項 參照.

雜病(잡병)

「雜症」이라고도 함. 通常, 外感病以外的 內科疾病을 말함.

雜症(잡증)

「雜病」의 項 參照.

臆結(장결)

「傷寒論」에 있음. ①症狀이 結胸證과 類似한데, 發熱 煩躁症이 없고, 患者가 飲食은 如常하면서 때로 泄瀉하고, 脈象은 寸脈이 浮하고, 關脈은 細小沈緊하며, 舌苔가 白滑하고 이하다. 이는 邪氣가 臆에 結하므로, 陽虛하고, 陰濁이 凝結된 것이다. ②病人의 脇下에 平素 積聚 痞塊가 있어서, 그것이 臆傍까지 連하여, 疼痛하며 땅기는 것이 少腹에 까지 미치는 病症을 말함.

將軍之官(장군지관)

「肝之謀慮」의 項 參照.

臟氣(장기)

五臟의 氣, 五臟의 機能活動을 말함. 詳細한 것은 該當項을 參照.

腸覃(장담)

古病名이다. 『靈樞』『水脹篇』에 있음. 主要表現은, 처음에 腹內에 鷄卵크기의 塊狀物이 생겨서, 以後 漸次 增大하여 妊娠한 것처럼 腹脹하며, 塊狀物이 堅硬하고, 밀면 移動하며, 月經은 正常的으로 來潮한다. 이는 氣가 阻塞되므로 血瘀하여, 癖積이 留滯된 所致이다. 婦女의 卵巢腫瘤의 類이다.

臟毒便血(장독변혈)

腸胃에 積熱이 되거나 或은 濕熱이 鬱滯하므로 惹起되는 病症이다. 臨床 表現은, 下血이 대개 片塊狀을 나타내며, 汚濁 色暗하고, 大便이 軟便이면서 不暢하고, 食慾不振, 身體倦乏, 舌紅, 苔黃이, 脈濡數 等症을 나타낸다.

長脈(장맥)

脈象의 一種. 脈의 破動의 幅이 길어서, 寸, 關, 尺 三部의 本位를 지나고도 남는 感이 있다. 長脈이 和緩하면 中氣가 旺盛한 健康脈象이다. 長脈이 弦, 勁하면 按壓할때 줄을 당기는 感이 있는 것은 邪氣와 精氣가 俱盛한 實證에 屬하며, 實熱內結 或은 熱性風動 등에서 볼 수 있다.

臟腑相合(장부상합)

臟腑間의 相互聯關과 影響을 뜻함. 人體의 臟腑의 配合은, 陰陽 表裏가 서로 配合되는 關係로 體現된다. 臟腑의 表裏相合은, 主로 經脈의 連繫과 生理機能의 相互配合을 通해 體現된다. 臟腑의 配合은, 『心合小腸』, 『肺合大腸』, 『肝合膽』, 『脾合胃』, 『腎合膀胱』, 『心包絡合三焦』이다.

腸痺(장비)

古病名이다. 『素問』『痺論』에 있음. 內臟痺症의 하나이다. 則 痺症이 大小腸에 影響을 미치어 出現하는 一種의 證候이다. 主要 症狀은 渴飲하면서 小便이 不利하고 腹脹泄瀉한다. 大小腸의 氣가 疝疝不行하므로 水道가 不通하게 되고 糟粕이 運化되지 않으며 淸濁이 分離되지 않기 때문이다.

臟象(장상)

「臟」은 臟腑를 말하고, 「象」은 人體臟腑의 正常機能과 病態變化가 發生했을 때 外部에

反映되는 徵象을 말함. 이는 形體組織과 證候面에서 볼 수 있고 또는 診査되는 몇가지 徵象을 뜻하며, 內在하는 臟腑機能(實際로는 營·衛·氣·血·精·神·津液 등을 包括함)의 變化를 反映하게 되며, 이는 人體의 健康을 判斷하고 疾病을 診斷·治療하는 根據가 됨.

壯數(장수)

매회의 施灸에 點燃하는 艾柱수이다. 直接灸法이나 間接灸法을 불문하고 施灸시에 點燃하는 한개의 艾柱를 일장이라 한다.

壯水制陽(장수제양)

「壯水之主, 以制陽光」의 項 參照.

壯水之主, 以制陽光(장수지수, 이제양광)

唐의 王冰이 「諸寒之而熱者取之陰」이란 內經說에 對하여 註釋한 것임. 後에 「壯水制陽」, 「滋水制火」, 「滋陰涵陽」등으로 簡稱하게 되었다. 이는 滋陰 壯水하는 方法을 써서, 陽亢 火盛을 抑制한다는 뜻이다. 가령 寒涼藥을 써서 熱證을 治療하여도 效果가 나타나지 않거나 或은 도리어 嚴重해지는 것은, 이 熱證이 陰虛 陽亢의 性質의 것이며, 腎陰虛에 屬하므로, 腎陰(腎臟의 眞水)을 滋해야 한다. 例컨대, 腎陰이 不足하여 虛火가 上炎해서, 頭暈目眩, 腰痠足軟, 咽燥, 骨蒸痠痛 等證이 나타나면 六味地黃丸(熟地黃, 山茱萸, 山藥, 澤瀉, 茯苓, 牡丹皮)을 써서 治療한다.

掌心毒(장심독)

「托盤疔」의 項 參照.

掌心風(장심풍)

「鵝掌風」의 類 參照.

壯陽(장양)

溫補藥을 써서 人體의 陽氣를 長强케 하는 것이며 주로 心腎의 陽氣를 長强시키는 것을 말한다. 例컨대 人蔘, 附子는 心陽을 장강케 하고(「回陽救逆」의 項 參照), 肉桂, 鹿茸은 腎陽을 장강케 한다(「補陽」의 項 參照). 통상 壯陽이라함은 범위가 비교적 좁아서 腎陽을 장강케 하는 것을 말한다.

壯熱(장열)

實證에 出現하는 高熱을 말하며, 일반적으로 溫病이 氣分에 있는 熱型에 屬한다.

腸癰(장옹)

先人은 「大腸癰」과 「小腸癰」을 統稱해서 「腸癰」이라 하였다. 대개는, 濕熱, 氣滯, 血瘀 등이 腸中에 留注되어 氣血이 鬱阻된 所致이다. 大腸癰은 急性虫垂炎에 該當하며, 右下

腹이 急痛하여, 뚜렷한 壓痛 或은 反跳痛이 있으며, 寒熱, 自汗, 惡心 等症을 隨伴한다. 어떤 경우는, 右下腹이 劇痛하여, 右腿를 屈曲해서 바로 펴지 못한다. 故로 이를 「縮脚腸癰」이라 한다. 어떤 경우는 局部的 潰膿이 穿破되어, 包塊를 形成하여, 腹痛이 激增되고, 腹皮가 攣急해지며, 언제나 高熱이 있고, 脈象이 洪大하고 數하며, 右下腹部에서 包塊가 觸知된다. 이는 蟲垂의 膿腫이다. 만약 外向으로 潰破되면 腹膜炎을 일으키게 된다. 小腸癰은, 通常 少腹이 攣急하며, 臍下의 關元穴附近이 脹痛 拒按하고, 小便이 瀯滯 或은 頻數 短赤하다. 어떤 경우는 患者가 左下肢를 屈曲하여, 直伸하면 少腹部의 疼痛이 加重되며, 寒熱 自汗 等의 症狀이 隨伴된다. 臨床上, 大腸癰에 比하여 드물게 볼 수 있다. 이밖에 腸癰이, 腹壁 臍部를 向하여 穿潰되는 것이 있는데, 이를 「盤腸癰」이라 한다.

臟俞五十穴(장유오십혈)

「五腧穴」의 項 參照.

臟躁(장조)

一種의 發作性 精神病이며 女性患者가 많다. 發病前에 通常 精神이 憂鬱하고 幻覺이 일어나며 感情이 激動하기 쉽고 知覺過敏 或은 遲鈍等의 前期症狀을 나타낸다. 發作時에는 煩悶을 自覺하고 躁急해지며 까닭없이 歎息 或은 悲傷하여 울려고 하며甚하면 抽擣하는데 面色이 蒼白하지 않고 意識도 完全히 消失되지 않는다. 故로 癲癇과는 다르다. 本證은 疑病(히스테리)의 類이며 心肝이 血虛한데 情志가 抑鬱되고 血燥肝急을 兼發한 所致이다.

長虫(장충)

「虵虫」의 項 參照.

長鍼(장침)

古代 九鍼의 一種이다 鍼體가 比較的 길어서 6-7촌(20-23cm) 혹은 더 긴 것도 있다. 深刺에 多用되며 慢性風濕病 座骨神經痛등을 治療한다.

腸風便血(장풍변혈)

風熱이 腸胃를 侵犯하거나 或은 濕熱이 腸胃에 蘊積되어, 遷延하면 陰絡을 損傷하여, 大便時에 出血하게 되므로 이렇게 이른다. 臨床 表現은, 大便前에 물을 쏟듯이 出血하는데, 血色이 鮮紅色을 띠며, 肛門에는 腫痛이 없고, 舌紅하며, 脈數 等を 나타낸다.

長夏(장하)

「四時」의 項 參照

瘡瘡(장학)

山嵐瘴氣를 感受함으로써 發하는 一種의 瘡疾이다. 臨床表現은, 寒多熱少하고, 或은 熱多寒少하며, 每日發作 或은 隔日發作하고, 煩悶身重하며, 昏沈不語하고, 或은 過言譫語한다. 惡性瘡疾의 類이다.

臟寒(장한)

①嬰兒가 百日內에, 手足이 逆冷하고, 唇面이 微青色이며, 額上에 汗出하고, 不思乳食하며, 腹痛腸鳴하고, 清水를 泄瀉하고, 夜啼 等症을 出現하는 것을 말함. 이는 出産時에 冷氣가 侵入했거나 或은 臍帶의 結縛이 不緊하여 寒氣가 內侵한 所致이다. ②脾胃의 虛寒을 말함.

臟行氣於腑(장행기어부)

臟과 腑의 特徵에 關하여, 『素問·五臟別論』에서, 臟은 “臟精氣而不寫”라 하였고, 腑는 “傳化物而不藏”이라 하였다. 五臟이 精氣를 貯藏하지만, 五臟의 氣(活動의 動力으로 解釋된다)의 作用은, 必然的으로 六腑와 密接한 關係를 가져야 하며, 이렇게 되어야만 臟과 腑의 綜合機能을 體現하게 된다. 『素問·五臟別論』에서, “此受五臟濁氣, 名曰傳化之腑 此不能久留輸瀉者也”라 하였다. 여기서 말한 『濁氣』는, 飲食物 및 飲食物이 變化해서 생긴 產物로서의 糟粕·水分等を 말한다. 이들 『氣』는 腑에서 오는 것이므로 『臟行氣於腑』라고 한다. 例로서, 具體的인 장부의 機能配合으로써 말한다면, 膽汁의 排泄에는 肝氣의 疏泄이 必要하고, 膀胱의 排尿에는 腎의 氣化作用이 必要하다. 이들은 모두 臟의 行氣機能을 體現한 것이다.

壯火(장화)

『素問』「陰陽應象大論」에서, “壯火之氣衰”라 하였다. 壯火와 少火는 相對되는 用語이다. 이는 一種의 興奮된 病理의 火로서, 精氣를 耗損하여, 人體의 正常生理機能에 影響을 미친다.

壯火食氣(장화식기)

人體中에서 안으로는 臟腑을 養하고, 밖으로는 肌膚를 充實케하는 陽氣는 生理上의 火로서, 「少火」라고 稱한다. 만약 陽氣가 過亢하여 火熱이 内生하면, 病理上의 火가 生成되며 이를 「壯火」라고 稱한다. 이러한 過盛한 陰을 損傷하고, 氣를 損耗하게 된다. 이를 「壯火食氣」라 한다. 「食」은 腐蝕 或은 損耗를 뜻함.

臟會(장회)

「八會穴」의 項 參照.

再逆(재역)

치료상 또다시 이차의 착오를 범한 것.

再傳(재전)

古人은 傷寒病의 六經중 太陽에서 陽明, 少陽, 太陰, 少陰, 厥陰으로 一日에 一經을 傳經하여, 萬若 六日이 되어도 病이 낫지 않으면, 第七日에 다시 太陽經으로 再傳하는 것으로 認識 하였다. 事實上, 傷寒病이 一日에 一經씩 傳經한다는 說은 완전히 實際와 遊離된 것이며, 臨床上 厥陰經에서 太陽經으로 再傳한다는 것은 거의 볼 수 없는 것이다.

再造散(재조산)

「助陽解表」의 項 參照.

骴(저)

「尾閭」의 項 參照.

疽(저)

瘡瘍이 平平하고 넓게 腫起하여 皮膚色이 變하지 않고 不熱不痛하며 化膿하지 않는 동안은 잘 消散되지 않고, 化膿해도 잘 潰破되지 않으며 膿汁이 清稀하고 潰破後에도 잘 아물지 않는 것을 모두 疽라고 한다. 本證은 外邪를 感受하여 邪氣가 肌肉筋骨사이에 鬱結되어, 氣血이 凝滯됨으로써 생긴다. 或은 情志內傷, 氣血失調에 起因하기도 하고, 或은 炙博肥이食物을 過食하여, 痰凝 濕滯가 되는 등의 所因에 의해 생기기도 한다.

骴端(저단)

「尾閭」의 項 參照.

猪膽汁導法(저담즙도법)

도변법의 하나이다. 저담즙에 소량의 초를 가하여 화균해서 항문내에 관주한다.

猪苓湯(저령탕)

「滋陰利濕」의 項 參照.

咀片(저편)

「飲片」의 項 參照.

赤帶(적대)

婦女의 陰道에서 淋瀝不斷으로 流出되는, 紅色 粘濁한 分泌物(血같지만 血이 아님)을 말함. 流出物이 純紅色의 分泌物이면 「經漏」에 屬하고, 白色이 섞이면 「赤白帶」라 한다. 一般的으로, 赤帶는 心肝의 火가 熾盛한 所致이며, 熱에 屬하는 것이 많다. 經漏는 飲食勞倦, 脾失健運, 濕熱 下迫의 所致이며, 虛에 屬하는 것이 많다. 赤白帶는 濕熱의 滯留로 因해 子宮內에 瘀血이 섞이기 때문이다. 또 精志의 鬱結에 起因하는 경우도 있으며, 濕熱의 挾雜에 屬한 것이 많다. 本病은 대개 子宮頸部爛, 子宮癌肉에서 볼 수 있으며 長期間 낫지 않으면 癌으로 變한다는 것을 考慮하여 早期治療를 꾀해야 한다.

赤痢(적리)

「濕熱痢」의 項 參照

赤膜下垂(적막하수)

‘垂簾障’이라고도 함. 沙眼性角膜血管翳(트라코마性角膜pannus)와 類似함. 本病은, 대개 椒瘡(砂眼, 트라코마)을 失治하거나 或은 調治失宜한데다가, 心·肺·肝 諸經의 風熱 內火가 加해져서, 瘀血이 凝滯된 所致이다. 主要症狀은, 가지런한 細小血管이 白睛(흰자위)의 上方에서 下向하여 黑睛(검은자위)으로 侵入하여, 患者가 恒常 目痒 流淚하고, 羞明 畏光한다. 重症인 경우는 瞳孔에까지 侵犯하여, 角膜이 混濁된다.

赤脈貫布(적맥관포)

一般的으로, 氣輪(白睛)上の 血管이 增加하여, 흰자위 전체에 퍼지는 것을 말하며, 이는 많은 種類의 眼病에 共通되는 症狀이다(例컨대, 椒瘡, 栗瘡, 火疳등). 「赤脈如縷」라고도 함.

赤脈如縷(적맥여루)

「赤脈貫布」의 項 參照.

赤脈傳睛(적맥전정)

氣輪(白睛)上の, 양쪽 眼角(眥)에서 赤脈이 생겨, 漸次 안쪽으로 擴傳되는 것을 말함. 대개는 기름진 美食을 嗜食하므로, 心火가 亢盛하여, 눈으로 上擾한 所致이다. 本證을 ‘赤絲虯脈’과 鑑別해야 하는데, 後者の 病變은, 兩眼角에서 始作되는 것이 아니고, 白睛의 어느 部位에서나 생기며, 血管이 꾸불꾸불하게 充血한다.

炙燂(적박)

煎·炒·炸·烤·爆類의 調理方法이다. 炙燂한 食物은 性質에 燥熱이 많아서 偏食하면 胃陰을 損傷하여 內熱의 病症이 發生한다.

赤白帶(적백대)

「赤帶」의 項 起照.

赤白痢(적백리)

「濕熱痢」의 項 參照.

赤白肉際(적백육제)

四肢의 內外側의 赤肉과 白肉의 境界處. 그 중 上肢부의 屈側(手掌側)은 陰面으로 皮膚色이 比較的 희므로 白肉際라 하며 伸側(手背側)은 兩面으로 皮膚色이 比較的 짙으므로 赤肉際라 한다. 下肢部에서는 內側이 陰面으로 白肉際이고 外側과 後側이 兩面으로

赤肉際이다.

赤絲虯脈(적사규맥)

氣輪(白睛)의 血絡 赤絲가 뚜렷이 보이는 病症을 말함. 대개는, 血絡이 鬱滯된 所致이다. 椒瘡(트라코마), 栗瘡 류의 病症에, 恒常 赤絲虯脈이 出現한다. 其他過度한 視力 消耗나, 或은 飲酒過甚 등에 의해서도 白睛上의 血管이 擴張되어 赤絲虯脈이 發生한다.

賊邪脈(적사맥)

「五邪脈」의 項 參照.

赤小豆桑白皮湯(적소두상백피탕)

「燥劑」의 項 參照.

赤如衃血(적여배혈)

素問, 五臟生成篇에 있음. 이는 心の 眞臟色이다. 배血은 凝積된 死血이다. 紫黑色로 枯槁한 病色을 形容한 것이며, 心血이 瘀阻되고, 胃氣가 衰敗한 疾病, 例컨대 冠狀動脈硬化心臟病, 充血性心力衰竭 等證에서 나타난다. 「眞臟色」의 項 參照.

赤游丹(적유단)

「游風」의 項 參照.

赤游風(적유풍)

「游風」의 項 參照.

赤肉(적육)

「分肉」의 項 參照.

赤肉際(적육제)

「赤白肉際」의 項 參照.

賊風(적풍)

『靈樞』『賊風篇』 등에서 나옴. ①風邪를 뜻함. ②「虛邪賊風」의 略稱. 一般적으로 四季의 非正常的인 氣候를 말함. 이러한 氣候는 賊害하는 性質이 있어서, 사람을 發病케 하므로 이렇게 말한다.

顛(巔)(전)

頭頂部를 말함. 顛頂이라고도 함.

煎(전)

藥에 물을 붓고 煎熬하는 것

癰瘤(전간)

「癰症」의 項 參照.

煎乾(전건)

「熬」의 項 參照

傳經(전경)

傷寒病이 一經에서 다른 一經으로 傳入하는 것으로, 卽 一經의 證候에서 다른 一經의 證候로 變遷하는 것이다. 傳經의 實際는, 病證이 進行變遷하는 것이며, 몇 가지로 나뉜다. (1) 循經傳太陽經에서 陽明經, 이어서 少陽經, 다시 太陰經, 少陰經, 그리고 厥陰經의 順序로, 表에서 裏로 傳入하고, 淺部에서 深部로 傳入함을 말함. 그러나 六經을 全部 一循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病人의 正氣가 充實하여 抵抗力이 增強되고, 治療가 妥當하면 傳經이 終止된다. (2) 越經傳病邪가 經을 뛰어넘어 傳變되는 것을 말함. 例컨대 太陽經이 陽明病으로 傳變하지 않고, 少陽經으로 傳變하는 것이다. (3) 表裏傳相互 表裏가 되는 陽經의 相傳을 말함. 例컨대 太陽經과 少陰經, 陽明經과 太陰經, 少陽經과 厥陰經은 모두 相互 表裏가 된다. 故로 太陽病이 少陽으로 傳入하는 것을 表裏傳이라 함.

癰狂(전광)

癰과 狂은 모두 精神錯亂의 疾病이다. 癰은 抑鬱狀態로 表現되며 情感冷淡, 沈默痴呆, 言語錯亂, 飢飽不知하고 甚하면 卒倒直視하며 虛證에 屬한다. 이는 痰氣의 鬱結 或은 心脾兩虛의 所致이다. 狂은 興奮狀態로 表現되며 喧憂不寧, 衣服寢具의 不斂, 打人罵人, 歌笑不休, 多怒하며 甚하면 痰을 넘고 지붕에 오르며 實證에 屬한다. 이는 陽氣가 過亢하고 心神이 外越한 所致이다. 故로 難經二十難에서 “重陽者狂 重陰者癰”이라 하였다. 그런데 癰과 狂은 病理變化上 關聯이 있다. 癰病이 오래되면 痰鬱이 化火해서 狂症으로 나타난다. 狂症이 오래되면 鬱火가 점차 宣泄되고 痰氣가 停留해서 또한 癰證을 나타낸다. 故로 通常 癰狂이라 併稱한다.

煎厥(전궐)

古病名이다. 內熱이 陰核을 消瀉해서 出現하는 昏厥의 病證을 말함. 大개 平素에 陰精이 虧損되고 陽氣가 亢盛한데다가 다시 暑熱의 病邪를 感受하여 煎迫된 所致이다. 臨床表現은 耳鳴, 耳聾, 目盲하고 甚하면 突然 昏厥하며 病勢의 發展이 매우 急激하다.(『素問』「生氣通天論」)

轉筋(전근)

「抽筋」이라고도 함. 大개는 腓腸筋(장딴지)의 攣急을 말함. 이는 津液이 脫失된 一種의 症狀이다.

傳道之官(전도지관)

①「大腸」의 項 參照 ②「大腸主傳導」의 項 參照.

轉豆脈(전두맥)

十怪脈의 一種. 轉丸脈이라고도 함. 脈動을 잡기 어려워, 마치 콩을 굴리는 듯한 것.

前髮際(전발제)

「髮際」의 項 參照.

傳變(전변)

傷寒病의 過程에서, 一般的인 또는 異常하게 發展하는 情況을 말함. 「傳」은 傳經(經은 傷寒六經病을 말함)을 뜻하며, 病情의 發展이 一定한 規律에 따른 것으로, 例컨대 太陽經이 陽明經으로 傳하고, 或은 少陽經으로 傳하는 것이다. 「變」은 變化로서, 病情의 變化가 規律을 追越함을 뜻하며, 例컨대 陽經이 陰證으로 轉變하고, 或은 기타 寒熱이 挾雜하는 證候로 轉變하는 것이다.

全書(전서)

①個人 著作의 叢書를 말함. 例컨대 明代 張介賓의 『景岳全書』(AD1624)는 張介賓의 多種 醫書를 包括하고 있다. ②收集하여 印刷한 叢書를 말함 例컨대 清代 崇文齋가 印刷한 『仲景全書』(AD1894) 明代 張卿子の 『集注傷寒論』, 漢代 張仲景의 『金匱要略方論』, 金代 宋雲公의 『傷寒類證』, 清代 曹東齋의 『運氣掌訣錄』, 金代 成無己의 『傷寒明理論』을 包括한다. ③特定 主題에 대하여 研究한 醫書를 말함. 例컨대 明代 張鶴騰의 『傷暑全書』(1623年), 清代 謝玉瓊의 『麻科活入全書』(1748年)이다. ④部門別로 論述한 醫書로서 明代 龔廷賢의 『濟世全書』(1629年)等이다.

傳尸癆(전시로)

「勞瘵」의 項 參照.

煎藥法(전약법)

藥物에 물을 붓고 一定時間 달여서 去滓하고 取汁內服하는 것. 煎藥에 一定한 方法이 있는데 發表藥 理氣藥은 대개 그 藥氣를 쓰므로 比較的 강열한 武火로 急煎해야 한다. (달이는 시간이 比較的 짧다) 補益藥은 대개 그 藥味를 쓰므로 比較的 藥한 文火로 慢煎해야 한다.(달이는 시간이 比較的 길다) 煎藥時에 물을 붓는 양의 多少는, 藥物의 性質, 處方藥味の 多少 病人의 年齡 等에 따라 결정해야 한다. 이밖에 「先煎」, 「後下」, 「包煎」等法이 있다. 各該當項을 參照.

纏腰蛇丹(전요사단)

本病은 纏腰火丹, 蛇串瘡, 火帶瘡이라고도 함. 이는 腰肋間에 생기는 疱疹으로서, 紅色

이고, 形狀이 蛇行과 恰似하므로 이렇게 이름한다. 春秋季節에 多發하며, 突然 發病하여, 患部에 먼저 刺痛이 있고, 或은 가벼운 發熱, 疲乏등이 隨伴된다. 대개 身體의 한쪽에 發하며, 腰肋部에 常見되고, 그 다음은 胸部이고, 頭部에 發하는 경우는 드물다. 發病時, 患部에 綠豆大 或은 大豆狀의 水疱가 생겨, 念珠처럼 줄지어 束帶狀을 이룬다. 疱液이 처음에는 투명한데, 점점 혼탁해진다. 대개는 心肝 二經의 濕熱의 所致이다. 帶狀疱疹의 類이다.

纏腰火丹(전요화단)

「纏腰蛇丹」의 項 參照.

戰慄(전율)

「寒慄鼓舍」의 項 參照.

前陰(전음)

下陰이라고도 함. 男女의 外生殖器 및 尿道の 總稱.

纏耳(전이)

「膿耳」의 項 參照.

巔頂(전정)

「巔」의 項 參照.

臈中(전중)

①前胸部의 正中, 左右兩乳의 正中間部位. ②穴位名, 臈中剖의 中央이며, 任脈經에 屬함.

巔疾(전질)

巔은 頭頂을 뜻함. 巔疾은 一般的으로 頭部の 疾病을 말하는데 대개는 各種 頭痛을 말함. 頭는 諸陽이 會하는 곳으로 臟腑의 血氣가 모두 頭部에 會集한다. 故로 六淫의 外感이나 臟腑의 內傷이 모두 巔疾을 發生케 한다.

轉鍼(전침)

「捻鍼」의 項 參照.

電鍼(전침)

毫鍼을 應用하여 人體의 一定部位에 刺入한 후 鍼에 電流를 통하는 治療方法이다. 治療의 요구에 따라 자극의 강도 빈율 등을 적당히 조절할 수 있다. 電鍼은 內·外·婦人·小兒·五官 등의 各科 疾患에 廣範하게 適用되며 手術上의 痲醉등에 쓰인다.

電鍼痲醉(전침마취)

鍼刺痲醉方法의 하나이다. 전류를 수법조작에 代用한 것이다. 사용시에 比較的 簡便하여 현재 널리 應用되고 있다.

顛簸(전과)

「治削」의 項 參照.

前板齒(전판치)

「齒燥」의 項 參照.

轉胞(전포)

妊娠에 의한 小便不通을 말함. 즉, 妊婦의 胎가 膀胱을 壓迫하므로 下腹이 脹滿하고 微痛하며, 小便이 不通하는 一種의 病症이다. 대개 中氣의 不足과 有關하다.

戰汗(전한)

戰慄한 후에 汗出하는 症狀이다. 이는 熱病의 過程에서 正氣와 邪氣가 相爭하는 一種의 表現이다. 抵抗力이 아직 강하여 正氣가 邪氣를 이기면 病이 汗을 따라 풀리며 이는 一種의 좋은 症狀이다. 만약 正氣가 不足하여 戰慄하고도 汗出이 不能하면 邪氣가 內陷하는 趨勢에 놓여있는 것이다. 或은 汗出할지라도 正氣도 이에 따라 外脫하면 危重한 症候이다. 故로 戰汗이 出現할 때는 主意하여 엄밀히 觀察해야 한다. 만약 患者가 汗出하여 熱이 衰하고 脈搏이 溫和하면 이는 邪氣가 去하고 正氣가 安靜된 것이니 病人을 충분히 休息시켜 그 元氣를 점차 回復시켜야 하며 놀랄 필요가 없다. 만약 汗出하고 四肢이 冷하며 拍動이 躁動하여 煩躁不寧한것은 正氣가 邪氣에 不勝하여 虛脫傾向이 있는 것이니 곧 救治해야 한다.

巔眩(전현)

「眩暈」의 項 參照.

傳化物(전화물)

「腑輸精於臟」의 項 參照.

傳化物而不藏(전화물이불장)

「六腑」의 項 參照.

傳化之腑(전화지부)

「臟行氣於腑」의 項 參照.

轉丸脈(전환맥)

「轉豆脈」의 項 參照.

截(절)

趙學敏의 『串雅內編』에 있음. 떠돌이 醫員(走方醫)은 「截」을 「絶」(停止)의 뜻이라고 하였다. 즉 疾病의 發作을 停止시키는 것이다. 예컨대, 常山 草果등을 써서 瘧疾을 멎게 하고 白金丸(鬱金 明礬을 爲末 作丸함)을 써서 癰症을 治療한다. 外治의 處方으로 點痣藥이 있는데, 鮮威靈仙의 濃煎汁을 桑紫炭 風化石灰로 여과하여 달여서 稀膏를 만들어 痣上에 붙이면 痣를 腐蝕하는 작용을 한다. 단 血痣에는 忌用한다. 좋지않은 결과가 생길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點痣藥을 眼部에 접근시켜서는 안 된다. 眼睛을 상할 憂慮가 있기 때문이다.

切(절)

「治削」의 項 參照.

癰(절)

皮膚上이 紅, 腫, 熱, 痛하고, 根淺한 小結節을 말하며, 이는 熱毒의 內蘊 或은 暑熱의 邪에 外觸되므로 생긴다. 夏, 秋節에 많이 發生한다. 結節이 처음에는 比較的 堅硬하고 圓形이며, 症勢가 局限되고, 易消 易潰하며, 數日後에 化膿하여 膿頭가 排出되면 낫는다. 癰은 急性化膿性毛囊炎, 毛囊周圍炎症이다.

絶骨(절골)

①絶骨穴의 部位. 腓骨의 下端 內科上端의 部分에 해당함. ②穴位名 懸鍾이라고도 함. 足外髁의 直上3寸. 足少陽經에 속함.

節氣(절기)

陰曆으로 四季의 氣候를 推算하는 단위이다. 五日을 1候, 3候를 1節氣로 함. 고로 1節氣를 「三候」라고도함. 節氣는 四季의 氣候變更의 每段階를 표시함. 一年에 二十四節氣가 있는 바 순서에 따라 立春 雨水 驚蟄 春分 清明 穀雨 立夏 小滿 芒種 夏至 小暑 大暑 立秋 處暑 白露 秋分 寒露 霜降 立冬 小雪 大雪 冬至 小寒 大寒이 됨.

切脈(절맥)

「脈診」의 項 參照.

折髀(절비)

髀는 陰部를 말함. 股部가 疼痛하여 부러지는 듯한 症狀을 말함. 예컨대 坐骨神經痛等이다.

切診(절진)

四診의 하나이다. 脈診과 觸診의 兩部分으로 나뉜다. 모두 指端의 觸覺을 運用해서, 兩者의 一定部位를 觸摸按壓하는 檢査方法이다. 脈診은 通常 病人의 完關節後의 橈動脈

의 搏動部位를 取한다. 脈診의 各項을 參照, 觸診은 病因의 皮膚 胸腹 및 病痛部位를 觸摸 按壓함으로써 局部的 冷熱 硬軟 壓痛 包塊 或은 其他의 異常變化를 測知하는 것이다.

折鍼(절침)

鍼法操作時의 異常情況이다. 體內에 刺入한 毫鍼이 皮下에서 折斷된 것을 말함. 대개의 경우 鍼에 損傷 剝蝕 등의 缺損이 있기 때문이며, 혹은 患者의 體位의 比較的 큰 이동과 有關한 경우도 있다. 處理方法은 침착 세심하게 病人으로 하여금 본래의 體位를 維持케 하여 가능하면 핀셋으로 折鍼의 斷端을 집어내고 必要時에는 手術하여 적출한다.

截瘡(절학)

瘡疾이 發作하기 전의 適當한 시간에 內服藥(常山, 草果, 薑半夏 煎劑)혹은 鍼刺(取 大椎, 後溪, 間使 등 穴)등의 方法을 써서 瘡疾의 發作을 制止하는 것.

絶汗(절한)

「脫汗」의 項 參照.

點烙(점락)

「烙法」의 項 參照.

點眼(점안)

藥物을 건조한 용기에서 極細末로 갈아서 먼저 舌上에 놓고 溶解되어 찌꺼기가 전혀 없으면 眼內에 點入할 수 있다. 淸冷하며 자극감이 없어야 한다. 點眼藥을 眼藥이라 簡稱하며 處方種類가 적지 않다. 眼病에 써서 消炎 退腫 去翳하게 된다. 點眼法은 眼科 이외의 疾病도 治療할 수 있는데 이러한 點眼藥은 더 연구할 필요가 있다.

點刺(점자)

鍼刺手法의 一種이면 速刺法이다. 그 方法은 左手로 皮膚를 잡고 右手로 刺鍼하되 母指와 食指로 鍼柄을 잡고 中指를 鍼尖의 상부 약 1촌되는 곳에 붙여 신속히 皮下淺層의 靜脈에 刺入하고는 곧 拔鍼하며 그리고는 눌러서 數滴의 血液을 짜내는 方法이다. 이 方法은 대개 三稜鍼을 쓰며 鍼刺部位는 手指 혹은 足指端 耳尖, 太陽穴, 委中穴 등이 사용된다.

接法(접법)

傷科에서의 正骨의 方法이다. 金傷 骨折된 骨端部 或은 骨組織碎片을 다시 原位置로 回復하고, 함께 接合시키는 것이며, 또 各種 正骨手法의 總稱이기도 함.

疔(정)

「疔瘡」이라고도 함. 外科에서 常見되는 病의 하나이다. 硬堅하고 뿌리가 깊으며 形態가

정상이므로 이렇게 이름한다. 대개 火熱의 毒이 鬱結된 所致이다. 疔의 명칭이 많은데 거의가 발병部位와 症狀에 따라 명명된다. 例컨데 「面疔」, 「指疔」, 「足疔」, 「爛疔」, 「紅絲疔」, 「疫疔」등이다. 臨床表現은 처음에 栗粒狀으로 上部에 白色膿頭가 생기며 형태는 작지만 뿌리가 깊어 骨에 못을 박는 것처럼 腫硬하고 疼痛이 劇烈하며 病勢가 매우 凶하여 급속히 擴散되고 惡化(走黃)되기 쉽다.

庭(정)

額部の 中央이며, 望診時 頭面部의 疾病을 診察하는 部位. 天庭이라고도 함.

錠(정)

藥物을 갈아서 極細粉末로 하여 一般的으로 호와 混合한 후 紡錘形 圓錐形 長方形 등 각이한 形狀을 固體 製劑한 것이다. 內服時에는 錠을 搗碎하여 溫水로 服用한다. 外用에는 醋 혹은 麻油(참기름)로 磨汁하여 患處에 塗布한다.

精(정)

人體를 構成하고 生命活動을 維持하는 基本物質. 그 중 人體를 構成하는 것을 生殖之精(즉 先天之精)이라 하고 生命活動을 維持하는데 必需的인 것을 水穀之精(즉 後天之精)이라 한다. 前者는 生殖의 基本物質이며 子孫을 蕃盛시키는 機能이고 後者는 不斷히 攝取하는 飲食物에서 생겨 生命活動과 機體의 代謝를 維持하는데 必要不可缺하다. 平素 臟腑의 精氣가 充盈하면 腎에 歸藏되어 生殖機能이 發育成熟되었을때 生殖之精으로 變化하게 된다. 精氣는 不斷히 消耗되고 또 不斷히 水穀之精의 滋生과 補充을 얻게 된다. 精은 生命의 基本이며 精이 充足하면 生命力이 强하여 外的環境의 變化에 適應할 수 있어서 쉽게 受病하지 않는다. 精이 虛하면 生命力이 減弱해져 適應能力과 抗病能力이 함께 減退된다.

頂(정)

趙學敏의 串雅內編에 있음. 떠돌이醫員(走方醫)은 藥性이 上行하는 것을 頂이라고 하였다. 頂藥은 대개 吐劑이다. 예컨데, 「皂礬頂」은 風痰이 上涌하여 昏到하는 것을 治하는데, 皂莢末 生礬末 膩粉을 散劑로 만들어 1錢돈을 水調하여 服用하면 卽吐한다. 膩粉에 二種類가 있는데 하나는 汞粉이고 또 하나는 鉛粉이며 모두 有毒하므로 쓰지 않는 것이 좋다. 『聖濟總錄』의 稀涎散은 皂莢 白礬의 二味를 써서 痰涎을 吐出하는 것이다.

正經(정경)

「十二經脈」, 「十二經」이라고도 함. 人體經脈의 一類이며, 體內的 氣血이 運行되는 主要通路이다. 그 중에 手太陰肺經·手陽明大腸經·足陽明胃經·足太陰脾經·手少陰心經·手太陽小腸經·足太陽膀胱經·足少陰腎經·手厥陰心包經·手少陽三焦經·足少陽膽經·足厥陰肝經 等 十二經을 包括해서 十二經脈이라 稱한다. 每經脈은 모두 體內的 一定한 臟腑와 直接連繫되고, 各經脈 相互間에는 또 表裏配合의 關係가 있다.

正骨(정골)

①臂骨(前腕骨)中の 하나. 前臂部に 위치하며, 解剖學上の 尺骨. ②正骨手法의 略稱(當該項을 參照).

正骨(정골)

損傷을 診療하는 專科이며, 또 古代醫學의 十三科의 하나이기도 하다. 또한 傷科 惑은 骨傷科라는 名稱도 있다. 그 對象은, 主로 外力의 作用에 의해 생기는 骨, 關節 및 軟部組織의 損傷이며, 同類의 原因으로 惹起되는 體內臟器의 損傷도 包括된다.

正骨工具(정골공구)

各種外傷이나 骨折의 治療에 쓰이는 工具를 말하며, 例컨대, 腰椎, 披肩, 竹簾, 杉籬, 各種材料로 만든 大小의 夾板, 繃帶 등이다. 主로 骨折의 固定에 쓰인다.

正骨手法(정골수법)

骨折, 脫臼, 捻挫傷을 治療할때 쓰이는 各種의 手法으로서, 例컨대 摸, 接, 端, 提, 按, 摩, 推, 拿 等이다.

廷孔(정공)

女子의 尿道口를 말함. 督脈이 여기에 連繫되고 있다.

精極(정극)

「六極」의 項 參照.

正氣(정기)

生命機能의 總稱. 病邪와 相對되는 말로서, 人體의 疾病에 對한 防禦 抵抗再生能力을 말한다. 『素問』「刺法論」에서 “正氣存內 邪不可干”(正氣가 內部에 있으면 邪가 犯할 수 없다.)라 하였다.

正氣(정기)

宇宙間의 空氣 혹은 胸中 呼吸의 기를 말함.

精氣(정기)

通常은 後天之精을 말하며 臟腑를 充養하는 精華(飲食物에서 化生되는 營衛之氣를 包括)로서 生命活動을 維持하는데 不可缺의 物質이다. 그런데 腎臟自體가 所藏하는 精氣(즉 男女性交의 精氣)와 不可分의 連繫가 있어서 臟腑의 精氣가 充足해야만 腎臟自體도 充盛한 精液을 가지게 된다.

精氣奪則虛(정기탈칙허)

이는 『素問』「通評虛實論」에 있는 말로서, 虛症에 대해 내린 定義이다. 「精氣」는 人體의

正氣를 뜻하며, 「奪」은 耗損의 뜻이다. 正氣가 過度하게 耗損됨으로써 虛證이 出現함을 말한 것이다. 例컨대 大病이나 久病으로 精氣」이 消耗되거나 或은 大汗 大出血로 陽氣 陰液이 損傷되면, 모두 正氣虛弱 機能衰退를 招來하여, 面白唇淡 神疲體倦 心悸氣短 自汗盜汗 脈細弱無力 등의 症狀을 나타내게 된다.

耵聍(정녕)

「耳垢」라고도 함. 外耳道の 黃褐色의 分泌物(귀에지)이다. 小量の 耵聍은 正常現狀이다. 만약 風熱이 相搏하여, 分泌物이 大量으로 增加해서, 外耳道を 막고, 聽力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耵聍」이라 한다. 耵聍栓塞(耳垢栓塞症)이다.

精冷(정랭)

男子의 眞陽不足으로 인해 惹起되는 精氣의 清冷으로, 生殖能力이 없는 것을 말함. 性神經衰弱, 精子缺乏類의 病症에 屬함.

葶藶大棗瀉肺湯(정력대조사폐탕)

「泄劑」의 項 參照.

睛簾(정렴)

「黃仁」의 項 參照.

精明之府(정명지부)

頭部를 말함. 五臟六腑의 精氣(혹은 精華)는 모두 頭面部에서 上會하는데, 그중에서 特히 사람의 眼睛은 그 外觀의 神態와 光華가 臟腑의 機能狀態를 가장 잘 反映하므로 이름이다(『素問』「脈要精微論」에 있음).

精微(정미)

「泌別清濁」의 項 參照.

晶痞(정배)

「白痞」의 項 參照.

淨腑(정부)

「潔淨腑」의 項 參照.

精不足者補之而味(정부족자보지이미)

『素問』「陰陽應象大論」에 있음. 「精不足」은 人體의 精髓가 虧虛함을 말하며, 이 경우는 厚味로써 補하여, 精髓를 점차 充實케 해야 한다. 「厚味」란, 營養이 많은 動植物食品을 말하며, 味厚한 藥物로는 熟地黃, 肉蓯蓉, 鹿角膠 等藥이다.

正邪(정사)

「五邪」의 項 參照.

正邪相爭(정사상쟁)

正氣와 邪氣가 相爭함을 뜻함. 廣義로는, 일체의 疾病이 모두 正邪가 相爭하는 反映이며, 狹義로는, 外感發熱病에 寒熱往來가 나타나는 病理을 말한다. 惡寒은 正이 死를 이기지 못한 것이며, 發熱은 正氣가 邪에 對抗하여 밖으로 나온 것이다. 正氣와 邪氣가 相爭하여 서로 물러서지 않으므로 寒熱이 交替해서 出現한다.

正色(정색)

正常인의 色澤으로서, 明潤이 含蓄되었고, 隱隱한 紅黃色이며, 容貌에 光彩가 넘치는 것은, 氣血이 和平하고, 精氣가 內充하며, 胃氣가 있는 標示로서 有神의 象이다. 正色에는 主色과 客色の 區分이 있다. 主色은 每個人的 基本的인 皮膚色로서 個體에 따라 다르다. 客色은 氣候, 環境 및 當時의 心理狀態에 따라 變化한다. 모두 病色에 屬하지 않는다.

鄭聲(정성)

患者가 精神이 模糊한 狀態에서 한가지 말을 低聲으로 떠엄떠엄 重言復言하는 證狀으로, 虛證에 屬함. 疾病의 滿期에 心氣가 內損되고 精神이 散亂한 危重段階에서 볼 수 있다.

正水(정수)

水腫證候의 類型的 하나이다. 主要表現은, 全身이 浮腫하고, 腹滿하며, 氣喘하고, 脈象이 沈遲하다. 대개는 脾腎의 陽虛로 因해, 水氣가 輸化되지 못하여, 胸腹에 貯留되어, 肺臟으로 迫急하기 때문이다. 그 標證은 肺에 있고, 本證은 如前히 脾腎에 있다.

精神(정신)

「神」의 概念을 뜻함. 이는 人體의 生命活動의 重要組織部分이며, 五臟中の 「心」과 가장 密接한 關係가 있다. 그래서 心은 「藏神」하는 것이다. 「靈樞·邪客篇」에서 “心者 五臟六腑之大主也 精神之所舍也”라 하였다. 「大主」는 臟腑中 「心」의 統率作用을 體現한 것이며, 「舍」에는 奇舍의 뜻이 있는 것이니, 精神이 「神」의 主要表現임을 알 수 있다.

聾耳(정이)

「聾耳」의 項 參照

聾耳(정이)

「聾聵」의 項 參照.

疔疽(정저)

①疔瘡이 兩側의 와령부 및 鼻下에 생기는 것을 말함. 대개는 高粱厚味, 煎炒灸煎 등 燥熱한 食物의 過食이나 或은 死畜이나 부패한 채소등을 誤食함으로써 熱毒이 숙적되어 생긴다. 症狀은 局部가 稀種劇痛하며 누르면 堅硬하여 못을 骨에 박는것 같고 治療가 부당하면 牙關緊閉, 角弓反張, 或은 嘔吐, 煩躁, 昏迷, 譫語 등의 變證을 일으키기 쉽다.
②幹疽의 別名이다.

精汁(정즙)

「膽」의 項 參照.

疔瘡(정창)

「疔」의 項 參照.

疔瘡走黃(정창주황)

疔毒이 급속히 走散 內陷하여 血分으로 侵入해서 意識不清 등증을 나타내고 局部의 腫勢가 회만되는 것을 「疔瘡走黃」이라 한다. 대개는 熱毒이 熾盛하고 或은 早期治療를 그르쳤거나 或은 눌러짜서 或은 너무 일찍 切開하여 邪毒이 擴散된 所致이다. 주요표현은 瘡頭가 黑陷하고 無膿하며 腫勢가 散漫하고 신속히 砂防으로 擴散된다. 惡寒戰慄 高熱, 頭昏痛, 煩躁, 胸腹脹悶, 四肢無力, 舌紅絳, 苔黃燥, 脈洪數 혹 弦滑數을 隨伴하며 或은 惡心嘔吐, 舌硬口乾, 便秘혹 腹瀉를 수반한다. 重症인 경우는 神昏譫語, 驚厥等증을 나타낸다. 皮膚에는 通常 瘀點 或은 瘀斑이 생기며 或은 全身이 黃色이 되고 또한 膿毒이 유주해서 「附骨疽」, 「肺癰」 등의 병발증을 일으킬수 있다. 敗血症의 류이다.

定喘湯(정천탕)

「降逆下氣」의 項 參照.

整體觀念(정체관념)

이는 韓醫學의 疾病診斷의 하나의 思考方式이다. 韓醫學에서는 人體의 內臟과 體表各부의 組織, 器官을 하나의 有機體的全體로 着故하며, 同時에 四時氣候, 土地의 方宜, 環境 등의 要因의 變化가 人體의 生理. 病理에 各異한 程度의 影響을 미치는 것으로 보아, 人體內部的 協助와 完整性을 強調하며, 또한 人體와 外界環境과의 統一性을 重視한다. 이러한 全體觀點에서 出發하여 問題를 全面的으로 考慮하는 思考方式을 疾病의 診斷과 治療에 一貫해서 適用하는 것이며, 단지 局部的인 變化에서 着眼하는 것이 아니므로 整體觀念이라 한다. 例컨대 辨證面에서, 어떤 경우는 局部證狀에서 出發하여, 全身을 考慮한다. 頭痛一症을 例로 들때, 局部 및 그것이 全身에 미친 影響에서 分析을 가할 뿐만 아니라, 全身의 臟腑氣血 등의 各種要因이 頭痛에 影響을 미친 것도 考慮해야 한다. 瘡癰의 경우는 결국 單純한 邪毒의 局部侵入인데 또한 患者의 下消病과 有關하다. 어떤 경우는 全身證狀에서 出發하여 局部를 考慮하게 된다. 例컨대 小兒가 冬春季節에 發熱하면, 醫師는 往往 咽喉部에 乳蛾나 或은 其他咽喉病의 有無에 注意한다. 또 患者

에게 低熱, 黃疸等の 全身證狀이 있는데, 右脇部에 陣發性 隱痛이나 絞痛이 있고, 疼痛의 間歇時에는 如常한 경우에도, 膽部の 疾病을 考慮해야 한다. 治療要藥面에서는, 1)陰陽의 協調를 疎해야 한다. 例컨대 腎陽이 過盛하고 腎陰이 不足하면 陽亢現象이 發生하게 되므로, 壯水制火法을 써야 하며, 或은 腎陰이 過盛하고 腎陽이 虛衰하면 陰寒現象이 發生하는데, 益火消陰法을 써야 한다. 2)間接治療을 한다. 各臟 사이에는 相互 連繫가 있어서, 어느 臟病에, 다른 一臟을 治療하는 方法을 써서 解決할 수 있다. 例컨대 虛卽補其母, 實卽瀉其子이다. 3)表와 裏를 相互 治療한다. 例컨대 肺와 大腸은 表裏가 되는데, 肺에 寒痰 咳嗽이 있고, 大腸이 寒結하여 大便이 秘結하면, 紫菀等を 써서 寒痰을 除去하고, 寒結을 通하도록 해야 한다. 그러면 大便이 自通한다. 4)五臟에서 五官을 治한다. 五臟과 五官은 密接한 關係가 있다. 例컨대 肝은 目으로 開竅하여, 補肝함으로써 眼病의 虛證을 治療하게 되고, 淸肝함으로써 眼病의 實證을 治療하게 된다. 鍼灸면에서는, 上病下取, 下病上取, 陽病治陰, 陰病治陽하고, 또한 以右治左, 以左治右등의 方法이 있다. 반드시 整體와 局部와의 對立統一關係를 理解함으로써 疾病을 認識하고 처리함에 있어서 局限性和 片面性を 되도록 防止하도록 해야 한다.

怔忡(정충)

心臟의 躁動이 極熱한 一種의 症狀이다. 劉完素의 『素問玄機原病式』에서 “心胸躁動 謂之怔忡”이라 하였다. 躁動이 往往 위로는 心胸에 이르고 아래로는 臍腹에 달한다. 이는 心血, 心陰의 虛損 心陽의 不足한 所致이다. 心悸와 대체로 같은데 病情이 比較的 重하다. 心悸은 發作性이고 怔忡은 대개 持續性이다. 心悸에는 虛實의 區別이 있고 怔忡은 대개 虛에 치우치고 있다. 一般的으로 말해서 心悸은 대개 機能性에 屬하며 怔忡은 대개 器質性에 屬한다. 이는 臨床上 心悸과 怔忡을 區別하는 要點이다. 단 一部 怔忡은 心悸이 더 前進한 境遇도 있어서 確然하게 區別할수 없다. 故로 臨床上 通常 心悸과 怔忡을 併稱한다.

正治(정치)

「素問. 至眞要大論」에 있음. 이는 통상의 治療方法이다. 疾病의 性質과 相反되는 方法과 藥物을 採用하여 治療하는 것이다. 例컨대, 寒證에 熱藥을 쓰고, 熱證에 寒藥을 쓰며, 實證에 攻法을 쓰고, 虛證에 補法을 쓰는 等이다. 正治法을 「逆治」라고도 한다. 「逆」은 藥性和 疾病의 性質이 相反되는 것이며, 藥物에 疾病의 相對面이 있는 것과 같은 것이다.

丁奚疳(정해감)

이 病은 過度한 哺食으로, 脾胃이 受傷하여 營養을 吸收하지 못한 所致이다. 症狀은, 腹大하고, 頸이 細小하며, 面黃 肌瘦함이 特徵이다.

正虛邪實(정허사실)

「正虛」는 正氣의 虛弱을 뜻하며, 「邪實」은 邪氣가 結集되거나 혹은 邪氣의 過盛을 뜻

한다. 「正虛邪實」은, 邪氣의 過盛으로 인해 正氣의 抗病機能이 低下되어 出現하는 病理現象을 말한다. 熱盛病者에서 볼 수 있는 例로서, 陽明腑實證을 오래 下하지 못하므로, 潮熱譫語 腹痛拒按 大便秘結등 邪氣가 盛한 症狀이 나타나는 外에 神志昏迷 循衣摸床 驚惕不安 微喘 兩眼直視등 正氣를 維持할 수 없는 위험한 現象이 나타난다. 內傷雜病者에서 볼 수 있는 例로서, 鼓脹積聚가 日久하여, 身體消瘦 心悸氣短 大便溏泄 食欲減退의 症狀이 나타나는바, 이들은 모두 正虛邪實의 表現이다.

井穴(정혈)

①五腧穴의 一種이며, 모두 手指 혹은 足趾의 末端處에 있다. 「靈樞·九鍼十二原篇」에서 “所出爲井”이라 하였다. 이는 經脈의 流注方面이 마치 水流가 開始되는 源泉과 같다는 것이다. 全身의 十二經에 각각 하나의 正穴이 있으므로 「十二井穴」이라고 한다. 그 名稱은 아래와 같다. 肺－少商 大腸－商陽 心包－中衝 三焦－關衝 心－少衝 小腸－少澤 脾－隱白 胃－厲兌 肝－大敦 膽－(足)竅陰 腎－涌泉 膀胱－至陰 ②手指端의 少商·商陽·中衝·關衝·少衝·少澤 등 6穴(左右 共, 十二穴)을 말하는 것으로, 中風, 突然 昏倒를 治療하는 救急要穴이다.

精血(정혈)

血의 生成은 先天之精을 本源으로 한다. 사람이 出生한 이후 血液의 再生은 後天의 飲食에 來源하며 中焦脾胃의 氣化에 의해 飲食物中の 精微物質을 吸收해서 變化시킴으로써 生成된다. 精의 生成도 마찬가지로 後天의 飲食에 의해 化生되므로 精血同源의 設이 있다. 精氣는 臟腑의 機能活動의 物質的 基礎이며 精血의 盈虧는 人體의 健康을 象徵하는 重要標識의 하나이다. 腎은 藏精을 主管하고 肝은 藏血을 主管하므로 臨床上 精血不足의 病症은 往往 補肝益腎 等 法을 써서 治療해야 한다.

精血同源(정혈동원)

「精血」의 項 參照.

臍突(제돌)

「臍疝」이라고도 함.

臍漏(제루)

「腹皮癰」의 項 參照.

提法(제법)

傷科에서의 正骨의 方法이다. 금방 切斷되어 下垂된 骨端을, 손이나 끈으로, 上向 혹은 外向으로 당겨, 직접 혹은 간접적으로 완전히 復位시키는 一種의 牽引手法이다.

臍疝(제산)

「臍突」이라고도 함. 幼兒에게 많다. 主要症狀은, 臍中에 突出한 包塊가 있으며, 表面이 光亮하다.

提插補瀉(제삽보사)

古代鍼刺手法의 一種이다. 舊稱은 「天, 人, 地三才補瀉」 혹은 「三才補瀉」이다. 本法은 一般的으로 어떤 穴位에 대해서도 豫定刺入深度를 三等分하다. 補法은 三回로 나누어 淺・中・深의 順序로 進鍼하고 出鍼時에는 한꺼번에 拔出한다. 瀉法은 直接豫定한 深度까지 刺入한 然後에 深・中・淺의 順序로 出鍼한다.

製霜(제상)

① 種子類의 藥材를 去油한 後의 粉末을 말함. 예컨대 巴豆霜, 蘇子霜 杏仁霜 등이 있다. ② 어떤 藥材에서 流出한 結晶을 말함. 예컨대 柿霜이다. ③ 어떤 動物性 藥材에서 膠質을 제거한 後의 骨質粉末을 말함. 예컨대 鹿角霜이다.

濟生腎氣丸(제생신기환)

「溫腎利水」의 項 參照.

諸陽之會(제양지회)

①頭部를 말함. 人體의 十二經脈中, 手三陽의 經脈은 手에서 頭部로 走向하고, 足三陽의 經脈은 頭部에서 足部로 走向하므로, 頭를 諸陽之會라 한다.

諸熱之而寒者取之陽(제열지이한자취지양)

『素問』「至眞要大論」에 있음. 辛熱藥으로 寒證을 治療했는데, 寒이 도리어 嚴重하며, 이것이 外感寒邪의 寒證에 屬하는 것이 아니고, 腎陽(眞陽)이 不足한 虛寒이므로, 腎陽을 溫補해야 한다. 「益火之原, 以消陰翳」의 項 參照.

諸溫挾毒(제온협독)

「溫毒」의 項 參照.

臍癰(제옹)

「腹皮癰」의 項 參照.

製絨(제융)

藥材의 纖維를 찢어 絨狀으로 만들어 불붙이기 쉬게 하는 것이다. 예컨대 艾葉으로 만들어 灸法에 쓴다.

齊刺(제자)

三刺라고도 함. 十二刺法의 一種 部位가 比較的 작고 比較的 깊은 寒氣를 治療하는데

쓰인다. 그 刺法은 患處의 중앙에 一鍼을 刺하고 兩傍에 二鍼을 刺入한다.(『靈樞』『官鍼篇』)

帝丁(제정)

「懸雍垂」의 項 參照.

劑(제)

劑型이라고도 함. 옛적에 劑라고 말한 것은 藥物을 調製한 形式을 指稱하며 現在는 劑型이라 한다. 劑에는 湯, 酒, 丸, 散, 膏, 丹, 錠, 片, 露, 霜, 膠, 茶, 曲 등 많은 種類가 있다.(藥物과 處方의 性質에 따라 十劑 十二劑등로 나누는데 이는 다른 意味이다. 1貼의 藥을 古人은 1劑藥이라고 하였다.)

帝鍾(제종)

「懸雍垂」의 項 參照.

除中(제중)

古病名이다. 傷寒論에 있음. 除는 消除를 뜻하며 中은 中焦脾胃의 氣를 말함. 疾病이 嚴重한 段階에 이르러 본래 飲食不能했는데 突然 暴食하는 것이다. 이는 中焦脾胃의 氣가 곧 끊어지려는 異常現象이며 이를 除中이라 한다.

諸虫(제충)

一般的로 人體에 寄生하여 發病케 하는 各種虫類를 말함. 腸道の 寄生虫이 가장 많다.

提泡(제포)

「發泡」의 項參照.

臍風(제풍)

「撮口」, 「噤風」이라고도 함. 新生兒의 破傷風이다. 牙關緊閉하고, 強直痙攣하며, 角弓反張하고, 顔面에 苦笑을 띠는 것이 特徵이다. 重症인 경우는 顔面이 青色으로 變하고, 呼吸促急 等症을 兼發한다. 主로 臍帶切斷의 不潔이나 或은 臍帶脫落이 너무 빨라서, 局部가 受傷 感染된 所致이다. 最近에는 發達한 助産法으로, 本病이 極히 적어졌다.

臍下悸(제하계)

下腹部가 搏動하여 不寧한 一種의 症狀이며, 대개의 경우, 下焦에 平素 水氣가 停滯된 데다가 外感病에 걸려 發汗이 不當하므로, 腎氣가 受傷되어, 水氣가 衝逆할 때 나타난다.

諸寒之而熱者取之陰(제한지이열자취지음)

「素問. 至眞要大論」에 있음. 苦寒藥으로 熱證을 治療했는데, 熱이 도리어 嚴重하며, 이것이 有餘한 熱證이 아니고, 腎陰(眞陰)이 不足한 虛熱이므로, 腎陰을 滋補해야 한다. 「壯水之主, 以制陽光」의 項 參照.

劑型(제형)

「劑」의 項 參照.

制化(제화)

「制」는 克制, 化는 化生을 뜻함. 五行學說은, 化生과 克制가 相互作用하는 것이며, 事物에는 生中에 克이 있고, 克中에 生이 있으므로 하여 그 相對的 平衡協調를 維持하는 것으로 본다. 이러한 生克의 配合를 「制化」라 함. 木을 例로 들면, 木은 土를 克할 수 있는데 土는 金을 生할 수 있고, 金은 또 木을 克할 수 있다. 이러한 調節을 通하여 木이 過度하게 土를 克할 수 없게 한다. 餘他는 類推할 수 있다.

燥(조)

①「燥氣」라고도 함. 六淫의 하나. 燥氣는 津液을 傷하기 쉽다. 臨床表現은 目赤 口鼻乾燥 唇焦 乾咳 脇痛 便秘等症이다. 그 중 偏熱의 證候는 「溫燥」가 되고, 偏寒의 證候는 「涼燥」가 된다. ②陰液이 虧損된 병증. 「內燥」의 項 參照.

燥結(조결)

病邪가 化熱한 後, 邪熱이 胃腸에 結하여, 胃腸의 津液이 受傷하는 病理이다. 主要증상은 身熱 或은 午後潮熱 腹脹痛 便秘 尿赤 舌紅苔黃乾燥 脈數 등이다.

調經(조경)

月經異常의 病證을 治療하는 方法이다. 月經異常에는 月經不調(經行先期, 經行後期, 經行先後不定期), 痛經, 經閉, 經血量過多過少 等症을 包括한다. 病證의 氣血變化와 寒熱虛實의 차이에 따라, 月經病과 기타 疾病과의 發病 차례의 先後를 명확히 區別하여 分別해서 處理해야 한다. 月經病으로 인해 其他 疾病을 惹起한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調經을 위주로 하며 기타 疾病으로 인하여 月經病을 惹起한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기타 疾病의 治療를 위주로 한다.

躁狂(조광)

「躁」은 手足을 擾動하는 것이고, 「狂」은 狂亂不安하여 癡癲妄動하는 것을 말함. 狂亂不安하고, 手足을 擾動함은, 精神異常의 一種의 證候이다. 대개 肝經의 熱이 盛하거나, 或은 痰火가 上擾하며, 陽明熱이 盛하고, 熱이 心神을 擾亂시키며, 或은 穢濁한 氣가 上部를 犯하고, 下焦에 血蓄하며, 瘀熱이 上衝하는 등의 所致이다.

燥氣(조기)

「燥」의 項 參照.

調氣(조기)

藥物을 사용하여, 氣滯 氣逆의 症候를 治療함으로써, 氣를 暢利 平順케 하여 正常狀態로 回復시킴을 調氣라 한다. 실제로는 理氣法의 行氣, 降氣를 包括한다.

調氣(조기)

鍼法의 述語이다(『靈樞』『官能篇』에 있음). 鍼刺의 補瀉方法을 應用하여 人體의 陰陽을 調節하고 人體의 機能을 改善할 수 있다. 또 鍼刺를 통하여 身體의 抗病能力을 增強시키고 體內的 各種組織과 內臟의 病理狀態를 是正할 수 있다. 鍼刺의 이러한 治療作用을 調氣라 칭한다(『靈樞』『終始篇』에서 “凡刺之道 氣調而止”라 하였다.). 調氣가 治病의 原理와 經絡系統과 有關하며, 또한 주로 中樞神經系統을 통하여 完成되는 것이다.

燥氣傷肺(조기상폐)

秋燥의 邪氣가 肺를 傷하는 것을 말함. 燥는 六淫의 하나로서, 秋季의 氣候가 乾燥하여, 쉽게 口鼻에서 肺로 侵入하여 肺津을 耗損해서, 乾咳無痰, 或은 咯痰帶血, 咽喉疼痛, 胸脇痛 等の 燥氣證候를 出現한다. 臨床上, 溫燥와 涼燥로 나뉜다. 上呼吸道感染, 氣管炎, 白喉(디프테리아), 急性咽喉炎 等の 疾患에서 多見된다. 「溫燥」, 「涼燥」의 項 參照.

燥痰(조담)

痰質이 粘稠하고 量少하며, 或은 血絲가 섞이는 것이 特徵이다. 대개 口乾, 鼻燥하고, 痰을 咯出하기 어려우며, 咽痛하고 脈이 細數한 等症을 隨伴한다.

조礬頂(조반정)

「頂」의 項 參照.

躁煩(조번)

「煩躁」의 項 參照.

阻病(조병)

「惡阻」의 項 參照.

調服(조복)

方劑中の 犀角, 羚羊角, 鹿角, 牛黃, 朱沙 等の 藥은 따로 細嚙해야 한다. 湯液이 잘 끓으면 藥湯으로 소량 취하여 犀角末(혹은 其他藥物)에 調入해서 잘 저어 服用하고, 그 나머지 藥을 服用한다. 紫雪丹으로 服用하는 경우도 이와 같다.

早泄(조설)

性交時에 排精이 너무 빠른 現象을 말함. 대개는 腎虛, 相火過盛의 所致이다.

燥濕(조습)

①苦溫燥濕: 中焦에 寒濕이 阻滯되어 胸悶嘔吐, 惡心, 腹脹, 大便清稀, 苔白리 等症을 發하면 厚朴, 半夏, 白蔻仁, 茯苓 等を 쓴다. ②苦寒燥濕: 中焦에 濕熱이 阻滯되어 腹痛腹脹, 大便稀薄而熱臭, 舌苔黃膩 等症을 發하면 黃連, 黃芩, 地殼, 猪苓 等を 쓴다.

燥濕化痰(조습화담)

「化痰」의 項 參照.

燥勝則乾(조승칙건)

『素問』「陰陽應象大論」에 있음. 燥氣가 偏勝하여 乾燥가 出現하는 病理을 말함. 燥氣가 太過하면 津液을 耗傷하게 되어, 口唇脾咽乾燥, 皮膚燥裂 乾咳 大便乾結 等の 傷津症狀이 出現한다.

燥矢(조시)

「屎」(糞便)를 옛날에는 흔히 「矢」라고 썼다. 「燥矢」은 乾燥하여 硬結한 糞便을 말함. 大便이 乾燥 硬結하고, 壯熱, 煩渴, 腹脹痛拒按등의 症狀을 隨伴하면 陽明臟의 實熱證에 屬한다. 數日間 不大便해도 腹脹痛이 없으면 津虛로 因한 燥結에 屬한다.

助陽(조양)

「補陽」의 項 參照.

助陽解表(조양해표)

助陽藥과 解表藥으로 組成하여 陽氣가 虛한 外感症으로 頭痛, 惡寒重, 發熱輕, 無汗, 手足不溫, 喜蓋衣被, 精神衰倦, 嗜睡, 面色蒼白, 말의 聲音低微, 脈沈無力, 舌苔淡白 等症을 나타내는 것을 治療하는 것. 再造散(黃芪, 黨蔘, 桂枝, 甘草, 熟附子, 細辛, 羌活, 防風, 川芎, 芍藥, 紅棗)을 쓴다.

燥熱(조열)

「燥火」라고도 함. 燥氣를 感受하여 津液을 損傷함으로써 化熱 化火되는 것을 말함. 대개 目赤 齒齦腫 咽痛 耳鳴 鼻衄 乾咳 咯血 等症을 나타낸다.

潮熱(조열)

發熱이 潮水처럼 定時에 있는 것으로, 每日 一定한 時間이 되면 體溫이 上昇한다(일반적으로 午後에 出現함). 潮熱의 病因에는 대개 세가지가 있다. 1)體內的 陰液이 不足한 경우로서, 밤이 되면 發熱 盜汗한다. 이를「陰虛潮熱」이라 한다. 2)陽氣가 濕邪를 받음으로써 制遏되어 午後에 發熱하게 된다. 이를「濕溫潮熱」이라 한다. 3)熱邪가 腸에 凝結되므로, 每日 午後에 發熱한다. 이를 陽明의 「日晡潮熱」이라 한다. 이밖에 溫病이 營分 或은 血分으로 傳入된 段階에서, 身熱이 往往 午後에 漸昇하게 되는데, 이러한 熱型은

潮熱이라 하지 않고, 「熱入營分」或은「熱入血分」이라 한다.

爪爲筋之餘(조위근지여)

「肝,其華在爪」의 項 參照.

燥者濡之(조자유지)

『素問』「至眞要大論」에 있음. 津液이 枯燥한 경우는 滋潤藥을 써야 한다는 뜻이다. 燥에는 內燥와 外燥의 差異가 있다. 例컨대 燥熱로 肺胃의 津液을 傷한 것은 內燥에 屬하며, 養陰潤燥法을 쓴다. 外感의 燥熱로 肺를 傷한 것은 外燥에 屬하며, 輕宜潤肺法을 쓴다.

嘈雜(조잡)

이는 胃脘心口部位에 나타나는 一種의 症狀이다. 吳搏의 醫學正傳에서 “夫嘈雜之爲證也 似飢不飢 似痛不痛 而有懊惱不自寧之狀者是也 其證或兼噯氣 或兼氣滿 或兼惡心 漸至胃脘作痛……(무릇 嘈雜의 症狀은 飢한 듯하면서 飢하지 않고 아픈 듯 하면서 不痛하고 懊惱하여 便安치 않은 것이다. 그 症狀에 或 噯氣를 兼하고 或은 痞滿을 兼하며 或은 惡心을 兼하여 점차 胃脘部가 疼痛하기에 이른다.)”고 하였다. 그 疼痛이 往往 飮食을 먹으면 멎는다. 대개는 痰火 肝胃不和 胃熱 血虛등의 所致이며 이는 潰瘍病과 胃炎等에서 比較的 常見되는 症狀이다.

燥劑(조제)

「燥可去濕」로, 桑白皮, 赤小豆의 類이다. 例컨대 水腫病은, 水濕이 皮膚間에 停蓄되어, 面目四肢가 모두 浮腫하고, 脘腹脹滿, 氣喘, 小便不利하는데, 五皮飲(桑白皮, 陳橘皮, 生薑皮, 大腹皮, 茯苓皮)을 쓰면 좋다. 赤小豆桑白皮湯(赤小豆 桑白皮)도 水濕이 皮膚間에 停蓄된 水腫을 治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말하는 燥濕은, 대개 中焦의 濕邪를 除去하는 것을 指稱한다. 寒濕에는 「苦溫燥濕」로, 蒼朮, 厚朴등을 쓰고, 濕熱에는 「苦寒燥濕」로 黃連, 黃柏등을 쓴다.

操縱(조종)

指力을 運用하여 脈搏을 잡는 方法이다. 通常 먼저 輕指力을 쓰고, 이어서 重指力을 쓰며, 或은 輕重의 指力을 反復 交替해서, 各異한 脈象을 알게 된다.

燥咳(조해)

燥氣가 肺의 津液을 耗傷하므로 惹起되는 咳嗽을 말함. 臨床表現은, 乾咳痰少하고, 咽喉가 乾痛하며, 口鼻와 皮膚가 乾燥하고, 氣息이 不利하며, 骨節이 煩痛하고, 大便이 乾燥하며, 舌紅苔黃하고, 脈象이 弦數한 等症을 나타낸다.

燥火(조화)

「燥熱」의 項 參照.

調和肝脾(조화간비)

和法을 써서 肝氣가 脾를 犯한 것을 治療하는 것을 調和肝脾라 한다. 肝脾不和의 表現은 脇脹或痛, 腸鳴, 大便稀薄, 性情躁急, 食慾不振, 舌苔薄白, 脈弦細 等症이다. 柴胡, 白芍藥, 枳實, 甘草, 白朮, 陳皮, 防風 等藥을 쓴다.

調和肝胃(조화간위)

和法을 써서 肝氣가 胃를 犯한 것을 治療하는 것을 調和肝胃라 한다. 肝胃不和의 表現은 脇肋脹痛, 脘部脹悶疼痛, 飲食減少, 噯氣吞酸, 嘔吐或酸苦水吐出 等症이다. 柴胡, 白芍藥, 地殼, 甘草, 吳茱萸, 黃連, 半夏, 香附子, 기와방자 等藥을 쓴다.

調和營衛(조화영위)

營氣와 衛氣의 失調를 바로잡아 風邪를 解除하는 方法을 말함. 風邪가 外表에서 침입하면 營, 衛의 失調를 야기하여 頭痛發熱, 汗出惡風, 鼻鳴乾口, 脈浮弱, 苔白滑, 口不渴, 等症을 發하는데 桂枝湯을 써서 이러한 營衛失調狀態를 바로잡게 된다. 處方中の 主藥인 桂枝는 解肌 去風하여 風邪를 衛部에서 外泄케 한다. 輔藥인 芍藥은 陰을 收斂하고 營氣를 調和시키며 佐藥인 生薑, 大棗로써 桂枝 芍藥의 營衛調和를 協助하고 甘草는 制約을 調和시킨다. 이렇게 全方이 합성해서 營·衛를 調和하는 作用으로 風邪를 解除한다.

足踝疽(족과저)

疽가 股關節部位에 발하므로 이렇게 이름한다. 대개는 三陰이 虧損되고 脾經의 寒濕이 下注되며 血滯氣疽하기 때문에 생기며 或은 踝部に 먼저 瘡毒이나 外傷이 있어서 瘡毒이 關節에 滲유하여 局部經絡의 氣血이 凝滯되므로 發하기도 한다. 먼저 內踝에서 생기는 경우가 많으며 통상 처음에는 寒熱往來가 있고 踝部가 紅腫 熱痛하며 疼痛의 정도가 연차 가중되어 關節線上에 뚜렷한 壓痛이 있다(만약 陰證이면 局部의 皮色이 不變하며 穿유되면 稀膿이 나온다). 통상 內側의 踝關節에서 外側을 향해 천파되면 或은 外側의 踝關節에서 內側을 향해 천파되기도 한다. 고로 「穿踝疽」라고도 한다. 약 1개월 前後에 化膿하며 유과후에도 잘 아물지 않으며 收口後에도 왕왕 關節組織의 파괴로 因해 踝關節機能에 重한 影響을 미치는 경우가 있다. 本病의 陰證은 踝關節 結核의 類이다.

足厥陰肝經(족궐음간경)

十二經脈의 하나. 그 循行路線은, 體內에서는 肝에 屬하고 膽으로 連絡되며, 아울러 生殖器 胃 橫膈膜 咽喉 眼球와 相連된다. 體表에서는 足拇趾에서 下肢內側(前部에서 中部로 轉向) 外陰部 腹部를 거쳐 側胸部에 이른다. 本經에 有病하면 主로 胸滿 嘔逆 腰痛 下痢 疝氣 遺尿 小便不通 月經不調 子宮出血 咽喉乾燥 面色暗晦 等の 症狀과 病症, 그리고 本經의 循行部位의 局部症狀이 나타난다.

足趺(족부)

「跗」의 項 參照.

足三陽經(족삼양경)

十二經脈中の 3條의 經脈으로서, 足陽明胃經·足太陽膀胱經·足少陽膽經을 말함. 이들의 循行方向은 모두 頭部에서 體幹部와 下肢外側을 거쳐 足部에 이른다.

足三陰經(족삼음경)

十二經脈中の 3條의 經脈으로서, 足太陰脾經·足少陰腎經·足厥陰肝經을 말함. 이들의 循行方向은 모두 足部에서 下肢內側과 腹部을 거쳐 胸部에 이른다.

足少陽膽經(족소양담경)

十二經脈의 하나. 그 循行路線은, 體內에서는 膽에 屬하고 肝으로 連絡된다. 體表에서는 眼部에서 側頭部 耳部 頰部 後頸部 肩部 側胸腹部 下肢外側을 거쳐 足第4趾端에 이른다. 本經에 有病하면, 主로 瘧疾, 惡寒, 發汗, 頭痛, 頷痛, 目痛, 口苦, 鎖骨部 및 腋窩部腫痛, 胸 및 側胸部痛으로 身體轉側困難, 甲狀腺腫大, 淋巴腺結核 等の 症狀과 病症, 그리고 本經의 循行部位의 局部症狀이 나타난다.

足少陰腎經(족소음신경)

十二經脈의 하나. 그 循行路線은, 體內에서는 腎에 屬하고 膀胱으로 連絡되며, 아울러 脊髓 肝 膈膜 喉部 舌根 肺 心 胸腔 等과 相連된다. 體表에서는 足小趾에서 足心 內踝 上肢內側後面 腹部를 거쳐 胸部에 이른다. 本經에 有病하면 主로 口中熱 舌乾 咽喉病 飢餓而不欲食 羸瘦 咳血 哮喘 心悸 胸痛 煩躁 黃疸 腹瀉 面色暗黑 視覺不良 精神痿靡 好睡 痿厥 等の 症狀과 病症, 그리고 本經의 循行部位의 局部症狀이 나타난다.

足丫疔(족아정)

「足疔」의 項 參照.

足陽明胃經(족양명위경)

十二經脈의 하나. 그 循行路線은, 體內에서는 胃에 屬하고, 脾로 連絡된다. 體表에서는 脾部에서 側頭部 面部 頸部 胸腹部 下肢外側의 前面을 거쳐 足第二趾端에 이른다. 本經에 有病하면 主로 胃腸炎 胃痛 腸鳴 腹水 咽喉炎 鼻衄 口眼歪斜 口脣發疹 頸部腫大 惡寒戰慄 呻吟不寧 面色微黑 精神異常 熱病發狂 等の 症狀과 病症, 그리고 本經의 循行部位의 局部症狀이 나타난다.

足底疔(족저정)

「足疔」의 項 參照.

足疔(족정)

疔瘡疾患의 하나이다. 足部에 생기는 疔瘡의 總稱이다. 發生部位의 差異에 따라 名稱도 다르다. 발가락에 생기는 것은 「指疔」이라 하고, 발가락새에 생기는 것은 「足丫疔」이라 하며, 발바닥의 涌泉穴部位에 생기는 것은 「龍泉疔」이라 하고, 발뒤꿈치에 생기는 것은 「跟疔」或은 「足底疔」이라 한다. 모두 濕火의 下注에 起因하거나 或은 破損部位의 感染에 依해 생긴다. 그 根脚이 堅硬하고, 麻痺腫痛하며, 항상 腫脹이 足背에 미치고, 或은 穿筋 爛骨하게 된다. 惡寒發熱 等症을 수반한다.

足太陽膀胱經(족태양방광경)

十二經脈의 하나. 그 循行路線은, 體內에서는 膀胱에 屬하고 腎으로 連絡되며, 아울러 腦와 相連된다. 體表에서는 眼部에서 頭項을 넘어 後向하여 아래로 項部, 背部兩側, 臀部, 下肢後面을 거쳐 足小趾端에 이른다. 本經에 有病하면 主로 瘡疾, 癲狂, 目黃, 流淚, 鼻衄, 頭項強痛, 腰背痛, 痔瘡, 尿頻排尿痛, 小便不利, 脇痛 等の 症狀과 病症, 그리고 本經의 循行部位의 局部症狀이 나타난다.

足太陰脾經(족태음비경)

十二經脈의 하나. 그 循行路線은, 體內에서는 脾에 屬하고, 胃로 連絡되며, 아울러 心과 舌根에 相連된다. 體表에서는 脾足大趾에서 下肢內側(中部에서 前部로 轉向함) 腹部 胸部를 沿하여 側胸部에 이른다. 本經에 有病하면, 主로 胃痛 嘔吐 腸炎 噎氣 黃疸 水腫 身體沈重自覺 行動困難 平臥不能 舌痛 舌根強直 小便不通 等の 症狀과 病症, 그리고 本經의 循行部位의 局部症狀이 나타난다.

存性(존성)

「燒存性」의 項 參照.

顚(절)

「顚骨」의 項 參照.

顚骨(절골)

顚이라고도 함. 眼眶의 下緣의 骨. 解剖學上的 頷骨과 觀骨이 眼眶을 構성한 部分에 該當함.

卒病(졸병)

①突然한 發病을 말하며 暴病이라고도 함. 暴病은 一般的으로 急하고 重한것이다. ②새로 거린 病으로서 新病이라고도 함. 新病과 九病 宿疾은 相對되는 말이다.

卒中(졸중)

「中風」의 項 參照.

踵(중)

발뒤꿈치의 着地部分.

宗筋(중근)

① 三陰三陽의 經筋(經筋은, 十二正經과 十二經別 이외의 또 하나의 循行系統을 말하며 그 特徵은 體表를 循行하며 四肢末端의 指爪에서 起始하여 四肢의 腕·肘·腋·踝·膝·股 사이를 上行하여 巡廻曲折해서 肌肉間을 連關하고 頸項으로 上行하여 頭面에 終結된다.)이 前陰部에서 會合하는 것을 宗筋이라 함. ② 男子生殖器를 말함.

宗筋之會(중근지회)

①若干의 筋腱의 集合處를 말함. 經絡의 循行中에 陰經과 陽經이, 筋腱이 豊富한 大關節部位, 例컨대 髌骨部나 膝關節에서 會合한다. ②男子의 生殖器를 말함.

宗氣(중기)

飲食水穀이 化生하는 營衛之氣와 吸入된 大氣가 相合하여 胸中에 蓄積되는 氣이다. 胸中은 宗氣가 集積되는 곳일 뿐만 아니라, 全身의 氣가 運動 輸布되는 出發點이기도 하다. 宗氣에는 兩大機能이 있는바, 그 하나는 喉嚨에서 나와 呼吸을 하는 것으로, 이는 言語 聲音 呼吸의 強弱에 關係한다. 다른 하나는, 心脈에 貫注되어 氣血을 運行시킨다. 무릇 氣血의 運行, 肢體의 寒溫과 活動能力은 대개 宗氣와 有關하다.

宗氣泄(중기설)

種氣가 外泄하는 것이며, 그 表現은, 氣短하고, 虛里血(心尖搏動部位)의 跳動이 太過하여 衣服에 反應되는 等이며, 대개 痰瘀 或은 心陽不足의 見證을 隨伴한다. 心機能不全의 疾病에서 常見된다.

宗脈(중맥)

「宗脈所聚」라고도 함. 眼·耳部 等 重要器官에 分布되어, 많은 經脈이 모여서 主脈 혹은 大脈을 形成한 것(『靈樞』『口問篇』 “目者 宗脈之所聚也” 또 “耳者 宗脈之所聚也”).

宗脈(중맥)

宗에는 「總」의 뜻이 있다. 宗脈에는 두가지 解釋이 있다. ① 많은 經脈의 集合處를 뜻함. 예컨대 『영추』『문편』에서 “目者, 宗脈之所聚也”라 하여 五臟六腑의 精氣가 宗脈을 통하여 目에 注入되며 그림으로써 眼睛이 양호하게 그 기능을 발휘하게 된다. ② 肺를 經유하는 큰 脈을 가리킴. 예컨대 張志聰은 『靈樞經集注』에서 “夫肺朝百脈 宗脈者 百脈所宗 肺所主也”라 하였다.

宗脈所聚(중맥소취)

「宗脈」의 項 參照.

從外測內(중외측내)

「有諸內 必形諸外」(이것이 內에 있으면, 반드시 이것이 外에 形象된다)의 道理에 根據하여, 外表에 反映되는 各種 症狀 或은 體徵에서, 人體內部에 發生한 病變을 測知할 수 있음을 뜻함.

腫脹(중창)

全身의 水腫을 腫이라 하며 腹部의 脹滿을 脹이라 한다. 先人은 頭面과 四肢가 먼저 浮腫한 後에 腹部가 脹滿해지는 것은 水에 屬하고 먼저 腹部가 脹滿한 後에 四肢이 浮腫하는 것은 脹에 屬하는 것으로 區分하였다. 그런데 水도 脹을 겸하고 脹도 水를 兼하게 되니 一般的으로 水腫과 腹脹滿의 症狀을 總稱해서 腫脹이라 한다.

從治(중치)

①反治의 項 參照. ② 甚者從之의 項 參照.

佐金明目(좌금명목)

肺氣를 肅降케 함으로써 肝氣를 抑制하는 方法이다. 肝氣가 肺로 上衝하면 肺氣가 下降할수 없어서 兩脇竄痛, 氣喘不平, 脈弦 等症이 出現한다. 이리하여 肝氣도 疏暢된다. 桑白皮(吳茱萸汁炒), 蘇梗, 杏仁, 枇杷葉 等藥을 쓴다.

坐產(좌산)

「難產」의 項 參照.

挫傷(좌상)

「閃挫」의 項 參照.

左腎右命(좌신우명)

『左腎右命』學說은, 腎의 多方面에 걸친 機能과 人體에서의 重要性을 說明한 것이다. 『難經·三十六難』에서, “腎兩者 非皆腎也 其左者爲腎 右者爲命門. 命門者 諸神精之所舍 元氣之所繫也故男子以藏精 女子以繫胞. 故知腎有一也”라 하였다. 이는 東醫文獻中 처음으로 『左腎右命』學說을 提起한 것이며, 後世醫家들이 이 學說을 많이 尊崇하였다. 이 學說의 要點은, 命門의 作用을 두드러지게 한 것이며, 命門은 精神과 原氣에 連繫되는 등의 重要生理機能을 所藏하므로, 人體生命의 根本으로 認識되고 있다. 『左腎右命』에 對하여, 機械적으로 그 所在部位로써 理解해서는 안되며, 陰陽의 意義에 重點을 두고 分析을 해야 한다. 『左腎右命』學說의 實質은, 腎에 『腎陰』과 『腎陽』의 兩方面의 機能이 있음에 注意해야 하며, 腎陰·腎陽이 相互 協調해야 하며(命門之火와 腎水가 相濟하는 것), 萬若 協調하지 않으면 各種 病症을 惹起함을 提示한 것이다.

坐板骨(좌판골)

「槌骨」의 項 參照.

酒客(주객)

平素 飲酒를 좋아하는 사람을 말함. 古代醫家들은 이러한 사람이 得病하면 甘味の 桂枝湯을 주어서는 않된다고 認識하였다. 酒客이 桂枝湯을 服用하면 嘔吐를 일으키기 쉽기 때문이다.

柱骨(주골)

鎖子骨, 巨骨, 缺盆骨이라고도 함. 前胸部의 上方에 있음. 현재는 鎖骨이라 함.

走罐(주관)

「推罐」의 項 參照.

酒灸(주구)

「灸」의 項 參照.

酒疸(주달)

「金匱要略」에 있음. 黃疸의 類型의 하나이다. 酒食의 不節制로 因해, 脾胃가 受傷해서, 運化機能이 失調되어, 濕濁이 內鬱 生熱하여, 濕熱이 交蒸해서 생긴다. 主要症狀은, 身目이 發黃하며, 胸中이 煩悶하고 熱하며, 不能食하고, 때로 欲吐하며, 小便이 赤澁하고, 脈이 沈弦하며 數한 等症이다.

州都之官(주도지관)

① 膀胱의 項 參照 ②「膀胱主藏津液」의 項 參照

腠理(주리)

① 皮膚, 筋肉, 臟腑의 紋理. ② 皮膚와 筋肉이 交接되는 곳. 「皮腠」라고도 함.

走方醫(주방의)

「鈴醫」의 項 參照.

酒癖(주벽)

①病因. 嗜酒가 習性이 된 것을 말함. ②病症. 「酒癥」이라고도 함. 「癖」은 硬結된 癥塊를 뜻함. 嗜酒로 因해 腹部에 癥塊가 생기는 慢性病을 말함. 臨床表現은 消瘦, 腹水, 腹中에 硬塊가 생기는 등이다. 알콜中毒의 肝硬化와 類似하다.

主輔佐引(주보좌인)

「君臣佐使」의 項 參照.

周痺(주비)

「風痺」의 項 參照.

蛀節疔(주절정)

「指疔」의 項 參照.

酒劑(주제)

現在는 藥酒라고도 稱한다. 藥物을 酒內에 침적하여 一定時間을 지나게 하면 혹은 隔湯煎熬하여 爐過去渣해서 證明한 것을 취한다. 活血 去風 通經活絡 除痺止痛에 多用된다.

走注(주주)

「風痺」의 項 參照.

舟楫之藥(주楫지약)

「舟楫之劑」의 項參照.

舟楫之劑(주楫지제)

「舟楫之藥」이라고도 함. 楫은 배를 짓는 노이다. 어떤 藥物은 하나의 方劑中에서 기타 藥物을 이끌어 上焦病을 치료할 수 있는데, 이것이 마치 짐을 실은 배가 물에 뜨는 것과 흡사하다는 뜻이다. 先人은 桔梗이 다른 藥物을 이끌어 上行하여 高處에 이르는 것을 認識하였으므로 이를 舟楫之劑라 칭하였다.

酒癰(주징)

「酒癖」의 項 參照.

酒臚鼻(주차비)

「鼻赤」或은 「鼻臚」라고도 함. 脾胃의 濕熱이 肺에 上勳하여, 血瘀 凝結되므로 惹起되는 病症이다. 局部의 皮膚가 發紅하며, 病久하면 紫紅色을 띠고, 皮膚가 두꺼워지며, 鼻頭가 增大하여, 表面이 隆起되어 울퉁불퉁해서 形狀이 瘤贅(혹)과 같이 된다.

酒脹(주창)

脹의 原因이 酒積으로 損傷되어 得病한 것으로 이렇게 이름한다. 主要症狀은 腹脹이 如斗하고 或 便血, 尿血을 나타내며 脈象이 數 或은 澁하다. 本病은 酒毒에 損傷되고 濕熱이 肝脾에 蘊結하여 氣血이 逆阻해서 肝이 藏血하지 못하고 脾가 統血하지 못하는 所致이다.

酒悖(주패)

술에 취하여 헛소리를妄動하는 狀態를 말함.

走哺(주포)

위로 嘔逆하고 아래로 二便이 不通하는 病證을 말함. 汪必昌의 醫解辨證에서는 “由下不通 濁氣上衝而 飲食不得入……(下로 不通하여 濁氣가 上衝해서 飲食이 들어갈수 없음)”의 所致로 認識하였다.

注下(주하)

泄瀉하는 患者의 大便이, 물을 下向으로 傾注하는 情況과 같다고 形容한 것이다.

疰夏(주하)

夏疰라고도 함. 本病에는 뚜렷한 季節性이 있어서 夏節이 되면 發病하므로 이렇게 이름한다. 柔弱한 幼童에게 好發한다. 發病原因은 一般的으로 體質이 軟弱하고 脾胃가 虛弱하거나 혹은 陰氣가 不足하므로 夏季의 炎熱한 環境中에서 溫熱의 氣를 感受한 所致이다. 體質의 差異로 因해 臨床表現에 二種의 類型이 있다. 1)脾胃虛弱型:主要症狀은 肢體가 無力하고 胸悶하여 不爽하며 말하기를 싫어하고 胃弱(納보)便당한다. 만약 遷延日久하면 患兒의 身體가 異常하게 瘦瘠하고 下肢도 점점 위軟無力해진다. 2)暑熱熾盛型:主要症狀은 身熱하는데 午後에 增高하고 有汗 혹은 無汗하며 口渴喜飲하고 小便의 量이 많으며 後期에는 身熱이 稽留不退하고 消瘦하며 肢體가 疲乏하고 精神이 萎**해진다. 고로 이를 夏위라고도 한다. 小兒의 夏季熱과 類似하다.

竹簾(죽렴)

古代의 正骨用 器具이다. 外形과 橫造는 夏節에 쓰는 竹製의 발과 비슷하다. 크기는 患部의 구체적인 狀態에 따라 정한다. 負傷한 四肢의 外面을 싸수 있으며, 四肢骨折의 固定에 쓴다. 現在는 小夾板이 쓰이고 있다.

準頭(준두)

「鼻準」의 項 參照.

峻下(준하)

大黃, 巴豆, 芫花, 甘遂, 大戟, 商瞿, 牽牛子, 芒硝 등의 강렬한 瀉下作用이 있는 藥物을 써서 瀉導하는 것을 峻下라 한다.

中渴(중갈)

「中暑」의 項 參照.

重感(중감)

「兩感」의 項 參照.

中經(중경)

中風의 證候類型的 하나이다. 病이 經脈에 있으며 昏倒하지 않고 半身不隨 手足麻木 口多痰涎 言語不便 脈多弦滑等症을 나타낸다.

中工(중공)

古代에 中等의 醫療技術을 가진 醫員을 일컫는 呼稱이다. 그 技術이 上工의 優秀성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下工에 비해서는 높았다. 疾病의 治療에서는 70%의 治癒率이 要求되었다.

中氣(중기)

通常은, 中焦의 脾胃의 氣와 脾胃 등 臟腑의 飲食에 對한 消化運輸 昇清降濁 等の 生理機能을 뜻함. 그러나 때로는 脾氣만을 指稱한다. 脾氣는 昇을 主管하며, 臨床上 脫肛 子宮脫垂 等症을 만나면 往往 脾虛 下陷의 所致로 보고, 「補中益氣」의 治法을 常用한다. 所謂 「補中益氣」는 補脾와 下陷한 脾氣를 昇提하는 것이다.

中氣不足(중기부족)

「中氣」는 中焦脾胃의 氣를 말함. 中氣不足은 곧 脾胃虛弱이다. 脾胃虛弱으로 因해, 機能衰退 運化無力을 惹起하고, 精氣의 上輸를 못한다. 臨床表現은, 食欲不振, 食後易脹, 面色淡白, 眩暈倦怠, 氣虛乏力, 胃痛喜按, 大便稀爛 等이다.

中氣下陷(중기하함)

「氣虛下陷」, 「脾氣下陷」이라고도 함. 이는 「中氣不足」이 더 進行發展한 것이다. 主要症狀은, 面色淡白, 眩暈易汗, 短氣, 倦怠, 食少, 便溏, 腹部重墜, 便意頻數, 小便淋瀝 等이다. 胃下垂, 腎下垂, 子宮下垂, 脫肛, 慢性腸炎, 慢性痢疾 等病에서 多見된다.

中丹田(중단전)

「丹田」의 項 參照.

中都穴(중도혈)

「八邪穴」의 項 參照.

中毒(중독)

毒物이 體內에 進入하여, 毒性作用에 의해 發生하는 病症. 例컨대 藥物毒은, 巴豆 砒霜 斑蝥등이고, 食物毒은 酒精(알콜), 河豚(하돈), 病든 鳥禽등이다.

中絡(중락)

中風의 證候類型的 하나이다. 病이 絡脈에 있으며 口眼喎斜 肌膚麻木等症을 나타내며 或은 頭暈 頭痛等を 隨伴한다.

中滿(중만)

腹中이 脹滿한 症狀을 말함. 氣虛, 食滯, 寒濁의 相壅 濕熱의 困阻等의 原因에 의해 脾胃의 運化機能에 異常을 招來하고 氣機가 痞塞된 所致이다.

中滿者瀉之於內(중만자사지어내)

『素問. 陰陽應象大論』에 있음. 「中滿」은, 氣가 內部에 阻滯되어 胸腹이 脹滿함을 뜻하고, 「瀉」은 그 氣를 調理하여, 脹亂을 消失케 함을 뜻함. 例컨대, 氣와 痰濕이 中脘에 阻滯되어 胸腹이 脹滿한 경우, 「和胃理氣」法을 쓴다. 或은 飲食이 積滯되어 惹起된 脘腹의 腹痛에 「消導」之劑를 採用한다.

中發背(중발배)

「發背」의 項 參照.

重方(중방)

『素問』「至眞要大論」에 있음, 먼저 奇方을 써서 病이 낫지 않으면 다시 偶方을 쓰는 것을 말함.

重複脫骭(중복탈갈)

「脫骭」의 項 參照..

中腑(중부)

中風의 證候類型의 하나이다. 突然 昏倒하여 蘇醒後에 半身不隨 口眼喎斜 言語困難 或은 痰涎壅盛 言語不能 大小便失禁 或은 閉阻等症을 나타낸다.

中暑(중서)

夏季의 炎熱한 氣溫中에서 暑邪에 損傷되어 發生하는 病症을 말함. 症狀은 突然昏倒, 身熱, 惡心, 嘔吐, 煩燥, 大汗(혹 無汗), 氣粗, 面色蒼白, 脈細數, 혹 昏迷不醒, 四肢抽畜, 牙關緊急等이다. 中갈(暑熱에 傷했다는 뜻)이라고도 한다.

中石疽(중석저)

「石疽」의 項 參照.

重舌(중설)

舌下의 靜脈이 鬱血 腫脹해서 하나의 작은 舌이 더 생긴 것 같고, 或은 舌體와 連해서 花狀을 이루기도 한다. 頭項痛 發熱 等を 隨伴하며, 日久하면 潰爛된다. 心脾의 積熱에 起因하거나 或은 飲酒後 風邪을 받아서 發하기도 한다.

中消(중소)

「消中」, 「胃消」, 「脾消」라고도 함. 多食하는데 飢하기 쉽고, 몸은 도리어 야위는 것을

主症으로 하며, 大便秘結, 小便黃赤번數, 舌苔黃燥 等症을 兼發한다. 대개는 胃火가 熾盛하여, 水穀의 精微를 消耗해서 精血이 受傷되는 所致이다.

重身(중신)

「妊娠」의 項 參照.

中惡(중악)

①不正之氣에 觸感됨으로써 갑자기 怪異한 것이 보여 크게 놀라서, 忽然 手足이 厥冷하고, 顏色이 蒼白해지며, 精神이 恍惚하고, 頭目이 昏暈하며, 혹은 錯言妄語하고, 심하면 口噤 昏厥 等症을 發한다. ②小兒의 病症. 小兒의 眞氣가 衰弱하여 「惡氣」에 損傷되는 것을 말함. 例:『醫學綱目』「小兒部」에서 “其狀卒然心腹刺痛 悶亂欲死”라 하였다.

重陽(중양)

陽에 屬하는 兩種의 性質이 同時에 하나의 事物上에 出現하는 것. 例 : ①一晝夜中の 日中(正午)은, 晝間이 陽이고, 陽中之陽이므로 重陽이라 稱함. ②身熱하고 脈洪大하여 證狀과 脈象이 모두 陽盛함을 重陽이라 稱하며, 陽熱이 旺盛함을 說明함. ③氣候와 사람의 病變을 關聯시켜 볼 때, 例로써 夏季는 陽에 屬하며, 暑는 陽邪이므로 夏月感暑도 重陽이라 할 수 있다.

中陽不振(중양불진)

中焦脾胃의 陽氣가 虛弱하여, 消化機能이 不振함을 말함. 主要症狀은, 食少不化, 嘔吐, 泄瀉, 四肢清冷, 面色萎黃, 唇淡 等이다. 慢性消化不良, 慢性痢疾 等病에서 多見된다.

重陽必陰(중양필음)

疾病의 性質이 本來 陽氣偏勝에 屬하는데, 陽氣의 亢盛이 어느 限度에 이르면 陰의 現象 혹은 陰의 方向으로의 轉化가 나타나는 수가 있다. 例: ① 病理變化中の 「熱極生寒」은 陽熱이 盛한 病에, 一定한 條件下에서 寒性症狀이 出現하는 것이다. ② 夏季에 暑氣에 損傷되면 重陽이 되는데, 이는 暑熱이 津液을 傷할 뿐만 아니라, 陽氣를 耗散케 하여 正氣不足으로 虛脫이 出現하게 된다. 이들 病理上의 轉變에는 모두 條件이 있으며, 반드시 이렇게 된다고 理解해서는 안된다.

中脘(중완)

「胃」의 項 參照

重陰(중음)

陰에 屬하는 兩種의 性質이 同時에 하나의 事物上에 出現하는 것. 例 : ①一晝夜中の 夜半은, 夜間이 陰이고, 夜半은 陰中之陰이므로 重陰이라 稱함. ②身冷하고 脈微欲絶하여 證狀과 脈象이 모두 陰盛함을 重陰이라 稱하며, 陰寒이 旺盛함을 說明함. ③氣候와

사람의 病變을 關聯시켜 볼 때, 例로서 冬季는 陰에 屬하며, 寒은 陰邪이므로, 冬季에 寒邪를 感受하는 것도 重陰이라 할 수 있다.

重陰必陽(중음필양)

疾病의 性質이 本來 陰氣偏勝에 屬하는데, 陰氣의 亢盛이 어느 限度에 이르면, 陽의 現象 혹은 陽의 方向으로의 轉化가 나타나는 수가 있다. 例 : ①病理變化中の 『寒極生熱』은 陰寒이 盛한 病에, 一定한 條件下에서 熱性症狀이 出現하는 것이다. ②冬季에 寒邪를 感受하면 重陰이 되는데, 이 病은 本來 感冒風寒에 속하지만, 寒邪가 化熱 入裏하면 熱病으로 轉化하게 된다. 이들 病理上의 轉變에는 모두 條件이 있으며, 반드시 이렇게 된다고 理解해서는 안된다.

中臟(중장)

中風의 證候類型의 하나이다. 臨床上 卒倒 昏微를 症으로 하며 閉證과 脫證의 二種類으로 나뉜다. ① 閉證은 또 陽閉, 陰閉로 나뉜다. 陽閉의 症狀은 昏微, 牙關緊閉, 握卷, 面紅氣粗하고 或은 痰聲이 요란하며 大小便이 俱閉되고 舌苔가 黃위하며 深하면 舌券縮이 되고 脈象이 弦滑數하다. 陰閉의 症狀은 昏微 牙關緊閉 握券 面白脣紫하며 痰涎이 壅盛하고 四肢이 冷하며 舌苔가 白위하고 脈이 沈滑하다. ② 脫證은 昏微가 깊고 眼合口開하며 코를 골고 呼吸이 微弱하며 四肢이 寒冷하고 或은 兩手を 늘어뜨리고 遺尿하며 大汗出하고 或은 기름같은 땀이 나며 舌淡白 苔白潤 脈細弱等症을 나타낸다.

中正之官(중정지관)

「膽主決斷」의 項 參照.

中精之府(중정지부)

「膽」의 項 參照.

重劑(중제)

「重可去怯」로서 磁石, 朱砂의 類이다. 「重」은 質이 무거운 藥으로, 鎮墜 鎮靜하는 것이며, 「怯」은 精神紊亂 驚恐健妄을 뜻함. 例컨대 癲癇病에 磁朱丸(磁石, 朱砂, 神曲)을 써서 치료한다.

中指同身寸(중지동신촌)

「同身寸」의 項 參照.

重鎮安神(중진안신)

鎮心이라고도 함. 金石류와 甲殼류의 藥물을 써서 질이 重함으로 鎮心安神케 한다. 癲狂, 煩燥, 心悸, 失眠에 적용되며 磁石, 朱砂, 龍骨, 牡蠣, 眞珠母등을 쓴다. 이들 藥물은 단지 鎮정안심으로 표증을 치하는 작용을 일으킬 뿐이니 구체적인 病정에 따라 清熱化痰, 滋陰補血등으로 分별하여 本證을 치하는 藥물과 同용해야만 標本兼治를 할 수 있다.

重聽(중청)

「耳聾」의 項 參照.

中淸之腑(중청지부)

「膽」의 項 參照.

中焦(중초)

「三焦」의 項 參照

中草藥(중초약)

一般的으로 韓藥서에 기재되었고 韓藥상점에서 賣出되는 韓藥商品과 民間에서 쓰는 草藥을 合稱해서 中草藥이라 한다. 기실 草藥가운데는 여전히 草藥을 記載된 것도 있고 혹은 옛 부터 草藥을 쓰이기 시작하였는데 그 後 通常의 藥을 쓰이게 되었거나 比較的 普遍的으로 쓰이는 韓藥이 된 것도 있으므로 韓藥과 草藥을 區別하기가 매우 어렵다. 그래서 現在는 中草藥이라고 合칭하는 것이다.

中焦如漚(중초여구)

『靈樞·營衛生會篇』에서 “中焦如漚”라 하였다. 『漚』은 中焦에서 飲食物을 消化하는 情況을 形容한 것이다. 『中焦如漚』는 脾胃의 消化 轉輸作用을 뜻한다. 中焦의 脾胃는 飲食物의 消化를 主管하여, 精微를 吸收하고, 津液을 蒸化해서, 營養物質은 肺脈의 輸布를 통해 營氣로 化生시킨다. 이 作用이 마치 漚漬(水浸하여 腐熟시킴)와 같이, 飲食物을 高루 變化시키므로 이렇게 말한다.

中焦主化(중초주화)

飲食物은 주로 中焦의 脾胃에서 消化되고, 中焦에서 營血로 化生되므로 이렇게 말한다.

中搭手(중답수)

「搭手」의 項 參照.

中品(중품)

「三品」의 項 參照.

中風(중풍)

① 風은 內風을 말함. 中風은 腦血管障害等の 疾患을 말하며 卒中이라고도 함. 則 突然한 風症을 뜻함. 陰精의 虧損 或은 暴怒傷肝으로 인해 肝陽이 偏亢되어 肝風이 內動하므로 發病한다. 或은 肥甘厚味를 嗜食하여 痰熱이 內癰해서 化風하기도 하고 或은 氣血이 虧損되어 虛風이 生하기도 하며 或은 本來 內虛한데 갑자기 外來의 風邪를 感受하는 等等로 發病한다. 古典醫書에서는 그 症狀에 따라 類中風과 眞中風의 二種類으로

分類하였다. 類中風은 卒倒 昏微 半身不隨 或은 口眼喎斜 言語障礙等を 나타낸다. 病程의 輕重에 따라서 또 中絡 中經 中腑 中臟으로 區別하며 中絡이 가장 輕하고 中臟이 가장 重하다. 腦出血 腦栓塞 腦血栓形成 等病을 包括하는 외에 腦實質과 腦神經의 一部病證도 包括한다. 眞中風은 類中風의 症狀外에 初期에 發熱惡風寒等の 症狀이 있다. 實際上 發熱도 通常 腦血管 疾病自體의 症狀의 하나이므로 이 說의 鑑別意義는 크지 않다. 다른 一說로서 類中風은 다만 暫時의 知覺喪失이며 覺醒後에 半身不隨나 或은 口眼喎斜等症이 없고 氣厥 食厥 血厥等の 疾病을 말하는 것이라 한다. 以上の 兩設은 다만 古代醫籍의 理解하는데 參考가 될 뿐이다. ② 風은 外風을 말함. 則 外感風邪의 病證으로서 發熱 頭痛 汗出 脈浮緩等症을 나타낸다.(『傷寒論』)

中寒(중한)

①寒邪에 損傷된 것. 突然 寒邪의 侵襲을 당해 四肢厥冷하고, 六脈이 沈細하거나 遲緊하는 등의 症狀이 出現함. ②中焦의 虛寒을 말함. 陽氣가 不足하고 脾胃의 機能이 衰退하므로, 腹痛하여 按擦을 좋아하고(喜按), 畏寒肢冷하며, 口無味, 惡心하며, 便溏等症이 出現한다.

蒸(증)

藥物을 蒸籠(시루)에 넣고 隔水 蒸熟하여(찌서) 製劑에 편리하도록 하는 것. 예컨대 茯苓 厚朴은 蒸後에 절편하기 쉽다. 혹은 酒를 加하여 攪拌해서 蒸한다. 예컨대 大黃 地黃을 이렇게 蒸製하면, 熟大黃은 瀉下作用이 減弱되고, 熟地黃은 生地黃의 涼血藥性에서 溫性의 補血하는 藥性으로 變하다.

蒸露(증로)

어떤 藥物은 蒸溜法으로 藥露를 만든다. 예컨대 金銀花露 藿香露 薄荷露 등이다.

增液瀉下(증액사하)

津液을 增補하는 藥物과 寒下藥物을 同用하여 熱結로 津液이 虧損된 大便秘結을 治療하는 것. 病人의 正氣가 太虛하지 않고 攻下에 견딜수 있는 경우에는 增液承氣湯(元蔘, 連心麥門冬, 生地黃, 大黃, 芒硝)을 쓴다.

增液承氣湯(증액승기탕)

「增液瀉下」의 項 參照.

增液潤下(증액윤하)

「潤下」의 項 參照.

增液湯(증액탕)

「潤下」의 項 參照.

憎寒(증한)

外部에서는 寒戰(戰慄)하고 内部에서는 煩熱하는 一種의 症狀이다. 이는 熱邪가 內服하여 陽氣가 阻得되므로 透達不能한 所致이다.

症候(증후)

症候는 약간의 症狀이 綜合되어 構成되는 것이다. 예컨대, 發熱, 惡寒頭痛, 脈浮등은 一種의 外感表寒의 症候이고, 壯熱, 煩渴, 舌紅舌黃, 便秘等은 裏實熱의 症候이다. 또 中風病에 牙關緊急, 面赤氣粗, 痰涎壅盛, 兩手握固, 脈弦滑 或 沈緩等を 나타내는 것을 閉症이라 하며 氣息微弱, 四肢厥冷, 汗出如珠, 口開目合, 手撒遺尿, 脈微細 欲絕 或 沈伏等を 나타내는 것을 脫症이라 한다. 閉症, 脫症은 모두 疾病의 症候에 속한다. 일부 病名으로, 예컨대 痺症, 痿症, 癰症, 血症의 類는 證에 의해 命名한 것이며, 그 뜻은 두드러진 主症을 취한 것이다. 一證 가운데 多種의 症候를 包括할 수 있다. 예컨대 痺症의 경우에 肢體酸痛, 游走不定을 나타내는 것은 風痺의 症候에 속하며 疼痛이 激烈하고, 冷하게 하면 痛症하는데, 熱하게 하면 痛減하는 것은 實痺의 症候에 속하고, 痛處가 固定되며, 山重麻木한 것은 濕痺의 症候에 속하는 等이다.

趾(지)

「足趾骨」의 略稱.

漬(지)

「泡」의 項 參照.

支膈(지격)

胸膈의 下部에 한 가닥의 氣가 阻塞된 듯한 不快感을 自覺하는 것.

地廓(지곽)

「八廓」의 項 參照.

脂瘤(지류)

瘤의 一種이다. 渣瘤 或은 粉瘤 라고도 함. 대개 痰凝 結氣로 因해 생긴다. 통상 頭面, 項背, 臀部 等處에 잘 생기며, 작은 것은 豆大이고, 큰 것은 鷄卵大이며, 生長이 緩慢하고, 柔軟하며, 皮膚色은 淡紅色이고, 밀면 移動하며, 頂点部에 언제나 약간 黑色을 띤 小口가 있어서, 눌러 짜면 냄새가 나는 두부찌끼 같은 物質이 나온다. 현재는 粉瘤라 한다.

遲脈(지맥)

脈象의 一種. 脈動이 指滿하여, 醫師의 1回 正常呼吸에 患者의 脈搏이 4回以下(1分간 60回以下)인 것. 대개 寒證과 關聯이 있으며, 陽氣가 實邪에 鬱滯되어 遲脈을 나타내기도 한다. 이밖에 長期間 鍛鍊한 스포츠맨의 脈搏이 遲緩有力한 境遇가 많은데, 이는 病

脈에 屬하지 않는다.

持脈(지맥)

「脈診」의 項 參照.

指目(지목)

指尖을 利用하는 一種의 切脈方法이다. 靑代 葉霖의 「脈說」에 “醫者之食指 中指 無名指 爪甲不可留 必用指端棱起如선者 名曰「指目」 以按脈之脊 不啼睛之視物 妍媸立判(醫者의 食指 中指 藥指는 爪를 남겨서는 안된다. 반드시 指端의 角에서 一直線이 되게 써야 한다. 이를 指目이라 한다. 이로써 脈의 隆起된 곳을 누르면, 눈에 똑똑히 보일 뿐만 아니라, 脈의 美醜를 곧 알 수 있다)라고 썼었다. 指目診法은 通常 醫院이 一般切脈법으로는 不滿足한 境遇에 採用하는 것이며, 觸覺이 가장 銳敏한 指尖을 써서 進一步한 診斷印象을 얻고자 하는 것인데, 醫員의 指尖의 毛細動脈의 搏動이 惹起될 可能性이 있는 切脈의 誤差를 排除하도록 注意해야 한다.

至寶丹(지보단)

「丹」의 項 參照.

枳實導滯丸(지실도체환)

「通因通利」의 項 參照.

紙捻(지염)

「藥線引流」의 項 參照.

至陰(지음)

①至陰은 陰에 到達함을 뜻함. 至는 到를 뜻함. 例：太陰은 三陰의 처음이니, 太陰을 至陰이라고도 함. 太陰은 脾에 屬하며, 至陰은 통상 脾의 代名詞로 쓰인다. 『素問.金匱眞言論』에서, “腹爲陰 陰中之至陰 脾也.”라 하였다. ②至陰은 陰에 屬하는 最甚한 것을 뜻함. 至는 最 혹은 極을 뜻함. 『素問.水熱穴論』에서 “腎者至陰也 至陰者 盛水也...”라 하였다. ③穴名으로서 足太陰膀胱經의 井穴.

支飲(지음)

痰飲 水氣가 胸膈部, 胃脘部에 停滯되는 病證을 말함. 肺氣가 相搏하므로 肺가 肅降機能을 잃고 氣機의 昇降이 沮害되기 때문에 胸膈이 不利해진다. 主要 症狀은 喘咳上逆하고 胸滿短氣하며 氣息이 平臥하지 못하며 甚하면 浮腫한다. 慢性 肺氣腫 및 그로인해 惹起되는 肺心病等の 疾病에 屬한다.

肢節煩疼(지절번동)

四肢關節이 煩熱疼痛하는 症狀을 말함.

趾疔(지정)

「足疔」의 項 參照.

指疔(지정)

疔瘡疾患의 하나이다. 이는 手指에 생기는 疔瘡의 總稱이다. 發生部位의 차이에 따라 명칭도 다르다. 指頭に 생기는 것은 「蛇頭疔」이라 하고 指甲의 兩傍에 생기는 것은 「蛇眼疔」이라 하여 指甲根의 後面에 생기는 것은 「蛇背疔」이라 하고 手指의 中節에 생기는 것은 「蛙節疔」이라 하며 手指中節의 掌面에 생겨서 魚服처럼 腫脹하고 赤色을 띠며 疼痛하는 것은 「蛇腹疔」或은 「魚肚疔」이라 하며 손가락 전체가 腫脹하여 紫色을 띠고 형태가 니추같으며 燥熱 疼痛이 手掌 手背와 肘臂에 까지 미치고 惡寒發熱을 隋伴하는 것은 「泥鰍疔」이라 한다. 모두 破傷口에서 感染되거나 或은 臟腑의 火毒이 鬱發된 所致이다. 각종 指疔은 일반적으로 疼痛이 비교적甚하고 腫勢가 언제나 手指에 미치게 된다. 適時에 治療하지 않으면 指掌筋骨을 損傷하게 되고 或은 「疔瘡走黃」등증을 并發하게 된다.

蜘蛛鼓(지주고)

「鼓脹」의 項 參照.

枳朮丸(지출환)

「方」의 項 參照.

指鍼(지침)

醫師가 手指로써 一定部位의 皮膚(穴位)를 按壓 揉摩 혹은 爪切 (左拇指爪로써 穴位를 누르고 右手에 권 鍼으로 그 곁에 刺入하는 方法)하여, 金屬鍼의 皮下刺入에 代用하는 一種의 簡便한 治療方法이다.

至虛有盛候(지허유성후)

「眞虛假實」의 項 參照.

止血(지혈)

出血症을 治療하는 方法이다. 「清熱止血」, 「補氣止血」, 「祛瘀止血」等으로 나뉜다. 淸열 지혈(淸열지혈);血熱의 妄行으로 인한 出血을 治療하는 方法이다. 例컨대 胃熱에 의한 吐血로서 血色이 鮮紅하고, 口乾咽燥하며, 舌强脣紅하고, 脈洪數한 경우, 荊草筋, 阿膠, 黃芩, 側柏葉, 生地黃, 小檗等을 쓴다.

直視(직시)

患者가 意識이 朦朧한 狀態에서 兩眼을 前向凝視하는데 眼睛에 神氣가 없는 症狀을 말

함. 通常 其他의 腦神經症狀과 同時에 發生한다. 대개는 肝風內動의 所致이다. 中風, 驚風, 癇癎等病에서 볼수 있다.

直接灸(직접구)

艾柱를 直接 穴位의 皮膚상에 놓고 點燃하는 一種의 方法이다. 刺戟량의 대소와 癍痕의 形成여부에 따라 癍痕구와 무癍痕구의 二種으로 나누어진다.

直中(직중)

病邪가 三陽經을 거쳐 傳變하지 않고, 直接 三陰經을 侵犯하는 것으로 發病時에 三陽經의 症候는 없고, 三陰經의 症候를 出現하는 것을 말함. 故로 直中三陰이라고도 함.

直中三陰(직중삼음)

「直中」의 項 參照.

直鍼刺(직침자)

十二刺法의 一種 病位가 比較的 얇은 한기를 治療하는데 쓰인다 그 자법은 皮膚를 집어 올리고 皮下에 刺入하되 심자하지 않는다 (『靈樞』「官鍼篇」)

疹(진)

「斑疹」의 項 參照.

唇(진)

口外에 唇이 있으며, (飛門)이라고도 함. 脾氣의 「散氣」作用에, 脾의 血液統攝機能이 添加되어 「營氣」를 全身에 輕布하므로, 口唇의 色澤鮮明與否가 脾의 機能을 反映하게 된다.

津(진)

「津液」의 項 參照.

鎮肝熄風(진간식풍)

「平肝熄風」의 項 參照.

津氣(진기)

이는 津을 機能에서 말한 것이다. 津은 맑고(淸) 묽어(稀) 陽에 속한다. 津의 肌膚를 溫養하는 機能이 氣의 輸布作用에 依存함은, 津의 活動이 氣와 分離할 수 없음을 말해주며, 津의 이러한 機能活動의 具體的 體現을 津氣라 한다.

眞氣(진기)

精氣라고도 함. 靈樞 刺節眞邪篇에서 “眞氣者 所受於天 與穀氣併而充身(者)也”라 하였

다. 이는 眞氣가 先天之氣(즉 先天의으로 받은 元氣)와 後天之氣(呼吸과 飲食에서 얻음)의 結合으로 이루어지며, 全身을 充養하는 것임을 說한 것이다. 人體의 各種機能活動과 抗病能力은 모두 眞氣와 直接 相關하므로, 眞氣는 人體의 生命活動의 動力이 된다.

眞頭痛(진두통)

頭痛증의 하나이다. 主要症狀은 頭痛이 劇烈하여 참기 어렵고 腦戶(後頭部の 穴位 風府穴의 上)까지 連하여 盡痛하며 肘膝關節以上の 手足이 厥冷한다. 先人은 이를 邪氣가 腦戶로 入한 所致로 認識하였다. 腦는 髓海로써 眞氣가 모이는 곳이며 受邪하면 疼痛을 참을수 없어서 頭痛증의 危重한 病證이 된다. 그 중의 一部는 頭蓋內的 疾患과 有關한 境遇도 있다.

診法(진법)

병을 診察하는 方法 四診과 辨證의 두개 部門을 包括한다. 四診은 望, 聞, 問, 切 등의 方法을 運用하여 病情의 客觀的 證據를 蒐集하는 것이고 辨證은 이들 證據에 對하여 分析 綜合하는 過程이다. 兩者를 相互 配合하여 正確한 診斷을 내린다.

眞水(진수)

「腎陰」의 項 參照.

眞實假虛(진실가허)

實邪가 結合된 病證에 도리어 虛弱과 類似한 假象이 出現하는 것. 이런 情況을 大實如羸狀이라고도 한다. 例컨대 熱厥證은, 熱邪의 鬱結이 깊을수록 四肢의 厥冷이 더욱 뚜렷해지는데, 脈을 初按하면 마치 沈伏한 것 같지만, 重按하면 手指에 有力한 反應이 있고, 舌質이 紅絳하며, 或은 焦黃苔가 있고, 或은 高熱 神昏 譫語 등을 나타낸다. 그러므로 虛實의 眞假를 辨別함에는, 脈象과 舌象, 體質과 病歷등을 結合시켜 全面的인 分析을 하도록 注意 해야 한다. 그런데 實熱의 內閉에서 脫症으로 轉變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臨床上 特히 詳細히 辨別해야 한다.

鎮心(진심)

「重鎮安心」의 항을 참조.

眞心痛(진심통)

心絞痛(狹心症)과 類似하다. 主要症狀은 心前區에 發作性 絞痛이 있고 언제나 心胸의 閉悶感을 隨伴하며 甚하면 大汗, 肢冷, 紫紺 등의 現狀이 나타난다. 心窩部の 疼痛(즉 胃脘痛, 古書에서는 心痛 心下痛이라고도 하였음)과 區別하기 위해 이렇게 이름한다.

眞牙(진아)

智齒(사랑니)를 말함. 「素問·上古天真論」에서 “(女子)三七 腎氣平均 故眞牙生而長極”,

또 “(男子)三八 腎氣平均, 筋骨勁強, 故眞牙生而長極”이라 하였다. 이는 女子 21歲, 男子 24歲前後에 腎氣의 發育이 成人程度에 到達하므로 智齒가 生長하여 齒牙가 完全히 갖추어진다는 것이다.

津液(진액)

①一般的으로 體內的 一切 水液을 말함. ②飲食物의 精微가 胃 脾 肺 三焦等 臟腑의 共同作用을 通하여 化生된 營養物質. 津液이 經脈內的 것은 血液을 組成하는 成分이 되고, 經脈外的 것은, 組織의 間隙속에 고루 分布된다. 津과 液을 通常 併稱하는데, 兩者의 性質 分布部位와 具體的 機能面에서는 다른 點이 있다. 津은 比較的 清稀하여, 關節 腦髓 孔竅에 分布되어 이들을 濡養한다. 그런데, 全體機能面에서 말하면, 津과 液은 相互 影響을 미치고, 相互 轉化한다. 津液은 組織器官을 營養하고 潤澤케 할뿐만 아니라, 體內的 情況과 外界氣候의 變化에 따라, 體內陰陽의 相對的平衡에도 關係한다. 例컨대, 炎暑에 汗多하면 小便이 적고, 寒天에 汗少하면 小便이 많아진다. ③汗 혹은 小便을 뜻함. 例컨대, 靈樞 決氣篇에서 “腠理發泄 汗出溱溱 是爲津”이라 하였다. 이 津은 汗을 말한다. 또, 『素問』「靈蘭秘典論」에서, “膀胱者 洲都之官 津液藏焉”이라 하였다. 이 津液은 小便을 말한다. 汗出이 過多하거나 혹은 排尿가 過多하면(例 糖尿病, 尿崩症等) 모두 一定程度以上으로 體內的 津液을 耗損케 한다.

眞陽(진양)

「腎陽」의 項 參照.

眞熱假寒(진열가한)

陽證이 陰證 비슷한 一種의 證狀이다. 病은 本來 熱證에 屬하는데, 熱이 極點에 達하므로, 手足冰冷, 脈細등의 假寒證象을 나타낸다. 假寒을 辨證하는 要點은 다음과 같다. 患者가 惡寒하지만 옷을 입거나 이불을 덮으려 하지 않고, 手足이冰冷한데 胸腹은 灼熱하며, 아울러 煩渴, 咽乾, 口臭, 舌苔黃乾, 小便黃, 大便臭穢或秘結, 腹部脹痛, 脈細而按之有力 등의 證狀을 나타낸다. 實質上 이들은 모두 熱의 證候이다. 「陽盛格陰」의 項參照.

眞元下虛(진원하허)

「腎陽虛」의 項 參照.

振慄(진율)

「寒慄鼓含」의 項 參照.

眞陰(진음)

「腎陰」의 項 參照.

眞陰不足(진음부족)

「腎陰虛」의 項 參照.

鎮潛(진잠)

「潛鎮」의 項 參照.

眞臟脈(진장맥)

五臟의 眞氣가 露顯된 脈象이다. 五臟의 病이 嚴重한 段階에 이르면 해당 臟器의 精氣가 衰竭하고, 胃氣가 絶滅直前이 되므로, 各各 特殊한 脈狀을 나타내는데, 모두 胃, 神, 根의 脈氣가 없으며, 특히 從容과 和緩의 象이 없다. 中 肝의 眞臟脈은 弦強勁急하며, 脈象의 緊張度가 매우 높아서 按脈하면 銳利한 칼날에 닿는듯하다. 心의 眞臟脈은 堅強하여 손을 치는 것 같다. 肺의 眞臟脈은 大하고 空虛하다. 緊의 眞臟脈은 끈 줄이 끊어지는 듯이 손을 치고, 或은 手指으로 돌을 튀기는 것처럼 堅實하다. 脾의 眞臟脈은 軟弱 無力하며, 매우 느리고 不均하다(素問,玉氣眞臟論). 眞臟脈의 出現은 어떤 慢性病의 豫後를 診斷함에 있어서 一定한 臨床意義가 있다. 그러나 東西醫의 臟腑에 대한 개념이 다르므로, 臨證分析時에 억지로 適用해서는 안된다.

眞臟色(진장색)

五臟의 精氣가 發露된 색깔을 말함. 色診上 面部의 色澤이 明潤하게 含蓄된 것이 佳하다. 明潤은 胃氣가 있는 것이며, 含蓄은 五臟의 精氣가 充足한 것이다. 이에 反하여 枯槁한 것은, 胃氣가 없는 것이며, 色澤이 두드러지게 露顯되는 것은 五臟의 精氣가 衰竭한 것이다. 이와같이 枯槁하고 露顯된 色澤은, 五臟의 精氣가 已竭된 反映이며, 五臟의 眞氣가 밖에 發露된 것이므로 이를 「眞臟色」이라 稱한다. 이는 比較的 重한 內臟疾病임을 나타낸 것이다. 例컨대 黃色인 境遇, 面,目,全身이 枯槁하여 黃土와 같거나 或은 乾枯한 枳實과 같은 것을 脾의 眞臟色이라 하며, 脾가 이미 衰敗함을 表示한다. 滿期の 肝硬火, 肝癌, 脾臟癌 或은 어떤 重한 營養代謝障礙疾病 등에서 볼 수 있다. 眞臟色の 出現은 어떤 重한 病變의 診斷에 일정한 臨床的 意義가 있지만, 五行에 五色을 配合하는 說을 機械的으로 適用해서는 안된다.

振挺(진정)

正骨用의 打擊工具이다. 直徑 2-3cm의 小木棒이다. 用度 ①骨傷局部의 瘀血腫脹에는, 가볍게 患部의 周圍를 두드린다. ②頭, 胸의 打撲傷에는, 枕을 頭部에 감고 가볍게 足心を 두드린다. 氣血의 流通, 瘀血, 腫脹을 돕는 作用이 있다.

眞睛破損(진정과손)

眼球에 異物에 찔리거나, 或은 跌仆하여 眼球에 穿孔된 것이며, 이는 一種의 重한 眼病이다. 處理를 잘못하면 失明하게 된다.

眞中風(진중풍)

「中風」의 項 參照.

診指紋(망지문)

指紋은 食指掌面の 淺表小淨脈을 말함. 幼兒의 皮膚는 薄嫩하여 靜脈이 쉽게 드러난다. 故로 指紋이 比較的 뚜렷하며, 以後 年齡이 增大됨에 따라 指紋이 增厚되면 指紋이 漸次 模糊不明瞭해진다. 小兒는 診脈部가 短小하고, 診病시에 매번 울고 躁動하므로 脈象의 眞實성에 影響을 미친다. 故로 3歲以下の 幼兒에게는 痛상 指紋의 變化를 結合시켜 切診의 補助로 삼는다. 診指紋은 主로 그 색깔과 充盈度を 觀察하는데, 檢査者는 左手의 食,모 二指으로 小兒의 食支末短을 잡고, 右手의모指로써 小兒의 食指를 指短에서 指根部를 향해 數次 가볍게 推動하여 指紋이 더욱 두드러지게 한 然後에 觀察한다. 正常指紋은 紅黃色이 隱隱하면서 鮮明하고, 一般的으로 掌部로 連하는 第一指節을 超過하지 않는다. 病理情況下에서 指紋이 浮現하는 것은 대개 表證에 屬하며, 沈着한 것은 대개 裏證에 屬한다. 色이 軟한 것은 대개 虛證寒證에 屬하고 紫紅色이면 대개 熱證에 屬하며, 靑紫色은 驚風 風寒 痛證 傷食 風痰 등에서 볼 수 있고, 黑色은 대개 血瘀에 屬한다. 指紋의 分節과 伸延에 관한 問第는 透關射甲의 項을 參照할 것. 最近에는 指紋의 變化가 靜脈압과 有關한 것으로 본다. 靜脈압이 높을 수록 指紋의 充盈도가 커지고, 또 指尖方向으로 더 伸延된다. 指紋의 色澤은 또 酸素缺乏이나 貧血 등의 病理變化와 有關한 것으로 본다. 따라서 指紋은 어느 정도 病變의 性質과 輕重을 反映하게 된다.

臍脹(진창)

臍은 飽脹을 뜻함. 則 上腹部가 脹滿한 症狀이다. 대개 脾의 運化機能이 失調되고 消化不良에 의해 생긴다. 素問·陰陽應象大論에서 말한 “濁氣在上 則生臍脹”이다.

診尺膚(진척부)

兩腕의 肘關節(尺澤血)下에서 寸口部位에 이르는 皮膚을 尺部라 한다. 尺部の 診察은 古代의 切診의 內容中 하나이며, 이곳 肌部の 潤澤, 粗糙, 冷熱 등의 情況診察을 包括하며, 全身症狀, 脈象 등과 結合시켜 病情을 測知하는 것이다. 이 診法은 현재 그다지 應用되지 않는다.

進鍼(진침)

內鍼이라고도 함 鍼刺手法의 하나이며 毫鍼을 체내에 刺入하는 方法이다 조작상 一般的으로 순안경맥 단안穴位등의 예비수법을 통하여 鍼을 천부에서 예정된 심도까지 刺入한다.

振寒(진한)

추워서 全身이 振動함을 形容한 것이며 추워서 몸이 떨린다는 뜻이다.

眞寒假熱(진한가열)

陰證이 陽證 비슷한 一種의 證狀이다. 病은 本來 寒證에 屬하는데, 寒이 極點에 達하므로, 身熱, 面色浮紅, 口渴, 手足躁優不寧, 脈洪大 등의 假熱現象을 나타낸다. 假熱을 辨證

하는 要點은 다음과 같다. 患者가 몸은 熱한데, 衣服을 껴입고 이불을 덮으려 하며, 口渴하지만 많이 마시지 않으며, 手足은 躁優하지만 神志는 安定하고, 苔가 黑色을 띠더라도 滑潤하며, 脈이 洪大하지만 按之하면 無力하다. 實質上 이들은 모두 虛陽이 外表에 露顯된 一種의 假象이다. 陰盛格陽의 項 參照.

眞虛假實(진허가실)

虛弱한 病證이 嚴重한 段階로 發展하면, 도리어 强盛과 類似한 假象이 出現하는데, 이런 情況을 至虛有盛候하고도한다. 例컨대 嚴重한 貧血에, 高熱 脈洪大가 나타나서, 마치 陽明實熱證과 비슷하게 되는데, 脈이 洪大해도, 重按하면 葱管과 같은 芤脈이며, 舌質이 淡白 或은 嫩紅하고, 오래 된 黃苔가 없는 것이 그 鑑別點이다. 그러므로 虛實의 眞假를 辨別함에는 脈象과 舌象, 體質과 病力等を 結合시켜, 全面的인 分析을 하도록 注意 해야 한다.

診虛里(진허리)

切診中, 診胸腹의 內容의 하나이다. 虛里는 心尖搏動部位이며, 胃의 大絡이다. 사람은 胃氣를 本으로 삼으며, 虛리는 또 宗氣가 集結하는 곳이므로, 虛리의 動勢를 診하면 胃氣와 宗氣의 盛衰를 살피는데 도움이 된다. 正常的인 情況에서는, 虛리의 動勢가 按하면 應手하되 動而不緊하고 緩而不及하다. 만약 按하여 動態가 微弱한 것은 不及이며, 이는 宗氣의 內虛이다. 만약 動하여 衣服에 反應되는 것은 太過이며, 이는 宗氣의 外泄이다. 만약 搏動이 특히 빠르면 대개 胸腹部의 積熱이며, 邪氣가 熾盛하거나 或은 精氣가 衰하여, 虛陽이 外脫하는 것이다. 만약 躁動이 靜止되면 宗氣가 이미 絶滅한 것으로 病이 위?에 屬한다.

津血同源(진혈동원)

津液과 血은 모두 飲食의 精氣에서 來源하며, 相互資生하고, 相互作用을 한다. 津液의 耗損은 언제나 氣血을 同時에 虧虛케 하고, 氣血의 虧虛는 마찬가지로 津液의 不足을 惹起한다. 例컨대 大汗, 大吐, 大瀉 혹은 溫病으로 津液을 耗損했을 때, 往往 心悸氣短, 四肢厥冷, 脈微細 등 氣血虧虛의 證候를 續發한다. 大量失血후에는 언제나 口渴渴, 舌乾無津, 尿少便秘 등 津液不足의 現象을 나타낸다. 고로 靈樞 營衛生會篇에서, “奪血者無汗, 奪汗者無血”이라 하였고, 傷寒論에서도 항상 失血하거나 出血이 많은 환자(亡血家라 함)를 發汗시켜서는 안된다고 하였다. 이러한 見解와 經驗은 모두 津과 血사이의 密接한 關係를 말해 주는 것이다.

眞火(진화)

「腎陽」의 項 參照.

診胸腹(진흉복)

切診의 內容의 하나이다. 病者의 胸腹部를 切接하여, 病痛의 部位, 範圍의 大小, 冷熱, 硬度, 喜按 拒按의 性質 등을 알게 된다. 痞滿積液, 癥瘕, 積聚(包塊) 등流의 病變의 檢

査方法으로도 쓰인다.

疾脈(질맥)

脈象의 一種. 脈象이 異常하게 急速하여, 醫師의 1回 正常呼吸에 患者의 脈搏이 7-8回 (1分간 120-140回)에 달한다. 대개 陽熱極盛 陰氣欲竭의 所致이다. 熱性病의 熱邪이 極盛한 段階 或은 重證結核病, 心筋炎 등에서 볼 수 있다. 이밖에 妊産婦의 妊産시에도 疾脈을 볼 수 있다.

疾徐補瀉(질서보사)

古代鍼刺手法의 一種이다. 즉 緩慢하게 進鍼하여 신속히 出鍼하는 것이 補法이고, 신속히 進鍼하여 천천히 出鍼하는 것이 瀉法이다.

疾醫(질 의)

「周禮·天官」의 記載에 의하면, 周代의 醫學은 四科로 나뉘었다. 즉, 「食醫」, 「疾醫」, 「瘍醫」, 「獸醫」이다. 疾醫는 現在의 內科醫에 該當한다.

癥疝(징산)

古病名이다. 主要症狀은, 臍中の 氣가 갑자기 脹滿하여, 胃腸이 手臂上으로 隆起 膨脹하며, 胃脘部이 疼痛한다.

癥瘕積聚(징가적취)

癥瘕와 積聚는 모두 腹內的 積塊이며, 或은 疼痛하는 一種의 病症이다. 癥과 積은 有形이며, 固定되어 移動하지 않고, 痛處도 一定하며, 病이 臟에 있고, 血分에 屬한다. 瘕와 聚는 無形이며, 聚散이 無常하고, 痛處가 一定하지 않으며, 病이 腑에 있고, 氣分에 屬한다. 적취는 中焦의 病變에 많고, 癥瘕는 下焦의 病變과 婦人科疾患에 많으므로, 名稱이 다르다. 이들 病因은 대개 情志鬱結, 飲食內傷 등에 起因하며, 肝脾를 受傷케 하여, 臟腑가 調和를 잃고, 氣機가 阻滯되며, 瘀血이 內停해서, 長期間에 걸쳐 漸次 蓄積되어 생긴다. 正氣의 不足이 本病發生의 主要原因이 된다.

搓鍼(차침)

鍼刺手法의 하나이다. 그 方法은 鍼을 體內에 刺入한 후 右手의 拇指와 食指로써 鍼을 한 방향으로 捻轉(실을 꼬듯이)한다. 이 方法은 鍼感을 強化하는 作用이 있다. 鍼을 捻轉할때 너무 빠듯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筋肉組織의 纖維가 달라붙어 激痛을 일으키는 것을 防止하기 위해서이다.

差後勞復(차후노복)

「勞復」의 項 參照.

錯經(착경)

「經行便血」의 項 參照.

着痺(착비)

「濕痺」의 項 參照.

錯語(착어)

病態하에서 患者의 精神이 맑으면서 言語가 錯亂되는데, 말한 後에 스스로 錯語를 알게 되는 症狀이다. 대개 心氣가 虛하고, 精神이 不足한 所致이다.

纂(찬)

「會陰」의 項 參照.

贊刺(찬자)

十二刺法의 一種 癰腫을 治療하는데 쓰인다. 그 刺法은 患部에 鍼을 直入直出하되 여러 차례 淺刺를 反復하여 患部에서 出血시킨다.(『靈樞』『官鍼篇』)

察目(찰목)

望診內容의 하나이다. 目の 神氣를 觀察함은, 內臟精氣의 盛衰을 아는 데 도움이 된다. 精氣가 充實하면 目に 有神하고 視物이 明瞭하다. 精氣가 衰하면 目に 無神하고 視物이 不明瞭하다. 『素問』『脈要精微論』에서 “夫精明者 所以視萬物 別白黑 審短長. 以長爲短 以白爲黑 如是卽精衰矣”라 하였다. 「察目」에는 또 그 色澤의 變化에 注意해야 한다. 「五色主病」의 項 參照.

參伍不調(참오뒤횘조)

脈搏의 리듬이 不調하여, 搏動이 難澁한 것을 말함.

鑱鍼(참침)

古代 九鍼의 一種이다. 鍼의 頭部가 膨大하고 末端이 銳利하다. 淺刺에 쓰이며 熱病 皮膚病을 治療한다.

瘡家(창가)

①刀劍에 傷하여, 失血過多한 病因을 말함. ②平素 언제나 瘡·瘍·癰·癰이 있는 病因을 말함. 이러한 病因에 대하여, 張仲景이 『傷寒論』에서, 發汗法을 써서는 안된다고 하면서, 만약 汗出하면 瘰癧를 일으킨다고 하였다.

瘡癆(창로)

「流痰」의 項 參照.

倉廩之官(창림지관)

倉廩은 穀物의 貯藏倉庫이다. 倉廩之官은 脾胃를 뜻함. 素問 靈蘭秘典論에서 “脾胃者, 倉廩之官, 五味出焉”이라 하였다. 그 뜻은, 胃主受納, 脾主運化이며, 五味(飮食物)를 化生하는 本源이며, 臟腑器官과 全身에 營養을 提供하는 倉庫이므로 이렇게 이름한다. 倉廩之官은 胃만을 뜻하는 것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다.

倉廩之本(창림지본)

「腑輸精於臟」의 項 參照.

瘡瘍(창양)

外科의 臨床에서 常見되는 多發性 疾病이다. 外科疾患은 一般的으로, 瘡瘍과 腫瘍과 潰瘍이 包含된다. 例컨데 癰疽, 疔瘡, 癰腫, 流炎, 流注, 瘰癧等이다.

跖(척)

①足掌 발바닥. ②足大趾下面의 先端部分. 足大趾球部に 해당함.

脊(척)

脊椎骨을 말함. 漢醫書에서 말하는 脊은 대개 第一胸椎棘突起에서 아래로 第 4骶骨(仙骨)棘突起에 이르는 合計 21節(胸椎 12節, 腰椎 5節, 仙骨 4節)을 말함.

脊疳(척감)

疳積患者가 瘦瘠하여, 尺骨이 드러남을 形容한데서 由來한 名稱이다.

滌痰(척담)

원담을 蕩滌하는 方法이다. 例컨대, 痰飮이 脇下에 停滯되어, 咳嗽客痰할때, 脇下疼痛을 일으키고, 舌苔滑, 脈沈弦한 경우, 十棗湯(大棗, 芫花, 甘遂, 大戟)을 쓴다. 或은 實熱 老痰(宿痰)으로, 癲狂을 發하거나 或은 眩暈하며, 痰이 粘稠하고 많으며, 大便이 秘結되고, 舌苔黃厚而이하며, 脈象이 滑數有力한 경우는, 礞石滾痰丸(大黃, 黃芩, 礞石, 沈香)을 쓴다. 或은 痰이 粘稠하고 많으며, 咳嗽하여 氣가 上逆하면, 皂角을 하存性으로 하여 細研末해서 每服 5分씩 棗膏湯(或은 大棗煎湯)으로 送下한다. 滌痰法은 峻烈하므로 虛弱者에게는 慎用해야 하며, 妊婦와 咯血京鄉이 있는 자에게는 忌用한다.

尺脈(척맥)

「寸, 關, 尺」의 項 參照.

尺部(척부)

「診尺部」의 項 參照.

跖破(척과)

跖은 발바닥을, 破는 절뚝거림을 말함. 足低의 病變으로 因해 破行함을 말함. 『素問』「通平虛實論」에서 “跖破 風寒濕之病也”라 하여, 本證은 風寒濕 등의 邪氣가 侵犯한 所致임을 說明하였다.

腓(천)

腓腸, 腓腓이라고도 함. 俗稱 小腿肚. 小腿部の 隆起된 腓腸筋部分. 장딴지.

燂(천)

「泡」의 項 參照.

天,人,地,三才補瀉(천,인,지,삼재보사)

「提插補瀉」의 項 參照.

喘家(천가)

平素 喘息發作病이 있는 사람을 말함.

天癸(천계)

①男女의 腎精을 말함. 『素問』「上古天真論」에서, “女子는 ……二七에 天癸가 이르러 任脈이 通하고, 太衝脈이 盛하여, 月事가 때로 下함……丈夫는……二八에 腎氣가 盛하여 天癸가 이르러 精氣가 溢瀉됨……”이라 하였다. 이에 依하건대, 天癸에는 性호르몬과 類似한 作用이 있다. ②婦人科에서는, 「天癸」를 때로 月經의 代稱으로 쓰고 있다.

穿踝疽(천과저)

「足踝疽」의 項 參照.

天廓(천곽)

「八廓」의 項 參照.

天灸(천구)

自灸, 冷灸라고도 함. 그 方法은 毛茛 등의 植物(毛茛, 石龍예, 鐵線蓮, 鐵脚威靈仙等)의 新鮮한 全草를 찢어 粘狀을 만들어, 直徑 약 4cm의 술잔에 담아 緊壓하지 않도록 하여, 一定 穴位上에 固定시켜, 患者가 局部에 燒灼感이나 痛痒感을 느끼게 되면 곧 떼야 한다. 이때 皮膚上에 큰 甚黃色의 水泡가 생길 수 있다. 이럴 땐 消毒한 핀셋으로 水泡를 挑破하여, 局部에 消毒 塗布藥을 바르고, 瘡面을 保護한다(와세린, 가아제등을 써서는 안된다). 이 方法은 疔疾, 哮喘, 關節炎 等病에 多用된다.

喘急(천급)

喘促이라고도 함. 이는 喘息의 發作으로 呼吸이 急促함을 形容한 것임.

喘鳴(천명)

喘氣할때 喉間에서 나는 痰鳴聲을 말함. 痰이 盛하고 喘을 일으키는 것을 痰喘이라 한다. 痰喘에 咳嗽을 兼發하는 것을 喘咳라 한다. 대개 慢性氣管支炎, 肺原性心臟病, 氣管支喘息等の 疾患에서 볼 수 있다.

穿牙疔(천아정)

「牙疔」의 項 參照.

膈殞(천연)

『素問』「陰陽別論」에 있음. 膈은 腓腸筋(장단지)이고 연은 痠痛을 뜻함. 腓腸筋이 痠痛하는 症狀을 말함.

遷延痢(천연리)

「久痢」의 項 參照.

天應穴(천응혈)

「阿是穴」의 項 參照.

天人相應(천인상응)

人體의 組織構造, 生理現象 및 疾病이 自然界的 變化와 對應하는 關係를 말함. 「靈樞·邪客篇」에서 “此人與天地 相應者也”라 하였는데, 그 主要精神은, 醫師가 臨床에서 診斷하고 疾病을 治療할 때, 마땅히 四時氣候 등 各種 要因이 疾病의 變化에 미치는 影響에 注意해야 하며, 時·地·人에 따라서 適切하게 對處해야 함을 提示한 것이다. 이것은 天人相應學說의 積極의인 面인데, 이 學說에는 觀念論的인 內容도 包括되었다. 例컨대, 「天有日月 人有兩目」의 類이다. 그러므로 天人相應學說에 對해서는 批判的態度를 가지고 分析을 加하면서 對處해야 한다.

千日瘡(천일창)

「疣」의 項 參照.

天庭(천정)

「庭」의 項 參照.

天釣(천조)

小兒 驚風の 一種이다. 陳治의 『幼幼近編』에서, “天釣屬心肺積熱所致 其證涎潮(입안에

涎液이 많은 것) 搖擗項強痰鳴, 雙眸(兩眼睛)翻上, 爪甲色青 皆痰熱壅滯上焦所致”라 하였다.

天柱骨(천주골)

「頸骨」의 項 參照.

天柱倒(천주도)

頸項이 軟弱無力하여 頭部를 아래로 드리우는 體徵을 말함. 대개 小兒의 發育不全 或은 老人의 體弱者에게서 볼수있다. 만약 久病에서 나타나는 境遇는 腎氣가 大虛하고 精神과 氣血이 俱衰한 徵候이다.

喘證(천증)

呼吸이 促急하고 甚하면 鼻翼이 煽動하며 或은 입을 벌리고 어깨를 들며 平臥하지 못하는 것이 特徵이다. 外感 或은 內傷 등의 疾患에서 볼수 있다. 臨床上 實喘과 虛喘의 二種類로 나눈다. ① 實喘 : 대개 風寒 或은 痰濁, 痰熱 등의 所致이다. 風寒으로 인해 惹起되는 境遇는 처음에 惡寒發熱 등의 表症이 있고 痰濁으로 인해 惹起되는 境遇는 胸中滿悶하고 深하면 기침할 때 胸痛을 일으킨다. 이 兩者는 대개 急性氣管支炎, 氣管支喘息 등의 疾患에서 나타난다. 痰熱로 인해 惹起되는 境遇는 發熱, 咳嗽, 痰盛, 胸痛, 煩躁等症을 나타낸다. ② 虛喘 : 대개 肺弱腎虛에 屬한다. 肺弱한 境遇는 喘促, 短氣, 咳聲低弱, 自汗畏風이 主證이다. 腎虛한 境遇는 呼多吸少하고 움직이면 喘이 甚하며 神疲肢冷이 主症이다.

喘促(천촉)

「喘急」의 項 參照.

天庖瘡(천포창)

이는 天行, 時氣와 有關한 一種의 瘡瘍이다. 대개는 內部에 濕熱이 鬱結되고, 外部에서 風熱暑濕의 氣를 感受하므로 생긴다. 瘡形이 水庖와 같고, 限界가 뚜렷하며, 水庖가 群生하고, 甚하면 疼痛化膿하며, 發熱 惡寒 등의 全身症狀을 隨伴한다.

喘咳(천해)

「喘鳴」의 項 參照.

天行時疫(천행시역)

「時病」의 項 參照.

天行赤目(천행적목)

四季의 風熱 毒厲의 氣를 感受한 所致이다. 그 主要症狀은 眼瞼(눈꺼풀)이 腫脹하며 眼

瞼과 白睛(흰자위)이 紅赤, 痛痒, 流淚하며 眼眵(눈곱)가 粘稠하다. 恒상 兩眼이 前後해서 發病하거나 或은 同時에 發病한다. 本病은 곧 傳染性結膜炎이다.

天宦(천환)

「五不男」의 項 參照.

喘哮(천효)

「哮證」의 項 參照.

睫(칩)

睫毛라고도 함. 上下眼瞼의 邊緣에 있는 細毛로서, 灰塵과 強烈한 光線의 侵目を 防止하는 作用을 함. 즉 속눈썹이다.

睫毛(칩모)

「睫」의 項 參照.

睫毛倒入(칩모도입)

「拳毛倒睫」의 項 參照.

疊磚(칩전)

「攀索疊磚」의 項 參照.

清肝瀉火(청간사화)

「瀉肝」의 項 參照.

清肝火(청간화)

「瀉肝」의 項 參照.

靑光眼(청광안)

「綠風內障」의 項 參照.

清宮(청궁)

「清心」의 項 參照.

清宮湯(청궁탕)

「清心」의 項 參照.

清金(청금)

「清肅肺氣」의 項 參照.

清金降火(청금강화)

「清肅肺氣」의 項 參照.

清氣(청기)

①水穀의 精微之氣를 말함. 즉 胃에서 肺로 傳注된 後, 다시 臟腑組織에 散布되는 營氣이다. ②秋季의 清肅之氣, 혹은 肺에서 吸入되는 大氣를 말함. ③治法으로서, 「氣分」의 熱을 清게 하는 것.

清氣(청기)

性味가 辛한 或은 苦寒한 等의 藥物을 運用하여 裏熱을 清解하는 것이다.熱性病邪가 氣分에 있는 경우에 適用하여 解熱 除煩하고 透熱 出表 시킨다.

清氣凉營(청기양영)

「氣營兩清」의 項 參照.

青帶(청대)

婦女의 陰道에 流出되는 靑綠色의 粘膩하고 臭穢한 液體를 말함. 대개는 肝經의 濕熱이 下注된 所致이다.

青代九科(청대구과)

靑代의 太醫員에서는 醫學의 分科가 不一致하여 五科로 나눈 것도 있는가 하면 十二科로 나눈 것도 있다 靑代九科는 18世紀때에 醫學을 大方脈, 傷寒, 婦人, 小方脈, 瘡瘍, 眼科, 口齒咽喉, 鍼灸, 正骨等으로 나눈 것을 말한다.

清絡補陰(청락보음)

肺의 絡脈의 熱을 清解하여 肺陰을 保구하는 方法이다.暑溫病을 治療한後 諸症이 消退했는데 咳而無痰하고 咳聲이 清高함은 肺의 絡脈중에 아직 有熱하여 肺陰이 耗損적으로 內熱에 의해 消耗되는 것이다.清絡飲(鮮荷葉邊, 鮮金銀花, 西瓜燈衣, 鮮扁豆花, 絲瓜皮, 鮮竹葉心)에 甘草, 桔梗, 杏仁, 麥門冬, 知母를 加하여 쓰면 좋다.

清絡飲(청락음)

「清絡補陰」의 項 參照.

青盲(청맹)

本病은, 肝腎이 不足하고, 精血이 虧損된데다가, 脾胃가 虛弱하여, 精氣가 눈으로 上達하지 못하기 때문에 일어난다. 처음에는 視力이 減退되고, 漸次 發展해서 失明하게 되는데, 이는 病程이 比較적 긴 一種의 慢性眼病이며, 視神經萎縮과 類似하다. 青盲의 初

期段階에서는, 患者가 視物이 흐릿하여 잘 보이지 않음을 自覺하는데, 이를 ‘視瞻昏渺’라 한다. 만약 眼前에 一片의 陰影이 보이고,甚한 경우 靑綠 碧藍色 或은 赤黃色을 띠 것처럼 보이는데, 이를 ‘視瞻有色’이라 한다. 視力이 더욱 減退됨에 따라 失明하게 되는데, 兩眼에 外觀上으로는 異常이 없는 것을 ‘靑盲’이라 한다.

淸法(淸법)

「淸熱法」이라고도 함. 이는 寒涼한 性質의 藥物을 써서 火熱症을 淸除하는 것으로 淸熱, 土禍, 涼血, 祛暑, 生津, 解毒의 作用이 있다. 熱性病과 기타雜病 그리고 膿瘍症에서 出現하는 熱症 等에 적용된다. 熱性病에 사용하는 淸熱法은 病邪의 深淺程度에 따라 使用淸法을 衛分, 氣分, 營分, 血分을 淸解하는 것으로 나누어야 한다. 각 臟腑의 熱은 各臟腑가 表現하는 病症의 차이에 따라 臟腑의 熱을 淸解하는 方法을 分別해서 採用해야 한다. 淸法중의 苦寒淸熱法은 實熱症에 적용되고 甘寒淸熱法은 虛熱症에 適用된다. 淸法을 久用해서는 안된다. 특히 苦寒淸熱法은 脾胃를 損傷하여 消化에 影響을 미친다. 大病後에 體質이 虛弱한 경우나 婦女의 産後에는 淸法을 慎用해야 한다.

淸邪(淸사)

①空間에 있는 霧露의 邪氣를 말함. 『金匱』「臟腑經絡先後病脈證」에서 “淸邪居上 濁邪居下”라 하였음.

淸暑利濕(淸서이습)

夏季의 暑濕證을 治療하는 方法이다. 暑濕의 邪로 인해 惹起되는 發熱, 心煩, 口渴, 小便不利 等症에 六一散(滑石6兩, 甘草1兩을 共研細末하여 매일 3-4錢씩 水煎服한다.)을 쓴다.

淸泄少陽(淸설소양)

淸泄法으로 熱性病의 病邪가 半表半裏(少陽)에 있는 것을 治療하는 方法이다. 春溫病의 初期에 冷熱이 교대로 發하고 口苦脇痛하며 胸悶欲嘔하고 小便이 混濁하며 舌質紅, 苔黃膩, 脈弦滑而數한 경우에 蒿芩淸膽湯(靑蒿稍, 淡竹茹, 仙半夏, 赤茯苓, 黃芩, 生地殼, 橘皮, 碧玉散「注:碧玉散은 滑石, 甘草, 靑黛로 組成됨」)을 쓴다.

淸肅肺氣(淸숙폐기)

「淸金」, 「淸金降火」라고도 함. 肺가 熱하며, 肺氣가 上逆하는 症候를 治療하는 方法이다. 肺氣는 下行하는 것이 順理인데, 만약 火熱이 迫肺하여, 肺氣가 暢通하지 못하고 上逆하면, 咳嗽氣逆, 黃痰咯出, 口乾渴, 舌質紅, 苔黃, 身熱불惡寒, 脈浮數 等症을 發하게 된다. 咳嗽氣逆은 곧 肺氣上逆이며, 그 밖의 症狀은 肺熱의 表現이다. 肺熱을 淸解하고, 肺氣를 下降하는 藥物을 應用하는 것이 淸肅肺氣이다. 쓰이는 약은, 桑白皮, 魚腥草, 蘆根, 板藍根, 金銀花, 蘇子, 前胡, 枇杷葉 等이다. 淸金과 淸金強化는, 모두 肺熱을 淸解하는 것인데, 肺氣를 下降하는 藥을 補助로 써야 하므로 같은 종류의 治法이다.

清心(청심)

「清心滌熱」, 「清宮」이라고도 함. 熱性病의 熱邪가 心包에 轉入된 것을 治療하는 方法이다. 熱邪가 心包에 轉入된 症狀은 神昏하고 橫說豎說 헛소리 하는 것을 爲主로 高熱煩躁不安 하며 舌質絳, 脈細數을 나타내는데 清宮湯(元蓼心, 蓮子心, 竹葉卷心, 連翹心, 連心麥門冬, 犀角尖)을 쓴다. 「궁」은 心포를 말함.

清心開竅(청심개규)

「清熱開竅」의 項 參照.

清心滌熱(청심척열)

「清心」의 項 參照.

清陽,濁陰(청양,탁음)

「清陽」은 體內的 輕清 昇發之氣를 뜻하며, 「濁陰」은 體內的 重濁한 物質을 뜻함. 「素問·陰陽應象大論」에서 “清陽出上竅 濁陰出下竅 清陽發腠理 濁陰走五臟 清陽實四肢 濁陰歸六腑”라 하였다. 이 뜻은, 陽은 氣를 主管하며 輕清 上昇한다. 故로 清陽(主로 呼吸之氣를 말함)은 耳·目·口·鼻 등의 上竅로 出한다. 陰은 形을 主管하며 重濁 下降한다. 故로 濁陰(主로 大小便을 뜻함)은 前後陰 등의 下竅로 出한다. 陽은 衛外를 主管하므로 清陽(衛氣로 解釋된다)는 肌表의 腠理로 發한다. 陰은 內守를 主管하므로, 濁陰(水穀精微의 濃濁部分을 뜻함)은 體內的 臟腑 등 組織機關으로 內走한다. 四肢는 諸陽의 本이 되므로 清陽(衛外의 陽氣)은 四肢를 充實케 한다. 六腑는 水穀을 傳化하므로 濁陰(飲食水穀)은 六腑로 歸流한다. 古人은, 清陽·濁陰을 相對的으로 써서, 具體적이고 비교적 普遍的인 生理現象을 闡明하였다. 아울러 이로써 陰陽互根의 原理를 說明하였다. 故로 清陽과 濁陰에 대한 理解에 總的概念이 있지만은 實際情況과 結合시키면 그 뜻이 때로는 같지 않을 수 있다.

清陽發腠理(청양발주리)

「清陽, 濁陰」의 項 參照.

清陽不昇,濁陰不降(청양불승,탁음불강)

昇清降濁 機能의 障礙를 말함. 脾胃의 陽氣가 不足하여 運化機能이 減弱되면, 水穀의 腐熟이나 精微의 化生이 안되고, 도리어 聚濕 生痰해서, 中焦를 阻滯하여 清陽不昇 濁陰不降의 病理變化를 形成하게 된다. 主要 病狀은, 頭重眩暈 胸悶腹脹 食少 倦怠 大便溏瀉 舌苔白膩 脈濡滑 등이다.

清陽實四肢(청양실사지)

「清陽, 濁陰」의 項 參照.

清陽出上竅(청양출상규)

「清陽, 濁陰」의 項 參照.

靑如草茲(청여초자)

「素問, 五臟生成篇」에 있음. 이는 肝의 眞臟色이다. 草茲는 枯死한 靑草로서, 枯草와 같은 靑黑의 病色을 形容한 것이며, 風邪가 極盛하거나 胃氣가 絶하려고 하는 病, 例컨대 小兒慢驚風이나 破傷風의 遲屬的인 痙攣狀態 등에서 나타난다. 「眞臟色」의 項 參照.

清熱開竅(청열개규)

「清心開竅」라고도 함. 熱症에 의한 神昏을 治療하는 方法이다. 清熱開竅에는 芳香性開竅藥과 清熱藥을 同用한다. 例컨대 熱性病으로, 高熱神昏하며, 譫語하고 煩躁不安하며, 四肢抽搐, 脣焦齒燥한 경우, 그리고 小兒驚厥의 熱症 等에는 紫雪丹(寒水石, 石膏, 磁石, 滑石, 升麻, 元蓼, 羚羊角炒, 靑木香, 犀角炒, 沈香, 丁香, 甘草)을 쓴다.

清熱法(청열법)

「清法」의 項 參照.

清熱熄風(청열식풍)

「瀉火熄風」의 項 參照.

清熱利濕(청열이습)

濕熱이 下注하여 小便脹急, 小便濁赤, 排尿澀痛, 淋瀝不暢, 舌苔黃膩한 경우. 八正散(車前子, 木通, 瞿麥, 扁蓄, 滑石, 甘草稍, 梔子仁, 大黃)을 쓴다.

清熱解毒(청열해독)

여기서 말하는 毒은 火熱이 極盛한 所致인 「熱毒」或은 「火毒」을 말함. 熱邪를 淸解하고 熱毒을 解하는 藥物을 써서 熱性病의 裏熱이 盛하여 發하는 癰瘡, 癰腫疔毒, 斑疹等을 治療하는 것이 清熱解毒法이다. 常用藥은 金銀花, 連翹, 板藍根, 紫花地丁, 半枝蓮等이다.

清熱解暑(청열해서)

清熱藥을 써서 暑熱을 感受하여 濕邪를 兼하지 않은 症狀을 解除하는 方法이다. 熱邪가 營分에 轉入되어 高熱煩躁한 症狀을 위주로 夜間睡眠不安, 舌絳而乾, 脈細數, 口渴 等症을 나타내지만 우려가 없는 경우는 淸營湯(犀角, 生地黃, 元蓼, 竹葉, 麥門冬, 丹蓼, 黃連, 金銀花, 連翹)을 쓴다.

清熱化痰(청열화담)

「化痰」의 項 參照.

清熱化痰開竅(청열화담개규)

小我의 痰熱에 의한 神昏을 治療하는 方法이다. 小我의 痰熱이 內壅하여, 發熱昏睡, 呼吸氣粗, 驚厥發生, 四肢抽축하는 것은 急驚實證에 屬한다. 抱龍丸(天竺黃, 雄黃, 朱砂, 麝香, 陳膽星)을 쓴다.

清熱化濕(청열화습)

「化濕」의 項 參照.

清營(청영)

「清營泄熱」이라고도 함. 熱性病의 營分의 熱邪를 清除하는 方法이다. 熱邪가 營分에 轉入되어, 高熱煩躁한 症狀을 爲主로, 夜間睡眠不安, 舌絳而乾, 脈細數, 口渴 等症을 나타내지만, 厲害가 없는 경우는 清營湯(犀角, 生地黃, 元蔘, 竹葉, 麥門冬, 丹蔘, 黃連, 金銀花, 連翹)을 쓴다.

清營泄熱(청영설열)

「清營」의 項 參照.

清營湯(청영탕)

「清營」의 項 參照.

清營透疹(청영투진)

營分의 熱을 清解하고 아울러 疹이 밖으로 나오게 하는 方法이다. 病人이 高熱煩躁, 夜間睡眠不安, 口渴不甚, 舌絳而乾, 脈細數 等症을 나타내는데 細生地黃, 牡丹皮, 大靑葉 等を 써서 營分의 熱邪를 清解하고 金銀花, 連翹, 苦桔梗, 薄荷, 竹葉, 牛蒡子 等を 써서 透疹케 한다.

清瘟敗毒飲(청온패독음)

「涼血解毒」의 項 參照.

清腸潤燥(청장윤조)

大腸이 燥熱하여 便秘가 되는 症候를 治療하는 方法이다. 大便乾結, 口臭唇瘡, 面赤, 小便短赤, 苔黃燥, 脈滑實한 경우, 麻仁丸(麻仁, 芍藥, 枳實, 大黃, 厚朴, 杏仁)을 쓴다.

清燥救肺湯(청조구폐탕)

「濕劑」의 項 參照.

清肺飲(청폐음)

下病上取의 項 參照.

靑風(청풍)

‘五風內障’의 項 參照.

圉血(청혈)

「清」과 「圉」은 옛날에 同義였으며, 廁所(뒷간)을 뜻함. 便所에서 大便時에 出血하므로 이렇게 이름한다. 「便血」의 項 參照.

體氣(체기)

狐臭라고도 함. 濕熱이 腠理의 汗孔에 鬱結된 所致이다. 遺傳性인 것도 있다. 排出되는 汗液에 코를 찌르는 특유한 냄새가 난다. 狐臭는 대개 腋窩部에서 發하며, 重한 경우는, 乳暈, 臍部, 鼠蹊部, 陰部 等處에서 모두 穢臭가 난다.

涕爲肺液(체위폐액)

「五臟化液」의 項 參照.

滯頤(체이)

小兒가 항상 口涎을 흘려서, 涎液이 頤下로 적시므로, 이렇게 이름한다. 대개 脾氣가 虛冷하거나 或은 實熱로 因해, 津液을 制約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滯鍼(체침)

鍼法操作時에 나타나는 異常反應이다. 毫鍼을 體內에 刺入한 후, 捻轉提插(搗鍼)이 안 되고, 혹은 手法의 操作이 困難한 現象이 나타나는 것이다. 대개는 病人의 精神緊張에 起因하여 筋肉에 痙攣을 일으키거나 혹은 捻轉手法의 폭이 너무 커서 筋의 纖維가 鍼尖에 달라붙은 所致이다. 處理方法은 먼저 病人의 걱정을 解除시키고 然後에 滯鍼部位의 周圍를 가볍게 按摩하고 아울러 鍼을 약간 提插하며 혹은 그 부근에 다시 一鍼을 刺하여 局部의 筋肉을 弛緩시킨 다음 鍼을 拔出한다.

體鍼(체침)

鍼으로 身體 各部의 經脈 穴位를 刺하는 鍼刺療法을 말하는 것이며, 이는 耳針 등에 相對해서 하는 말이다.

炒(초)

藥材를 鍋中에 넣고 加熱하면서 계속 저어 볶는 것. 그 정도에 따라 5種類로 나뉜다. 1)微炒: 藥物의 表面에 수분이 가시고 약간 乾燥하도록 볶는 것이며 현저한 변화가 없다. 2)炒爆: 藥材가 爆裂할 정도로 炒하는 것이며, 種子類의 藥物로서 예컨대 王不留行은 文火(弱火)로 種皮가 爆開하도록 炒한다. 3)炒黃: 藥材가 약간 黃色을 띠게 되고 특수한 香氣가 날 정도로 炒하는 것이며, 예컨대 炒麥芽 炒穀芽 등이다. 4)炒焦: 藥材의 表面이 褐色으로 炒하고 內部가 深黃色이 되도록 炒하는 것이며, 예컨대 神麴 白朮 등이다. 5)炒炭: 藥材全部가 焦黑色이 되면 그 중간은 그냥 黃褐色이 되도록 炒하는 것이

며 이를 「炒存性」이라고도 한다. 예컨대 地榆 生地黃 등이다.

炒灸(초구)

「灸」의 項 參照.

椒餅灸(초병구)

白胡椒의 粉末에 밀가루와 물을 加하여 薄餅을 만들어 쓴다. 餅의 中心에 丁桂散藥末(丁香, 肉桂)을 少量 놓고 그 위에서 艾炷로 施灸한다. 慢性風濕性關節炎에 多用된다.

草藥(초약)

어떤 藥用植物은 一般 韓藥書에는 記載되지 않았으면 혹 記載되었더라도 現在 一般醫師들은 거의 쓰지 않고 民間藥으로 쓰이는 藥用植物을 草藥이라 한다. 最近에는 草藥의 사용이 廣範해져서 國民 保健에 寄與하고 있다.

炒存性(초존성)

「燒存性」의 項 參照.

炒存性(초존성)

「炒」의 項 參照.

初持,久持(초지,구지)

脈診시의 按壓時間을 相對的으로 짧게 或은 길게 하는 것을 말함. 보통, 按壓時間은 1分前後면 된다. 그러나 어떤 脈象, 例컨대 間歇脈(觸脈,結脈,代脈)인 境遇는 3-5分間 按壓해야만 明白한 診察이 된다. 이밖에 또 어떤 病人은 診脈의 環境에 익숙치 못하여, 脈氣에 影響을 미치어, 初持에는 假象을 나타내기 쉬워서, 久持하여 矯正하게 된다.

椒瘡(초창)

本病은 外界의 毒邪를 感受하고 脾胃에 본래 積熱이 있는데다가 風邪가 外襲함으로써 胞瞼(눈꺼풀)의 脈絡이 滯塞되고 氣血이 失調되기 때문에 생긴다. 그 主要症狀은 眼瞼內의 瞼胞에 細小한 顆粒狀의 病變이 생겨 形狀이 椒花와 같으므로 「椒瘡」이라 한다. 本病은 곧 砂眼(트라코마)이다. 患者는 眼內에 沙澁 痒痛을 느끼고 羞明 流淚하며 제때에 치료하지 않으면 眼瞼과 角膜을 損壞하여 翳障이 遺留하게 되어 視力에 影響을 미친다.

炒焦(초초)

「炒」의 項 參照.

炒炭(초탄)

「炒」의 項 參照.

炒爆(초폭)

「炒」의 項 參照.

炒黃(초황)

「炒」의 項 參照.

促脈(촉맥)

脈象의 一種. 脈象이 急, 數하며, 不規則한 間歇性이 있다. 陽熱이 熾盛한데, 氣滯, 血瘀, 停痰, 食積, 및 風濕性心臟病, 冠不全證, 等を 兼有한 境遇에 多見된다.

觸診(촉진)

「切診」의 項 參照.

寸,關,尺(촌,관,척)

寸口脈을 三部로 나눈 名稱이며, 橈骨莖狀突起部位가 關이고, 關의 前部(腕쪽)가 寸이며, 關의 後部(주쪽)가 尺이고, 寸·關·尺 三部의 脈動을 各各 寸脈, 關脈, 尺脈이라 分別해서 稱한다. 三部脈로 臟腑를 살피는 問第에 關하여, 歷代의 論說이 매우 많지만, 基本精神은 一致된다. 卽 臨床上 常用되는 代表的인 區分方法은 다음과 같다. 左手의 寸脈은 心에 候하고, 關脈은 肝에 候하며, 尺脈은 腎을 候한다. 右手의 寸脈은 肺를 候하고 關脈은 脾胃를 候하며, 尺脈은 命門을 候한다. 요컨대 上의 寸脈으로 身體의 上部를 살피고(候), 下의 尺脈로 身體의 下部를 候한다는 原則이다. 이밖에 또 浮, 中, 沈 等各異한 按壓方法을 結合시켜, 各方面에 比較하여 正確한 脈象을 求하고, 다시 四診과 結合分析함으로써 비로소 比較的 正確한 診斷을 얻을 수 있다. 단지 脈診에만 依存할 수 없으며, 또 三部로 臟腑를 살피는 方法을 機械的으로 다룰 수도 없다.

寸口(촌구)

兩手の 橈骨頭의 內側, 搏動脈의 診脈部를 말함. 氣口, 或은 脈口라고도 함. 臟腑經絡學說의 觀點에 依하면, 寸口는 手太陰肺經의 動脈에 屬하며, 肺는 氣를 主管하고 白脈이 모이는 곳이다. 肺의 經脈은 中焦脾胃에서 起하며, 脾胃는 臟腑氣血의 營養의 源泉이 된다. 그러므로 全身의 臟腑 經脈 氣血의 情況이 寸口의 脈象에 體現된다.

寸脈(촌맥)

「寸, 關, 尺」의 項 參照..

寸白虫(촌백충)

囊虫에 感染된 牛肉이나 猪肉을 生食하므로 感染된다. 「古今醫統 虫候有九」에서 “寸白虫 長一寸 子孫繁生 長至四, 五尺 亦能殺人”이라 하였다.

叢毛(총모)

「聚毛」의 項 參照.

葱白七味飲(총백칠미음)

「養血解表」의 項 參照.

叢書(총서)

各種의 單獨 著作을 하나로 모아서 印刷한 書籍이다. 醫書중에 가장 일찍 叢書로 만들어진 것은 元代 두사경의 제생발쭈(1315년)이며 금원의학가 著作 19종이 包括되었다. 일가 或은 사제등이 著述한 醫書を 합쳐서 印刷한 것을 일가叢書라 한다. 예컨대 장씨의 통(1695년)은 靑代 강로 장증, 장탁 삼인의 著作을 包括할 것이다. 宋代에 이르러 동과의 동과醫學론저삼종은 각기치법총요, 小兒반진비급방론, 여사비요방등(1093년)이 包括된 個人의 醫學叢書이다. 明 靑代以後, 叢書가 漸次 增加되어 그중에는 歷代의 많은 珍貴한 醫書가 保存되고 있다.

葱豉湯(총시탕)

「辛溫解表」의 項 參照.

葱豉湯(총시탕)

「小方」의 項 參照.

叢鍼(총침)

약간수의 길이가 같은 毫鍼을 한곳에 并列하여 鍼尖을 가지런히 하는 것을 叢針이라 한다 治療時에는 손으로 鍼柄을 잡고 鍼尖을 皮膚表面에 놓고 挑撥 淺刺한다.

撮空(촬공)

患者가 意識이 不明하며, 兩手를 空間으로 뻗고 뺨을 잡으려고 하는 症狀을 말함. 患者가 兩手를 위로 들고, 拇指와 食指를 계속 비비는 것을 것을 「撮空理線」이라 한다. 이는 病이 重하여 元氣가 곧 離脫되려는 表現이다.

撮空理線(촬공이선)

「撮空」의 項 參照.

撮口(촬구)

「臍風」의 項 參照.

催乳(최유)

通乳, 下乳라고도 함. 産後의 缺乳(無乳汁, 乳汁少量)를 治療하는 方法이다. 1)補益氣血:

氣血이 虛弱한 경우에 適用된다. 그 臨床表現은 乳汁이 全無하거나 혹은 적으며 乳房에 脹痛感이 없고 脣燥色淡하며 舌淡無苔하고 脈이 虛細하다. 黨參 黃芪 當歸 麥門冬 桔梗 通草 等藥을 쓴다. 2)行氣通絡: 氣滯不通한 경우에 適用된다. 그 臨床表現은 無乳汁 혹은 量少하며 乳房이 脹滿疼痛하고 혹은 身熱을 느끼며 精神抑鬱, 胸脇不舒, 胃脘脹滿, 苔薄, 脈弦 等이다. 當歸 川芎 柴胡 香附子 穿山甲片 王不留行 等藥을 쓴다.

催吐法(최토법)

「吐法」의 項 參照.

皺脚(추각)

「子腫」의 項 參照.

推罐(추관)

走罐이라고도 함. 拔罐療法の 一種이다. 腰背部에 多用한다. 罐口가 메끄러운 罐을 選擇하여, 局部의 皮膚에 少量의 油脂를 바르고, 火罐을 썬 후, 皮膚上을 平行으로 上下左右로 수차 移動시킨다.

抽根(추근)

「轉筋」의 項 參照.

秋毛(추모)

正常脈象의 秋季에 있어서의 變化를 말함. 毛는 輕微의 뜻. 秋季는 陽氣가 春夏의 發越에서 收斂으로 轉向하므로 脈象의 搏動幅도 이에 相應하게, 洪盛에서 減弱되어, 약간 浮가 된다.

秋應中衡(추응중형)

「素問, 脈要精微論」에 있음. 衡은 古代의 平衡(밸런스)을 測量하던 器具이다. 秋應中衡은 秋季의 脈象을 衡器에 비유하여, 약간 輕平 虛浮함을 表現한 것임.

秋燥(추조)

秋燥는 秋恔에 燥邪를 感受해서 생기는 疾病이다. 病邪가 口鼻에서 侵入하여 처음에는 眞氣가 乾燥한 症狀이 나타난다. 예컨대 鼻咽乾燥, 乾咳少痰, 皮膚乾燥등이다. 燥에는 二種類의 相異한 性質이 있다. 하나는 寒에 치우치고 하나는 熱에 치우쳐 臨床上 涼燥 溫燥의 二種類型으로 나뉜다. 詳細한 것은 該當項을 參照.

抽風(추풍)

「癰瘰」의 項 參照.

縮脚流注(축각유주)

原因은 「暑濕流注」과 같다. 腸骨窩部の 肌肉深部に 생긴다. 처음에 患側の 大腿가 拘攣하여 不自由하고 漸次 上縮해서 伸直이 안되며 무리하게 펴면 劇痛한다. 腸骨窩부에 圓形腫塊가 만져진다. 化膿후에 누르면 柔軟한데 皮膚色은 不變하고 全身의 壯熱, 自汗, 消瘦, 面色靑白, 舌質紅絳, 脈細數 等症을 나타낸다. 腸骨窩 膿腫의 類이다.

縮脚腸癰(축각장옹)

「腸癰」의 項 參照.

畜門(축문)

外鼻孔, 즉 鼻孔을 말함.

逐水(축수)

「寒下」法の (3)을 말함. 이는 水腫의 實證을 治療하는 方法이다. 瀉水 作用이 峻烈한 藥物(例:牽牛, 甘遂, 芫花, 大戟, 商陵等)을 써서 大量的 水分을 瀉出시킨다.

逐水法(축수법)

「寒下」의 項 參照.

蓄水證(축수증)

足太陽膀胱腑證이다. 主要症狀은, 小便不利, 小腹滿, 睡眠不安하며, 心煩하고, 물을 마셔도 口渴을 느끼며, 약간 惡熱하고, 頭痛하며, 脈象이 浮하다. 이는 發汗後에도 表邪가 未解하여, 膀胱의 氣化機能이 失調되므로, 水가 下焦에 停滯된 所致이다.

逐瘀(축어)

「破瘀消癥」의 項 參照.

祝由(축유)

古代에 祝說病由라는 迷信的方法으로 疾病을 治療한 것을 祝유라 하였다. 祝說이라 鬼神의 일과 통하는 것처럼 옷차림을 하고 鬼神에게 災難을 면하고 病人의 疾病苦痛을 解除하도록 祝수하는 것이다. 古代의 衛生機構에는 대개 祝유과 或은 呪禁科등이 設置되어 있었다.

축한開竅(축한開竅)寒症에 屬하는 神昏을 治療하는 方法이다. 例컨대 腦血管痙攣의 突然昏倒로, 人事不省하고, 面色靑白, 手足發涼, 脈沈한 경우, 蘇合香丸(白朮, 朱砂, 訶黎朮, 麝香, 香附子, 丁香, 沈香, 畢撥, 檀香, 青木香, 安息香, 地殼초, 熏陸香, 蘇合香, 龍腦)을 쓴다.

蓄血(축혈)

「瘀血」의 項 參照.

蓄血鼓(축혈고)

「血鼓」의 項 參照.

蓄血證(축혈증)

傷寒太陽腑證의 一種의 證候이다. 主要表現은, 身熱하고, 神志가 如狂하며, 少腹이 脹滿하고, 拘急不舒하며, 小便이 自利한다. 이는 表熱이 經脈을 따라 入裏하여, 血과 相搏해서, 瘀熱이 少腹에 阻滯되어 心神을 上擾하는 所致이다. 重症일 경우는, 少腹이 硬滿하고, 小便自利하며, 發狂하고, 或은 身體에 發黃하되 색깔이 瘀暗하며, 脈이 沈結하다.

春溫(춘온)

春季에 發生하는 溫病이다. 그 臨床特徵은 처음에 裏熱症邪으로서 高熱, 口渴, 心煩, 小便赤들이 나타난다. 혹은 畏寒裏熱하고 迫冷, 身熱, 無汗, 口渴, 頭痛, 身病, 煩燥不安, 咽乾, 舌質紅, 脈細數等症이 나타난다. 裏熱이 熾盛할 때는 發斑, 神昏, 四肢抽畜等 症이 나타난다. 流行性腦脊髓膜炎 등에서 볼 수 있다.

春應中規(춘응중규)

「素問, 脈要精微論」에 있음. 規는 古代의 圓形을 校正하던 工具로서 圓規의 類임. 春應中規는 春季의 脈象을 圓形에 比喻하여, 약간 圓滑하고 流暢함을 表現한 것임.

春弦(춘현)

正常脈象의 春季에 있어서의 變化를 말함. 弦은 脈勢가 弦線을 통기는 것 같음을 形容한 것이며, 脈氣가 流暢하며 堅緊하고 곧다. 春季는 陽氣가 上昇하고 生發機能이 比較的 滑發하므로 脈象도 現象을 나타낸다.

怵惕(축척)

恐懼의 刺戟을 받아서 일어나는 心跳不安을 말함.

出鍼(출침)

引鍼 排鍼 拔鍼이라고도 함 鍼刺를 완료한 후 한손으로 穴位를 고정하고 한손으로 鍼을 잡아 捻轉하면서 혹은 直接 위로 提鍼하는 등의 수법으로 鍼을 體外에 拔出하는 것이다

虫鼓(충고)

寄生蟲으로 인해 예컨대 吸血蟲等에 의해 惹起되는 鼓脹을 虫鼓라 하며 蟲脹이라고도 함. 或은 蠱라고도 略稱함. 臨床表現은 처음에 腹部가 脹滿하며 脇下에 痞塊가 있고 以後 腹水가 점차 增加하면 面色이 蒼白 或은 萎黃 或은 晦黑해지고 肌肉이 消瘦하며 食量이 減少되고 倦怠無力해진다. 病因은 忠毒이 內部에 結聚되어 肝氣가 損傷되고 脈絡

이 瘀塞되어 升降에 異常을 招來하여 清濁이 뒤섞이기 때문이다.

衝脈(충맥)

奇經八脈의 하나. 小腹內(胞中)에서 起始하여 脊椎骨內部를 沿하여 上行한다(靈樞·五音五味篇). 同時에 또 陰部兩側(氣衝穴部位)에서 開始하여 臍의 兩傍을 끼고 上行하여 胸部에 이른다(素問·骨空論). 本經에 有病하면, 主로 哮喘 腹痛 腸鳴 月經不調 不妊症 等の 症狀과 病症이 나타난다.

虫斑(충반)

蟲積에 의해, 頭面 惑은 頸部에 繼發되는 糠狀 鱗屑의 皮膚病이다. 皮膚의 損傷은, 邊綠이 뚜렷한 圓形 惑은 橢圓型的, 灰白色 惑은 淡白色의 斑이며, 위에는 少量의 灰白色 糠狀의 鱗屑로 덮여있고, 대개 自覺症狀은 없다. 單純性枇糠疹 惑은 白色枇糠疹의 類이다.

沖服(충복)

方劑中の 沈香 木香등 芳香藥의 飮片은 먼저 碗에 넣는다. 그 이외의 藥은 물을 붓고 잘 煎煮하여 뜨거울 때 碗에 부어 잠시 浸積한 다음, 따뜻할 때 藥湯만을 服用한다. 또한 少量의 散劑에 藥湯을 붓고 따뜻할 때 攪拌하여 服用하는 方法도 있는데 「調服」과 같다.

沖服劑(충복제)

韓藥을 精鍊 流出하여 조후한 고상을 만들어 適量의 糖分 교미제등으 가하여 果粒상의 散劑를 만든다. 이를 一定한 分量으로 나누어 병에 넣고 봉구한다. 服用時에 湯水에 녹여서 마신다.

虫獸傷(충수상)

虫獸등 各種動物에 의한 致傷이며, 蛇傷, 大咬傷, 昆虫의 刺傷 등을 包含함.

衝陽脈(충양맥)

「趺陽脈」의 項 參照.

衝爲血海(충위혈해)

「肝主血海」의 項 參照.

衝爲血海,任主胞胎(충위혈해,임주포태)

「衝任損傷」의 項 參照.

衝任不固(충임불고)

「衝任損傷」의 項 參照.

衝任損傷(충임손상)

衝·任 二脈이, 肝腎의 氣血失調나 혹은 感染으로 因해 일으키는 病變을 말함. 衝脈은 子宮에서 起하여 腎脈과 并列上行해서 諸經의 氣血을 總領하는 作用이 있으며, 任脈은 中極의 下에서 起하여 腹部의 正中線 子宮部位를 따라 上行해서, 全身의 陰脈을 調養하는 作用을 擔任하고 있다. 故로 「衝爲血海, 任主胞胎」라는 說이 있다. 이는 衝·任 二脈이 婦女의 月經 妊娠과 密接한 關係이 있음을 말한 것이다. 故로 衝·任 二脈이 損傷된 臨床表現은, 대개 月經不調 下腹疼痛 腰痠痛 및 不妊 等이다. 不固는, 虛하여 固攝하지 못한다는 뜻이며, 崩漏 流産 等症을 發하기 쉬운 것이다.

蟲積(충적)

腹腔의 臟腑(主로 胃腸道)에 寄生하는 寄生蟲病을 말하며 小兒에게 많다. 主要症狀은, 嘈雜, 腹痛하고, 始發始止하며, 오래 되면, 面色이 萎黃하고, 消瘦하며, 或은 腹部膨大 等症을 發한다.

贅疣(취우)

「疣」의 項 參照.

脆脚(취각)

「子腫」의 項 參照.

聚毛(취모)

叢毛라고도 함. 足大趾趾骨의 第1節後方의 皮膚橫紋部(三毛의 後方).

吹鼻(취비)

藥物을 細末로 갈아서 病人이 스스로 吸入하거나 혹은 다른 사람이 病人 鼻腔內에 吹入하는 것이다. 예컨대 慢性副鼻腔炎(蓄膿症)에 黃花魚의 頭部의 魚腦石을 煨研해서 細末하여 少量의 冰片(龍雷)을 加入해서 鼻內에 吸入한다. 感冒의 鼻塞에는 鵝不食草를 갈아서 細末하여 鼻內에 吸入한다.

聚星障(취성장)

本病은, 肝火가 內盛한데다가, 兼하여 風邪가 加해져서, 風熱이 上搏하기 때문에 일어난다. 그 症狀은, 黑睛의 表面에, 세소한 星點이, 통상3~5個씩 群像을 이루며, 灰白色 或은 微黃色을 띠고, 集散을 反復한다. 適時에 治療하면 豫候가 良好한데, 그렇지 못하면, 黑睛 雲翳를 釀成하거나 或은 潰破되는 等の 重症에 빠지기 쉽다.

吹藥(취약)

咽喉部나 口腔의 疾病에 外用하는 散劑이다. 예컨대 咽喉 口舌의 腫痛을 治療하는 冰硼散은 玄明粉 5錢(風化) 朱砂 6分 硼砂 5錢 冰片5分으로 組成되며 각각 極細末로 갈

아서 和均하여 瓶에 넣는다. 사용시에 少量을 噴霧器로 噴入한다(만약 噴霧器가 없으면 종이로 만든 細管을 써서 裝藥吹入한다). 每日 三~四回.

臭田螺(취전라)

「脚濕氣」의 項 參照.

嘴風(노취풍)

「唇風」의 項 參照.

吹花癬(취화선)

風癬을 말하며, 桃花癬이라고도 함. 대개 春節에 發하므로 이렇게 이름한다. 脾胃가 본래 虛한데, 風熱이 內蘊하고, 다시 風邪를 外感한 所致이다. 대개 顔面部에 생기며, 처음에는 皮疹 或은 小瘡과 같고, 이어서 雲形의 片이 생긴다. 긁으면 白屑이 생긴다. 婦女에게서 많이 볼 수 있다.

齒(치)

齒牙의 「戶門」이라고도 함. 齒의 生長狀態와 堅固與否는 腎과 有關하므로, “腎主骨”, “齒爲骨之餘”라 한다. 齒牙의 作用은, 主로 食物을 咀嚼하여 消化되기 쉽게 하는 것이다. 또 唇과 齒는 發音·談話에도 相當히 重要的 補助作用을 한다.

痔(치)

肛門의 內外에 생긴다. 대개, 平素 濕熱이 內積되고, 辛辣 燥熱한 飲食을 過食하므로, 或은 久坐하여 血脈의 循環이 잘 안되거나, 或은 恒상 大便이 秘結하고, 或은 婦人이 出産時에 用力이 過甚하고, 或은 久痢하는 等의 原因으로, 濁氣 瘀血이 肛門으로 流注되기 때문에 생긴다. 主要症狀은, 塊物의 突出, 疼痛, 出血 等이다. 塊物의 位置에 따라, 內痔, 外痔, 內外痔로 나뉜다.

齒齦結瓣(치은결판)

齒齦이 紅腫하여 花瓣狀으로 되는 것. 대개 出血, 疼痛 或은 潰瀾, 口腔에서의 臭穢氣未를 隨伴한다. 이는 熱毒이 內攻하고, 胃火가 熾盛한 所致이다.

治求其屬(치구기속)

『素問』「至眞要大論」에서, “求其屬也”라 하였다. 여기서 屬은 證候와 治法의 連繫를 말한다. 病人의 一連의 證狀이 어느 한 臟의 證候에 屬하는지를 辨別해서, 治法을 確定한다. 例컨대 病人이 怕冷하고, 手足冷, 腰脊痠痛, 陽萎早漏, 苔淡白, 脈沈細한데, 一般的인 溫熱藥을 써서는 效果가 없다. 經과를 分析하면 이는 腎陽虛임을 알 수 있으니, 腎陽을 溫補하는 治法을 써야 한다. 「溫腎」의 項 參照.

齒衄(치늑)

「牙衄」의 項 參照.

治未病(치미병)

1) 豫防의 뜻이 있음. 例컨대 『素問遺篇』「刺法論」에 內服藥으로 疫病을 豫防하는 方法이 있다. 2) 早期治療의 뜻이 있음. 古代醫家は 中風에 豫兆가 있다고 하였다. 例컨대, 頭目眩暈, 母指와 食指의 麻木, 或은 口眼과 肌肉의 無意識的躁動 等은, 한 時期를 지나서 中風이 될 可能性이 있으므로 미리 服藥하여 中風의 突發을 豫防해야 한다고 하였다. 3) 疾病의 發展趨勢를 掌握하는 것이다. 疾病이 五臟의 어느 一臟에 있을 경우, 그 趨勢를 보아, 다른 一臟에 影響을 미치게 됨을 알게 된다. 例컨대 肝氣鬱結證인 경우, 肝病이 脾로 傳病됨을 防止하기 위해 健脾의 治法을 쓰게 되는데, 이 경우 반드시 治肝藥과 同用해야 한다. 「培土抑木」의 項 參照.

治病必求於本(치병필구어본)

『素問』「陰陽應象大論」에 있음. 疾病의 治療時에 반드시 疾病의 根本原因을 追求해야 하는데, 이는 그 陰陽의 偏盛 偏衰를 探求하는 것이기도 하다. 例컨대, 病人이 頭部가 昏暈하고 疼痛하며, 四肢痲痺, 肌肉躁動, 虛煩, 夜寐不安, 面部紅熱, 口乾, 舌質紅, 脈弦細한 것은 肝陰이 不足하고 肝陽이 上亢한 것이니, 滋陰潛陽 養血柔肝해야 하는데, 生地黃, 白芍藥, 當歸, 何首烏, 菊花, 牡蠣, 珍珠母 等 藥을 쓴다. 또한 食物不和, 清水嘔吐, 大便水瀉, 舌淡苔白, 脈沈細한 것은 脾胃陽虛이다. 마땅히 脾胃의 陽을 溫補해야 하니 溫中散寒法을 쓴다.

治削(치삭)

『金匱玉函經』에 있음. 藥材의 雜質을 除去하고 切削하는 등의 操作技術을 包括함. 翳: 1)挑揀: 非藥用部分을 除去하고 藥用部分을 남기는 것. 例컨대 桑螵蛸는 去莖하고 牡丹皮는 去心한다. 2)顛簸: 柳枝나 竹製 道具를 써서 上下左右로 振動하여 藥材中の 泥土灰渣 등의 雜質을 除去하는 것. 3)篩: 藥物을 大小로 구분하고 雜質을 清除하는데 쓰는 것으로, 孔徑이 각이한 竹篩, 銅篩, 馬尾篩 등을 選用한다. 4)刷: 藥物表面의 絨毛, 塵土 등을 除去하는 것. 5)刮: 金屬 혹은 角質의 道具를 써서 藥物表面의 非藥用部分을 除去하는 것. 例로서 肉桂 厚朴의 粗皮를 除去하고 虎骨의 筋肉을 除去하는 것이다. 6)搗: 石製 鐵製 혹은 銅製의 硃구로 搗碎하거나 혹은 去皮하는 것. 例로서 白果 訶子를 去皮하고, 生石膏 龍骨 등을 搗碎한다 7)礮: 대개 鐵製의 藥研을 써서 藥物을 粉末로 礮成하는 것이다. 8)鎊: 特製의 鎊刀를 써서 藥物을 깎아 薄片으로 만든다. 例로서 犀角, 羚羊角 등이다 9)切: 가장 많이 쓰는 方法이다. 切碎, 切塊, 切絲, 切段, 切節, 切片 등이 있다.

齒爲骨之餘(치위골지여)

「骨」의 項 參照.

齒爲骨之餘(치위골지여)

「腎主骨」의 項 參照.

治節(치절)

「肺主治節」의 項 參照.

齒燥(치조)

齒아가 乾燥 不潤한 것. 通常 前板齒(門齒)를 基準으로 한다. 新病으로, 齒燥하며, 口穢, 口乾 등을 隨伴하는 것은 대개 肺胃의 火盛으로, 津液을 大傷한 所致이다. 久病으로, 枯骨처럼 齒燥함은, 대개 腎陰이 甚히 虧耗된 所致이며, 病이 危重한 경우가 많다.

治風先治血,血生風自滅(치풍선치혈,혈행풍자멸)

「去風養血」의 項 參照. 風을 治療함에 있어서 먼저 血을 治하여, 血行하면 風이 自滅된다는 뜻이다.

治風化痰(치풍화담)

「化痰」의 項 參照.

齒痕舌(설흔설)

舌의 邊緣에 齒牙의 痕迹이 나타나는 것. 대개 舌胖에 起因한다. 舌體가 比較的 正常인 者가 약간 肥大하여 齒緣의 壓迫을 받아 이루어지는 것은, 대개 脾虛에 屬한다. 舌質이 淡白하고 濕潤한 것은, 대개 脾虛하고 寒濕이 熾盛한 것이다.

七怪脈(칠괴맥)

生命이 危?할때 나타나는 七腫의 異常脈象을 말함. 즉 雀濁脈, 屋漏脈, 彈石脈, 解索脈, 漁翔脈, 蝦游脈, 釜沸脈의 칠종이다. 이밖에 偃刀脈, 轉豆脈, 麻促脈의 三種을 가하여 十怪脈이라 한다. 이들 脈象은 모두 臟氣가 絶滅直前に 있고 胃氣가 枯渴된 危險한 證候를 反映한 것이다.

七竅(칠규)

頭面部의 七個孔竅를 말함. 즉 眼二 耳二 鼻孔二 口이다. 五臟의 精氣는 七竅를 통하며 五臟에 有病하면 七竅의 變化에서 一部 診斷의 印象을 얻을 수 있다.

七厘散(칠리산)

「祛瘀消腫」의 項 參照.

七方(칠방)

方劑組成的 差異에 따라 分類한 것을 七方이라 한다. 즉 大方, 小方, 緩方, 急方, 奇方, 偶方, 腹方이다(注:方劑組成的 分類로서 가장 오랜것은 素問 至眞要大論에서 “治有緩急, 方有大小”, “君一臣二 奇之制也, 君二臣四, 偶之制也”, “奇之不去則偶之 是謂重方”이라

한 것이다. 金代에 이르러 成無己는 傷寒明理論에서 大·小·緩·急·奇·偶·複의 七方으로 定하였다.)

七疝(칠산)

옛 醫書에서 疝氣를 七種類로 나눈 合稱이다. ①厥疝, 癰疝, 寒疝, 氣疝, 盤疝, 附疝, 狼疝을 말함(諸病源候論). ②寒疝, 水疝, 筋疝, 血疝, 氣疝, 狐疝, 癰疝을 말함(『儒門事親』). ③衝疝, 狐疝, 癰疝, 厥疝, 瘕疝, 瘻疝, 瘻癰疝을 말함(『醫宗必讀』).

七傷(칠상)

①七情의 勞傷의 病因. 「諸病源候論·虛勞候」에서, “一曰大飽傷脾…… 二曰大怒氣逆傷肝…… 三曰強力舉重久坐濕地傷腎…… 四曰形寒, 寒飲傷肺…… 五曰憂愁思慮傷心…… 六曰風雨寒暑傷形…… 七曰大恐懼不節傷志”라 하였다. ②腎氣虧損의 七個症狀. 「諸病源候論·虛勞候」에서 “七傷者 一曰陰寒 二曰陰萎 三曰裏急 四曰精連連(精易滑出) 五曰精少 陰下濕 六曰精清(精氣清冷 精液稀薄) 七曰小便頻數 臨事不卒(小便頻數 淋瀝不清或尿中斷)”이라 하였다.

七星鍼(칠성침)

「皮膚鍼」의 項 參照.

七損八益(칠손팔익)

『素問』「陰陽應象大論」에서, “能知七損八益 則二者可調 不知用此 則早衰之節也”라 하였다. 이는 男女의 生長發育에서 老衰에 이르는 生理過程에 重點을 두고, 아울러 早衰의 豫防과 關聯시켜 論述한 것이다. 歷代 注家の 이에 대한 解說이 各異하다. 例컨대 ①七은 陽數이고 八은 陰數이다. 損은 消이고 益은 長이다. 陽은 消해서는 안되며, 陰은 長해서는 안된다. 이에 反하면 病이 된다. 故로 七損八益을 알아서, 그 消長の 機를 察하면 陽氣가 旺盛하여 陰邪의 侵襲을 받지 않고, 陰陽을 調和시킬 수 있다(『內經知要』). ②陽은 언제나 有餘하므로 損해야 하며, 陰은 언제나 不足하므로 益해야 한다. 이 道理를 明白히 하면 陰精의 虧損을 避하게 됨으로써 陰陽을 調和하게 되어, 早衰를 防止한다(張志聰註). ③『素問·上古天真論』에 依해 說한바, 女子는 「二七」 즉 14歲에 月經來潮가 開始되며, 以後는 月經血의 盈滿에 따라 月經이 오는데, 이것이 正常生理現像이며 「七可損」이다. 男子는 「二八」, 즉 16歲에 精氣가 溢瀉하며, 房事로 泄精하니, 마땅히 益精해야 하며, 「八可益」이다(王冰注).

七惡(칠악)

① 瘡瘍의 7種의 危險한 證候를 말함. 두가지 說이 있다. 1)薺德之說: 一惡은, 煩躁하고 때로 嗽하며, 腹痛渴甚하고, 或은 泄痢無度하며, 或은 小便如淋하다. 二惡은 膿血이 이미 排泄되었는데 腫焮이 尤甚하고, 膿色이 敗臭하며, 疼痛으로 不可近하다. 三惡은 目視不正, 黑睛緊小, 白睛青赤, 瞳子上視한다. 四惡은, 粗喘短氣, 恍惚嗜臥한다. 五惡은, 肩

背不便, 四肢沈重하다. 六惡은 不能下食, 服藥而嘔, 食不知味하다. 七惡은, 聲嘶色敗, 脣鼻青赤, 面目浮腫한다. 2) 陣實功說: 一惡은, 神志昏憤, 心煩舌乾, 瘡形紫黑, 言語昏亂하다. 二惡은, 身體強直, 目睛斜視, 瘡流血水, 驚悸不寧하다. 三惡은, 形體消瘦, 膿清臭穢, 瘡處軟陷, 不知疼痛한다. 四惡은, 皮膚枯槁, 鼻動聲嘶, 痰多喘急하다. 五惡은, 形容慘黑, 口渴囊縮. 六惡은, 全身浮腫, 腸鳴嘔危, 大便滑泄. 七惡은, 惡瘡致陷, 形如礫鱗, 四肢冷逆, 污水自流한다. ② 痘瘡의 7種의 危險한 證候를 말함. 一惡은, 煩躁悶亂, 譫語恍惚하다. 二惡은, 嘔吐泄瀉, 飲食不能하다. 三惡은, 乾枯黑陷, 痒場破爛하다. 四惡은 寒戰咬牙, 聲啞色暗하다. 五惡은, 喉舌潰爛, 食入即嘔, 飲水即倉한다. 七惡은, 腹滿喘逆, 四肢逆冷하다.

七情(칠정)

①喜·怒·憂·思·悲·恐·驚 등 精神 情志變化의 七種表現을 말함. 이는 外界事物에 對한 反映이다. 發病要因이 되는 것은, 이들 精神活動이 過度하게 强熱하고 持續되어 臟腑氣血의 機能에 影響을 미치거나 或은 內臟에 먼저 病變이 發했는데 精神活動의 影響으로 病이 더 進行되는 것이다. 「五志」의 項 參照. ②藥物配伍의 七種의 各異한 作用을 말함. 즉 「單行」, 「相須」, 「相使」, 「相畏」, 「相惡」, 「相殺」, 「相反」등을 七情이라 한다(神農本草經에 있음).

漆瘡(칠창)

옷에 접촉되므로 惹起되는 一種의 皮膚病症이다. 대개는 肌表의 腠理가 不密하고, 體質이 옷에 過敏하므로, 漆毒을 感受하여 생긴다. 노출된 部位에 많이 생기며, 接觸部の 皮膚가 突然 紅腫하여, 焮熱 作痒하며, 小丘疹과 水疱가 兼發된다. 긁으므로 肢體에 번지며, 抓破하면 糜爛 流汁하고, 汁의 量이 많으며, 續發性으로 感染된 경우는 頭痛, 寒熱交作 등의 全身症狀이 나타난다.

七衝門(칠충문)

全消化系統中の 七個 重要的 門(要衝門)을 말함. 즉, 飛門(唇)·戶門(齒)·吸門(會厭)·噴門(胃의 上口)·幽門(胃의 下口)·闌門(大腸과 小腸이 接하는 境界部位)·魄門(肛門)을 七衝門이라 合稱함(難經·四十四難에 있음).

枕骨(침골)

『玉枕骨』이라고도 함. 解剖學上的 枕骨과 같음. 頭項部の 後方, 頭顱骨의 後方下에 位置함. 後頭骨.

鍼灸(침구)

鍼法과 灸法의 二種의 治療 方法의 合칭. 鍼灸療法이라고도 함.

鍼灸銅人(침구동인)

銅으로 鑄造하여 鍼灸穴位를 彫刻한 人體의 模型이다. 宋代에 中國의 醫學은 이미 상

당히 進步하여 鍼灸分野에서도 크게 發展하였다. 그 중에서도 대표적인 일은 王惟一이 先人들의 職責을 系統的으로 整理한 것이다. 그는 鍼灸專門書인 銅人輸穴鍼灸圖經을 完成하였을뿐 아니라 銅人 模型의 酒造를 주재하였다. 이 銅人은 敎學의 模型이 될 뿐이 아니라 考試用으로도 쓰이게 되었다. 그 方法은 銅人내에 물을 붓고 外部에는 蠟을 발라서 學生들에게 어느 穴位를 刺鍼시켜 그 取穴이 正確하면 穴中の 물이 流出되는데 그렇지 못하면 침입이 不能한 것이다.

鍼灸療法(침구료법)

「鍼灸」의 項 參照.

鍼烙(침낙)

「烙法」의 項 參照.

鍼頭補瀉(침두보사)

「迎隨補瀉」의 項 參照.

鍼麻(침마)

「鍼刺麻醉」 項 參照

鍼芒補瀉(침망보사)

「迎隨補瀉」의 項 參照.

沈脈(침맥)

脈象의 一種. 脈을 輕取하면 反應이 없고, 重按해야만 느껴진다. 主病은 이에 있으며, 沈하고 有力하면 裏實이며, 沈하고 無力하면 裏虛이다.

鍼法(침법)

「鍼刺」, 「刺法」이라고도 함. 金屬製의 鍼을 써서 人體의 一定한 체표部位를 刺戟 함으로써 治療目的에 도달하는 方法이다. 古代에는 九鍼이 있었는데 현대에는 사용되는 主要한 것으로는 毫鍼 三稜鍼 皮內鍼 梅花鍼 등이 있다.

鍼眼(침안)

「土疳」, 또는 「土瘍」이라고도 함. 眼瞼(눈꺼풀)의 邊緣에 생기는 小癰(다래끼)를 말함. 대개는 風熱 或은 脾胃의 熱毒의 所致이다. 처음에는 형태가 麥粒과 같으며 微痒 微腫하고 이어서 赤痛 拒按하게 된다. 麥粒腫에 該當함.

鍼刺(침자)

「鍼法」의 項 參照.

鍼刺麻酔(침자마취)

鍼麻라고도 함. 鍼刺麻酔는 傳統的 鍼刺療法の 전통의 기초위에 발전한 것이다. 그 方法은 선정된 穴位에 毫鍼을 刺入한 후 수법조작(혹은 전류를 代用함)을 통하여 유도해서 病人이 覺醒된 狀態下에서 各種 手術治療(주노 경項 흉복 사지부부의 수술)를 받게 한다. 鍼麻는 양호한 鎮痛效果가 있을 뿐만 아니라 應用上 많은 장점이 있다. 현재 醫療系에서 이를 깊이 研究하여 더한층 發展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浸泡(침포)

「溺浴」의 項 參照.

浸泡(침포)

「泡」의 項 參照.

沈香曲(침향곡)

「曲」의 項 參照.

唾爲腎液(타위신액)

「五臟化液」의 項 參照..

墮胎(타태)

妊娠하여, 달이 차기 前에 流産하는 것이며, 一般的으로 妊娠 3個月以內에 胎兒가 形成되기 前에 墮下되는 것을 말함. 3個月以上 지나서 이미 胎兒가 形成된 경우는 「小産」 혹은 「半産」이라 한다. 만약 連續 墮胎 或은 小産하여 三回以上을 超過하는 것을 「滑胎」라 한다. 墮胎나 小産이 되기 前에, 一般的으로, 먼저 胎動이 不安해지고, 點滴出血하며, 腹部가 隱痛하는 等症이 나타나므로, 미리 豫防治療해야 한다. 墮胎·小産한 後에, 뚜렷한 症狀이 없으면 一般的인 産後調理를 하면 된다. 만약 墮胎·小産後에 下血이 不止하고, 甚한 경우 昏暈하며, 面色이 靑白해지는 것은, 대개 衝任脈이 損傷되어, 氣가 血을 統攝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만약 陰道에서 下血이 淋瀝不止한 것은 대개 瘀血이 殘留하기 때문이다. 만약 惡露가 아주 적고 小腹이 硬痛하여 拒按하는 것은 대개 血凝不行하기 때문이다. 惡露不下의 項 參照.

唾血(타혈)

「咳血」의 項 參照.

濁氣(탁기)

①飲食物의 精華의 濃濁部分. ②人體가 呼出하는 濁氣와 排出되는 失氣(방귀) 등을 말함.

濁氣歸心(탁기귀심)

水穀의 精氣가 血의 運行을 通하여 心臟에 歸함을 뜻함. 「素問·經脈別論」에서 “食氣入胃 濁氣歸心 淫精於脈 ……”이라 하였다. 여기서 말한 濁氣는 飲食物의 精華의 濃濁部分을 뜻한다. 이는 運行해서 心에 이르러 心臟에서 다시 經脈을 通하여 營養分을 身體各部에 보낸다. 「濁氣歸心」은 心이 이러한 過程에서 營養을 循環輸送하는 「總樞」의 作用을 함을 說明한 것이다.

托毒透膿法(탁독투농법)

「內托」의 項參照.

托盤疔(탁반정)

疔瘡疾患의 하나이다. 정이 손바닥(掌心)에 생겨서, 患者의 손놀림에 영향을 미치어, 항상 托盤狀이 되므로 이렇게 이른다. 「掌心毒」이라고도 함. 이는 心과 心包絡 二經의 火毒이 熾盛하므로 생긴다. 疔은 작는데, 뿌리가 깊고, 腫痛이 劇烈하며, 甚하면 掌部の 筋骨이 腐爛하게 되고, 惡寒發熱이 交代로 생기며, 食慾不振 等症을 나타낸다.

托法(탁법)

「內托」의 項參照.

濁邪(탁사)

대개 濕濁한 邪를 말함. 「金匱·臟腑經絡先後病脈證」에서 “清邪居上 濁邪居下”라 하였음. 「濕濁」의 項 參照.

濁邪害清(탁사해청)

「濁邪」란, 濕濁한 사기를 말함. 「清」은 輕淸한 陽氣가 頭面의 孔竅인 耳·目·口·鼻등으로 上通하는 것을 말함. 濕은 重濁한 邪氣으로서, 熱邪와 結合되어, 濕熱이 蓄積되어 上蒸해서, 輕淸한 陽氣가 阻遏되어, 孔竅를 壅塞하여, 意識昏蒙 耳聾 鼻塞 等症을 發한다.

濁藥輕投(탁약경투)

「飲」의 項 參照.

濁陰歸六腑(탁음귀육부)

「淸陽, 濁陰」의 項 參照.

濁陰走五臟(탁음주오장)

「淸陽, 濁陰」의 項 參照.

濁陰出下竅(탁음출하구)

「清陽, 濁陰」의 項 參照.

托疽(탁저)

膝 趺의 陽關穴과 陽陵泉穴部位에 생기는 疽를 「托疽」라 하며 足少陽膽經에 속하는 병이다.患部가 稀腫疼痛하며 서 있을때 더욱 심하다.통상 兩手로 患部를 눌러서 疼痛을 경감시켜야 하므로 이렇게 이름한다.約半月이면 化膿하며 유과후에 腫盡하면 受寒다.만약 不痛하면서 鮮血이나 靑黑色의 膿이 유출되고 腫頭가 甚多하면 逆證이다.

吞酸(탄산)

坊友의 醫林繩墨에서 “吞酸者 胃口酸水攻激於上 以致咽嗑之間 不及吐出而咽下 酸味刺心 有若吞酸之狀也……(吞酸이란 胃酸이 甚히 上攻하여 咽喉間에 이르러 吐出이 안되고 삼키면 酸味が 心을 刺하여 酸을 삼킨 것같은 狀態가 되는 것을 말함)”이라 하였다. 則 胃中에 酸水가 넘치는 것이다. 대개는 肝氣가 胃를 犯한 所致이다. 偏熱 偏寒의 區分이 있다. 偏熱의 吞酸에는 心煩, 咽乾, 口苦, 苔黃을 兼發한다. 偏寒의 吞酸에는 胸脘이 隱痛하고 清涎을 嘔吐하며 舌苔의 淡白을 兼發한다.

彈石脈(탄석맥)

七怪脈의 一種. 脈象이 沈實하여, 마치 手指로 돌을 튀기는 듯한 感覺이 있다.

炭劑(탄제)

①固崩止帶의 項參照. ②崩漏의 項參照.

彈鍼(탄침)

鍼刺手法의 하나이다. 그 方法은 鍼을 체내에 刺入한 후 지두로 鍼柄을 捻轉하여 鍼의 하부에 輕도의 진동이 출현하게 된다.

脫(탈)

疾病의 過程에서, 陰. 陽. 氣. 血이 大量으로 耗損되어 生命이 危殆하게 되는 病理를 말함. 그 綜合表現을 脫證이라 하며, 主要證狀은, 汗出如珠하고, 四肢厥冷, 口開目合, 手撒尿遺, 脈微細慾絕 等이다. 病因 病理와 症狀이 모두 正氣가 外向하여 泄하는 것이 特徵이므로 外脫이라고도 한다. 嚴重한 腦血管病變(中風等)에서는, 通常 內閉와 外脫이 辨證分型을 하는 基礎가 된다. 그런데, 脫症에 包括되는 疾病이 매우 많다. 臨床上, 一般的으로 中風, 大汗, 大泄, 大失血, 或은 精液의 大泄等 精氣의 急激한 耗損으로 陰陽離決이 되는 것을 暴脫이라 하며, shock은 基本的으로 이 範疇에 包括된다. 久病으로 因해 元氣가 虛弱하고, 精氣가 漸次 消亡되어 惹起되는 脫證을 虛脫이라 하며, 心. 肺. 肝. 腎等の 機能衰竭도 基本的으로 이 範疇에 包括된다.

脫骺(탈갈)

骺은 關節을 말함. 脫骺은 關節의 脫位이며, 脫臼라고도 함. 關節을 構성한 骨端이, 正

常連接에 損傷을 입음으로써 本來의 解剖的位置에서 벗어나를 말함. 一般的으로 外傷에 의해 惹起되며, 肩關節과 股關節에 多發한다. 閉合性과 開放性的의 二種類가 있다. 前者는, 皮肉이 破損되지 않고, 後者는, 脫位된 關節로 通하는 傷口가 있어서, 感染의 可能性이 있으므로, 病情이 比較的 複雜하고, 重하다. 그 主要證狀은, 局部가 腫脹하고, 關節機能에 障礙가 생긴다. 이 밖에 脫骹에는, 또 氣血이 虛弱하고, 筋骨이 弛緩되므로, 同一關節에 反復해서 發生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重複脫骹(習慣性脫臼를 말함)이라 하며, 또 先天的인 體質虛弱, 胎兒의 發育不全에 의해서도 脫骹이 생긴다.

脫臼(탈구)

「脫骹」의 項 參照.

脫氣(탈기)

「脫」은 耗損의 뜻. ①일반적으로 正氣耗散 혹은 虛脫證候를 말함. ②虛勞病으로, 行動하면 氣喘하고, 手足冰冷, 飲食不消化, 腹脹, 大便溏泄, 脈沈小遲 等の 陽氣虛弱證候를 나타냄을 말함.(『金匱要略·血痺虛勞病脈證并治』)

脫囊(탈낭)

「綉球風」의 項 參照.

脫神(탈신)

神氣의 外脫로서, 곧 失神을 말함. 이는 生命이 危險에 臨迫한 表現이다. 精氣의 消亡으로 因해, 神이 存在할 依據를 잃게 되는 것이다.

脫陽(탈양)

「脫」은 耗損의 뜻. 陽氣가 심히 耗損되어 虛脫傾向의 病變이 發함을 말함. ①陰寒의 內盛으로 因해 陽氣가 耗傷되므로, 神氣가 不藏하여, 幻覺 幻視 精神異狀 亂語連發 혹은 大汗淋漓 등의 症狀이 나타남을 말한다. 일부 久病大虛의 病因이나 慢性腎炎으로 尿毒症을 일으킨 患者등에서 볼 수 있다. ②男子의 性交後에 出現하는 虛脫症狀을 俗稱 脫陽이라 하기도 함.

脫癰(탈옹)

「脫疽」의 項 參照.

脫肉破骨(탈육파골)

「素問,玉機眞臟論」에 있음. 골은 隆起된 肌肉이다 王氷注에, “骨者肉之標 脾主肉 枯肉如脫盡 骨如破敗也”라 하였다. 이는 內熱이 熾盛하여 비의 陰精이 虧損되어 肌肉이 乾枯消瘦되는 症狀을 나타냄을 말한 것이다.

脫陰(탈음)

「脫」은 耗損을 뜻함. 眞陰이 耗損되어 突然 視力이 甚히 減弱되는 病變을 말함(難經二十難, “脫陰者目盲”). 五臟六腑의 精氣는 모두 目으로 上注된다. 만약 臟腑의 眞陰이 耗損되면 往往 視力을 減退케한다. 특히 肝腎 二臟의 耗損은, 腎이 藏精을 主管하므로, 肝腎이 虧損하면, 視物이 不明하거나 目盲이 된다. 急性熱病의 後期, 慢性發熱, 營養不良 및 産後體弱患者 등에서 볼수 있다.

脫疽(탈저)

「靈樞.癰疽篇」에 記載된 「脫癰」을 말함.手足에 모두 發病하는데 거의가 足指에 생긴다. 대개 高粱後味 或은 生活의 不節制 或은 壯陽補身熱藥의 過服으로 因해 鬱火 邪毒이 臟腑에 蘊結되어 陰液을 消작하며 或은 寒濕 毒氣를 外感하여 內部에 積熱이 생겨 局部의 氣血을 凝滯시킴으로써 생긴다.發病의 經過가 비교적 緩慢하며 처음에 栗粒狀의 黃疱가 생기고 皮膚色이 紅棗를 저숙한 것 같은 暗紫色을 띠고 黑氣가 만침하며 腐爛이 연차 주위나 深部로 만연되며 위로 足部에 까지 만연되고 或은 가까운 足指로 傳染되기도 한다.局部에는 灼熱한 劇痛이 있는데 대개는 間歇性으로 步行時나 或은 夜間에 돌연 發生한다.脫疽는 腐肉,서근,爛骨하며 瘡面의 膿汁과 分泌物에 惡臭가 나며 잘 낫지 않으므로 早期에 治療해야 한다.本病은 閉鎖性血栓血管炎에 해당한다.

奪精(탈정)

①「奪」은 耗損을 뜻함. 즉, 精氣가 甚히 損傷된 것이다. 主要表現은, 精神이 萎靡하고, 耳聾하며, 視力이 弱화되는 等이다. ②脈이 一呼에 四回 혹은 二呼에 一回 搏動하는 것(難經十四難).

脫證(탈증)

「脫」의 項 參照.

脫汗(탈한)

絶汗이라고도 함. 病情이 危重하여 陽氣가 脫出하려고 할 때 汗出이 구슬같이 기름같이 淋漓不止하는 症狀을 말함. 대개 呼吸喘促 四肢厥冷 脈微欲絶等の 危候를 隨伴한다. 이는 陽氣가 곧 끊어지려는 症狀이다. 속(shock) 心力衰渴(心機能不全) 등에서 볼수 있다.

脫肛(탈항)

直腸 或은 直腸粘膜이 肛門外로 脫出되는 一種의 病症이다. 體質이 虛弱한 小兒나 老人에게 常見된다. 대개는 中氣不足, 氣虛下陷, 肛門弛緩의 所致이다. 或은 兼하여 大腸의 濕熱이 下注되므로 惹起된다. 처음에는, 大便시에 肛門이 脫垂될 뿐이며, 저절로 回縮되는데, 病이 遷延 日久하면, 脫出이 比較的 길게 되고, 손으로 받쳐야 回納되며, 步行, 過勞, 咳嗽, 用力등의 경우에 매번 脫出된다. 脫出시에는 墜脹되는 듯한 不快感이 있으며, 만약 脫出이 오래 되어 回納되지 않으면, 局部에 紫赤色을 띠고, 腫痛이 加重

되면,甚한 경우에는 潰爛한다.

奪血(탈혈)

① 血液의 喪失을 말함. ② 「奪」은 劫奪을 뜻함. 血과 汗은 함께 水穀의 精氣에서 來源하며, 血虛患者는 本來 津液이 不足한데, 만약 이에 無理한 發汗을 시키면, 반드시 營을 傷하여 血을 動하게 한다. 이를 「奪血」이라 함.

奪血者無汗,奪汗者無血(탈혈자무한,탈한자무혈)

「靈樞.營衛生會篇」에 있음. 「奪」은 失을 뜻함. 血과 汗은 같은 根據에서 나오는 것이므로, 이미 失血한 경우에는 다시 發汗시킬 수 없고, 이미 發汗한 경우에는 다시 血을 除去시킬 수 없다. 만약 血液이 損失되었는데 또 發汗하거나, 만약 血液이 損失되었는데 또 發汗하거나, 汗液이 耗損되었는데 또 血을 除去하여, 汗血이 兩失되면 病情이 加重되므로, 古人은 이를 잘못된 治療手段으로 認識하였다.

探吐(탐토)

인공적인 방법으로 도구를 써서 嘔吐를 일으키는 것. 毒物이나 食滯등을 吐出시키는 것이 목적이다. 통상 熱湯으로 泡洗한 鵝毛난 鴨毛로 가볍게 咽部를 문질러 嘔吐를 일으킨다.

搭手(답수)

腰背部의 兩側에 생기는 疔이며, 患者가 자기손으로 만질수 있으므로 이렇게 이름한다. 肩背部위에 가까운것을 上搭手라 하고, 背中部의 것을 中搭手라 하며, 背下方과 腰部의 것을 下搭手라 한다. 대개 五志化火, 營衛不和, 疫疽肌肉으로 因해 생긴다. 本證은 瘡形이 높게 腫起하며, 色紅 灼痛하고 潰破後에 膿이 나오는것은 順證이고, 瘡形이 陷下하며, 色澤이 붉지않고 처음에 痛瘍하며, 或은 惡心, 眩昏, 衄語를 兼發하고, 潰爛하여 膿血이 많은 것은 重證, 危證이다.

搭浴(답욕)

약물을 달여서 탕즙을 만들어 세욕 침포 탐색하는 것이다. 세욕은 전신성질병에 적용한다. 예컨대 風疹塊에 香樟木煎湯의 세욕을 하며 온천욕은 피부의 개선치료에 다용되는데 일찌기 고대부터 사용되었다. 浸泡는 사지질환에 적용된다. 예컨대 鵝掌風(手癬)과 각선에 약액이나 혹은 초(뜨겁게 함)를 매일 수회씩 침포한다. 탐색(국부의 습윤)는 신체의 국부질환(예컨대 疥癬에는 약즙으로 환처를 적신다),혹은 온疫實熱症의 高熱煩燥 대강 심한 경우 衄語등에 적용된다. 黃連水를 胸部에 적시면 좋다.

燙傷(탕상)

「湯火傷」의 項 參照.

湯液(탕액)

① 淸酒를 뜻함. 素問 湯液醴醢論에 있음. ② 湯液을 現在는 湯劑라 稱한다 藥物에 물을 붓고 煎湯하여 去渣 취즙해서 內服한다. 湯은 吸收가 比較的 빠르며 作用을 發揮하기 쉬우므로 新病이나 急病에 常用된다. ③ 班固의 漢書 藝文誌에 湯液經法 三十二卷이 있는데 臨床關係의 著作이다.

湯劑(탕제)

「湯液」의 項 參照.

湯火傷(탕화상)

高溫에 의한 灼傷. 그중 高溫의 液體나 蒸氣에 依한 것을 一般的로 燙傷이라 하고, 火焰이나 火器에 依한 것을 火傷이라 함.

胎癰(태간)

初生兒의 百日內에 發하는 癰症을 말함.

胎甲(태갑)

「妊娠」의 項 參照.

胎怯(태겁)

「五軟」의 項 參照.

胎驚(태경)

新生兒가 臍風에 起因하지 않고, 驚風證候를 나타내는 것을 「胎驚」이라 한다. 先人은, 孕婦의 飲食調養不良이나 或은 妊婦의 精神的素因이 胎兒에게 影響을 미친 所致로 보았다. 主要表現은, 驚厥하여 知覺을 完全히 잃고, 手足을 떨며, 顔面筋肉이 痙攣한다. 發作性으로 나타나며, 發作이 없을 때는 異常徵候가 없다.

兌骨(태골)

「銳骨」의 項 參照.

胎垢(태구)

「激經」의 項 參照.

苔垢(태구)

舌苔上에 汚垢가 混雜된 것. 宿食의 不消化 或은 濕濁이 內停한 경우에 多見된다.

胎氣上逼(태기상핍)

妊娠期間에 出現하는 胎動氣逆의 症狀을 말함. 대개는 母體의 虛弱, 或은 病後體弱하여 調養이 失宜하고, 血氣가 不和한 所致이다.

胎動(태동)

「胎動不安」의 項 參照.

胎動不安(태동불안)

「胎動」이라 略稱함. 胎兒가 頻繁히 搖動하여 腹中이 아프고 下수감이 있으며 甚하면 陰道出血이 되는 病症을 말함. 대개는 跌仆損傷, 陰虛血熱 或은 衝任二脈이 空虛하여 胎兒를 固攝하지 못하기 때문에 생긴다.

胎斂瘡(태렴창)

「奶癰」의 項 參照.

胎漏(태루)

「胞漏」라고도 함. 妊娠後에, 陰道에서 때때로 血液 같은 液體가 排出되며, 腹部는 不痛한 病症이다. 氣虛, 血熱, 胎元不固, 性生活過度 등의 原因으로 惹起된다.

兌髮(태발)

頭髮의 曲周部가 아래로 伸延된 部分이며, 耳前方部位. 鬢邊이라 俗稱함.

胎肥(태비)

新生兒의 肌肉이 肥厚하고, 眼睛이 粉紅色이며, 生後 一個月後부터 날로 消瘦하고, 惡心이 煩熱하며, 大便이 困難하고, 口中에서 때로 流涎하는 病症임. 이는 胎中에서 產母이 胃熱을 感受한 所致이다.

胎死腹中(태사복중)

「死胎」의 項 參照.

胎死不下(태사불하)

「死胎」의 項 參照.

胎疝(태산)

갓난 小兒의 陰囊이 腫大한 病症이다.

胎水(태수)

「子腫」의 項 參照.

太息(태식)

深呼吸를 말하는데, 呼氣를 爲主로 하여, 濁氣와 同義이다. 正常인의 呼吸中에도 間歇的인 深呼吸이 있다. 平시의 呼吸과 脈搏의 比率을 1:4이고, 深呼吸시는 약 1:5이다. 이러한 比率의 變化를 脈診上 閏以太息이라 한다. 病理狀況下에서, 患者가 자주 嘆息하는 것을 「善太息」이라 하며, 이는 하나의 症狀으로, 肝膽의 鬱結, 肺氣不宣 等に 起因한다.

胎弱(태약)

「五軟」의 項 參照.

太陽(태양)

①顳顬. ②穴位名. 眉稜骨의 끝과 外眼角의 中間點에서 後方으로 若1橫指處이며, 經外奇穴에 屬함.

太陽(태양)

經脈名稱의 하나. 陽氣가 旺盛하다는 뜻이 있다. 身體의 最表層에 있고, 外邪를 感受한 後, 가장 먼저 發病하는 經脈이므로, 「太陽爲開」라고도 한다(『素問』「陰陽離合論」).

太陽病(태양병)

六經病의 하나이다. 主要證狀은, 惡寒, 頭痛, 項強, 脈浮이며, 이는 風寒을 感受하므로, 營衛가 失調된 所致이다. 頭痛 惡寒 脈浮症狀이 있는 것은 太陽經表現에 屬하며, 表實과 表虛의 二種證型이 있다. 表實證은 無汗하고 脈浮緊하며, 表虛證은 有汗하고 脈浮緩하다.

太陽與少陽合病(태양여소양합병)

太陽과 少陽의 兩經의 證候가 同時에 出現하는 것을 말하며, 臨床表現은 이미 太陽病의 頭痛 發熱症이 있는데, 또 少陽病의 口苦 咽乾 目眩症을 兼發한다. 例컨대 下部에 熱迫하면 下痢後重하고, 上部에 熱迫하면 嘔逆을 일으킨다.

太陽與陽明合病(태양여양명합병)

發病時에 太陽과 陽明의 兩經의 證候가 同時에 出現함을 말함. 臨床表現은 이미 太陽病의 頭痛 項強症이 있는데, 또 陽明病의 身熱, 口渴, 黃色糞水の 下痢, 肛門灼熱 等の 裏熱症狀를 兼發하므로 이렇게 말한다.

太陽爲開(태양위개)

「太陽」의 項 參照.

太陽中風(태양중풍)

①太陽經이 風邪를 感受한 것을 말하며 太陽表症의 하나의 證型이고 主要症狀은 頭項

强痛 惡風 發熱 汗出 脈浮緩등이며 表虛症에 屬한다. ②眞中風의 一型이다. 寒熱이 있는 中風病의 症候中에 無汗惡寒 혹은 有汗惡風의 症狀이 出現하는 것을 太陽中風이라 한다. 그런데 이러한 分型은 中風病의 辨證施治에 큰 意義가 없으므로 現在는 거의 쓰이지 않는다.

胎熱(태열)

①新生兒에게, 壯熱, 煩驚, 痰多喘急, 目赤하고, 눈두덩이 浮腫하며, 便秘하고, 小便이 붉은 등의 證候가 出現하는 것. 이는 產母가 妊娠期에 熱毒物을 過食했거나, 或은 溫藥을 過服함으로써, 熱이 内部에 蓄積되어, 胎氣를 熏蒸한 所致이다. ②孕婦가 항상 目赤 多眵(눈곱이 많음)하고 或은 眼目이 昏花함을 또한 胎熱이라 함.

胎元(태원)

①妊娠時의 母體의 子宮內의 胚胎를 말함. ②母體中の 胎兒를 充養하는 元氣를 말함. ③胎盤을 말함. 「證治準繩」의 胎元散 處方에서, 「用胎元一具……」라 했는데, 이는 胎盤을 말한 것임.

苔潤(태윤)

舌苔의 濕潤을 말함. 苔가 潤澤하면서 不膩不厚한 것은 正常舌苔이며, 津液이 充足한 表示이다. 苔가 濕潤하면서 厚膩한 것은 대개 濕病에 屬한다.

太乙神鍼(태을신침)

「藥物艾卷」의 項 參照.

太陰(태음)

經脈名稱의 하나. 陰氣가 旺盛하다는 뜻이 있다. 三個陰經의 最表層에 있으므로, 「太陰爲開」(素問·陰陽離合論, 「開·合·樞」의 項 參照)라고도 한다.

太陰病(태음병)

六經病의 하나이다. 大概 三陽病에서 傳入되어 오며, 一般的特徵은 發熱이 없는 것이다. 太陰病에는 腹滿, 嘔吐, 泄瀉, 口不渴, 食不下, 脈緩弱等症이 上見되며, 陽明病과 같이 裏證인데, 性質은 相反되어, 陽明病은 實熱에 屬하고, 太陰病은 虛寒에 屬하며, 陽明病은 胃腸燥熱이고, 太陰病은 脾胃寒濕이다.

太陰爲開(태음위개)

「太陰」의 項 參照.

太醫(태의)

封建時代의 醫員의 職名의 하나이다, 즉 太醫員의 醫員이며 專的으로 國王이나 宮廷官

員들의 診療를 擔當하였음.

太醫局(태의국)

「太醫署」의 項 參照.

太醫令(태의령)

古代의 太醫書 或은 太醫員의 行政長官을 말함. 秦 漢代에 이미 이 官職이 있었다. 太醫書, 太醫員의 行政 및 職務를 管理하는 責任을 졌다. 그 밑에 太醫丞을 두어 太醫令의 조수로 삼았다.

太醫署(태의서)

唐代의 支配層에게 服務한 一種의 醫療保健機構이다. 이 機構內에는 醫學各科가 分設되어 醫療保健을 擔當한 외에 醫學敎育도 겸장하였다. 宋代에는 이러한 機構를 太醫局이라 개칭하였고, 明 清代에는 太醫員이라고 고쳤다.

太醫丞(태의승)

「太醫令」의 項 參照.

太醫員(태의원)

「太醫署」의 項 參照.

胎赤(태적)

①初生兒의 皮膚色이 丹을 칠한 것처럼 붉은 것인데, 이는 胎中에서 熱毒을 感受한 所致이다. ②小兒의 眼瞼이 赤爛하는 것. ③胎風의 別名이다.

太倉(태창)

「胃」의 項 參照

太衝脈(태충맥)

衝脈의 別稱. 이는 女子의 月經과 胞胎를 調養하기 때문에 命名된 이름이다. 例컨대, 『素問』「上古天眞論」에 “(女子) 二七而天癸至 任脈通 太沖脈盛 月事以時下 故有子”라 하였다.

太平惠民局(태평혜민국)

「太平惠民和劑局」의 項 參照.

太平惠民和劑局(태평혜민화제국)

宋代에 政府가 開設한 藥材를 賣買하는 一種의 機構이다. 宋代에는 藥材를 대개 國家

가 專賣하여 11世紀 後期에 首都에 太醫局賣藥所를 設立해서 丸 散 膏 丹 및 藥酒를 製造 販賣하였다. 당시 藥物을 製劑하는 部門을 修合藥所 或은 和劑局이라 하였으며 藥物을 販賣하는 部分을 賣藥所 或은 惠民局 或은 太平惠民局이라 하였다.

胎風(태풍)

小兒가 出生後, 身熱이 있고, 皮膚가 紅赤하여, 火傷을 입은 것처럼 되는 證候를 말함. 대개는 妊娠時에 辛熱物을 過食하여, 脾胃의 積熱이 胎兒에게 影響을 미친 所致이다.

胎患內障(태환내장)

妊婦의 病이나 或은 消化吸收의 不良으로 因해, 嬰兒가 先天性內障을 앓게 되는 것을 말함. 兩眼이 外觀上으로는 正常인 것처럼 보이는데, 視力이 程度의 差異는 있지만 喪失된다.

苔滑(태활)

舌苔가 濕潤하고 光滑한 것. 苔가 薄白하고 滑한 것은, 內部에 寒濕이 있는 證候와 關聯된다. 苔가 厚白하고 滑한 것은 濕濁이 內盛한 證候와 關聯된다. 苔가 白滑하고 粘000이함은, 內部에 痰濕이 있음이다. 苔가 薄黃하고 滑한 것은, 대개 濕熱에 屬하며, 或은 外邪이 化熱하여 입이하기 시작하였으나 아직 津液을 傷하지 않은 것이다. 苔가 黃厚하고 滑한 것은 濕熱이 重하거나 或은 痰熱이 盛한 所致이다.

苔黃(태황)

新生兒가 出生後 數日만에, 面・眼・皮膚에 黃疸이 發生하는 것을 「苔黃」 或은 「胎疸」이라 함. 즉 新生兒의 黃疸이다. 대개는 妊娠時에 母體의 濕熱이 胎를 熏蒸한 所致이다. 輕症은 일반적으로 治療하지 않아도, 黃疸이 저절로 消退된다.

澤廓(택곽)

「八廓」의 項 參照.

土疳(토감)

「鍼眼」의 項 參照

吐故納新(토고납신)

「氣功」의 項 參照.

吐納(토납)

「氣功」의 項 參照.

吐弄舌(토농설)

舌을 口外로 吐出하여, 길게 弛緩되는 것은 吐舌이고, 舌을 약간 伸出하여 回轉하다가
는 곧 回收하고, 或은 伸出的한채 上下의 순과 左右의 口角을 翾는 것은 弄舌이다. 吐弄
舌은 熱性病에서 多見되며, 대개 心脾의 實熱에 屬한다. 만약 舌色이 紫赤色이면서 吐
弄舌하면, 熱毒이 心包를 內攻한 重證이다. 小兒의 先天的 不足이나 大腦의 發育不全에
서도 吐弄舌이 出現하는데 舌色은 淡白하고 대개 虛像을 나타낸다.

吐法(토법)

涌吐, 催吐법이라고도 함. 嘔吐를 일으키는 藥物 혹은 기타 嘔吐를 일으키는 物理刺戟
(예컨데 소독한 手指 혹은 깨끗한 羽毛로 喉를 刺戟해서 吐하게 하는 것을 探吐라고
한다)으로 咽喉, 胸膈, 胃脘간의 유해물질을 구토를 통해 배출시키는 것이다. 어떤 咽喉
과의 急症 예컨데 痰涎이 인후를 저색하여 호흡을 방해하거나 혹은 食物이 胃脘에 정
체되어 脹滿疼痛하거나 혹은 독물을 誤食하여 시간이 오래되지 않아 아직 위에 있는
경우 등에 토법을 쓴다. 실증에는 瓜滯, 芡藜, 膽礬등으로 催吐한다. (瓜滯의 용량은 성
인의 경우 5푼~①5돈. 芡藜의 용량은 성인의 경우 오폭에서 한돈. 膽礬의 용량은 성인
의 경우 한푼에서 두푼. 三藥은 모두 산제로 만든다)토법은 妊婦에게는 금용하고 허약
인에게는 慎用한다. 허약인의 흉중에 痰飲이 있어서 꼭 引吐해야 할 경우에는 人蔘蘆
(용량2~3돈)를 쓴다.

土不制水(토불제수)

「土」는 脾를 「水」는 水濕을 뜻함. 즉 脾虛하여 水濕을 運化할 수 없어 濕濁의 停滯를
일으켜 稀白한 痰을 많이 토하고 小便不利 大便瀝泄 혹은 水腫 등을 發한다.

土生萬物(토생만물)

脾胃는 土에 속하며 自然界的 萬物이 大地에 滋生하는 현상처럼 脾胃는 營養化生の 源
泉이 된다는 生理的 특징을 말함. 胃는 食物의 受納 消火를 主宰하고 脾는 營養精微의
吸收와 輸布를 主宰하여 各臟腑組織機關의 生長과 機能活動에 物質的基礎를 提供한다.

吐舌(토설)

「吐弄舌」의 項 參照.

吐矢(토시)

嘔吐物중에 糞便이 섞이는 것이다. 이는 胃腸이 阻滯되어 陰陽이 錯亂해서 清濁이 混
交되므로 出現한다. 腸閉塞等の 疾患에서 볼 수 있다.

土瘍(토양)

「鍼眼」의 項 參照

土鬱奪之(토울탈지)

「素問:六元正紀大論」에 있음「土鬱」은 濕邪가 中焦를 鬱阻한 것이고 「奪」은 祛濕하여

滯留치 못하게 하는 것이다.例컨대 濕熱이 中焦에 鬱하여 腹痛腹脹하고 大便이 稀薄하고 熱臭가 나며 舌苔가 黃貳한 경우는 「若黃燥濕」法을 쓴다.或은 寒濕이 中焦에 鬱하여 胸悶, 惡心, 嘔吐, 腹脹, 大便清稀, 舌苔白貳한 경우는 「若溫化濕」法을 쓴다.

土朮子(토포자)

「螳螂子」의 項 參照.

吐血(토혈)

血液이 입에서 나오는 것이며, 嘔血과 大量咯血을 包括한다. 「嘔血」, 「咯血」의 項 參照

土喜溫燥(토희온조)

脾의 生理的特徵을 설명하는 데 쓰인다. 「土」는 脾를 대표하며 水液代謝의 生理活動에 있어서 脾는 水濕의 運化기능을 갖는다. 脾氣가 溫燥하면 運化機能이 健全하여 吸收도 正常이 된다. 만약 生冷物을 過多攝取하면 脾陽을 손상하여 脾의 運化機能에 영향을 미친다. 이와 반대로 脾虛로 인한 運化機能의 손상은 濕濁을 체내에 停滯시켜 小便不利 水腫 痰飲 등증을 發하게 한다.

痛經(통경)

「經行腹痛」이라고도 함. 月經의 前後 或은 行經時에 下腹部과 腰部的 疼痛을 主症으로 하는 一種의 婦人科에 常見되는 病이다. 本病의 發生은, 대개 氣滯, 血瘀, 寒凝 或은 血虛의 所致이다. 氣滯에 起因하는 경우는, 대개 月經前에 下腹이 疼痛하며, 疼痛이 脇肋으로 連하고, 或은 乳房의 腫脹 等症을 나타낸다. 血瘀에 起因한 경우는, 대개 月經前 或은 月經이 시작될 때 少腹이 刺痛하여 拒按하며, 經血이 暗紫色이고, 瘀塊가 섞이기도 한다. 寒凝에 起因한 경우는, 대개 下腹에 冷痛 或은 絞痛이 있으며 熱熨하면 痛減되고, 經行이 不暢하며, 색깔이 暗滯하다. 氣虛에 起因한 경우는, 대개 行經後에 腹部과 腰部이 끈질기게 作痛하여 만져주기를 좋아하며, 月經量이 적고, 色淡이며, 質이 稀薄하다.

痛經(통경)

월경의 시기가 지나도 불래하는(經閉)경우 이를 통창케 하는 방법이다. 經閉의 치료에 앞서 먼저 妊娠期 哺乳期 絶經期の 생리적 경폐를 배제하고 다시 虛實을 分別한다. 상용되는 통경치료는 ①益氣養血:氣血兩虛증에 적용한다. 그 임상표현은 經閉 頭暈 眼花 耳鳴 心悸氣短疲乏 舌淡無苔 脈沈細 등증이다. 當歸 白芍藥 川芎 黨參 白朮 甘草 丹參 등약을 쓴다. ②行氣活血:氣滯血瘀증에 쓴다. 그 임상표현은 經閉 精神抑鬱 煩燥易怒 胸悶脇痛 小腹脹痛 舌邊紫色 或有紫礬點 脈弦或澁 등이다. 當歸 川芎 赤芍藥 桃仁 紅花 香附子 延胡索 등약을 쓴다.

通關散(통관산)

「開噤通關」의 項 參照.

通氣(통기)

「行氣」의 項 參照.

通裏(통리)

「下法」의 項 參照.

通脈(통맥)

①陽氣를 溫通케하여 脈搏을 振起시키는 方法이다,예컨데 少陽病으로 泄瀉를 하는데 不消化食物을 排出하며 內部에 眞寒이 있고 外表에 假熱이 있어서 四肢寒冷하고 脈微欲絶을 나타내는 것은 眞寒이다.몸이 惡寒하지 않은데 面色이 浮紅함은 假熱이다.그 性質은 몸이 不惡寒함은 外表에서 格陽하는 것이고 面色의 浮紅함은 浮陽이 上越한 戴陽이다.通脈四逆湯(甘草,附子,乾薑, 加 蔥9莖)을 써야 한다. 그 중에 甘草,附子,乾薑은 回陽救逆하는 것이고 蔥을 쓰는 것은 陽氣를 통하게 하는 것이며 前方은 陽氣를 溫通시켜 脈搏을 振起해서 有力케 하는 것이다. ②産後에 氣血이 虛하여 無乳 或은 少乳한 경우 氣血을 補益하는 方法을 써서 乳汁이 充分히 나오게 하는 것도 通脈이라 한다. 催乳의 項 參照.

通脈四逆加猪膽汁湯(통맥사역가저담즙탕)

「兼方」의 項 參照.

通脈四逆湯(통맥사역탕)

「通脈」의 項 參照..

通木(통목)

古代의 正骨用의 器具이다. 幅 三寸, 厚 二寸되는 한장의 긴 杉木板이며, 길이는 患者의 頸部에서 腰部까지의 距離에 따라 결정한다. 木板의 一面에, 세로 凹形의 홈을 彫刻하여, 線을 채워 넣어서, 患者의 脊骨이 附着되게 한다. 兩側에는 구멍을 뚫어, 넓은 띠로 묶어 脊椎骨折의 固定에 쓴다. 이 方法은 現在는 거의 쓰이지 않으며, 그 대신 砂袋가 쓰인다.

通腑泄熱(통부설열)

「通泄」의 項 參照.

痛痺(통비)

「寒痺」의 項 參照.

通泄(통설)

「通腑泄熱」이라고도 함. 大腸을 通利케 하므로써 裏熱을 清除하는 方法을 말함. 例컨데 「寒下」法의 (1)「潤下」,「增液瀉下」,「鹹寒增液」等法이 通說이다. 「腑」은 大腸을 말함.

洞泄(통설)

「濕瀉」의 項 參照.

通陽(통양)

陽氣가 阻滯되거나 或은 陽氣가 衰微한 症候로 治療하는 方法이다. 例컨대, 1) 通陽散結, 豁痰下氣: 胸脾證으로, 胸中の 陽氣가 寒氣에 阻滯되면, 胸背痛, 氣喘咳嗽, 呼吸氣短, 或은 喘甚, 舌苔白膩潤滑, 脈沈弦或緊 등을 나타낸다. 瓜蒌薤白白酒湯(全瓜蒌, 薤白, 白酒)을 써서 胸陽을 宣通시키면 胸通短氣가 自癒한다(本方에 丹參 赤芍藥, 當歸, 桂枝, 鬱金 등 行氣活血藥을 가하면 冠狀動脈의 粥狀硬化性心臟病의 心絞症(狹心症)등을 治療할 수 있다. 이는 活血理氣, 通陽化濁이다). 2) 清熱利濕, 開閉通陽: 濕溫病의 初期에 胸悶不飢한 것은 濕邪가 胸中の 陽氣의 流通하는 것을 閉塞한 것이다. 여기에는 三仁湯(杏仁, 飛滑石, 白通草, 竹葉, 厚朴, 生苡仁, 半夏, 百九仁)으로 治療한다. 方中에 祛濕藥과 芳香理氣藥, 清熱藥을 동용하여 上焦의 肺氣를 輕開함으로써 胸中の 陽氣를 疏通시킨다. 3) 陽氣가 衰微하고 陰寒이 내성하며 脈微欲絶한 경우 通脈四逆湯을 써서 陽氣를 溫通 시키는 것도 通陽의 類에 屬한다.

通瘀破結(통어파결)

「破瘀消癥」의 項 參照.

通乳(통유)

「催乳」의 項參照.

通因通用(통인통용)

『素問』「至眞要大論」에 있음. 反治法의 하나이다. 通利藥을 써서 通利病證을 治療하는 方法을 말함. 例컨대 飲食物이 體內에 積滯되어 胸脘이 痞悶하고, 腹中이 脹痛하며, 不思飲食하고, 大便泄瀉하는 症狀을 나타내는데, 積滯를 攻逐해야 한다. 枳實導滯丸(枳實, 大黃, 黃芩, 黃蘗, 神麴, 白朮, 茯苓, 澤瀉)을 써서 治療한다.

通睛(통정)

「鬥鷄眼」이라고도 함. 片眼 或은 兩眼의 黑睛이 相對的으로 眼角側에 치우쳐, 어떤 경우는 複視(二重으로 보이는 것)症狀을 나타내며, 斜視하지 않으면 물체가 잘 보이지 않는다. 대개는 重病後에 眼部의 筋肉이 損傷되어, 眼部運動의 協助狀態가 消失되었기 때문이다. 때로는 外傷으로 因해 惹起되는 水道 있다.

通劑(통제)

通可去滯로서 通草, 防己의 類이다. 通은 通利를 뜻하고 滯은 留滯證을 뜻함. 예컨대 産後에 氣血이 壅盛하고 乳汁이 不下하는 경우 通草, 漏蘆 等藥으로 通竅 해서 乳汁을 잘 分泌시켜야 한다. 또한 濕痺가, 濕邪의 留滯로 인해 四肢緩弱, 皮膚不引, 음산한 우 천시에 지체가 沈重痠通하는 경우에는 防己, 위령선 等藥을 써서 留滯된 濕邪를 除去 해야 한다.

通下(통하)

「下法」의 項 參照.

癰癤疔(퇴류산)

腹腔內에 생기는 包裹性·化膿性的 炎症腫塊를 말함. 所謂, “腹中裹大膿血 在腸胃之外”(王肯堂의 證治準繩)를 말함. 通常, 小便不通의 證候를 兼發함.

癰疔(퇴산)

①陰囊이 腫大하며, 疼痛하거나 或은 硬結하여 無感覺(麻木)함. ②男女의 外生殖器가 化膿하여 潰破되어 流膿하는 病症을 말함. ③“癰疔 足陽明筋病 內有膿血 卽巢氏(巢元方의 諸病源候論)之疔疔 子和(張子和의 儒門事親)之血疔也”(醫宗必讀).

癰疔(퇴산)

古病名이다. ①睾丸이 腫大하여 堅硬하며, 重墜 脹痛하거나 或은 無感覺하여 痛痒을 느끼지 못한다. ②婦女의 少腹이 腫脹하는 病症을 말함(素問·脈解篇).

腿凹(퇴요)

「癰」의 項 參照.

退鍼(퇴침)

鍼刺手法의 하나이다. 鍼을 체내의 一定部位에 刺入한후 깊은 곳에서 연차 얇은 쪽으로 향해 鍼체를 되출시키는 方法이다.(皮膚외면으로 拔出하지 않는 한도내에서)

透經(투경)

「透鍼」의 項 參照.

鬪鷄眼(투계안)

「通睛」의 項 參照.

透關射甲(투관사갑)

小兒의 指紋을 볼때, 食指를 三節으로 나누어, 食指的 臟腑로 連한 第一指節을 風關이

라고, 第二指節을 氣關이라 하며, 第三指節을 命關이라 한다. 指紋이 風關에 나타나는 것은 病이 比較的 輕淺함을 表示하고, 氣官까지 伸延되면 病情이 較重하며, 命關까지 伸延되면 病情이 더욱 重하다. 만약 指紋이 風,氣,命의 三關을 透過하여 一直線으로 指甲端에 放射되는 것을 「透關射甲」이라 하며, 대개 病勢가 凶險하고 病情이 危重한 것이다. 그러나 이것도 絶對的인 것이 아니므로, 역시 四診과 結合시켜 全面分析을 해야 한다.

透斑(투반)

「化斑」이라고도 함. 熱性病의 裏熱이 盛하고 반점이 은은히 밖으로 透達하려는 흥세에 놓여 있는 경우, 淸熱涼血는 治法(例컨데 化斑湯으로서 生石膏,知母,生甘草,玄蔘,犀角,白粳米等)을 채용하여 반점이 밖으로 透出케 함으로서 病邪를 除去하는 것이다. 이러한 治法을 원래「化斑」이라 하였다. 「涼血化斑」함에는 化斑湯에 牡丹皮,生地黃,大靑葉,金銀花를 加하고 甘草,粳米를 去하여 發斑에 吐血,衄血等을 兼有한 血熱이 比較적 重한 症候에 適用한다.

透邪(투사)

「達邪」라고도 함. 熱性病의 初期에 風熱表症(發熱, 微惡寒 或은 不惡寒, 無汗, 或少汗 頭痛, 口渴, 舌苔薄白 脈浮數 等症)이 出現하는 境遇에 辛涼解表類의 治法을 채용하여 病邪를 밖으로 透達케 하는 것이다.

透泄(투설)

辛涼解表藥을 써서 透邪하고 苦味藥을 써서 裏熱을 淸泄하는 것. 「辛開苦泄」의 項 參照.

透營轉氣(투영전기)

熱性病을 治療할 때 營分의 熱邪를 밖으로 透達시켜 氣分으로 引出해서 外表에서 解除하는 方法이다. 熱邪가 營分에 初入하면 脈細數, 舌質絳, 身熱夜高, 心煩하고, 夜間에 睡臥不安하며 口渴은 不甚하다. 犀角, 元蔘, 生地黃 等を 써서 여분의 熱을 淸하게 하고 竹葉, 金銀花, 連翹等を 써서 透熱 外出케 한다.

透疹(투진)

무릇 發疹하는 病으로 發疹해야 할 것이 나오지 않거나 出疹이 不暢한 경우에 辛涼解表類의 治法을 채용하여 출진을 順利롭게 해서 變證이 되지 않도록 하는 것을 透疹이라 함.

透天涼(투천량)

古代鍼刺手法의 一種. 열증을 治療하는데 쓰이며 사법의 一種이다 그 操作方法은 病人에게 息기를 시켜 息기에 따라 鍼을 서서히 예정된 심도까지 刺入한 後에 穴位주위의 皮膚를 指壓하고 손으로 여러차례 鍼柄을 가볍게 捻轉하여 국부 혹은 全身에 냉량감을 느끼면 신속히 鍼을 위로 약긴 提鍼하고 마찬가지로 捻轉하며 다시 신속히 拔出

한다 이밖에 기타수법을 쓰고 흡기와 배합하지 않는 경우도 있지만 오컨대 병인에게 냉감이 출현하도록하는 것이 원칙이다.

透鍼(투침)

鍼法의 一種이다. 이方法은 鍼을 어느 穴位에 刺入한 후 사자혹은 직자하여 鍼침이 인근의 穴位 혹은 경맥部位에 도달케하는 것이다 일鍼으로 동시에 두개 이상의 경맥 혹은 혈의를 천투하므로 투경 혹은 투혈이라고도 한다 이러한 토鍼심자의 方法은 比較的 강한 刺戟을 요하는 상황에서 多用된다.

透表(투표)

透邪,透疹類의 治法을 말함.

透風于熱外(투풍우열외)

靑代 葉桂의 「溫熱論」에 있음.이는 風溫病으로 外表에 風邪가 있고 내부에 裏熱이 있는 것을 治療하는 方法이다.風溫病으로 外表에 風邪가 있고 또 裏熱이 있는 경우에는 辛涼解表法을 써서 風邪를 透達시켜 裏熱의 勢를 고립시킨 後에 다시 裏熱을 淸하게 하면 治效를 얻기 쉽다(注:그 이후로는 溫病의 治療가 發展하여 解表와 淸裏를 同用한다).

透穴(투혈)

「透鍼」의 項 參照.

罷極之本(파극지본)

肝臟을 말함. 「罷」는 疲와 同義이며, 全身의 筋의 活動과 有關하다. 「罷極之本」이란, 肝이 筋의 活動을 主管하여, 疲勞를 耐受할 수 있으며, 運動機能의 根本임을 뜻한다.

破氣(파기)

理氣藥物중에 比較적 峻烈한, 靑皮 枳實 等を 사용하여, 破棄 散結 導滯하는 것.

破傷風(파상풍)

金瘡瘻이라고도 함. 皮膚의 外傷部에 邪(破傷風桿菌)를 받아, 抽風을 일으키는 一種의 症을 말함. 病因은, 血虛하여 筋을 營養할 수 없는데, 病邪가 上口에서 內部로 侵入하여, 風氣를 內動시키는 所致이다. 臨床表現은, 面. 脣이 靑紫色을 띠며, 苦笑하는 表情을 짓고, 肌肉이 發作性痙攣을 일으키며, 角弓反張하고, 牙關緊閉, 呼吸困難, 痰鳴, 脈弦數 惑은 弦緊等を 나타낸다.

破瘀消癥(파어소징)

「散瘀」, 「逐瘀」, 「通瘀破結」이라고도 함. 이는 腹中の 瘀血 積塊를 治療하는 方法이다. 腹腔 或은 子宮에 積塊가 생겨서, 밀어도 移動하지 않고, 舌에 紫斑이 있으며, 脈이 澀

한 경우, 膈下逐瘀湯(五靈脂, 當歸, 川芎, 桃仁, 牡丹皮, 赤芍藥, 烏藥, 延胡索, 紅花, 地殼, 甘草)을 쓴다.

巴杏丸(과행환)

「溫下」의 項 參照.

破血(과혈)

祛瘀藥中에서 비교적 峻烈한 藥物인 大黃, 桃仁, 紅花, 穿山甲, 廔蟲 등을 使用하여 瘀血除去의 目的에 到達하는 것.

板(판)

足底部의 大趾(踰指)의 根元部分. 즉 踰의 後方.

八綱(팔강)

「八綱辨證」의 項 參照. .

八綱辨證(팔강변증)

陰,陽,表,裏,寒,熱,虛,實의 8가지를 八綱이라 한다. 臨床上 이 8個綱을 運用하여 辨證하는 것을 八綱辨證이라 한다. 各種疾病에 出現하는 病狀이 錯綜複雜할지라도, 모두 八綱으로 分析 歸納함으로써 疾病의 屬性, 病變의 部位, 病勢의 輕重, 個體의 反應의 強弱을 探究하여, 이로써 判斷을 내려 臨床診斷과 시치에 根據를 提供하게 된다. 陰陽은 疾病의 類別을 말하며, 表裏는 病變部位의 深淺을 말하고, 寒熱은 疾病의 性質을 말하며, 虛實은 邪氣와 精氣의 消長盛衰을 말한다. 그中 陰陽의 이綱은 八綱中の 總綱이며, 其他 六綱(六變이라고도 함)을 統領하는 意義를 가진다. 表,熱,實은 陽에 屬하고, 裏,虛,寒은 陰에 屬한다. 陰陽,表裏,寒熱,虛實의 4條의 矛盾은 相對的이며, 相互密接한 連繫가 있다. 例컨대 表證에, 表寒,表熱,表虛,表實의 區分이 있고, 또한 表寒裏熱, 表熱裏寒, 表虛裏實, 表實裏虛 등의 錯種複雜한 關係가 있다. 其他의 寒證, 熱證, 虛證, 實證도 이와 같다. 一定한 條件下에서, 이 4條의 矛盾의 雙方은 相對的으로 相互 轉化할 수 있다. 例컨대 表에서 裏에 미치고, 裏에서 表으로 出하며, 寒證이 熱로 화하고, 熱證이 寒으로 화하며, 陽에서 陰에 미치고, 陰에서 陽로 轉化하는 等等이다. 有關 各項을 參照.

八溪(팔계)

①上肢部の 肘關節, 腕關節, 下肢部の 膝關節, 髁關節을 말함. 左右側 모두 8處로서 八溪라고도 總稱함(素問 五臟生成篇에 있음). ②肱部和 股部の 筋肉을 말함.

八廓(팔곽)

眼科에서 五輪과 對應하는 一種의 學說이다. 眼의 外部를 臟腑의 表裏關係에 의해 水廓, 風廓, 天廓, 地廓, 火廓, 雷廓, 澤廓, 山廓으로 나누었다. 「水廓」은 瞳孔인 水輪에 該

當하며 「風廓」은 黑睛部分(검은자위)인 風輪에 該當하고 「天廓」은 氣輪에 該當하며 「地廓」은 肉輪에 該當하고 「火廓」, 「雷廓」, 「澤廓」, 「山廓」은 모두 血輪(內眥, 外眥의 上方과 下方)에 該當한다. 八廓은 古代의 眼科에서 辨症에 쓰였는데 各家의 論法이 일정하지 않고 또한 封建적인 迷信의 色彩가 混入되었으므로 후세에 이르러서는 거의 應用되지 않는다.

八味地黃丸(팔미지황환)

「益火之原, 以消陰翳」의 項 參照.

八味地黃丸(팔미지황환)

「外科補步法」의 項 參照.

八法(팔법)

청대의 정종령의 「醫學心悟.醫門八法」에 있음.程氏는 藥物治療의 作用을 「汗, 吐, 下, 和, 溫, 清, 補, 消」의 八法으로 歸納 시켰다. 但, 八法の 實際運用은 일찌기 張仲景의 「象寒論」중에 널리 갖추어졌다.

八邪穴(팔사혈)

手背部의 5個手指間의 岐骨部의 中央에 있다. 拇指에서 小指에 이르는 차례로, 「大都穴」, 「上都穴」, 「中都穴」, 「下都穴」이라 한다. 左右手に 各 4穴씩 合 8穴이다. 手指疼痛 麻木 頭項強痛 等症을 主治함.

八正散(팔정산)

「清熱利濕」의 項 參照.

八珍湯(팔진탕)

「補血」의 項參照.

八珍湯(팔진탕)

「外科補法」의 項參照.

八篇金(팔편금)

小兒의 指紋形象과 그 伸延方向의 各種 類型을 合稱한 것임. 「魚刺形」(魚의 小骨)은 驚風 痰熱과와 關聯이 있으며, 「垂鍼形」은 食積과 關聯이 있고, 「乙字形」은 肝病 驚風과 關聯이 있으며, 「環形」은 疳積 吐逆과 關聯이 있고, 「珠形」은 病危와 關聯이 있다. 이 밖에도 「去蛇形」, 「來蛇形」, 「弓形」 등이 있는데 지금은 臨床에서 그다지 應用되지 않는다. 앞으로의 研究가 기대된다.

八風穴(팔풍혈)

足背部의 5個足趾間의 岐骨部의 中央에 있다. 左右足에 各 4穴씩, 合 8穴이다. 足部疼痛 麻木 紅腫 等症을 主治함.

八會穴(팔회혈)

「會穴」이라고도 함. 古人이 全身의 一部生理機能과 有關한 重要穴位를 8個穴로 概括한 것이다. 그들의 各異한 作用에 依據하여 命名된 것이다. 그중에 包括된 것은 다음과 같다. 「氣會」－膻中穴 「血會」－膈俞穴 「骨會」－大杼穴 「筋會」－陽陵泉穴 「髓會」－絕骨穴 (懸鐘穴) 「脈會」－太淵穴 「臟會」－章門穴 「腑會」－太倉穴(中脘穴)

敗血(패혈)

「惡血」의 項 參照.

敗血衝心(패혈충심)

産後에 惡露가 不下하므로, 發熱하고, 高熱 치며 狂言하고, 甚하면 發狂奔走하는 等の 精神症狀을 나타내는 것을 말함. 「産後三衝」의 項 參照.

敗血衝胃(패혈충위)

産後에 惡露가 不下하므로, 飽悶 嘔惡하고, 腹滿 脹痛하는 等の 消化機能障礙症狀을 나타내는 것을 말함. 「産後三衝」의 項 參照.

敗血衝肺(패혈충폐)

産後에 惡露가 不下하므로, 胸悶煩躁하고, 面赤하며, 氣急 喘逆등의 症狀을 나타내는 것을 말함. 「産後三衝」의 項 參照.

片(편)

藥料의 細粉末에 適量의 澱粉호 혹은 米을 가하면 또는 藥料를 槌粉하거나 煎熬하는 등의 方法으로 藥料를 제거한 후에 농축해서 고를 만들고 다시 藥料의 細粉末 혹은 澱粉을 가하여 충분히 混合해서 木製 혹은 金屬製의 회형에 넣어 壓搾해서 片을 만든다.

偏枯(편고)

「半身不隨」의 項 參照.

偏口(편구)

「대口」의 項 參照.

偏口疽(편구저)

「對口」의 項 參照.

偏腦疽(편뇌저)

「對口」의 項 參照.

偏頭痛(편두통)

一種의 發作性 頭痛증이다. 臨床表現은 劇烈한 頭痛이 爲主가 된다. 단 痛處가 相對적으로 固定되어 左側 或은 右側에 偏在한다. 通常 比較的 疲勞하거나 或은 情緒가 激動하는 狀態에서 容易하게 發作한다. 대개 肝虛, 肝陽偏亢, 痰熱등의 所致이다. 先人은 또 左偏頭痛은 風과 血虛에 屬하고 右偏頭痛은 濕痰과 熱에 屬한다고 說한 바 있는데 이에 拘碍될 것은 없다.

偏産(편산)

「難産」의 項 參照.

偏沮(편저)

沮는 潤濕의 뜻. 偏沮는 半身에 치우쳐 汗出하는 症狀이다. 患側은 無汗하고 健側은 有汗하므로 半身에 치우쳐 潤濕하다. 氣血이 全身을 流暢하지 못하는 所致이다. 中風 或은 어떤 植物性神經系統機能紊亂의 疾病에서 볼수 있다. 素問·生氣通天論에서 “汗出偏沮 使人偏枯”라 하였다.

偏癱(편탄)

「半身不隨」의 項 參照.

偏廢不仁(편폐불인)

「半身不隨」의 項 參照.

偏風(편풍)

「半身不隨」의 項 參照.

砭(뽕)

「砭石」의 項 參照

砭石(뽕석)

砭 石鍼이라고도 함 石器時代에 産生되고 應用된 一種의 최고醫療기구이다 最初에는 인류가 疾病의 苦痛을 除去하기 위하여 보통의 石片을 써서 丸부를 두들겼다 石器時代에 石片이 産生됨에 따라 醫療전용의 石片기구인 砭石이 出現하여 膿포의 절개 皮下혈관을 자과해서 出血시키는 등의 容술에 광범하게 사용되었다 이러한 治療용기는 그 후 金屬제의 醫療용침과 手術도가 出現할까지의 매우 오랜 기간에 걸쳐 계속해서 民間外科에 利用되었다.

平肝熄風(평간식풍)

「鎮肝熄風」이라고도 함. 肝陽의 上亢으로 인해 야기되는 內風을 治療하는 方法이다. 病人이 頭部疼痛, 頭暈目眩, 舌體偏斜震動, 言語不明瞭, 甚하면 突然昏倒, 手足拘急或抽搐, 苔薄質紅, 脈弦 等症을 나타낸다. 鉤藤, 天麻, 白蒺藜, 菊花, 求人, 眞珠母, 牡蠣, 石決明 等藥을 쓰면 좋다.

平旦(평단)

「十二時」의 項 參照

平旦服(평단복)

「空腹服」의 項 參照.

平脈(평맥)

正常的인 脈象을 뜻하며, 常脈이라고도 함. 脈에 胃氣가 있어서, 脈動이 和緩 有力하고, 조용하면서 律動이 있고, 不速不遲하며, 脈搏數는 大體的으로 一呼吸에 4회搏動(一分肝約 70-75回)한다. 小兒는 약간 빠르고, 또 生理活動이나 氣候環境의 差異에 따라 이에 相應함은 正常變化이다.

平息(평식)

正常的인 平靜한 呼吸을 말함. 診法上, 醫師는 자기의 呼吸을 平靜하게 한 然後에, 病因의 診脈을 해야 한다.

平人(평인)

「素問, 平人氣象論」에 있음. 氣血이 調和된 健康人을 말함. 健康과 疾病은 相對되는 말이므로, 診法上 健康인의 平靜한 呼吸 脈搏 및 脈象 등 正常生理狀態를 對比함으로써 病症을 判別하는 根據의 하나로 삼을 수 있다.

肺(폐)

五臟의 하나. 肺는 主로 呼吸을 主管하며 人體內외의 氣體交換의 主要器官이다. 肺는 濁氣를 呼出하고, 清氣를 吸入한다. 清氣는 또 飲食이 消化된 후에 產生되는 「穀氣」와 結合되고 輸布되어, 人體臟腑器官의 各部分을 供養하며, 全身의 氣를 統攝한다. 肺에는 또한 體液을 調節하고, 水道를 通調하는 作用이 있으며, 人體內의 水液의 運行은 肺氣의 作用과 有關하다. 肺氣는 清淨해야 하고 下降해야 하며(肺主肅降), 만약 肺經이 受邪하거나 肺氣가 下降하지 않으면 各種病證을 일으키게 된다. 또한 脾는 肺의 門戶로서 (肺開竅於鼻)氣體가 出入하는 通路이다. 肺는 또 肌表의 抵抗力과 密接한 關係가 있다(肺主皮毛). 肺氣가 虛하면 往往 肌表의 抵抗力에 影響을 미치어, 體表에 風寒의 侵襲을 받아서 肺의 病症을 일으키게 된다. 肺에는 또 하나의 重要한 作用이 있는바. 心臟이 主管하는 血液의 運行을 協助하고 補助함으로써 心肺間에 密接한 關係가 있음을 볼 수 있다.

弊(폐)

耳門, 耳屏이라고도 함. 外耳孔前面의 小球狀突起部分.

閉(폐)

疾病의 急激한 變化過程에서, 正氣가 支撐하지 못하고, 邪氣가 內陷하여, 臟腑機能이 閉塞不通하게 되는 病理가 出現하는 것을 말함. 大概 邪熱痰濁 等の 病邪가 內部를 閉阻하기 때문이다. 故로 內閉라고도 한다. 中風이나 溫熱病의 熱이 營分 血分에 傳入된 段階에서 多見되며, 모두 中樞神經系統의 病辨에 屬한다. 이러한 病辨의 綜合表現을 閉證이라 하며, 그 表現은 情志昏迷, 牙關緊閉, 兩手握卷, 痰涎壅盛, 脈弦急或洪數 等이다. 그 中 熱象을 兼한 것을 陽閉라 하고, 寒象을 兼한 것을 陰閉라 한다.

肺,其華在毛(폐,기화재모)

『素問』「六節臟象論」에서 “肺者,…其華在毛”라 하였다. 華는 榮華가 外部에 나타난다는 뜻이다. 毛髮의 榮枯로써 肺機能의 盛衰를 推斷할 수 있는바, 이는 肺가 皮毛에 精을 輸送하기 때문이다. 例컨대 肺結核 等の 病이 重症이 되면, 往往 皮膚色이 透明해지고, 毛髮이 枯悴되는 症狀을 發한다. 故로 肺, 其華在毛라 한다.

肺癰(폐간)

癰症의 一種이다. 發作時에 面色이 灰白하고 眼睛이 上視하며 驚躁하고 頸項이 저쳐지며 手이 屈늘어지고 口를 벌여 吐舌하며 羊의 울음소리를 내는 等症을 나타낸다. 이는 肺虛하여 受邪해서 肝腎을 傷하게 한 所致이다.

肺疳(폐감)

五疳의 하나이다. 乳食의 失調로 因해, 鬱熱하고 傷肺한 所致이다. 主要症狀은, 咳嗽氣逆하고, 咽喉가 不利하며, 눈물을 많이 흘리며 자주 울고, 寒冷을 싫어하며, 腹脹하고, 뜨물 같은 糞便을 泄瀉하며, 乳食이 減少되고, 口에서 腥氣가 나며, 皮毛가 焦乾하고, 四肢가 消瘦하는 等이다.

肺開竅于鼻(폐개규우비)

素問 金匱眞言論에서, “開竅於鼻, 藏精於肺”라 하였고, 靈樞 脈度編에서는 또 “肺氣通於脾, 肺和則脾能知香臭矣”라 하였다. 肺는 呼吸을 主管하고, 脾는 呼吸出入의 門戶이므로 開竅於鼻라 한다. 脾가 正常的인 通氣와 嗅覺機能을 發揮하기 위해서는 必需的으로 肺氣가 調和되고, 呼吸이 暢利해야 한다. 만약 外感風寒이 肺를 侵襲하면 鼻塞 流涕하여 嗅覺에 影響을 미치고, 肺에 燥熱이 있으면 鼻孔이 乾澁해지며, 邪熱이 壅肺하면 흔히 氣喘 鼻煽(鼻翼呼吸) 한다. 이로써 肺와 鼻竅는 連關關係가 있음을 알 수 있다.

閉經(폐경)

「經閉」, 「經斷」의 項 參照.

肺系(폐계)

①喉頭の 氣管을 말함(承澹龢 「校注十四經發揮」). ②肺와 喉嚨이 連絡된 部位(南京 中醫學院主編「鍼灸學講義」). ③肺의 附屬器官. 例:氣管, 喉, 鼻道 등이 呼吸道를 連成하는 바 이들을 「肺系」라 統稱함(廣東中醫學院「中醫學新編」).

肺氣(폐기)

肺의 機能活動을 말함. 呼吸의 氣體도 포괄함.

肺氣不利(폐기불리)

肺는 全身의 氣를 主管하며, 水道를 通調한다. 만약 어떤 原因로 肺氣不利를 惹起하면, 咳嗽 등 上呼吸道の 症狀이 나타나는 外에, 水液의 運行과 輸布에 影響을 미치어, 小便不利가 되고 浮腫이 出現한다.

肺氣不宣(폐기불선)

「不宣」은 宣通不能의 뜻. 肺는 呼吸을 맡아서 脾로 開竅하고, 皮毛와 外合된다. 正常狀況에서는 이들 機能이 正常으로, 肺氣의 宣暢을 나타낸다. 만약 外邪의 侵襲으로 皮毛가 閉塞되고, 肺氣가 宣通不能하면, 惡寒發熱, 鼻塞流涕, 咳嗽 등 一連의 上呼吸道症狀을 나타낸다. 肺氣不宣과 肺氣不利는 相同하는 點도 있지만, 慣習上, 肺氣不宣은 대개 外感表證을 말하고, 肺氣不利는 대개 水腫 氣喘類의 病症을 말한다.

肺氣上逆(폐기상역)

「肺失清肅」의 項 參照.

肺氣通於鼻(폐기통어비)

「肺開竅于鼻」의 項 參照. .

肺氣虛(폐기허)

肺氣의 虛弱을 말함. 主要症狀은, 面色淡白, 短氣, 聲音低弱, 畏風, 自汗 等이다.

肺絡損傷(폐락손상)

久咳 或은 劇咳로 因해 肺絡을 損傷하여, 咯血을 惹起함을 말함. 肺結核, 氣管支擴張 等の 疾患에서 多見된다.

肺勞(폐로)

① 五勞의 하나이다. 肺기 損傷되는 所致이다. 主要症狀은 咳嗽, 胸滿, 背痛, 迫冷, 容貌가 야위고 和色이 없으며 皮毛가 枯槁하는 等이다. ② 肺癆를 말함.

肺癆(폐로)

「勞瘵」의 項 參照.

肺痺(폐비)

五臟痺症의 하나이다. 主要症狀은 惡寒發熱 咳嗽 喘息 胸滿 煩悶 不安等이다. 外邪가 肺氣를 閉阻하기 때문이며 或은 皮痺가 日久토록 不愈하여 病程이 發展한 所致이기도 하다. 素問·痺論에서 “皮痺不已 復感於邪 內舍於肺”라 하였다. 一說에는 生活에 調攝을 失調하여 精氣가 內傷한데 다시 外邪를 感受하여 邪氣가 胸中에 쌓인 所致라 하였다.(素問·五臟生成篇)

肺疝(폐산)

古病名이다. 邪氣가 肺經을 侵犯하여, 肺氣가 不化해서, 水道이 通調되지 못함으로써 熱이 膀胱에 鬱結되어 생기는 一種의 疝病이다. 症狀은 少腹과 辜丸이 脹痛하고, 小便이 不通한다.

肺生皮毛(폐생피모)

素問 陰陽應象大論에서, “肺生皮毛”라 하였다. 즉, 皮毛는 肺의 精氣에 의해 生養된다. 肺는 體表皮毛와 相合(所謂 肺合皮毛)되는데, 이는 臟器와 組織과의 相關關係의 一種이다. 肺는 呼吸을 主管하는데, 皮毛 汗孔에도 呼吸調節作用이 있다(素問 生氣通天論에서 汗孔을 氣門이라 하여, 散氣作用이 있다고 보았다. 唐容川의 中西匯通醫經精義에서도 皮毛에 宣肺氣의 작용이 있다고 하였다). 肺에는 陽氣를 分布하고 肌表를 外圍하는 機能이 있으므로, 肺主皮毛, 肺主一身之表 라고도 한다. 만약 肺氣가 虛하면 肌表가 不固하고 自汗이 많으며, 外圍의 氣가 不足하면 肌表가 風寒의 侵襲을 받기 쉽고, 甚한 경우 안으로 肺와 합쳐 咳嗽 等症을 發한다.

肺消(폐소)

「上消」의 項 參照.

肺水(폐수)

「五水」의 하나. 呼吸이 不利하고, 身腫하며, 小便이 困難하고, 大便이 몹다.(鴨溏)

肺腎同治(폐신동치)

肺陰虛와 腎陰虛를 동시에 治療하는 方法이다. 肺腎陰虛의 症狀은, 咳嗽하여 氣가 上逆하고, 行動하면 氣促하며, 咳血하고, 音啞하며, 午後低劣, 盜汗, 遺精, 腰痠腿軟, 身體消瘦, 口乾, 舌質紅, 脈細數 等이다. 沙蔘, 麥門冬, 天門冬, 五味子, 生地黃, 玄蔘 等を 써서 肺腎의 陰을 滋養한다.

肺腎相生(폐신상생)

肺는 金에 속하고, 腎은 水에 속하므로 金水相生이라고도 함. 五行理論에 의하면, 肺金

과 腎水는 母子關係이다. 生理機能에 있어서 肺와 腎은 相互 配合되어 相互 影響을 미친다. 이를 肺腎相生이라 한다. 病理面에서, 肺氣가 虛損하면 腎氣의 衰弱을 誘發하는데, 이를 母病及子라 한다. 이와 反對로 腎氣의 衰弱도 肺虛를 誘發한다. 이를 子病累母라 한다.

肺腎兩虛(폐신양허)

肺臟과 腎臟이 俱虛한 病理을 말함. 臨床表現에 두가지가 있다. ①肺腎氣虛. 肺는 呼吸을 主司하며, 氣의 標가 되고, 腎은 納氣를 主管하며, 氣의 根이 된다. 肺腎이 氣虛하면, 喘促短氣, 自汗易汗, 形寒肢冷 或은 咳嗽痰多 等症을 나타낸다. 慢性氣管支炎, 肺氣腫 等症에서 常見된다. ②肺腎陰虛. 肺虛로 因해 津液을 輸布해서 腎을 滋養하지 못하는 데 起因하기도 하고, 腎虛로 因해 陰精을 肺로 上昇시키지 못하거나 或은 虛火가 肺를 灼하는 데에 起因하기도 한다. 往往 乾咳, 短氣, 咽喉乾燥, 腰痠腿軟, 骨蒸潮熱, 遺精盜汗 等症을 나타낸다. 肺結核病에서 多見된다.

肺實(폐실)

肺經의 邪實을 말함. 風寒·痰熱·痰濕·痰火 等 各種病因에 衣해 發한다. 臨床表現은, 病因에 따라서 다르다. 喘咳息粗, 胸滿脹痛, 痰涎壅盛, 咯痰稠黃或帶血, 突然失音 等은 대개 肺實에 屬하는 症狀이다.

肺實清肅(폐실청숙)

肺가 清肅下降機能을 잃게 되는 病變을 말함. 肺는 呼吸을 主管하는 器官이며, 그 機能은 清肅下降하는 것이 順調이다. 만약 邪氣가 肺를 犯하여(外感, 內傷 等 各種病因을 包括) 清肅下降의 機能을 잃게 되면, 咳嗽 痰多 氣喘 胸膈脹悶 等 氣逆症狀을 일으킨다. 그러므로 咳嗽를 오래 앓는 病者는, 肺氣가 損傷되고, 肅降의 異常을 招來하여 「肺氣上逆」을 일으키기 쉽다. 臨床에서 볼 수 있는 哮喘性氣管支炎, 肺氣腫은 肺氣上逆 現象에 屬한다.

膈心骨(폐심골)

「膈肝」의 項 參照.

肺惡寒(폐오한)

『素問』「宣明五氣編」에서, “五臟所惡,……肺惡寒”이라 하였다. 肺는 氣를 主管하고, 皮毛와 外合한다. 寒邪는 直接 肺部를 侵襲하게 될 뿐만 아니라, 外圍의 陽을 損傷하기 쉽다. 寒邪가 肌表를 侵襲하면 肺로 內合하기 쉽다. 이밖에 脾胃가 虛寒하면 肺의 清肅機能에 影響을 미치어 各種 病症을 일으킨다. 故로 肺惡寒의 說이 있다.

肺與大腸相表裏(폐여대장상표리)

「肺合大腸」의 項 參照.

肺熱(폐열)

熱邪가 肺를 犯하여, 肺가 熱灼됨으로써 나타나는 肺熱證으로, 臨床表現으로는, 面頰紅赤, 咳嗽痰稠, 胸痛하며, 甚하면 喘促 咯血하는 것이 特徵이다. 「溫邪犯肺」, 「熱傷肺絡」, 「火盛刑金」等 項 參照.

肺熱葉焦(폐열엽초)

『素問』「痿論」에 있음. 肺에 鬱熱이 있어서 肺臟이 長期間 熏灼되어 痿證이 發生함을 말함. 그 病理에 二種의 情況이 있다. ①肺痿. 濁唾 涎沫을 咳吐하는 것이 主症이다. ②手足痿弱. 皮毛 肌肉이 枯萎하고, 四肢無力하여 舉動不能함이 主症이다. 「痿證」의 項 參照.

肺癰(폐옹)

肺部에 癰瘍이 생겨 膿血을 咳唾하는 病證이며 肺膿瘍, 肺壞疽等症의 類이다. 대개 風熱의 病邪가 肺에 沮鬱되어 蘊結하기 때문에 생긴다. 或은 嗜酒하고, 或은 기름에 지진 辛熱厚味를 嗜食하여 燥熱이 肺를 傷한 所致이다. 病情의 變化를 一般的으로 三期로 나눈다. ①表證期 : 主要 表現은 惡寒發熱, 汗出, 咳嗽胸痛, 脈浮數等症이다. ②釀膿期 : 主要 表現은 咳逆胸滿하고 胸痛하며 때로 振寒하고 脈象이 滑數한 等症이다. ③潰瘍期 ; 主要 表現은 腥臭나는 膿血을 咳吐한다. 其他 疾患에서 續發되기도 한다.

肺痿(폐위)

陰虛肺傷의 慢性衰弱 疾患이다. 主要 症狀은 咳嗽하고 稠痰白沫을 吐出하며 或은 寒熱, 形體消瘦, 精神萎微, 心悸氣喘, 口脣乾燥, 脈象虛數等症을 隨伴한다. 本病은 대개 其他 疾病 或은 誤治를 한 후에 續發하며 津液을 거둠 耗損하고 陰虛內熱해서 肺가 熏灼되어 생긴다. 만약 病久하여 上氣하거나 或은 肺中이 虛寒해서 發病한 境遇는 陽虛로 表現되며 患者는 涎唾가 많고 通常 涎沫을 吐出하며 咳嗽는 없다. 眩暈, 遺尿等の 症狀을 隨伴한다.

肺爲嬌臟(폐위교장)

嬌臟이란, 肺에 嬌嫩한 性質이 있음을 形容한 것이며, 病邪를 받기 쉬운 臟器라는 뜻이다. 肺는 惡熱하고 또 怕寒하며, 밖으로 皮毛와 습하고, 呼吸을 主管하여 大氣와 直接接觸한다. 外邪가 人體를 侵犯하면, 口鼻에서 吸入되거나 또는 皮膚에서 侵襲되든지 간에 모두 肺를 犯하여 致病하기 쉽다. 傷風感冒일지라도 흔히 咳嗽를 하게 됨은 肺가 嬌嫩한 臟器임을 말해주기 때문에 이렇게 이름한다.

肺爲水之上源(폐지수지상원)

「肺主行水」의 項 參照.

肺爲涕(폐위체)

「五臟化液」의 項 參照.

肺爲華蓋(폐위화개)

華蓋란, 封建帝王의 車蓋, 或은 文彩를 그린 日傘을 말한다. 靈樞 九鍼論에서 “肺者五臟六腑之蓋也”라 하였고, 難經集注 三十二難에서 虞庶는 “肺爲車蓋 位亦居膈”이라 하였다. 肺는 體腔의 臟腑중 位置가 最高이고, 諸臟을 覆蓋 保護하여 外邪를 防禦하는 作用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이른다.

肺陰(폐음)

肺臟을 充養하는 津液을 말함. 或稱 肺津이라 함. 肺陰은 水穀의 精氣에서 化生되며, 肺氣와 相互作用하여 肺機能을 維持하는데 必需이다. 臨床上 肺陰이 不足하면 흔히 乾咳, 舌苔薄白乾燥를 나타낸다. 肺陰이 더욱 耗損되면 肺燥火盛의 症候를 나타내게 된다.

肺陰虛(폐음허)

肺陰이 虧虛하여 燥火의 病變이 出現함을 말함. 主要症狀은, 乾咳少痰, 燥熱盜汗, 兩顴潮紅, 手足心熱, 咽燥音啞, 舌質紅乾, 脈細數 等이며, 만약 虛火가 絡脈을 傷하면 痰中에 帶血한다. 肺結核, 慢性咽喉炎 디프테리아 등에서 常見된다.

肺장백(폐장백)

素問 宣明五氣編에서, “五臟所藏,……肺藏魄”이라 하였다. 魄은 精神活動의 一部分에 속한다. 類經 臟象類(卷三)에서 “魄之爲用, 能動能作, 痛痒由之而覺也”이라 하여, 人體의 一部 知覺과 動作은 魄의 作用結果임을 說하였다. 五臟所藏의 項 參照.

肺燥(폐조)

燥邪가 肺를 傷하거나, 或은 肺가 陰虛하여 津液을 傷해서 化燥한 肺燥證을 말함. 主要症狀은, 乾咳, 咯血, 鼻咽乾燥, 或은 咽喉燉痛, 音嘶, 口乾而渴, 舌紅苔白而乾 等이다.

肺朝百脈(폐조백맥)

『素問』「經脈別論」에서, “脈氣流經經氣歸於肺 肺朝百脈”이라 하였다. 朝는, 向하여 會合한다는 뜻이며, 百脈이 肺에서 會合한다는 것이다. 즉 呼吸過程에서 全身의 血液이 모두 肺經 肺臟을 반드시 거쳐서 流通하는 것으로, 肺는 百脈과 密接한 關係가 있음을 말한 것이다.

肺主氣(폐주기)

氣는 人體가 生命活動을 維持하는데 依存하는 重要物質이다. 肺主氣는 人體의 氣를 肺가 主管하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全人體의 上下表裏의 氣는 모두 肺가 主管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素問 五臟生成編에서 “諸氣者, 皆屬於肺”

肺主聲(폐주성)

聲音과 肺氣의 作用은 有關하다. 故로 聲音을 들으면 그 사람의 肺氣의 상황을 대체로 알 수 있다. 肺氣가 充足한 사람을 聲音이 宏亮하며, 肺氣가 虛한 사람은 聲音이 低怯하다. 風寒을 外感하거나 肺氣가 閉塞되면 목소리가 쉬거나 失音하게 된다. 肺結核病이 末期에 이르면, 往往 말하는데 힘이 들고, 목이 쉬는데, 이는 聲音과 肺氣 사이에 密接한 關係가 있음을 나타내는 것이다.

肺主肅降(폐주숙강)

肅은 淸肅이란 뜻이다. 肺主肅降은 肺氣가 淸肅해야 하고, 下降해야 한다는 뜻이다. 왜냐하면, 肺는 胸部에 있고, 肺가 體內에서 일으키는 作用(司呼吸, 主氣, 主治節, 水道通調 等)때문에 肺氣가 반드시 淸肅 下降하는 狀況下에서만 그 正常的인 機能活動의 維持가 決定된다. 만약 肺氣가 失降하면 喘逆 咳嗽 或은 小便不利 等症을 惹起한다.

肺主一身之表(폐주일신지표)

「肺生皮毛」의 項 參照.

肺主治節(폐주치절)

素問 靈蘭秘典論에서 “肺者, 相傳之官 治節出焉”이라 하였다. 相傳는 君主를 輔佐하는 官名이며, 君主之官인 心에 相對되는 말로서, 臟腑活動中 心肺機能의 協調가 매우 重要하며, 人體의 臟腑器官이 一定한 規律에 따라 活動하는 데 不可缺의 要素가 된다는 뜻이다. 治節은 治理 調節을 뜻하며, 主로 肺와 心의 機能이 必需的으로 相互 協調함으로써 共同으로 正常的인 生理活動을 維持함을 가리킨다.

肺主通調水道(폐주통조수도)

「肺主行水」의 項 參照.

肺主皮毛(폐주피모)

「肺生皮毛」의 項 參照.

肺主行水(폐주행수)

人體의 水液代謝는, 脾의 運化, 腎의 氣화와 有關할 뿐만 아니라, 肺氣의 肅降과도 密接한 關係가 있다. 肺氣의 肅降作用을 通해야만 水液이 運行해서 膀胱으로 下達하여 小便을 通利케 한다. 그러므로 肺主行水, 肺主通調水道라 한다. 다른 면으로 肺爲水之上源이란 說도 있다.

閉證(폐증)

「閉」의 項 參照.

肺志(폐지)

「五志」의 項 參照.

肺津(폐진)

「肺陰」의 項 參照.

肺津不布(폐진불포)

肺가 正常으로 津氣를 輸布하지 못하여, 喘咳 等を 나타내는 病理情況을 말함. 肺는 脾에서 輸送되는 精氣를 接受하여, 肺와 心の 作用을 거쳐 全身의 輸布한다. 만약 肺가 熱灼을 받게 되면, 肺陰이 耗傷되고, 津液의 輸布가 失調된다. 肺가 寒邪에 侵犯되면, 水津의 運行이 停滯되어 「飲」이 되며, 液이 모여 痰이 되어, 喘咳 等症을 發한다.

肺瘡(폐창)

肺氣의 脹滿이다. 一般的으로 喘咳胸滿의 病證을 말함. 이는 肺가 肅降機能을 잃은 所致이다. 虛實의 區別이 있다. 實證은 대개 邪氣가 肺에 癰疽하여 肺氣가 不降하기 때문이다. 虛證은 대개 肺腎兩虛로 인해 腎不納氣를 일으켜 肺기가 上逆한 것이다. 肺炎, 急性氣管支炎, 氣管支喘息, 肺氣腫合病感染等症에서 볼수 있다.

肺閉喘咳(폐폐천해)

外邪가 肺를 癰疽하여 肺氣가 鬱閉不宣해서 發熱, 氣急, 咳嗽을 發하며 甚하면 鼻翼煽動하고 顔面蒼白하며 口唇이 紺色이 되는 等の 病證이 出現한다. 대개 小兒에게 나타난다. 氣管支肺炎, 病毒性肺炎等の 疾患의 類이다. 本病의 發生은 風寒外束 或은 風溫犯肺에 起因하며 또 火熱迫肺에 起因하기도 함. 風寒外束의 境遇는 惡寒發熱하고 頭痛無汗하며 咳嗽氣喘한다. 風溫犯肺의 境遇는 寒輕熱重하고 或은 不惡寒하며 有汗하고 喘咳脇痛하며 舌紅하고 苔微黃하다. 火熱迫肺의 境遇는 高熱이 나고 自汗하며 煩渴하고 喘急하며 脈象이 洪大하다.

肺合大腸(폐합대장)

肺와 大腸 사이의 相互關係와 影響을 말함. 이러한 相合은 臟과 腑가 相互 表裏(臟은 陰으로 裏에 屬하며, 腑는 陽이고 表에 屬함)가 되는 關係이며, 肺與大腸相表裏는 肺와 大腸의 經絡間의 連繫와 一部 生理機能의 相互配合를 통하여 體現된다. 肺 或은 大腸의 病症의 治療에 이러한 相合 相表裏의 關係를 통하여 서로 影響을 미칠 수 있다. 例컨대 肺의 肅降機能은 大腸의 傳導에 도움이 되고, 大腸의 傳導作用은 肺의 肅降에 도움이 된다. 또 痰壅氣喘에 往往 瀉下法을 써야만 肺氣를 通利케 할 수 있고, 어떤 便秘의 治療法에는 肺를 開通시키는 治法을 써야 한다. 또한 化痰 止嗽藥인 杏仁 瓜蒌 等에도 潤腸作用이 있다. 이는 모두 比較的 뚜렷한 예이다.

肺合皮毛(폐합피모)

「肺生皮毛」의 項 參照.

肺咳(폐해)

기침할 때, 喘息有聲하고, 甚한 경우, 咯血하는 證候를 말함.

肺虛(폐허)

일반적으로, 肺氣의 不足 或은 肺陰虛를 말함. 臨床表現은, 少氣, 呼吸淺短, 耳聾, 咽乾 等이다.(『素問·臟氣法時論』). 「肺氣虛」, 「肺陰虛」의 項 參照.

肺火(폐화)

肺의 熱化가 旺盛함을 말함. 虛火·實火의 二種이 있다. 臨床表現으로, 實火는, 咳劇痰少, 咳聲有力, 或 咯痰稠黃, 痰中帶血, 舌紅苔黃, 脈滑數 等이며, 虛火는, 대개 久咳陰虛에 屬하며, 咳聲이 無力하고, 潮熱 盜汗을 隨伴하며, 脈細數 等を 나타낸다.

脬(포)

「膀胱」의 項 參照.

炮(포)

藥物을 高溫으로 가열한 鐵窩에 넣고 급히 초편하면 연기가 나면서 藥物의 표면이 焦黃灼熱되는데 이를 炮라 한다. 예컨대 乾薑 附子 天雄 등에 炮法을 써서 그 熱性を 減弱한다.

泡(포)

浸泡 라고도 함. 藥物을 물에 침포하는 것 예컨대 地谷 芍藥을 浸泡하여 상연케하면 切片하기 편리하다. 當歸 桔梗 등은 侵襲하여 容器에 넣어 一定時間이 지나면 연해져서 절편하기 쉽게 되는 데 이를 泡라 한다. 桃仁 杏仁 등은 沸騰시킨 湯에 浸泡하면 皮尖을 제거하기 쉽다. 이를 燂이라 한다. 藥物에 물을 점점 浸透시켜 연하게 하며 또 藥性を 잃지 않게 한다. 이를 漬라 한다.

胞(포)

「胞瞼」의 項 參照.

胞瞼(포검)

目胞, 眼胞, 目窠, 目裹, 肉輪이라고도 함. 上下의 眼瞼. 俗稱 眼皮. 上下를 各各 目上胞, 目下胞라 함. 이밖에 上眼瞼을 胞, 下眼瞼을 瞼이라 부르기도 함.

胞瞼腫核(포검종핵)

「眼胞痰核」의 項 參照.

胞系了戾(포계요려)

①『金匱要略』에서 「轉胞」의 病理을 解釋하는 데 이 말을 썼다. 「胞系」는 尿系를 말하며, 「了尿」는 엷히고 屈曲됨을 뜻하며, 或은 끈을 끈 것으로 解하기도 한다. 『諸病源候

論』에서, “胞轉者, 由是胞屈辟小便不通…其病狀 臍下急痛 小便不通是也. 此病或由小便應下 便強忍之 或爲寒熱所迫 此二者俱令水氣還上 氣迫於胞 使胞屈辟不得充張 外水應入不得入 內洩應出不得出 外內相壅塞 故令不通”이라 하였다. ②一般的으로 膀胱의 排尿機能의 紊亂을 말함.

胞宮(포궁)

「女子胞」의 項 參照

脬氣不固(포기불고)

「脬」는 膀胱의 別稱. 脬氣不固는, 膀胱의 氣가 虛弱하여, 小便을 團束하지 못해서, 小便失禁 或은 遺尿를 나타냄을 말한다. 膀胱과 腎은 서로 表裏가 되며, 膀胱의 氣虛는 대개 腎陽虛와 有關하다.

胞絡(포락)

「胞脈」의 項 參照.

哺露疳(포로감)

病因은 丁奚疳과 같다. 通常, 丁奚疳에서 더 進展된 것이며, 患兒가 極度로 消瘦하여, 때때로 寒熱을 發하며, 腹大하고, 頸細하며, 多食하지만 吐逆하고, 빈번히 泄瀉한다. 通常 腸寄生蟲疾病을 兼有한다.

抱龍丸(포룡환)

「清熱化痰開竅」의 項 參照.

胞漏(포루)

「胎漏」의 項 參照.

胞脈(포맥)

一名「胞絡」이라고도 함. 子宮(胞宮)上에 分布된 脈絡이다. 그중 衝脈과 任脈을 包括함. 胞脈의 重要作用은 女子의 月經의 經行과 胞胎를 養하는 것이다. 例컨대 「素問·評熱病論」에서 “胞脈者 屬心而絡于胞中 月事不來者 胞脈閉也”라고 하였고, 「靈樞·五音五味篇」에서 “衝脈 任脈皆起于胞中”이라 하였다.

胞門(포문)

子宮口를 말함

胞痺(포비)

素問·痺論에 있음. 胞는 膀胱을 말함. 痺는 氣機가 阻塞不通함을 말함. 主要症狀은 小

腹이 脹滿하고 小便이 잘 나오지 않으며 少腹部에 壓痛이 있다. 이는 風寒濕의 邪氣가 膀胱을 侵犯하여 膀胱의 氣化作用에 影響을 미치어 失調된 所致이다.

抱膝(포슬)

正骨用의 器具이다. 藤蔓 或은 竹으로 만든다. 外形은 圓筒狀이며, 膝蓋骨보다 약간 크고, 四方을 끈으로 연결하여, 膝蓋骨 위에 놓고, 膝部에 固定되도록 끈으로 묶는다. 膝蓋骨의 骨折을 治療하는 데 쓴다.

晡時(포시)

「十二時」의 項 參照

抱兒癆(포아로)

「子嗽」의 項 參照.

胞依(포의)

胎盤을 말함. 胎盤에는 絨毛(내부에 絨毛, 絨毛가 있음)가 상련되어 胎兒는 여기서 營養을 攝取하고 老廢物을 排泄한다.

胞衣不下(포의불하)

「息胞」의 項 參照.

炮炙(포자)

본래는 炮와 炙의 二種의 各이한 製藥方法이었는데 그후 藥材의 加工處理의 總칭으로 쓰이게 되었다. 예컨대 劉宋 雷斅의 『炮炙論』은 藥材加工處理를 서술한 專門書이다.

胞臟(포장)

「女子胞」의 項 參照

包煎(포전)

털이 있는 植物藥은 반드시 包煎해야 한다 예로서 선향화는 유모라므로 包煎해야 한다. 散劑 丸劑를 음편과 동전할 경우 藥湯이 니탁하여 마시기 어렵게 되는 것을 防止하기 위 包煎해도 좋다 혹은 도이느이 도니가 藥湯내에 흩어지는 것을 防止하기 위해 包煎하기도 한다.

炮劑(포제)

張仲景의 金匱玉函經에 있음 藥材를 各種 劑型으로 만들기 전에 여러가지 加工處理科程을 거치는 것을 말함 포劑의 목적은 다음과 같다 1)잡질과 무용부분을 청제하여 藥物을 청결케한다 예로서 세 율 포등법이 있다 혹은 성취한 氣味를 제거한다 예로서 춘 백피를 부초해서 취미를 제거한다.2)製劑 服用 보전에 편리하게 한다 예로서 박편(절

편)이나 연쇄를 위해 포 단 초등법을 쓰느다 분쇄하기 편리하도록 또는 煎湯하여 有效成分을 취하기 쉽도록 하기 위하여 대자석 磁石 牡蠣 鱉甲等의 鑛物이나 구각藥은 단 하거나 혹은 초처리하여 品質이 낮아지고 부르럽게 해서 분쇄하기 便利하도록 하고 또 煎煮時間을 減少시키며 有效成分의 轉出에도 도움이 된다 藥物을 건조하여 보존에 편리하도록하기 위해서는 공쇄 음건등법을 쓴다 3)藥物의 毒性 刺戟 副作用을 소제혹은 저감시킨다 예컨대 생반하는 생강즙으로 藥성을 완화시켜 인령의 刺戟이나 中毒을 防止한다 巴豆는 去油함으로써 毒性을 저감한다 4)藥物의 性能을 개변하여 治療效果를 높인다 예컨대 生地黃은 清熱 涼血하는데 이를 주증하면 熟地黃이 되어 藥性이 溫하고 補血하는 것으로 변한다 상산을 炮劑해서쓰면 최毒作用이 강해지면 酒劑해서 쓰면 그 최毒作用이 감藥된다. 炮劑는 水劑 火劑 水火合劑의 삼종류로 나뉜다 水劑에는 洗 泡 水飛등이 있다 火劑에는 단 포 외 焦 烘 焙 炙등이 있다 水火合劑에는 蒸 煮 등이 있다 詳細한것은 各該當項을 參照.

胞阻(포조)

婦女가 妊娠後에 항상 腹痛이 出現하고, 甚한 경우, 陰道出血이 되는 病症을 말함. 이는 氣血이 不和하여, 胞胎를 阻礙하기 때문이다.

布指(포지)

脈診時, 醫師의 手指를 놓는(布置) 方法을 말함. 通常, 左手이든 右手인든간에 中指端을 바르게 病者의 寸口脈의 關部에 놓고, 이어서 食指端을 寸部에, 藥指端을 尺部에 놓는다. 또한 病者의 腎臟에 따라 相應하게 三指의 間隔을 調整한다. 病者가 身長하면 指間을 약간 넓게 하고, 身短하면 약간 좁게 한다.

暴厥(폭궐)

古病名이다. 이는 氣가 갑자기 逆上하므로 突然 昏倒하여 人事不省이 되고 脈象이 躁疾하여 喘證과 같은 病證이다. 素問·大奇論에서 “脈之如喘 名曰暴厥 暴厥者不知如人言”이라 하였다.

暴聾(폭롱)

「耳聾」의 項 參照.

暴盲(폭맹)

暴盲은, 대개 肝氣의 上逆으로, 氣血이 鬱閉되어 일어난다. 患者가 원래 眼部에 其他症狀이 없는데, 돌연 一眼 或은 兩眼이 失明된다. 本病은 視網膜中心動脈栓塞에 該當한다.

暴迫下注(폭박하주)

「暴注」의 項 參照.

暴病(폭병)

「卒病」의 項 參照.

暴仆(폭부)

갑자기 昏倒하는 症狀이다. 대개 肝風內動 痰涎攻心 或은 氣火上衝의 所致이다. 中風 癲癇 厥症等病에서 常見된다.

暴熱(폭열)

突然 發生하는 高熱을 말하며, 모두 實熱證에 屬하고, 急性傳染性疾患에서 多見된다.

暴瘖(폭음)

「金實不鳴」의 項 參照.

暴음(폭음)

「失音」의 項 參照.

暴注(폭주)

突然 極烈한 腹瀉를 하여, 물을 傾注하는 것 같으므로 이렇게 이른다. 泄瀉時에 量이 많고, 急激히 暴下하여 기다릴 수 없으므로 「暴迫下注」라고도 함. 대개 熱迫大腸의 所致이다.

暴脫(폭탈)

「脫」의 項 參照.

漂(표)

어떤 藥材를 流水나 혹은 물을 계속 바꾸어 침표해서 그 毒性 惡分 잡질 성미를 제거하는 것 예컨대 海藻 육종용 鹽附子 半夏등에 모두 이 方法을 쓴다

表氣不固(표기불고)

「衛氣不固」라고도 함. 衛氣에는, 皮膚를 溫養하고, 毛竅를 開闔하여 寒溫을 調節하며, 外邪에 抵禦하는 作用이 있다. 만약 衛氣가 虛하면 固表不能하여 皮膚腠理가 弛緩되어 外邪가 쉽게 侵入하여 感冒에 걸리기 쉽다. 發病時의 表現은 自汗 怕風 등의 症狀이다.

表裏(표리)

表와 裏는, 疾患의 內外, 病勢의 深淺 및 病程의 輕重 등을 辨別하는 두개의 綱領이다. 內外的 區分은, 人體의 皮毛, 經絡이 外가 되고, 表에 屬하며, 臟腑는 內가 되고 裏에 屬한다. 例컨대 外感의 溫熱病에서, 邪氣가 衛分에 있는 것은 表에 屬하며, 病勢가 比較的 淺하고 輕하다. 만약 邪氣가 氣分이나 或은 營分 血分으로 傳入되면 裏에 屬하며, 病勢가 比較的 重·深하다. 表證과 裏證의 辨別은, 病辨의 部位에 따라 區分해야 할 뿐만

아니라, 더욱 重要한 것은 證候의 特徵으로서, 寒熱, 臟腑의 證狀, 舌苔, 脈象 等を 添加해서 區別하는 것이다. 表와 裏는 相對的이며, 이들사이에는 또 相互 連繫되어, 一定한 條件下에서 相互 轉化할 수 있으며, 아울러 寒·熱·虛·實과 錯綜해서 出現할 수 있다.

表裏俱熱(표리구열)

內外가 俱熱한 것으로, 이는 表裏同病의 一種의 表現이다. 患者가 本來 內熱이 있는데, 또 溫邪를 感受하여, 表熱證外에, 發病에 있어서 面赤頭痛, 惡寒口渴, 咽乾舌燥, 甚하면 心煩譫語 等の 裏熱證을 나타낸다.

表裏俱寒(표리구한)

內外가 俱寒한 것으로, 이는 表裏同病의 一種의 表現이다. 寒邪를 外感하고, 生冷寒滯食物에 內傷했거나, 或은 平素 脾胃가 虛寒한데, 또 風寒을 外感한 것이다. 臨床表現은, 이미 惡寒 無汗, 頭痛 身痛 等の 表寒證이 있는 데, 또 腹痛泄瀉 四肢厥冷 等の 裏寒證을 兼發한다.

表裏同病(표리동병)

①患者가 惡寒, 發熱, 頭痛 등 表證이 있는데, 同時에 또 胸滿不舒, 腹痛泄瀉 等の 裏證을 나타내는 것을 말함. ②表裏에 同一類에 屬하는 性質의 病(病氣相同)을 나타내는 것으로, 例컨대 表裏俱寒, 表裏俱熱等이다.

表裏雙解(표리쌍해)

解表藥과 攻下藥(或은 清裏藥)等を 함께 사용하는 것을 表裏雙解라 한다. 이미 表症이 있는데 또 裏症이 있는 경우 表症을 解除하는 解表만으로는 裏症이 除去되지 않고 이 증을 治療하는 것만으로는 外邪가 不解하며 甚한경우 內陷하므로 表裏雙解의 治法을 써야한다. 表裏雙解를 두가지로 분류할수 있다. 1)外部에 表邪가 있고 裏部에 實積이 있는 것을 治한다. 例컨대 病人이 惡寒發熱, 腹部脹痛, 胸部痞悶, 作嘔, 大便不通, 脈浮滑 等症을 發하는 경우, 厚朴七物湯(厚朴, 甘草, 大黃, 枳實, 桂枝, 大棗, 生薑)을 쓴다. 그 중의 桂枝湯去芍藥으로는 解表하고 그중의 厚朴三物湯(厚朴, 枳實, 大黃)으로는 治裏한다. 2)裏熱이 이미 盛한데 表症을 兼有하는 것을 治한다. 例컨대 病人이 高熱無汗, 身體拘急, 面紅目赤, 鼻乾口渴, 煩躁, 不能熟眠, 橫說건說, 鼻出血, 舌乾燥, 脈洪數 等症을 發하는 경우 三黃石膏湯(石膏, 黃芩, 黃連, 黃柏, 麻黃, 淡豆豉, 梔子, 生薑, 大棗, 細朮)을 쓴다. 麻黃, 淡豆豉는 解表하고 石膏, 黃芩, 黃連, 黃柏, 梔子は 治裏한다.

表裏傳(표리전)

「傳經」의 項 參照.

豹文刺(표문자)

五刺法의 一種 患部の 前後左右의 여러 곳에서 小血管을 自破하여 鬱血을 排出한다.

이는心病의治療에應用된一種의古代鍼法이다.(『靈樞』『官鍼篇』)

標本(표본)

『素問』『標業病傳論』에 있음. 이는病證의主次, 本末, 輕重, 緩急의辨別을 통해治療의準則을決定하는 것이다. 標本에는各種의意義가 있다. 人體와發病要因에서 말하면, 人體의正氣가「本」이고, 病因인邪氣가「標」이다. 疾病自體에서 말하면, 病因이「本」이고, 證狀이「標」이다. 疾病의新舊와原發續發에서 말하면, 久病과原發病이本이고, 新病과續發病이標이다. 疾病의所在에서 말하면, 內部에 있는 것이本이고, 外表에 있는 것이標이다. 臨床上, 疾病의各異한情況에根據하여, 標本の關係에서主要矛盾을 찾아내어適當한治療를 하게 된다.

標本同治(표본동치)

標와本을兼顧해서治療하는 것이다. 例컨대, 痢疾患者가飲食不振한것은正氣가虛한 것이며, 不利가不止함은邪氣가盛한 것이다. 이때標本이俱急하면, 모름지기正氣를扶助하는藥과濕熱을淸和하는藥을同時에併用해야 하는데, 이것이標本同治이다. 標本同治에도區別이 있다. 만약正氣가太虛하지 않고, 邪氣가盛하면, 正氣를扶助하는藥을 적게 쓰고, 濕熱을消化하는藥을 많이 쓴다. 만약正氣가太虛하고 邪氣가焦衰하면, 正氣를扶助하는藥을重用하고, 濕熱을淸和하는藥을 적게 쓴다. 이런治法은 모두矛盾의主要한面에着眼한 것이다.

表邪(표사)

表部에 있는邪氣를 말하며, 대개外證의表證에屬한다.

表邪內陷(표사내함)

邪氣가盛하고正氣가虛하거나, 或은治療의不適當으로因해, 表의邪氣가裏로陷入하는病辨을말함. 例컨대, 溫邪가衛分에서逆傳心包하고, 傷寒의太陽病에瀉下法을誤用(誤下)해서結胸證을 나타내는 등이 모두 이것이다.

表實(표실)

表證의一種의類型이다. 外邪가侵入한後, 陽氣가肌膚에 모여, 邪氣와正氣가相爭해서, 腠理가密閉되어出現하는證候를말함. 그表現은, 表證의證狀이 있는外에, 無汗, 頭痛, 身痛, 脈浮有力한 것이特徵이다.

表實裏虛(표실이허)

邪氣가實하고正氣가虛한一種의表現이다. 患者가平素中氣가不足한데, 寒邪를感受하여, 이미惡寒, 發熱, 不汗 등의表實證이 있는데, 또精神痿微, 食慾不振, 脈沈 등의裏虛症을兼發한다.

表熱(표열)

表證의 一種의 類型이다. 風熱을 感受한 後, 發熱, 惡風, 頭痛, 有汗或無汗, 口渴, 舌苔薄白 或은 微黃 或은 舌尖紅, 脈浮數 等の 症狀을 나타낸다.

表熱裏寒(표열이한)

表裏의 寒熱이 錯雜한 一種의 表現이다. 患者가 平素 脾胃가 虛寒한데, 또 風熱을 感受했거나, 或은 外邪가 未解한데, 寒冷한 藥을 過服함으로 因해 脾胃의 陽氣를 不足케 한 것이다. 臨床表現은 이미 發熱, 頭痛, 惡風 等の 表熱證이 있는데, 또 大便泄瀉, 小便清長, 肢冷, 不渴等の 裏寒證을 兼發한다.

癰疽(표저)

①體表의 一種의 急性化膿性感染을 말하며 어느 곳이나 생길 수 있는데 특히 손끝의 腹面에서 많이 볼수 있으며 현재 말하는 표저와는 약간 다르다. 대개는 外傷으로 毒에 感染되고 臟腑의 火毒이 凝結되 所致이다. 처음에 皮肉中에서 갑자기 紅色의 硬腫이 생겨 작은 것은 栗이나 豆와 같고 큰것은 梅나 李와 같은데 漸次 黑色으로 變하며 疼痛이 極熱하고 유파후의 膿이 豆汁과 같다. 오래되면 筋骨이 腐爛한다. 일명「蛇瘡」이라 함. ②「掌心毒」의 별명이다.

表證(표증)

淺表部에 있는 病證을 말함. 六淫의 邪氣가 人體를 侵犯할 때, 먼저 皮膚 經絡을 侵犯하며, 或은 口鼻에서 肺胃로 侵入하여, 惡寒, 發熱, 頭汗, 身痛, 四肢痠痛, 鼻塞 或은 咳嗽, 脈浮, 舌苔薄白 等の 病症을 나타내는데, 그중에서 惡寒(或 惡風), 脈浮가 表證의 特徵이 된다. 그런데 表證에도 表寒, 表熱, 表虛, 表實의 區別이 있다. 該當各項을 參照. 表證은 感冒, 流行性感冒, 各種急性傳染病의 前驅期나 初期에 多見된다.

表寒(표한)

表證의 一種의 類型이다. 風寒을 感受한 後에, 發熱, 惡寒, 無汗, 頭痛項強, 骨體煩疼, 舌苔薄白, 脈浮緊等の 症狀이 나타난다.

表寒裏熱(표한이열)

表寒의 寒熱이 錯雜한 一種의 表現이다. 患者가 本來 內熱이 있었었는데, 또 風寒을 感受했거나, 或은 外邪가 裏部로 傳入하여 化熱했는데, 表寒이 未解한 것이다. 臨床表現은, 이미 惡寒, 發熱, 無汗, 頭痛, 身熱, 或은 氣喘, 脈浮緊 등의 表汗蒸이 있는데, 또 煩躁, 口渴, 尿黃, 便結 等の 裏熱證을 兼發한다.

表解裏未和(표해이미화)

①傷寒病의 表證은 이미 消失되었는데, 裏部에는 아직 水飲, 痰涎, 食滯, 瘀血 등이 있고 解除되지 않은 것. ②表證은 이미 解除되었는데, 虧損된 陰液이 아직 恢復되지 않은 것을 말함.

表虛(표허)

表證의 一種의 類型이다. 衛外하는 陽氣가 不足하여, 腠理가 不固해서 出現하는 證候를 말함. 그 表現은 表證의 證狀이 있는 外에, 自汗 或은 汗出惡風하고, 脈이 浮數 無力한 것이 特徵이다.

表虛裏實(표허이실)

表裏의 虛實이 錯雜한 一種의 表現이다. 患者가 平素 衛氣가 不足한데, 邪氣를 感受한 後, 邪熱이 內結한 所致이며, 或은 表證의 治療를 잘못 한 所致이다. 臨床表現은, 이미 惡風 汗出, 身熱 等の 表虛證이 있는데, 또 腹痛, 便秘 等の 裏實證을 兼發한다.

風(풍)

①病因으로, 六淫의 하나이다. 항상 其他病邪와 結合되어 發病한다. 例: 「風寒」, 「風熱」, 「風濕」, 「風燥」 등. 風은 陽邪이며, 發病症狀에 遊走性과 多變性이 있다. 「素問·風論」에서, “風者善行而數變 腠理開 則洒然寒 閉則熱而悶 其寒也 則衰食飲 其熱也 則消肌肉”이라 하였다. ②病症. 「肉風」 혹은 「風氣內動」의 項 參照.

風家(풍가)

①平素 傷風感冒에 걸리기 쉬운 사람을 말함. ②傷風感冒 或은 中風의 患者를 말함.

風癰(풍간)

① 癰症의 發作時에 項強하고 直視하며 人事不省이 되고 甚하면 이를 악문다.(牙關緊閉) 대개 肝經에 積熱한 所致이다. ② 風邪를 外感하여 發生하는 癰病으로 小兒急驚風에 이에 該當함.

風牽喎斜(풍견괘사)

「風牽偏視」의 項 參照.

風牽出臉(풍견출검)

「脾翻粘臉」의 項 參照

風牽偏視(풍견편시)

‘風牽喎斜’, ‘口眼喎斜’라고도 함. 主로 脾胃 二經의 氣가 虛하여, 絡脈이 空虛한데, 風邪가 虛를 틈타 侵入한 것이다. 그 特徵은, 眼과 口唇이 한쪽으로 偏向하며, 또한 언제나 流淚過多, 眼瞼閉合障礙등의 症狀이 있다. 이는 顔面 및 眼部를 支配하는 神經에 病이 있어서, 그것이 口眼部의 筋肉의 張力에 影響을 미치어 惹起되는 것이다.

風科(풍과)

中國古代의 醫學分科의 一種으로 宋代에는 大方脈 다음에 風科가 設置되어 80명의 學生이 있었다. 風科의 範圍는 風邪로 因한 各種의 疾病을 包括함.

風廓(풍곽)

「八廓」의 項 參照.

風關(풍관)

「透關射甲」의 項 參照.

風氣內動(풍기내동)

疾病의 發展過程中에 臟腑機能의 失調, 氣血의 逆亂에 依해, 動搖 眩暈 抽搐 등이 症狀이 出現하는 것을 風氣內動이라 한다. 臨床表現은, 頭目眩暈 四肢抽搐 強直 卒然昏仆 口眼喎斜 兩目上視 等이며, 특히 中樞神經系統機能의 重한 失調에 依해 意識障礙 或은 強直性痙攣을 일으키는 것이 特徵이다. 故로, “諸暴強直 皆屬於風”의 說이 있다. 「肝風內動」의 項 參照.

風輪(풍륜)

「黑睛」의 項 參照.

風輪(풍륜)

「五輪」의 項 參照.

風輪赤豆(풍륜적두)

本症은, 肝經에 積熱이 되어, 氣血이 失調된 所致이다. 그 主要症狀은, 風輪部位(黑睛)에 顆粒이 突起되고, 白睛(眼球結膜)에는 赤脈이 둘러싸서 赤豆와 같이 보이므로 이렇게 이른다.

風痢(풍리)

風邪가 內伏하여 脾胃를 傷한 所致이다. 먼저 瀉하고 後에 痢하며, 腸鳴腹痛하는 경우가 있고, 或은 純鮮血을 下痢하여 後重感이 있고, 脈이 沈細하며 弦한 等症을 나타낸다.

風木之臟(풍목지장)

「肝,體陰而用陽」의 項 參照.

風痺(풍비)

痺는 廢와 同義이다. 中風後에 出現하는 偏癱을 말함.

風秘(풍비)

이는 風邪로 因해 出現하는 大便秘結의 症狀이다. 患者는 大개 眩暈, 腹脹등의 兼症을 隨伴한다. 風熱感冒, 大腸燥結 或은 中風患者의 腸胃積熱 等症에서 볼 수 있다.

風痺(풍비)

行痺 或은 周痺라고도 하며 俗稱 走注라고 함. 痺證의 類型의 하나이다. 臨床表現은 肢體가 痠痛하고 疼痛이 流注하여 定處가 없다. 病因은 風寒濕의 三邪중에서 風邪가 偏勝하며 風邪가 流注하기 때문에 생긴다. 故로 『素問』 「痺論」에서 “其風氣勝者 爲行痺”라 하였다.

風痧(풍사)

「風疹」이라고도 함. 이는 小兒에게 常見되는 病이다. 風熱, 時邪에 感染되어, 肺衛를 鬱하므로 肌膚에 發하는 病症이다. 臨床表現은, 發疹前에는 뚜렷한 症狀이 없고, 發疹時에 一變적으로 輕微한 咳嗽을 隨伴하며, 皮疹은 大개 24時間以內에 全身에 일제히 나타나고, 瘙癢感이 있으며 二, 三日이면 消退된다. 皮疹이 消退된 後에 皮膚에 落屑이나 斑痕은 없다.

風消(풍소)

古病名이다. (素問·陰陽別論에 있음) 情志의 鬱結로 인해 形體가 消瘦되는 一種의 證候를 말함. 婦女인 境遇는 經閉가 되며 그것이 發展하여 血虛氣鬱로 인해 內熱이 생겨 陰核이 不斷히 消耗되므로 形體가 날로 消瘦된다. 張氏醫通에서 “風消者 發熱消瘦”라 하였다.

風水(풍수)

水腫證候의 類型의 하나이다. 主要表現은, 發病이 急激하며, 脈象이 浮하고, 骨節이 疼痛하며, 發熱, 惡風하고, 浮腫이 頭面에 比較적 甚하며, 大개는 風邪의 侵襲, 脾腎의 氣虛, 肺氣의 肅降機能失調, 水道를 通調하는 調水機能의 障礙로 因해, 水氣가 運行하지 않기 때문에 생긴다.

風濕(풍습)

①病因. 風과 濕이 結合된 病邪를 말함. ②病名으로서, 風濕로 因한 病이며, 「風濕證」이라고 함. 「傷寒論」에서 “風濕上搏 骨節冬煩 掣痛不得屈伸 近之則痛極……”이라 하였다. 「痺證」의 各項 參照.

風濕相搏(풍습상박)

「傷寒論」에 있음. 風邪와 濕邪가 人體의 肌表 筋骨에 侵入한 後, 相互 搏擊하여 나타나는 病變을 말함. 臨床表現은, 風濕이 肌表에 留하면, 身體疼痛으로 轉側不能하게 되고, 風濕이 關節에 留滯하면 四肢關節에 牽引性疼痛이 생겨 活動이 자유롭지 못하다.

風濕症(풍습증)

「風濕」의 項 參照.

風勝則動(풍승칙동)

『素問』『陰陽應象大論』에 있음. 風氣가 偏盛하여 出現하는 動搖의 病理을 말함. 風의 特徵은 流動이 迅速하고, 甚히 搖動하기 쉬우며, 變化가 빠른 것이다. 例컨대 眩暈動搖, 抽搐 振顫 攣急 等은 모두 風氣가 太過한 表現이다.

風癰(풍억)

「風懿」의 項 參照.

風熱(풍열)

風邪에 熱을 兼挾한 것을 말함. 臨床表現은, 發熱이 重하고 惡寒이 輕하며, 口渴·舌邊尖洪·苔微黃·脈浮數등이며, 甚하면 口渴·舌乾·目赤·咽痛·衄血 等症을 발한다. 「風熱感冒」의 項 參照.

風熱感冒(풍열감모)

本病은 風熱의 邪氣를 感受하므로 發病한다. 主要症狀은 發熱, 頭痛, 微惡風寒, 自汗, 鼻塞無涕, 咽喉痧痛, 咳嗽, 痰租黃, 口渴, 舌紅苔薄白微黃, 脈浮數등이다.

風熱眼(풍열안)

「風火眼痛」의 項 參照.

風熱喉痺(풍열후비)

대개의 경우, 風熱의 邪毒이 咽喉部를 侵襲하므로 惹起된다. 主된 症狀은, 咽部가 紅腫灼熱하고, 嚥下不利하며, 疼痛한다. 동시에 頭痛, 寒熱 等の 全身症狀이 隨伴된다. 本病은 急性咽頭炎과 類似하다.

風溫(풍온)

① 春季의 風溫病邪를 感受하여 發生하는 急性熱病이 한 種類이다. 葉天士의 溫熱論에서 “風溫者 春月受風 其氣已溫”이라 하였다. 本病은 처음에 邪氣가 肺의 衛分에 있고 主要症狀은 發熱, 口渴, 自汗, 惡寒, 咳嗽, 頭痛등이다. 病勢의 發展過程에서 때로는 神昏 痧어등의 逆轉心包의 症候와 發斑等症이 出現한다. ②溫病의 發汗後에 身灼熱 自汗 身體沈重 嗜垂 한聲 說話困難의 症候를 나타내는 것도 風溫이라 한다.(傷寒論에 있음)

風爲百病之長(풍위백병지장)

①風邪가 各種疾病의 發生을 誘發하는 重要因素가 됨을 말한다. 「六淫」中 風이 第1位에 놓였다. 臨床上 風邪가 惹起하는 疾病이 가장 廣範하며, 外感病中에서, 風은 多種의 邪氣와 相合하게 된다. 例컨대 風은 寒과 相合하여 風寒이 되고, 濕과 相合하여 風濕이 되며, 熱과 相合하여 風熱이 되는 等이다. ②疾病의 變化過程에서 흔히 나타내는 風의 症狀을 말한다. 例: 眩暈, 抽搐, 肢體震顫, 麻木 等. 「素問·風論」에서 “故風者 百病之長也 至其變化 乃爲他病也 無常方 然致有風氣也”라 하였다.

風懿(풍의)

風懿라고도 함. 中風의 證候의 하나이다. 갑자기 昏倒하여 舌強해서 말하지 못하고 喉中の 阻塞感和 痰鳴音이 있다. 이는 痰火閉塞의 所致이다.

風赤瘡瘍(풍적창이)

本病은 주로 脾經의 風熱 毒邪와 心火가 結合되어 눈으로 上攻한 所致이다. 그 症狀은 眼瞼(눈꺼풀)의 皮膚가 紅赤하고 水疱가 생겨 潰爛하며 形狀이 瘡瘍와 같다. 「瞼緣炎」의 類이다.

風燥(풍조)

風과 燥의 二種의 邪氣가 結合된 것을 말함. 대개 秋燥의 時令에 感受된다. 臨床表現은, 頭痛·發熱·惡寒無汗·鼻塞·唇燥·咽乾·乾咳·胸滿·脇痛·皮膚乾澀·舌苔白薄而乾·脈浮澀 등이다.

風疹(풍진)

「風痧」의 項 參照.

風疹塊(풍진괴)

「癰疹」의 項 參照.

風瘡(풍학)

夏季에 陰暑가 內伏한 데다가 다시 風邪를 感受하므로 發하는 一種의 瘡疾이다. 臨床表現은, 先寒後熱하고, 寒少熱多하며, 頭痛하고, 發熱時에 自汗出하며, 脈弦數 等症이다.

風寒(풍한)

風과 寒이 結合된 病邪를 말함. 臨床表現은, 惡寒이 重하고 發熱이 輕하며, 頭痛·全身痠痛·鼻塞流涕·舌苔薄白·脈浮緊 등이다. 「風寒感冒」의 項 參照.

風寒感冒(풍한감모)

本病은 風寒의 邪氣를 感受하므로 發病한다. 主要症狀으로는 發熱, 惡寒, 頭痛, 無汗, 鼻塞聲重, 噴嚏, 流涕, 喉癢咳嗽, 骨節酸痛, 口不渴, 苔薄白, 脈浮緊等이다.

風寒束肺(풍한속폐)

風寒의 外邪가 肺에 侵襲함을 말함. 主要症狀은, 鼻塞, 聲重, 噴嚏, 流涕, 咳嗽, 咯痰清稀, 頭痛, 惡寒, 微熱, 無汗, 或은 惡寒을 느낄 뿐이며 發熱이 없고, 舌苔薄白, 脈浮 等이다. 風寒感冒에 該當함.

風寒濕(풍한습)

風·寒·濕 三種의 邪氣가 結合된 것을 말함. 痺證이 곧 二三種의 邪氣가 混合되어 發病한 것이다. 「素問·痺論」에서 “風寒濕三氣雜之 合而爲痺也”라 하였다. 病邪가 肌膚·經脈·關節 등에 侵入하면 氣血의 運行이 阻礙되어 痠痛 麻木 腫脹 關節重着 等症을 發한다. 內臟에 侵入하면 僂僂·心悸·氣喘等의 內臟痺證을 發한다. 風·寒·濕 各種邪氣의 偏勝에 依하여 臨床症狀에도 各各 差別이 있다. 「痺證」의 各項 參照.

風弦赤爛(풍현적란)

「眼弦赤爛」의 項 參照

風火上煽(풍화상선)

急性熱病의 極期에, 高熱로 因해 神昏 狂躁 驚厥 抽搐의 病理現象이 同時에 出現함을 形容하는 것이다. 熱極하면 生風하고, 風이 盛하면 火가 더욱 熾烈해져서 兩者는 相互作用을 한다. 辨證上 대개 「氣營兩燔」의 證候에 屬하며, 乙型腦炎 流行性腦膜炎등의 急性傳染病에서 볼 수 있다.

風火眼痛(풍화안통)

「風熱眼」 또는 「火眼」이라고도 함. 즉 急性結膜炎이며 風熱을 感受한 所致이다. 그 主要症狀은 兩眼이 刺痛하고 異物感이 있으며 分泌物이 增多되고 아침에 起床하면 上下의 眼瞼이 粘着되어 눈을 뜨기 어렵고 結膜이 充血되며 重한 경우는 病勢가 激烈하여 發熱 頭痛 등의 全身症狀이 發하게 된다.

披肩(피견)

古代의 正骨用 器具이다. 무두질한 牛皮(鞣皮)로 만든 것이며, 鎖骨의 骨折時에 肩部를 固定하는 데 쓰는 器具이다. 現在는 그 대신 板紙 및 8字形 繃帶로 固定시킨다.

皮內鍼(피내침)

皮下埋鍼이라고도 함 鍼刺法의 一種이다 그 方法은 길이 1촌가량의 소독한 毫鍼혹은 鈹鍼을 써서 사자로 皮下에 자이바여(鍼병은 노출시킴)반창고로 고정해서 局部가 불통하고 丸자의 지체활동에 영향을 주지 않는 조건하에서는 1-7일간 皮下에 留治한다. 이 方法은 慢性 혹은 疼痛성 瘰癧의 治療에 多用된다

避年(피년)

「經閉」의 項 參照.

鈹刀(피도)

「鈹鍼」의 項 參照.

皮毛(피모)

體表의 皮膚와 皮膚上에 附隨된 毫毛의 合稱. 「肺主皮毛」로서 皮毛의 潤澤은 肺氣機能이 調和된 一種의 表現이다. 皮毛와 汗腺은 呼吸調節作用을 具有하며, 皮毛가 風寒 等 外邪의 侵襲을 받으면 肺에 影響을 주어, 一部 呼吸系統의 病症을 일으키기 쉽다.

皮毛癢(피모위)

癢證으로 皮毛가 枯槁하여 潤澤을 잃는 症狀을 말함. 素問·癢論에서 “肺主身之皮毛… 故肺熱葉焦 則皮毛虛弱 急迫 着則生癢也”라 하였다.

皮翻證(피번증)

「脾翻粘臉」의 項 參照

皮部(피부)

「十二皮部」의 項 參照.

皮膚鍼(피부침)

梅花鍼 七星鍼이라고도 함 그 제작은 一般的으로 5-7개의 봉鍼을 나란히 동여매고 鍼침을 가지런히 하여 그것을 세죽봉의 일단에 고정시킨다 鍼刺시에는 손으로 죽봉을 잡고 鍼침으로 一定部位의 皮膚상을 타해서 治療목적에 도달하는 것이다

皮痺(피비)

『素問』「痺論」에 있음. 皮膚의 症狀을 爲主로한 痺症이다. 臨床表現은 皮膚가 冷하고 麻木되는 等이다. 風寒濕의 邪氣가 肌表에 侵入하여 衛陽의 氣가 溫養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皮水(피수)

水腫證候의 類型의 하나이다. 主要表現은, 發病이 緩慢하고, 全身性浮腫을 나타내며, 肢體가 疼痛 沈重하며, 無汗하고, 皮膚가 冷하며, 四肢에 陷凹性水腫이 비교적 甚하고, 脈象이 浮하다. 대개는 脾虛 濕盛으로 因해, 皮膚로 水溢한 所致이다.

皮腠(피주)

「腠理」의 項 參照.

鉞鍼(피침)

피도 배鍼 劍鍼이라고도 한다 古代 九鍼의 一種이다 鍼의 하단이 보검형이며 양면에 날이 있다 外科에 多用되어 膿저를 자파해서 膿血을 排出함

皮下埋鍼(피하매침)

「皮內鍼」의 項 參照.

筆管癰(필관선)
圓癰이라고도 함.

下工(하공)

古代에 醫療技術이 높지 못한 醫員을 일컫는 呼稱이다. 醫療知識水準이 낮으므로 發病前의 疾病의 豫防 治療 技術을 갖추지 못하고, 往往 疾病이 이미 充分히 顯著해진 때에야 診斷 治療를 하게 되고 또한 治療率이 겨우 60%정도이다.

夏鉤(하구)

「夏洪」의 項 參照.

下厥上冒(하궤상모)

通常, 이는 氣가 下에서 逆流하여 頭部로 上冒하므로, 頭目昏花의 證候를 나타냄을 말한다. 但, 「素問·五藏生成篇」에서 述한 바에 의하면, 오로지 脾胃의 氣가 逆亂함을 말한 것이다. 胃의 濁氣가 下行하지 못하고, 脾의 清氣가 上昇하지 못하므로 因해 濁氣가 厥逆相衝해서, 頭暈眼花 視物不明 腹脇脹滿 등의 症狀를 나타내게 된다.

下竅(하규)

前陰의 尿道(일설은 정규를 포괄함)와 後陰의 肛門을 말함.

下極(하극)

「山根」의 項 參照.

下極(하극)

①肛門을 말함. 消化徑路의 最下端이므로 下極이라 함. ②會陰을 말함. 「會陰」의 項 參照. ③面部의 望診部位로서, 左右 內眼角의 中間에 있으며, 古人은 望診으로 心病을 診察할 때 參考가 된다고 보았다.

下極之下(하극지하)

「鼻柱」의 項 參照.

下汲腎陰(하급신음)

「汲」은 吸引을 뜻함. 心火가 過亢하여 命門火를 吸引해서 妄動하여 腎陰이 耗損되고, 性機能을 亢進·興奮시켜 遺精 早漏 虛煩失眠 등을 나타냄을 말함.

下氣(하기)

「降氣」의 項 參照.

下氣(하기)

① 氣가 腸道에서 泄出된 것. 屬칭 방귀 ② 身體의 下部의 氣를 말함. ③ 降氣의 治法을 말함.(降氣의 項 參照.)

下氣海(하기해)

「氣海」의 項 參照.

下丹田(하단전)

「丹田」의 項 參照.

下都穴(하도혈)

「八邪穴」의 項 參照.

下利清穀(하리청곡)

「下利」은 일반적인 腹瀉(泄瀉)를 말함. 「下利清穀」은 瀉下하는 糞便이 清水와 같고, 未消化된 食物殘渣가 隨伴되며, 糞에 냄새가 없고, 惡寒肢冷, 神倦脈微 등 脾腎陽虛의 症狀이 나타난다.

蝦蟆瘟(하마온)

①「大頭瘟」의 項 參照. ②「疔腮」의 別稱.

下迫(하박)

急に 大便하고자 하지만, 排便이 不暢한 窘迫한 狀態를 形容한 것임.

下膊(하박)

「臂」의 項 參照.

下發背(하발배)

「發背」의 項 參照.

下法(하법)

「瀉下」, 「攻下」, 「通利」, 「通下」라고도 함. 瀉下 或은 潤下作用이 있는 藥物을 運用하여 大便을 通導케 하고 積滯를 消除하며 實熱을 蕩滌하고 水飲을 攻逐하는 一連의 治法이다. 寒下, 溫下, 潤下等法으로 나뉜다. 瀉下藥中에는 潤下藥이 비교적 和緩하고 그밖에는 모두 藥性이 峻烈하므로 老人이나 體弱者에게는 慎用해야 하며 妊婦와 月經期에는 쓰지 말아야 한다. 實結症狀이 없으면 경솔하게 쓰지 말아야 한다. 장티푸스에는 攻下法을 쓰지 않는다. 腸出血이나 腸穿孔을 야기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다.

下病上取(하병상취)

『素問』「五常政大論」에서 “病在下取之上”이라 하였다. 1)疾病의 證狀이 下部에 表現되는

데, 上部의 穴位에 鍼刺함을 말함. 例컨대 脫肛證에 頭部の 百會穴을 刺한다. 2)疾病의 證狀이 下部에 表現되는데, 上部에서 治療하는 藥物을 쓰는 것을 말함. 例컨대 肺의 燥邪로 因해 水氣運行이 안되어 小便不利를 誘發하고, 咽乾, 煩渴欲飲, 呼吸短促, 舌苔薄黃, 脈數 等證이 發할 경우, 清肺飲(桑白皮, 麥門冬, 茯苓, 黃芩, 木通, 車前子)을 써서 上焦에서 治療한다.

癰疽(하산)

「癰疽」의 項 參照.

下石疽(하석저)

「石疽」의 項 參照.

下消(하소)

「腎消」라고도 함. 尿量이 많고, 小便이 脂膏처럼 끈끈함을 主症으로 하여, 언제나 煩燥, 口乾引飲, 舌紅, 脈의 沈細數를 兼發한다. 本病은 腎陰이 毀損되고 虛해서 固攝하지 못하는 所致이다. 또한 脾의 輸化機能 失調와도 有關하다. 만약 小便이 頻多하고, 面色이 暗黑하며, 陽痿가 되고, 脈象이 沈細弱하면, 이는 陰陽兩虛의 症候이다.

下損及上(하손급상)

虛損病이 下部에서 上部로 發展한 病變을 말함. 만약 腎臟에 먼저 虛損의 證候가 나타나서 오래 낫지 않으면 肺臟의 虛損을 誘發하는바, 이를 下損及上이라 한다. 先人들의 說에, 一損腎(遺精, 經閉), 二損肝(脇痛), 三損脾(脹, 瀉), 四損心(驚悸, 不眠), 五損肺(喘咳)라고 하였는데, 이는 下에서 上으로 傳變됨을 가리켜 말한 것이다.

下牙床(하아상)

「頰車」의 項 參照.

下脘(하완)

「胃」의 項 參照

下元不固(하원불고)

「腎氣不固」의 項 參照.

下元虛憊(하원허비)

「腎陽虛」의 項 參照.

下元虧損(하원휴손)

「腎陰虛」의 項 參照.

夏菱(하위)

「疰夏」의 項 參照.

下乳(하유)

「催乳」의 項 參照.

蝦遊脈(하유맥)

七怪脈의 一種. 脈이 隱隱히 왔다가 一躍하고 사라져서, 마치 새우가 浮遊하는 것 같다.

下陰(하음)

「前陰」의 項 參照.

夏應中矩(하응중거)

『素問, 脈要精微論』에 있음. 矩는 古代의 四角形을 校正하던 工具이다. 夏應中矩는, 夏季의 脈象을 方正하고 充盛한 구形에 比喻하여, 약간 洪盛함을 表現한 것임.

下者舉之(하자거지)

『素問』「至眞要大論」에 있음. 「下」은 下陷이고, 「舉」은 升擧이다. 中氣가 下陷하면 補中藥을 써서 升提시켜야 한다. 例컨대, 中氣가 虛하고 下陷하여, 脫肛이 오래도록 不癒하면, 補中益氣藥을 써서 中氣를 升擧시키면 좋다. 이렇게 하면 脫肛이 收斂된다. 「補氣」, 「升提中氣」의 項 參照.

夏疰(하주)

「疰夏」의 項 參照.

下肢潰瘍(하지궤양)

「臙瘡」의 項 參照.

下焦(하초)

「三焦」의 項 參照

下焦濕熱(하초습열)

「濕熱下注」의 項 參照.

下焦如瀆(하초여독)

『靈樞』「營衛生會篇」에서 “下焦如瀆”이라 하였다. 『瀆』은 下焦에서 水液이 排出됨을 形容한 것임. 『下焦如瀆』은 주로 腎과 膀胱의 排尿作用을 말하며, 同時에 腸道의 排便作

用도 包括한다. 下焦의 主要機能은 體內에서 消化된 後의 殘餘物質을 清濁으로 分別하여, 糟粕을 大腸으로 보내는 것이다. 水液은 腎의 氣化를 거쳐 膀胱으로 滲入된다. 이 作用이, 用水路가 疏通에 需要되는 것과 같으므로 이렇게 말한다.

下焦主出(하초주출)

『難經』『三十一難』에서, “下焦資, …主出而不納, 以傳導也”라 하였다. 이는 大小腸, 膀胱等腑의 機能을 말한 것으로, 그 主된 機能은 水液의 灌滲과 清濁의 分別, 그리고 大小便의 排泄로서, 出을 主管하고 不納하므로 이렇게 말한다.

瘕聚(가취)

婦女의 任脈에 受病하는 證候이다. 主要症狀은, 腹部의 臍下에 硬塊가 생겨, 밀면 移動하고, 痛處가 一定하지 않다.

下搭手(하답수)

「搭手」의 項 參照.

下巴(하파)

「頰」의 項 參照.

下巴殼(하파각)

「頰」의 項 參照.

下品(하품)

「三品」의 項 參照.

下陷(하함)

一般的로 氣虛下陷을 말함. 「中氣下陷」의 項 參照.

夏洪(하홍)

夏鉤라고도 함. 正常脈象의 夏季에 있어서의 變化를 말함. 洪과 鉤는 流量이 洪大함을 象徵하며, 脈勢가 來脈은 盛하고 去脈은 衰하여, 脈破가 急升했다가 頑強함을 形容한 것이다. 夏季는 陽氣가 旺盛하므로 脈氣도 相應하게 약간 洪大해진다.

下橫骨(하횡골)

「橫骨」의 項 參照.

學.撰.輯(학.찬.집)

醫書의 著作밑에 學字를 붙인 경우가 있는데 實際로는 編著이며 學의 뜻은 學習을 말하는 것이고 謙遜을 표하는 것임. 撰도 編著의 뜻임. 輯은 編輯 收集을 말함. 例컨대

神農本草經의 原書는 이미 散逸되었는데 靑代 孫星衍등이 證類本草에서 摘出하여 出版 (AD 1799)한 것을 集本이라 한다.

瘡勞(학로)

「勞瘡」의 項 參照.

瘡母(학모)

瘡疾이 長期間에 걸쳐 不癒하여 氣血이 虧損되고, 瘀血이 脇下에 凝結되어, 痞塊가 出現하는 것을 瘡母라하며, 久瘡後에 脾臟이 腫大한 病症과 類似하다.

瘡母丸(학모환)

「軟堅散結」의 項 參照.

鶴膝風(학슬풍)

膝關節이 腫大疼痛하고 股脛의 肌肉이 消瘦되는 것이 特徵이며 形態가 鶴膝과 같으므로 이렇게 이름한다. 本病은 腎陰이 虧損되고 寒濕이 下肢에 侵入하여 關節에 流注된 所致이다. 대개는 歷節風에서 發展하여 생긴다.

鶴膝風痰(학슬풍담)

流痰의 一種이다. 膝關節部에 생긴다. 初期에는 膝關節周圍가 綿처럼 腫起하여, 不痛하거나 或은 隱痛 痠楚하며, 皮膚色이 變하지 않고, 熱도 없으며, 緩慢하게 脹痛이 增加되어, 漸次 다리를 屈伸할 수 없게 되고, 肌肉이 날로 萎縮되어 돌처럼 堅硬해진다. 오랜 후에 潰破되어 稀汁 或은 腐敗物이 섞인 汁이 나온다. 오래 되면 關節의 半脫臼 或은 膝의 內翻 外翻 畸形이 되고, 患肢가 短縮된다. 膝關節結核의 類이다. 「流痰」의 項 參照.

瘡疾(학질)

古代에는 「瘡瘡」이라 統稱하였다. 寒戰, 壯熱, 汗出, 定期發作을 特徵으로 한다. 古人은 實踐을 통하여 本病이 夏秋季節과 山林地帶, 모기가 繁殖하기 쉬운 時期나 環境에서 發病함을 觀察하여, 이 病因은 夏季에 暑邪를 感受하거나, 或은 山嵐瘴氣에 接觸하거나, 或은 寒濕의 邪를 感受함으로써 惹起되는 것으로 認識하였다. 邪氣가 半表半裏에 潛伏하여, 邪氣와 正氣가 相爭해서, 一定한 條件下에 發病한다. 그 分類는 대체로 다음과 같다. 1)臨床證候에 따라 나눈다. 發熱이 있고 自汗하는 것은 風瘡이다. 壯熱이 나고 煩渴한 것은 暑瘡이다. 胸悶, 惡心, 身痠肢重한 것은 濕瘡이다. 先寒後熱하고, 寒이 重하며 熱이 輕한 것은 寒瘡이다. 先熱後寒하고, 熱이 重하며 寒이 輕한 것은 溫瘡이다. 發熱할 뿐이고 惡寒이 없는 것은 瘴瘡이다. 惡寒할 뿐이고 發熱이 없는 것은 牝瘡이다. 眩暈嘔逆하고, 痰盛 昏迷하는 것은 痰瘡이다. 久瘡으로 體虛한 것은 虛瘡이다. 久瘡으로, 脾臟이 腫大한 것은 瘡母이다. 一日一發하는 것은 單日瘡이다. 二日에 一發하는 것은 間日瘡이다. 三日에 一發하는 것은 三日瘡이며, 三陰瘡이라고도 한다. 2)誘發要因과

流行特徵에 따라 나눈다. 疲勞에 의해 發하는 것은 勞瘧이다. 食事로 인해 誘發되는 것은 食瘧이다. 山嵐瘴氣로 인해 發하는 것은 瘴瘧이다. 以上の分類는 다만 現象에 따른 分類일 뿐이며, 辨證施治에 있어서, 얼마간의 意義가 있지만, 實際로는 疫瘧, 痰瘧, 瘴瘧등은 대개 惡性瘧疾에 屬하며, 그중의 痰瘧, 瘴瘧은 腦型惡性瘧疾과 類似하다. 其他의 瘧疾은, 瘧疾의 兼症에 屬하는 것도 있고, 瘧疾과 類似한 其他 熱病人 것도 있다. 瘧證의 各項을 參照.

寒(한)

①六淫의 하나. 寒은 陰邪에 屬하며, 陽氣를 傷하기 쉽고, 氣血의 活動에 影響을 미친다. 人體의 陽氣가 不足하고, 衛氣가 固密치 못하면, 寒邪의 侵襲을 받아 病이 되기 쉽다. 흔히 볼 수 있는 症狀은, 惡寒·發熱·頭痛·身痛·骨節疼痛 혹은 腹痛泄瀉등이다. ②機能衰退의 症狀. 「內寒」의 項 參照.

汗家(한가)

發病後에 이미 發汗法을 썼거나 或은 平素 多汗한 사람을 말함. 이런 사람에 對하여, 張仲景은 『傷寒論』에서, 다시 發汗시켜서는 안되며, 만약 再發汗시키면 精神恍惚, 心煩, 小便後尿道疼痛 等症을 發한다고 하였다.

寒結(한결)

大便의 秘結이 陰寒의 凝滯에 起因한 것을 寒結이라 한다. 臨床表現은, 순淡泊, 口淡, 舌苔白滑, 小便清, 或腸鳴하고, 腹痛등을 나타낸다. 「冷秘」라고도 함.

骭骨(한골)

「骭骨」의 項 參照.

寒厥(한결)

陽氣의 虛微로 인해 惹起되는 厥症이다. 素問·厥論에서 “陽氣衰于下 則宜寒厥…”이라 하였다. 內臟의 虛寒에 起因한 境遇는 身倦惡寒하고 清穀을 下痢하며 四肢逆冷 口不渴의 症狀을 나타내고 或은 身冷하여 웅크리고 臥하며 腹痛面赤하고 指爪가 青暗色이 되며 甚하면 昏倒한다. 血脈의 寒凝에 起因한 境遇는 四肢이 厥冷하고 關節이 疼痛하며 脈象이 微細한 等症을 나타낸다.

寒極生熱, 熱極生寒(한극생열, 열극생한)

「重陰必陽, 重陽必陰」과 同議이다. ①自然氣候의 變化를 말함. 例컨대, 冬季의 寒冷之極은 곧 春夏의 溫熱로의 轉換이며, 夏季의 炎熱之極은 곧 秋冬의 寒涼으로의 轉換이다. ②病理變化를 말함. 例컨대 寒性の 病證은, 病情이 發展하여 寒極의 段階에 이르면 虛陽이 外浮하므로 假熱現象이 나타나며, 熱性の 病證은, 病情이 發展하여 熱極의 段階에 이르면, 熱邪의 內伏으로 인해 假寒現象이 나타난다. 「重陰必陽, 重陽必陰」의 項 參照.

寒痰(한담)

痰質이 묽고, 흰 것이 特徵이다.風寒의 外感으로 發病한 경우는, 반드시 惡寒 發熱 頭痛 喉痒 咳嗽 等症을 隨伴한다. 脾腎의 虛寒으로 惹起된 경우는, 惡寒 肢冷 精神的疲勞 胃弱(納呆) 脈沈緩 等症을 나타낸다.

汗毒(한독)

「發頤」의 項 參照.

寒涼派(한량파)

「金元四大家」의 項 參照.

寒痢(한리)

「冷痢」라고도 함. 炎熱하여 貪涼하고, 生冷不潔한 飲食物을 過食하므로, 寒氣가 凝滯되어 脾陽이 受傷한 所致이다. 下痢하는 便이 白色이거나 或은 赤白色이 相兼하기도 하고, 質이 묽으며 腥味が 나고, 苔白, 脈遲 等症을 나타낸다.

旱苗法(한묘법)

「人痘接種法」의 項 參照.

寒無犯寒(한무범한)

「素問. 六元正紀大論」에 있음. 이는 熱證이 없으면 寒冷的한 冬節에 함부로 寒藥을 쓸 必要가 없다는 뜻이다. 이리하여 陽氣를 損傷해서 辨證이 發生하는 것을 피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裏部에 實熱이 結滯되어 있는 경우, 寒冷的한 攻下藥을 써야함은 例外이다. 그런데 冬節에 寒冷的한 攻下藥을 쓸 경우는, 方藥을 選擇하여 劑量도 敵意하게 考慮해야 한다.

寒無浮, 熱無沈(한무부, 열무침)

本草綱目 서례에 있음 한성藥의 作用은 향리 下向하므로 浮의 作用이 없고 열성약의 作用은 上向外向하므로 沈의 作用이 없다 그러나 이것도 絶對的인 것이 아니다 예컨대 桑葉은 寒性인데 上行하여 明目케하고 巴豆는 熱性인데 下向하여 大便을 통리시킨다.

汗斑(한반)

「紫白癜風」의 項 參照.

汗法(한법)

「發汗法」이라고도 함.發汗作用이 있는 藥物을 服用하여 汗法을 통해 表邪를 解除하는 것을 말함.汗法에는 退熱(熱을 내리는 것),透疹,消水腫,去風習等の 作用이 있으며 주로 外感表症 및 表症이 있는 癰腫,麻疹,水腫의 初期(上半身の 水腫이 비교적 현저한 것)等에 적용된다.發汗解表는 汗出이 邪氣를 제거하는데 적합해야 하며 發汗이 太過하면 津

液을 損傷하게 되고 甚하면 大汗이 不止하여 虛脫을 야기한다. 무릇 心力衰弱(心臟衰弱), 吐瀉失水, 出血, 津液虧損의 경우는 모두 汗法을 禁한다. 만약 體質이 虛弱한데 發汗解表가 꼭 필요한 경우는 益氣 滋陰 等藥을 配合해서 同用해야 한다.

寒痺(한비)

痛痺라고도 함. 痺證의 類型의 하나이다. 臨床表現은 肢體가 痠痛하고 疼痛의 程度가 比較的 劇烈하며 寒을 만나면 痛症하고 得熱하면 痛減한다. 病因은 風寒濕의 三邪중에서 寒邪가 偏勝하여 氣血을 凝滯不通케하기 때문이다. 故로 素問·痺論에서 “寒氣勝者爲痛痺”라 하였다.

寒瀉(한사)

內臟이 虛寒한 所致이다. 臨床表現은, 大便이 清冷 稀薄하고, 鴨糞과 같으며, 腹中이 계속 作痛하고, 小便이 清白하며, 苔白滑, 脈沈遲등을 나타낸다. 或은 腸鳴腹痛, 完穀不化, 脈沈遲無力 등을 나타내기도 한다.

寒疝(한산)

①一種의 急性腹痛의 病症이다. 「金匱要略」에 있음. 脾胃虛寒 或은 產後血虛한데 다시 風寒外邪를 感受하여 腹中에 結聚되어 發病한다. 症狀은, 臍周圍가 絞痛하고, 冷汗하며, 四肢厥逆하고, 脈象이 沈緊하며, 甚하면 全身이 冷해지고, 四肢 麻木(無感覺)이 된다. 血虛者에게 發病하면, 腹痛이 兩脇部에 까지 미치고, 小腹이 攣急한다. ②寒邪가 厥陰經에 侵入한 痛證을 말함. 症狀은, 陰囊이 冷痛 腫硬하고, 睪丸이 당기고 아프며, 陰莖이 不舉하고, 喜暖畏寒하며, 몸과 四肢가 冷하다.

寒傷形, 熱傷氣(한상형, 열상기)

「素問·陰陽應象大論」에 있음. 外感의 寒邪는 대개 먼저 外部의 形體에 損傷을 끼친다. 例컨대 頭痛 惡寒 肢節痠痛 등이며, 이는 形體가 受病한 症狀이다. 外感의 熱邪는, 人體의 陽氣를 가장 損耗하기 쉽다. 「熱則氣泄」하기 때문이다. 例컨대 暑熱證의 대한 脈濡數은 熱이 氣를 傷한 表現이다.

鼾聲(한성)

코를 고는 소리. 則 睡眠中에 呼吸의 거친 울림소리를 내는것. 正常人은 生理現象에 屬함. 病理性인 鼾聲은 昏微病因에게 多見되며 痰이 心竅를 沮害한 閉證에 屬한다. 溫熱病의 熱盛傷陰 或은 肺氣不利等の 境遇에도 볼 수 있다.

寒濕(한습)

①濕濁이 胃腸을 內困케하여 脾陽을 損傷하거나, 或은 患者가 평소 脾腎陽虛하여 水飲이 內停하면 모두 畏寒肢冷 腹脹 大便稀瀝 혹은 새벽설사 浮腫 等症이 出現하게 된다. ②病因. 즉 寒과 濕이 결합된 病邪. 發病하면 위외의 陽氣가 運行하지 않고, 血流가 不

暢하여, 肌膚疼痛 關節攣痺 等症을 말한다.

寒濕痢(한습리)

痢疾證候의 類型의 하나이다. 脾胃가 陽虛하여, 濕濁이 內阻한 所致이다. 白色의 稀膿이나 或은 魚腦와 같은 便을 下痢하며, 脘腹이 痞脹하고, 腹痛이 連綿하면서 後墜하고, 無熱하며, 神疲하고, 不渴하며, 胃弱(納呆)하고, 小便이 清白하거나 微黃하며, 舌淡하고, 脈象이 緩하거나 或은 遲한 等症을 나타낸다.

寒勝則浮(한승척부)

『素問·陰陽應象大論』에 있음. 여기서의 「浮」는 浮腫을 말함. 즉, 寒氣가 偏勝하여 浮腫이 出現하는 病理을 말함. 寒氣가 偏勝하면 陽氣가 不足하고, 寒凝氣滯하여 氣血의 運行이 不暢해서 水濕이 停留하므로 浮腫이 생긴다. 例로서 慢性腎痰은 대개 寒氣가 偏盛하고, 脾腎이 陽虛한 表現이다.

寒實(한실)

正氣가 不虛하며, 寒邪가 內部에 結滯된 病症을 말함. 臨床表現은, 口中이 調和하며, 舌苔白, 四肢冷, 小便清, 腹痛, 大便秘, 脈沈弦 等症이 있다.

寒實結胸(한실결흉)

結胸證의 한 類型이다. 이는 太陽病에 冷水浴을 誤用하여, 邪熱이 寒氣에 依해 抑制되고, 水寒이 肺를 傷하며, 寒氣가 胸中에 結聚된 所致이다. 主要症狀은, 胸痛, 心煩, 口渴, 不發熱 等症이다.

寒熱(한열)

①八綱中에서 疾病의 屬性을 鑑別하는 二個의 綱領이다. 즉 陽勝即熱, 陰勝則寒이다. 實質上으로는, 寒熱은 陰陽의 偏盛 偏衰의 具體的表現이다. 寒熱의 具體的 證狀은, 寒證, 熱證의 各項을 參照. 疾病의 屬寒屬熱을 辨別함은 治療를 確定함에 있어서 重大한 意義가 있다. 治法上의 寒者熱之, 熱者寒之는 治法을 決定하고, 處方 用藥을 定하는 데 重要한 根據가 된다. 寒과 熱은 相對的인 것인데, 病者는 相互 連繫되어, 때로는 眞寒假熱, 眞熱假寒 或은 寒熱錯雜등의 情況을 나타내게 되므로, 臨床에서 이를 辨別하는 데 注意 해야 한다. ②惡寒發熱症狀의 略稱이다.

寒熱往來(한열왕래)

惡寒時에는 發熱하지 않고 發熱時에는 惡寒하지 않으며 惡寒과 發熱이 交潛해서 出現하며 定時 或은 不定時로 發作하는 情狀을 말함. 이는 少陽病으로 精氣와 邪氣가 相爭함으로써 出現하는 熱型이다.

寒熱錯雜(한열착잡)

寒證과 熱證이 交錯해서 同時에 出現함을 말한다. 例컨대, 「上熱下寒」, 「上寒下熱」, 「表

熱裏寒」, 「表寒裏熱」등은 모두 寒熱錯雜의 病理現象이다.

汗爲心液(한위심액)

「五臟化液」의 項 參照.

寒慄鼓含(한울고함)

鼓慄 혹은 振慄이라고도 함. 寒慄은 惡寒하면서 몸이 떨리는 것으로 戰慄이라고도 함. 鼓含은 惡寒時에 全身이 떨리고 上下의 齒牙가 계속 덜덜 떨리는 狀態를 形容한 것임. 溫疫 혹은 霍疾患者의 惡寒에 往往 이런 症狀이 出現한다.

寒凝氣滯(한응기체)

身體의 어느 部位에 寒邪가 凝集되므로, 氣滯疼痛의 病變이 出現함을 말함. 寒은 陰邪로서, 그 性質이 凝滯하고 收縮하여 陽氣를 傷하기 쉬운데, 人體의 血氣는 溫을 좋아하고 寒을 畏하며, 寒하면 氣의 流通이 阻碍되고 血脈이 凝滯되어 痙攣疼痛의 症狀이 생긴다.

漢醫(한의)

韓國 日本人의 韓醫學에 대한 呼稱이다. 韓方醫學이라고도 함

寒因熱用(한인열용)

「熱因熱用」의 項 參照.

寒因寒用(한인한용)

反治法의 하나이다. 內部에 眞寒이 있고 外表에 假寒이 있는 證狀을 治療하는 方法을 말함. 病의 實質은 眞熱인데, 假寒의 現象을 나타내는 것으로, 즉 內部는 眞寒이고 外表가 假寒인 경우, 모름지기 寒冷藥을 써서 治療해야 한다. 例컨대 病人이 身大熱, 口大渴, 大汗出, 脈洪大하고, 四肢逆冷 等證을 發하는 경우, 그중의 四肢逆冷은 假寒이고, 餘他の 證候는 眞熱이다. 白虎湯을 써서 煎湯 亦服해야 한다. 寒은 假象이고, 熱이 病의 實質이므로 본래대로 韓藥을 써서 解決해야 한다. 「熱因熱用」과 「寒因寒用」은 「素問. 至眞要大論」에서 「熱因寒用」, 「寒因熱用」이라고 썼었는데, 後人이 「寒因寒用」, 「通因通用」과 連繫시켜, 「熱因熱用」, 「寒因寒用」로 고쳤다. 지금은 이에 따르고 있다.

寒者熱之(한자열지)

「素問. 至眞要大論」에 있음. 證候가 寒에 屬하는 것은 溫熱性藥物을 써서 治療한다는 뜻이다. 實證에는 表寒, 裏寒等의 差異가 있다. 表寒의 治法에는 「辛溫解表」法이나 或은 其他 表寒을 溫散시키는 等の 方法을 쓰며, 裏寒의 治療에는 溫中散寒, 回陽救逆等의 方法이 있다.

寒劑(한제)

「寒能去熱」로서, 黃連, 黃芩의 類이다. 즉 寒藥으로 熱證을 治하는 것이다. 예컨대 表裏의 火熱이 俱盛하여 大熱煩躁하고, 甚하면 發狂하며, 乾嘔, 小便赤色, 吐血, 鼻出血, 發斑하고, 瘡瘍疔毒 등의 實熱證이 있는 경우에는, 黃連解毒湯(黃連, 黃芩, 黃柏, 梔子)을 쓴다.

寒從中生(한중중생)

무릇, 內寒에 屬하고, 陽氣의 虛衰에 屬하며, 臟腑機能의 不足로 因해 생기는 陰寒證候는 모두 「寒從中生」(여기서 「中」字는 일반적으로 臟腑를 指稱함)이다. 主要表現은 ①陽氣가 虛하고 寒邪가 盛하므로 생기는 寒痺에서 常見되는 症狀은, 肢寒痺痛 筋脈攣急 面色蒼白 惡寒肢冷 等이며, 그 發病은 腎陽不足과 비교적 密接한 關係이 있다. ②陽氣不足로 因해 代謝機能에 影響을 미치어 나타나는 病理性產物의 留滯으로서, 예컨대 積液 脹滿 水腫 痰飲 等이 發生하는 것이다. 이들 證候는 언제나 脾腎陽衰와 비교적 密接한 關係이 있다.

寒證(한증)

寒邪로 因해 惹起되거나, 或은 陽氣의 衰弱, 陰氣의 過盛으로 因해 身體의 機能과 代謝活動이 衰退하고, 抵抗力이 減弱됨으로써 나타나는 寒의 證候이다. 예컨대 體溫不足, 面色蒼白, 精神萎縮, 倦臥, 喜溫怕冷, 脘腹冷痛하는데 加溫하면 減退되고, 口不渴或渴喜熱飲, 大便溏薄, 小便清長, 舌質淡苔白滑, 脈沈遲等證이다. 慢性病, 機能衰退性疾病에서 多見된다.

寒滯肝脈(한체간맥)

寒邪가 肝脈에 凝滯된 病變을 말함. 肝의 經脈은 外陰部에 連絡되고 小腹을 거쳐 兩脇에 分布되었다. 寒邪가 肝의 經脈에 凝滯되면, 該當經脈을 攣急케 해서, 下腹이 脹痛하면서 辜丸이 땅기고 아프며, 肢冷畏寒하고, 舌苔白滑, 脈沈弦或遲 等이 나타난다. 辜丸·副辜丸의 一部疾病 및 疝氣 등에서 多見된다.

汗出如油(한출여유)

疾病이 危驚할 때 汗出이 不止하고 汗의 性狀이 기름처럼 粘위한 것을 말함. 亡陽虛脫, 예컨대 中風脫證等에서 나타난다. 脫汗의 項 參照.

汗出漉漉然(한출즙즙연)

漉은 水가 外流한다는 뜻. 汗出이 끊임없이 持續됨을 形容함. 이는 胃腸의 熱이 盛하여 邪熱이 蒸迫해서 汗液이 外泄하는 所致이다.

寒則氣收(한척기수)

『素問』「舉痛論」에 있음. 「寒則收引」이라고도 함. 「收」는 斂縮의 뜻. 寒氣가 肌膚를 損傷하면 毛孔이 緊閉되어 陽氣가 收斂되고, 汗不得出하며, 寒이 筋脈을 傷하면 筋脈이 收引되어 拘急痙攣하며 疼痛이 생긴다.

寒則收引(한척수인)

「寒則收氣」의 項 參照.

寒包火(한포화)

人體가 平素 內部에 積熱이 있는데다가 다시 寒冷을 受邪하여, 寒이 外部를 包하고, 熱이 內部에 鬱한 病理을 말한다. 哮喘 久咳 失音 咽痛 齧腫 등의 症證에서 볼 수 있다.

寒下(한하)

寒性이고 瀉下作用이 있는 藥物을 使用하여 裏實熱症에 瀉下作用이 있는 藥物을 使用하여 裏實熱症에 속하는 燥屎, 飲食積滯, 敵手等を 治療하는 方法을 「寒下」라 한다. 妊婦, 新産婦 및 久病虛弱者에게는 忌用한다. 단 正氣가 虛弱한 病人에게 寒下法을 쓸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補氣藥을 配合해서 同用해야 한다. (1)大便이 燥結하고 동시에 火眼, 頭痛, 苔黃膩, 脈數 等症이 있는 경우에는 大承氣湯(大黃, 厚朴, 枳實, 芒硝)을 쓴다. 이 治法을 一名「釜底抽薪」이라 한다. (2)飲食積滯 或은 痢疾의 濕熱이 積滯하여 病人의 脘腹이 脹悶하며 下痢泄瀉하고 腹痛하며 肛門에 重墜感이 있고 或은 大便이 泌結하며 小便赤, 舌紅苔리, 脈沈實한 경우에는 木香, 地殼, 黃連, 大黃, 香附子, 檳榔 等藥을 쓴다. (3)水腫이 眼瞼腫瘡으로부터 시작되고 或은 腹中에 癥塊나 腹水가 있고 或은 胸脇에 積水가 있으며 脈이 沈實한 경우에는 十棗湯(大棗, 芫花, 甘遂, 大戟)을 써서 瀉水한다. 이 治法을 「逐水法」이라 한다.

寒瘧(한학)

寒氣가 內伏한데다가 다시 風邪를 感受하여, 誘發되는 一種의 瘧疾이다. 臨床表現은, 寒多熱少하고, 每日 1回씩 發作하거나 或은 隔日發作하며, 發作時에 頭痛하고, 無汗 或은 微汗하며, 脈이 弦緊有力한 等이다.

寒化(한화)

病邪가 陰經에 傳入하거나, 혹은 熱證의 後期에 陽氣가 虛弱하므로 出現하는 病理變化를 말한다. 主要表現은, 神倦 肢冷, 畏寒, 腹滿, 泄瀉, 小便清長, 舌淡苔白滑, 脈微弱 等이다.

頤(함)

「腮」의 項 參照.

頤(함)

頸의 前上方에 있으며, 頰部の 下方, 結喉의 上方 軟肉處.

鹹味通泄爲陰(함미통설위음)

素問 至眞要大論에 있음 鹹味藥음 최토하고 潤하하는 성질이 있으며 그 약성은 陰에

속한다. 예컨대 염湯은 식적은 吐하게 하고 芒硝는 大便을 潤下한다.

含漱(함수)

「漱滌」의 項 參照.

含腮瘡(함시창)

「疳腮」의 項 參照.

含腮瘡(함시창)

①新生兒의 頤頷部에 가까운 面頰部에 생기는 瘡腫을 말하며, 처음에는 豆粒狀인데, 漸次 커져서 中증이 되면, 이함이 침윤된다. 대개는 열독의 所致이다. ②疳腮(流行性 耳下腺炎)를 말함.

鹹入腎(함입신)

「五味所入」의 項 參照.

頤下癰(함하옹)

「喉癰」의 項 參照.

鹹寒增液(함한증액)

性味が 鹹寒하고 潤下作用이 있는 藥物을 써서 大腸燥結로 인한 便秘를 治療하는 것. 例컨대 雪羹湯(例제와 海螵皮를 切碎하여 끓인것)을 內服하여 陰虛痰熱, 大便燥結을 治療한다.

頤(함)

下頤骨(頰車)을 말하며, 耳下의 一部分.

合谷刺(함곡자)

五刺法의 一種 肌痺의 治療에 쓰인다. 그 자법은 환부이 좌우양측을 외방으로 사자하고 直接 肌肉부분을 자鍼하여 그 형상이 마치 계조와 같다 이는 비병에 應用된 一種의 古代鍼法이다.(靈樞 官鍼篇)

合病(합병)

傷寒病에서 二經 或은 三經이 同時에 受邪한 것으로, 發病하자 곧 各經의 主證이 同時에 出現하는 것을 말함. 例컨대, 「太陽與陽明合病」, 「少陽與陽明合病」, 「太陽與少陽合病」, 或은 「三陽合病」等이다. 當該 項 參照.

合邪(합사)

二種 或은 二種以上の 邪氣가 結合해서 人體를 侵犯하거나, 或은 病症의 表現에서 그

病因에 二種 혹은 二種以上の 邪氣가 있음을 나타내는 것. 例: 濕溫, 燥熱, 風寒濕 등.

呷嗽(합수)

「哮喘」의 項 參照.

合劑(합제)

二種 혹은 二種이상의 韓藥을 수전하여 一定한 用量으로 濃縮하거나 혹은 韓藥에서 流出한 것을 물을 溶劑로 하여 만든 液體의 製劑이다. 必要시에는 適量의 防腐劑를 가하여 內服藥으로 쓴다.(합제는 곰팡이가 생기거나 발효하거나 해서는 안되지만 多少의 沈澱은 無妨하다. 단 煎湯후 沈澱物이 分散되면 좋은데 結塊가 되면 안된다.)

合炒(합초)

「灸」의 項 參照.

呷呀(합하)

「哮喘」의 項 參照.

合穴(합혈)

①五腧穴의 一種이며, 모두 肘關節 혹은 膝關節部位에 있다. 『靈樞·九鍼十二原篇』에서 “所入爲合”이라 하였다. 이는 經脈의 流注方面이 마치 各處의 江河가 合쳐서 大海로 流入되는 것과 같다는 것이다. 全身의 十二經에 각각 하나의 合穴이 있다. 그 名稱은 아래와 같다. 肺－尺澤 大腸－曲池 心包－曲澤 三焦－天井 心－少海 小腸－小海 脾－陰陵泉 胃－足三里 肝－曲泉 膽－陽陵泉 腎－陰谷 膀胱－委中 ②手·足三陽經의 合穴로서, 下合穴을 말한다(『靈樞』「邪氣臟腑病形篇」 “合治內腑”). 足三陽經의 下合穴은 五腧穴의 合穴과 같다(즉, 太陽經은 委中, 少陽經은 陽陵泉, 陽明經은 足三里). 手三陽經의 下合穴은 五腧穴의 合穴과 다르며, 그 名稱은 다음과 같다. 手太陽經은 下巨虛, 手少陽經은 委陽, 手陽明經은 上巨虛이다.

項強(항강)

頭部の 後方인 項의 肌肉·筋脈이 뭉기는 症狀을 말함. 일반적으로 이는 風寒의 外感으로 因해, 寒邪가 太陽經絡에 侵入하여, 經氣가 不舒한 所致이다. 「項強」은 언젠나 頭痛과 併發하며, 이는 太陽病의 主症의 하나이다. 또한 濕邪가 肌肉에 阻滯되거나 或은 熱邪가 筋脈을 灼傷하므로 생기는 경우도 있다.

肛漏(肛瘻)(항루)

肛門 및 그 周圍에 瘻管이 생겨 膿汁이 漏出되어 멎지 않는 證狀이며, 肛瘻라고도 함. 肛門周圍의 癰疽가 潰破된 후, 瘡口가 아물지 않으므로 瘻管을 이루며, 內痔, 肛門裂瘡等도 本病을 일으킨다. 但 한개의 外口와 內口가 있을 뿐이고, 分枝가 없는 것은 單純性 肛漏이다. 外口가 여러개 있고, 分枝도 있으며, 惑은 肛管 肛門을 에워싸고 생겨서

半環型을 이루어, 形狀이 馬蹄型으로 된 것은 複雜性肛漏이다. 長期的으로 瘻口에서 膿이 나오며, 쉽게 自癒되지 않는다. 만약 瘻管의 外口가 閉塞되어, 膿流가 不暢하면, 疼痛 脹滿感이 생긴다.

項背强几几(항배강게게)

傷寒論에 있음. 頭項과 背部의 肌肉, 經脈에 땅기는 不舒感이 있는 것이다. 이는 項强의 病勢가 더 進展한 것이며, 患者의 頸項이 伸直되어 약간 後傾한 狀態가, 마치 小鳥가 飛翔을 익히는 모습과 같음을 形容한 것이다. 여기에 外感症狀이 隨伴되는 것은, 病邪가 太陽經絡을 犯한 證候이다.

頤頰(항상)

咽部の 윗쪽의 上顎洞과 相通하는 部位. 軟口蓋의 後部. 여기를 足厥陰肝經이 通過함.

項軟(항연)

「五軟」의 項 參照.

亢害承制(항해승제)

「素問.六微旨大論」에서, “亢則害 承乃制 制則生化.....”라 했다. 「亢」은 亢盛을 뜻하며, 「承」은 防禦로 解釋되며, 「制」는 抑制 혹은 制限, 節制를 뜻함. 五行學說은, 事物에는 生化의 一面이 있고, 克制의 다른 一面이 있다고 본다. 만약 生이 있고 克이 없으면, 勢가 極히 亢盛하여 害가 된다. 故로 이런 亢盛의 氣를 防禦하여, 그것을 節制시켜야만 事物의 正常生發을 維持할 수 있다. 例:實熱이 內結한 病은 內熱이 熾盛하므로 津液이 耗損되어 便秘하며, 또 火氣가 上衝하여 譫語하게 된다. 治療에는 承氣湯의 苦寒藥으로 瀉下해야 한다. 그래야만 이러한 亢盛한 熱邪를 防禦할 수 있다.

頰(해)

「下巴」, 「下巴殼」이라고도 함. 『承漿』에서 『下頷骨(下顎骨)의 下緣에 이르는 部位.

骸(해)

①一般的으로 骨格을 말함. ②脛骨의 別稱.

解痙(해경)

「鎖痙」이라고도 함. 震顫, 手足痙攣(抽搐) 및 角弓反張(項背가 強硬하여 뒤로 弓狀처럼 反張되는 것) 等症을 解除하는 것을 「解痙」이라 한다. 이는 熄風法에 屬한다.

骸關(해관)

「膝解」의 項 參照.

解肌(해기)

外感증의 초기에 유한한 경우를 治療하는 方法이다. 辛溫解肌하는 桂枝湯(桂枝, 芍藥, 甘草, 生薑, 大棗)은 頭痛發熱하고 汗出惡風하며 悲鳴, 乾口, 脈浮弱, 苔白滑, 不渴飲하는 等症에 적용된다. 辛涼解肌하는 柴葛解肌湯(柴胡, 葛根, 甘草, 黃芩, 芍藥, 羌活, 白芷, 桔梗, 石膏)은 身熱이 甚하고 惡寒이 微하며 微汗하고 口渴하며 苔薄黃하고 脈浮數한 等症에 適用된다. 服藥後에 衣服이나 이불을 많이 덮지말고 病人이 全身에 약간 有汗할 정도면 解肌된다.

解顱(해로)

頭顱骨縫이 分裂되어 前凶(숫구멍)이 擴大해져서 閉合不能한 症狀이다. 正常小兒의 顱骨縫은 대체로 出生後 六個月이면 骨化되어, 前凶이 一歲에서 一歲半 사이에 閉合되고, 後凶은 二乃至 四個月 사이에 閉合된다. 만약 이러한 閉合이 延期되는 것을 「解顱」라 한다. 이는 대개 先天的인 不足로 因한 腎氣虧損의 所致이다. 그 症狀은, 頭顱骨縫이 裂開되고, 頭皮가 팽팽하면서 光滑하고, 靑筋이 露呈되며, 面色이 (白+光)白하고, 眼球가 항상 下向하여 白睛(흰자위)이 특별히 露呈되며, 智力發育이 不良하다. 解顱는 비교적 重한 佝僂病의 症狀의 하나이며, 腦積水에서도 볼 수 있다.

解索脈(해삭맥)

七怪脈의 一種. 脈象의 疎密이 不規則하며, 律動이 紊亂하여, 마치 새끼줄을 풀어놓은 것 같다.

咳嗽(해수)

咳嗽은 하나의 症狀이며, 六淫의 外感, 臟腑의 內傷이, 모두 肺에 影響을 미치어 咳嗽을 일으킨다. 先人은 이를 區別하여 有聲無痰을 「咳」라 하였고, 痰으로 因해 기침하는 것을 「嗽」라 하였다. 臨床上으로는 通常, 無痰의 咳를 「咳嗆」或은 「乾咳」라 하고, 有痰有聲의 기침을 「咳嗽」라 한다. 咳嗽의 原因이 많지만, 外感和 內傷의 二種類로 大別된다. 일반적으로 風寒, 風熱, 燥火, 痰濕, 勞傷등에 따라 辨證施治한다.

解休(해역)

『素問』『平人氣象論』에 있음. 「解」는 懈怠를 말하며, 「休」은 困倦을 말함. 이는 人體에 困倦을 느끼고, 肢體骨節이 懈怠해지는 症狀을 말함. 虛損, 消渴病 或은 熱性病後에 볼 수 있으며, 이는 肝腎이 虛弱하고, 精血이 不足한 所致이다.

咳逆上氣(해역상기)

咳嗽, 喘息의 病證을 말함. 上氣는 肺氣가 上逆한다는 뜻. 이 症狀은 臨床上 實證과 虛證의 區別이 있다. 實證의 主要 症狀은 喘咳, 胸滿하고 呼吸이 促迫하며 平臥할 수 없고 痰이 많고 粘稠하며 脈이 浮滑하다. 이는 肺實氣閉의 所致이다. 虛證의 主要 症狀은

咳喘하고 顔面이 浮腫하며 脈이 浮大無力하다. 이는 腎不納氣의 所致이다.

解鬱(해울)

「疏鬱理氣」의 項 參照.

海底癰(해저옹)

「懸癰」의 項參.

蟹睛(해정)

本病은, 대개 火熱이 上攻한 데 대한 治療를 그르쳐서, 眞睛(眼球)이 膏傷된 것이다. 症狀은 ‘旋螺突起’와 類似하며, 黑睛의 邊緣에 胬肉(蟹睛)과 같은 것이 생기는데, 突出의 範圍는 일반적으로 작다. 만약 黃仁(虹彩膜)이 전부 脫出되면, 最終적으로 失明하게 된다.

咳噎(해창)

「咳嗽」의 項을 參照.

解表(해표)

汗法을 말함. 汗法은 外表에 있는 邪氣를 解除할 수 있으므로 이렇게 말함.

咳血(해혈)

咳嗽할 때 痰과 함께 나오는 血을 말함. 血液이 肺와 氣管에서 나오는데, 往往 色澤이 鮮紅色을 띠며, 痰血이 混合되고, 或은 痰中에 血絲가 섞이므로 「痰血」이라 한다. 血이 痰을 뱉을 때 나오므로 「唾血」이라고도 함. 대개는 咳嗽할 때 肺絡을 損傷하기 때문이다. 風熱 燥邪에 起因한 경우는, 喉痒 咳嗽하고, 口乾 鼻燥한다. 肝火가 肺를 범한 경우의 咳血에는, 胸脇이 牽痛하고, 煩躁 易怒한다. 陰虛 內熱에 起因한 경우는, 骨蒸 潮熱하고, 咳嗽 氣短한다.

核骨(覈骨)(핵골)

踰趾의 第1趾骨(第 1指節骨)과 跖骨(中足骨)의 關節下方의 圓形의 籽骨(種子骨)

胫骨(행골)

胫骨이라고도 함. 解剖學上의 脛骨. 小腿部の 內側에 있음.

行氣(행기)

「理氣」, 「通氣」, 「化氣」라고도 함. 氣滯를 行散시킴으로써, 氣滯로 因해 생긴 病症, 例컨대 胸腹脹悶疼痛 등을 治療하는 것. 「疏鬱理氣」 및 「和胃理氣」은 모두 行氣에 속한

다.

行痺(행비)

「風痺」의 項 參照.

杏蘇散(행소산)

「苦溫平燥」의 項 參照.

香蘇飲(향소음)

「辛溫解表」의 項 參照.

虛家(허가)

平素 體質이 虛弱한 사람을 말함.

虛勞(허로)

虛損勞傷의 略稱이며 勞怯이라고도 함. 또 五臟의 諸虛不足으로 生産되는 多種疾患의 概括이기도 하다. 무릇 先天的인 不足, 後天的인 失調, 病久로 인한 失養, 正氣의 損傷, 久虛의 不回復 등에서 各種 虛弱症候가 表現되는 것은 모두 虛勞의 範圍에 屬한다. 그 病變過程은 대부분이 점차 쌓여서 이루어 진다. 病久體弱한 것이 虛이고 久虛不回復이 損이며 虛損日久한 것이 勞이다. 虛, 損, 勞는 病程의 發展이며 相互關聯되는 것이다. 虛, 勞症의 範圍가 매우 廣範하므로 先人은 이에 대하여 五勞, 六極, 七傷 등의 名稱으로 分類하였다. 그런데 모든 病理變化는 陰虛, 陽虛, 陰陽兩虛 등의 領域을 벗어나지 않는다. 有關 各項을 參照.

虛里(허리)

「脾之大絡」의 項 參照.

虛脈(허맥)

脈象의 一種. 脈象이 浮大하고 軟하며 無力하여, 充分感이 없고 空虛感이 있다. 虛證과 關聯된다. 例컨대 氣虛, 血虛, 失血, 脫水 等이다.

虛煩(허번)

「煩躁」의 項 參照.

虛邪(허사)

①發病하는 邪氣의 通稱. 邪氣가 虛를 틈타서 侵入하므로 이름이다. 例: 「素問·上古天真論」에서 “虛邪賊風 避之有時”라 하였다. ②「五邪」의 하나. 어떤 臟을 發病케 한 邪氣가 「母病及子」에 依해 傳來된 것.

虛瀉(허사)

脾腎의 陽虛로 因한, 瀉下가 日久한 所致이다. 臨床表現은, 飲食을 取하면 瀉하기 쉽고, 大便의 回數가 많으며, 大便이 稀爛하고, 或은 完穀으로 不消化되며, 神倦無力하고, 面色이 皎白하며, 脣舌이 淡白하고, 脈이 細弱하다. 或은 未明새벽에 1,2回 瀉下하고, 아울러 腰痠肢冷등을 나타낸다.

虛邪脈(허사맥)

「五邪脈」의 項 參照.

虛邪賊風(허사적풍)

「賊風」의 項 參照.

虛損勞傷(허손로상)

「虛勞」의 項 參照.

虛實(허실)

虛와 實은, 人體抵抗力의 強弱과 病邪의 盛衰를 말하며, 또 人體內部에서의 正氣와 病邪와의 鬭爭의 表現이기도 하다. 虛는 人體의 正氣不足, 抵抗力減弱을 말하며, 實은 致病케한 邪氣가 盛한 것과 邪氣와 正氣와의 鬭爭이 極熱함을 뜻함. 무릇 病者의 體質이 強하고, 病理變化의 表現이 有餘한것은 實이고, 病者의 體質이 弱하고, 病理變化의 表現이 不足한 것이 虛이다. 虛實은 相對的이며, 서로 轉化하고 或은 錯雜해서 出現하기도 한다. 例컨대 어떤 病情이 比較的 輕고, 病情이 複雜한 病辨中에서 往往 病邪가 久留하여, 正氣가 損傷되어 實에서 虛로 轉化한다. 또한 正氣가 본래 虛하여, 邪氣를 驅逐할 힘이 없어서, 痰. 飲. 水. 血등의 瘀結을 이루어, 虛實이 交錯되기도 한다. 그래서 虛實錯雜과 虛實眞假는 다르며, 病機가 다르므로, 詳細히 辨別해야한다.

虛陽不斂(허양불렴)

「虛陽上浮」의 項 參照.

虛陽上浮(허양상부)

「孤陽上越」, 「虛陽不斂」이라고도 함. 「格陽」, 「戴陽」의 病理·證候와 根本적으로 相同하다. 모두 腎陽의 衰微로 因해, 陰이 下에서 盛하고, 微弱한 陽氣가 上으로 浮越한다. 故로 孤陽上越 或은 虛陽不斂이라고도 한다. 「不斂」은 浮越하여 斂藏하지 않는다는 뜻이다. 「陰盛格陽」, 「戴陽」등의 項 參照.

虛熱(허열)

陰陽과 氣血의 不足으로 因해 생기는 發熱이며, 陰虛, 陽虛, 氣虛, 血虛의 證候로 區別된다.

虛者補其母,實者邪氣子(허자보기모,실자사기자)

「難經:六十九難」에 있음. 이는 五行의 相生 子母關係의 學說을 이용하여 五行의 「木,火,土,金,水」을 肝,心,脾,肺,腎에 배합시켜 五行과 오장의 子母關係에서 이부분의 治療法則을 설명한 것으로 補母와 瀉子の 두종류가 있다. (1)補母:例컨데 腎水가 肝木을 生하는바, 腎은 母이고, 肝은 子이다. 만약 肝木에 虛弱症이 나타나면 직접 肝을 補하지 않고 肝을 生하는 腎을 補한다. 또 肝에 虛火症이 있어서 失眠煩躁하고 嘈雜症이 생기며 쉽게 飢餓하고 頭面이 烘熱하며 脈이 弦細하고 數하여 重按하면 無力한 경우는 治療에 腎水を 補함으로써 肝의 虛火를 消除해야 하는데 六味地黃丸(壯水制火의項 參照)을 쓴다. 鍼灸面에서는 肝에 虛火가 있으면 「曲泉」穴을 鍼刺하는 補法을 쓴다. 「曲泉」은 肝經의 合穴이고 合은 水이며 水는 腎이다. (2)瀉子:例컨데 肝木이 心火를 生하는바 肝木은 母이고 心火는 子이다. 만약 肝實症이 나타나면 직접 肝을 瀉하지 않고 肝木이 生하는 心火를 瀉한다. 例컨데 肝에 實火症이 있어서 頭痛眩暈하고 耳鳴하며 躁急易怒하고 面紅目赤하며 脇肋이 灼痛하고 小便黃赤, 口苦, 大便秘結, 苔黃, 脈弦數 等症을 發하면 瀉心法(瀉心の項 參照)을 쓴다. 鍼灸面에서는 肝에 實火가 있으면 「行間」穴을 刺하는 瀉法을 쓴다. 「行間」은 肝經의 榮穴이며 榮은 火이고 火는 心이다. 이들 治法은 臟腑의 病變을 間接的으로 治療하는 것이다.

虛腫(허종)

水腫의 虛證을 말하며, 대개 陰水에 屬하는데, 脾陽의 虛에 起因하는 경우도 있고, 腎陽의 虛에 起因한 경우도 있다. 主要表現은, 腫勢가 緩慢하며, 氣弱聲低하고, 面色이 暗淡하며, 倦怠, 泄瀉하고, 外寒 肢冷하며, 脈象이 沈細無力한 等이다.

虛坐努責(허좌노책)

腸과 肛門의 疾病에 依해, 便意는 頻繁한데, 大便이 나오지 않는 現象을 形容한 것이다. 대개 邪氣가 滯留하고 氣虛한 所致이다.

虛中挾實(허중협실)

虛弱한 病證中에 實證을 挾有한 것을 말하는데, 虛證이 爲主이다. 例컨대, 婦女의 乾血癆病은 한편으로 消瘦하고, 肌膚가 乾枯粗糙며, 手足心이 煩熱하고, 不思飲食等の 虛弱證을 나타내는데, 다른 한편으로는 또 閉經이 되고, 舌質이 暗紫色을 띠며, 舌의 邊緣에 瘀點이 있고, 脈이 沈弦한 等の 血瘀實證을 挾有하게 된다.

虛卽補之(허즉보지)

「素問. 三部九候論」에 있음. 證候가 虛에 屬하는 것은 補法을 써서 治療한다는 뜻이다. 虛證에는 氣虛, 血虛, 陰虛, 陽虛等の 差異가 있으며, 補法에도 補氣, 補血, 補陰, 補陽等 各異한 方法이 있다. 補法의 各項 參照.

虛證(허증)

人體의 正氣가 不足하고, 機體의 抵抗能力이 低減되며, 生理機能이 減退된 證候를 말

함. 그 臨床表現은 面色蒼白, 精神不足, 神疲乏力, 心悸氣短, 自汗盜汗, 舌嫩無苔, 脈虛無力 等이다.

虛喘(허천)

「喘證」의 項 參照.

虛喘(허천)

虛喘은 大概 肺腎의 虛이며, 特히 腎이 納氣하지 않는 것이 主가 된다. 臨床表現은 呼吸이 短促하고, 動하면 喘이 甚해진다. 肺虛는 언제나 津液의 虧損을 兼發하게 되며, 口渴, 面色潮紅, 煩熱, 自汗, 咽喉不利, 舌紅乾 少苔或剝苔, 脈細弱等を 나타내며, 滿期肺結核等에서 볼 수 있다. 腎虛에는, 陰虛에 치우친 것과 陽虛에 치우친 것의 區別이 있다. 陰虛에 치우친 境遇는 證治가 上述한 바와 거의 같으며, 陽虛에 치우친 경우는, 惡寒, 肢冷, 下部에서 上部로 擴散되는 水腫, 舌質淡白, 脈沈弱이 다견된다. 各種心機能不全의 病辨에서 多見된다.

虛脫(허탈)

「脫」의 項 參照.

虛風內動(허풍내동)

病變의 過程中에 津液이 虧損되고, 水液이 減少되며 血이 乾枯하고, 失血이 되거나 血이 筋을 養하지 못하고, 或은 肝腎의 陰이 不足하여 肝陽이 上亢하는 등으로 因해, 肝風을 惹起하게 되며, 眩暈, 緩弱한 抽搐, 震顫等症을 나타내는 것을 「虛風內動」이라 한다. 本證은 대개 大汗 大吐 大泄 大出血 或은 久病으로 傷陰하거나 肝腎이 虧損되는 경우에 多見된다. 그 중 貧血 失血에 起因하는 것을 「血虛生風」이라 하며, 陰液의 虧損에 起因하는 것을 「液燥生風」이라 한다.

虛癰(허학)

平素 元氣가 虛弱한데다가 다시 癰邪를 感受하여 發病하는 것이다. 發作時에 寒熱이 交代로 發하며, 自汗倦臥하고, 飲食減少, 四肢乏力, 脈弦細를 나타낸다. 本病은 久癰이 未癒하고, 脾胃가 虛寒하기 때문에 惹起되기도 한다. 이 경우, 發病時에 寒熱이 交代로 發하고, 飲食減少, 倦怠肢冷, 腹滿便溏, 脈濡弱 等症을 나타낸다.

虛寒(허한)

正氣가 虛한데다가 寒이 있는 證候를 말함. 臨床表現은 飲食不慾, 口淡, 吐涎沫, 氣短, 大便稀薄 或은 未消化物の 瀉下, 舌淡白, 脈細數 等이다.

虛陷(허함)

「三陷證」의 項 參照.

虛火(허화)

眞陰의 虧損으로 因해 惹起되는 熱盛病狀이다. 陰을 傷한 證狀이 뚜렷하며, 臨床表現으로는 低熱, 或午後潮熱, 手足心灼熱, 口渴, 盜汗, 唇舌嫩紅 或絳, 脈虛數 等이다.

虛火上炎(허화상염)

腎陰의 虧損으로 因하여, 水가 火를 制하지 못해서, 虛火가 上昇하는 病理이다. 主要表現은, 咽乾 咽痛 頭昏目眩 心煩不眠 耳聾健忘 手足心熱 舌質紫紅 脈細數 或은 目赤 口舌生瘡 等症이다.

革脈(혁맥)

脈象의 一種. 脈象이 弦,大하며, 按指하면 속이 空虛하다. 亡血 實精의 證候에서 볼 수 있다.

痲(현)

「痲痺」의 項 參照.

懸旗癰(현기옹)

「懸旗風」의 項 參照

懸旗風(현기풍)

「懸旗癰」이라고도 함. 本病은, 대개 胃火熾盛, 脾胃積熱하여, 喉頭로 上侵하거나, 或은 外傷에 의해 惹起된다. 그 주요 症狀은, 口腔내의 懸雍垂의 下端 尖頭部에 紫色의 血泡가 생기는데, 이를 懸旗風이라 한다. 만약 血泡가 口腔의 上顎에 생겨서,潰破후 糜爛疼痛하고, 음식의 妨碍가 되는것은 飛揚喉라 한다.

弦脈(현맥)

脈象의 一種. 脈象이 곧고 길며, 팽팽한 琴弦을 뜯는 것처럼 弦勁한 感이 있다. 高血壓, 肝膽疾病 및 痛證 風證 痰飲 瘧疾 등에서 多見된다.

眩冒(현모)

「眩暈」의 項 參照.

眊目(현목)

眼睛이 轉動하여 不定함을 말하며, 즉, 眼目이 昏花하여 보이지 않게 되는 症狀이다.

痲痺(현벽)

古病名이다. 「痲」과 「痺」은 二種類의 證候인데, 習慣上, 「痲痺」이라 通稱한다. 「痲」은, 臍의 兩傍에 索狀의 筋塊가 隆起하여 弓弦과 같으며, 크기가 不等하고, 或痛 或不痛한다. 「痺」은 兩脇間에 積塊가 潛伏하여, 平時에는 만져지지 않다가, 疼痛時에 만지면 塊

狀物이 있음을 느낀다. 先人은, 食癖, 飲癖, 寒癖, 痰癖, 血癖 等 多種類로 나누었다. 그 病因은 대개 飲食의 不節制, 脾胃의 受傷, 寒痰의 結聚, 氣血의 搏結에 依해 생긴다.

玄府(현부)

「元府」와 같음. 體表의 汗毛孔을 말함. 「氣門」(汗은 肺氣에서 宣發하므로 氣門이라 함) 혹은 「鬼門」(鬼는 魄과 通하였다(古). 肺藏魄, 肺氣通于皮毛, 汗從皮膚而出, 名魄汗, 汗毛孔則鬼門)이라고도 함.

眇仆(현부)

眩暈하여 쓰러지는 症狀이다.

懸癰(현옹)

「懸癰垂」의 項 參照.

懸癰(현옹)

①會陰部位에 생기는 癰을 말하며 海底癰이라고도 함. 대개는 情志鬱結, 三陰虧損, 濕熱癰滯으로 因해 發한다. 會陰部の 組織은 弛緩되고, 또 汚染되기 쉬우므로 癒合되기 어렵고 瘡漏를 形成하기 쉽다. 2, 上顎部에 생기는 癰을 말함. 紫色의 포도와 같고, 舌의 伸縮이 困難하며, 口의 開合이 困難하며, 鼻內에 出血이 되며, 때로는 寒熱을 發한다. 대개는 風熱內結, 胃火 上昇의 所致이다.

懸癰(현옹)

喉癰의 一種이며, 「裏喉癰」이라고도 함. 즉 咽頭後壁에 생기는 膿腫이다(咽喉膿瘍). 대개의 경우, 風熱의 熱毒이 壅盛해서 化膿한 所致이다. 그 症狀은, 咽頭後壁에 膿腫이 突起하여, 焮紅熱痛하며, 嚥下 困難하고, 發熱 頭痛等の 全身症狀이 隨伴되는 수가 있다.

懸癰垂(현옹수)

「懸癰」, 「帝丁」, 「帝鍾」이라고도 함. 입을 벌렸을 때, 軟//軟口蓋의 後部가 下後方으로 傾斜되어 後緣이 遊離되는데, 그 正中에 있는 垂下된 突起部를 말함. 俗稱 「小舌頭」라 함. 목젖이다.

懸飲(현음)

水飲이 胸脇部에 停留됨을 말함. 水飲이 上은 胸中에 있지 않고 下는 腹中에 不及하므로 이렇게 이른다. 主要 表現은 腋下가 脹滿하여 不快하고 或은 微腫을 發하며 咳嗽 或은 唾涎할때 兩脇이 引痛하고 脈이 沈弦하며 重證인 境遇 咳嗽가 甚해지고 胸脇이 痞滿疼痛하며 鎖骨上窩까지 撐기고 乾嘔, 短氣, 頭痛等症을 隨伴한다. 滲出性 胸膜炎等の 疾患에 屬한다.

懸鍾(현중)

「絶骨」의 項 參照.

眩暈(현훈)

眩은 眼目の 暈眩이고 暈은 頭腦의 暈轉이다. 本證에는 多種의 名稱이 있다. 예컨대 頭暈으로 因해 眼昏이 되는 것을 轉暈이라 한다. 眼昏으로 因해 頭暈이 되는 것을 目眩이라 한다. 頭部가 昏重하고 눈이 흐려지는 것을 眩冒라 한다. 대개 體虛, 肝風, 痰氣, 精神刺戟等의 要因과 有關하다. 臨床表現에 虛證과 實證이 있는데 虛證이 많다. 虛證은 대개 肝腎陰虧 或은 心脾의 氣血이 不足하기 때문에 생긴다. 肝腎陰虛에 屬하는 境遇는 頭目昏眩 精神不振 腰膝痠軟 遺精 耳鳴 等症을 나타낸다. 心脾兩虛에 屬한 境遇는 心悸失眠, 體倦少食, 面色㿔白, 唇色淡白 等症을 나타낸다. 實證은 대개 肝風上優, 痰濁阻肺로 因해 생긴다. 風陽上優에 屬하는 境遇는 躁急易怒, 失眠痰壅, 口苦等症을 나타낸다. 痰濁阻肺에 屬하는 境遇는 頭重 多痰, 胸悶惡心等症을 나타낸다.

穴(혈)

「穴位」, 「穴道」, 「氣穴」이라고도 함. 經絡의 氣血이 身體表面에 集合되어, 輸注 或은 通過하는 重點部位. 이는 經絡의 連繫를 通하여, 身體內部的 臟腑의 生理 或은 病理變化에 對하여 一定한 反應을 일으키게 되며, 또한 周圍環境의 各種刺戟(例: 鍼·灸·按摩·指壓·電鍼 등)을 받아서 體內機能을 調整하는 目的을 이루게 함으로써 治療 效果를 얻게 한다.

血(혈)

血의 形成은 脾胃等의 器官에 의해 飲食物이 消化된 이후 精微部分과 津液이 結合吸收되어 心肺로 上輸되고 다시 肺의 氣化作用을 거쳐 生成된다. 血의 機能은 身體各部組織을 營養할 뿐만 아니라 目的 視物, 足の 步行, 手掌의 握攝活動 그리고 皮膚의 感覺등이 모두 血의 機能과 有關하다. 그런데 血의 이러한 機能은 必需的으로 氣의 推動下에서 그리고 氣血이 心血管內에서 正常運行되는 條件下에서만 充分히 發揮되는 것이다.

血結胸(혈결흉)

結胸證의 한 類型이다. 이는 邪熱과 血이 胸腕部에 結聚된 所致이다. 主要症狀은, 胸腕間이 膨滿하고 微硬하며, 만질 수 없고, 善妄하며, 小便의 量은 많은데 口不渴한다.

血枯(혈고)

① 古病名이다. 「素問·腹中論」에 있음. 主要症狀은, 胸脇이 脹滿하고, 甚하면 飲食에 妨害되며, 發病時에 먼저 腥臭가 나고, 투명한 콧물이 나오며, 唾血하고, 四肢가 清冷하며, 目眩하고, 자주 大小便에 出血이 따르게 된다. 이를 「血枯」라고 한다. 病因은 주로 두가지이다. 하나는, 少年時期에 大出血症을 앓은 病歷이 있는 경우이고, 또 하나는, 酒

色이 過度하여, 肝腎의 精血을 傷한 때문이며, 婦女의 경우는 月經이 衰少하거나 或은 經閉를 나타낸다. ② 大失血後에 血液이 不足하여 惹起되는 疾病을 말함.

血鼓(혈고)

鼓脹類型의 하나이다. 蓄血鼓라고도 함. 主要症狀은 吐血, 衄血, 便血하며 或은 大便이 黑色이고 小便이 赤色이며 몸에 瘀斑이 發하는 等이며 腹內에 腫塊가 만져지고 이것이 점차 增大된다. 病因은 주로 瘀塊가 阻滯해서 水濕의 運行에 影響을 미치기 때문이다. 本證은 肝硬化에서 볼 수 있으며 子宮 或은 卵巢腫瘍等病에서 볼 수 있다.

血灌瞳神(혈관동신)

病因은, 대개 外傷으로 血管을 損傷하여 血液이 外溢하기 때문이며, 또한 內熱이 過盛하므로, 眼內의 血絡을 損傷해서 惹起되기도 한다. 血液이 風輪(黑睛)과 瞳孔部位로 流入되어, 外觀上 瞳孔이 赤色을 띠게 된다. 만약 제때에 治療하지 않으면, 重大한 結果를 일으키기 쉽다.

血厥(혈결)

血病으로 인해 惹起되는 厥症을 말함. 血虛와 血實의 차이가 있다. 血虛로 인한 厥症은 대개 失血이 過多하거나 或은 久病의 貧血에서 볼 수 있으며 腦部의 一時的 乏血로 인해 突然昏厥하며 面色蒼白, 四肢厥冷, 口張自汗, 呼吸緩慢等症을 나타낸다. 血實로 인한 厥症은 대개 內部에 瘀血이 있어서 清竅를 阻塞하므로 突然昏倒하여 牙關緊閉, 面赤唇紫等症을 나타낸다.

血極(혈극)

「六極」의 項 參照.

穴道(혈도)

「穴」의 項 參照.

血瘤(혈류)

瘤의 一種이다. 半球形 或은 扁平狀으로 隆起된다. 邊緣이 뚜렷하며, 質이 綿처럼 柔軟하고, 或은 軟硬이 混在하기도 한다. 表面은 紅色 或은 紫紅色이고, 皮膚色이 正常인 것도 있다. 누르면 暫時 縮小되거나 或은 退色된다. 擦破하면 出血이 잘 멎지 않는다. 外科正宗에서, “心主血, 暴急太甚, 火旺逼血沸騰, 復被外邪所搏而腫曰血瘤”(心은 血을 主管한다. 暴急이 甚하고, 火旺하여, 血을 沸騰시키며, 또 外邪에 損傷되어 腫하는 것을 血瘤라 함.)이라 하였고, 또“血瘤者 微紫微紅 軟硬間雜 皮膚隱隱纏若紅絲 擦破血瘤 禁之不住”(血瘤는 淡紫色 或은 淡紅色이며, 硬軟이 뒤섞이고, 皮膚에 紅絲와 같은 것이 隱隱히 얹혀있고, 擦破하면 出血이 되어 잘 멎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血管瘤의 類이다.

血輪(혈륜)

「眼」의 內眥와 外眥의 合稱.

血輪(혈륜)

「五輪」의 項 參照.

血痢(혈리)

「濕熱痢」의 項 參照.

血淋(혈림)

「溲血」의 項 參照.

血淋(혈림)

血尿가 되면서 尿道가 熱澁 刺痛하고, 下腹部가 疼痛 脹急한 病症을 말함. 대개는 下焦에 濕熱이 蘊結되어, 迫血 妄行하기 때문이다. 만약 熱이 없고, 微痛한 것은 陰虛火動에 屬하며, 血을 統攝하지 못한 所致이다.

血脈(혈맥)

經脈을 말하며 略稱 脈이다. 이는 氣血의 運行通路이다.

血分(혈분)

「血分證」의 項 參照.

血分瘀熱(혈분어열)

①血분에 鬱結된 熱을 말함. ②瘀血이 滯留되어 惹起되는 發熱을 말함. 「瘀熱」, 「瘀熱在裏」의 項 參照.

血分熱毒(혈분열독)

①溫病의 熱이 血분에 入하여, 高熱 神志昏亂 皮膚斑疹 或은 吐血 衄血 便血 舌色深強 脈細數 등을 나타내는 것. ②外科의 皮膚瘡瘍으로, 紅腫疼痛 舌質紅絳 或은 高熱을 수반하고 神志昏亂 등을 나타내는 것.

血分證(혈분증)

溫熱病의 病情이 發展하여 가장 深重한 段階에 이른 것으로, 大概 營分病이 더 發展한 것이다. 傷陰. 耗血, 動血이 特徵이다. 臨床表現은, 高熱이 있고, 夜間에 熱深하며, 躁擾不寧하고, 색깔이 대개 濃紫한 斑疹이 露顯되며, 舌色이 深絳或暗紫하고, 脈이 細數하며, 甚하면 神志不清하고, 譫語發狂하며, 或은 抽搦昏迷하고, 吐血, 衄血, 便血 등을 나타낸다. 急性熱病의 極期 및 外科의 急性化膿性感染證에 嚴重한 中毒證狀이나 敗血證

이 隋伴될 境遇에 多見된다. 血分은 溫熱病의 衛氣營血辨證의 最深入한 層이며, 心.肝.腎 等臟의 受病을 包括한다. 臨床上, 外科의 急性瘡瘍疾患을 通常 血分の 熱毒이라하는데, 뜻은 다르다.

血不歸經(혈불귀경)

血證의 病機의 하나이다. 「血不循經」이라고도 함. 즉, 血液이 經脈을 따라 循行하지 않고, 外部로 溢出하는 것이다. 例컨대 崩漏, 吐血, 衄血, 便血, 尿血 等이다. 氣虛·氣逆·血瘀·火熱 等 各種原因에 의해 惹起된다.

血不循經(혈불순경)

「血不歸經」의 項 參照.

血崩(혈붕)

「崩漏」의 項 參照.

血痺(혈비)

金匱要略·血痺虛勞病脈證并治에 있음. 이는 身體의 局部가 麻痺疼痛되는 一類의 內傷病證이다. 主要症狀은 身體가 麻木되고 流注性인 痺症이 있으며 脈象이 微하고 濇緊하다. 本病은 氣血이 內虛하고 勞倦汗出하거나 或은 當風하면서 睡臥하여 邪氣가 虛를틈타 侵入하므로 血氣가 閉阻不通한 所致이다.

血疝(혈산)

①陰囊部位의 瘀血腫痛을 말하며, 송곳으로 찌르는 듯이 아프고, 痛處이 移行하지 않는다. 「瘀血疝」이라고도 함. 대개 平素 瘀血이 있는데, 過勞하거나 或은 受寒하므로 誘發된다. ②外生殖器에 가까운 小腹의 癰腫을 말함. 「儒門事親」에서, “그 形狀이 黃瓜와 같고, 少腹의 兩側, 橫骨(恥骨) 兩端의 中間部位에 있으며, 俗稱 便癰이라 한다. …氣血이 流溢하여 膀胱으로 滲入해서 滯留되어 癰腫을 이루며, 膿少血多하다”고 하였다.

血泄(혈설)

便血을 말함. 血이 大便에 의해 泄出되므로 이렇게 이름한다. 「便血」의 項 參照.

血隧氣陷(혈수기함)

대개, 氣虛下陷하여 子宮出血이 되는 病理을 말함. 血은 氣를 따라 循行하므로(血隧氣行), 氣陷하면 血이 下部에서 鬱하거나 혹은 血이 下部에서 溢出한다. 機能性子宮出血患者에서 常見되며, 出血量이 많고, 혹은 連續不絶하며, 顏色蒼白 精神疲乏 舌淡苔少 脈虛數 혹은 沈細無力 等이 나타난다.

血室(혈실)

①子宮을 말함. ②肝臟을 말함. ③衝脈을 말함. 「熱入血室」의 項을 參照.

血瘀崩漏(혈어붕루)

瘀血이 積留되어 일어나는 계속되는 子宮出血을 말함. 대개, 瘀血이 不去하고, 新血이 歸經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主症은 漏下가 淋瀝不止하다가, 突然 大量出血하며, 紫黑色을 띠고, 瘀塊가 섞이며, 小腹이 疼痛하여 拒按하고, 疼痛이 脇肋 或은 腰部에 미치며, 血塊가 排出되면 痛勢가 輕減된다.

血熱崩漏(혈열붕루)

熱이 盛하여 迫血妄行되어, 陰道에서 大量出血함을 말함. 대개, 平素에 體質이 陽氣亢盛하거나 或은 感染으로 因해 內生殖器的 急性炎症이 出現한 데 起因한다. 症狀은 出血量이 많고, 深紅色 或은 紫色을 띠며, 或은 少量의 血塊가 섞이고, 面赤하며, 煩躁하고, 易怒한다. 또한 陰虛하여 衝任二脈이 受熱해서, 局部에 炎症이 생겨 出血을 惹起하는 경우도 있으며, 그 症狀은 出血이 淋瀝不絶하고, 鮮紅色을 띠며, 心煩不眠하고, 或은 午後潮熱을 發한다.

血癭(혈영)

癭의 一種이다. 結喉部の 癭塊에 血脈의 交結이다. 心火血熱의 所致이다.

血翳包睛(혈예포정)

이는 ‘赤膜下垂’(垂簾障)證이 더 惡化된 것이다. 그 症狀은, 血脈이 전면에 퍼져서 黑睛(角膜과 虹膜部分)을 遮蔽하여, 視物不能이 된다. 恒常 頭痛, 便秘, 目痛等の 症狀을 隨伴하며, 때로는 失明하는 수가 있다.

穴位(혈위)

「穴」의 項 參照.

血爲氣母(혈위기모)

血은 氣의 母이다. 「氣爲血帥」의 項 參照.

穴位注射療法(혈위주사료법)

소제량穴位注射라고도 함. 이는 어떤 주사藥제를 써서 一定한 穴位상의 기육에 注射하는 方法이다. 注射량은 一般的으로 근육주사량의 1/10-1/2로 한다. 조작전에 먼저 局部을 消毒하고 鍼을 適當한 심도로 刺入한 후 소폭으로 상하제??하는데 그치며 連전하지 말고 局部에 득기의 감각이 잇은 후 천천히 藥液을 注入한다.

血證(혈증)

血液이 經脈을 따라 運行되지 않고, 溢出되는 病症을 말함. 例컨대, 咳血, 咯血, 吐血, 嘔血, 衄血, 便血, 尿血, 皮下出血 等이다. 發病原因이 많아서, 外傷, 飲食, 情志, 內傷虛損 等이 모두 病因이 된다. 虛實의 區分이 있다. 虛證은, 傷陰하여, 虛火가 妄動하거나 或은 氣虛하여 血을 統攝하지 못하는 것이다. 實證은, 火盛 氣逆하여, 血熱이 妄行하는 것이다. 有關各項參照.

血痣(혈지)

肌表 惑은 粘膜의 局部 母細血管이 持續적으로 擴張되므로 생기는 皮膚의 病變이며, 赤色 惑은 茶褐色, 青色을 띠고, 눌러도 退色하지 않으며, 크기가 一定하지 않고, 대개는 皮膚面보다 높게 되며, 表面이 廣闊하고 觸破하면 流血이 된다. 本病은 대개 先天性이며, 또 어느 年齡層에서나 發生하게 된다. 一般的으로 變하지 않는데, 약간 增大되는 境遇도 있으며, 不快한 自覺症狀은 없다.

血之府(혈지부)

血脈을 말함. 血이 經脈中에 모이므로 血之府라 함.

血癥(혈징)

血瘀 積滯로 因해 漸次 形成되며, 主要症狀은, 胸腹脇間이 疼痛하고, 만지면 堅硬하게 느껴지며, 밀어도 移動하지 않고, 身體가 날고 消瘦되며, 體倦乏力하고, 飲食이 減少되며, 婦女患者는 月經停止가 된다.

血脫(혈탈)

① 大出血로 惹起되는 虛脫을 말함. ② 慢性出血患者가 顏色이 蒼白하여, 生氣가 없고, 身體가 瘦弱하며, 脈象이 虛한 症候를 말함.

血脫氣脫(혈탈기탈)

「氣隨血脫」이라고도 함. 出血過多로 陽氣가 虛脫되는 病理을 말함. 氣와 血은 相生相成하여 相互 依存한다. 血脫은 出血過多를 뜻한다. 出血이 過多하면, 氣가 依存할 바를 잃게 되어, 顏色蒼白 四肢厥冷 大汗淋漓 六脈微細 等の 氣虛欲脫症狀을 나타낸다. 出血性속(shock)에 該當하며, 治療에는 마땅히 血脫先益氣의 原則에 依據하여, 급히 補氣함으로써 固脫해야 한다.

血瘕(혈가)

①婦女的 癥瘕에 屬하는 類의 疾病이다. 대개는 月經期間에 邪氣와 血이 結聚되어 經絡을 阻礙하므로 생긴다. 主要症狀은, 少腹에 積氣 包塊가 있고, 急痛하며, 陰道內에 冷感이 있고, 或은 背脊痛 腰痛이 있어서 俯仰할 수 없게 되는 等이다. ②“血瘕在少腹及左脇下 假物成形 無常處”(血瘕가 少腹 및 左脇下에 있으며, 假物을 이루어 常處가 없이

移動한다.)(汪必昌의 醫階辨證)

血海(혈해)

「女子胞」의 項 參照

血海(혈해)

①衝脈을 말함. 十二經脈이 모이는 곳이므로 血海이라 함. ②肝臟을 말함. 肝에는 血液을 貯藏하고 調節하는 機能이 있기 때문이다. ③經穴名으로, 膝蓋骨의 內緣의 上方 2寸 5分部位이며, 足太陰脾經에 屬함.

血虛(혈허)

營血의 不足로 虛弱이 나타나는 病理을 말함. 失血過多(혹은 慢性出血) 臟腑虛損으로 因해, 精血을 化生하는 機能이 減退되거나 혹은 障礙되는 等の 原因은 모두 血虛를 造成하여 貧血症狀을 나타낸다. 臨床上, 일반적으로 心血虛 肝血虛 心脾陽虛 等の 類型으로 나뉜다. 有關各項을 參照할 것.

血虛生風(혈허생풍)

「虛風內動」의 項 參照.

血會(혈회)

「八會穴」의 項 參照.

頰(협)

耳의 前方, 顴骨의 外方部位.

脇(협)

側胸部, 腋部에서 第十二肋骨部分까지의 總稱.

頰車(협거)

①『下牙床』, 『牙床』이라고도 함. 즉 解剖學上의 下頷骨(下顎骨). ②穴位名. 下頷骨角의 前上方에 있으며, 足陽明胃經에 屬함.

脇肋疽(협특저)

脇肋部에 생기는 疽를 脇肋疽라 하며, 脇部 腋下에서 생기는 것을 淵疽라 하며, 總稱해서 脇肋疽라 함. 精氣가 虛弱하며, 肝氣가 鬱結하고 痰火가 肝膽二經을 癰疽한 所致이다. 대개는 結核病歷이 있는 靑年患者들에게 볼 수 있으며 男性이 많다. 처음에 肌肉의 甚部에서 發하여, 脇肋間이 넓게 腫起해서 隱痛하며, 皮膚色은 不變하고, 不紅不熱하며, 三,四개월 지난 後에 化膿하여, 腫塊가 漸重해서, 疼痛을 참기 어려우며, 潰破後의 膿汁이 淸稀한데, 屑綿狀의 膿塊가 섞인다. 本病은 대개 重證에 屬하며, 恒상 結核病의 活

動期에 症狀을 兼發한다. 胸壁結核의 類이다.

協熱利(협열리)

「協熱下利」의 項 參照.

協熱下利(협열하리)

「協熱利」라 略稱하기도 함. 이는 裏寒에 表熱이 겹쳐서 惹起되는 泄瀉이다. 主要症狀은, 形寒身熱하고, 心窩部에 痞硬한 感覺이 있으며, 腹瀉가 不止하는 등이다. 이는 寒邪를 外感하여, 外邪가 未除한데, 下法을 誤用함으로 因해 脾를 損傷하기 때문에, 外部에는 形寒身熱의 表證이 있고, 內部에는 脾虛腹瀉의 裏證이 있어서, 表裏가 同病하는 것이다.

夾肢癰(협지옹)

「腋癰」의 項 參照.

頰指墊(협지짐)

「螳螂子」의 項 參照.

形(형)

形體를 말함. 外部에 露顯되어, 醫員이 形體變化를 診察할 수 있는 것으로, 診斷과 治療時에 參考가 된다.

형(馨-香+禾)飪之邪(형임지사)

형(馨-香+禾)은 馨과 같다. 馨飪은 飲食을 뜻함. 「金匱·臟腑經絡先後病脈證」에서 “馨飪之邪 從口入者 宿食也”라 하였는데, 그 뜻은, 馨香食物을 過食하면 宿食을 釀成하여 致病한다는 것이다. 一說에는 「馨飪之邪」와 同義라 하며, 「형(馨-香+禾)」은 「穀」과 같고, 「飪」은 宿食을 뜻한다고 함.

형(馨-香+禾)飪之邪(형탁지사)

「형(馨-香+禾)飪之邪」의 項 參照.

形不足者溫之以氣(형부족자온지이기)

「素問·陰陽應象大論」에 있음. 이 뜻은 中氣가 虛함으로 因해 생기는 形體의 虛弱에는 溫氣藥으로 中氣를 保養해야 한다. 그럼으로써 脾가 健運해져서 營養이 增加되어 肌膚形體가 점차 豐滿해 진다는 것이다. 「健脾」의 項 參照.

形臟(형장)

形臟이란, 有形之物(實物)인 胃·小腸·大腸·膀胱의 四個 臟腑를 말함(素問·三部九候論에

있음).

形體(형체)

身形과 體質을 뜻함. 臨床上, 身形의 肥瘦, 形態의 特徵, 體質의 強弱을 觀察하여 辨證論治의 一種의 參考로 삼을 수 있다.

滎穴(형혈)

五腧穴의 一種이며, 모두 手·足の 遠端에 있다. 「靈樞·九鍼十二原篇」에서 “所溜(一作流)爲滎”이라 하였다. 이는 經脈의 流注方面이 마치 源泉에서 금방 流出된 細水流(실개천)와 같다는 것이다. 全身의 十二經에 각각 하나의 滎穴이 있다. 그 名稱은 아래와 같다. 肺－魚際 大腸－二間 心包－勞宮 三焦－液門 心－少府 小腸－前谷 脾－大都 胃－內庭 肝－行間 膽－俠溪 腎－然谷 膀胱－通谷

惠民局(혜민국)

「太平惠民和劑局」의 項 參照.

虎口(호구)

「岐骨」의 項 參照.

蒿芩清膽湯(호금청담탕)

「清泄少陽」의 項 參照.

毫毛(호모)

①皮膚上の 細毛. ②眉中の 長毛.

戶門(호문)

①「齒」의 項 參照. ②「七衝門」의 項 參照.

狐疝(호산)

古病名이다. 「狐疝風」이라고도 함. 寒濕과 痰飲으로 因한 病인데, 臥席하면 小腹으로 潛入하고, 일어서면 小腹에서 陰囊으로 내려가서 或痛或不痛한다. 마치 여우가 窟에서 드나드는 것과 같으므로 이렇게 이름한다.

狐疝風(호산풍)

「狐疝」의 項 參照.

獼猴瘡(호손감)

猴瘡이라고도 함. 新生兒의 臀部周圍의 皮膚가 潰爛 脫落되어, 中間에 紅色部分이 露出

되는 것이 마치 원숭이 臀部와 같고, 漸次 全身에 蔓延되므로 이렇게 이른다. 이는 胎中에서 熱毒을 感受한 所致이다. 本病은 剝脫性皮膚炎(紅皮病)의 類이다.

虎鬚毒(호수독)

「人中疔」의 項 參照.

虎鬚疔(호수정)

「人中疔」의 項 參照.

狐臭(호취)

「體氣」의 項 參照.

毫鍼(호침)

古代 九鍼의 一種이며 現代에도 가장 常用되는 鍼刺용구이다 人體의 穴位를 鍼刺하여 治療目的에 到達하는 데 쓰인다 毫鍼의 길이는 5分 (藥①5cm)에서 4-5촌(藥 13-17cm)까지 各樣하다 直徑은 주로 34호(直徑 0.22mm) 32호(直徑 0.25mm), 30호(直徑 0.32mm) 28호(直徑 0.38mm) 26호(直徑 0.45mm)등이다

狐惑(호혹)

古病名이다. 「金匱要略·百合狐惑陰陽毒病證治」에 있음. 主要症狀은, 咽喉部와 前後의 陰部に 潰瘍이 생긴다. 患者가 精神이 或亂不定하고, 臥起不安하므로 이렇게 이른다. 病因은, 傷寒病에 發汗을 하지 못하고, 濕毒이 排泄되지 못한 所致이다.

呼吸補瀉(호흡보사)

古代鍼刺手法의 一種이다. ①患者가 흡기시에 進鍼하고 호기시에 抜鍼하는 것이 瀉法이고 호기시에 進鍼하고 흡기시에 抜鍼하는 것이 補法이다 2鍼刺하여 득기한 후에 捻轉手法을 쓰고 停鍼하여 흡기하는 것이 補法이 되며 정鍼시에 호기하는 것이 瀉法이 된다.

昏厥(혼혈)

突然 쓰러져서 四肢이 厥冷하고 昏蒙하여 人事不省이 되는 證候를 말함. 病因의 차이에 따라 患者가 잠시 후에 저절로 回復되며 또 계속해서 昏微不省하는 境遇도 있다. 則 一時性 昏暈과 昏微의 兩症을 包括하며 前者는 鬱冒 各種厥症과 中暑等에서 볼수 있으며 後者는 中風 尸厥에서 볼수 있다.

昏憤(혼폐)

意識이 昏亂하여 事理不明한 症狀.

魂不藏(혼부장)

「肝藏魂」의 項 參照.

混睛障(혼정장)

本病은, 대개 肝經의 風熱로 因해, 津液이 灼損되고, 瘀血이 凝滯된 所致이다. 그 症狀은 黑睛部分에 一片의 灰白色 翳障이 생겨, 形狀이 젓빛유리(磨硝子)와 같으며, 視力에 重한 障碍가 된다. 角膜斑翳와 類似하다.

烘(홍)

미화로써 藥物을 加熱하여 乾燥시키는 方法의 하나이며 홍은 藥物을 乾燥시킬 혹은 乾燥상자에 넣고 초흑이 되지 않도록 乾燥하는 것이다 홍은 배보다 열을 조 口藥하게 한다

洪脈(홍맥)

脈象의 一種. 脈象이 파도가 솟아오르는 것처럼 來脈이 盛하고 去脈은 衰하다. 대개 熱邪의 熾盛에 屬한다. 만약 虛勞, 失血 또는 泄瀉 等 病에 洪脈이 나타나면 病勢가 아직 發展함을 말해준다.

紅痧(홍사)

「痧氣」의 項 參照.

紅絲疔(홍사정)

疔瘡의 一種이다. 患部에 紅線 같은 줄이 四肢에서 軀幹으로 走向(向心性)하므로 이렇게 이름한다. 内部에는 心火가 熾盛하고, 外部에서는 破傷口에서 感染되므로 생긴다. 手臂의 前側과 小腿의 內側에 잘 생긴다. 症狀은, 紅線이 小腿 或은 手臂에서 迅速히 上向으로 走서하며, 일반적으로 全身症狀은 없는데, 重한 경우는, 寒熱, 頭痛, 消化不良, 乏力 等症을 나타낸다. 紅線이 비교적 가는 것은 治療하면 빨리 낫는다. 만약 紅線이 비교적 굵고, 軀幹을 向해 蔓延되는 것은 重症이다. 만약 高熱, 神昏, 胸痛, 咳血 等症을 隋伴하면 「정창주황」에 屬한다.

紅昇丹(홍승단)

「丹」의 項 參照.

紅昇丹(홍승단)

「靈藥」의 項 參照.

火(화)

①六淫의 하나. 溫熱 暑熱등이 모두 火에 속하는 病邪이며, 그 性質은 陽에 屬하고, 病症은 모두 熱性으로 表現된다. 「素問·五運行大論」에서, “氣在天爲熱 在地爲火……其性

爲暑”라 하였다. ②生命의 動力으로, 陽氣에서 火하는 것이며, 生理上의 火에 屬하는것. 例:「君火」, 「相火」, 「少火」등. ③病理變化科程중 機能亢進의 表現을 말함. 各種病邪를 感受하거나, 或은 七情內傷, 「五志過極」이 一定한 條件下에서 모두 火로 化하게 된다. 生理上의 火의 過亢이 또 病理上의 火로 轉化하게 된다. 臨床表現에따라, 實火 虛火의 二種類로 나뉜다. 實火는 대개 病邪의 亢盛에 起因하며, 急性熱病에서 多見된다. 주로 高熱多汗 煩渴 躁狂 面目紅赤 咯血 衄血 舌紅 苔黃燥 脈數有力 等症으로 表現된다. 虛火는 대개 陰液의 虧損에 起因하며, 慢性消耗性質病에서 多見된다. 주로 煩燥失眠 夢遺 失精 五心煩熱 兩關潮洪 盜汗 咳嗽痰血 舌紅絳 苔少 脈細數 或은 虛數 等으로 表現된다.

和肝(화간)

「滋陰疏肝」이라고도 함. 滋陰藥과 疏肝藥을 合用하여 肝氣를 和暢케 하는 方法이다. 肝腎이 陰虛하여 氣가 停滯되어 不幸하면 脇肋竅痛, 胸腹脹, 舌象無津液, 咽喉乾燥 脈은 도리어 細弱하거나 或은 虛弦한 等症을 發汗다. 一貫煎(北沙蔘, 麥門冬, 當歸身, 生地黃, 枸杞子, 山梔子, 口苦燥하면 酒炒黃連을 少量 加한다)을 써서 治療하면 좋다.

火疳(화감)

一種의 急性眼病이다. 火疳은 火邪 熱毒이 結集되어 白睛(흰자위)을 侵犯하는 病症이다. 主要症狀은 白睛의 深部に 外向으로 暗紅色의 顆粒이 突起하여 漸次增大해서 紅赤疼痛하며 羞明流淚하고 視物이 不明瞭하며 重한 경우는 潰破되어 汁이 나오고 漏管을 形成한다.

火廓(화곽)

「八廓」의 項 參照.

化氣(화기)

「行氣」의 項 參照.

化氣利水(화기이수)

「溫陽利濕」의 項 參照.

化膿灸(화농구)

「癰疽灸」의 項 參照.

火丹(화단)

「丹毒」의 項 參照.

化痰(화담)

痰이 생기는 病人에 따라, 化痰法을 六種으로 나눈다. 1) 宣肺化痰: 外感의 風寒으로 痰

多한 경우에 適用된다. 患者가 鼻塞, 喉痒, 咳嗽, 痰多, 苔薄白한 경우, 麻黃, 蟬衣, 杏仁, 桔梗, 牛蒡子, 辛荇, 陳皮, 甘草 等を 쓴다. 2) 清熱化痰: 熱痰에 適用된다. 舌紅苔黃한 경우, 桑白皮, 瓜蒌皮, 象貝母, 蘆根 等を 쓴다. 3) 潤肺化痰: 燥痰에 適用된다. 患者가 咽喉乾燥하고, 痰이 稠厚하여 咯出하기 어렵고, 苔가 黃乾한 경우, 沙蔘, 瓜蒌, 桔梗, 橘紅等を 쓴다. 4) 燥濕化痰: 濕痰에 適用된다. 痰이 희고 많으며, 咯出하기 쉽고, 胸悶惡心하며, 舌苔白滑而이한 경우, 法半夏, 茯苓, 陳皮, 甘草 等を 쓴다. 5) 去寒化痰: 寒痰에 適用한다. 清稀한 痰을 吐하고, 怕冷, 手足不溫, 舌質淡白, 苔滑한 경우, 桂枝, 茯苓, 乾薑, 薑半夏, 橘紅等を 쓴다. 5) 治風化痰: 風痰으로 인해 야기되는, 頭痛眩暈하고, 때로 頭旋眼黑하며, 舌苔白潤한 경우, 天麻, 鉤藤, 半夏, 茯苓, 橘紅, 甘草等を 쓴다.

化痰開竅(화담개규)

「豁痰醒腦」의 項 參照.

火帶瘡(화대창)

「纏腰蛇丹」의 項 參照.

火毒(화독)

「清熱解毒」의 項 參照.

火毒(화독)

「熱毒」이라고도 함. ①火熱의 病邪가 鬱結되어 成毒한 것. 各科의 病證중 특히 外科의 일부 瘡瘍腫毒(化膿性炎症을 包含)의 形成과 發展은 往往 火毒과 有關하다. 例: 疔瘡 丹毒 熱癰 등. ②燙火傷의 感染을 말함.

火毒(화독)

「去火毒」의 項 參照.

化斑(화반)

「透斑」의 項 參照.

化斑湯(화반탕)

「透斑」의 項 參照.

和法(화법)

藥物의 疏通 調和作用을 이용하여 病邪를 解除하는 目赤에 도달함을 말함. 和解少陽, 調和肝脾, 調和肝胃 등의 方法으로 나뉜다. 무릇 熱性病邪가 外表에 있거나 或은 裏部로 轉入되어 燥渴, 譫語 등의 實證이 있는 경우에는 和法을 쓸수 없다.

火不生土(화불생토)

「火」는 腎陽 즉 命門火를 말하며 「土」는 脾胃를 뜻함. 腎陽이 허약해지면 命門火가 부족해져서 脾胃가 이 陽氣의 溫暖을 얻지 못하여 胃氣의 水穀腐熟과 脾氣의 營養精微를 運化하고 水濕을 運化하는 기능에 영향을 미쳐 脾腎兩虛의 綜合病症이 나타나는 바 모두 「火不生土」에 속한다. 臨床上으로는 腰痠膝冷 畏寒 飲食不和 小便不利 浮腫 혹은 새벽泄瀉등증을發한다.

化痞(화비)

「消痞」의 項 參照.

火瀉(화사)

「熱邪」의 項 參照.

火邪(화사)

①六淫의 하나. ②一般的으로 病變過程에서 火로 化하는 表現을 말함. 「火」의 項 參照.

火傷(화상)

「湯火傷」의 項 參照.

火性炎上(화성염상)

火炎이 上燃하는 현상처럼 火邪로 인한 病變이 上向하는 특징을 말함. 火에는 虛實의 구분이 있는데 實火는 대개 外邪陽熱에 속하며 升散과 관련되고 火熱이 傷肺하면 喘咳 咯血 혹은 鼻衄등증을發한다. 火가 心神을 竅박하게 되면 頭痛 嘔吐 昏迷 譫語 등증을發한다. 虛火는 대개 精血의 虧損 陰虛陽亢으로 인해 생기며 煩燥 咽痛 聲嘶 齒齦出血 耳鳴 등증을發한다. 모두 火性炎上의 變에 속한다.

火盛刑金(화성형금)

① 火는 肝火를 뜻하며 「木火刑金」과 同義이다. ② 火는 心火 혹은 熱邪를 말하며 心火가 熾盛하면 肺陰을 損傷하여 咳血 痰血을 일으킨다. 熱邪가 熾盛하면 肺를 傷하여 熱咳혹은 「痰熱阻肺」를 일으켜 증상이 심하면 高熱 呼吸急促 鼻翼煽動하고 심한 경우 咳血 咯血 등증을發한다.

化濕(화습)

①疏表化濕:濕邪가 上焦 혹은 外表에 있어서 頭重而脹,肢體痠重疼痛,九重粘이,不口渴,苔白리,脈濡 等症을 나타낸다.防風,等子,蒼朮,藿香,陳皮,砂仁穀,生甘草 等を 쓴다.②清熱化濕:濕溫時疫의 初期에 病邪가 氣分에 있어서 身熱肢痠,無汗心煩 혹은 有汗而熱不退,胸悶腹脹,小便赤,大便不通,或泄瀉不脹,大便熱臭,舌苔厚이或乾黃한 경우, 甘露消毒丹(滑石,茵陳,黃芩,石菖蒲,木通,川貝母,射干,連翹,薄荷,白蔻仁,藿香을 散劑로 한것)을 쓴다.

火眼(화안)

「風火眼痛」의 項 參照

化癥行血(화어행혈)

「祛癥活血」의 項 參照.

火逆(화역)

燒鍼이나 熏法 울법 灸法등의 火法을 오용하여 이로 인해 변증을 일으킨 것을 火逆이라고 한다.

火熱(화열)

外感에 의한 表證이 裏로 傳病되는 一種의 病理變化를 말함. 風·寒·燥·濕 등의 外邪가 人體에 侵入한 後, 初期段階에는, 대개 畏寒 苔薄白 등의 表寒症狀을 나타내는데, 病邪가 氣分으로 傳入하며, 惡寒하지 않고 도리어 惡熱하며, 口渴唇乾 心煩 舌紅苔黃 脈數 或便秘 尿黃赤 등을 나타내어, 病邪가 이미 熱로 化하여(化熱) 裏로 入함(入裏)를 가리킨다.

火熱迫肺(화열박폐)

「火盛刑金」의 項 參照.

花翳白陷(화예백함)

風熱의 毒邪가 黑睛을 侵犯하여, 그 表面에 翳膜이 생겨, 形狀이 花瓣과 같고, 中間이 陷凹되는 것을 말함. 本病은, 대개 熱毒이 內侵하고, 肝肺의 火가 熾盛하여, 相互 搏結해서 생긴다. 治療를 그르치면 惡化되어 ‘蟹睛’으로 變性되기 쉬우며, 甚한 경우, 視力에 重한 影響을 미친다.

和緩(화완)

醫和와 醫緩의 二人을 말하며 모두 春秋時代 秦國의 의관이다. 그 醫學上的 功績에 의해 後世人들이 和緩이라 并稱하여 良醫를 기리는 代名詞로 삼았다.

火旺刑金(화왕형금)

「火盛刑金」과 동의.

火鬱發之(화울발지)

「素問:六元正紀大論」에 있음.「火鬱」은, 熱邪가 體內에 潛伏함을 뜻하고,「發」은 形勢에 따라 有利하게 이끌어 發泄한다는 뜻이다.例컨대 溫病으로, 邪熱이 이미 氣分에 이르러,身熱不惡寒 하고, 心煩口渴하며 舌苔黃等症을 發하는데 衛分이 또 閉鎖되어 無汗일 경우에 必順的으로 辛涼透達藥을 써서 病人으로 하여금 微汗케 하면 氣分の 熱邪가 밖으로 透散된다.(泄衛透熱의 項 참고).또한 心火가 上炎하여 口糜舌爛하고 心熱이 小腸으로 옮겨져 小便色이 붉고 淋瀝疼痛하면 心과 小腸의 火를 瀉해야 하는데 導赤散(生

地黃,木通,甘草稍,竹葉)을 써서 火를 이끌어 下泄한다.

和胃(화위)

和中이라고도 함. 胃氣의 不和를 治療하는 方法이다. 胃氣不和의 臨床表現은 胃脘이 脹悶하고 氣吐酸하며 舌淡苔白하고 脈澁하다. 陳皮, 糠半夏, 木香, 砂仁 등의 藥을 쓴다.

和胃理氣(화위이기)

氣와 痰濕이 中脘을 阻滯한 症候를 治療하는 方法이다. 脘腹脹悶, 吞酸或吐酸水, 噯氣等症을 發汗다. 枳實, 陳皮, 剛半夏, 竹筴, 煨瓦楞子 等藥을 쓴다.

化飲解表(화음해표)

溫化水飲藥과 辛溫解表藥으로 組成하여 外表에 風寒이 있고 內部에 水飲之症이 있어서 惡寒發熱, 無汗, 咳嗽喘息, 痰多而稀, 舌苔滑潤, 口不渴, 脈浮緊 等症을 나타내는 것을 治療하는 것. 小青龍湯(麻黃, 桂枝, 芍藥, 細辛, 乾薑, 甘草, 薑半夏, 五味子)을 쓴다.

和劑局(화제국)

「太平惠民和劑局」의 項 參照.

化燥(화조)

外邪가 津液을 消耗하는 一種의 病理現象을 말함. 「燥」란, 津液을 缺乏케하는 것이다. 熱이 津液을 損傷하거나 혹은 體質적으로 陰虧하거나 內熱이 亢盛하는 등의 要因이 모두 容易하게 邪氣를 化燥케 하여, 口乾 咽燥 唇焦 口渴 便秘 尿赤 乾咳咯血 等 體液耗損의 症狀이 出現한다. 「內燥」의 項 參照.

和中(화중)

「和胃」의 項 參照.

火鍼(화침)

燔鍼 燂鍼 燒鍼이라고도 함. 一種의 특수한 鍼刺法이다. 그 方法은 金屬鍼의 尖端을 소홍한 후 신속히 人體의 一定部位의 皮下組織을 刺하고 신속히 拔出한다. 이러한 方法은 外科의 일부 疾患과 風濕性關節炎의 治療에 多用한다

華佗夾脊穴(화타협척혈)

背部正中線 脊椎의 棘上突起에서 兩側으로 5分部位에 있다. 두가지 取穴法이 있다. (1) 第1頸椎에서 第4骶椎까지 左右로 5分部位에 各 28穴 合 56穴. (2) 第1胸椎下에서 第5腰椎下까지 左右로 5分部位에 各 17穴, 合 34穴. 夾脊穴의 臨床適用範圍는 꽤 廣範하며, 主로 內臟機能의 紊亂을 調整하고, 脊背部의 局部症狀을 治療한다.

化風(화풍)

熱病의 科程이나 或은 陰血의 耗損으로 因해 나타나는 一種의 病理變化를 말함. 「風」은 肝風을 말하며, 이는 一種의 眩暈 抽搐 振顫하는 神經症狀이다. 臨床上, 熱盛 陰傷 血虛 혹은 肝陽上亢 等の 原因에 依해 나타나며, 「和風」이라 稱한다. 「熱盛動風」, 「肝風內動」, 「內風」등 有關한 項을 參照.

火陷(화함)

「三陷證」의 項 參照.

和解少陽(화해소양)

病邪가 少陽에 있다는 것은 熱性病사가 半表半裏의 부위에 있음을 말한다. 半表症은 寒熱이 교착되고 胸脇苦滿한 症狀을 나타내며 半裏證은 口苦, 咽乾, 目赤 等症을 나타낸다. 小柴胡湯(柴胡, 黃芩, 人蔘, 半夏, 甘草, 生薑, 大棗)을 써서 和解시켜 한편으로 病邪를 除去하고 한편으로 正氣를 扶助한다.

化血熄風(화혈식풍)

血虛에 치우친 肝風의 內動을 治療하는 方法이다. 熱性病의 後記에 熱邪가 陰血을 耗損하여, 唇焦舌燥, 筋脈拘急, 手足攣動, 或頭目眩暈, 脈細數 等症을 나타낸다. 陳阿膠, 生地黃, 生白芍藥, 鷄子黃, 生牡蠣, 灸甘草, 茯神, 絡石等 等藥을 쓰면 좋다.

化火(화화)

熱證이 발전하는 過程中的의 하나의 病理現象을 말함. 熱은 無形之氣이고, 火는 有形之象이다. 熱이 極하면 火를 生한다. 一般的로 말해서, 火는 모두 內熱이 熾盛함을 뜻하며, 이는 病理性인 各種機能亢進의 表現이다. 外感의 五氣(風·寒·暑·濕·燥)는 一定한 條件下에서 모두 火가 된다.(化火). 五志의 鬱結도 역시 火를 生한다(生火). 이밖에 痰濕의 內阻, 肝膽의 氣鬱도 모두 邪를 化火케 할 수 있다. 火證의 臨床表現은 比較的 複雜하여, 病因에 따라 다르다. 輕證은 두통煩渴 面目紅腫 口唇焦燥 咽乾喉痛하고, 重證은 神志昏沈 狂躁不安 或은 咯血衄血 淋閉尿血 等症을 發한다.

丸(환)

藥物을 갈아서 細末로 하여 蜜水 糊 혹은 藥汁등으로 반죽하여 반형의 大小各樣의 丸藥을 만든것 이는 服用이 便利하고 吸收가 比較的 緩慢 하며 藥力이 比較的 持續된다 藥物가운데 고열에 藥하고 물에 難溶하면 揮發하기 쉬고 毒性이 比較的 極熱한 것은 대개 丸藥으로 만드는데 適合하다 丸劑는 慢性病에 常用되면 특히 癥積을 除去하는데 適合하다. 그런데 急證에도 쓸 수 있는 丸劑가 있으면 平時에 조조에 保全했다가 必要時에 물에 溶解하여 服用하거나 혹은 물로 送服한다.

環跳疽(환도저)

疽가 環跳血部(股關節部)에 생기므로 이렇게 이름한다. 病因과 病理는 附骨疽와 같다.

처음에는 惡寒發熱이 나고, 關節部가 넓게 腫起하여 隱痛하며, 皮膚色은 變하지 않는다. 이어서 疼痛이 甚해지고 腰部를 屈伸하기 困難하며, 臀部가 漸次 外突하고, 大腿는 약간 外向으로 젖혀진다. 約 一내지 三個月 前後해서 皮膚色이 微紅해지고, 壯熱이 持續되는 것은, 內部가 이미 化膿한 徵候이며, 潰破後에 清稀한 膿汁이 흐르며, 잘 아물지 않는다. 治療가 不適當하거나 或은 계속 發展하면 患側의 下肢가 不具 된다.

豁痰醒腦(활담성뇌)

「化痰開竅」과 같음. ① 「清熱化痰開竅」의 項에 열거된 症候가 있는 熱痰을 治하는 方法이며, 抱龍丸類를 쓰면 좋다. 成人의 熱痰에도 쓰면 좋다. ② 「逐寒開竅」의 項에 열거된 症候가 있고, 痰涎이 壅盛한 寒痰을 治하는 方法이며, 蘇合香丸을 溶解하여 吞服한다.

滑脈(활맥)

脈象의 一種, 脈의 흐름이 미끄러워 圓滑하게 느껴지며, 마치 圓珠를 쟁반에서 굴리는 긋한 脈象이다. 痰飲 食滯 實熱 等證과 關聯되며, 또 妊娠과도 關聯된다. 이밖에 健康인에게도 滑利한 脈象을 볼 수 있다.

滑精(활정)

「遺精」의 項 參照.

滑劑(활제)

「滑可去着」로서 冬葵子, 榆白皮의 類이다. 「滑」은 滑劑를 뜻하고, 「着」은 有形의 邪가 體內에 凝結된 것이며, 性質이 滑利한 藥을 써서 이를 除去해야 한다. 例컨대 石淋은, 尿중에 砂石이 끼워있어서, 排尿가 곤란하고, 或은 돌연 尿道가 閉鎖되어 排尿가 中斷되기도 하며, 或은 排尿時 劇痛이 發하고, 或은 갑자기 심한 腰痛이 생기며, 少腹이 당기고, 尿色이 黃赤하고 混濁하며 帶血하기도 하고, 苔白或黃膩하며, 脈數 等症을 나타낸다. 葵子散(冬葵子, 石楠, 榆白皮, 石韋, 木通)에 金錢草, 海金砂를 加하고, 尿血이 있으면 大小薊를 加하여 쓴다.

滑胎(활태)

「墮胎」의 項 參照.

活血生新(활혈생신)

「祛瘀活血」의 項 參照.

黃家(황가)

平素 黃疸을 앓고, 때때로 發黃하는 사람을 말함.

黃芩湯(황금탕)

「苦寒清氣」의 項 參照.

黃芪健中湯(황기건중탕)

「溫胃建中」의 項 參照.

黃丹(황단)

「薄貼」의 項 參照.

黃疸(황달)

身黃, 目黃, 小便黃이 主證이 된다. 病因은 脾胃의 濕邪가 內蘊해서 腸胃가 失調되어, 膽液이 外溢하므로 惹起된다. 臨床上, 陽黃과 陰黃의 二大 種類로 나뉜다. 詳細한 것은, 「陰黃」, 「陽黃」의 項 參照.

黃帶(황대)

婦女의 陰道에서 流出되는 淡黃色의 粘稠하고 臭穢한 液體를 말함. 甚한 경우는 색깔이 茶汁과 같은 濃黃色을 띤다. 대개 濕邪가 盛하여 濕鬱이 化熱해서 任脈을 損傷한 所致이다. 만약 灰黃色의 泡沫狀이 稀薄한 液體이면 대개 트리코모나스성陰道炎이다. 만약 黃白色을 띠고 粘稠하며 或은 膿樣인 경우는 대개 慢性子宮頸炎이다.

黃連解毒湯(황연해독탕)

「寒劑」의 項 參照.

黃龍湯(황룡탕)

「攻補兼施」의 項 參照.

盲膜(황막)

①心의 下, 膈의 上部에 있는 脂膜(脂肪層)을 말함. ②腸外의 脂膜(腸系膜:腸間膜)을 말함.

黃昇丹(황승단)

「靈藥」의 項 參照.

黃液上衝(황액상충)

‘凝脂翳’의 病情이 계속 發展惡化되어, 黃液上衝이 된다. 그 病因은, 脾胃의 積熱이 上燔하여, 毒邪가 交攻하기 때문이다. 主要症狀은, 風輪(黑睛)의 內側, 黃輪의 前方(즉 解剖學上의 前方)에 黃綠色의 膿性 分泌物이 생기며, 漸次 增多해져서, 그 上界에 水平線을 나타낸다. 重한 경우는, 風輪을 穿破하여 ‘蟹睛’ 或은 ‘旋螺突起’를 이루어, 視力에 影響을 미친다. 本病은 前方積膿(前方蓄膿)과 類似하다.

黃如枳實(황여지실)

「素問,五臟生成篇」에 있음. 이는 脾의 眞臟色이다. 枯黃色로 潤澤을 喪失한 病色을 形容寒 것이며, 久病으로 脾氣가 끊어지려하고, 胃氣가 衰敗할 경우에 나타난다. 「眞臟色」의 項 參照.

黃仁(황인)

『晴簾』이라고도 함. 眼球의 角膜後方의 虹膜(虹彩膜)이며, 『風輪』의 一部分에 屬함.

黃帝(황제)

「岐黃」의 項 參照.

肓之原(황지원)

肓은 心臟의 下, 橫膈膜의 上의 部位를 말하며, 肓之原은 臟腑의 原穴의 하나이다. (1) 氣海穴部位를 指稱함. 例: 「靈樞·九鍼十二原篇」에서 “肓之原出於臍腧”이라 하였다. 臍腧은 肚臍이며, 여기서는 氣海穴의 指稱하며, 臍下 1寸 5分處이다. (2) 關元穴을 指稱함.

黃苔(황태)

舌苔가 黃色인 것이며, 熱證과 關聯이 있고, 熱邪이 裏에 있다. 苔가 薄黃色이고 滑한 것은, 濕熱과 關聯이 있다. 外感病에 이런 苔가 出現함은 外邪이 火熱入裏했지만 津液이 아직 傷하지 않은 것이다. 苔가 薄黃하고 乾燥한 것은, 熱邪이 이미 傷津한 表示이다. 苔가 厚黃하고 滑한 것은, 대개 胃臟에 濕熱이 積滯된 所致이다. 苔가 厚黃하고 乾燥한 것은 대개 積熱이 傷津한 所致이다. 苔가 黃色이고 腐한 것은 脾胃의 濕熱 或은 痰濕食체에 起因한다. 舌質이 淡軟하고 苔가 微黃하며 潤한 것은 대개 脾虛하고 濕이 있기 때문이다. 苔에 黃白色이 相兼한 것은 濕熱에 屬하며, 或은 外感의 風寒이 火熱해서 入裏했기 때문이다.

黃風(황풍)

「五風內障」의 項 參照.

黃汗(황한)

「金匱要略」에 있음. 汗出하여 옷을 적시는데 색깔이 黃柏汁과 같으므로 黃汗이라 한다. 症狀은, 發熱口渴하고, 胸部가 滿悶하며, 四肢頭面이 浮腫하고, 小便不利하며, 脈沈遲 등이 나타난다. 病因은 風 水 濕 熱의 病邪가 交蒸한 所致이다. 濕熱이 血分을 傷하게 되면, 瘡瘍을 併發하는 수가 있다.

黃昏(황혼)

「十二時」의 項 參照

噦(회)

胃氣가 逆上하여 發하는 噦聲으로 呃逆(딸꾹질)을 말함.

匯講(회강)

個人的 單篇 著作을 모아 印行한 書籍을 말함. 例컨대 清代 唐大烈의 「吳醫匯講」은, 當時 醫員의 單篇著作을 收集하여, 隨時로 印行한 것이며, 全部 11卷인데, 이는 實際로는 中國最初の 醫學雜誌이다.

蛔厥(회결)

蛔蟲의 感染으로 인해 惹起되는 急性 腹痛과 四肢厥冷의 病證이다. 症狀은 腹部가 絞痛하고 四肢이 冷하며 痛甚하면 汗出하고 或은 涎沫을 吐하기도하며 或은 蛔蟲을 吐하기도 하고 時發時止하며 或은 寒熱을 隨伴하고 胃腸機能이 紊亂되는 證候를 나타낸다. 膽道蛔蟲病 或은 蛔蟲性腸閉塞病의 類이다.

回旋灸(회선구)

艾卷灸法의 一種이다. 艾卷의 點燃한 일단을 施灸할 皮膚상에서 前 後 좌 右로 회선이 동시켜 艾卷을 穴位상에 고정시키지 않는 灸法을 말한다.

回陽救逆(회양구역)

「救陽」이라고도 함. 亡陽을 治療하는 方法이다. 亡陽의 臨床表現은, 汗出不止, 汗冷, 身冷, 手足冷, 口不渴而喜熱飲, 氣息微弱, 口鼻氣冷, 脈微欲絕하며, 속(shock)患者에게 다 건된다. 附子理中湯(附子, 黨蔘, 乾薑, 白朮, 灸甘草)을 쓴다.

回陽玉龍膏(회양옥룡고)

「범위약」의 項 參照

會厭(회염)

「吸門」이라고도 함. 氣管의 上口에 있는 軟骨. 發聲할 때 열리고, 食物을 삼킬 때 닫힌다. 「靈樞·憂悲無言篇」에서 “聲音之戶也”라 稱하였다.

會陰(회음)

①纂, 下極, 屏翳라고도 함. 外生殖器的 後方, 肛門의 前方 部位. ②穴位名. 會陰部の 中央이며, 任脈에 屬함.

恢刺(회자)

十二刺의 一種 근비(筋肉의 痙攣 疼痛等)를 治療하는 데 쓰인다 그 法은 鍼을 병통하는 근육의 一處에 直刺하여 上下前後좌우로 鍼體를 요동해서 근육의 이완을 촉진한다.(靈樞 官鍼篇)

廻腸(회장)

「大腸」의 項 參照.

虵虫(蛭虫, 蛔虫)(회충)

古書에는 「長虫」이라고도 하였다.

灰苔(회태)

舌苔의 灰白色이며, 濕濁으로 內困한 경우에 多見된다.

會穴(회혈)

①2條 혹은 2條以上の 經脈이 相互 交會하는 部位. 經脈의 循行方向은, 完全한 直線이 아니므로, 曲折交錯되어 往往 經脈의 交叉 혹은 相互 隣接되는 狀況이 나타난다. 이러한 交叉와 隣接部位가 곧 會穴이다. 全身의 會穴은 書籍에 記載된 統計에 依하건대 約 百餘個이다. 이들 會穴은 同時に 多數經脈이 分布되어 있으므로 數經의 疾病을 兼治할 수 있다. ②「八會穴」의 略稱. 그 項 參照.

橫骨(횡골)

①下橫骨, 蓋骨이라고도 함. 解剖學上的 恥骨, ②穴位名, 恥骨結合의 上緣의 正中點에서 左右로 5分部位이며, 足少陰腎經에 屬함. ③舌骨. 舌根部에 있는 小骨을 말함.

橫産(횡산)

「難産」의 項 參照.

橫痃(횡현)

便毒이라고도 함. 各種의 性病에 隋伴되는 鼠蹊 림과腺의 腫瘡을 말함. 初期에는 形狀이 杏核과 같은데, 漸次 커져서 鷄卵大가 되며, 堅硬하고, 저리면서 아프고, 紅腫 灼熱하며, 惑은 微熱 不紅하기도 하다. 潰破後에는 膿液이 流出되며, 잘 아물지 않는데 이를 魚口라 하며, 一說에는 左側에 생기는 것이 魚口이고, 右側에 생기는 것이 便毒이라고 한다.

哮證(효증)

喘氣할때 喉間에서 水鷄聲처럼 짹짹소리가 나는 것이 特徵이다. 언제나 喘을 隨伴한다. 哮는 響聲을 말하며 喘은 氣息을 말함. 本病은 痰鳴 咳喘의 症狀이 있으므로 俗稱 呷呀 혹은 呷嗽라고도 한다. 幼兒時부터 本病을 앓는 境遇가 있는데 이를 喘哮라 한다. 그 病因은 주로 痰飲의 內服에 起因하며 外感, 飲食, 情志 혹은 過勞等の 要因에 의해 誘發된다. 특히 氣候變化와 더욱 密接한 關係가 있다. 病이 오래되면 肺, 脾, 腎의 三臟이 모두 虛해져서 本虛表實의 症候를 나타낸다. 臨床에서는 대체로 冷哮와 熱哮의 二種類로 나눈다. ① 冷哮 : 咳痰이 淸稀하고 痰이 白色이며 粘沫狀을 나타내고 口不渴하

며 胸膈이 窒悶함이 主證이며 或은 風寒表症을 兼發하기도 한다. ② 熱哮 : 痰이 濁稠하며 黃色이고 膠粘하여 咯出하기 어렵고 面赤하며 自汗하고 煩悶하며 喘脹促迫함이 主證이고 或은 風熱表症을 兼發하기도 한다.

哮喘(효천)

哮는 喉間에서 소리가 나는 것을 말하며 開口하거나 閉口해도 痰聲이 난다. 喘은 呼吸을 말하며 숨이 促迫하고 呼多吸少하다. 哮의 發作期間에는 언제나 喘促이 隨伴하는데 喘의 境遇에는 반드시 哮를 兼發하는 것이 아니다. 一般的으로 대개 哮喘으로 合證하지만 실제로는 이러한 區別이 있다.

喉(후)

喉頭腔內的 氣管上端到 가까운 곳이 喉이다. 鄭梅澗의 「重樓玉鑰」에서 “喉者空虛, 主氣息出入呼吸, 爲肺之系, 乃肺氣之通道也”라 하였다.

喉疳(후감)

本證은, 대개 喉頭部結毒(咽喉部梅毒) 或은 風熱의 外感으로 咽喉를 灼傷하기 때문에 생긴다. 또한 胃熱에 의한 경우도 있다. 症狀은 咽喉 或은 上顎部に 크기가 일정하지 않은 黃白色의 點狀潰瘍이 생기며 때로는 頭痛 寒熱등의 全身症狀도 있다.

猴疳(후감)

「猢猻疳」의 項 參照.

喉呿(후개)

靈樞·邪氣臟腑病形篇에 있음. 呿는 芥菜로써 喉中에 芥菜狀의 物體가 阻塞된 것 같은 症狀을 말함.

喉關(후관)

喉關은 扁桃腺·懸雍垂·舌根으로 구성된다. 喉關의 內側(咽頭後壁, 會厭등)을 「關內」라 하고, 喉關의 外側(上顎, 面頰內側, 齒根 등)을 「關外」라 함.

喉關癰(후관옹)

本病은, 대개 風熱의 毒이 咽喉를 侵襲하므로, 局部의 氣血이 凝滯되고, 熱毒이 壅盛해서 化膿한 것이다. 局部의 主要症狀은, 扁桃의 한쪽 或은 양쪽의 周圍가 腫脹突起하여, 焮紅灼熱하고, 嚥下가 困難하여 懸雍垂도 腫脹 變形된다. 小兒에게 多見되며, 항상 發熱등의 全身症狀이 있다. 本病은 扁桃周圍膿腫과 비슷하다.

喉菌(후균)

「喉岩」의 項 參照

候氣(후기)

鍼法の 述語이다 (素問 이합진사론에 있음) 鍼을 穴位에 刺入한 후 比較的 장시간 留鍼하여 기지를 촉진하는 一種의 方法이며 鍼법중의 보법의 一種에 속한다. 이 방법은 대개 신체가 허약하여 강한 刺戟의 수법에 견딜 수 없는 病人에 쓰인다.

嗅氣味(후기미)

聞診內容의 하나이다. 檢査者가 嗅覺에 의해, 病因과 病室의 氣味 및 病因의 分泌物 排泄物等を 分析하는 것이다. 어떤 疾病은 病因에게 特殊한 냄새가 난다. 例컨대 身體에 潰腐된 腫瘍나 瘡瘍이 있으면 腐敗한 냄새가 난다. 어떤 熱性傳染病이나 或은 肝腎의 機能이 衰竭한 病者에게는 通常 特殊한 臭氣가 있다. 또 肺胃에 有熱하면 口氣에 穢臭가 있고, 胃에 宿食이 있으면 口氣에 酸臭가 나며, 肺癰, 肺壞疽에서는 痰液에 腥臭가 있고, 아메바 痢疾에서는 大便에 惡臭가 나며, 脂溢性 및 腸原性 설사에는 大便에 腥臭가 있고, 下部小臟이 梗阻되어 嘔吐한 것에는 糞臭를 띠게 된다. 子宮癌 或은 子宮頸癌에서는 白帶下에서 언제나 腥臊惡臭가 난다. 「孤臭」患者에서는 腋下에서 역겨운 腥臊臭를 發散한다.

喉嚨(후롱)

①일반적으로 喉腔을 말함. ②喉와 同義이다. 『靈樞』『憂患無言篇』에서 “喉嚨者 氣之所以上下者也”라 하여, 喉嚨이 喉腔內의 氣管의 윗쪽에 있는 呼吸의 要道라고 說하였다.

喉瘤(후유)

本病은, 대개 肝氣가 鬱結되고 氣血痰涎이 喉頭部에 凝滯되므로 惹起된다. 咽喉部의 한 쪽 或은 양쪽에 紅色肉瘤가 생겨, 그 表面이 光滑하고 質이 堅硬하며, 觸之하면 아프다. 重症이 되면 呼吸困難, 嚥下困難을 나타낸다.

厚味(후미)

「精不足者補之而味」의 項 參照.

厚朴三物湯(후박삼물탕)

「表裏雙解」의 項 參照.

厚朴七物湯(후박칠물탕)

「表裏雙解」의 項 參照.

後髮際(후발제)

「髮際」의 項 參照.

喉痺(후비)

「痺」은 閉塞不通을 뜻함. 이는 咽喉局部의 氣血이 瘀滯痺疽되는 病理變化이다. 무릇 咽

喉가 腫痛하는 諸病으로서, 阻塞不利를 느끼고, 嚥下不爾하며, 甚한 경우 嚥下困難한 것은 모두 喉痺의 範圍에 屬한다.

喉痧(후사)

「爛喉丹痧」 또는 「疫喉痧」라고도 함. 대개 冬, 春 兩季에 發하며 疫毒의 邪가 口.鼻에 吸入되어 肺胃의 蘊熱과 相合해서 熱毒이 咽喉部를 上攻하여 早速히 咽痛하며 紅腫 腐爛을 나타내고 熱毒이 期表로 나오면 全身의 皮膚에 痧疹이 생긴다. 이밖에 發熱, 惡寒, 頭痛 등의 全身症狀이 있다. 곧 猩紅熱이다.

喉蛾(후아)

「乳蛾」의 項 參照

喉岩(후암)

喉菌이라고도 함. 本病은 急重症에 속하며 대개는 鬱怒傷肝하고, 思慮傷脾하며, 脾腎이 본래 虛하므로 惹起된다. 또한 過度한 吸煙 飲酒도 그 誘因이 된다. 咽喉部에 腫瘍이 생겨 形이 菌狀이며 약간 높고 두꺼우며 潰爛후에 臭液이 流出되고, 呼吸이 阻滯되기 쉽다. 병이 喉頭內에 생기면 聲音이 쉬고 患者가 날로 야위며 午後潮熱이 發한다. 本病은 喉頭癌類의 疾病이다.

喉癰(후옹)

咽喉 및 그 부근에 생기는 癰瘍의 總稱이다. 처음에는, 通常 惡寒發熱하며, 嚥下와 言語에 障礙가 되고, 患部가 紅腫 熱痛하며, 때로는 疼痛이 耳部에까지 일으킨다. 本病은 咽部膿腫에 該當하는 類의 疾病이다. 頷下의 天突穴部位에 發하는 것을 「頷下癰」이라 한다.

後陰(후음)

肛門部를 말함.

瘰子(후자)

「疣」의 項 參照.

喉底(후저)

咽後壁(咽頭後壁)을 말함.

喉疔(후정)

本證은, 邪熱이 肺胃에 內侵하여 火毒이 喉頭部로 上結한 所致이며, 그 瘡이 喉頭의 兩傍에 생겨 뿌리가 깊고, 形狀이 靴釘과 같으므로 이렇게 이름한다. 처음에는 惡寒 發熱 疼痛등의 全身症狀이 있고, 局部에 痒麻感이 있다. 疔瘡이 紅腫하고 끝이 破하여 膿이 나오는 것은 順症이며 낫기 쉽다. 疔瘡이 軟陷하고 腐爛되는 것은 逆重症에 속한다.

喉中水鷄性(후중수계명)

『金匱要略』“肺萎肺壅咳嗽上氣病脈證并治”에서 나온 말. 哮喘病의 痰鳴小리가 水稽聲처럼 連連不絶함을 形容한 것. 이 症狀은 대개 內部에 痰音이 있고 外表에 寒邪가 있어서 發하는 寒飲喘咳證이다.

後天(후천)

「脾主後天」의 項 參照.

後天失調(후천실조)

「脾主後天」의 項 參照.

後天之本(후천지본)

「脾」의 項 參照.

後天之精(후천지정)

①腎藏精의 項 參照. ②精의 項 參照.

後天之火(후천지화)

脾胃는 『後天之本』이고, 後天之火는 脾胃의 火를 말함. 여기서 『火』字는 飲食物의 消化에 所要되는 熱에너지로 理解된다. 但, 全消化課程에서는 『先天之火』(즉 命門之火)의 幫助가 必要하다.

喉風(쇄후풍)

「喉風」의 項 參照 纏喉風(前後풍). 「喉風」의 項 參照.

喉風(후풍)

本病은 대개 風熱의 外邪를 感受하여 肺胃에 본래 積熱이 있는데다가 風火가 부채질하여 蘊結되기때문에 생긴다. 症狀은 咽喉部가 돌연 腫痛하며, 呼吸困難, 嚥下困難이 되며 아울러 痰涎 壅盛, 牙關拘急, 意識不清등을 隨伴한다. 牙關緊閉하여 굳게 口噤하는 것을 鎖喉風이라 하며 痰熱이 壅盛하여 咽喉의 内外가 모두 腫痛하며 早速히 頸, 頸, 總, 齒齦 等處로 蔓延되며, 甚한 경우 前胸部에 까지 미치고 呼吸이 促迫해지는 것을 纏喉風이라 한다.

後下(후하)

藥物이 더 좋은 作用을 發揮하게 하기 위하여 어떤 藥은 후하해야 한다. (즉 조금 늦게 투입해서 煎熬한다)예컨대 구등은 구전하면 알격을 상실하므로 다른 藥이 잘 끓을 따를 기다려서 투입하여 2-3배 끓으면 藥湯를 리화한다 發表藥인 薄荷도 구전하면 藥氣를 喪失하므로 後下해야 한다 瀉下藥인 大黃은 먼저 소량의 물에 담겼다가 다른 藥이

잘 끓여 오를 때 投入하여 잠비동한 끓이면 되다

喉核(후핵)

扁桃腺을 말함. 扁桃라고도 하며, 正確히는 口蓋扁桃이다. 喉頭腔內的 咽前柱(舌//弓 즉 口蓋舌弓)와 咽後柱(咽//弓 즉 口蓋咽頭弓)사이에 位置하며, 左右各一이 있다.

熏蒸(훈증)

藥物의 燃燒時에 생기는 煙氣 혹은 藥物을 끓일 때 생기는 蒸氣로써 기체를 熏蒸하여 皮膚의 瘡癬 혹은 其他疾病을 治療하는 것이다. 예컨대 神經性皮膚炎患者에게 風燥濕을 去하는 藥物을 粉末로 하여 여기에 艾絨을 섞어서 細圓筒形이 되게 薄紙로 싸서 불을 붙여 그 煙氣로 患處를 熏한다. 혹은 風濕痺痛을 治療하는데 桑枝 榆皮 桃枝 등을 끓여 木通에 붓고 그 위에 木板을 걸쳐 患者가 걸터앉아 천으로 身體와 木通을 완전히 에워싸서 身體를 熏蒸한다. 本法을 쓸 때는 수시로 患者의 治療部位에 대한 熱感의 정도를 물어서 皮膚의 燙傷을 방지해야 한다. 室內에 煙氣가 彌漫하면 적당히 換氣해야 한다. 小兒의 麻疹으로 이미 疹點이 出現했는데 冒風으로 疹點이 일부 隱沒되면 透達藥을 內服해야 할 뿐만 아니라 芫荽·連翹大蔥·浮萍의 煎湯을 熏하고 아울러 藥液을 타월에 적서 頭面胸腹을 문질러 주면 發疹에 도움이 된다.(문지른 후 吹風을 忌한다)

暈鍼(훈침)

鍼法操作의 異常反應이다. 즉 鍼刺過程에서 病人이 나타내는 頭暈 惡心 胸悶 面色蒼白 심하면 四肢發冷 冷寒 血壓下降 昏厥등의 쇼크 혹은 虛脫現狀이다. 대개 처음으로 鍼治療를 받는 病人에게 너무 강경한 수법을 썼기 때문에 혹은 病人의 精神이 過度하게 緊張하거나 疲勞 飢餓 體弱등의 原因으로 야기된다. 處理方法은 鍼을 拔出하고 患者를 平臥시켜 意識이 있는 상태에서 湯水를 마시게 하고 人中 中沖 等穴을 配合하여 鍼刺하면 緩解된다.

休息痢(휴식리)

下痢가 생겼다가 그쳤다가 하면서 오래도록 낫지 않는 것이다. 그 原因은 痢疾의 初期에, 너무 일찍 止瀉劑를 써서 治療가 不當하므로 腸中の 積熱이 未盡하거나, 혹은 飲食을 失節하거나, 혹은 寒冷한 飲食의 過服으로 因한, 脾腎陽虛의 所致이다.

胸悶(흉민)

濕熱 혹은 痰熱의 邪가 中焦에 阻滯하여, 邪氣가 胸中을 擾亂해서 出現하는 煩悶不舒의 一種의 症狀이다.

胸痞(흉비)

「痞」의 項 參照.

胸痺(흉비)

金匱要略·血痺虛勞病脈證并治에 있음. 陽氣가 正常的인 運行을 하지 못하므로 水飮 或은 痰濁이 胸中을 閉阻하는 病證이다. 主要症狀은 胸背痛 胸中氣塞 呼吸喘促 咳嗽多痰等이다.

胸膺(흉응)

前胸部를 말함.

胸中痞硬(흉중비경)

「痞」의 項 參照.

胸中之府(흉중지부)

背部를 말함. 여기서 「胸中」이란 五臟을 말하며, 背部에 五臟의 俞穴이 있으므로 胸中之府라 한다(素問·脈要精微論에 있음).

胸下結硬(흉하결경)

「胸下」은 橫膈膜의 사이를 말하며, 胸과 橫膈膜 사이가 脹滿 痞硬하고 疼痛하는 症狀이다. 痰濕과 邪熱이 서로 結合되는 데 起因하거나, 或은 脾胃의 虛寒에 瀉下法을 誤用하므로 脾胃가 損傷된 所致이다.

胸脇苦滿(흉협고만)

胸脇部가 滿悶 不舒한 것이다. 이는 足少陽膽經의 氣機가 失調되어 出現하는 症狀의 하나이다. 足少陽의 經絡은 兩脇部에 分布되었는데, 氣機가 鬱結함과 同時에 膽火가 胸膈部에 內鬱하므로, 이런 症狀이 出現한다.

黑帶(흑대)

婦女의 陰道에서 流出되는 黑豆汁과 같은 색깔을 띠고 粘稠하거나 或은 稀薄하며 臭氣나 腥味가 나는 分泌物을 말함. 赤白帶中에 黑色이 섞이는 경우도 있는데 이는 熱이 盛하여 熏蒸해서 腎水가 虧虛한 所致이다.

黑眼(흑안)

「黑睛」의 項 參照.

黑如炭(흑여태)

「素問,五臟生成篇」에 있음. 이는 腎의 眞臟色이다. 태는 灰塵(글음)이다. 灰黑色로 枯槁한 病色을 形容한 것이며, 久病으로 腎氣가 끊어지려 하고, 胃氣가 衰敗한 경우, 例컨대 어떤 惡性腫瘤, 腎上腺皮質機能衰退의 疾患等에서 나타난다. 「眞臟色」의 項 參照.

黑睛(흑정)

「黑眼」, 「風輪」이라고도 함. 眼球의 外觀上 黑色을 나타내는 部分. 解剖學上的 角膜部

分에 該當함.

黑睛破損(흑정과손)

黑眼珠(角膜, 虹彩膜등의 部分을 包括함)가 眼病 或은 外傷에 의해 潰破損傷된 것을 말하며, 이는 一種의 嚴重한 病症이다. 만약 處理를 그르치면 失明에 이를 可能性도 있다.

黑苔(흑태)

舌苔의 灰黑色이며, 裏病과 關聯되고, 病情이 一般的으로 較重하다. 苔가 灰黑色이고 滑潤하며 舌質이 淡白한 것은, 陽虛로 因한 內寒이거나 或은 寒濕이 內伏한 所致이다. 苔가 灰黑하고 乾燥하며, 舌質이 紅絳한 것은 熱極으로 因한 傷陰이다. Addison病(靑銅病)에서 黑苔를 볼 수 있다.

黑風(흑풍)

「五風內障」의 項 參照.

吸門(흡문)

①「會厭」의 項 參照. ②「七衝門」의 項 參照.

吸入(흡입)

어떤 藥物의 연기 혹은 증기를 吸入함으로서 疾病을 治療하는 것이다. 例컨대 慢性氣管支炎으로 咳嗽가 日久한 경우 款冬花末을 담배처럼 종이에 싸서 불을 붙여 그 煙氣를 吸入한다. 혹은 産後에 流血이 過多하여 昏暈한 경우 鐵塊나 혹은 木炭을 燒紅하여 醋안에 넣어 産婦가 그 냄새를 맡게 하면 覺醒한다.

稀涎散(희연산)

「涌痰醒腦」의 項 參照.

稀涎散(희연산)

「頂」의 項 參照.

喜則氣緩(희칙기완)

『素問』『舉痛論』에 있음. 「氣緩」은 心氣의 弛緩을 뜻함. 喜는 사람의 精神을 興奮케 하고, 心情을 舒暢케 하며, 氣機를 通利케 한다. 但, 過喜하면, 도리어 사람의 精神을 散漫케 하고, 心氣를 弛緩시켜, 心悸 失眠, 심지어 精神異狀 等の 病症을 나타낸다.